

# 인천민주화운동사 연표

2014. 12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 ‘인천민주화운동사 연표’를 발간하며

드디어 2년여의 작업 끝에 드디어 ‘인천민주화운동사 연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인천민주화운동을 출간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먼저 ‘인천민주화운동사 연표’를 우선 발간하여 객관적인 사실이나마 우리들의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작업해 왔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인천이 노동운동의 메카니 러시아의 빼빼르부르그니 하였는데 역사의 기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연표조차 없어서 조금은 부끄러웠는데 이를 발간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은 개항과 더불어 많은 굴곡을 겪은 그야말로 우리역사의 현장 그 자체입니다. 외세의 침탈(병인양요, 신미양요), 일제의 침략의 시원지, 많은 민족운동이 펼쳐진 곳, 일제하에서도 노동운동이 활발하던 이곳 인천.

해방 후부터 인천의 민주화를 향한 흐름을 연표로서 정리하였습니다.

이 연표에 많은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여 오기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여 중요한 사건이나 기록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자료를 주시면 이후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록된 것은 고치기 어렵기는 하겠지만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 연표 출간 이후에 내년부터는 인천민주화운동사 편찬 작업에 들어가려 했는데, 내년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작업에 들어 갈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모금을 해서라도 우리들은 인천민주화운동을 편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인천의 민주화운동 동지, 선배, 후배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시대의 소중한 기록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묻혀버릴 것인가를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에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인천민주화운동사 연표’가 소중한 밑천이 되어서 이후에 다양한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더욱 풍부하게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사료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민우

## **‘인천민주화운동사’ 편찬은 인천시민사회의 몫으로 남겨두며**

인천민주화운동사 연표를 내놓으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혹 중요한 사건이 빠지지 않았나, 틀리거나 오기가 있지는 않나, 각 부문운동의 흐름들의 경중에 맞춰 내용 배분과 배치는 제대로 되었는지 등등.

마지막 원고를 넘기기 전까지 자료를 뒤지고, 내용을 알만한 분들을 찾아 전화하고, 인터넷을 뒤지며 분주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외세반대 운동, 민족독립과 해방운동 등 인천의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역사 중에서 45년 이후 민주화운동 역사를 다루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인 만큼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 믿고 저희 센터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역사를 다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바로 역사와 관련한 기초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자료가 풍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민주화 관련 역사는 더욱 생생하게 우리들의 기억에서 살아나고, 풍부하게 해석되고 빛나게 되리라 믿고 시작한 일입니다.

작년 「인천민주화운동 연구와 편찬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4년 본격적으로 기초 자료 수집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인천에 ‘인천민주화운동사’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욕심만을 앞세울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 왔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충분한 사료나 자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나마 연표집이 나오게 된 것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왔던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에도 불구하고 애지중지 지켜왔던 자료를 내놓았고, 기록들을 나름대로 정리해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사료편찬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십시일반 도움과 김현석 위원님의 노고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은 저희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가 했지만 이 작업을 인천민주화운동사 편찬으로까지 발전시켜 마무리해나가는 것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왔던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인천시민의 몫이라 믿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채우고, 제대로 된 인천민주화운동사가 편찬되기를 기대하며 부끄럽지만 연표집을 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 조성혜



## 일러두기

- 본 연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인천지역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시대순으로 엮었다.
- 본 연표에서 다룬 '민주화운동'의 범주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정의에 근거를 두었다.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를 기본 자료로 삼았고, 각 단체들에서 발행한 선전물과 일간신문을 주로 이용하였다.
- 연월일이 불확실한 경우 별표( \* )로 표시하였다.
- 출전 자료의 표기는 '자료명, 생산년월일, 생산자, 소장처 관리번호'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자료일 경우, 등록번호 앞에 'M'을 별도로 붙여 표시하였다. '자료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 ]'으로 묶어 표시하였다.
- 약어나 약칭의 경우는 가능한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였다.
- 인명은, 인천지역 민주·평화·인권운동의 주된 주체가 아닐 경우 가능한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으로 표시하였다.
- 본 연표는 출처가 분명한 자료에 한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월일' 등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향후 자료의 발굴 및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 목 차

|     |              |    |
|-----|--------------|----|
| I   | 1940년대 ..... | 1  |
|     | 1945년 .....  | 3  |
|     | 1946년 .....  | 21 |
|     | 1947년 .....  | 27 |
|     | 1948년 .....  | 29 |
|     | 1949년 .....  | 31 |
| II  | 1950년대 ..... | 45 |
|     | 1950년 .....  | 47 |
|     | 1951년 .....  | 53 |
|     | 1952년 .....  | 55 |
|     | 1953년 .....  | 56 |
|     | 1954년 .....  | 58 |
|     | 1955년 .....  | 60 |
|     | 1956년 .....  | 62 |
|     | 1957년 .....  | 65 |
|     | 1958년 .....  | 69 |
|     | 1959년 .....  | 71 |
| III | 1960년대 ..... | 77 |
|     | 1960년 .....  | 79 |
|     | 1961년 .....  | 90 |

|             |     |
|-------------|-----|
| 1962년 ..... | 96  |
| 1963년 ..... | 98  |
| 1964년 ..... | 101 |
| 1965년 ..... | 104 |
| 1966년 ..... | 106 |
| 1967년 ..... | 108 |
| 1968년 ..... | 116 |
| 1969년 ..... | 119 |

#### IV 1970년대 ..... 123

|             |     |
|-------------|-----|
| 1970년 ..... | 125 |
| 1971년 ..... | 128 |
| 1972년 ..... | 135 |
| 1973년 ..... | 137 |
| 1974년 ..... | 141 |
| 1975년 ..... | 155 |
| 1976년 ..... | 158 |
| 1977년 ..... | 165 |
| 1978년 ..... | 168 |
| 1979년 ..... | 175 |

#### V 1980년대 ..... 179

|             |     |
|-------------|-----|
| 1980년 ..... | 181 |
| 1981년 ..... | 193 |
| 1982년 ..... | 197 |

|             |     |
|-------------|-----|
| 1983년 ..... | 200 |
| 1984년 ..... | 207 |
| 1985년 ..... | 221 |
| 1986년 ..... | 251 |
| 1987년 ..... | 271 |
| 1988년 ..... | 342 |
| 1989년 ..... | 406 |

## VI 1990년대 ..... 475

|             |     |
|-------------|-----|
| 1990년 ..... | 477 |
| 1991년 ..... | 520 |
| 1992년 ..... | 549 |
| 1993년 ..... | 573 |
| 1994년 ..... | 592 |
| 1995년 ..... | 615 |

## 주요 참고문헌 ..... 635

1940년대

1945 ~ 1950



# 1945년

## 08. 15

- 인천 시민 수백 명이 오후 6시경 애관극장 앞길에서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내동 사거리를 거쳐 일본인 마을로 행진

임명방, 「인중 시절과 태극기에 대한 기억」, 161쪽(1994, 『황해문화』 2-4, 새얼문화재단)

- 조봉암, 1월에 예비구금령으로 구속돼 헌병대 감방에 갇혔다가 석방됨. 8월 16일 인천보안대 조직

이원규, 『조봉암평전』, 619쪽(2013, 한길사)

## 09. 08

- 인천항에 입항하는 미군 환영행사 자리에서 경비를 담당하던 일본인 경찰관이 환영시위 군중에 발포. 노동조합 인천중앙위원장 권평근, 보안대원 이석우 등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14명의 사상자 발생

이현주, 「해방과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인천」, 50쪽(1999, 『황해문화』 7-4, 새얼문화재단)

## 09. 10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9월 8일 인천항 미군 환영행사장에서 일본인 경찰관의 발포로 사망한 권평근·이석우의 장례식을 시민장으로 치름

이현주, 「해방과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인천」, 50쪽(1999, 『황해문화』 7-4, 새얼문화재단)

## 10. 06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미군정이 실시되고 신임 인천시장과 인천경찰서장이 임명되자 ‘시장과 서장 선거는 시민의 총의’에 따라 선출돼야 한다고 밝히고 4대 요구사항 제기

### 〈4대 요구사항〉

1. 시장과 서장 선거는 총의에 의할 것
2. 일본제국주의 시정 하에 임명된 정회장(町會長)은 개선할 것
3. 교통상 불편하니 상인천역을 개방할 것

1945년

4. 의약품이 없어 보건상 가장 큰 지장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를 귀국에서 수입하여 줄 것

이현주, 「해방과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인천」, 50~51쪽(1999, 『황해문화』 7-4, 새얼문화재단)

## 10. 07

- 인천실업자동맹, ‘용운정(龍雲町)’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강령 채택. 위원장에 송봉기, 부위원장에 이두문 선출

### 〈조직 구성〉

| 직책   | 이름  | 직책  | 이름       |
|------|-----|-----|----------|
| 위원장  | 송봉기 | 조직국 | 문 석, 심만택 |
| 부위원장 | 이두문 | 원호국 | 이창식      |
| 서기국  | 송봉기 | 조사국 | 이두문, 김일성 |

### 〈강령〉

1. 모든 실업자에게 직장을 주라
1. 일체의 해고나 면직은 절대 반대다
1.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으로 주라
1. 실업자를 위한 무료숙박소와 식당을 설치하라
1. 모든 정당 안에 실업대책위원회를 조직하라
1. 실업자 원호기관은 국영으로 하라
1. 실업자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라

『대중일보』 제9호(1945. 10. 15, 대중일보사)

## 10. 11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발전적 해체를 하기로 결정하고 인천시 인민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를 인천영화극장 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사무소에서 개최. ‘인천시정(仁川市政)은 인천시민의 힘으로’라는 표어 아래 ‘정강’과 ‘시정방침’ 결정

### 인천시 인민위원회 ‘정강 · 시정방침’

#### 〈정강〉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1.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세력을 일소하고 전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충실하기를 기함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급(及) 기타 일절 대중생활의 급진적 향상을 기함
1. 우리는 세계민주주의 제국(諸國)의 일원으로서 상호제휴하여 세계평화의 확보를 기함

#### 〈시정방침〉

1. 일본제국주의의 법률제도 즉시 철폐
2. 일본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이를 농민에게 무상 분배함. 단, 비몰수 토지의 소작료는 37제로 실시함
3. 일본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들의 광산, 공장, 철도, 항만, 선박, 통신기구, 금융기관 급(及) 기타 일체 시설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4. 민족적 상공업은 국가의 지도하에서 자유 경영함
5. 공업의 급속한 발달을 위한 제정책의 실시
6.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급(及) 신앙의 자유
7. 18세 이상 남녀인민(민족반역자는 제외함)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향유
8. 모든 특권을 말살하고 전인민의 절대평등
9. 부인의 완전한 해방과 남녀 동권(同權)
10. 8시간제 노동실시, 만14세 이하의 소년노동금지, 만18세 이하의 청년노동은 6시간제로
11. 최저임금제 확립
12. 표준생활에 의한 최저생활의 확보
13.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의 생활의 급진적 향상
14. 실업방지와 그 구제 대책의 확립
15. 평화산업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필수품의 확보
16. 생활필수품의 공정평등한 배급제도 확립

『대중일보』제8호(1945. 10. 14, 대중일보사)

1945년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오후 1시 인천영화극장 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사무소에서 인천시 인민위원회 결성. 조선인민중앙위원회 최용달·박석하 등과 조봉암, 김용규, 박남칠 등 200여 명이 참석. 위원장에 김용규, 부위원장에 박남칠, 상무위원에 이보운을 선출하고 결의문 채택.

‘인천시 인민위원회’ 결의문

우리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절대 지지하며 그의 지시를 절대 복종한다

이유

1. 조선의 완전 해방은 조선민족의 절대 다수를 점한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 급(及) 빈민 등 근로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진실한 해방이 없이는 완전한 민족해방은 있을 수 없다.
2. 조선인민공화국에 선출된 대다수의 중앙인민위원은 반생 또는 일생을 가혹한 탄압 하에서 조선민족해방을 위하여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8월 15일 차후(次後) 즉출(簇出)한 급조(急造) 우국지사의 일신일당을 위한 이기적 교묘한 정강정책의 기만 상표(商標)는 이를 배격함
3. 정치문제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의 모든 성명을 전적으로 지도함
4. 완전무결한 정강정책도 계양(揭揚)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요(要)는 실천에 있다. 투쟁경험이 풍족한 혁명적 동지의 희생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右) 결의함

1945년 10월 16일

조선인민공화국 인천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박남칠

상무위원 이보운

외 24명

『대중일보』 제12호(1945. 10. 18, 대중일보사)

『자유신문』 제17호(1945. 10. 21, 자유신문사)

**10. 18**

- 제물포시내 33개 이발업자들, 이발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시작. 기존 요금인 대인 기준 1원 50전을 2원 50전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안서장이 2원 인상만을 승인하자 전면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10월 19일, 2원으로 타협한 후 업무 개시함

『대중일보』 제13호(1945. 10. 19, 대중일보사)

『대중일보』 제14호(1945. 10. 20, 대중일보사)

**10. 19**

- 조선영사기술종업원동맹 인천지부 결성식이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영화극장에서 거행됨

『대중일보』 제60호(1945. 10. 22, 대중일보사)

**10. 25**

- 고려청년당 인천지부, 인천자유노동조합 창설. 한국민주당 인천지부 간부로 있던 유창호가 노동조합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으나 부두노동 경험 이 많은 임귀섭을 추천해 위원장으로 선출함

『대중일보』 제18호(1945. 10. 24, 대중일보사)

『인천항변천사』, 85~86쪽(1995, 인천항운노동조합)

**10. 27**

- 인천지구노동조합, 인천실업자동맹회관에서 자동차 운전수들을 대상으로 교통노동조합 결성대회 개최

『대중일보』 제21호(1945. 10. 27, 대중일보사)

**11. 01**

- 인천교육자동맹, 창영학교 강당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개최. 이 날 김학경(金鶴經) 외 15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선언과 강령 등을 채택함

## 인천교육자동맹 ‘선언·강령·주장과 실천’

## 〈선언〉

우리는 동일한 이념 밑에 양심적 책임을 건지하고 해방 조선의 교육

완성을 기하여 헌신함을 선언함

〈강령〉

1. 우리는 과거의 제국주의 교육을 타파하고 진보적인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과 실천을 기함
2. 우리는 전인천교육기관의 자주적 확립과 학원의 자유를 기함
3. 우리는 과학적 교육실천을 통하여 조선의 세계적 문화발전에 공헌함을 기함

〈주장과 실천〉

1. 교육은 국가경영으로
2. 교육행정은 교육자의 손으로
3. 교육의 기회균등
4. 국민도덕확립
5. 교육자와 학도보전은 국가부담으로
6. 새로운 시험검정제도의 확립
7. 교육의 사회화  
공장으로 - 광산으로- 농촌으로- 어촌으로- 그밖에 모든 일터로-
8. 문화시설의 확충과 개방
9. 계급별의 완전철폐
10. 근로의무관과 자유평등의 사회관을 수립
11. 과학교육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
12. 순정(醇正)한 국어과 국교의 급속한 보급
13. 사실에 입각한 진정한 역사교육의 수립
14. 인민교육의 체계와 교재지도법의 연구
15. 교육자는 학원적 양심을 견지하자
16. 남녀교원의 차별대우 철폐
17. 교육자의 생활 확보와 사회적 지위 향상
18. 학부형과의 긴밀한 연락

『대중일보』 제28호(1945. 11. 03, 대중일보사)

11. 05

- 인천시 인민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서와 임원 결정

## 〈조직 구성〉

| 직위   | 성명  |
|------|-----|
| 위원장  | 김용규 |
| 부위원장 | 박남철 |
| 총무부장 | 이보운 |
| 보안부장 | 김형원 |
| 재정부장 | 문두호 |
| 문교부장 | 이기정 |
| 산업부장 | 윤석준 |
| 선전부장 | 이상운 |
| 노동부장 | 한기동 |

『대중일보』 제33호(1945. 11. 08, 대중일보사)

- ‘인천지구 노동조합평의회’ 대표·금속노조·토건노조·식료품노조·실업자동맹·자유노조 등 8개 노동단체 대표들이 인천시청 제2회의실에서 시장, 상공과장 등과 함께 ‘노동회의’ 개최

『대중일보』 제33호(1945. 11. 08, 대중일보사)

『대중일보』 제34호(1945. 11. 09, 대중일보사)

**11. 08**

- ‘인천지구 노동조합평의회’, 광통사(廣通社)에서 좌담회 개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개황 보고’(주재복), ‘38도 이북의 실황보고’(안철욱), ‘인민공화국과 인민의 임무’(이승엽) 등을 발표

『대중일보』 제35호(1945. 11. 10)

**11. 10**

- 경기도 인민위원회 결성식 개최. 박남철이 부위원장, 이보운이 산업부 차장 등으로 선출

『대중일보』 제37호(1945. 11. 12, 대중일보사)

- 부녀동맹 인천지부, 김조이가 주간이 되어 결성 준비를 진행 중 ‘선언’과 ‘강령’ 발표

『대중일보』 제37호(1945. 11. 12, 대중일보사)

‘부녀동맹 인천지부’ 선언 및 강령

〈강령〉

1. 조선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기함
2. 조선여성은 단결을 굳게하여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에 일익이 되기를 기함
3. 조선여성의 의식적 계몽과 실질적 향상을 기함

〈행동강령〉

1. 남녀평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창한다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확보한다
3. 여성의 자주적 경제생활권을 확립하자
4. 남녀임금차별을 철폐하라
5. 공사창제도와 인신매매를 철폐하라
6.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설을 실시하자
7. 여성의 대중문맹과 미신을 타파하자
8. 우리는 창조적인 여성이 되자

『대중일보』 제37호(1945. 11. 12, 대중일보사)

김조이 여사 담(談)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 조선여성들에게도 신국가건설에 크나큰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권리를 잃은 것은 이미 옛 역사에 속한 것입니다. 새조선의 건설은 우리 여성이 인간적으로 해방되어 남성과 같이 공동의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오늘날 조선 여성의 사명은 실로 중대합니다. 군국주의 일본의 노예적 혹사(酷使)와 조선의 봉건적 인습 등은 우리 여성들에게 모든 자유를 끝까지 속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민족애의 불타는 정열과 자기 자신의 인간적 해방을 동경하고 강력히 희망하고 있던 것은 사실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해방 조선의 건설에 당당히 참가할 임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

과 임무는 조직과 훈련을 통하여서만 될 수 있는 것이니 우리의 “부녀동맹 인천지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 단계에 있어서 각 층 각 계급의 여성대중의 정열과 정의감을 이 조직 내에 집결시켜서 새조선의 건국사업의 일부분의 역할을 분담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철저적 해방을 위하여 전면적 활동을 전개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대중일보』 제37호(1945. 11. 12, 대중일보사)

## 11. 11

- 인천지구 노동조합평의회, 창영학교 대강당에서 「소련혁명기념일 기념강연회」 개최

### 〈강연 구성〉

| 강연 주제       | 강사              |
|-------------|-----------------|
| 11월 7일의 의의  | 인천지구노조 김종원      |
|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 인천지구노조 임남희      |
| 38도문제에 대하여  | 전 건준 조사부 안철욱    |
| 청년의 당면한 임무  | 조선공청동맹 인천위원 김간해 |

『대중일보』 제34호(1945. 11. 09, 대중일보사)

- 부녀동맹 인천지부, 오후 1시부터 창영학교 강당에서 시국대강연회 개최

### 〈강연 구성〉

| 강연 주제              | 강사                 |
|--------------------|--------------------|
| 여성해방이란 무엇인가?       | 부녀동맹 고명자           |
|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 최용현                |
| 역사와 투쟁             | 부녀동맹 최옥희           |
| 조선청년의 갈 길          | 조선공산청년동맹 인천위원회 김종원 |
| 조선의 여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여공 홍중희             |
| 전쟁은 끝났다            | 임남희                |

『대중일보』 제36호(1945. 11. 11, 대중일보사)

- 유두희 사망. 『대중일보』는 ‘인천노동사상에 잊지 못할 무산계급투사’라고

1945년

호칭합

〈주요 연보〉

- 1901년 강화 출생
- 인천영화학교 졸업, 동경 유학
- 한용청년회, 제물포청년회 등 청년운동 전개
- 1925년 이후 무산청년동맹을 비롯, 각 지역청년회를 결성, 지도하는 한편 노동조합,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인천 최초의 공산당 및 공산청년동맹원으로 지하운동 전개
- 『중외일보』 기자, 『무산자신문』 지점장 등 역임
- 조선노동동맹, 경기도청년연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19년 5월 제2차 조선공산당사건으로 피검

『대중일보』 제38호(1945. 11. 13, 대중일보사)

『대중일보』 제39호(1945. 11. 14, 대중일보사)

#### 11. 25

- 자유노동조합 · 부두노동조합 · 염업운수노동조합 · 자동차교통노동조합 인천 분회 등 인천지역 4개 노동조합이 참가하여 무덕관에서 ‘조선교통운수 노동조합 인천지부’ 결성식을 개최하고 21명의 집행위원 선출

『대중일보』 제51호(1945. 11. 26, 대중일보사)

『대중일보』 제53호(1945. 11. 28, 대중일보사)

#### 11. 27

- 조선인민당 인천지부 결당식이 인천실업자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됨

『대중일보』 제54호(1945. 11. 29, 대중일보사)

#### 11. 28

- 인천 신문·통신사 현역기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인천신문기자회, 흥업회사 2층에서 결성식 개최. 의장에 대중일보사 편집국장 엄홍섭을 비롯 상임위원을 선출한 후 선언·강령을 채택하고 폐회. 이 날 ‘대한민국임시정부 환영준비위원회’ 발기인 가담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됨



## 〈상임위원 구성〉

| 직책   | 성명  | 직책  | 성명  |
|------|-----|-----|-----|
| 위원장  | 엄홍섭 | 사업부 | 김도인 |
| 부위원장 | 손계언 |     | 임갑수 |
| 총무부  | 이약실 | 조사부 | 이희영 |
|      | 윤기홍 |     | 송종호 |
|      | 손계언 | 연구부 | 서봉도 |
| 연락부  | 이원창 |     | 이약실 |
|      | 한재성 | -   |     |

## 〈참가 회원사 및 참가 인원〉

| 회원사 명 | 참가 인원(명) | 회원사 명  | 참가 인원(명) |
|-------|----------|--------|----------|
| 중앙신문  | 1        | 독립신문   | 1        |
| 조선일보  | 2        | 조선경제신문 | 1        |
| 조선인민보 | 2        | 조선공업신문 | 1        |
| 자유신문  | 2        | 대중일보   | 7        |
| 조선통신  | 1        | 합계     | 19       |

## ‘인천신문기자회’ 선언

반세기 동안이나 우리 동포를 야만적으로 강압하고 착취하던 일본제국주의의 철쇄(鐵鎖)는 마침내 절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방(一方)으로 우리 동포의 삶과 뼈 속에는 아직도 그 악독한 쇠편(鎖片)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며 타방(他方)으로 일본제국주의자의 조선사정에 대한 기만적 선전은 연합국으로 하여금 조선의 현하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곤란케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로서 남아 있는 흔적은 우리의 힘찬 건설로서만 퇴치될 것이요 이에 대한 모든 지장(支障)이 완전히 배제되고서야만 씩씩한 건설도 있을 수 있다. 우리들 뜻을 든 자 진실로 우리의 국가 건설에 대한 제장해물을 정당히 비판하여 대중 앞에 그 정체를 밝힘으로서 민족 진로에 등화가 될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단순한 춘추의 필법만으로서 우리는 만족치 않는다. 때는

바야흐로 우리에게 필봉의 무장(武裝)을 요구한다. 모든 민족적 건설에 한 개의 추진이 되고 따라서 민중의 지향을 밝게 하는 거화(炬火)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붓[筆]은 꺾어진 붓이며, 무능력한 붓이다. 민중이 갈망하는 바는 우리의 힘 있고 바르고 용감한 필봉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중적 요망에 저버림이 없도록 진력한다. 민중의 진로에 대한 찬란한 거화를 이루어 조선사정을 국제적으로 정확히 보도하는 침로(針路)가 되기를 기도(企圖)한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목표를 수행함에는 먼저 우리들의 결속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에 있어 우리는 철석같은 단결된 힘을 가지려 한다. 그리고 참된 민족해방을 위한 역사적 정의를 발양하는 강력한 필봉을 가지기를 기도한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서만 민족의 완전독립에의 길이 열릴 것이다. 신문이 흔히 「불편부당(不偏不黨)」을 말하나 이것은 흑백을 흑백으로서 가리어 추호도 왜곡치 않는 것만이 진정한 「불편부당」인 것을 확신한다. 엄정중립이라는 기회주의적 이념이 적어도 이러한 전민족적 격동기에 있어서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우리는 용감한 전투적 언론진을 구축하기에 분투함을 선언한다.

#### 〈강령〉

1. 우리는 민족의 완전독립을 기한다.
1. 우리는 언론자유를 확보를 기한다.
1. 우리는 인민의 정의를 옹호하고 진보적 문화건설을 기한다.

『대중일보』 제55호(1945. 11. 30, 대중일보사)

### 11. 29

- 부인(富仁) 농민조합, 영화여학교 강당에서 창립총회 개최. 인천시와 부천군에 걸쳐 조합원 총수는 3105명에 달함. 인천시 인민위원회 박남철, 노조 평의회 김기양, 교통노조 박정하, 실업대책위원회 조봉암 등이 참석해 축하를 함

## 〈조직 구성〉

| 직위   | 성명                                               |
|------|--------------------------------------------------|
| 위원장  | 김봉진                                              |
| 부위원장 | 박영진, 김상중                                         |
| 총무부  | 이두천, 최두순, 송영주                                    |
| 조직부  | 이종근, 천완근, 김창실, 최용석                               |
| 선전부  | 이두천, 이근호, 오일우, 정두성, 윤원                           |
| 교양부  | 이상옥, 노계하                                         |
| 쟁의부  | 구병서, 정○룡, 김의동, 이난의, 천성록, 박운락, 이의석, 이강윤, 임윤선, 김동길 |
| 공제부  | 최춘문, 하세창, 김인룡, 정홍택                               |
| 청소년부 | 간해, 김종현, 김진환                                     |
| 부인부  | 미정                                               |

## ‘부인(富仁) 농민조합’ 결의문

민주주의국 연합군은 전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특히 약소민족 해방과 노동자 농민의 자유와 해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것이다. 8월 15일을 계기로 하여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적 압제와 착취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와 독립이 약속되었다. 과거 대동아전쟁이라는 살인강도적 침략전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들 농민은 강제공출과 징용보국대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받아오다가 해방이 약속된 오늘에 있어 농민의 형편을 보면 생활필수품의 결핍, 물가폭등 등에 의한 악성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농민의 생활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농민은 전국적으로 농민조합운동을 전개시켜 농민의 경제생활 향상을 기하며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획득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근본적 개혁을 기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농민은 좌와 같이 주장한다.

1.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세력과 민족반역자 친일파를 철저히 소탕할 것
1. 전인구의 9할 5푼이 되는 농민과 노동자 소시민 지식층의 이

1945년

권을 대표하는 인민공화국을 절대 지지한다.

조선완전독립만세

노동자농민의 단결만세

1945년 11월 2일

부인농민조합결성회

『대중일보』 제56호(1945. 12. 01, 대중일보사)

### 11. 30

- 조선혁명자구원회(朝鮮革命者救援會) 인천지부, 내리교회에서 결성식을 개최하고 임원 선출. 사무소는 '본정(本町) 4정목(丁目)' 전 정자옥(丁子屋)에 마련함

#### 〈발기인〉

문두호, 신태범, 장석진, 김진택, 박태형, 정수근, 이원창, 최성진, 임갑수, 손계언, 김도인, 조상길, 윤기홍, 김상중, 이약실, 김형원, 이희영, 음학균, 강봉희, 김구복, 박성원, 주석룡, 강명희, 김영근, 송두순, 배정곤, 김태룡

#### 〈조직 구성〉

| 직위      | 성명                                     |
|---------|----------------------------------------|
| 고문      | 임홍재, 김용규, 박남철, 김세완, 조봉암, 엄홍섭, 송두후, 방준경 |
| 위원장     | 문두호                                    |
| 서기국 서기장 | 김형원                                    |
| 비서기획부   | 이준호                                    |
| 정보조사부   | 한재성                                    |
| 조직선전부   | 이원창                                    |
| 구원부     | 서봉도                                    |
| 재정사업부   | 이약실, 윤치봉                               |

『대중일보』 제55호(1945. 11. 30, 대중일보사)

『대중일보』 제57호(1945. 12. 02, 대중일보사)

## 12. 03

- 인천공설운동장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봉영대회」 개최.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해 '임시정부를 절대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상인천역까지 시가행진 전개

『동아일보』 제5호(1945. 12. 05, 동아일보사)

## 12. 14

- 인천문학동맹 준비위원회, 문예탑사(文藝塔社)에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성대회 개최 계획 마련

『대중일보』 제71호(1945. 12. 16, 대중일보사)

## 12. 15

- 인천자유노동조합 소속 화수동 소재 신탄육양장(薪炭陸揚場) 노동자 60여 명,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동맹파업 돌입.

『대중일보』 제72호(1945. 12. 17, 대중일보사)

## 12. 16

- 인천청년동맹, 무덕전(武德殿)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및 '4대 결의문' 발표

## 〈조직 구성〉

| 직책     | 성명       | 직책     | 성명  |
|--------|----------|--------|-----|
| 위원장    | 황선흥      | 정보조사부장 | 장석원 |
| 부위원장   | 최진태, 조규원 | 경리부장   | 강정덕 |
| 총무부장   | 김원근      | 소년부장   | 조억태 |
| 조직부장   | 권문수      | 체육부장   | 황용운 |
| 선전교양부장 | 최진태      | 원호부장   | 임건호 |

## 〈4대 결의문〉

1. 조선인민공화국을 절대 사수할 것
1. 인천군정관 스틸맨 중좌에게 감사문을 보낼 것
1. 인천시 인민위원회에 감사와 격려문을 보낼 것
1. 인천시장에게 감사문을 보낼 것

『대중일보』 제71호(1945. 12. 16, 대중일보사)

『대중일보』 제73호(1945. 12. 18, 대중일보사)

1945년

- 부녀동맹 인천지부, 창영학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창례, 부위원장에 김조이, 위원 이복연 외 26명을 선출

『대중일보』 제74호(1945. 12. 19, 대중일보사)

- 조선출판노동조합 인천지부 결성. 인천지역 인쇄 직공들이 주축이 되어 신정(新町) 삼일상회(三一商會) 2층에서 결성식을 열고 김수근(金壽根)을 임시의장으로 선출.

『대중일보』 제73호(1945. 12. 18, 대중일보사)

- 전인천고려불교회 총본부 혁명투사영령제위원회, ‘혁명투사영령제’ 거행

『대중일보』 제69호(1945. 12. 14, 대중일보사)

## 12. 20

- 조선출판노동조합 인천지부, 삼일상회에서 제1회 집행위원회를 열고 부서와 임원을 결정

### 〈조직 구성〉

| 직책   | 성명  | 직책     | 성명                                         |
|------|-----|--------|--------------------------------------------|
| 위원장  | 김수근 | 재정부    | 이인모                                        |
| 부위원장 | 김홍근 | 청소년부   | 이인준                                        |
| 서기부  | 김인태 | 쟁의부    | 한영수                                        |
| 조직부  | 김홍근 | 실업부    | 장완상                                        |
| 선전부  | 김수근 | 분회대표위원 | 장완상, 오기윤,<br>임정오, 정창룡,<br>손경식, 송금룡,<br>이인준 |
| 조사부  | 김응식 |        |                                            |

『대중일보』 제78호(1945. 12. 23, 대중일보사)

## 12. 21

- 인천문학동맹, 문예탑사(文藝塔社)에서 임시총회 개최. 선언·강령·규약을 제정하고 기관지로 『인민문학(人民文學)』을 발간하기로 결정

### ‘인천문학동맹’ 선언

친애하는 우리 형제자매여. 오랜 굴욕의 날 압박과 착취의 긴 날은 끝나고 자유와 해방의 날은 왔다. 그러나 일방(一方)으로 우리 동포의

살과 뼈 속에는 아직도 그 악독한 쇠편(鎖片)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며 타방(他方)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주구배와 민족반역자들이 가진 모략과 음모는 민족통일과 자주독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우리들 문화에 종사하는 자, 특히 문학에 종사하는 자로써 이 과도기적인 정치형태에 처하여 우리들이 가진 바 최선의 정열을 태울 때임은 물론이고 36년간 왜곡된 예술운동이 사지(死地)를 벗어나 새로운 상식과 새로운 양식을 탐구함은 우리들의 의무일 것이다. 이 임무는 전조선문화종사자 급(及) 예술가의 일치단결의 토대에서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까닭에 지방에 있는 우리 문학인들도 단결하여 중앙과 유기적인 연락을 긴밀히 취함으로서 조선의 문화운동은 통할적으로 완수될 것이다. 우선 현 단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진보적 민족문학의 건설함을 통하여 신생될 국가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사적인 문화이념의 일환으로서의 우리들의 임무는 실로 막대한 바가 있다. 이에 인천에 있는 문학인들은 일치노력하여 우리의 쌍견(雙肩)에 부과된 사명을 위해 과감히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

〈인천문학동맹 강령〉

1. 일본제국주의의 소탕
2. 국수주의의 배격
3. 봉건입헌잔재의 소탕
4. 진보적 민족문학의 건설
5. 조선문학의 국제문학과와의 제휴

1945년 12월 18일

인천문학동맹

『대중일보』 제78호(1945. 12. 23, 대중일보사)

## 12. 29

- 인천시 각 동회장들, 동회장 회의가 끝난 후 인천 시내 명월관에 모여 신탁통치 반대 결의문 발표

1945년

〈결의문〉

3국외상회의에서 결의된 우리 조선신탁통치를 절대로 반대하는 동시에  
공약한 자주독립을 즉시 실시하기를 요망함

우(右) 결의함

1945년 12월 29일

인천시 동회장 일동

『대중일보』 제84호(1945. 12. 18, 대중일보사)

**12. 30**

- 인천청년동맹, '근로대중의 위안'을 목적으로 인천음악동맹과 인천교육자동맹이 출연하는 「근로자 음악의 밤」을 창영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

『대중일보』 제83호(1945. 12. 29, 대중일보사)

**12. 31**

- 인천국립중앙관상대를 포함한 남한 전역의 관상대가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전개하며 파업 돌입

『동아일보』 제33호(1946. 01. 02, 동아일보사)



# 1946년

## 01. 08

- 인천군정청, 파업 소요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인천지역 일대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잠정적인 통행제한 실시

『경향신문』 제5호(1946. 10. 10, 경향신문사)

## 01. 10

- 경성전기주식회사 인천지점 전공회(電,工會) 결성식 개최

오오타 오사무, 「해방직후 어느 노동자의 일상생활 -인천의 전기공 I씨의 일기로부터」, 『민족문화연구』 57, 322쪽(200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01. 20

- 조선과학자동맹, 창영학교에서 '신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로 강연회 개최

『대중일보』 제102호(1946. 01. 20, 대중일보사)

## 02. 07

- 민주주의민족전선 인천시위원회, 인천시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각 단체 대표, 동회장, 지역 유지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 개최

『대중일보』 제123호(1946. 02. 11, 대중일보사)

## 05. 01

- 광복 후 인천지역의 첫 메이데이 기념식이 도원동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됨. 인천지역 60여 개 노동단체 참가. 동양방적공사 노동자 900여 명이 메이데이 행사에 참석하자 회사 측에서 메이데이에 쉬는 대신 5월 5일 대체 근무를 지시.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 측은 노동조합위원장 윤한수와 3명을 태업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넘김.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즉시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오히려 경찰을 불러 노동자 8명을 검거함.

『대중일보』 제202호(1946. 05. 03, 대중일보사)

## 05. 07

- 인천 주둔 미군 CIC가 인천신문사를 기습하여 간부들을 체포하고 다수의 문서 압수

1946년

『대중일보』 제214호(1946. 05. 15, 대중일보사)

05. 08

- 동양방직공사 인천공장 노동자 700여 명,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파업에 참가한 인원 중 450여 명은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서울 사무실에 머물며 본사를 상대로 농성 전개. 이들은 '8시간 노동제, 현 일당 2원 50전을 15원으로 인상, 물가수당 지급, 공휴일 유급제' 등을 요구.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6월 5일 동양방직 사장에 항의문 발송

『동아일보』 제183호(1946. 06. 08,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제186호(1946. 06. 11, 동아일보사)

05. 19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인천지부, 인천공설운동장에서 「독립전취(獨立戰取) 인천시민대회」 개최. 대회가 끝난 후 서울에서 내려온 반탁학생전국총연맹원 70여 명과 인천지역 노동조합원들 사이에 격투가 벌어져 10여 명이 부상을 당함. 인천지역 노동조합원 5명에 대해서는 「군정법령 제72호」가 적용돼 6월 6일 징역 90일, 벌금 3500원 등의 언도가 내려짐

『동아일보』 제165호(1946. 05. 21,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제184호(1946. 06. 09, 동아일보사)

05. 31

- 동양방직 인천공장 남녀공원 500여 명, 대우개선과 해고된 노동자 17명의 복직을 경영주에 요구하였으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청에 몰려가 시장에게 호소

『대중일보』 제231호(1946. 06. 01, 대중일보사)

06. 11

- 민주주의민족전선 인천지부장 조봉암, 인천 CIC에 검거되어 구속됨. 6월 22일 석방

『동아일보』 제192호(1946. 06. 17,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제200호(1946. 06. 25, 동아일보사)

06. 23

- 민주주의민족전선 인천지부, 인천공설운동장에서 「미소공위 속개 촉진 인천시민대회」 개최. 이 자리에서 인천지구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석이 인천 CIC의 명령을 받은 인천경찰서 정보계원에게 체포됨. 이날 인천시민대회장과 각 관공서, 신문사 등에 조봉암 명의의 성명서가 배포됨.

『대중일보』 제252호(1946. 06. 24, 대중일보사)

## 조봉암 명의의 성명서

-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당의 윤곽은 여좌(如左)함
- 一, 연합국의 승리에 의하여 그들의 호의로써 해방의 기쁨을 얻은 우리 조선민족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건설한 자유의 국가를 건설함에 있고 어느 일계급이나 일정당 독재나 전제이어서는 안된다는 것
  - 二, 조선민족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민족전체가 요구하는 통일된 정부를 세울 것이고 공산당이나 민주의원(民主議院) 독점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 三, 현재 조선민족은 공산당 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조선공산당의 계획으로 된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와 민주주의민족전선 등으로써 정권을 취하려는 정책은 단연 반대한다는 것
  - 四, 우리 조선민족은 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연합국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며 또 진심으로 협력하여 건국에 진력할 것이요 지금 공산당과 같이 소련에만 의존하고 미국의 이상을 반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
  - 五, 조선의 건국은 민족 전체와 자유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독재나 자본계급의 전제를 반대한다는 것

1946년 6월 23일

조봉암

『대중일보』 제252호(1946. 06. 24, 대중일보사)

『동아일보』 제200호(1946. 06. 25, 동아일보사)

## 07. 06

- 인천차륜(仁川車輪) 노동자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분회 결성식 거행

『동아일보』 제206호(1946. 07. 11, 동아일보사)

## 07. 13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인천자유노동조합 지부 결성.

『한국노총 50년사』, 290쪽(200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08. 03

- 동양방적 인천공장 노동자들,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탈퇴하고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가입

1946년

『동아일보』 제232호(1946. 08. 10, 동아일보사)

08. 11

- 기독교청년회 인천시연합회(기청 인천연합), 제2공회당에서 시국대강연회 개최.

『대중일보』 제296호(1946. 08. 10, 대중일보사)

09. 01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인천연맹 결성식이 이승만이 참석한 가운데 답동에서 개최됨. 위원장에 유창호 선출

『동아일보』 제252호(1946. 09. 03, 동아일보사)

『인천항변천사』, 95~96쪽(1995, 인천항운노동조합)

09. 07

- 경성전기주식회사 종업원회 인천지회 결성식 개최

오오타 오사무, 「해방직후 어느 노동자의 일상생활 -인천의 전기공 I씨의 일기로부터」, 『민족문화연구』 57, 323쪽(200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09. 28

- 경성전기주식회사 인천지점 노동자 3000여 명, 총회를 열고 5개조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총파업 시작.

#### 〈5개조 요구사항〉

1. 가족에는 쌀 3홉[습], 종업원에게는 4홉[습]
2. 물가수당 2000원, 가족수당 600원
3. 무조건 해고 절대반대
4. 공제회비는 종업원회에 맡길 것
5. 단체계약을 실시할 것

오오타 오사무, 「해방직후 어느 노동자의 일상생활 -인천의 전기공 I씨의 일기로부터」, 『민족문화연구』 57, 325쪽(200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0. 01

- 조선강업 노동자 130여 명, ‘해고절대반대, 가족수당 1인당 600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대중일보』 제345호(1946. 10. 03, 대중일보사)

- 조선기계제작소 노동자 1000여 명, 파업 돌입

『대중일보』 제345호(1946. 10. 03, 대중일보사)

- 조선중연(鍾淵)공업 노동자 80여 명, 파업 돌입

『대중일보』 제345호(1946. 10. 03, 대중일보사)

10. 02

- 조선차륜(朝鮮車輪) 노동조합 조합원 300여 명, 조선기계제작소와 조선제동소(朝鮮製銅所) 노동자들과 함께 조선차륜공장 안에서 일하던 600여 명의 노동자들을 공격.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400여 명이 국방경비대 등에 의해 체포됨

『동아일보』 제272호(1946. 10. 04, 동아일보사)

10. 03

- 인천항만을 포함한 남한 내 주요 항만 선원 1만여 명, '실업선원의 생활보장, 적산 선박의 민주관리 확립, 물가수당 2000원 지급' 등 12개조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파업 단행

『동아일보』 제272호(1946. 10. 04, 동아일보사)

10. 06

- 신원불명의 청년 50여 명이 인천시 민주청년동맹, 민주주의민족전선 인천지부, 인민당 인천지부 및 휴간 중인 인천신문사 등을 습격하여 약 15명의 부상자 발생.

『동아일보』 제274호(1946. 10. 06, 동아일보사)

10. 08

- 인천군청장관, 파업 소요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잠정적인 통행제한 실시

『경향신문』 제5호(1946. 10. 10, 경향신문사)

10. 14

- 조선기계제작소 노동자 700여 명 해고당함. 당시 조선기계제작소에는 1000여 명 정도가 근무 중이었음. 해고 노동자들은 인천시 노무조정위원회에 항의서를 제출함

『자유신문』 제369호(1946. 10. 17, 자유신문사)

10. 20

- 금곡동 시장에서 군중 수백여 명이 '쌀을 달라, 정권을 인민에게 넘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30여 분간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 당함

『경향신문』 제15호(1946. 10. 22, 경향신문사)

12. 24

- 철도파업으로 미 CIC에 검거돼 부평미군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민주주의민족전선 부의장 홍남표 석방

1946년

『경향신문』 제71호(1946. 12. 26, 경향신문사)

# 1947년

## 02. 22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인천연맹, 도원동 공설운동장에서 김구가 참석한 가운데 「반탁자주독립전취 신춘대회」 개최

『동아일보』 제7213호(1947. 02. 26, 동아일보사)

## 02. 23

- 전국학생총연맹 인천시지부 연맹원들이 인천을 방문하는 김구를 환영하기 위해 모여 있던 중, 민청(民靑) 회원 80여 명이 습격하여 폭행한 후 도주

『경향신문』 제121호(1947. 02. 25, 경향신문사)

## 03. 13

- 『인천신문』 편집국장 엄홍섭에 대해 ‘사정에 의하여 해고한다’는 내용의 사고(社告)가 『인천신문』에 실림. 인천신문 기자단은 회사 내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장이 독단적으로 감행한 사건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 엄홍섭은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

『경향신문』 제139호(1947. 03. 18, 경향신문사)

## 03. 17

- 「3·1절 기념 인천예술제」가 준비되던 중, 경찰이 연극만 허가 신청이 완료되었다 하여 음악, 무용, 시낭독 등의 상연을 금지하고 기관총을 든 경관대가 출동해 출연 예정이던 윤기홍, 신현담, 김도인 등 6명을 연행함

『경향신문』 제140호(1947. 03. 19, 경향신문사)

## 03. 21

- 경성전기주식회사 노동자들, 3월 21일~22일 이틀에 걸쳐 동맹파업 단행  
오오타 오사무, 「해방직후 어느 노동자의 일상생활 -인천의 전기공 I씨의 일기로부터」, 『민족문화연구』 57, 327쪽(200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03. 22

-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산하의 인천부두노동조합·조선제강회사·조선알미늄 회사·인천자동차조합 노동자들이 오전 10시를 기해 총파업을 단행
- 남로당 인천지부장 이보운, 남로당 선전부장 윤석준, 인천시 인민위원회 위

『경향신문』 제144호(1947. 03. 23, 경향신문사)

1947년

원장 김용규, 민주주의민족전선 인천지부장 박남철 등 40여 명, 파업과 관련해 인천경찰서에 체포됨

『경향신문』 제146호(1947. 03. 26, 경향신문사)

**06. 18**

- 인천국립기상대 직원 170여 명, 기상대장에 불만을 품고 총파업 단행

『동아일보』 제7310호(1947. 06. 20, 동아일보사)

**09. 07**

- 인천경찰서가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을 적발할 때 석발을 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경향신문』이 보도함

『경향신문』 제286호(1947. 09. 07, 경향신문사)

**11. 17**

- 인천경찰서, 11월 19일까지 인천지역 좌익 요인 30여 명 검거

『동아일보』 제7443호(1947. 11. 22, 경향신문사)



# 1948년

## 01. 27

- 인천부 직원 240여 명, 경기도 당국에 '가족수당 1인당 1000원' 등 4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제출

『동아일보』 제7515호(1948. 02. 17, 동아일보사)

## 02. 05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인천지부 ·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인천연맹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독립전취 인천최고위원단', '남조선만의 총선거 실시, 점령군 철퇴'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제출

『편년 대한민국사』, 216쪽(2012, 국사편찬위원회)

## 02. 07

- 경기도, 인천지역 '공창(公娼)'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성매매 여성 118명을 독립병원에 강제 수용시킴

『동아일보』 제7510호(1948. 02. 11, 동아일보사)

## 02. 15

- 인천지역 성매매 여성 80명, 인천도립병원에 수용됨

『동아일보』 제7518호(1948. 02. 20, 동아일보사)

## 03. 02

- 인천공립공업학교 학생들, '남조선단독정부 수립반대'를 요구하며 동맹휴업

『편년 대한민국사』, 233쪽(2012, 국사편찬위원회)

## 03. 19

- 경성전기주식회사 인천지점 노동자들, 서울 경성전기주식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에 호응하여 변전소 기술부원 50여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파업 돌입

『동아일보』 제7544호(1948. 03. 21, 동아일보사)

『대중일보』 제793호(1948. 03. 20, 대중일보사)

## 04. 10

- 인천부두노동조합 결성

『인천항변천사』, 88쪽(1995, 인천항운노동조합)

## 04. 30

1948년

- 남한단독총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봉암의 선전대가 부평에서 정체불명의 단체원에게 테러를 당함

『경향신문』 제490호(1948. 05. 05, 경향신문사)

07. 20

- 인천지역 이발소에 고용된 배당제 종업원들이 업주들에게 수입배분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대중일보』 제897호(1948. 7. 21, 대중일보사)

09. 01

- 인천항 부두노동조합들, 하역청부권 쟁탈로 충돌

『대한민국사 연표』 1, 12쪽(2008, 국사편찬위원회)

10. 18

- 미군들이 인천에서 경찰과 선원에 권총을 난사

『대한민국사 연표』 1, 18쪽(2008, 국사편찬위원회)

10. 27

- 부평역 앞에 ‘빠라’가 살포되어 경찰에 수사에 나섬

『동아일보』 제7732호(1948. 10. 28, 동아일보사)

11. 16

- 부평 주둔 국군 군기대, 부평 근처 밭 속에 무기가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탐지하고 조사를 벌여 부평주둔 국군부대에서 80여 명의 ‘불온분자’를 체포해 서울 군기대 본부로 송치했다고 발표함

『동아일보』 제7749호(1948. 11. 17, 동아일보사)

『경향신문』 제657호(1948. 11. 17, 경향신문사)

11. 20

- 부평역 부근에서 ‘인민공화국 인천유격대’ 명의로 우익단체를 협박하는 문구가 수록된 ‘빠라’가 살포되어 부평경찰서가 조사를 진행함

『동아일보』 제7754호(1948. 11. 23, 동아일보사)

『경향신문』 제662호(1948. 11. 23, 경향신문사)

- 인천지역 서울 통학생 20여 명, 율목동 로타리 부근에서 ‘양군즉시 철퇴’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됨

『경향신문』 제662호(1948. 11. 23, 경향신문사)

# 1949년

## 02. 21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기도지부, 인천부청 정문 앞에 투서함 설치  
『경향신문』 제742호(1949. 02. 25, 경향신문사)

### 반민족행위처벌법(1948. 09. 22 제정)

#### 제1장 죄

-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의원인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제3조 일본치하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부위원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3. 칙임관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제9조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10인으로써 구성한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1.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제10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호선한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특별조사위원은 기 재임중 현행범이외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승인이 없이 체포심문을 받지 않는다.

- 제12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각도에 조사부, 군부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조사부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친일모리의 세평이 없는 자라야 한다.
- 제14조 조사방법은 문서조사, 실지조사의 2종으로 한다.  
문서조사는 관공문서, 신문 기타 출판물을 조사하여 피의자명부를 작성한다.  
실지조사는 피의자명부를 기초로 하고 현지출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서를 작성한다.
- 제15조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기록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 특별조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신임장을 소지케 하며 그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 제17조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의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 제3장 특별재판부구성과 절차

- 제19조 본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부치한다.  
반민족행위를 처단하는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재판부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으로써 구성한다.  
전항의 재판관은 국회의원 중에서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6인, 일반사회인사 중에서 5인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병치한다.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검찰부 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으로써 구성한다.

제21조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은 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거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법률가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제22조 특별재판부부장과 특별재판관은 대법원장 및 법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고 특별검찰관장과 특별검찰관은 검찰총장 및 검찰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제23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중 일반재판관 및 일반검찰관과 동일한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제24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중 국회의원, 법관과 검찰관 이외의 공직을 겸하거나 영리기관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5조 특별재판부에 3부를 두고 각부는 재판장 1인과 재판관 4인의 합의로써 재판한다.

제26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일반검찰사실을 기초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여야 하며 특별재판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공판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특별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본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소송절차와 형의 집행은 일반형사소송법에 의한다.

#### 부칙

제29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단, 도피한 자나 본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하던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제30조 본법의 규정은 한일합병전후부터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행위에 이를 적용한다.

제31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대한민국헌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로 한다.

제3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02. 25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기도지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인천지부를 임시로 인천부청 회의실에 설치하고 조사관 2명을 임명

『경향신문』 제744호(1949. 02. 27, 경향신문사)

## 03. \*

- 인천자유노동조합과 인천부두노동조합, 합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노동총연맹 인천연맹 항만지구위원회로 통합 발족

『대중일보』 제1087호(1949. 03. 06, 대중일보사)

『인천항변천사』, 88쪽(1995, 인천항운노동조합)

## 03. 05

- 인천부회의원 및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김윤복과 함경도 무산 등지에서 현병보를 지내다 창영동에 거주하고 있던 이필순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인천지부에 찾아와 자수함

『동아일보』 제7842호(1949. 03. 08, 동아일보사)

『경향신문』 제750호(1949. 03. 08, 경향신문사)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인천지부, 투서함 개함. 투서 건수는 40여 통으로 확인됨

『경향신문』 제751호(1949. 03. 09, 경향신문사)

## 03. 15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인천지부, 일제강점기 고등경찰관을 지냈던 권오연을 시흥군에서 체포

『동아일보』 제7857호(1949. 03. 25, 동아일보사)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인천지부, 송이원 체포

『동아일보』 제7866호(1949. 04. 05, 동아일보사)

1949년

03. 20

- 조선전업 부평송변전소 노충분회 결성.

『대중일보』 제1102호(1949. 03. 24, 대중일보사)

03. 21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인천지부, 김태훈·오경팔 체포

『동아일보』 제7866호(1949. 04. 05, 동아일보사)

05. 23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인천고려분회 회장 한능해 체포

『동아일보』 제7914호(1949. 05. 25, 동아일보사)

한능해 불기소 사건 기록

- 기록號 : 단기 4282년 形제199호(단기 4282년 8월 31일 결정)
- 사건 표목 : 반민법(제4조 11항) 위반
- 피의자 : 한능해(韓凌海)
- 결정주문 : 기소유예
- 출감지위 : 4282년 7월 4일 집행
- 

[사실과 이유]

피의자 한능해(韓凌海)는 15세 때 경남 통도사의 동승으로 1년간 있다가 다시 환속하여 40세에 다시 승려생활을 결심하고 인천에 자비로 약사암을 창건하고 주지가 되려 하였으나 조선불교총본산에서 무자격자라고 하여 승령의 신위(身位)를 허락지 않음으로 개성(開城) 일본인 경영 호국사에 소속하여 신위를 얻어 약사암 주지가 되었다. 조사위원회에서 범죄사실로 지적된,

1. 일본 전승가 전물영령의 명복을 비는 천일(天日)기도의 전
2. 보살계첩(菩薩戒牒)에 '황기(皇紀) 2600년 기념'이라고 인쇄하여 신도들에게 배부하다가 해방이 되자 즉시 회수, 소각한 사실
3. 단기 4271년 자기 사찰(약사암) 소유 유기(鑛器)를 술선 공출하여 이것이 원인으로 시내 다른 사찰에 유기를 강제 회수 당하였다는 사실



4. 사찰의 희유(稀有) 재물인 바라를 각 사찰로부터 회수, 보관하자는 각 사(寺) 대표자회의 석상에서 피의자가 보관할 것 없이 국방헌납하자고 주장하여 일인 경찰관 입회하이므로 부득이 헌납한 사실
  5. 일본인 승려 장삼(長衫)을 착용하였다는 사실
- 등의 범죄사실 보고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엄중한 취조를 한바, 증거가 충분치 못하고 주문과 같이 불기소 처분에 붙임.

### 사건송치서

- 피의자 : 구속 한능해
  - 죄명 : 반미처벌법 위반
  - 발각원인 : 인지
  - 수리 : 4282년 5월 20일
  - 유치 : 4282년 5월 23일
  - 비고 : 기소의견
- 위 피의사건 송치함.

단기 4282년 6월 11일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검찰관장 귀하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5. 24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인천지부, 일제강점기 부회위원을 지낸 이명호 체포

『동아일보』 제7915호(1949. 05. 26, 동아일보사)

### 06. 16

- 지하활동을 해오던 소위 ‘강화지구총사령관’ 이봉규, 유격대장 배상덕, 실천대장 한인 등 30여 명 등이 강화도에서 ‘6월 공세’를 표방하고 경찰지서를 습격.

『동아일보』 제7946호(1949. 06. 26, 동아일보사)

### 08. 29

- 인천경찰서, 남로당 인천시당 책임자 이용철 등 60여 명 체포

『경향신문』 제918호(1949. 08. 29, 경향신문사)

10. 03

- 일제강점기 연안독립동맹원이자 해방 후 부녀동맹 간부를 역임하고 북로당 정치위원으로 있던 김명시, 부평경찰서에 구금된 지 이틀 만에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발표됨

『경향신문』 제960호(1949. 10. 11,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8053호(1949. 10. 11, 동아일보사)

10. 14

- 월미관광회사 종업원 47명, 인천시 노동계에 미지급 급료와 봉사료를 지급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

『대중일보』 제1276호(1949. 10. 15, 대중일보사)

10. 15

- 조선전업 노동조합, 회사 측이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문규를 9월 21일부로 섬진강발전사무소 사무계장으로 인사 조치한 데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 날까지 인사발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통보함

『동아일보』 제8056호(1949. 10. 15, 동아일보사)

- 국민보도연맹 경기도연맹 결성발기회가 인천검찰청 대법정에서 개최되고 결성준비위원회 구성

〈결성준비위원회〉

| 직위  | 성명  | 직위 | 성명  |
|-----|-----|----|-----|
| 위원장 | 김용규 | 조직 | 이상운 |
| 총무  | 박남칠 | 보도 | 이보운 |
| 선전  | 이필상 | 재정 | 김창식 |

『대중일보』 제1278호(1949. 10. 18, 대중일보사)

국민보도연맹 취의서(趣意書)

민전(民戰) 산하 단체 간부층의 기만적이며 부소(附蘇) 관료주의적, 독선적 독재와 특히 남로당의 살인, 방화, 파괴 등 멸족정책은 마침내 탈당전향자를 매일 수십 명씩을 속출케 함으로써 그 정체가 무엇인가를

천하에 폭로하기 시작하였다. 경향 각 신문을 통하여 보더라도 남로당을 멸족파괴당으로 규정하고 탈당한다는 성명 광고가 늘어가고 있지 않은가. 공산주의 사상을 이념적으로 찬동하는 나머지 참가한 결과 그들 간부층의 멸족적 정권쟁탈전에 이용도구로 되었다는 데 분개하여 과감한 자기비판과 준열한 자기반성에서 단연 탈당을 천하에 성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깨끗한 국민으로 자금(自今) 멸족분자 말살운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민족 앞에 맹서하며 혹자는 자기의 무지로 감언이설에 유혹되어 가입했던 것을 솔직히 자백하며 후회하고 혹자는 오늘날의 현실적 환경을 무난히 돌파하자는 수단으로써 간단한 탈당성명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남로당의 멸족정책으로 이상과 같이 탈당전향자가 속출하나 차등(此等) 전향자, 탈당자를 철저히 계몽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으로써 멸사봉공의 길을 열어 줄 포섭 기관이 절대로 요청되는 바 여사(如斯)한 기관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 나머지 오인(吾人)은 천학미력(淺學微力)을 무릅쓰고 결사보국(決死報國)의 지성일념(至誠一念)에서 감히 전향자 국민보도연맹을 기성(期成)하고자 하는 바이다.

(…… 중략 ……)

#### 국민보도연맹 강령

1. 오등(吾等)은 대한민국 정부를 절대지지 육성을 기함
1. 오등(吾等)은 북한괴뢰정부를 절대반대 타도를 기함
1. 오등(吾等)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을 배격·분쇄를 기함
1. 오등(吾等)은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파괴정책을 폭포분쇄를 기함
1. 오등(吾等)은 민족진영 각 정당·사회단체와는 보조를 일치하여 총력결집을 기함

『동아일보』 제7883호(1949. 04. 23, 동아일보사)

## 10. 23

• 부천군 계양면 거주 권○○·권○○·김○○·강○○·권○○, 남로당 탈

1949년

당 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284호(1949. 10. 25, 대중일보사)

**10. 26**

- 강화군 선원면 거주 전○○·연○○, 농민조합 탈당 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286호(1949. 10. 27, 대중일보사)

**10. 30**

- 국민보도연맹 경기도연맹 준비위원회, 제1공회당에서 국민보도연맹 경기도 연맹 선포대회 개최. 당시 가입 규모는 인천 100여 명, 경기도 일원 100여 명, 총 200여 명

『대중일보』 제1285호(1949. 10. 26, 대중일보사)

**11. 04**

- 국민보도연맹 경기도연맹, 인천 제1공회당에서 선포대회 개최
- 강화도 주민 40여 명, 정보국 방첩대원이라고 밝힌 외지 사람들에 의해 불법 구금, 취조당하는 사건 발생. 주민 중 한 명은 구타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함.

『대중일보』 제1317호(1949. 12. 02, 대중일보사)

**11. 05**

- 부천군 계양면 동양리 거주 김○○ 외 4명, 남로당 탈퇴 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20호(1949. 12. 06, 대중일보사)

**11. 28**

- 민주주의민족전선 인천지부 의장 윤석준(尹錫峻), 인천경찰서 사찰계에 자수. 윤석준은 광복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경동 제2보안분대장과 ‘인위(人委)’ 산업부장을 거쳐 1947년 3월 ‘민전’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경찰을 피해 지방에 도피해 있던 중 자수함. 경찰은 윤석준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힘

『대중일보』 제1316호(1949. 12. 01, 대중일보사)

- 경기도 내 보도연맹에 가입한 전향자 수가 이 날 현재 5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경향신문』 제1011호(1949. 12. 01, 경향신문사)

**11. 30**

- 답동 거주 박○○, 남로당 탈퇴 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16호(1949. 12. 01, 대중일보사)
- 송월동 거주 박○○, 남로당 탈퇴 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16호(1949. 12. 01, 대중일보사)

## 12. 03

-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거주 송○○, 민주학생연맹 탈퇴 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19호(1949. 12. 04, 대중일보사)

## 12. 04

- 국민보도연맹 인천시연맹, 오전 11시 40분 신흥초등학교 교정에서 1000여 명의 연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대회 개최. 국민보도연맹 경기도연맹 총무부장 이보운의 취지서 및 맹서서 낭독, 국민보도연맹 경기도연맹 부위원장 박남철의 환영사 및 맹원의 선서서(宣誓書) 낭독 등이 진행됨. 대회 후 이마에 태극(太極)과 ‘공타(共打)’라고 적은 두건을 두르고 ‘통일국가 건설하자’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채 시가행진 전개  
『대중일보』 제1320호(1949. 12. 06, 대중일보사)

## 12. 06

- 인천시청에서 걸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열려 일반 양민에 폐를 끼치니 집단수용이라도 해서 악폐를 없애자는 취지의 회의 진행  
『대중일보』 제1321호(1949. 12. 07, 대중일보사)

## 12. 07

- 화평동 거주 이○○, 남로당을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22호(1949. 12. 08, 대중일보사)

## 12. 08

- 덕적면 거주 송○○ 등 14명, 공동 명의로 남로당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23호(1949. 12. 09, 대중일보사)
- 송의동 거주 정○○, 남로당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23호(1949. 12. 09, 대중일보사)

## 12. 10

-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거주 이○○, 남로당을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1949년

에 게재)

『대중일보』 제1326호(1949. 12. 13, 대중일보사)

- 송의동 거주 이○○ 등 2명, 좌익계열에서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25호(1949. 12. 11, 대중일보사)

- 송림동 거주 황○○, 좌익계열에서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25호(1949. 12. 11, 대중일보사)

- 송림동 거주 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25호(1949. 12. 11, 대중일보사)

## 12. 12

- 국민보도연맹 부평연맹 선포대회가 오후 1시 부평공회당에서 개최됨

『대중일보』 제1325호(1949. 12. 11, 대중일보사)

『대중일보』 제1328호(1949. 12. 15, 대중일보사)

## 12. 14

-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거주 권○○, 농민조합을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28호(1949. 12. 15, 대중일보사)

## 12. 16

- 신흥동 거주 이○○·만석동 거주 심○○, 좌익계열에서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30호(1949. 12. 17, 대중일보사)

## 12. 19

- 송림동 거주 허○○, 민주학생연맹을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의 한사람으로 맹약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32호(1949. 12. 20, 대중일보사)

## 12. 20

- 간석동 거주 홍○○, 남로당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33호(1949. 12. 21, 대중일보사)

**12. 24**

- 학익동 거주 이○○·이○○, 좌익계열에서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37호(1949. 12. 25, 대중일보사)

**12. 26**

- 송현동 거주 박○○·박○○, 남로당 탈당 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38호(1949. 12. 27, 대중일보사)

**12. 28**

- 송림동 거주 강○○, 남로당을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원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 송림동 거주 김○○, 민주학생연맹을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원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40호(1949. 12. 29, 대중일보사)

- 화수동 거주 김○○, 민주학생연맹을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원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40호(1949. 12. 29, 대중일보사)

**12. 30**

- 인천시, 시내 불량자 수용 사업 시작. 이날 70여 명이 인천제생원에 수용됨. 인천시 당국은 강제로 불량자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원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

『대중일보』 제1343호(1950. 01. 01, 대중일보사)

『경향신문』 제1045호(1950. 01. 06, 경향신문사)





1950년대  
1950 ~ 1959



# 1950년

## 01. 03

- 인천시, ‘거리의 걸인’들을 제생원에 수용하기 시작

『경향신문』 제1045호(1950. 01. 06, 경향신문사)

## 01. 06

- 강화군 하정면 창후리 거주 김○○, 남로당을 탈당한다는 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46호(1950. 01. 07, 대중일보사)

## 01. 09

- 답동 거주 박○○, 남로당을 탈당한다는 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49호(1950. 01. 10, 대중일보사)

## 01. 10

- 한센병 환자 240여 명, 서울 망우리에서 간석동 한센병 환자 수용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인천에 들어옴

『대중일보』 제1351호(1950. 01. 12, 대중일보사)

## 01. 12

- 『대중일보』 발표에 따르면, 부랑자 수용 실태가 이날 현재 양로원 수용 대상인 60세 이상이 9명, 선감학원 수용 대상인 14세~17세 청소년이 16명, 고아원 수용 대상인 13세 이하 아동이 16명, 직업 알선 대상자가 71명이라고 함

『대중일보』 제1351호(1950. 01. 12, 대중일보사)

- 신현동 거주 이○○, 민주학생연맹을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52호(1950. 01. 13, 대중일보사)

## 01. 15

- 국민보도연맹 인천시연맹, 전체 맹원대회 개최

『대한민국사 연표』 1, 83쪽(2008, 국사편찬위원회)

## 01. 16

1950년

- 도화동 거주 이○○, 남로당 탈당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55호(1950. 01. 17, 대중일보사)

01. 19

-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동장(洞長) 임명식 개최  
『대중일보』 제1358호(1950. 01. 20, 대중일보사)

01. 26

- 만석동 거주 유○○, 남로당 및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탈퇴성명서 발표  
(『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64호(1950. 01. 27, 대중일보사)

02. 01

-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거주 서○○, 농민조합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  
에 게재)  
『대중일보』 제1369호(1950. 02. 02, 대중일보사)

02. 10

- 북성동 거주 강○○, 좌익계열에서 탈퇴한다는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  
에 게재)  
『대중일보』 제1376호(1950. 02. 10, 대중일보사)

02. 12

- 송림동 거주 최○○ 등 5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탈퇴성명서 발표(『  
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78호(1950. 02. 12, 대중일보사)

02. 14

- 송현동 거주 윤○○,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  
에 게재)  
『대중일보』 제1380호(1950. 02. 15, 대중일보사)
- 도화동 거주 정○○,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  
에 게재)  
『대중일보』 제1380호(1950. 02. 15, 대중일보사)
- 만석동 거주 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  
에 게재)  
『대중일보』 제1380호(1950. 02. 15, 대중일보사)

02. 22

- 송현동 거주 황○○, 남로당 탈당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대중일보』 제1386호(1950. 02. 22, 대중일보사)

03. 09

- 대한노동총연맹 전국자유노동항만연맹, 인천 대표 20여 명을 포함한 각 지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인천 시내 '노동항만연맹 회의실'에서 결성대회 개최  
『동아일보』 제8201호(1950. 03. 12, 동아일보사)

05. 01

- 대한노동총연맹 인천연맹,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제64주년 메이데이 기념식」 거행  
『대중일보』 제1444호(1950. 05. 02, 대중일보사)

09.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950년 8월 18일부터 9월 말경까지, 해군 육전대와 해군 첩보대가 덕적도와 영흥도를 정보수집의 근거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소 41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477~546쪽(20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1. 한국전쟁을 전후한 1949년 11월부터 1951년 2월에 걸쳐 서울과 인천의 시·군·구 지역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37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62명 등 최소 99명의 비무장 민간인이 희생되었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2. 1950년 8월 18일부터 9월 말경까지, 해군 육전대와 해군 첩보대가 덕적도와 영흥도를 정보수집의 근거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근거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예상치 못한 작전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최소 41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1950년 한국전쟁 발발직후부터 1951년 1·4후퇴를 전후하여, 경기도경찰국 경찰들과 해군·해병대가 인천거주 비무장 민간인을 인천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로 예비검

속·연행·구금·이송하는 과정에서 또는 경인 군검경합동수사본부의 지휘하에 인천 인근의 소월미도·팔미도·덕적도 등지로 끌고 가 최소 52명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 477쪽(20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09. 10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월미도 마을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 있었다고 밝힘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 11~88쪽(200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1. 월미도 거주 민간인들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월미도 마을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집단희생되었다. 폭격은 리차드 루블(Richard W. Ruble) 제독의 해병대항공단 제15함모전단 항공기들에 의해 월미도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의 일환으로 발생하였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해병항공기들(VMF-214, 323)은 95개의 네이팜탄을 월미도 동쪽지역에 투하하고 기총소사하였다. 이 집중폭격으로 동쪽지역의 건물, 숲 등과 함께 민간인 거주지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2. 본 사건의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정○○ 등 10명이다. 실종자 및 남은 가족이 타지로 이동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100여 명까지로 추산된다.
3.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은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선행하여 월미도 점령을 위한 작전계획 하에서 발생했다. 당시 유엔군은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으려 했고 월미도는 인민군이 주둔했던 인천의 관문으로서 반드시 무력화시켜야 할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4. 당시 미군은 월미도 동쪽에 민간인 밀집 주거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미군은 상륙작전에서 인민군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자국 군인에게 큰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작전 개념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월 13~14일 함포사격작전의 사전작업으로 인민군의 방어시설을 숨겨주는 은폐물을 없애려는 것이 폭격의 주요 목표였다. 따라서 미군은 다수 민간인 거주지를 포함한 월미도 동쪽 전체를 집중폭격했다.

5. 미군의 월미도 폭격에 대한 군사적 필요를 인정하고 적을 기만해야 할 군사적 필요가 컸다고 하더라도, 폭격 이전 폭격지점 선정에서나 폭격 중 식별할 수 있었던 민간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희생을 줄이려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월미도 폭격의 경우 그러한 노력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월미도 전체를 무차별 집중폭격하고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고도에서 주민에게 기총소사까지 한 것은 국제인도법, 전쟁법의 민간인 면제규범에 의한 민간인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작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6. 월미도 주민들은 거주지가 인천상륙작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지역이 되면서 민간인 면제규범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전쟁의 혹독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월미도는 군사기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유족과 거주민은 50년이 넘도록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다.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 11~12쪽(200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09. 15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천시 서창동 대한청년단 감찰대장으로 활동하던 김○○ 등 2명이 6·25전쟁 당시 인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가 인천상륙작전 직후 북한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인천 지역에서 활동한 내무서원에 의해 총격을 맞고 사망하였다고 밝힘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 445~460쪽(200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적대세력에 의한 인천경찰서에서의 희생 사건’

1. 1950. 7. 3. 이후 인천을 점령한 인민군은 각 동에 인민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미처 피난하지 못한 우익인사들을 체포했다. 1950. 9. 15. 인천상륙작전 후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내무서원들이 인천경찰서 유치장에 총격을 가했으며, 그로 인해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KWC #49 등 각 문헌자료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진실규명대상자 김○○, 윤○○은 각각 서창동 대한청년단 감찰원, 반공연맹원 및 반공연맹 도립동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인천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가 수감되었으며, 1950. 9. 15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3. 가해자는 인천지역에서 활동한 내무서원으로 확인하였다.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 445쪽(200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1951년

## 01.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4후퇴를 전후한 시기에 ‘강화향토방위특공대’가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 지역에서 최소 139명 이상의 민간인을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하였다고 밝힘

###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가. 윤○○ 등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139명을 포함한 430여 명 이상의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들은 1951년 1·4후퇴를 전후한 시기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강화향토방위특공대’에 의해 특공대 본거지인 강화경찰서와 면 지서로 연행·구금되어 고문을 당한 뒤 갑곶나루, 옥림리 갯벌, 월곶포구, 돌모루포구, 철산포구, 온수리 사슬재, 선원대문고개, 매음리 어류정(개학뿌리) 등지로 끌려가 집단희생되었다. 이 같은 민간인 집단학살은 강화군 12개 면에서 동시에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강화향토방위특공대’가 한국전쟁 북한점령 시기의 부역자는 물론, 부역혐의자와 그들의 가족이 북한 재점령 시 그들에게 협력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희생자 특징을 살펴보면, 신원이 확인된 139명 중 부역혐의자 가족이 83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신 귀향자가 9명으로 6.4%, 부역혐의로 이미 사법상 처벌을 받은 특사령 출소자도 8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39명 중 여성이 42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미만도 14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106~108쪽(2008, 07. 1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951년

**12. 15**

- 강화도 민간인 213명을 ‘부역자’라는 이유로 살해한 ‘강화도 을지병단 산하 특공대 사건’, 대구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대구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조사가 진행되던 중 김병식 대장 외 7명이 인천검찰지청으로 이송되어 옴

『조선일보』 제8829호(1952. 01. 05, 조선일보사)

# 1952년

## 03. 24

- 인천을 포함한 부산, 군산 등 전국 부두노동조합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임금 인상 등의 요구조건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의함

『동아일보』 제8799호(1952. 03. 26, 동아일보사)

# 1953년

## 03. 12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내부 분류와 관련해 인천부두노동조합 사무소에 흥기를 든 청년 20~30여 명이 습격한 사건 발생

『동아일보』 제9155호(1953. 03. 17, 동아일보사)

『조선일보』 제9267호(1953. 03. 19,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제9268호(1953. 03. 20, 조선일보사)

## 03. 20

- 인천부두노동조합, 경기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의하여 동방극장에서 신·구 양파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위원장에는 구파인 방관기가 재선되고 부위원장에는 신파인 안홍준과 구파인 신완균이 당선됨. 이로써 인천 부두노동조합의 내부 분류가 일단 안정기에 들어섬

『조선일보』 제9271호(1953. 03. 23, 조선일보사)

## 04. 19

- 인천부두노동조합, 해안동 광장에서 수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인 노무자 추방 쫓기 대회」 개최. 대회 참가자들은 일본인들이 담당 중인 작업을 한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라고 요구

『인천신보』 제836호(1953. 04. 21, 인천신보사)

## 04. 22

- 동양방적공사, 원면 부족 문제로 공장 가동 중단. 근로자 3000여 명은 귀가 조치됨. 4월 27일 조업을 재개함

『인천신보』 제836호(1953. 04. 21, 인천신보사)

『인천신보』 제842호(1953. 04. 27, 인천신보사)

## 05. 17

- 인천시민들, 「일본인 노무자 추방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일본인 기술자를 추방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으로 대체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대통령에 발송

『경향신문』 제2155호(1953. 05. 17, 경향신문사)

## 06. 14

- 부평 포로수용소에 수용중인 북한출신 반공포로 800여 명이 태극기와 유엔기를 들고 '통일없는 휴전반대'와 '반공포로 즉시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20여 분에 걸쳐 시위를 전개하다가 유엔군이 최루탄을 쏘며 제지하여 진압됨. 부평 포로수용소 중군 목사 김연호에 따르면 현재 부평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반공포로들은 대개 평안도나 황해도 출신들이라고 함

『조선일보』 제9358호(1953. 06. 18, 조선일보사)

#### 07. 06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인천지구 노동조합연합회 발족. 의장에 방관기, 부의장에 백홍선 선출

『경향신문』 제2212호(1953. 07. 13, 경향신문사)

#### 10. 10

- 인천 어민 수천여 명, 하인천역 광장에서 '평화선 사수' 궤기대회를 개최하고 '해양주권선을 사수하자', '침입일본어선을 격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임

『경향신문』 제2303호(1953. 10. 12, 경향신문사)

#### 12. 09

- 인천자유노동조합 조합원과 군산자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주류가 되어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 결성대회 개최. 위원장에 이진수 선출

『동아일보』 제9421호(1953. 12. 09, 동아일보사)

#### 12. 14

- 인천지역 26개 초등학교 교장 대표 등, 중학교 자체 재시험을 반대하며 문교부가 추진하는 전국학력고사를 방침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문교부에 제출

『조선일보』 제9539호(1953. 12. 16, 조선일보사)

# 1954년

## 04. 05

- 인천부두노동조합 대표 방관기 등 7개 부두노동조합 대표·위원장 명의로 '전국자유노동조합연합회 결성준비에 대한 공고'를 신문에 게재함

『동아일보』 제9547호(1954. 04. 15, 동아일보사)

## 07. 31

- 인천시민 300여 명, 월미도 다리 앞에서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한·미 헌병에 의해 제지당해 해산함

『경향신문』 제2596호(1954. 08. 02,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9657호(1954. 08. 03, 동아일보사)

## 08. 07

- 조선운수·대한운수·조선상선 등 자유노동조합 대표들, 노총회관에서 작업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파업여부 결정 문제를 논의한 끝에 8월 13일 노총사무실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표로 결정하기로 의결함

『조선일보』 제9778호(1954. 08. 13, 조선일보사)

## 08. 28

- 송현2동 철거 대상 주민 50여 명, 인천시청에 찾아가 철거 기간의 연장과 철거후의 원조대책을 요구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 인천시는 송현동 십자로부터 대한중공업공사 앞까지 도로 하수구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8월 25일, 도로상에 있는 240세대 209동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인천신보』 제1436호(1954. 12. 25, 인천신보사)

『동아일보』 제2625호(1954. 08. 31, 동아일보사)

## 10. 25

- 인천지구 미제2항만사령부 한국인 종업원 5000여 명, 인천노총회관에 모여 '미군으로부터 한국종업원에 대하여 500대 1의 환산률에 의하여 미본토볼로 노임을 지불하겠다는 것은 한국국민으로서 범법행위가 되므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주한미후방기지 사령관에게 제출

『경향신문』 제2685호(1954. 10. 30, 경향신문사)

**12. 12**

- 부평지구 주둔 유엔군 각 부대에 종사하는 한국인 종업원 대표 30여 명, 산곡초등학교 강당에서 ‘미군기관 한국인종업인회’ 결성. 회장에 민정식(44공병대), 부회장에 방창현(74대대) · 정홍철(미해병대) 등을 선출

『인천신보』 제1426호(1954. 12. 15, 인천신보사)

**12. 13**

- 『인천신보』, 「버림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이 공포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기업들이 이를 무시하여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보도. 실례로 부녀자의 야간작업은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인가를 받은 동양방직공사와 흥한방직 외에 인천 시내 일부 메리야스공장 및 직조공장에서 불법으로 부녀자를 야간 취업 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인천신보』 제1424호(1954. 12. 13, 인천신보사)

**12. 15**

- 경기도 노동위원회가 인천지구 부두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 16조(조합총회) 및 30조(조합 장부검열) 위반으로 해산을 결의

『인천신보』 제1441호(1954. 12. 20, 인천신보사)

**12. 22**

- 인천시, 인천 시내 각 기업주, 근로자 대표, 각 기관장을 소집하여 인천시 의사당에서 근로기준법 운영 간담회 개최

『인천신보』 제1428호(1954. 12. 17, 인천신보사)

- 『인천신보』, 인천시 사회계 집계를 인용하여 1954년 한 해 동안 3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인천시에 모두 61개의 노동조합이 있다고 보도. 1954년 신설된 노동조합은 직장노조 11개(4905명), 자유노조 46개(하역 9546명), 지구노조 2개(해상·자동차 4109명), 연합노조 2개(자유노조 인천지구 노조)로 총 인원은 1만 8560명으로 밝혀짐

『인천신보』 제1433호(1954. 12. 22, 인천신보사)

**12. 23**

- 개헌안 통과 후 자유당을 탈당한 인천 갑구 출신 김재곤 의원에 대해 자유당 인천시당과 유권자 주최로 애관극장에서 「김재곤 의원 성토대회」가 개최됨

『인천신보』 제1432호(1954. 12. 21, 인천신보사)

『조선일보』 제9910호(1954. 12. 23, 조선일보사)

# 1955년

## 02. 02

- 경기도, 인천부두노동조합에 대한 정식 해산명령서를 인천시장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청. 경기도가 1954년 12월 20일, 인천부두노동조합에 정식 해산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955년 1월 22일 반송되어 온 바 있음

『인천신보』 제1480호(1955. 02. 08, 인천신보사)

## 03. 28

- 인천시, ‘판자집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

『인천신보』 제1528호(1955. 03. 29, 인천신보사)

## 06. 30

- 인천경찰서가 인천판초자공장(仁川板硝子工場) 건설 부지에 있는 114세대 판자집 철거를 단행하자 철거민 수백여 명이 인천시청에서 대지 알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 전개

『경향신문』 제2943호(1955. 07. 16, 경향신문사)

## 07. 02

- 인천에서 최초로 항동에서 판자집 철거 시작. 이 날 철거에 동원된 경찰과 주민 간에 마찰이 일어나 경찰이 부상을 당함

『동아일보』 제9807호(1955. 07. 07, 동아일보사)

## 08. 08

- 한염해운 주식회사가 4월 15일을 전후해 인천항에서 석탄을 양륙할 때 노동자들의 노임을 편취했던 사실이 노조반장에게 탐지되자 한염해운 측이 이날 노임 잔액을 지불하려 하다가 노동자들의 거부로 이행하지 못함.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장부를 압수하여 수사를 진행함

『조선일보』 제10151호(1955. 08. 21, 조선일보사)

## 08. 12

- 월미도 용궁각 인근 해상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3명, 인근을 순찰중인 미군 경비선이 시위대로 오인해 총탄을 발사하여 사망함. 같은 날 월미도 입구에서는 2800여 명의 군중이 ‘적성감시단 추방’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음.



『동아일보』 제9994호(1955. 08. 13, 동아일보사)

11. 25

- 부평동 소재 미 제8057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종업원 66명 해고 당함

『인천신보』 제1774호(1955. 12. 04, 인천신보사)

11. 30

-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 한국인 종업원들이 아무런 사전 통고 없이 해고당하는 사태에 대하여 관계 당국과 미군에 진정. 이와 관련해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은 ① 미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줄 것, ② 노무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대우를 개선할 것, ③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확립할 것, ④ 최근 들어 감행되고 있는 집단해고 대상자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퇴직수당을 지불할 것, ⑤ 1일 8시간을 초과 작업하는 때는 이에 해당하는 ‘특근비’를 지출하며 공상(公傷)을 입은 자에게 재해보상금을 지불할 것 등의 건의서를 제출함

『인천신보』 제1774호(1955. 12. 04, 인천신보사)

# 1956년

## 04. 16

-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 조합원 5000여 명, 임금 인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전 조합원이 파업을 결의

『동아일보』 제10239호(1956. 04. 15, 동아일보사)

## 04. 11

- 인천지역 '양공주' 대표 이화숙 외 20여 명, 경찰과 좌담회를 갖고 '혼혈아 등록, 유숙계 제출, 검진실시'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음

『조선일보』 제10388호(1956. 04. 15, 조선일보사)

## 04. 14

-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 산하 노동자 5000여 명이 5월 16일을 기해 총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건사회부에서 노동조합 측의 요구조건은 정당하나 한미 간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 해결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 발표. 노동조합 측은 '월평균 1만 3426환의 현재 봉급을 두 배로 인상할 것, 미군 측의 일방적인 노동조건을 한국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규칙으로 변경하여 제정할 것, 재해보상제도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해 왔으나 미군 측이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끌어오자 한 달 전부터 쟁의에 들어감

『조선일보』 제10388호(1956. 04. 15, 조선일보사)

## 04. 16

- 인천지구 미군노동조합 위원장 김길용, 보건사회부에서 미 제8군 사령부 인사참모 맥키 대령과 노동관계담당관 맥커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임금인상, 공장환자 치료, 노자협의회 설치' 등 노동조합이 제시한 노동쟁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노동조합 측은 보건사회부의 중재로 미8군의 조치를 기다리며 당분간 파업은 보류하기로 함

『조선일보』 제10390호(1956. 04. 17, 조선일보사)

- 『조선일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들의 권익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힘. 인천자유노동조합원 3만여 명은 1956년 1월부터 3월말까지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운수

관계 7000만 원을 포함 모두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함

『조선일보』 제10390호(1956. 04. 17, 조선일보사)

#### 04. 21

- 인천지구 미군노동조합 간부 30여 명, 보건사회부를 방문해 3개 항의 대우 개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통고

『조선일보』 제10395호(1956. 04. 22, 조선일보사)

#### 05. 30

- 인천사범학교 사범과 2학년 2반 학생 80여 명(남학생 44명, 여학생 36명), 등교를 거부하고 맹휴에 돌입. 학생들은 5월 29일 군인 출신의 체육 교사가 더운 날씨에 30분 간 구보를 시키는 도중, 여학생 한 명이 급성맹장염으로 의식을 잃어 학생들이 불평하자 교실에 들어가 반장의 뺨을 때린 것을 이유로 등교를 거부함

『조선일보』 제10434호(1956. 05. 31, 조선일보사)

#### 06. 17

- 인천자유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1956년 3월부터 4개월간 체불된 외자하역 노임 1억 7000만 원을 6월 23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쟁의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한 후 해당 기업에 통고

『조선일보』 제10453호(1956. 06. 19, 조선일보사)

#### 06. 20

- 인천자유노동조합, 7월 1일부터 갱신되는 용현동 328 소재 미 제8군 유류보급창 작업 계약과 관련해 5월 25일, 미국화물취급업자인 평화공사 외 6개 회사와 모임을 개최, 현재 노임의 75% 인상을 조건으로 입찰에 응할 것을 협정하였는데 평화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해 낙찰 반자 이에 대하여 긴급 노동조합 집행감찰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쟁의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기업주를 옹호하는 노동조합 간부 2명을 제명 처분함.

『조선일보』 제10456호(1956. 06. 22, 조선일보사)

#### 06. 30

-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노동자 1000여 명, 평화공사에 대해 협정노임이행을 촉구하며 시위 전개. 노동자들은 '한미 양국의 친선을 위하여 평화공사와 POL과의 계약을 취소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운 채 '협정노임을 배반하는 악질기업주를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시가행진을 함

1956년

『조선일보』 제10465호(1956. 07. 01, 조선일보사)

**07. 27**

- 미군 송유관 경비원인 미군 병사가 송의동 438 소재 민가 부엌에 휘발유를 끼얹어 화재가 발생, 일가족 6명 사망

『조선일보』 제10492호(1956. 07. 28, 조선일보사)

**08. 17**

-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노동자 200여 명, 작업권을 얻은 평화공사가 이전 하역회사인 극동운수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노동자의 배당을 적게 만든 데 항의, 종전보다 높은 노임의 지급과 기득작업권 사수를 요구하며 작업거부 돌입. 평화공사 측은 이 날부터 노동자들을 새로 고용해 일부 작업에 투입하였음

『조선일보』 제10513호(1956. 08. 18, 조선일보사)

**09. 10**

- 외자청 인천사무소가 외자하역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6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2억 5000만 원이 지불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조선일보』 제10538호(1956. 09. 12, 조선일보사)

**10. 16**

- 항동 2가 소재 미 제624수송부대 경비원인 미군 일등병이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는 한국인을 절도범으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사살함

『조선일보』 제10575호(1956. 10. 19, 조선일보사)

**11. 08**

- 인하공과대학 전교생 500여 명, 학장 및 교수진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는 한편 기숙사 운영 개선, 학도호국단 자치권 부여 등을 요구하며 등교 거부

『조선일보』 제10596호(1956. 11. 09, 조선일보사)

# 1957년

## 01. 02

- 인천 미군 주유창(POL) 평화공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천자유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250여 명,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소속 인천부두노동조합이 작업장 분회원 250여 명을 모집, 대체하면서 해고당함

『인천신보』 제2159호(1957. 01. 05, 인천신보사)

## 01. 04

-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평화공사 작업장 분회 노동자 520명의 대표들, 1월 2일의 해고 사태와 관련해 서울 보건사회부 복도에서 쟁의 조정을 요구하며 농성. 10여 명의 대표를 남기고 오후에 해산함

『인천신보』 제2161호(1957. 01. 07, 인천신보사)

## 01. 08

-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평화공사 작업장 분회 해고 노동자들, 인천시 청 시장실 앞 복도에서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인천신보』 제2161호(1957. 01. 07, 인천신보사)

## 01. 16

-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평화공사 작업장 분회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전원 복직을 요구하는 한편, 1월 2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결의를 보건사회부와 평화공사 측에 통고

『인천신보』 제2172호(1957. 01. 18, 인천신보사)

## 02. 01

- 평화공사, 「석명서(釋明書)」를 일간신문에 발표

『인천신보』 제2188호(1957. 02. 03, 인천신보사)

### 평화공사 석명서(釋明書)

본사는 객년(客年) 7월 1일부터 인천 POL 유류 작업장의 작업을 인천

자유노동조합과 단체협정과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바 작년 12월 말일이 미군과의 계약완료로 재차 입찰함에 제(際)하여 본사가 낙찰의 내명(內命)을 받고 12월 12일에 인천자유노조에 단체협정 체결을 요청한 바 차일피일하고 협정을 체결치 않음으로 부득이 14일 오전 9시에 인천부두노조에 협정체결을 요청하여 동일 오후 2시 50분에 협정서를 미군계약처에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서명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인천부두노조와 협정체결시 종래 취업하던 노무자는 전원 포섭할 조건의 각서를 받고 작업장 현장에서 종래 취업하여 오던 노무원은 각기 개별적으로 작업장 출입증 교부신청을 회사 현장 사무소에 제출할 것을 주지시켰으나 몇 사람의 방해로 신청이 중무하여 다시 공□반 간부들 하고 인견 상의한 결과 공□반 전원 출입증 신청에 응할 것을 합의보아 208명의 출입증을 마련하여 놓고 1월 2일부터 작업이 시작됨으로 1월 1일에 찾아 갈 것을 통지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할 수 없이 부두노조에서 신청한 노무원 전원을 채용하여 1월 2일부터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보건사회부로부터 회사가 노임□직불하여왔으니 3개월 이상 취로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해고가 되니 해당자는 계속 취업토록 하라는 지(旨)의 지시가 있어 즉일 사고로 1월 8일까지 해당자 348명은 작업장 출입증을 신청한 것을 주지시켜 1월 9일에 339명 신청이 있어 14일부터 출입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익일부터 취업할 것을 사고와 구두로 주지시켰으나 15일 야간작업시간까지 단 1명도 취업치 않고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 115명까지 전원 취업시키지 않으면 취업치 않겠다 하여 본사로서는 16일 야간까지 취업치 않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처리를 할 것을 사고로 통지하였으나 역시 불응함으로 다시 20일까지 취업할 것을 구두로 주지시켰던 바 20일까지 취업한 자 19명에 불과함으로 부득이 본사로서는 20일까지 취업치 않는 자는 취로사퇴로 결정하고 해당자의 출입증은 무효임을 미군에 통보함과 동시에 신규로 노무원을 보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중(然中) 몇 사람의 선동으로 중앙에 가서 사실무근한 모략과 농성전술을 감행하며 일방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무자의 부녀를 동원시켜 거주침해를 감행시키는 등 사실과 상식을 일탈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4290년 2월 1일

『인천신보』 제2188호(1957. 02. 03, 인천신보사)

## 02. 03

- 산곡동에 거주하던 미군 상대 '위안부' 박○○, 5년 전부터 시작한 위안부 생활을 비판하여 자살

『인천신보』 제2191호(1957. 02. 06, 인천신보사)

## 02. 05

- 인천계명여자기술학원, 선화동에서 개원식을 거행하고 '윤락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 시작

『인천신보』 제2184호(1957. 01. 30, 인천신보사)

『인천신보』 제2191호(1957. 02. 06, 인천신보사)

## 02. 16

- 인천시초등교육회, 「페스탈로치 30주기」를 기념하여 창영초등학교 강당에서 함석헌 목사 초청 강연회 개최

『인천신보』 제2198호(1957. 02. 18, 인천신보사)

## 04. 13

- 보건사회부가 인천지방해무청(仁川地方海務廳) 인천축항 사무소에 대하여 2월 19일 해직당한 노동자 60여 명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직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

『조선일보』 제10751호(1957. 04. 14, 조선일보사)

## 08. 03

- 인천자유노동조합, 내동 소재 중앙예식장에서 61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조합 연차대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위원장에 이창우, 부위원장에 이기만과 김진우가 선출됨

『조선일보』 제10866호(1957. 08. 07, 조선일보사)

## 08. 25

- 인천 미군 송유관 경비원인 미군 병사가 총탄을 발사하여 한국인 소년을 사망하게 함.

『조선일보』 제10888호(1957. 08. 29, 조선일보사)

## 09. 26

- 인천자유노동조합, 한국제분협회가 수입하는 소맥하역작업의 노임 인상안

1957년

을 내걸고 조운·동해·동아 등 3개 하역회사에 노동쟁의 발생 통보. 인천 자유노동조합에 따르면, 3개 하역회사가 한국제분협회와 수입 소맥하역작업계약을 맺고 1톤 당 1270환에 하역 청부를 맡아 노임은 1톤 당 620환을 지출해 왔는데, 그동안 하역료가 1톤 당 185환이 상승해 인상요율에 의한 노임 인상 요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에 1928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자유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우의 명의로 3개 회사 대표에게 노동쟁의를 알림

『조선일보』 제10920호(1957. 09. 30, 조선일보사)



# 1958년

## 05. 09

- 보건사회부 노동국,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한 흥한방직 강성호 외 22명에게 5월 말까지 해고수당을 지불할 것을 통고함

『경향신문』 제3969호(1958. 05. 10, 경향신문사)

## 05. 11

- 인천자유노동조합 · 인천부두노동조합, 인천 중앙예식장에서 135명의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대회를 개최하여 인천항만자유노동조합을 새로 발족시키고 위원장에 이창우를 선출

『조선일보』 제11054호(1958. 02. 12, 조선일보사)

## 07. 01

- 인천부두노동조합 조합원 700여 명, 7월 1일부로 '노무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품삯 50% 인상을 요구하며 쟁의 돌입

『동아일보』 제11045호(1958. 07. 01, 동아일보사)

## 07. 24

- 인천항만자유노동조합 평화분회 위원장,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됨. 1956년 10월 이후 23회에 걸쳐 노동자들의 노임을 공제 또는 유령노동자의 인장을 만들어 편취하는 방식을 이용해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음

『경향신문』 제4044호(1958. 07. 24, 경향신문사)

## 11. 15

- 인천지구 미군 노동자들, 현 봉급에서 70% 인상을 요구

『동아일보』 제11182호(1958. 11. 16, 동아일보사)

## 11. 19

- 인천자유노동조합, 하역회사가 장기간 체불하고 있는 5000만 원의 노임을 조속히 지불하도록 해달라는 호소문을 보건사회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제출

『경향신문』 제4166호(1958. 11. 23, 경향신문사)

## 12. 22

1958년

- 인천지구 선원노동조합 산하 범선조합분회, 만석동 소재 한운조기부두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현 노임의 50% 인상, 체납노임 즉시 지불' 등을 요구하며 쟁의 결의

『인천신보』 제2855호(1958. 12. 25, 인천신보사)

# 1959년

## 01. 12

- ‘국가보안법 개악반대 인천시투쟁위원회’, 시내에서 시위를 전개하려 하였으나 경찰당국이 지방에서 동원된 경찰들과 함께 교통을 차단하고 골목길까지 경비하며 막으면서 무산됨

『동아일보』 제11238호(1959. 01. 12, 동아일보사)

『조선일보』 제11389호(1959. 01. 13, 조선일보사)

## 01. 13

- ‘국가보안법 개악반대 인천시투쟁위원회’, 송림동 삼화사진관 앞 대로에서 40여 명이 경찰의 경비망을 뚫고 ‘대한민국만세’를 부르며 시위 감행. 민주당 을구 부위원장 김준식 등 5명이 현장에서 연행됨

『동아일보』 제11240호(1959. 01. 14, 동아일보사)

## 01. 14

- 김광석 시의원 부부 등이 오전 8시 30분경 경동 상업은행 인천지점 앞 노상에서 ‘보안법 개악반대’ 시위를 벌이며 유인물을 살포하다가 경찰에 연행됨. 같은 날 12시경 민주당 인천병구당 부위원장 전재홍 등 6명이 경동 향도백화점 앞 노상에서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됨. 이 날 오후에는 창영동 굴다리 선로를 달리던 동인천역 행 열차 안에서 ‘나라 망친 자 그 누구냐 이 무자비한 자들아’라고 적힌 중앙학도호국단 명의의 유인물이 창밖으로 살포됨

『경향신문』 제4219호(1959. 01. 15,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제4221호(1959. 01. 17, 경향신문사)

## 02. 08

- 민주당 인천시 갑을병구당 국가보안법 개악반대투쟁 합동위원회, 이 날 인천출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고 강연회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인천시 당국이 해병사령부가 이미 1958년 12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사용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무산됨

『조선일보』 제11412호(1959. 02. 05, 조선일보사)

## 02. 10

1959년

- 민주당 인천시 병구당 상집부의장 김용국과 상임위원 김대남 등 2명, 동인천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 및 지방자치법 개악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됨

『경향신문』 제4246호(1959. 02. 11,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1419호(1959. 02. 12, 조선일보사)

## 02. 26

- 인천지구 선원노동조합, 체납노임 인상투쟁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쟁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노임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노임에 대한 채권양도 혹은 현금지불을 받지 않는 한 모든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함

『인천신보』 제2917호(1959. 02. 28, 인천신보사)

## 04. 28

- 고잔동 소재 한국화약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결성위원을 선출하자 회사 측이 선출된 노동자들을 지방으로 좌천하는 등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쟁의에 돌입

『동아일보』 제11346호(1959. 04. 30, 동아일보사)

## 05. 02

-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 월미도 주둔 미군 인천항만 수송부대에서 한국인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자 미군 당국에 항의하며 협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

『인천신보』 제2978호(1959. 05. 02, 인천신보사)

『인천신보』 제2979호(1959. 05. 03, 인천신보사)

## 05. 29

- 인하공과대학 부지에 해당하는 용현동 331번지 주민 27명, 인천시청을 찾아가 5월 16일에 인천시가 발부한 주택지 철거 계고장은 부당하다며 원주민들과 균등한 보상금 지불을 요구. 이들은 항동 7가 1번지에 거주하다가 인천시 당국이 1951년 12월, 도시계획으로 인해 현 위치에 강제 집단 이주시켰는데 그 후 인천시가 인하공과대학에 토지를 기부하면서 자신들이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주장

『인천신보』 제3005호(1959. 05. 30, 인천신보사)

## 06. 10

- 국회 '인천지구연합회 청원서 사건' 진상조사단, 인천을 방문하여 인천부두 노동조합의 십장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조사 착수

『인천신보』 제3018호(1959. 06. 12, 인천신보사)

## 07. 31

-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됨

『동아일보』 제11439호(1959. 08. 01, 동아일보사)

## 죽산 조봉암 주요 연보

- 1899년 9월 25일,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출생
- 1907년 봄, 강화공립보통학교 입학
- 1911년 봄, 강화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농업보습학교에 입학
- 1913년 봄,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함.
- 1914년 봄, 강화군청 급사로 근무
- 1919년 3월 18일, 강화의 만세시위에 참가함. 이날 부친 조창규 사망.  
4월 중순,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구속됨.
- 1920년 1월, 출옥하여 경성 YMCA 중학부에 입학
- 1921년 12월, 주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입학
- 1922년 12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
- 1923년 8월, 폐결핵으로 공산대학 자퇴, 귀국함
- 1924년 2월 11일, 김찬 등과 신흥청년동맹 조직  
6월 30일, 김조이와 결혼  
9월, 조선일보 기자가 됨
- 1925년 4월 17일, 제1차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자 중앙검사위원이 됨
- 1929년 4월 11일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축성회 조직에 참가
- 1932년 9월 28일 상해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
- 1933년 12월 27일 신의주 지방법원에 서 징역 7년 선고
- 1939년 7월 1년 감형되어 출옥. 이후 인천비강조합 조합장으로 일함.
- 1945년 1월, 예비구금령으로 구속, 헌병대 감방에 갇힘.  
8월 15일, 석방. 다음날 인천보안대를 조직  
8월 18일,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조직
- 1948년 4월 14일, 인천 을구에 제헌의회 의원 입후보자로 등록  
5월 10일, 제헌의회 의원에 당선  
6월 1일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위원을 맡음  
6월 초순, 무소속구락부 결성. 대표를 맡음

8월 2일, 초대 농림부장관에 지명됨  
1949년 2월 22일, 농림부장관직 사임  
1950년 5월 30일, 제2대 총선에 무소속(인천 병구)으로 출마, 당선됨  
6월 19일, 국회부의장에 당선  
1952년 7월 24일, 제2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 낙선됨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 창당대회 개최. 위원장을 맡음  
1958년 1월 13일, 경찰에 체포됨  
10월 25일, 사형 선고 받음  
19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사형이 집행됨  
8월 2일, 망우리 묘지에 안장됨.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 합의부가 무죄를 선고함

이원규, 『조봉암 평전』, 615~624쪽(2013, 한길사)

#### 10. 08

- 미8군 산하 인천항만사령부 인천주둔 보급창과 인천 PX부대에 종사하는 600명의 한국인 종업원들, 염상근·박도인·김양중 등 3명을 대표로 하여 보건사회부 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보냄. 이들은 10월 9일, 미군부대에서 실시될 한국인 대행회사 5개사와 미국상사 1개사를 대상으로 한 입찰이 진행되면 기존의 한국인 종업원들은 일시에 해고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함

『동아일보』 제11508호(1959. 10. 09, 동아일보사)

#### 10. 19

- 미8군이 산하 각 기관의 경비원 공급을 전담시키기 위해 현사동지회와 맥파든회사 등 6개 대행기관에 입찰을 시키자 주한 미8군 산하 경비원 900여명이 부평에서 '경비원연합회'를 결성하고 미8군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항해 투쟁할 것을 결의함

『동아일보』 제11519호(1959. 10. 20, 동아일보사)

#### 12. 08

- 인천·부평지역을 포함한 전국 미군관계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인 종업원 대표들, 서울에 모여 '미군종업원 노동조합연맹' 결성대회 개최. 이 날 전국 5만 명의 종업원들을 대표해 4개 항의 요구사항 결의

〈결의 사항〉

1. 미군 당국은 현재 각 기관에서 감행하고 있는 한국인 종업원 감원을 중지하고 이미 감원된 종업원은 즉각 복직케 할 것
2. 현 종업원 급료를 현행요금의 배액으로 인상하여 줄 것
3. 미군당국이 노무자 공급을 특정한 기업체에게 청부하는 것을 반대
4. 미군당국은 본연맹 및 산하 조합을 종업원들을 위한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줄 것

『동아일보』 제11540호(1959. 11. 10, 동아일보사)

## 12. 09

- 한국화약 인천공장 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 준비위원 김경복 등 12명,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 측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4월, 8명을 강제로 지방에 전출시키고 10명을 집단해고 시켰다’고 호소함

『동아일보』 제11570호(1959. 12. 09, 동아일보사)





1960년대

1960 ~ 1969



# 1960년

## 01. 17

-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애스컴(ASCOM)지구 미군중업원 노동조합, 부평 제3시민관에서 결성대회 개최

『경인일보』 제3025호(1960. 01. 19, 경인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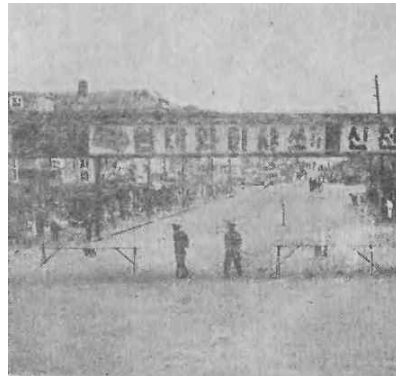
## 03. 14

- 송도고등학교 등 30여 명의 고등학생들, 밤 10시 30분경 성산교회 앞에서 ‘학원에 자유를 달라’, ‘공명선거를 시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10분 만에 경찰에 의해 해산됨

『동아일보』 제11666호(1960. 03. 15, 동아일보사)

## 04. 17

- 민주당원 수십 명, 경동 소재 민주당 을지구당 사무실에 집결해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3·15선거는 불법이며 무효다’, ‘이승만정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시위를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됨. 일부 간부들은 경찰 버스에 실려 연행되어 갔으며 그 과정에서 수천 장의 유인물을 뿌리기도 함. 민주당원들은 오후 12시경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2차 시위를 감행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삼엄한 경계로 인해 성공하지 못함



〈인천 시내 도로를 차단한 경찰〉

『경인일보』(1960. 04. 17)

『조선일보』 제11849호(1960. 04. 17,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제11851호(1960. 04. 19, 조선일보사)

## 04. 19

- 인천공업고등학교 학생 700여 명, 오전 11시경 1교시 수업이 끝난 후 교문을 뛰어 나와 3·15불법선거 규탄 시위를 시작. 송의동 로타리에서 소방차를 동원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인 후 잠시 해산한 뒤 오후 12시 20분경 다

시 집결해 시위를 감행하려다 경찰에 의해 좌절됨

『조선일보』 제11851호(1960. 04. 19, 조선일보사)

「나광조 구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 구술아카이브즈)

### 나광조의 증언

(인천공업고등학교 학생으로 4·19혁명에 참여)

시위 당일날, 4월 19일 당일날 어떻게 시위가 시작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네. 4월 19일날 원칙은 아침 조회시간에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구호를 외치고 플래카드를 준비한 거를 펼치고 교문을 박차고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4월 19일날 조회시간에 제가 주동을 하고 다 해서 나가기로 했어요. 1, 2, 3학년 전부 나가기로 했는데, 보니까 조회가 폐지됐대요.

그 조회가 1주일에 1번 있는 조회였습니까?

- 1주일에 1번. 그렇죠. 1주일에 1번인가 2번 밖에 안했죠.

예 그날이 조회하는 날인데...

- 예. 그날 조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4월 19일을 택한 거예요. 근데 조회를 안 한 대요. 방송에 '오늘 조회를 생략하니 아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준비 하라'고 방송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돌아보니까는 교문이 이렇게 딱 잠겼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 소위 그 수위아저씨인가 그 분이 바깥에 나와 있질 않는데 딱 잠그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깐 그런 것 같애. 학교에서 감지했구나. 해서 조회를 못했죠. 조회를 못하니까 나는 나대로 또 단상에 올라가서 구호를 외칠 필요가 없지요. 그래 갔더니 선생님이 불러요. 훈육주임선생님이. 불러가서는 다 안다고. '너 오늘 할려고 했지?' '아니 안해요. 안할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한다고 그랬지. 안한다고 그러고서는 저하고 주동했던 학생들을 불러서 '야 오늘 안한다고 하는 건 다 낄새 채려서 안하는 거야. 반마다 전부 가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걸로 알려.' 그래서 1교시 끝나는 동안 저하고 몇몇 주동자들은 학교 공부를 안하고 1학년 반서부터 3학년 반까지 쭉 은밀히 다니면서, '2교시 종 치면은 나가는 거야. 너네반

은 네가 데리고 수봉산 넘어. 나는 내가 끌고서는 어 주안 4거리 쪽으로 갈게'라고 해서 두 패로 나누기로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패로만 쪽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의 쫓아오는 것을 따돌리기 위해서 수봉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한 진은 어 정문을 통해서 나가기로 하고. 그래서 2교시 시작되기 전에 난 나와서 수위아저씨한테 얘기해 가지고선 문을 뚫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수위아저씨한테.

- 아 좀 오시라고 그랬죠. 가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러냐고. 수위아저씨도 나이가 많고 저희들하고 친했으니까 그 시정을 풀렸지요. 시정을 풀고 잠가놓지 않고 닫아놓고.

…… (중략) ……

혹시 학교 외곽에 바깥쪽에 막 경찰이나 반공청년단이 지키고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 시내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제지를 안 당했어요.

선생님들도?

- 쫓아왔죠. 못하게. 예. 쫓아오지만 그게 쫓아와 되나요? 힘으로야 안 되죠.

대략 몇 명 정도가 나왔습니까? 전교생 중에?

- 전교생 중에서 1학년 몇 명 빠지고 어 한 700명 나왔어요.

700명. 전교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 1000명 됐죠.

1000명 중에 700명 정도가 두 그룹으로 나뉘서...

- 양쪽으로 예. 나뉘서. 처음에는 한 번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을 따돌리기 위해서 수봉산을 넘게 했어요.

원래 계획은 조희시간에 선생님 단상에 올라가셔서 시위를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돼서 인제 두 패로 나뉘서 한쪽은 수봉산으로 가고

한쪽은 정문을 통과해서 가지고 시내로 나가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 학교를 나가서 어느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시위 동선이랄까? 어떻게 짜셨습니까?

- 가라서 가지만 만나는 것은 인천 시청에서 만나기로...

시청.

- 예. 시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가지 못하고 다 해산당하고 잡히고 그랬어요.

..... (하락) .....

「나광조 구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 구술아카이브즈)

#### 04. 20

- 인천사범학교 학생 300여 명, 오전 9시 30분경 '학원의 자유와 민주적인 학생 데모에 경찰은 총칼을 쓰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승의동 청과시장 앞에서 경찰에 의해 해산됨. 이 과정에서 남학생 19명, 여학생 11명이 경찰에 연행됨

『동아일보』 제11703호(1960. 04. 21, 동아일보사)

『조선일보』 제11852호(1960. 04. 20, 조선일보사)

#### 04. 21

- 인하대학교 학생 100여 명, 학교를 출발해 경동파출소를 거쳐 답동광장에서 연좌시위 전개. 학생들은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동료들이 부상을 당하자 인천시청 앞까지 진출, 선서문을 낭독한 후 구타 경관의 구속 처벌을 촉구. 경기도 경찰국장의 구타 경관 처벌 약속을 받아낸 뒤 오후 1시 30분경 학교로 돌아감

『인하학보』(1960. 05. 05, 인하대학교 인하학보사)

『동아일보』 제11704호(1960. 04. 22, 동아일보사)

『조선일보』 제11853호(1960. 04. 21, 조선일보사)

#### 04. 22

-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 신흥동 소재 해광사 앞에 모여 '정·부통령 선거 다시하자'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가행진 전개. 경동파출소 앞과 인천시청 앞으로 향하는 동안 학생들이 합류하여 시위대가 2000여 명으로 늘어남

『동아일보』 제11705호(1960. 04. 23, 동아일보사)



〈인천 시내를 행진하는 시위대〉

『경인일보』(1960. 04. 24)

#### 04. 23

- 인천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200여 명,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 모여 '3·15 선거는 불법 무효이다', '이승만 정부는 물러나라', '평화적 집회, 데모의 자유를 방해말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동인천역, 인천시청 앞을 지나 동인천 경찰서 앞에서 '살인경찰은 물러나라'고 외치며 시위. 이 날 인천여자중학교 학생 300여 명도 경동 거리에서 시위를 시작해 시가행진을 벌임

『동아일보』 제11706호(1960. 04. 24, 동아일보사)

#### 04. 24

- 송도고등학교 학생 500여 명, 답동광장에서 「4·19순국학생 추도식」을 거행하고 '4·19순국학생 위로하자'고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운 채 시위 전개
- 인하대학교 학생들, 차량을 이용해 4·19혁명 희생자를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 모금된 현금 40만 4000원은 기호일보사 모금계에 접수

『인하학보』(1960. 05. 05, 인하대학교 인하학보사)

#### 05. 03

- 인천 항만노동자 30여 명, 인천항만자유노동조합과 한운분회에 대하여 어용노조라며 규탄시위 전개

『동아일보』 제11716호(1960. 05. 04, 동아일보사)

#### 05. 10

- 학익동 소재 흥한방직 인천공장에 2년 전 해고된 노동자 40여 명이 모여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

『조선일보』 제11874호(1960. 05. 12, 조선일보사)

1960년

**05. 19**

- 고잔동 소재 인천화약공장 노동자 200여 명, 노동조합 결성을 요구하며 시위 전개

『동아일보』 11732호(1960. 05. 20, 동아일보사)

**05. 26**

-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교원노동조합 결성대회가 제2시민관에서 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됨. 위원장에 수산고등학교 교사 이동렬을 선출

『경향신문』 제4359호(1960. 05. 29, 경향신문사)

**06. 17**

-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노동자들, 평화공사에 현행 노임의 60%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자 총파업 돌입

『동아일보』 제11766호(1960. 06. 23, 동아일보사)

**06. 24**

-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노동자 500여 명, 이날 오전 노동자 70여 명이 신포동 소재 평화공사에 찾아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다가 그중 5명이 경찰에 연행되자, 인천경찰서에 물려가 취조를 받고 있던 동료 노동자 5명을 데리고 나옴.

『동아일보』 제11769호(1960. 06. 26, 동아일보사)

**06 30**

-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노동자 550여 명, 위원장 등 5명이 인천항만자유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데 항의하여 인천경찰서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임. 그중 200여 명은 인천경찰서를 습격해 정문 유리 등을 파손함. 이 날 시위로 35명이 구속됨

『동아일보』 제11775호(1960. 07. 02, 동아일보사)

**07 02**

- 6월 30일 발생한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분회 노동자들과 자유항만노동조합원들 간의 분쟁과 관련해 인천항만자유노동조합 위원장 등 6명을 구속함

『동아일보』 제11776호(1960. 07. 03, 동아일보사)

**07 19**

- 인천사범학교 졸업생 100여 명, 문교부 현관 복도에서 '금년도 졸업자 전원



을 보직케 하여 줄 것', '부정채용교사 추방' 등을 요구하며 연좌시위

『동아일보』 제11793호(1960. 07. 20, 동아일보사)

『경향신문』 제4411호(1960. 07. 20, 경향신문사)

#### 07. 20

- 경기지구 해상선원 노동조합 결성

『인천신문』 제132호(1960. 12. 27, 인천신문사)

#### 08. 25

- 부평지역 42개 이발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00여 명, '부평지구 이용사 노동조합' 결성

『인천신문』 제38호(1960. 09. 21, 인천신문사)

#### 09. 03

- 인천군화기술원(仁川軍貨技術員) 노동조합, 내동 중앙예식장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작업청부회사인 신한공사가 9월 9일까지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

『인천신문』 제22호(1960. 09. 05, 인천신문사)

#### 인천군화기술원 노동조합 성명서

독재와 부패로 민주국가발전을 저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게 한 이(李) 정권이 4·19혁명으로 종막을 고하자 12년간의 죄악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백일하에 노출됨과 동시에 독재의 아성이었던 원흉급은 울분에 잠긴 국민 앞에서 정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천리는 결코 없지 않다는 새로운 신념이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뇌리에도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의거는 부패한 독재정(獨裁政)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오랫동안 침해되었던 우리 근로자의 권익도 이제 수호 받을 토대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우리 인천군화기술원 노동조합원 100여 명은 2년 전 노임 월 평균 수입 2만 5000환 내지 3만환 수입에서 제반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입 2만 환 내지 2만 5000환의 기아선과 천정부지로 앙등하는 물가 고에 시달리면서도 미군수품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절감하여 은인자중 오늘날까지 참아왔던 것이다. 4·19이후 본 노동조합은 그간의 침해되었던 권익을 수호하고 전조합원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200여 명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과거의 어용성을 일절 탈각하고 제도와 기구의

쇄신을 기하였으며 노임 인상을 비롯하여 4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지난 7월 3일 주식회사 신한공사에 제시하여 1개월간 절충하였으나 회사는 하등의 성의도 보이지 않아 우리는 전 국민과 백만 노동자의 성원을 받으며 강철같이 단결된 힘으로써 우리가 제시한 4개 항의 요구조건을 회사 측에 촉(促)하면서 거(去) 7월 28일을 기하여 법에 의한 6주일의 냉각기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냉각기간 법정기일이 박두한 금일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것이며 회사 측은 8월부터 톤당 단가 인상금으로 3200불의 혜택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운영방법으로 혁명정신과 200여 명의 고용인의 생활위협마저 무시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영달책을 꾀할망정 합리적인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는 추호의 대책 강구치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 이상 더 현금(現今)과 같이 절박한 생활고를 참을 수 없다. 냉각기간 만료인 9월 9일까지 목적 관철치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만천하에 성명한다.

단기 4293년 9월 4일

인천군화기술원(仁川軍貨技術員) 노동조합 일동

『인천신문』 제22호(1960. 09. 05, 인천신문사)

#### 09. 15

- 인천항만자유노동조합 인일(仁一)분회에 속해 있던 노동자들이 이날부로 탈퇴를 선언하고 동시에 인천석공탄장(石公炭場) 노동조합을 결성해 인천항만노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한다고 공고함

『인천신문』 제34호(1960. 09. 17, 인천신문사)

#### 09. 19

- 인천군화기술원 노동조합 파업 돌입

『인천신문』 제38호(1960. 09. 21, 인천신문사)

#### 09. 21

- 인천지역 미군부대 종업원 150여 명, 한미행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며 신흥동 일대에서 시위 전개

『인천신문』 제39호(1960. 09. 22, 인천신문사)

09. 24

- 인하대학교 학생들, 학도호국단 해체에 따라 선거를 통해 자치회 구성. 전교생 788명 중 74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서광열을 회장으로 선출

『인하학보』(1960. 10. 01, 인하대학교 인하학보사)

11. 15

- 대한중공업공사 인천공장 노동조합, '현행 임금의 1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태업에 돌입

『동아일보』 제11912호(1960. 11. 16, 동아일보사)

10. 02

- 대한노총 강화지구 섬유노동조합 결성대회 개최. 위원장에 평화직물공장 이덕문 선출

『인천신문』 제52호(1960. 10. 05, 인천신문사)

11. 28

-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 군항(軍港) · 기술 · 검수원 등 4개 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군화(軍貨) 노동조합을 결성해 통합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이 날 인천군화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오영제를 위원장으로 선출

『인천신문』 제106호(1960. 11. 30, 인천신문사)

12. 01

- '4월혁명 청년동지회 인천지부' 결성대회가 시내 문화원에서 개최됨. 각 동에서 선출된 4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지부장에 박재현을 선출

『인천신문』 제109호(1960. 12. 03, 인천신문사)

12. 03

- 김효성 등 16명 명의로 '전국 사월혁명 상이학생 동지회 인천지부 설립취지서' 발표

‘전국 사월혁명 상이학생 동지회’ 인천지부 설립취지서

4·19혁명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불의부정에 항거하는 국민감정의 정당한 발호인 것입니다. 우리 학도들은 이 혁명의 대열 앞에 서서 항거하다 독재자 잔악한 총탄을 가슴에 맞고 돌아오지 못하는 영령들이 되었고 수많은 상이학생이 모자라는 피의 힘으로 생명체를 이끌고 수개

월이 지난 오늘에 당면하였습니다. 아직도 국내의 혼란은 가실줄 모르고 「혁명과업완수」다 하는 감언이설적인 행동만으로 감투싸움에 눈이 어두운 이때 우리 상이학생들은 일심단결하여 「혁명과업완수」에 적극 이바지하지 않으면 아니되겠습니다. 아직도 사회혼란과 불의부정은 산재하고 있어 국내의 안정을 교살하고 숭고한 사월혁명의 피를 모독하는 우리들이 날뛰고 있는 이때에 우리 부상학도들은 남은 피나마 국가에 바칠 것을 각오한 바 있어 상이학생동지회를 중앙에 총본부를 두고 인천에 경기도지부를 설치하여 더욱더 단결을 굳게 하고자 하오며 모든 국민의 구원한 번영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들은 국민 앞에 굳게 맹서하옵니다. 금번 여러 국민들의 많은 후원으로 경기도지부 결성식을 오는 12월 4일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국민들과 여러 선배님들께옵서 아낌없는 후원과 편달이 있으시기를 대망하나이다.

발기최고위원 경기대표 김효성

발기위원 한귀석 김병기

차청용 김용일

김상도 이길남

최승호 이경백

외 16명

『인천신문』 제109호(1960. 12. 03, 인천신문사)

## 12. 07

-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 군항(軍港) · 기술 · 검수원 등 4개 노동조합, 제2시민관에서 통합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군항노동조합에서 일부가 반대하여 무산됨

『인천신문』 제115호(1960. 12. 09, 인천신문사)

## 12. 11

- 4월혁명 학생동지회 인천지부, 인천사범학교 교정에서 「4·19혁명정신양양 및 계몽 선전회」 개최

『인천신문』 제117호(1960. 12. 11, 인천신문사)

## 12. 15

- 인천지구 경비원 노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인천신문』 제121호(1960. 12. 15, 인천신문사)

**12. 18**

-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 수습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조합 명칭을 '인천지구 미군작업노동조합'으로 개칭한 후 임원을 개선하여 위원장에 김길용을 선출

『인천신문』 제128호(1960. 12. 23, 인천신문사)

**12. 24**

- 경기지구 해상선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상 노임 지불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12개 업체에 통고

『인천신문』 제132호(1960. 12. 27, 인천신문사)

# 1961년

## 01. 17

- 고려호 선원 69명, 인천항에 입항하자마자 4차 파업 돌입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98쪽(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1. 27

- 인천지구 미군부대 종업원들, 임금인상과 대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를 감행할 것이라고 경찰에 통고  
『경향신문』 제4602호(1961. 01. 27, 경향신문사)

## 02. 13

- 인천을 포함한 서울, 부산 등지의 주한미군부대 한국인종업원 1만 2000여명, 한국인 종업원에게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것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쟁의 돌입. 같은 날 인천 미제45공병기지창 경비를 맡고 있는 대한상이용사회원 120여 명도 비슷한 이유로 쟁의 돌입  
『경향신문』 제4620호(1961. 02. 14,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2152호(1961. 02. 14, 조선일보사)

## 02. 17

- 경기지구 어민 300여 명, 18대의 트럭에 타고 '어업용 유류에 대한 물품세 면제, 중간 이득기관 유류판매업 대행상사 배격' 등을 외치며 시내 일원에서 시위 전개  
『경향신문』 제4625호(1961. 02. 19, 경향신문사)

## 02. 19

- 인천·부평을 포함한 전국 미군종업원 노동조합연합 소속 종업원들, 서울역 앞에서 '한미행정협정체결'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빈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노동법을 적용하라', '퇴직금제를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을지로입구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다 경찰과 충돌  
『경향신문』 제4625호(1961. 02. 19,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2007호(1961. 02. 19, 동아일보사)

## 03. 20

- 인하공과대학 학생자치회, 학내 파동으로 인해 동맹휴학

『인하40년사』, 1179쪽(1994, 인하대학교)

## 03. 21

- ‘인천지구 자동차 노동조합’ 결성식이 부평문화예식장에서 대의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됨. 이 자리에서 대우 개선 및 노동령에 의한 법적 보장 등을 결의하고 위원장에 심봉걸, 부위원장에 최이봉, 이기흥을 선출

『경향신문』 제4655호(1961. 03. 21, 경향신문사)

## 03. 31

- 인천 부두노동자 3500여 명,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4시간 시한부 파업 단행

『조선일보』 제12197호(1961. 03. 31, 조선일보사)

『동아일보』 제12048호(1961. 04. 01, 동아일보사)

## 04. 11

- 전국 미군종업원 노동조합, 인천·부평 등지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 결과 93.5%가 찬성했다고 발표

『경향신문』 제4680호(1961. 04. 15, 경향신문사)

## 10. \*

- 인천산업전도위원회 조직. 1961년 9월, 인천서지방 감리사 내리교회 윤창덕 목사, 인천동지방 감리사 주안교회 조용구 목사가 산업선교 훈련을 받고 한국에 온 조지 오글(Georgy E. Ogle, 한국명 : 오명걸) 목사에게 인천에 와서 산업선교를 하도록 요청한 후, 이들에 의해 인천산업전도위원회가 조직됨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연혁 및 주요활동]([1983. \*. \*],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M00447493)

「기독교인천산업선교위원회와 조화순 목사 -1961년부터 1983년까지를 중심으로」(\*. \*.

\*, 김한국 일꾼교회 담임전도사, M00441363)

## 조지 오글 목사의 인천 노동 목회 활동

내가 서울에서 어학 과정을 마쳤을 때, 한국감리교의 주교는 도로시와 내가 서울 인근의 산업도시 인천에서 노동자들을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배정했다. 1961년 9월에 도로시, 아들 마틴 그리고 나는 인천 시내의 한옥으로 이사했다. 노동 목회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역 목사 몇 분을 우리집에 초대했다. 한국전 이후에 한국 목사들은 외국 선교사들이 교회 재건 비용을 제공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이 노동 목회 활동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하자 그들은 다소 놀랐다. 그들은 그 일을 지원할 지역 자금을 모으는 일을 돕는 데 동의했다.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했다. 몇 년 동안 우리의 작은 집이 유일한 사무실이었다.

인천에 있는 한 공장을 방문했던 첫 날은 유익했다. 50갤런짜리 드럼 통을 잘라서 만든 단 한 개의 난로로 난방을 하는 크고 몹시 추운 창고를 상상해 보라. 계속 톱밥을 집어넣어 불은 별정계 타고 있었다. 드럼 통의 쇠는 녹아 내릴 듯한 분홍색이었다.

난로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앞은 뜨거웠으나, 황폐한 공장을 휘감는 차가운 바람으로 등 쪽은 계속 덜덜 떨렸다. 지붕과 벽의 일부가 전쟁 통에 날아가 버렸다. 남아 있는 모든 것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의 뼈대였다. 건물의 뼈대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바깥바람에 노출되어 있었다. 기계들은 낡았고 종종 한국 노동자들의 절묘한 솜씨에 의해서만 유지되어졌다. 부상과 사고의 흔적이 사방에 있었다. 20여 명의 일꾼들이 불 주변에 모였으며 그들 중 일곱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없었다. 수류탄을 작은 금속 조각과 함께 우연히 삼으로 퍼 넣었기 때문에 화로가 이따금씩 폭발했다.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화로주변에 앉았다. 그 공장의 반장이며 내리감리교회 신자인 박용희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외국인 손님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이 분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를 우리와 한자리에 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오명걸이라는 한국이름도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그 모임을 나에게 넘겼다. “오늘 저의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영광입니다.”라고 나는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제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신앙과 우리 일상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듣고 싶고 또한 제 신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제가 오겠습니다. 우리는 화로 근처 바로 이곳에서 만나 따뜻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의논해 보시고,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 시작할 것입니다.”

곧바로 질문이 터져나왔다. “당신은 누구요? 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요? 설교를 하고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요? 미국 노동자들은 잘 삽니까? 그들은 조직화되어 있나요? 당신 미국 정보국 요원이요?”

나는 마지막 질문에 웃으며 내가 정보국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확신시켰다. 내가 연관된 유일한 미국 조직은 교회였다. “오늘은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군요. 그러나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래서 그 후 두 달 동안 매주 수요일 나는 낡은 톱밥 화로 주변에서 20여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실천, 불교, 무속신앙, 한국전쟁, 한국과 미국에서의 노동행위들 그리고 미국 내의 인종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짐 스텐슬 엮음, 『시대를 지킨 양심』, 44~46쪽(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0. 03

- 인천부두노동조합, 중앙동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지부장에 전병주(田炳疇) 선출.

『경기매일신문』(1961. 10. 04, 경기매일신문사)

### 10. 04

- 전국외국기관종업원노동조합 인천POL특수지부, 송의동 숭애원 강당에서 결성식을 개최하고 지부장에 오영제(吳永濟) 선출

『경기매일신문』(1961. 10. 06, 경기매일신문사)

### 10. 10

- 전국화학노동조합 대한제분지부 재결성. 지부장에 오세만(吳世晩) 선출

『경기매일신문』(1961. 10. 12, 경기매일신문사)

### 10. 14

- 인천부두노동조합 군항분회 · 검수분회 · 기술분회 · 서구분회 · 인항분회 · 월미분회 결성

「부두 전도 활동 보고서(특히 조합 비정화운영문제를 중심으로)」(1966. 12. \*, 김치복,

M00445142)

10. 23

- 인천부두노동조합 미창분회 · 동방분회 · 신한분회 · 세신분회 · 한염분회 · 대한제분분회 · 국제분회 · 하수분회 결성

「부두 전도 활동 보고서(특히 조합 비정화운영문제를 중심으로)」(1966. 12. \*, 김치복, M00445142)

11. 11

- 인천부두노동조합 통운분회 · 유니온분회 · 화창분회 · 황해분회 결성

「부두 전도 활동 보고서(특히 조합 비정화운영문제를 중심으로)」(1966. 12. \*, 김치복, M00445142)

11. 13

- 인천부두노동조합 교동분회 결성

「부두 전도 활동 보고서(특히 조합 비정화운영문제를 중심으로)」(1966. 12. \*, 김치복, M00445142)

- 인천부두노동조합, 25개 분회장을 임명하며 분회 조직 구성을 완료함

〈25개 분회〉

- 한운(韓運), 한염(韓鹽), 미창(米倉), 동방운수(東方運輸), 신한(新韓), 세신공사(世信公司), 한국통운(韓國通運), 대한제분(大韓製粉), 유니온, 국제통운(國際通運), 화창산업(和昌産業), 황해운수(黃海運輸), 국제실업(國際實業), 영진공사(榮進公司), 신한(新韓, 육상), 자치분회 하수(荷受), 어련(漁聯), 월미(月尾), 선창, 인항(仁港), 제물포(濟物浦), 포장(包裝), 수보(手甫), 대부(大阜), 삼산포(三山浦, 강화)

『경기매일신문』(1961. 11. 14, 경기매일신문사)

11. 23

- 검찰,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 피고사건 공판에서 전 동인천경찰서장 · 사찰계 경사 등에 대해 3·15선거 당시 자유당 정부통령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함

『동아일보』 제12285호(1961. 11. 24, 동아일보사)

12. 11

- 한국기계 노동조합 설립

「인천 한국기계를 중심으로」(1971. 02. 08, 이정태, M00442228)

12. 20

- 인천부두노동조합 만석분회 결성

1961년

「부두 전도 활동 보고서(특히 조합 비정화운영문제를 중심으로)」(1966. 12. \*, 김치복,  
M00445142)

# 1962년

## 02. 14

- 인천사회대중당 사건 관련자 3명, 혁명재판소 제2심판부에서 '2대법 반대 등을 통해 반국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인천시당 간사장·총무위원장은 무죄, 인천시당 조직위원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음.

『경향신문』 제4985호(1962. 02. 14,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2517호(1962. 02. 14, 조선일보사)

## 04. 20

- 인천부두노동조합 연평분회 결성

「부두 전도 활동 보고서(특히 조합 비정화운영문제를 중심으로)」(1966. 12. \*, 김치복, M00445142)

## 06. 20

- 인천부두노동조합 백령분회 결성

「부두 전도 활동 보고서(특히 조합 비정화운영문제를 중심으로)」(1966. 12. \*, 김치복, M00445142)

## 07. 16

- 용현동 소재 미군 유류보급창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정일도 외 29명, 고용주인 국제실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휴직 처분 당하였으므로 복직시켜주는 한편 휴직보상금을 달라'고 인천시 당국에 호소. 이들은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휴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취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회사 측의 처분은 노동자의 권익을 유린하는 처사라고 주장함

『동아일보』 제12520호(1962. 07. 17, 동아일보사)

## 09. 06

- 인천부두노동조합, 체불 노임을 추석 전까지 완불해 달라고 각 관계 기업체에 요구

『경향신문』 제5190호(1962. 09. 10, 경향신문사)

## 09. 19

- 부평3동 '아리랑 홀'에서 '윤락여성 자치총회'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경향신문』 제5201호(1962. 09. 22, 경향신문사)

**09. 22**

- 『경인일보』, 정부의 언론정책에 따라 『경기매일신문』과 통합하는 원칙 하에 휴간함. ‘우선 경기매일신문사와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들은 비례원칙 하에 두기로 한다’는 내용에 타협을 봄. 『경인일보』는 1951년 8월 1일자로 『인천일보』를 제호로 하여 창간된 이후 『경인일보』로 게재하였으며 총 11년 50일간 신문을 발행함

『경향신문』 제5202호(1962. 09. 24,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2584호(1962. 09. 24, 동아일보사)

**10. 02**

- 인천시, 경찰과 함께 거리에서 18세 미만 불량아 37명을 적발해 선감도(仙甘島)에 수용

『경향신문』 제5210호(1962. 10. 03, 경향신문사)

**12. 21**

- 인천부두노동조합, 영진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임금 22% 인상에 합의

『경기매일신문』 제4258호(1963. 01. 05, 경기매일신문사)

**12. 30**

- 전국해상노동조합 인천지부, 동방운수와 유급휴가를 대폭 설치하는 방향으로 단체 협약 체결. 군복무 후 복직 원칙, 해고시 1개월 전 통고, 유급휴가 1개월에 1일 및 1년에 8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기매일신문』 제4256호(1963. 01. 03, 경기매일신문사)

# 1963년

## 01. 19

- 인천부두노동조합 직원분회 결성

「부두 전도 활동 보고서(특히 조합 비정화운영문제를 중심으로)」(1966. 12. \*, 김치복, M00445142)

-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대한중공업 해고 노동자 118명에 대해 해고 수당을 지불하라고 의결

『경기매일신문』 제4270호(1963. 01. 19, 경기매일신문사)

## 02. 27

- 인천부두노동조합 경비분회 결성

「부두 전도 활동 보고서(특히 조합 비정화운영문제를 중심으로)」(1966. 12. \*, 김치복, M00445142)

## 03. 12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미군 당국의 대량 감원 조치에 따라 부평 등지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종업원이 감원됐다고 밝히고 9월부터 진행돼 온 미군과의 교섭이 결렬되면 전국적인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발표함

『경향신문』 제5345호(1963. 03. 12,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2727호(1963. 03. 12, 동아일보사)

## 06. 05

- 인천중공업, 「정부관리기업체보수통제법」 철폐를 요구하며 정부에 쟁의 발생 통고

『경향신문』 제5419호(1963. 06. 06, 경향신문사)

## 06. 14

- 부평 애스컴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종업원 6000여 명, 처우개선과 감원반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시위를 전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시위 허가 불허로 좌절됨

『경향신문』 제5425호(1963. 06. 13, 경향신문사)

## 06. 29

- 만석동 소재 삼화제분 인천공장 노동자 72명, 고용알선을 맡은 동방운수와

삼화제분 인천공장에 대해 ① 중간착취배제, ② 단체협약체결, ③ 출입금지  
자 복직 ④ 노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장 내에서 농성 시작

『경향신문』 제5440호(1963. 07. 01,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2972호(1963. 06. 30,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제12975호(1963. 07. 04, 조선일보사)

#### 07. 02

- 삼화제분 인천공장 노동자 72명이 6월 29일부터 농성을 진행하는 현장에  
가족 30여 명이 몰려와 '50원으로는 도저히 보리밥도 먹을 수 없다'고 외  
치며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경찰의 제지로 실패함

『경향신문』 제5442호(1963. 07. 03, 경향신문사)

#### 07. 03

- 6월 29일부터 농성중이던 삼화제분 인천공장 노동자 72명 중 68명, 집회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출동한 경찰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어 불구속  
입건된 뒤 7월 4일 자정에 귀가 조치됨

『경향신문』 제5443호(1963. 07. 04,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2975호(1963. 07. 04, 조선일보사)

#### 07. 04

- 삼화제분 인천공장 노동자들의 농성과 관련해 전국화학노동조합 인천지부  
삼화제분공장 분회 부분회장 윤민호와 분회원 조동환·박용조 등 3명, 경  
찰에 구속됨

『경향신문』 제5445호(1963. 07. 06,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2977호(1963. 07. 06, 조선일보사)

#### 07. 06

- 삼화제분 인천공장, '현장노무자 전원 계속 취업, 임금 15% 인상' 등 노사  
간에 6개 항에 대한 협정이 승인됨으로써 정상 조업 시작

『경향신문』 제5446호(1963. 07. 08, 경향신문사)

#### 07. 31

- 새나라자동차 노동조합, 7월 30일자로 262명의 노동자 중 198명에게 집단  
해고 통지서가 발부되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집단해고 반대, 휴직일 경  
우 법정휴직수당 지급, 밀린 야간수당과 휴일 특근수당 지급, 공로금 지급'  
등을 회사 측에 요청

『경향신문』 제5466호(1963. 07. 31, 경향신문사)

#### 11. 07

1963년

- 새나라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100여 명, 회사가 8월부터 임시휴업 상태에 있는 와중에 체불 임금 59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정문 앞에서 연좌 농성 돌입

『경향신문』 제5552호(1963. 11. 08, 경향신문사)

**12. 22**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지부, 긴급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에 체결된 법정수당, 연말상여금 등을 업자 측인 신정산업에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

『경향신문』 제5591호(1963. 12. 24, 경향신문사)



# 1964년

## 01. 02

- 인천 미군항 작업 노동자 1000여 명, 미8군 당국이 미군보조하역 입찰에 따른 입찰업자를 고의로 기피한다고 주장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파업농성 돌입

『경향신문』 제5600호(1964. 01. 04, 경향신문사)

## 01. 12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지부 노동자 1000여 명, 신생동 인천세관 앞 광장에서 「임금인상 촉구 성토대회」를 개최하고 10개 항의 결의문 채택

『경향신문』 제5607호(1964. 01. 13, 경향신문사)

## 01. 20

- 미 제2수송사령부 75선박부대장이 쟁의중인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을 부대 사무실에 4시간 동안 연금시키고 사표에 강제 날인하도록 하는 사건 발생. 이날 미CID가 한국인 종업원들을 불법 연행하여 지부장의 부정에 대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도 후에 밝혀짐

『경향신문』 제5619호(1964. 01. 27, 경향신문사)

## 01. 24

- 전국해상노동조합 인천어로지부 소속 조합원 500여 명, 북성동 수협 경기도지부 위판장에서 「평화선 사수 인천지구 어민 쫓겨대회」 개최

『경향신문』 제5617호(1964. 01. 24, 경향신문사)

## 01. 25

- 전국해상노동조합 인천지부, 신한공사와의 단체협약을 조인하고 2월 1일부터 실시

『경향신문』 제5622호(1964. 01. 30, 경향신문사)

## 03. 23

- 인하공과대학 주간부 학생 1200여 명,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에 대해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한다’고 주장하며 김병희 학장의 불신임을 결의한 후 6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수업거부에 들어감. 이후 8월 13일 김병희 학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서 4개월간의 분규가 마무리됨

『경향신문』 제5669호(1964. 03. 25,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3199호(1964. 03. 24,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제13325호(1964. 08. 19, 조선일보사)

03. 27

- 인천시내 7개 중·고등학교 학생 9500여 명, ‘대일굴욕외교반대’ 등을 외치며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개

『경향신문』 제5672호(1964. 03. 28, 경향신문사)

03. 30

- 인하공과대학 ROTC 학생 120여명·기숙생 40여 명 등, 학교 본관에 가마니를 깔고 철야 연좌시위에 돌입함. 학생들은 ‘김학장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 ‘교수회는 즉시 이 긴급사태를 수습하라’, ‘인하의 고유전통을 말살말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농성장에 게시. 이튿날인 3월 31일 인하공과대학 재단이사 등이 학생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문교부 책임 하에 재단이사과 협조하여 인하공대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농성을 중지함

『경향신문』 제5674호(1964. 03. 31,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제5675호(1964. 04. 01, 경향신문사)

04. 21

- 인하공과대학 교수 58명, 김병희 학장의 비행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박정희 대통령 및 각계 요로에 제출

『경향신문』 제5693호(1964. 04. 23, 경향신문사)

05. 09

- 한국판유리공장 노동자 150명, 임금 35.6%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경향신문』 제5707호(1964. 05. 09, 경향신문사)

06. 03

- 인하공과대학, 비상계엄령 선포로 휴교

『인하40년사』, 1185쪽(1994, 인하대학교)

06. 10

- 인천신문사·경기매일신문사 등이 포함된 한국신문발행인협회·한국신문편집인협회, 「시국수습선언」을 신문지상에 발표

『경향신문』 제5734호(1964. 06. 10, 경향신문사)

07. 26

- 노총 제44차 중앙위원회,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인 인천 소재 인천노

동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노동조합법 개정 법률안 반대'를 결의

『경향신문』 제5770호(1964. 07. 22, 경향신문사)

- 새나라자동차 노동조합 노조원 130여 명, 노동쟁의에 돌입하여 '새나라 공장은 과거와 같은 성질의 조업을 하게 된다면 전원 해고시킬 수 없다', '1963년 11월부터 무보수로 동공장을 지켜온 보수 전액을 지불하라' 등을 요구

『경향신문』 제5776호(1964. 07. 29, 경향신문사)

#### 08. 19

- 「언론윤리위법 철폐 경기도 언론인 대회」가 원앙예식장에서 거행되어 '언론윤리위법 경기도투쟁위원회' 위원장에 『경기매일신문』 주필 박민규, 부위원장에 『인천신문』 편집국장 김응태 · 『경기매일신문』 편집국장 조수일이 선출됨

『경향신문』 제5795호(1964. 08. 20, 경향신문사)

- 새나라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23명, 1963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불된 임금 277만 4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단식 농성 돌입. 새나라자동차는 1963년 7월 27일 이후 공장 조업을 중단하였으며 한일은행이 접수하여 휴업 중에 있었음

『경향신문』 제5796호(1964. 08. 21, 경향신문사)

#### 12. 09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투쟁위원회, 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당감원을 즉시 철회하라', '고용주의 감원 제일주의를 규탄한다', '정당한 감원에는 감원수당을 지급하라', '이동수당을 지급하라', '임금 균일인상 및 200%의 보너스를 지급하라' 등을 결의하고 이를 미군 당국에 요구함

『경향신문』 제5894호(1964. 12. 14, 경향신문사)

#### 12. 13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조합원 2000여 명, 감원반대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모였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됨. 지부장 등 4~5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부평경찰서에 연행됨

『경향신문』 제5894호(1964. 12. 14, 경향신문사)

# 1965년

## 02. 15

- 인천부두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월미분회 분회장 외 14명, 노임 360여 만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진정서 제출. 손정인 등은 해주인 조 달청이 인상된 노임 360여 만 원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이때까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일과 관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후에도 계속 진정과 고소를 이어감

「부두 전도 활동 보고서(특히 조합 비정화운영문제를 중심으로)」(1966. 12. \*, 김치복, M00445142)

## 04. 02

- 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덕판기업 분회 노동자 157명, 임금 60% 인상과 상여금 1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시작

『경향신문』 제5988호(1965. 04. 05, 경향신문사)

## 04. 21

- 인하공과대학 학생 500여 명, 교정에 모여 학교 측이 4월 20일 결정한 4월 21일~26일 간의 휴교 조치에 반발하여 정상수업을 요구하며 4월 22일 전 원 등교하기로 결정한 후 해산함

『동아일보』 제13383호(1965. 04. 22, 동아일보사)

『조선일보』 제13533호(1965. 04. 22, 조선일보사)

## 06. 08

- 한국판유리 노동조합 조합원 500여 명, 임금인상 및 퇴직금의 계상 일자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어 파업 농성 돌입

『경향신문』 제6042호(1965. 06. 08, 경향신문사)

## 06. 22

- 인하공과대학 학생 800여 명, 인하공과대학에서 「한일회담 반대 성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라’ 등 5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함. 이후 가두시위를 전개하다가 송의동 사거리 부근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고 투석전을 전개. 이날 학생위원회 회장 등 30여 명의 학생들이 연행됨. 학생들은 연행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

입합

『경향신문』 제6054호(1965. 06. 22,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제6055호(1965. 06. 23, 경향신문사)

06. 23

- 6월 22일 시위와 관련해 인하공과대학 학생위원회 회장 및 체육부장이 구속되고 학생 9명이 불구속 입건, 84명이 훈방 조치됨.

『경향신문』 제6055호(1965. 06. 23, 경향신문사)

10. 15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건물관리분회 노조원 158명, 총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이행을 하지 않는 거양기업을 상대로 10월 1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

『조선일보』 제13686호(1965. 10. 17, 조선일보사)

10. 18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에 소속된 미 애스컴 DMM보급행정부 한국인 종업원 500여 명, 종업원들이 대구지구로 이동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이 ① 퇴직금 2개월 선불, ② 봉급 3개월분 선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 돌입

『조선일보』 제13687호(1965. 10. 19, 조선일보사)

10. 20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조합원 6000여 명, 미군 측이 파업 중인 미 애스컴 DMM보급행정부 한국인 종업원 500여 명을 전원 파면 조치하겠다고 밝히자,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 결의. 애스컴 DMM 및 DPD 한국종업원들은 10월 18일부터 퇴직금 선불 문제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으며 그중 일부는 10월 19일부터 문화예식부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함. 이들은 10월 21일 미군 당국과 합의를 보고 파업을 중지함

『경향신문』 제6157호(1965. 10. 20,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제6158호(1965. 10. 21,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3688호(1965. 10. 20, 조선일보사)

12. 22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POL특수지부 산하 경비원 80여 명, 임금 65% 인상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 돌입

『동아일보』 제13592호(1965. 12. 22, 동아일보사)

# 1966년

## 01. 12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결성  
『인천주보』 제809호(1986. 03. 23, 천주교 인천교구)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POL분회원 602명과 경비분회 경비원 51명, 특수지부 산하 경비원 80여 명이 노동쟁의 중 POL간부 1명을 비롯한 6명이 구속된 사건에 반발하며 파업 돌입  
『경향신문』 제6227호(1966. 01. 02, 경향신문사)

## 02. 05

- 인천부두노동조합 대한통운분회 해상작업반 노동자 100여 명, 인천부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한통운 측에 대해 체불 노임을 지불하라며 농성 돌입  
『조선일보』 제13780호(1966. 02. 06, 조선일보사)

## 02. 19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인천지부를 포함한 전국 13개 지부 2만 3000여 명이 3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간 동안 기한부 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함. 이후 이 결정을 철회하였다가 3월 26일, 다시 4월 6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기로 재결의  
『경향신문』 제6261호(1966. 02. 21,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제6291호(1966. 03. 28, 경향신문사)

## 03. 04

- 전국해상노동조합, 인천 등 항만준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산하 조합원 940명에게 3월 7일 오전 8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을 지령  
『경향신문』 제6271호(1966. 03. 04, 경향신문사)

## 04. 06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24시간 시한부 파업 돌입. 부평지부 3000여 명도 파업에 돌입하여 '파업 중'이라는 휘장을 가슴에 달고 부평지부 관내 17개 부대 영문 앞에서 5시간 동안 연좌 농성 전개. 이 날 인천지부 산하 노조원 2000여 명도 파업 진행.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은 3월 2일 체결한 노사협정 가운데 ① 해고 또는 정년퇴직자는 10년에 21개월 분, 사직자는 17개

월분의 퇴직금 지불 ② 임금은 하후상박으로 하고 14%~20% 인상할 것 등에 대해 미8군이 미 국방성이 인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행하지 않자 쟁의에 돌입함

『경향신문』 제6299호(1966. 04. 06,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3831호(1966. 04. 07, 조선일보)

#### 08. 14

- 천주교 인천교구 강화도 본당에서 12명의 가톨릭노동청년회 여성 회원들이 투사 선서를 받음

「강화도JOC회원고용거부사건보고서」(1968. 01. 28, M00479588)

#### 11. 11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 POL특수지부 산하 부평지구 경비분회 조합원 316명, 대행사인 한용실업에 대해 8·9·10월분 체불 노임 436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조선일보』 제14019호(1966. 11. 13, 조선일보사)

# 1967년

## 05. 14

- 강화도 심도직물 노동조합(전국섬유노동조합 직할분회) 결성  
「강화도JOC회원고용거부사건보고서」(1968. 01. 28, M00479588)

## 06. 12

- 인천산업전도위원회,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동조합 지도자 교육」 진행. 13개 사업장에서 42명이 참가하고 30명이 수료함. 당시 인천산업전도위원회는 내리교회 이명구 목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실무자들의 역할과 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실무자들의 역할〉

| 구분  | 직책      | 역할                              |
|-----|---------|---------------------------------|
| 교역자 | 조승혁 목사  | 상임위원 및 판유리 한국기계, 이천전기 평신도 활동 담당 |
|     | 오명걸 목사  | 협동상임위원 및 중공업, 공작창 담당            |
|     | 조화순 목사  | 동일방직 및 근로자 가정문제 담당              |
|     | 윤문자 전도사 | 중앙도자기 공장 담당                     |
|     | 김정국 목사  | 공작창 담당                          |
| 평신도 | 조문걸     | 중공업 담당                          |
|     | 김호현     | 부두 전역 담당                        |
|     | 유홍식     | 노동 및 경제문제 담당                    |
|     | 곽희숙     | 서무 및 일반사무 담당                    |

「산업전도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1967. 09. 10, 인천산업전도위원회, M00446102)



## 〈위원회 구성〉

| 직책         | 성명                                        |
|------------|-------------------------------------------|
| 위원장        | 이명구 목사 (내리교회)                             |
| 위원         | 이성해, 강두현, 고영춘, 한경수, 최기석, 김봉록, 송주범 (이상 목사) |
| 평신도 대표     | 김근태, 박완규                                  |
| 기독교 기업인 대표 | 이상기                                       |
| 노동조합 대표    | 강석준                                       |
| 선교사        | 오명걸(조지 오글)                                |
| 상임위원       | 조승혁                                       |

## 06. 14

- 인하공과대학 학생 1000여 명, 학교 교문 앞에서 ‘6·8선거부정’ 규탄 시위 전개. 이날 인하공과대학은 시위로 인해 무기 휴교에 들어감

『경향신문』 제6668호(1967. 06. 15, 경향신문사)

『매일경제신문』 제381호(1967. 06. 15, 매일경제신문사)

『인하40년사』, 1192쪽(1994, 인하대학교)

## 07. 19

- 강화도 심도직물 노동조합, 박부양을 분회장으로 선출

『조선일보』 제14406호(1968. 02. 14, 조선일보사)

## 08. 17

- 고려대학교 부설 노동문제연구소, 『인천시노동사정분석』이란 책을 출판하여 인천지역의 노동쟁의 비율이 세계 최고라고 분석함. 노동문제연구소는 인천 소재 52개 노동조합 2만 7394명을 대상으로 1965년 12월부터 1966년 11월에 걸쳐 노동쟁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인천지역 31개 노동조합 1만 9665명이 쟁의에 참가하였다고 밝힘

『조선일보』 제14253호(1967. 08. 17, 조선일보)

## 11. 20

- 인천부두노동조합, 민수물자 하역노임을 65~100% 인상을 요구하며 쟁의 중 파업가부 투표를 진행하여 노조원 1439명 중 1282명의 찬성으로 총파업 결의

『조선일보』 제14335호(1967. 11. 21, 조선일보)

## 12. 17

- 강화도 상호직물에서 12월 17일~12월 22일 사이에 천주교 신자 6명을 포

1967년

함한 14명의 노동자들이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당함

「강화도JOC회원고용거부사건보고서」(1968. 01. 28, M00479588)

**12. 18**

- 강화도 상호직물 노동조합 결성

「강화도JOC회원고용거부사건보고서」(1968. 01. 28, M00479588)

**12. 30**

- 강화도 이화직물에서 2명의 천주교 신자가 해고당함

「강화도JOC회원고용거부사건보고서」(1968. 01. 28, M00479588)

# 1968년

## 01. 04

- 강화도 심도직물 노동조합 분회장, 2일 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당함  
「[주교님께 보내는 강화도사건에 관한서신]」(1968. 01. 15, M00479451)  
「강화도JOC회원고용거부사건보고서」(1968. 01. 28, M00479588)

## 01. 06

- 강화도 심도직물 노동조합 조합원들, 분회장의 해고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 내 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이 해고된 분회장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음. 조합원들은 곧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후 공장 앞 천주교회에서 운영 중인 건물 강당을 빌려 회의 개최. 조합원 50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해 강당 뜰까지 운집해 있자, 경찰은 하늘이 보이는 곳은 옥외 집회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천주교 신자 5명을 연행하고 이후 일주일에 걸쳐 천주교 신자만을 골라 30여 명을 연행함  
「강화도JOC회원고용거부사건보고서」(1968. 01. 28, M00479588)

## 01. 07

- 강화도 심도직물 회사 측 사람들과, 강화경찰서 서장·정보계장 등이 오전에 강화도성당을 방문, 전 미카엘 신부에게 ‘노조를 선동하고 기업운영에 간섭’하였으며 ‘무식한 노동자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주입시켰다’는 등의 말로 항의하고 반공법 제4조를 적용해 입건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함. 같은 날 오후 4시, 회사 측이 심도직물 공장 정문에 ‘천주교 전 미카엘신부(미국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공장 작업을 무기휴업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공장 폐쇄

### 〈공고문 내용〉

#### 알림

작년 2월 이후 천주교 전 미카엘(미국인) 신부의 끈덕지고 부당한 간섭으로 인하여 당 회사의 운영관리가 마비되었기에 부득이 공장작업을 무기 휴업하겠습니다오니 종업원 일동은 명일 8일 아침 8시까지 일단 회사 강당에 집합하기 바랍니다.

1968년 1월 7일

1968년

『[주교님께 보내는 강화도사건에 관한 서신]』(1968. 01. 15, M00479451)

『강화도JOC회원고용거부사건보고서』(1968. 01. 28, M00479588)

『조선일보』 제14406호(1968. 02. 14, 조선일보사)

## 01. 08

- 강화도 심도직물, 상호직물, 이화직물 등 강화도 소재 21개 공장 대표로 구성된 직물업자 협회가 앞으로는 천주교 신자와 JOC 회원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7개 항목의 결의문 채택

### 〈결의문 내용〉

#### 결의문

1968년 1월 8일 강화직물업자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업자는 천주교 지오씨 회원은 하인을 막론하고 앞으로는 고용하지 아니한다.
2. 전국 섬유노동조합 본부는 천주교 전 미카엘 신부의 주구가 되지 말라.
3. 천주교 전 미카엘 신부는 기업주가 근로자를 착취 운운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4. 천주교 전 미카엘 신부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행세를 하지 말고 성직자로 돌아가라.
5. 천주교 전 미카엘 신부는 노동자를 옹호한다는 미명 아래 기업운영을 간섭하지 마라.
6. 천주교 전 미카엘 신부는 위선자의 가면을 벗고 성직자의 본자세로 가라.
7. 천주교 전 미카엘 신부는 사상적으로 의심할 바가 있으며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업자 전원은 휴업도 불사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함.

1968년 1월 8일

심도직물 공업주식회사 / 상호직물 공업주식회사 / 신흥직물 공장 / 평화직물 공장 / 남화직물 공장 / 이화견직 공장 / 동화직물 공업주식회사 / 임성직물 공업주식회사 / 형제직물 공업주식회사 / 동광직물 공업주식회사 / 경도직물 공업주식회사 / 송도직물 공업주식회사 / 무림직물 공업주식회사 / 화성직물 공업주식회사 / 세창직물 공업주식회사 / 대화직물 공업주식회사 / 신성직물 공업주

식회사 / 삼호직물 공업주식회사 / 월성직물 공업주식회사 / 고려  
직물 공업주식회사 / 송강직물 공업주식회사

「[주교님께 보내는 강화도사건에 관한 서신]」(1968. 01. 15, M00479451)

「강화도JOC회원고용거부사건보고서」(1968. 01. 28, M00479588)

### 01. 09

- 천주교 가톨릭노동청년회 본부,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과 관련하여 강화도 직물업자협회가 발표한 7개 결의사항의 전면 취소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업자들에게 발송

『조선일보』 제14406호(1968. 02. 14, 조선일보사)

### 01. 18

- 천주교 인천교구 교구장 나길모 주교,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과 관련해 ‘특별메시지 발표

「인천교구-특별메시지[강화섬유노동조합사건관련]」(1968. 01. 18, 교구장 나주교, M00479207)

#### 천주교 인천교구 교구장 나길모 주교의 ‘특별메시지’

(내주일 각본당 미사 때와 공소에서 낭독하여 주시오)

친애하는 인천교구 신도 여러분,

최근 강화도에서는 천주교 신자인 노동자들이 섬유노동조합 운동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사건의 심각성은 물론 사건 자체가 왜곡 보도되고 있는 실정에 임하여 모든 신도들에게 본사건의 진상과 교회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미카엘 신부님은 그리스도왕본당(강화본당)의 주임신부이며 본당 내에 조직된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지도신부로서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적 사회정의를 가르쳐 왔는데 이는 지난 70년 동안 역대 교황성부들께서 선언하신 그리스도적 사회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신부님이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하였다고 전하여졌으며 일부 신문은 전 신부님이 그의 활동에 대하여 사과하였기 때문에 전 신부로 인하여 폐쇄하였다고 하는 공장 문을 다시 열었다고 보

도했습니다. 나는 강화지구 월남동지회와 강화소재 21개 직물공장들에게서 전 신부님을 그곳으로부터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또 신부들은 노동조합 활동에서 손을 떼고 신부다운 업무에만 충실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6명의 노동자들이 다른 공장에서 해고를 당하였으며 강화에 있는 21개 공장 대표들은 천주교 신자로서 가톨릭 노동청년회 회원들은 그들의 공장에서는 앞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첫째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둘째 지난 70년 동안 교황성부들께서 가르치신 위대한 사회정의를 상기시키고, 셋째 한국 정부당국자들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위대한 존엄성과 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여 올바른 보수와 직업의 기회균등의 권리와 방해 없이 자유스럽게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얻기 위하여 활약한 노동자로서의 가톨릭 노동청년회 회원들의 권리 존중 등 사회 도의 범위 내에서의 교회의 권리를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강화에서 발생한 사건에 접하여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노동자들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 전 신부님은 그의 활동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사과할 까닭이 없습니다. 전 신부님은 노동청년회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적 사회정의를 가르침으로써 신부다운 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일 노동청년회 회원들이 공장 종업원 각자의 권리로서 노동조합을 조직함에 대하여 비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인 것입니다. 전 신부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가르침으로 온당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권리는 한국 노동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 신부님을 다른 사람과 바꿀 의사가 없으며 신부는 그들의 양떼(신도)에게 사회정의를 가르칠 목자로서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중에 2개 공장에서 해고됨으로 해서 최소한 열여섯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노동활동을 했는데도 해고당했다면 그들은 한국 노동법을 위반하였어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천주교 신자로서 해고당하였다면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에 있어 기회균등과 종교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21개 공장대표들은 그들의 공장에 천주교 신자로서 가톨릭 노동청년회 회원들의 취업을 허락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업에 있어 기회균등을 가지는 노동자 각자의 권리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 결의문은 한국에서 향유되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 교황 레오13세 시대부터 노동자들의 권리와 교회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르칠 의무에 대하여 언급되었습니다.

교황 레오13세는 거대한 재산이 몇 사람의 수중에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불충분한 보수를 받게 되면 경제적 곤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황 레오13세께서 사회분야에서 다만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참아 받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대신에 교황께서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용감히 선언하시고 “노동자들만의 또는 노무자와 사용인의 결합으로 된 집단의 권리가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시고 또한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경제적 직업적 이익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 기구를 조직할 권리와, 또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조직 내부에서 자치적으로 그들의 주동에 의하여 활동할 권리도 자연적인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황 비오11세께서는 교회는 노동임금제도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말하여야 할 직무와 권리가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제도는 공정하던가 공평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보수를 결정하려면 노동자 각자와 그들의 가족의 필요뿐 아니라 공장의 상태와 대중경제의 이익의 필요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오11세께서는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정의와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황 비오12세 성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친 중에는 노동은 모든 인류의 의무와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상호 관계를 규정

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961년 요한23세 교황께서는 그의 전임 교황들의 가르침을 되풀이했습니다.

교황레오 13세의 유명한 회칙인 “레룸 노바룸” 이 반포된지 70년이 나 되었으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슬픔은 같습니다. 즉 “많은 나라, 여러 대륙에서 한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인간이하의 상태로 몰아넣는 품삯을 받고 헤아릴 수 없는 비참 속에 잠겨 있는 광경을 생각할 때에 나는 깊은 슬픔이 가슴에 벽참을 금할 수 없다” 고 하시고 교황성부는 또 빈부의 차이가 큼을 슬퍼하였으며 노동자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위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품삯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는 노동과 자본이 융화하여 이견을 조절할 때는 노동자의 의사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자간의 단체교섭에 있어 노동자와 경영자는 공동이익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 요한성하께서 크리스찬 사회정의의 가르칠 교회의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훌륭한 성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교회가 사회생활의 현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주는 교리는 의심 없이 영원한 타당성으로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때까지 말한 바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개개 인간이 사회생활을 운영하는 모든 조직체의 기초이며, 목적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신성한 존엄성을 보존하는 기본원리에서 교회의 교직은, 노련한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보조를 받아 특히 지난 세기 동안에 사회에 관한 교리를 밝혔습니다.

3) 이것은 여러 교황들께서 노동분야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권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명백합니다. 신부들 특히 전미카엘 신부 같은 분이 지나치게 긴 작업시간과 연소 노동자와 합당치 않는 노동조건과 빈약한 보수 등에 대한 분명한 나쁜 조건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위대한 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들 모든 신부들이 사회분야와 노동분야에 있어 인간의 권리를 가르칠 때 레오13세와 비오11세와 비오12세와 요한23세 등 여러 교황성부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

나는 여러 신도들에게 이러한 현재의 상태를 위하여 기도드리기 바라며 또 교회가 사회에 대한 가르침을 더 잘 파악하는 기회로 삼고 또 하느님에게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정의로운 귀결을 내려주시도록 간청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강화사건이 올바른 결말을 가져올 때까지 외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임무를 이해할 때에 또 그들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할 때에라야만 하느님의 뜻대로 나라가 변영할 것입니다.

1968년 1월 18일

교구장 나 주 교

「인천교구-특별메세지[강화섬유노동조합사건관련]」(1968. 01. 18, 교구장 나주교, M00479207)

## 02. 07

- 천주교 주교단, 강화도 심도직물에서 천주교 신자 8명이 부당 해고된 사건과 관련해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부당 해고된 신자의 즉각 복직과 성직자를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하겠다고 위협한 경찰서 간부의 공개 사과 등 3개 항목을 결의

『경향신문』 제6872호(1968. 02. 10, 경향신문사)

## 02. 11

-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과 관련해 강화도 천주교 본당에서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대응책 논의 시작

『조선일보』 제14406호(1968. 02. 14, 조선일보사)

## 06. 27

- 강화도 심도직물 전 노동조합 분회장이 징계 해고 당한 데 대해 섬유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 측에 복직을 명함

『노동청년』 제61호(1968. 06. \*,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M00884641)

## 07. 01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분회 회원 591명, 임금

1968년

32%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조선일보』 제14525호(1968. 07. 02, 조선일보사)

**09. 06**

- 인천부두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들에 지급할 노임을 횡령한 혐의로 지부장, 대한제분 분회장 등 5명이 구속됨

『조선일보』 제14583호(1968. 09. 07,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제14584호(1968. 09. 08, 조선일보사)

# 1969년

## 01. 26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구 「제9차 정기 대의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이 날 현재 부평지역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남녀 종업원은 3722명(남 3363명, 여 359명)이며 부평지부의 분회는 모두 41개임

〈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분회 현황〉

| 분회 이름     | 분회원 수(명) | 분회 이름       | 분회원 수(명) |
|-----------|----------|-------------|----------|
| 보급관리 분회   | 105      | 50 보급소 분회   | 64       |
| 저장 분회     | 47       | 516 보급소 분회  | 39       |
| 저장 (가) 분회 | 102      | 335 분회      | 117      |
| 저장 (나) 분회 | 190      | 항공대 분회      | 32       |
| 수납 분회     | 92       | 69 수송 분회    | 34       |
| 운수 분회     | 82       | 지구공병본부 분회   | 316      |
| 품질보수 분회   | 63       | 지구 제1공병본부   | 78       |
| 목공 분회     | 52       | 지구 소탕분회     | 47       |
| 차량정·부 분회  | 46       | 오정 분회       | 138      |
| Depot 사령부 | 55       | PX 분회       | 235      |
| 경비 분회     | 114      | PX 제1분회     | 68       |
| AD 수송분회   | 46       | 하사관 구락부     | 233      |
| MAE 분회    | 156      | 건물관리 분회     | 94       |
| 정비 분회     | 42       | 난방관리 분회     | 102      |
| PDO 분회    | 27       | 37 정비 분회    | 80       |
| TMP 분회    | 156      | 발전 분회       | 209      |
| 13 QM 분회  | 41       | 시흥교량분회      | 38       |
| 6 의무창 분회  | 40       | 20 지원사령부 분회 | 43       |
| 121 병원 분회 | 123      | 미사일 분회      | 29       |
| Bakery 분회 | 29       | 직할 분회       | 22       |
| 512 분회    | 114      | 계           | 3722     |

「산업선교를 위한 부평지역 현황조사 보고서」(1969. 10. 25, M00445850)

1969년

03. 22

- 인천중공업 노동조합, 제26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결의. 조합원의 임금을 현행 기본급의 40%를 인상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879명(남 853명, 여 26명)이 쟁의에 참가

「노동쟁의 결의 통고[수신:사장]」(1969. 03. 27,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중공업지부, M00109860)

05. 13

- 부평지역 '위안부' 1000여 명, 동료 여성이 미군의 학대에 못 이겨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상여를 멘 채 에스컴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임

『동아일보』 제14642호(1969. 05. 14, 동아일보사)

05. 17

- 미군 상병이 부평동에서 '위안부'에게 신분증을 주고 동침을 요구하다 거절하자 옷걸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경향신문』 제7147호(1969. 11. 12,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4646호(1969. 05. 19, 동아일보사)

05. 23

- 인천공작창 노동자 800여 명, 민영화 반대하며 쟁기대회 전개  
이우재 · 나준식 · 노현기,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195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국제실업 노동자 1063명,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쟁의  
이우재 · 나준식 · 노현기,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195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7. 05

- 인하공과대학 학생 200여 명, 3선 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교문 밖으로 진출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연좌시위 진행

『조선일보』 제14838호(1969. 07. 06, 조선일보사)

09. 22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3개 관리 분회 조합원 406명, 부대 내 작업장에서 미군 측이 2000여 명의 한국인 종업원을 감원시킨다는 계획에 항의해 성토대회 개최

『동아일보』 제14755호(1969. 09. 23, 동아일보사)

10. 11

- 인하공과대학 학생 500여 명, '3선 개헌안을 즉시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 개최

『경향신문』 제7364호(1969. 09. 11,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제7365호(1969. 09. 12, 경향신문사)

- 전국섬유노동조합 동일방직 지부 지부장과 동일방직주식회사 인천공장 전무이사 간 「단체협약」 체결

「1971년도 단체 협약서」(1969. 10. 11, 동일방직 주식회사  
인천공장 · 전국섬유노동조합 동일방직 인천공장지부, M00446122)

## 10. 20

- 인하공과대학, 3선 개헌 반대 시위로 9월 12일부터 무기한 휴강에 들어갔다가 개강함

『경향신문』 제7395호(1969. 10. 17, 경향신문사)

## 12. 31

- 인천제철주식회사와 인천중공업주식회사 간 합병 계약 체결. 합병 기일은 1970년 4월 1일이며 인천제철주식회사가 인천중공업주식회사를 합병하는 형태임. 같은 날 인천중공업 노동자들은 '각과별 권익 투쟁위원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하여 계약서 제10조에서 명기한 '현재의 중공업 종업원은 해고되고 제철과의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을 문제 삼아 권리 회복을 위해 단결할 것을 호소

「호소문[인천제철주식회사와 인천중공업주식회사 합병계약서]」(1969. 12. 31, M00441925)



1970년대  
1970 ~ 1979





# 1970년

## 01. 05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1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부평지역 현황 조사 진행

### 〈부평지역 사업장 현황〉

(단위 : 명)

| 사업장   | 노동자 수 | 사업장     | 노동자 수 |
|-------|-------|---------|-------|
| 외기노조  | 3722  | 우진산업    | 35    |
| 신진자동차 | 2500  | 대명공업사   | 80    |
| 수출공단  | 3000  | 신한제분    | 600   |
| 한국베아링 | 650   | 화산기업    | 139   |
| 경성공작  | 500   | 경인제철    | 125   |
| 전남모방  | 350   | 조양금속    | 50    |
| 세한요업  | 40    | 정영시계공업  | 40    |
| 부평제강  | 90    | 부평네루공업사 | 20    |

「1970년도 활동보고서」(1970. 12. \*,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445370)

## 02. 11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 POL특수지부 산하 인천·부평지구 경비분회원 474명, 미군 측이 92명을 감원한다고 통고한 데 항의하며 일괄사표 제출

『경향신문』 제7492호(1970. 02. 11, 경향신문사)

## 02. 17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일부 조합원들, 지부장 선출 문제와 관련하여 「4,000 부평지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들의 권익과 정의를 위하여 총궐기 합시다」라는 제목의 결의문 발표

## 〈결의문 서명자〉

| 직위   | 이름  | 직위   | 이름  | 직위   | 이름  |
|------|-----|------|-----|------|-----|
| 총무부장 | 최중태 | 감찰부장 | 박광열 | 섭외부장 | 김인기 |
| 조직부장 | 신명천 | 사업부장 | 김재창 | 조통부장 | 유충열 |
| 쟁의부장 | 윤경용 | 문화부장 | 안경열 | 체육부장 | 이무용 |

「4,000 부평지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들의 권익과 정의를 위하여 총궐기 합시다」(1970. 02. 17,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총무부장 최중태 외)

## 02. 21

-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 영등포도시산업선교연합회, 온양 수도호텔에서 경인지역 노동조합 대표급 지도자 20명(인천지역 10명)을 초청하여 '70년대의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노동조합 지도자(지부장급) 연구회」 개최

## 〈프로그램 구성〉

| 주제                     | 이름                   |
|------------------------|----------------------|
| 70년대의 경제발전과 경영과제       | 최규원(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장) |
| 70년대의 경제발전과 노동정책       | 이희균(노동청 노동국장)        |
| 70년대의 근로자 과제와 노동조합의 문제 | 이헌기(한국노총 총무부장)       |
| 대화의 시간                 | 종합토의                 |

「1970년도 활동보고서」(1970. 12. \*,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445370)

## 02. 23

- 전국부두노동조합, 3월 1일과 3월 23일 부산항과 인천항에 들어오는 콘테이너 수송선의 입항과 관련해 '대책없는 콘테이너 전용화 반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2월 26일, 인천을 포함한 전국 18개 지부에서 거행하기로 결정

『부두소식』 호외(1970. 02. 24, 전국부두노동조합 인천지부, M00444899)

## 06. 15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 POL특수지부, '임금 30% 인상, 근로기준법 제 47조 및 48조의 월차휴가 실행과 연차휴가 수당 실행'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신고에 대해 적법 판결을 받아 실효

행사를 위한 가부 투표 시행

『경기매일신문』(1970. 06. 19, 경기매일신문사)

06. 23

- 전국 외국기관 노동조합 부평지구 하사관클럽분회, 미군 측이 조합원 33명에 대한 감원 통고를 하면서 한국인 근로자 15명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미국 민간인 1명을 신규 채용하려 하는 등 노사 간 협의를 위배하고 있다며 해고 반대 쉼기대회 개최

『경기매일신문』(1970. 06. 25, 경기매일신문사)

11. 22

-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화수동 소재 대건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근로자의 사회참여와 국가발전’이란 주제로 박성종 신부, 이도선 교수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노동대강연회」 개최. 강사로 예정됐던 노동청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강연회 시작 강사 중 한 명이 전 신민당 노동정책 기조 pamphlet을 청중에게 배포해 물의를 빚음

「노동문제 대강연회」(1970. 11. 22, 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445453)

「노동대강연회 수지내용, 결과보고 등」(1970. \*. \*, 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445425)



〈1970년 11월 22일 개최된 「노동문제 대강연회」 포스터〉

# 1971년

## 01. 13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미 제20일반지원단사령부가 산하 조합원 340명을 2월 9일자로 집단 감원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반발하며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쟁위원회 결성.

『경기매일신문』(1971. 01. 15, 경기매일신문사)

## 02. 08

-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노동과 소명』 발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 1

# 노동과 소명

71. 2. 8. 발행.

---

**인 천 위 원 회**  
**위원장 박 태 선**

**위 원**    강진발    윤바라  
              김진발    김성희  
              오유    정성태  
              이경    이광경  
              조한웅    이현목  
                          주요표

**실 무 진**  
**상임위원 조 승 혁**  
              "    조 화 순  
**협동 "    오 명 결**  
**실 무 자 유 흥 식**  
              "    김 호 현  
              "    정 양 숙  
**사 무 원 광 회 숙**

**도시·산업선교위원회**  
인천시 중구 인현동 26  
(역성빌딩 5층)  
TEL 2-3792

### 71년을 맞으면서

"내 동료들의 배후를 강해 주시오."  
이것은 전 대 일 켜의 외마디 외침이다  
너와나 다 이외침에 부끄러움과 용기를 동시에  
느끼며 다시 차음부터 시작해 보렵니다  
이 첫걸음에 많은 분들의 뒷바침과 재력을 기다  
리면서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앞으로 앞으로 걸어  
가렵니다  
많은 변화와 사건들 속에서 서로간에 안면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444457

『노동과 소명』 1(1971. 02. 08, 인천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444437)

## 03. 03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인천시 제2공보관 회의실에서 조합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서정곤을 지부장으로 재선출.

『경기매일신문』(1971. 03. 04, 경기매일신문사)

『경기일보』(1971. 03. 04, 경기일보사)

## 05. 18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분회, 인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조합원 6명이 참석하여 결성. 분회장에 김창수 선출.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의 노동조합 결성 경위」(1971. 05. 18, M00446112)

「경기지부 신진자동차 분회결성이후 현재까지의 경위서」(1971. 06. 24, M00058526)

‘1971년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조 결성 투쟁’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도 두 차례에 걸친 노조 결성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바 있었다.

그 첫 번째로 1967년 9월에 241명의 조합원이 전국금속노조 신진자동차 직할분회를 결성했으나 주동자 5명이 집단해고 되고 분회장으로 선출됐던 정모씨가 회사 측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신진자동차판매회사의 계장으로 승진 발령되어 감으로써 실패한 바가 있었고 1969년 9월에는 노조 결성 움직임이 사전에 발각되어 주동자 8명이 조직을 강행, 1971년 5월 18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전국금속노조 경기지역지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분회(분회장 김창수)가 결성되어 경기도지사의 신고필증과 본조 위원장의 인준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자 회사측에서는 “회사 사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으니(당시 동회사 사장 김창원은 공화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중이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 노조활동을 보류하고 보도관제를 해준다면 선거 후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요청하여 노조 측이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자 정기 사무감사를 구실로 분회장 김창수를 6월 1일 본사 감사부속실로 연금하고 공장에서는 간부들이 총동원되어 회사 주동의 어용노조 결성을 기도하여 어용노조 가입원서 50매 이상을 받아오는 사람은 대의원을 시켜준다는 등 회유를 하여 6월 1일 금속노

조 신진지부 결성대회를 가졌으나 이 대회에 참석했던 금속노조 조직부장이 불법대회로 판단,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실패했고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종업원들이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회사 측은 기존 분회를 설득하여 불법지부와와의 통합을 종용하였다.

이에 기존 분회는 6월 9일 “지부를 결성한다는 조건으로 분회를 해산한다. 단 회사의 방해로 지부 결성이 좌절될 때에는 분회 해산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회사와 합의함으로써 6월 18일을 분회 임시총회 겸 통합대회 날짜로 정하고 분회장의 이름으로 이를 공고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6월 17일 분회장 김창수를 공금을 유용했다고 해고하고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회사에서 내쫓아 이에 항의하여 이날 밤 조합원 60여 명이 농성하자 회사 측은 경찰에 고발하여 부평경찰서장 지휘 아래 기동경찰이 동원되어 김창수 분회장 등 6명을 연행 구속하고 조합원들은 18일 새벽 해산되고 말았다.

그런 후 회사측은 6월 18일 오후 4시경 부분회장 강영박의 명의로 지부승격 노조대회를 개최하고(비조합원까지 입회시켜 700여 명이 참석) 임원을 개설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온 당시 노총 위원장 최용수가 이 대회가 무효임을 선언하자 700여 참석자 중 300여 명은 퇴장했으나 불법대회는 강행되었다.

그런데 이같이 노총 위원장이 불법대회임을 선언했음에도, 또 원래의 분회장이 해고되고 경찰에 구속되어 있는 중에 강행된 대회였음에도 금속노조 본조는 대회 다음 날인 19일 오전 곧바로 동대회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인준증을 교부했다.

그리하여 이날 오후 기존 분회의 분회원 3명이 금속노조 본조에 찾아가 항의한 끝에 금속노조는 오전에 교부한 인준증을 오후에 되찾아오는 추태를 벌였다.

한편 이같은 분규 속에서 금속노조 경기지역지부는 6월 22일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김창수의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6월 23일에는 신진자동차분회의 ‘지부 승격에 대한 이의 신립’을 인천시장에게 제기했다.

.....

이와 함께 신진자동차 조합원 35명은 노총회관 2층에서 노조결성 방해를 규탄하는 농성투쟁을 벌이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했고 6월 25

일에는 기존 분회 조합원 25명이 금속노조 본조 사무실에서 분회장 복직, 6·18 불법대회 무효화를 내걸고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렇게 되자 노총은 6월 26일 “먼저 분회장을 구제한 후 조합본부, 지부, 분회 3자간의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수습하라”는 지시를 금속노조 본조에 내려 금속노조 본조는 6월 28일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창수에 대한 문책을 회사 측이 포기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결의사항을 회사 측 및 전 분회장 김창수가 승복할 경우 신진자동차 부평지부를 적법 지부로 인정하고 노사분규의 과정에서 생긴 모든 불미한 일을 불문에 붙이기로 결의했다.

.....

8월 6일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되어 새 지부장에 이원우가 선출되었다.

이 새 지부는 전 분회장 김창수의 원직복귀를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회사 측은 이를 묵살해 오다가 8월 16일에는 환율인상으로 인한 ‘작업량 감소’를 내세워 아무 예고도 없이 종업원 208명을 무더기로 해고해 버렸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신진자동차공업이 연 260억 원 이상의 수입을 가져와 국내 최고의 매상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다소 침체했다고 종업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해고자들은 노조간부를 포함한 대의원 13명 등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이 대다수라고 주장하고 종업원 800여 명이 이날 즉시 공장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연표』, 325~328쪽(2013, 노동자역사 한내  
쥬음, 한국지엠지부)

## 06. 16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분회 회장 김창수,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당함

「신진자동차 분회지부 승격대회에 관한 이의신청[수신:인천시장]」(1971. 06. 21, M00446096)

## 06. 08

-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위원회 사무실을 중구 인현동 26번지(혜성빌딩 5층)에서 동구 화수동 183번지로 이전

「본 회 사무실 이전에 관한 일[수신:동인천 경찰서 정보과]」(1971. 09. 13,

**06. 18**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분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간부 30여 명과 함께 회사 정문 앞에서 회사 측에서 주도한 또 다른 노동조합의 결성에 맞서 항의함. 인천도시산업선교위원회 소속 조지 오글 목사의 요청으로 현장을 찾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용수도 설득을 시도했으나 결성대회는 강행됨

『동아일보』 제15292호(1971. 06. 19, 동아일보사)

**06. 25**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분회 조합원 30여 명, 전국금속노동조합 본부에 몰려가 부당해고를 당한 분회장 김창수의 구제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임

『동아일보』 제15298호(1971. 06. 26, 동아일보사)

**07. 18**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하사관클럽분회, 분회원 350여 명이 임시총회를 열고 분회장 유충열이 인상된 노임으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아 분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임원 교체를 결의하고 신임 분회장에 신경수 선출

『경기매일신문』(1971. 07. 19, 경기매일신문사)

『경기일보』(1971. 07. 19, 경기일보사)

**07. 23**

- 17개 산별노조 간부 70여 명, 금속노조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에 두 개의 노조를 인정하고 있다며 항의. 이들은 금속노조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에 노조분회 설립을 인정한 후, 노조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자 다시 회사 측이 만든 금속노조 신진자동차 지부를 인정했다고 주장함

『조선일보』 제15472호(1971. 07. 24, 조선일보사)

**08. 16**

-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들, 회사 측이 노동자 수백 명에 대해 대량 감원 공고를 내자 공장 옥상에서 농성에 돌입. 노동자 가족들도 8월 17일, 회사 정문 앞에 모여 '아빠의 실직은 가정의 비극이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연좌농성을 벌임

『동아일보』 제15342호(1971. 08. 17, 동아일보사)



『매일경제신문』 제1674호(1971. 08. 17, 매일경제신문사)

08. 17

- 전국금속노조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지부 조합원 700여 명, 회사 측이 208명의 종업원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기술센터 옥상에서 농성 전개

『조선일보』 제15492호(1971. 08. 17, 조선일보사)

08. 26

- 부평시장 노점상 500여 명, 노점상 철거를 위해 나온 복구청 직원 80여 명과 경찰관 50여 명에게 돌을 던지며 대치하다 해산

『경향신문』 제7970호(1971. 08. 27, 경향신문사)

10. 06

- 석재공급조합원 4000여 명, 돌 납품대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작업 중지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221쪽(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 14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TMP 수송관 미군 준위가 자신의 애인이 경찰 소환 당한 데 대해 양심을 품고 한인종업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미 애스컴 사령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작업 거부를 하겠다고 통보

『신아일보』(1971. 10. 15, 신아일보사)

11. 01

- 경성공장주식회사 노동자 300여 명, 체불노임 2000만 원의 지급 등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경성공장주식회사는 청천동에 위치

『동아일보』 제15407호(1971. 11. 01, 동아일보사)

11. 07

- 미8군, 미 애스컴 55보급창 기구 축소로 인해 한인 종업원 122명을 11월 말까지 감원하겠다고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에 통고.

『동아일보』 제15413호(1971. 11. 08, 동아일보사)

11. 22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임금 40% 인상 요구안 등을 결의하고 미8군에 서면으로 통보.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투쟁위원회 구성

〈요구조건 6개항〉

1971년

- 금년도 기본임금을 40% 인상하되 12월 1일부터 인상 시행할 것
- 여하한 강등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것
- 퇴직금을 원활히 지급할 것
- 자진 및 대리감원에 문호를 개방할 것
- 소방원의 대우를 개선할 것
- 상여금을 퇴직금에 가산할 것

『경기매일신문』(1971. 11. 23, 경기매일신문사)

『경향신문』(1971. 11. 24, 경향신문사)

## 12. 01

- 전국부두노동조합 인천지부 산하 7개 하역분회, 관수물자 하역노임의 인상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전원의 찬성을 얻어 노동청에 통보

『동아일보』 제15434호(1971. 12. 02, 동아일보사)

『매일경제신문』 제1766호(1971. 12. 02, 매일경제신문사)

## 12. 17

- 미8군,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산하 노무자 100명 감원, 47명 강등 단행.

『경향신문』 제8066호(1971. 12. 17, 경향신문사)

## 12. 14

- 한국베아링 공업주식회사 부평공장 노동자 황영환, 이날 새벽 근무 시간 중에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해고됨. 이로 인해 조합원과 지부장, 회사 측과 노동자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였고 황영환은 12월 23일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함. 황영환은 1962년 5월 10일 한국베아링 공업주식회사 생산1과에 입사해 10년 간 근무해 왔으며 1971년 12월 야간 감독이 졸고 있는 노동자 4명의 손등을 찌르자 비인도적 처사라고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음. 한국베아링은 산곡동에 위치

「인천지역(한국베아링 공업주식회사) 노사분규에 대한 협력 의뢰의 일[수신:크리스찬 사회 행동 협의체, 발신:김동형]」(1972. 05. 25,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444025)

「인천지역(한국베아링공업주식회사) 노사분규에 대한 협력 의뢰의 일[수신:크리스찬 사회행동 협의체귀중]」(1972. 05. 25,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094701)

「해고의 예고 예외 인정 신청 사건 처리 결과 통보[수신:한국 베아링 공업주식회사 부평공장 황영환]」(1972. 02. 17,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M00445779)

「제26회 목요토론회 사례발표자료 “7년간의 법정투쟁”」(\*. \*. \*, 황영환, M00393036)

# 1972년

## 05. 10

- 동일방직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주길자를 노동조합 사상 최초의 여성 지부장으로 선출

『동아일보』 제15573호(1972. 05. 16, 동아일보사)

## 05. 13

- 부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하역협회, 현행 노임을 15% 인상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갱신 체결

『매일경제신문』 제1904호(1972. 05. 15, 매일경제신문사)

## 07. 28

-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조승혁 목사, ‘보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란 제목의 산업안전포스터 제작 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 연행됨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234쪽(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7. 13

- 인천 동지역 선교문제협의회, 화수동 성당에서 모임을 갖고 ‘산업학교,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기독교자 근로인 중심의 훈련’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함

「인천 동지역 선교문제 협의회」(1972. 07. 13, M00443609)

## 08. \*

-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인천서부지역위원회 · 인천 동구지역 · 부평지역 등 3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계획함

「도시산업선교 지역위원회 창립의 일」(1972. 08. 24,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M00444608)

## 08. 15

- 부평 에스컴 사령부, 기지 이동에 따라 산하 보급소 한국인 종업원 820명 중 415명을 9월 중에 감원하겠다고 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에 통고

『동아일보』 제15652호(1972. 08. 16, 동아일보사)

## 11. 02

- 자신의 집 담에 붙인 유신헌법안 공고문을 훼손시킨 남구 도화동 거주 이

1972년

○○, 국민투표법 위반으로 동인천경찰서에 구속됨

『동아일보』 제15720호(1972. 11. 03, 동아일보사)

**12. 10**

-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부평지역 선교회, 부평지역 선교회 사무실에서 첫 번째 '부평지역 공장 근로자 모임'을 가짐.

「부평지역 공장 근로자 모임」(1972. 12. 10,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M00442995)

# 1973년

## 01. 05

- '넝쿨크럽',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회장 이혜숙, 총무·회계 박명숙. '넝쿨크럽'은 여성 회원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도시산업선교회에 모임 장소를 두고 모임 목적을 '① 노동운동, ② 생활운동, ③ 자기훈련 ④ 설교 훈련을 실시하여 이웃사람과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한다'에 둠

「넝쿨크럽일지」(1973. 01. 05, 넝쿨크럽, M00446072)

## 06. 02

- 만석동 청년회, 화수동 183번지에서 발기대회 개최. 만석동 청년회는 만석동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목적을 둔 단체임

「만석동 청년회 발기대회 순서」(1973. 06. 02, 만석동 청년회 발기위원, M00442239)

## 06. 08

- 넝쿨크럽,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개선. 회장 장복순, 부회장 박명숙, 서기 김월순, 총무 이정순.

「넝쿨크럽일지」(1973. 01. 05, 넝쿨크럽, M00446072)

## 06. 09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부평지역 선교위원회, 부평지역 기독교인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곡감리교회 교육실에서 8월까지 월 2회 「부평지역 평신도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시행. 훈련 목적은 '노동계의 사도로써 자기성화와 회원 간의 굳은 사귄과 주와 나와 너를 하나되게 함으로써 산업평화 조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명시

「부평지역 평신도 지도자 훈련의 일」(1973. 05. 29,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442999)

## 06. 15

-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엠코리아 자동차 부평공장 및 부산공장 지부, 회사 측에 「임금인상요구서」 제출

## 〈임금인상 요구 내용〉

| 직위 | 현행임금   | 인상요구  | 시행일자       |
|----|--------|-------|------------|
| 사원 | 42,259 | 35.6% | 1973. 7. 1 |
| 고원 | 30,660 | 50.5% | 1973. 7. 1 |
| 공원 | 28,798 | 59.3% | 1973. 7. 1 |

「임금인상요구서」(1973. 06. 15,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엠코리아 자동차 부평공장 및  
부산공장 지부, M00444947)

## 06. 28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부평지역 미혼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평지역 숙녀학교」 운영

「부평지역 숙녀학교 실시의 일」(1973. 06. 14,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442256)

## 07. 03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위원회 교육실에서 「제10회 노동조합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실시

「제10회 노동조합 지도자 훈련」(1973. 07. 03,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M00442230)

## 07. 31

- 경기매일신문사, 경기일보사, 연합신문사 등 경기도 내 3개 신문사 대표들이 올림포스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3개 신문사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에 이백호를 선출한 후 8월 31일부로 문공부에 폐간계를 제출하기로 결정

『경향신문』 제8567호(1973. 08. 01,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5948호(1973. 08. 01, 동아일보사)

## 09. 15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노사분과위원회, 9월 16일까지 이틀간 소사 버들 캠프장에서 연구회 개최. 지용택을 초청하여 '경제발전과 노동조합 활동'을 주제로 한 강연 등을 진행

「노사분과위원회 연구회」(1973. 09. 04,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442311)

## 10. 27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제1회 근로자 신앙 강좌 : 노동자 예수」 개최

「제1회 근로자 신앙 강좌-노동자 예수」(1973. 10. 27,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M00444271)

## 11. 23

- 인하대학교 기독교학생회, 「기독교학생선언」 발표  
「기독교학생선언」(1973. 11. 23, 인하대학교 기독교학생회, M00081172)

## 11. 27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답동 가톨릭회관 5층에서 11월 30일까지 4일간 노동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제11회 노동조합 정기 지도자 훈련」 실시

‘노동조합 정기 지도자 훈련의 목적’

근대화와 함께 산업 민주화는 우리 국민적 과제이다.

이런 과제의 일익을 담당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이익과 함께 복지국가 건설에 부합되도록 협조하여 산업사회의 올바른 관계 조성에서 오는 산업평화, 생산성 향상, 사회정의 실현 등이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노동운동에 의하여 되어질 수있게 하므로 산업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노동조합 운동의 실현을 위하여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활동내용 방법(기술) 인간의 존엄성 권리와 의무를 중요시 하는 지도자 육성에 적게나마 협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1회 노동조합 정기 지도자 훈련」(1973. 11. 16,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442383)

## 12. 02

- 경기간호전문학교 여학생 50여 명, 밤 9시부터 12월 3일 새벽 1시까지 강당에 모여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구속학생 석방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학교 측은 12월 10일 예정이었던 방학을 앞당겨 12월 3일부터 방학에 들어감

『동아일보』 제16055호(1973. 12. 04, 동아일보사)

## 12. 12

- 삼원섬유 노동조합 설립. 전국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원섬유분회로 설립됨. 삼원섬유는 작전동에 위치함.

「삼원섬유 노동조합 개요」(2000. 12. 04, 삼원섬유 노동조합, M00887099)

## 12. 19

1973년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산곡동 성당에서 「노동자 첫모임 : 작은이들의 숨결」 행사 개최

「노동자 첫모임 작은이들의 숨결 초대장」(1973. 12. 19,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M00442542)



# 1974년

## 01. 21

- 전국화학노동조합 경인에너지 지부 결성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1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2. 20

- 인화여자고등학교 학생 1200여 명, 학교 측이 학생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주산, 타자 등의 특활시간을 인천공업전문대학에서 받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에 불만을 갖고 2월 21일까지 등교 거부 단행. 2월 22일부터 정상 수업 시작

『동아일보』 제16120호(1974. 02. 21,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제16121호(1974. 02. 22, 동아일보사)

## 02. 26

- 반도상사 노동자들, 한순임의 호소문 낭독을 시작으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향상 투쟁 전개

### 〈노동자들의 요구조건〉

- 임금 60% 이상
- 폭행사원 처벌
- 현장과 기숙사 시설 개선
- 취업규칙 내걸기
- 강제잔업 철폐
- 투쟁과정에서 희생자가 생길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

「여공들의 투쟁」(197\*. \*. \*, M00883411)

## 03. \*

- 삼원섬유 노동조합, 노동조합 결성 4개월 만에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분회장 상근, 유니온샵 제도,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등을 확보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1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3. 05

1974년

- 반도상사 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남자 경비원을 지부장으로 선출하려는 회사 측의 방해로 무산되자 단식농성 돌입. 경찰이 단식 농성장을 포위하고 기숙사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었다가 이틀 후 모두 석방됨

「여공들의 투쟁」(197\*.\*\*, M00883411)

### 03. 06

- 수도피아노사 노동자 300여 명, 회사 내 노조회관에 모여 체불임금 지급과 공장 정상 가동 등 2개 조건을 내걸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가 사장으로부터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받고 3월 7일 해산함. 작전동에 위치한 수도피아노사는 운영난으로 1월 22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지한 채 1973년 11월부터 1974년 1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음

『동아일보』 제16132호(1974. 03. 07,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제16133호(1974. 03. 08, 동아일보사)

### 03. 10

-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답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노동자의 날 축하예배」 개최

「제16ㄹ 노동자의 날 축하예배」(1974. 03. 10,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 03. 13

- 수도피아노사 노동자 80여 명, 노동청에 몰려가 체불임금 1700여만 원을 받게해달라고 호소함

『매일경제신문』 제2470호(1974. 03. 14, 매일경제신문사)

- 삼송산업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분회장에 유선영 선출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1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3. 24

- 인천부두노동조합, 우리나라 부두노동조합 사상 최초로 조합원의 정년퇴직제와 퇴직금 지급제도 신설

『동아일보』 제16147호(1974. 03. 25, 동아일보사)

### 03. 25

- 경기은행 노동조합 결성

『매일경제신문』 제2480호(1974. 03. 26, 매일경제신문사)

1974년

1974년 5월 분 (510)

소속번호 013 025 귀하

|                  |       |     |         |
|------------------|-------|-----|---------|
| 기본급료             | 450   | 22  | 1,000   |
| 야간근로수당           | 100   | 22  | 2,200   |
| 연장근로수당           | 1,000 | 22  | 2,200   |
| 계수당              |       |     | 540     |
| 합계지불액            |       |     | ₩ 1,400 |
| 공<br>재<br>명<br>세 | 소득세   |     |         |
|                  | 주민세   |     |         |
|                  | 지급금   |     | 100     |
|                  | 작업복대  |     | 2,450   |
|                  | 식대    | 100 | 20      |
| 차인지급액            |       |     | ₩ 1,400 |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

886252

〈반도상사 노동자 오의숙의 월급봉투(1974년 5월분)〉

(M00886252)

04. 15

- 전국섬유노동조합 반도상사 부평공장지부 결성대회를 속개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함. 지부장에 한순임, 부지부장에 이경애·장현자, 사무장에 옥판점을 선출

『여공들의 투쟁』(197\*.\*\*, M00883411)

『회의자료 -1977년도 전국섬유 노동조합 반도상사지부 제3년차 정기총회』(1977. 03. 25, 전국섬유노동조합 반도상사 부평공장지부, M00088488)

04. 18

- 반도상사 노동조합, 전국섬유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지부 인준필증을 교부받음

『한마음』 제1호(1975. 02. 28, M00881063)

04. 25

- 일본 반공해운동단체 지도자들,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야마 회사가 인천에 머큐로크롬 공장을 건설하는 등 공해유발산업인 머큐로크롬 제조공장 장비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 발표

『경향신문』 제8794호(1974. 04. 27, 경향신문사)

05. 15

-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조화순 목사, 노동자들과의 예배에서 행한 설교가 문제가 되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됨. 조화순 목사는 1월 17일 김정락 목사 등의 구속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이 분들은 죄를 지어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함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64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1974. 01. 08 제정, 1974. 01. 08 시행)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

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3.21.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7.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 06. 23

- 만석감리교회 청년회, 만석감리교회에서 「제1회 근로자 연합 헌신 예배」 개최

「제1회 근로자 연합 헌신 예배」(1974. 06. 23, 만석감리교회 청년회, M00442704)

#### 07. 24

- 천주교 인천교구 나길모 주교, 지학순 주교의 구속과 관련해 전국의 신부들에게 기도회를 부탁하는 서한을 발송

인천교구사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인천교구사』, 302쪽(1991, 천주교 인천교구)

#### 08. 06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화수동 성당에서 「지학순 주교와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 기도회를 갖기로 함

인천교구사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인천교구사』, 302쪽(1991, 천주교 인천교구)

#### 08. 26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지학순 주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우리의

1974년

주장'이란 제목의 성명서 발표

『경향신문』 제9060호(1975. 03. 07, 경향신문사)

08. 31

- 전국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원섬유 주식회사 사장 앞으로 삼원섬유 분회장 유해우의 제명을 결의하는 통지문 발송.

「분회장 징계 통지[수신: 삼원섬유 주식회사 사장]」(1974. 08. 31, M00843731)

10. 17

-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할 기미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긴급교수회의를 개최하여 10월 26일까지 휴강하기로 결정. 이후 10월 26일 재차 긴급교수회의를 열고 10월 31일까지 휴강 연기 결정

『동아일보』 제16323호(1974. 10. 17,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제16332호(1974. 10. 28, 동아일보사)

10. 20

- 천주교 인천교구 소속 신부, 수녀, 신도 등 2500여 명, 인천 답동 천주교회에서 「성년대회」를 개최한 후 '민주헌정 회복하라', '지학순 주교 석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 전개. 참가자들은 '유신헌법 철폐', '정치범 석방', '노조결성의 자유 승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문을 통해 거리로 나서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교회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들 중 100여 명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경동사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다 성당으로 돌아감. 이날 나길모 주교는 '인권회복', '노조결성의 자유보장' 등 4개 항을 선언

『경향신문』 제8945호(1974. 10. 21,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6326호(1974. 10. 21, 동아일보사)

『조선일보』 제16477호(1974. 10. 22, 조선일보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66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1. 06

- 인하대학교 학생 1000여 명,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성토회를 갖고 시국 선언문을 낭독한 뒤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라', '구속학생 및 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라' 등 7개항의 결의문 채택

『인하대학신문』 제325호(1974. 11. 11, 인하대학신문사)

『동아일보』 제16341호(1974. 11. 07, 동아일보사)

11. 11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성당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개최. 천주교 사제단 주최로 인천을 포함 전국 14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됨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1974. 11. 11, 천주교 인천교구, M00444332)

『동아일보』 제16343호(1974. 11. 09, 동아일보사)

#### 11. 14

- 천주교 인천교구 부주교 시노트 신부(한국명 진필세), 11월 11일부터 가톨릭여학생회관에서 계속해 온 구속자 석방을 위한 단식기도가 끝난 후 구속자가족협의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종로 3가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어 같은 날 오후 훈방 조치됨

『인천주보』 제812호(1986. 04. 13, 천주교 인천교구)

『동아일보』 제16346호(1974. 11. 14,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제16347호(1974. 11. 15, 동아일보사)

#### 11. 19

- 동인천산전센터 ·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인천내리교회에서 「구속자와 함께 드리는 기도회」 개최

「구속자와 함께 드리는 기도회」(1974. 11. 29, 동인천산전센터 ·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M00442619)

『동아일보』 제16351호(1974. 11. 20, 동아일보사)

#### 11. 20

- 인천을 포함 전국 12개 도시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인권회복을 위한 철야 기도회」 개최

『동아일보』 제16352호(1974. 11. 21, 동아일보사)

#### 11. 21

- 천주교 인천교구 부주교 시노트 신부, 비상군법회의에서 형을 받은 구속자 가족 19명이 종로구 소재 미국대사관 앞뜰에서 ‘더 이상 못참겠다 구속자 석방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15분 만에 경찰에 전원 연행되어 경찰 버스에 실리자, 이에 항의하며 버스에 함께 올라타고 이동함

『동아일보』 제16352호(1974. 11. 21, 동아일보사)

#### 11. 23

- 천주교 인천교구 부주교 시노트 신부, 11월 23일과 11월 29일 두 차례 인천출입국관리소에 소환되어 입국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 받음

『경향신문』 제8989호(1974. 12. 11, 경향신문사)

1974년

11. 26

-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지학순 주교를 위한 화요기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11월 26일 송림동 성당, 12월 3일 산곡동 성당, 12월 10일 송의동 성당, 12월 16일 주안 성당으로 장소를 결정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3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2. 10

- 화수동 성당 등 인천 시내 3개 성당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개최. 이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한국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 집전하는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이해 전국 13개 교구에서 동시에 개최됨

『경향신문』 제8989호(1974. 12. 11,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6369호(1974. 12. 11, 동아일보사)

『조선일보』 제16520호(1974. 12. 11, 조선일보사)

12. 11

- 삼원섬유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재직 중 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의 제명조치로 해고당한 유해우, 부평경찰서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됨. 이날 삼원섬유 노동자 4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됨. 유해우는 1973년 12월 12일 삼원섬유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선출된 후, 1974년 7월 10일부터 YWCA가 실시한 「노조간부 훈련세미나」에 같은 회사 여성노동자 10여 명과 함께 참석한 일이 있어 빌미가 됨. 같은 해 8월 31일 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제명하여 같은 날 회사에서 해고됨. 유해우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계류된 상태였음.

『동아일보』 제16335호(1974. 10. 31,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제16372호(1974. 12. 14, 동아일보사)

12. 13

- 전국도시산업선교회 소속 목사와 구속자가족협의회 회원 등 30여 명,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소회의실에서 천주교 인천교구 부주교 시노트 신부와 감리교 선교사 조지 오글 목사에 대한 소환 심문은 정부의 종교탄압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

『동아일보』 제16371호(1974. 12. 13, 동아일보사)

12. 14



- 인천 등지에서 산업선교활동을 벌여온 미국인 선교사 조지 오글 목사, 입국 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함.

『경향신문』 제8992호(1974. 12. 14,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6372호(1974. 12. 14, 동아일보사)

## 12. 16

- 삼원섬유 노동조합 조합원들, 구속된 분회장 유해우를 석방시켜달라는 진정서 제출

### 삼원섬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진정서'

어려움이 많았던 74년도의 한해가 가고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는 귀하의 만수무강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외람된 줄 알면서 억울함을 진정케 됨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부평수출산업공단 제4단지 내에 있는 일본인 기업체인 '삼원섬유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73년 12월 12일을 기해 분회장 유해우 동지를 중심으로 우리들의 잃어버린 권익을 보호코저 어려운 여건 하에 '전국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원분회'를 결성하여 그동안 착실하게 '수출산업의 역군'으로, 나가서는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분회장 유해우 동지를 중심으로 뭉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근로조건도 개선하고 참 민주적으로 평화스럽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분회의 상급기관인 경기지부장 ○○○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는 우리 분회에 날벼락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부장 ○○○은 우리 분회장 유해우 동지를 선출기관인 분회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조 규약을 무시해 가면서 74. 8. 31. 지부 제23차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제명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본조 규약 제22조 6항에 보면 조합원의 징계는 중앙위원회에서 하고 임원의 징계는 선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 회사와 야합 제명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부장 ○○○은 제명 결의 3일 전인 74. 8. 27. 오후 9시경에 전엔 부평에 오지 않던 사람이 이날은 내려와 '보리수다방'에서 회사

총무부장 ○○○를 만난 사실만 보더라도 회사와 사전 야합 제명할테니 해고하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지부장 ○○○은 74. 8. 31. 오후 3시경에 회의가 끝났는데 ○○○은 제명통보를 본인 유해우 분회장이나 분회에도 보내지 않고(현재까지) 2시간 내에 회사에 서면 통지하므로 접수와 동시 해고 조치하였으며 또한 회사는 분회장 유해우 동지의 회사 출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250여 조합원들은 박수영의 물지각한 행위(행정조치 및 규약위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박수영이 취한 제명결의를 백지화 해줄 것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계속 분회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74년 9월 중에 임금인상을 해주기로 약속되었으나 박수영의 물지각한 행위 때문에 회사는 상급까지도 임금인상을 기피하고 있어 우리는 기아 임금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부장 ○○○은 자기의 직책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을 보호하고 산하 분회를 지도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인데 평화적이며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분회를 풍지박산한 장본인이며 사회 혼란을 조성한 장본인입니다.

조합원들을 위해 잘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우리 유해우 분회장은 제명과 동시 해고를 하고 가소롭게도 분회 업무를 불려고 회사에 들어가려는 것을 가로 막고서는 도리어 회사와 지부가 야합 '업무방해'라는 죄명을 씌워 74. 12. 9.에 부평경찰서에 구속 중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총화를 부르짖는 현시점에서 총화를 해치고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장본인이며 불의와 야합 평화스런 분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은 건재하고 조합원들의 총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선의의 우리 분회장 유해우 동지는 감옥에 가야한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그저 탄식뿐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 분회 250여 조합원들의 처해 있는 현재의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조합원들의 염원인 (1) 억울하게 구속된 분회장 유해우를 석방하여 주시고 과거와 같이 원활한 분회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2) 불법을 자행하는 어용조합 간부인 ○○○은 의법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 분회와 같은 아픈 전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우리 분회장 유해우 씨가 하루 빨리 나와 우리

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진정 하나이다.

서기 1974년 12월 16일

전국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원섬유분회 조합원 일동

「진정서」(1974. 12. 16, 전국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원섬유분회 조합원  
일동, M00442631)

## 12. 17

- 전국섬유노동조합 반도상사지부, 조합원 보급용으로 『조합이란』 제목의 책  
자 제작

『한마음』 제1호(1975. 02. 28, 전국섬유노동조합 반도상사지부, M00881063)

## 12. 24

- 동인천 도시산업선교센터 소속 이국선 목사, 대성목재주식회사 공장축타를  
맡고 있던 중 노동자들에게 나눠준 성탄프로그램의 설교 요지에 ‘근로자는  
충분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기업주가 종업원을 혹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해촉됨. 이국선牧사는 1965년 5월 대성목재  
산업선교실 후생부장 겸 목사로 위촉되었다가 정년퇴직 후 목사직만 맡아  
오고 있었음

『경향신문』 제9001호(1974. 12. 25,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6381호(1974. 12. 25, 동아일보사)

## 12. 26

- 한국교회노동자인권위원회, 삼원섬유주식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유해우의  
구속 사건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 시작

『동아일보』 제16382호(1974. 12. 26, 동아일보사)

### ‘삼원 섬유 분회 사건 경위’

1973년 12월 1일~3일

기업주의 횡포(저임금, 퇴직금 및 해고 수당을 주지 않음. 강제노동(8  
시간 이상 강요)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표(유해우)들이 일손을 멈추고

1974년

항의. 이 사실을 안 노동청, 국무총리실에서 관여, 근로자의 문제 해결

1973년 12월 12일

한국수출산업공단 제4단지(부평) 내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선구자적인 분회임 (유해우 씨 분회장으로 피선)

1973년 12월 29일

노동청장으로부터 분회 설립 신고 받음.

노조 설립 이전의 근로조건은 1일 10시간에 급료 180원을 받는 비참  
한 임금이었으며 24시간 철야 근무를 해도 법정수당도 못받고 있던 것  
이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점차적인 대우를 받도록 활동을 했음

1974년 8월 27일

섬유노조 경기지부 지부장 박○○과 회사(삼원섬유) 총무부장 이○○  
와 협의(부평 보리수 다방)

1973년 8월 31일

경기지부 제23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제명.

제명 이유 - 명령 불복종 등 4개항

(경기지부 쟁의부장으로 상근할 것을 받았으나 250명의 분회 노동자  
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제명법적절차 - 분회의 제명 동의를 받고 지부결의를 거쳐 중앙위원  
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회의 결의도 없이 지부에서 한 것은  
모순이며, 250명의 분회원은 적극 분회장 유해우 씨를 지지했음

1974년 9월 2일

본조 위원장에게 진정

1974년 9월 10일

중앙위원회에서 징계 무효로 원직에 복귀시킬 것을 지시

1974년 9월 18일

경기지부방 박○○은 제98호 공문으로 “조합원(유해우) 복직 의뢰”라는 공문을 회사에 보낸 바 있음

1974년 9월 20일

동 회사는 제98호 공문에 대한 질의를 지부장 박○○에게 보내다

1974년 9월 25일

유해우 씨는 조합원이 아니다 라고 회서를 해 왔음

1974년 10월 31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계류 중임

1974년 11월 12일

서울 민형사지원 인천지원에 제23차 상무집행위원회 결의사항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계류 중임

1974년 12월 6일

경기지부 지부장 박○○은 본조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자기 멋대로 삼원섬유 분회 수습대책위원으로 종업원 서○○을 임명함으로 사건이 문제가 되었음 (부분회장 권○○ 씨가 현재까지 있음)

1974년 12월 7일

유해우 씨는 현재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징계사항도 본조 중앙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조합원이며 분회장으로써 일하려는 것을 회사가 제지함으로 대내에서 문제가 되었음

1974년 12월 9일

1974년

회사는 유해우 외 4명을 업무방해죄로 부평경찰서에 고발

1974년 12월 12일

구속영장 없이 수감 중이다가 48시간이 넘는 12일 아침에 영장을 발부, 유치장에 가둠

「왜 노동자 유해우 씨는 교도소에 있나?」(1974. 12. \*,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M00834478)

# 1975년

## 02. 10

- 통일방직 노동조합, 주길자 지부장의 후임으로 이영숙 지부장 선출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4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2. 28

- 전국섬유노동조합 반도상사 부평공장지부, 소식지 『한마음』 창간호 발행  
『한마음』 제1호(1975. 02. 28, 전국섬유노동조합 반도상사지부, M00881063)

## 03. 08

- 민주회복 국민회의 인천시지부, 화평동 덕성반점에서 결성. 대표최고위원에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조화순을 선출하고 고문에 최양옥, 조철구와 전 신민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김진두를 위촉함  
『경향신문』 제9061호(1975. 03. 08, 경향신문사)

## 03. 11

- 대양화성 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전국화학노동조합 대양화성 직할분회). 분회장에 권정희 당선  
『진정서』(1975. 05. 23, 권정희, M00444818)

## 03. 24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성당에서 나길모 주교의 집전으로 입건된 사제와 구속된 목사, 재야인사 및 위정자, 조국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 개최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4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4. 10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고 ‘긴급조치 7호를 즉각 철회하라’, ‘학원의 자유화를 보장하라’, ‘자유와 민주를 회복하라’ 등 현 시국에 대한 4개 항의 결의문 채택. 이후 인하대학교 정문과 후문 등지로 진출해 가두시위를 벌이려다 경찰이 교문을 봉쇄하면서 학내에서 시위를 전개한 후 해산. 일부 학생들은 정문을 빠져 나가 용현고개까지 이동하며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나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

1975년

찰의 진압에 막혀 해산함.

『인하대학신문』 제335호(1975. 04. 21, 인하대학신문사)

『동아일보』 제16469호(1975. 04. 11,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제16470호(1975. 04. 12, 동아일보사)

『경향신문』 제9089호(1975. 04. 11, 경향신문사)

#### 04. 12

- 인하대학교, 학생 시위로 인해 임시 휴강에 들어감. 4학년은 4월 23일에, 1·2·3학년은 5월 9일에 수업 재개

『인하대학신문』 제335호(1975. 04. 21, 인하대학신문사)

#### 04. 14

- 천주교 인천교구 부주교 제임스 시노트 신부, 인천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종교 이외의 활동을 하지 말라는 3번째 경고를 받음

『경향신문』 제9092호(1975. 04. 15, 경향신문사)

#### 04. 18

-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회 주최로 4·19 기념미사가 답동 성당에서 개최됨. 나길모 주교의 집전으로 학생 신도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고 가톨릭 전국 학생연맹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4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4. 25

- 천주교 인천교구 부주교 제임스 시노트 신부, 법무부 인천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체류 연장을 불허 받고 출국하라는 출국지시서를 받음. 시노트 신부는 1960년 8월 29일 내한하여 4월 28일 체류기간이 만료돼 4월 14일자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제출했음

『경향신문』 제9102호(1975. 04. 26, 경향신문사)

#### 04. 29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성당에서 정의구현전국사제단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노트 신부를 위한 기도회」 거행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4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4. 30

- 시노트 신부, 출국 직전 '내가 사랑하는 한국국민과 복음을 전파하는 동료 사제들과 목사님께 드린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오후 7시 출국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5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5. 09

- 인하대학교, 학원사태로 휴강중이었다가 이 날 부터 전면 개강함

『동아일보』 제16493호(1975. 05. 09, 동아일보사)

05. 23

- 대양화성 노동자 권정희(전국화학노동조합 대양화성 직할분회 분회장), 4월 7일자로 구두 해고를 통보받은 데 대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악랄한 처사'라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

「진정서」(1975. 05. 23, 권정희, M00444818)

08. 25

- 태평특수섬유 노동자들, 전국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태평특수 분회 결성. 유니온샵 형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반장급 이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함. 분회장에 이상례가 선출됨. 태평특수섬유는 효성동에 위치하며 3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음

「제35회 목요토론회(78년 7월 13일) 사례발표자료-태평특수 섬유분회 사건」(1978. 07. 13, 이경자 · 박문숙 · 김경희, M00879774)

「태평특수 사건에 대한 진상」(1979. 02. 12,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인천교구 연합회, M00885117)

# 1976년

## 03. 24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성당에서 오후 7시 나길모 주교의 집전으로 '3·1 명동사건' 때 입건된 사제, 목사, 재야인사들을 위해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회 개최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5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4. 03

- 동일방직 노동조합, 정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이 대회의 무산을 꾀해 회사 측 대의원 ○○○ 등 4명에게 불참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들이 대의원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송도로 야유회를 가면서 대회가 무산됨. 이로 인해 동일방직 남성 노동자 300여 명, 여성 노동자 1000여 명이 참가해 시위를 전개

「근로자의 탄압은 인권의 유린입니다」(1976. 07. 20, 전국섬유노동조합 동일방직지부, 00483916)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5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4. 23

- 동일방직 노동조합, 4월 3일 무산된 대의원 대회를 속개하였으나 회사 측 사람들의 방해와 퇴장으로 다시 무산됨

「근로자의 탄압은 인권의 유린입니다」(1976. 07. 20, 전국섬유노동조합 동일방직지부, 00483916)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5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6. 14

- 신우섬유 노동자 이춘봉, 근무성적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총무부장 등 회사 간부들에게 수위실로 끌려가 집단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음. 6월 24일, 폭행을 주도한 총무부장은 구속되고 회사 대표 등은 입건됨. 이 과정에서 신우섬유 노동자 180여 명 중 159명이 월 1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선일보』 제16990호(1976. 06. 25, 조선일보사)

06. 19

-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500여 명, 회사 측의 어용노동조합 결성에 반대하며 농성 시작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5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7. 22

- 동일방직 노동조합, 본조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회사 측의 방해로 보고대회가 유회됨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5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7. 23

- 동일방직 회사 측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여성 조합원들은 대의원 대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농성 진행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5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7. 25

- 동일방직 노동자들 반나체 시위 진행함. 여성 조합원들은 이영숙 지부장과 이충각 총무를 경찰이 연행한 것에 항의하며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 72명이 연행되었으며 70여 명이 부상당함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5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일방직 노동조합’의 호소문

아직도 조합원 동지들의 피 끓던 외침이 우리들 가슴에 깊이 남아 있고, 인천지역 아니, 전국으로 퍼진 정의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심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들이 당한 서러움이 우리 동일방직 인천공장의 근로자에 한한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목이 졸려 숨이 막혀 답답하다고 소리 지르면 “왜 소리 지르느냐”고 짓밟혔고, 짓밟히며 아픔에 못 이겨 몸부림치면 “왜 꿈틀거리느냐”고 호통을 당해 왔습니다. 인간의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본능을 무시한 회사는 우리에게 인간이기 전에 생산도구로

서의 한 개인만을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나이 어린 여자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커다란 희생을 치렀는지를 여러분은 깊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며 근로자들이 뺄 이전의 인간다운 삶을 얼마나 못마르게 갈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노동조합은 여성지부장을 중심으로 조합 활동을 해오고 있었으나 회사는 남자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반조직 행위에 앞장서서 이들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고 조직을 문란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고 회사의 명령에 움직이는 ○○○ 씨 등은 회사의 후원에 힘입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여자 조합 간부들에게 폭행을 하는 등의 비열한 행동을 하자 본조에서 반조직으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2일 본조에서 내려와 밤 10시 퇴근반 조합원들에게 식당에서 보고대회를 하기로 했으나 회사는 식당의 불을 끄고 문도 잠가버렸으며 기숙사생들에게 저녁도 주지 않고 지부장을 회사 간부가 막고 조합원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우루루 몰려다니며 보고대회를 원하자 23일 아침 경비와 사원을 총동원하여 다시 폭력과 욕설로 제지시키고 아침 8시에 동부경찰서 형사가 지부장을 연행해 가버렸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부지부장과 대의원 등 8명을 조사할 일이 있다고 현장에서 나오게 하고 나서 회사는 현장 문을 모두 잠가버리고 지키고 있으며 기숙생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기숙사 문에 못질을 해버리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회사의 계획은 반조직 행위로 제명당한 ○○○이 이끄는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회사의 노골적인 후원이었기에 기숙생들은 분노가 터져 문을 밀고 나오려고 발버둥치고 사감과 경비들을 피해 층계에서 한꺼번에 굴러 떨어지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치는 등 기숙사는 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어어나와 회의장에 가보니 모두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경비와 사원들의 제지를 뚫고 노조사무실로 몰려나온 기숙생들은 지부장의 연행소식과 회사의 기만술책에 통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노총가를 부르며 지부장 석방과 고두영의 꼭두각시 노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농성을 하였습니다. 지부장 석방을 요구하며 2시 출근반들이 작업을 거부할 기미를 보이자 2시 15분 전에 지부장을 내주어 서로가 얼싸안고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보고대회를 마치고 출근하고 해산시키자 경찰은 다

시 지부장과 총무를 연행해가고 경찰의 임시조처에 분노를 금치 못한 조합원들은 밤 10시에 퇴근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밤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밤을 새며 농성한 조합원들은 출근을 하면서 싸우자고 하며 교대로 농성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찌는 듯한 햇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밤의 찬 공기,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유치한 행위를 규탄하고 지부장을 내놓으라고 외치는 이들은 허기와 계속되는 작업, 구름 한 점 없이 쏟아지는 땀, 그리고 수도꼭지에서는 찬물이 나와 겹치는 갈증,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합사무실에 끊어버린 전기, 화장실문도 잠가버리고 조합에서 빵을 구입해도 막아버리는 경비들, 밖에서 부모들이 사들여 보내는 우유나 박카스를 깨뜨려버리는 그 잔인한 회사의 만행, 생각하면 가슴이 복받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안타까움에 얼음을 사서 들여보내면 받아서 땅바닥에 깨뜨려버리는 경비들의 행동은 작업에 시달리고 적은 월급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약한 근로자들을 땅바닥에 널부러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갈증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푸른 작업복, 어찌다 찬물이라도 대의원들이 오래 버텨야 된다고 먹여주는 조합원들의 그 정성은 이것이 바로 동지애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권리를 향한 숭고함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식 농성이 만 3일째로 접어들자 회사 밖에 천여 명의 가족들과 우리들을 격려하는 동네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어 고가도로를 메꾸었으며 교통이 차단되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발로 차며 질질 끌고 다니며 “소학교도 못나온 무식한 년들이 농성을 한다”고 부모들의 가난한 가슴에 못질을 하였습니다. 평생을 가난으로 살아오면서 오죽하면 딸들을 공장에 들여보내놓고 문 앞에 서서 쓰러져가는 자식들을 보는 부모들은 오죽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에 부모들도 눈물을 흘리며 농성으로 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동료의 석방을 위해 외치는 장한 딸들과 그들의 딸을 격려하는 부모들의 외침은 무참히도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온갖 회사의 계략과 위협이 끊이지 않는 데도 농성에 합세한 근로자들에게 사방에 보이는 것은 가시철망의 바리게이트, 경계망, 햇빛에 뒹구는 동료들,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친구들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요구조건을 외칠 때는 목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였고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이기지 못해 물, 물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파업을 한 조합원들은 일요일날 오후까지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요구조건을 외쳤으나 오후 6시 반에 나타난 것은 몽둥이를 든 경찰들의 방망이 세레뿐이었습니다. 경찰과 경비, 사원들에게 포위가 된 조합원들은 끌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모두 옷을 벗어들어 오른손에 쥐고 휘두르며 마지막으로 울며 노총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사원들은 잡아끌고 때리며 머리채를 끌고 구둣발로 찼습니다. 반나체로 저항한 여성근로자들은 차에 끌려가자 몸부림치며 유리창을 깨고 그 유리에 다치며 “우리가 무슨 죄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누가 이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를 정지시키려고 차바퀴 밑에 기어들어가 바퀴를 붙들었으며 경찰이 찬 구둣발에 채여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50여 명이 기절하고 72명이 경찰에 연행되자 모두 나도 가겠다고 울며 차를 쫓아 200여 명이 경찰서를 뛰어와 농성을 하고 기절한 조합원은 벌거벗은 채 찬물을 뒤집어쓰우고 따귀를 때리며 깨어나기를 기다렸으나 14명의 조합원이 북음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모두 깨어났으나 2명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그 다음날은 지부 간부들을 잃은 조합원들은 작업을 거부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서울의 본조로 300여 명이 몰려와 연행된 사람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밤 11시에 모두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버스 4대에 분승하여 동부경찰서 서장님으로부터 이번 사건은 회사나 경찰이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확답을 받고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이었고 계속되는 현장에서의 고통은 지금까지 130여 명의 열성 조합원들을 퇴사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강제 퇴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 50여 명이 본조에 몰려가 드러눕기도 하고 현장에서 경비에게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기계를 붙들고 몸부림치며 울기도 했습니다.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는 진급을 시켜주지 않아 불만이 가득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다시 옷벗어보라고 하며, 꼬투리를 잡아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양성공에게 경비실에서 시말서를 받고 퇴사하지 않으면 제명된다고 회사 용지를 주며 협박하고 도장이 없으면 파다가 찍게 했습니다.

…… (중략) ……

일생을 망치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커다란 희생을 치루며 지키려 한

1300여 명의 권리인 노동조합을 우리는 회사의 사주를 받아 꼭두각시 놀음을 하는 ○○○에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압력이 두려운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현장과 기숙사에 못질을 하고 행한 엉터리 회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된 회의록을 가지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선 지부장과 총무의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금지시켜 주고 집달리를 시켜 모든 서류를 넘겨달라고 합니다.

회사는 담임과 수석들을 시켜 작업시간에 한 명씩, 한 명씩 불러 ○○○을 지지한다는 도장을 강제로 찍게 하며 거짓말로 다른 이유를 붙여 도장을 찍도록 하는 행위를 하다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모두 태우는 희극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반조직 행위에 관련이 없다고 하며 고두영은 자기가 지부장이 되면 400명쯤을 잘라버리겠다고 큰소리입니다. 농성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비웃고 있는 반 조직자들의 행동을 볼 때 그들을 그렇게 유치하고 비열하게 만든 회사의 간악한 압력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처분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갖는 격려를 바랍니다.

「호소문」(1976. \*. \*, 동일방직 노동조합, M00837073)

## 07. 26

-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300여 명,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서울의 섬유노동조합 본조로 몰려가 연행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 이날 밤 11시경 지부장과 총무가 석방됨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6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8. 19

- 천주교 인천교구, 3·1 명동사건 공판을 앞두고 ‘구속 사제를 위한 9일 기도회’를 교구사제단과 모든 신자들이 봉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6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0. 30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구성. 정식 명칭은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천교구 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병상 신부 선임.

『인천주보』 제1037호(1990. 07. 01, 천주교 인천교구)

1976년

인천교구사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인천교구사』, 787~789쪽(1991, 천주교  
인천교구)

**12. 25**

- 동일방직 노동자들, 경기도로부터 배달되어온 동일방직 단체협약 승인 공문을 보고 크게 반발해 '동일방직지부 사건수습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사건 해부식'을 2월 6일에 갖기로 결의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310쪽(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977년

## 02. 04

- 통일방직지부 사건수습투쟁위원회, 서울 명동 천주교 문화회관에서 「전국 섬유노동조합 인천 통일방직 사건 해부식」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노동청이 합의를 주선하고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다는 전달을 해와 해부식을 취소하고 6개 항에 합의

「초청장-전국 섬유 노동조합 인천 통일방직 사건 해부식」(1977. 02. 06, M00108124)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314쪽(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3. 21

- 노동청, 통일방직 등 전국 12개 면방업체 16개 공장에 대해 임금을 직권 조정하여 3월부터 지난해 11월분 기준으로 평균 25%씩 인상해 지급하라고 통고

『매일경제신문』 제3398호(1977. 03. 21, 매일경제신문사)

## 04. 04

- 통일방직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회사 측 대의원들이 방해할 조짐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이 대의원 대회장을 둘러싼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참석 대의원 31명의 전원 지지로 이충각을 지부장으로 선출 함.

## 04. 24

- 전국섬유노동조합 통일방직 지부가 주최하고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산업선교 전국연합회, 전국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노동청년회, 천주교 인천교구, 교회여성연합회, 여성유권자연맹 등이 후원하는 가운데 서울 가톨릭명동문화관에서 「노동청 규탄대회」 개최

「초청장」(1977. 04. 24, 전국섬유노동조합 통일방직 지부, M00885086)

## 06. 15

- 통일방직 노동조합 조합원 674명, 노동조합에 복귀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319쪽(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7. 29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노동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란 주제로 7월 31일까지 자월섬에서 「하기수련회」 진행

1977년

「[산업선교 강연안내 및 하기수련회 일정]」(1977. 07. 29, 인천도시산업선교회,  
M00442629)

09. 10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11월 12일까지 3개월 간 11개 공장 실무자 25명을 대상으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강연회 개최

〈강연 일정〉

| 주제                  | 강사      |
|---------------------|---------|
| 산업선교의 역사, 이념 및 그 전망 | 조화순 목사  |
| 노동조합의 중요성과 그 역할     | 안광수 목사  |
| 노동운동가로서의 자세         | 김경락 목사  |
| 노동조합투쟁의 결실들         | 방용석 지부장 |
| 노동관계법 해설(1)         | 황영환     |
| 노동경제                | 장명국     |
| 노동관계법 해설(2)         | 황영환     |
| 노동운동의 역사            | 이창식     |
| 한국노동운동의 오늘과 내일      | 장동찬     |

「[산업선교 강연안내 및 하기수련회 일정]」(1977. 07. 29, 인천도시산업선교회,  
M00442629)

11. 07

- 인천부두노동조합, 인천하역협회에 작업시간 8시간을 제외한 취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

『매일경제신문』 제3594호(1977. 11. 08, 매일경제신문사)

11. 11

- 동흥물산 노동자 8명 · 서광산업 노동자 8명, 노동운동 관련 책자 등을 돌려 본 혐의로 부평경찰서에 연행됨

「[부평경찰서장 수신편지(노동운동책자관련)]」(1977. 11. 30, 윤보선 전 대통령 등 8명,  
M00445912)

12. \*

- 천주교 인천교구 김병상 신부 · 조화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회장 등 35명, '학생탄압을 중지하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원사찰 및 경찰의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중지와 구속 학생 석방 등 요구  
「학생탄압을 중지하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최근 학원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1977. 12. \*, 윤보선 등 35명, M00842728)

**12. 11**

- 인천지구 인권위원회, 송림중앙 감리교회에서 수도교회 김상근 목사를 초청하여 '인권 현장에 찾아온 예수'라는 주제로 「77년 인권주간예배」 진행  
「77년 인권주간예배」(1977. 12. 11, 인천지구 인권위원회, M00442374)

# 1978년

## 01. 12

- 윤보선 · 지학순 · 조화순 · 함석헌 · 천관우 · 박형규 · 정구영, 시국간담회를 갖고 ‘민주국민에게 고함’ 발표. ‘유신체제 철폐, 긴급조치 철폐, 모든 양심수의 석방, 언론의 자유’ 등을 주장

「민주국민에게 고함」(1978. 01. 12, 윤보선 등 7명, M0083915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86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01. 31

- 창영감리교회 청년부실에서 김성수, 강우경, 이민우, 정세일, 김성일(통합), 이병웅, 김성복 등이 모여 황규록 목사 설교로 1부 예배를 거행하고 ‘경기기독교청년협의회(EYC)’ 창립총회를 열어 김성수를 회장으로 선출.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는 1976년 1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함.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는 창립 이전, 1975년 4월 7일 경북지구협의회 결성을 시작으로 서울지구협의회(1975. 05. 13), 충북지구협의회(1975. 05. 17), 부산지역협의회(1975. 05. 24), 충남지구협의회(1975. 05. 24), 전북지구협의회(1975. 06. 05), 전남지구협의회(1975. 06. 22) 등 각 지구협의회 결성이 이어져 왔음. 인천지역에서는 창립 당시부터 ‘경기기독교청년협의회’라는 단체명 대신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함

「김성복 · 이민우 제공」  
「에큐메니칼 청년운동선언」(1976. 01. 29,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창립총회 총대 일동, M00441931)  
「제5회 기독교청년 에큐메니칼 훈련 및 제2차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총회」(1977. 02. 0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M00092627)

## 02. 21

- ‘동일방직 똥물 투척 사건’ 발생. 동일방직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일인 이날 새벽 5시 30분, 회사 측 노동자들이 투표하러 온 여성근로자들에게 똥물을 투척하며 선거를 방해한 사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87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활동일지 : 똥물투척사건 이후 통일방직 민주노조의 활동 내역]」(1978. \*. \*,  
[동일방직 노동조합], M00883075)

- 태평특수섬유 노동조합 조합원들, '노동조합 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중식을 거부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9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3. 06

- 통일방직 노동조합 지부장 · 부지부장 · 총무 등 의장단이 본조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며, 본조는 현 노동조합을 사고지부로 처리함

「[활동일지 : 똥물투척사건 이후 통일방직 민주노조의 활동 내역]」(1978. \*. \*,  
[동일방직 노동조합], M00883075)

### 03. 09

- 태평특수섬유노동조합 조합원 250여 명, '노동조합 분회장 자격 인정' 등을 요구하며 부평 성당에 모여 농성을 진행함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09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3. 10

- 통일방직 노동자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장에서 '동일방직 똥물 투척 사건'에 대해 항의 시위 전개. 31명이 연행되었고 최명희 · 김연심 · 김민심 등이 구류 25일을 받음. 노동자 17명은 명동성당에서 항의 단식 농성 돌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87 · 2037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활동일지 : 똥물투척사건 이후 통일방직 민주노조의 활동 내역]」(1978. \*. \*,  
[동일방직 노동조합], M00883075)

### 03. 12

- 답동 성당에서 「신 · 구교 연합 노동절 예배」가 끝난 후 통일방직 노동자 50여 명이 단식 농성 돌입. 이 날 명동성당 농성자들이 인천으로 내려왔으며 이충각 지부장이 연행돼 이튿날 29일 구류처분을 받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87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활동일지 : 똥물투척사건 이후 통일방직 민주노조의 활동 내역]」(1978. \*. \*,  
[동일방직 노동조합], M00883075)

1978년

03. 15

- 통일방직 노동자들, 68명이 답동 성당에서 인천산업선교회로 장소를 옮겨 단식 농성을 이어감

「[활동일지 : 뚝물투척사건 이후 통일방직 민주노조의 활동 내역]」(1978. \*. \*,  
[통일방직 노동조합], M00883075)

03. 17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통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조하는 단식 농성 돌입. 3월 22일까지 5일간 계속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88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통일방직 노동자 41명, 명동성당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함

[활동일지 : 뚝물투척사건 이후 통일방직 민주노조의 활동 내역](1978. \*. \*, [통일방직  
노동조합], M00883075)

03. 20

- 통일방직 · 원풍모방 · 방림방직 노동자 100여 명, 기독교 방송국에 몰려가 통일방직 문제 등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도를 외면하는 언론의 타락을 규탄하는 시위 전개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 211쪽(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3. 21

- 인권운동협의회 · 사회선교협의회 · 방림방직대책위원회 · 삼고사대책위원회 · 평화시장근로자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 「고난 받는 통일방직근로자를 위한 기도회」 공동 개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88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03. 23

- 통일방직 노동자들, 서울과 인천에서 진행한 단식 농성을 풀고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머뭄

「[활동일지 : 뚝물투척사건 이후 통일방직 민주노조의 활동 내역]」(1978. \*. \*,  
[통일방직 노동조합], M00883075)

03. 26

- 통일방직 해고노동자 정명자를 포함한 노동자 6명,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개신교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노동3권 보장, 통일방직사건

해결, 산업선교는 빨갱이가 아니다' 등을 외치며 시위 전개. 이 일로 6명 전원이 구속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88·2038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03. 27

#### • '동일방직사건 긴급대책위원회' 결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88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성명서 (동일방직사건 긴급대책위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장 귀중한 일꾼인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인권이 동물 이하로 유린되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참을 수 없어 여기에 동일방직사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난 2월 21일 사건 이후 제반 사태의 진정을 지켜볼 때 우리는 인간의 상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랄한 행동들을 목격하였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똥물사건'과 '조화순 목사를 때려잡자'는 선동 구호며 사람다운 대접을 요구하여 단식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성직자 및 민주인사에 대한 기업주 측과 노총과 관계당국의 비열한 태도며 갖가지 교활하고도 악랄한 수법으로 노동자들을 속이고 성직자들을 우롱하는 간악함이 양식 있는 온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동일방직 사건에서 빚어진 이와 같은 모든 사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가져온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우리는 본다. 우리는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수모를 전체노동자들이 다 같이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보고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수난 받은 그들을 위해서 적극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밝힌 여러 성명들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동일방직 측의 야만적 폭력과 만행에 의해 고의로 노사분쟁을 악화시켜 직업을 박탈당한 동일방직의 근로자들을 무조건 복직시켜라.
2. 소위 '조직행동대'라는 깡패들을 회사에서 즉각 철수시키고 그들의

-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단하라.
3. 정부당국은 기독교 지도자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합의한 모든 사항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4.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호소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준비하다가 연행된 김병곤 씨(본회 실행위원)를 즉각 석방하라.
  5. 아무 이유 없이 연금되어 있는 동일방직의 노조지부장, 부지부장, 총무, 노동자들을 즉시 풀어 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라.
  6. 동일방직의 모든 사태는 2월 21일 이전으로 환원 정상화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이 같은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성의 있는 수습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당국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978년 3월 27일

동일방직사건 긴급대책위원회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성명서」(1978. 03. 27, 동일방직사건  
긴급대책위원회, M00394429)

04. 01

- 동일방직 노동자 124명, 해고당함. 이후 해고노동자들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2층에 에서 기거하며 이곳에 '전국섬유노조 동일방직지부 임시사무실'을 두고 복직 투쟁을 전개함

「[활동일지 : 똥물투척사건 이후 동일방직 민주노조의 활동 내역]」(1978. \*. \*,  
[동일방직 노동조합], M00883075)

「1978년도 활동보고서」(1979. \*.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M00838291)

04. 26

-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60여 명, 회사로 찾아가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동부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그중 이 총각·김인숙이 구속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9월 12일 석방됨. 석정남·임재욱·정의숙·최연봉·최명희·김연심·김민심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89·2038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활동일지 : 뚝물투척사건 이후 통일방직 민주노조의 활동 내역]」(1978. \*. \*,  
[동일방직 노동조합], M00883075)

## 05. 15

-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등 15명, 섬유노동조합 위원장의 부산지역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저지하기 위해 유인물을 살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90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인하대학교 여학생회, 조화순 목사를 초청하여 '동일방직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란 주제로 초청강연회 개최. 인하대학교 여학생회는 이 자리에서 '동일방직 해고 근로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는 한편, 인하대학교 각 호관에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모금함을 설치함  
「동일방직 해고 근로자들에게 드리는 글」(1978. 05. 16, 인하대학교 여학생회, M00872011)

## 06. 04

-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 성남 공단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김명자·김영숙과 성남주민교회 김종국 등 3명이 구류를 받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90·2040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07. 18

-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 재판정에서 회사 측 증인들과 충돌하여 7명이 구류를 받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92·2043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09. 25

-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개최되던 중 경찰 100여 명이 진입해 참석자 40여 명을 연행함. 그중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유재남은 구류 25일,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석정남·김요자·최연봉은 구류 20일,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전창순·이향자·김영순·안동순·안순애·조효순과 인천 광야교회 교인 임선임은 구류 15일 등을 받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93·2044~2045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인하대학교 학생 안영근, 교내에서 유신헌법 폐지를 촉구하는 '민주회복에 관한 인하대학생의 선언문'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

## 1978년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 I), 67쪽(200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10. 17

- 인하대학교 학생 조용호(응용물리 3) · 안영근(행정 3) · 박한왕(국문 3) · 양홍영(기계 3), 인하대학교에서 유인물 살포. 이 사건으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이 적용돼 구속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2047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1. 03

- 인하대학교 학생 김상우(기계 2) · 박성룡(기계 2), 인하대학교에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시위를 전개. 이 사건으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이 적용돼 구속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2047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1. 07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조화순 목사, 11월 6일 「신 · 구연합기도회」에서 행한 인권사례보고 내용이 문제가 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94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79년

## 02. 06

-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인천에서 「김지하 문학의 밤」 개최. 1000여 명 참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2, 473쪽(2009, 돌베개)

## 02. 25

-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동일방직사건 1주년 모임」이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됨. 참가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가두시위를 전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1995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03. 18

- ‘천주교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인천교구사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인천교구사』, 336쪽(1991, 천주교 인천교구)

## 04. 19

- 앰네스티 인천지부 결성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355쪽(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6. 14

- 부평가톨릭 노동사목에서 활동하던 이경심, 만성 복막염과 합병증인 암으로 사망  
「고 이경심(세실리아) 10주기 추도미사」(1989. \*. \*, M00397117)

### 이경심 약력

1949년 10월 9일 1남 8녀 중 장녀로 출생. 1968년 12월 24일 영세를 받고 메리놀외방선교회 본부에서 일을 시작. 1969년 가톨릭 노동청년회(JOC) 투사 선서를 한 후 태광산업, 해양섬유, 동방섬유 등에서 노동조합 지원 활동을 하다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기도 함. 가톨릭 노동청년회 북부 연합회 회장 역임. 1975년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가톨릭 노동청년

회 회원들을 지도하였으며 동일방직 해고자들의 생계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음. 1978년 부평 가톨릭 노동사목에서 노동자 지원 활동을 해오던 중 1979년 4월 만성복막염으로 입원하였다가 합병증으로 암이 발생, 1979년 6월 14일 새벽 사망함

〈이경심(세실리아) 언니를 보내면서〉

노동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가슴아파 하던 이경심 언니가 지난 4월부터 자리에 누워 암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두 달 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 언니는 10년 전부터 가톨릭 노동청년회 활동을 해오면서 특히 동일방직 복직 문제를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몸의 아픔도 잊은 채 일 해오다 지난 6월 14일 오후 4시 15분 친지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경심 언니의 유해는 14일 산곡동 천주교회(인천)로 옮겨져 6월 16일 아침 마지막 미사를 드린 후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우리 노동자들은 언니가 평소에 기도하시던 “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영원히 살아계실 언니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빕니다. 영원한 노동자의 친구여 편히 잠드소서.

(동일방직 복직투쟁위원회가 발간하는 『동지회보』 1979년 7월호에 수록된 추모글)

「민주노총 열사추모 홈페이지」(<http://yolsa.nodong.org>)

「(2003 천주교열사 합동추모미사) 열사여, 평화의 사도여!」(2003. 05. 1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M00477854)

09. 22

- 앰네스티 인천지부, 답동 가톨릭회관 304호에서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를 초청하여 ‘역사와 지식인’이란 주제로 「제3회 인권강연회」 개최  
『앰네스티 소식』 1979-7~9(1979. \*.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위원회, M00040921)

11. 19

- 비상계엄조치로 휴교에 들어갔던 인하대학교, 23일 만에 개교  
『인하대학신문』 제462호(1979. 11. 26, 인하대학신문사)

11. 24

- 재야 민주화세력들이 서울 명동 YWCA강당에서 결혼식을 위장하여 ‘통대 선출 저지 국민대회’를 개최하던 중 계엄군의 진압으로 140여 명이 연행되고 18명이 기소, 70여 명이 즉결심판을 받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V)』, 2002·2062쪽(1987.

07.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2. 05

-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 ‘저희들이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오’라는 문건을 통해 소위 ‘블랙리스트’에 의해 취업이 어렵다고 호소

「저희들이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오」(1979. 12. 05, 인천동일방직 해고 근로자 일동, M00444500)

### ‘저희들이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오’

우리들은 1978년 4월 1일 인천 동일방직에서 124명이 집단 해고된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여러 직장으로 취업하여 근무하였으나, 국립경찰이 각 직장을 찾아다니며 기업주에게 해고를 종용해 다시 쫓아내고, 전국섬유노동조합 위원장(현재 노총위원장 겸직) ○○○는 동일방직에서 쫓아낸 것으로도 직성이 아니 풀렸는지 1978년 4월 10일 섬유노동공문으로 해고자 124명에 대한 직위와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까지 인쇄해 가지고 전국 각 회사와 각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와 분회에 동일방직 해고자들을 취업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저희들 124명은 우리나라에서는 취업할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본명으로는 면접에서 떨어지고, 가명으로는 3개월을 못 넘겨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현란의 경우는 한일방직에서, 한비산업에서, 대한모방에서, 대농방직에서, 동일방직에서 다섯 차례나 쫓겨나는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한두 번씩 쫓겨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1979년 12월 5일

## 인천동일방직 해고 근로자 일동

「저희들이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오」(1979. 12. 05, 인천동일방직  
해고 근로자 일동, M00444500)

### 12. 12

- 인하대학교, 교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975년 4월 이후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적된 조용호(응용물리학과 2년) 등 학생 13명 전원을 1980년도 새 학기에 복학시키기로 결정함. 이를 위해 '데모 성토 및 정치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제적한다'는 학칙 제63조의 규정을 삭제함

『경향신문』 제10525호(1979. 12. 13,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7905호(1979. 12. 13, 동아일보사)

1980년대

1980 ~ 1989





# 1980년

## 01. 28

- 문교부, 「선인학원 특별감사」 실시

『경향신문』 제11821호(1984. 02. 28, 경향신문사)

## 02. 06

- 인하대학교 교무위원회, 긴급조치와 관련해 제적 처분된 인하대학교 학생 18명(정학 4명 포함)에 대해 일괄 복교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학칙 개정시안을 문교부에 승인 요청

### 〈복교 대상자 명단〉

- 문의탁(경영 4), 양경철(기계 4), 손동권(정밀기계 4), 최종욱(기계 3), 조용호(응물 2), 김상우(기계 2), 박성룡(기계 2), 양홍영(기계 2), 안영근(행정 2), 김명식(국어 2), 곽한왕(국어 2), 서병희(가정 2), 김환연(인문사회계열 1), 김승용(무역 3), 이기영(법학 2), 안철권(법학 2)

『인하대학신문』 제463호(1980. 02. 25, 인하대학신문사)

## 02. 13

- 인하대학교 8개 서클이 참가해 ‘인하대학교 학원자율화 준비위원회’ 결성

『인하대학신문』 제469호(1980. 04. 07, 인하대학신문사)

## 02. 14

- 1978년 4월 해고된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최연봉 등 6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 제출. 이들은 한국노총 위원장이 1978년 1월 15일 전국 섬유노동조합위원장 주최 중앙회 회의석상에서 ‘동일방직 여성근로자들이 외부 불순세력에 의해 조종을 받고 독침을 갖고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함

『경향신문』 제10577호(1980. 02. 15, 경향신문사)

## 02. 18

- 인하대학교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가칭), 총학생회 부활을 목표로 하여 학내 15개 동아리가 참가해 결성. 위원장에 하종강 선출. ‘인하대학교 학원자

1980년

율화 준비위원회'는 발전적 해체.

『인하대학신문』 제463호(1980. 02. 25, 인하대학신문사)

『인하대학신문』 제464호(1980. 03. 05, 인하대학신문사)

『인하대학신문』 제469호(1980. 04. 07, 인하대학신문사)

## 02. 28

- 인하대학교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 인하대학교 5호관 소강당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학원 민주화를 위한 제1차 공청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464호(1980. 03. 05, 인하대학신문사)

「1만 인하인에게 알림(2) -학원 민주화를 위한 제언」(1980. 03. 10, 인하대학교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 M00872157)

## 03. \*

-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복직투쟁 위원회, 3월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동일방직 해고자 124명을 즉각 복직하라', '노동귀족 회개하라' 등의 주장이 담긴 '결의문' 발표

「결의문」(1980. 03. \*, 동일방직 복직투쟁 위원회, M00445202)

-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추진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하여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124명의 무조건적인 복직과 '노동귀족'에 대한 '엄중한 심판' 요구

「성명서」(1980. 03. \*, 동일방직해고 근로자 복직 추진 위원회, M00442598)

## 03. 07

- 인하대학교 학술회장연합회(가칭), 인하대학교 교직원식당에서 23개 학과 학술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 학도호국단이 주재한 학술회장 모임에서 의견의 불일치로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퇴장한 가운데 학원자율화 작업을 주체적으로 담당할 공식적인 대의기구로서 출범

『인하대학신문』 제465호(1980. 03. 10, 인하대학신문사)

## 03. 10

- 인하대학교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 「1만 인하인에게 알림(2) -학원 민주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학도호국단이 지니는 제반문제는 부분적 개선이 아닌 전면폐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학도호국단을 존속시키려는 어떠한 절충적 시도도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힘

「1만 인하인에게 알림(2) -학원 민주화를 위한 제언」(1980. 03. 10, 인하대학교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 M00872157)

## 03. 13

- 인하대학교 학술회장연합회,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로 개칭

『인하대학신문』 제466호(1980. 03. 17, 인하대학신문사)

#### 04. 01

- 인천공업전문대학 학생 200여 명, 학원자치권 강화 등을 요구하며 교내 시위 전개

『동아일보』 제17997호(1980. 04. 02, 동아일보사)

#### 04. 02

- 인하대학교 · 인천공업전문대학, 교내 시위와 관련해 4월 10일까지 임시 휴강하기로 결정

『경향신문』 제10617호(1980. 04. 02,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7997호(1980. 04. 02, 동아일보사)

#### 04. 04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실시되어 총학생회장에 경영학과 3학년 황윤철이 당선

『인하대학신문』 제469호(1980. 04. 07, 인하대학신문사)

『인하대학신문』 제470호(1980. 04. 14, 인하대학신문사)

#### 04. 10

- 인하대학교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 성명을 내고 '재단과 학원운영 분리, 어용교수 퇴진' 등을 요구

『경향신문』 제10624호(1980. 04. 11, 경향신문사)

#### 04. 12

-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복직을 요구하며 거리 선전전 및 가두시위 진행

#### 04. 15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수협의회(가칭),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학과 사무실 벽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 결성을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수협의회'(가칭) 결의문

대학은 그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스스로 수호하면서 항상 역사의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우리 사범대학 교수 일동은 지난날의 학원이 외적 요인에 의하여 침해받았던 상황에서 대학인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제 본연의 자세로 학원자율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질서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범대학 교수협의회(가칭)를 결성하고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와의 발족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기구를 통하여 학교 당국과 학생대표들과의 대화 및 협력으로 우리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사범대학 교수협의회(가칭)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학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영향력도 거부한다.
2. 재단과 대학 당국은 대학의 자유와 내실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3. 교수의 학문의 자유는 그 신분과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4. 학생은 대학 본연의 질서 확립에 그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

1980년 4월 15일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수협의회(가칭)

『인하대학신문』 제471호(1980. 04. 23, 인하대학신문사)

#### 04. 18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4·19학생혁명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작가 고은을 초청하여 기념 강연회 진행

『인하대학신문』 제470호(1980. 04. 14, 인하대학신문사)

『인하대학신문』 제471호(1980. 04. 23, 인하대학신문사)

- 반도상사 노동자 30여 명, 96%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시작

『경기신문』 제2020호(1980. 05. 07, 경경신문사)

#### 04. 19

- 엠네스티 인천지부,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4·19 20주년 기념 사월제(四月祭)」 개최

『인천주보』 제498호(1980. 04. 13, 천주교 인천교구)

04. 22

- 인하대학교 총여학생회 결성. 총여학생회장에 황우윤이 당선됨

『인하대학신문』 제472호(1980. 05. 12, 인하대학신문사)

04. 23

- 선인학원 내 향도실업고등학교 · 운산기계공업고등학교 · 운봉공업고등학교 학생 1500여 명, 수업을 거부한 채 대운동장에 모여 ‘실습시간 연장, 보충 수업료 인하, 재단의 간섭 반대, 무능교사 퇴진’ 등 8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농성 전개

『동아일보』 제18014호(1980. 04. 23, 동아일보사)

04. 25

- 인천제철 노동자들, 현행 임금제도 개선 등 8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 시작

『경기신문』 제2016호(1980. 05. 02, 경기신문사)

-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30여 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복직 및 노동조합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시작

「사업보고서를 만들며」(1980. 12. \*, 조화순, M00446209)

05. \*

- 화수동에 민들레 어린이집 개소.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부설 놀이방으로 설립되었음. 이후 ‘친목회’라는 이름의 후원회가 만들어져 ‘83친목회’(1983년 놀이방을 졸업한 아이들의 엄마 모임)를 처음으로, ‘569친목회’(1985 · 1986 · 1989년 졸업생 엄마 모임), ‘별난 친목회’(별나게 살아보자는 엄마 모임) 등이 생겨남

「이충현 제공」

이영희, 「화수동 언덕의 햇살」(1996, 『월간 샘터』 27, 샘터사)

05. 01

- 인천제철 노동자들, 4월 25일부터 농성을 벌여오다가 ‘연차휴가 보상비 지불, 기능사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정기승급제 실시, 임금 인상 미달가 인상, 현행임금제도 개선, 어용중역 퇴진 등의 요구조건에 대해 회사 측과 합의를 보고 7일 만에 농성을 끝냄

『경기신문』 제2016호(1980. 05. 02, 경기신문사)

- 일신제강 인천제강소 노동자 100여 명, ‘임금 33% 인상, 상여금 연400% 지급’ 등 9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정문을 폐쇄한 채 철야 농성 시작. 전국금속노조 일신제강지부 인천제강분회는 4월 25일에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서 40%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이 25%를 인상하자 33% 인상안을 제시하며 농성을 벌임

『경기신문』 제2016호(1980. 05. 02, 경기신문사)

05. 03

- 인천제철 노동자 2명,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 이들은 4월 25일 인천제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차를 타고 회사 밖으로 나가던 총무이사, 총무부장, 운전사 등을 폭행하고 전무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회사 소유 차량 위에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음

『경기신문』 제2018호(1980. 05. 05, 경기신문사)

05. 06

- 코리아 스파이서 노동자 310여 명,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장 식당에서 철야농성 돌입

『경기신문』 제2020호(1980. 05. 07, 경기신문사)

『경향신문』 제10646호(1980. 05. 07,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8177호(1980. 05. 07, 조선일보사)

- 동양나일론 노동자 300여 명, 임금 28.9%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25.88% 인상 약속을 받고 해산함

『경향신문』 제10646호(1980. 05. 07,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8177호(1980. 05. 07, 조선일보사)

- 반도상사 노동자 500여 명,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 돌입. 그중 노동조합 지부장 조금분 등 7명은 단식 농성 시작

『경향신문』 제10646호(1980. 05. 07,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8177호(1980. 05. 07, 조선일보사)

- 대양화성 노동자 230여 명,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 시작

『경기신문』 제2020호(1980. 05. 07, 경기신문사)

『경향신문』 제10646호(1980. 05. 07,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8177호(1980. 05. 07, 조선일보사)

- 서음전자 노동자 350여 명, 임금 55.6%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 시작

『경향신문』 제10646호(1980. 05. 07, 경향신문사)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분회 및 용산분회 종업원 124명, 서울 용산 주한유엔군사령부 영내에서 주한미군 당국이 한국인 종업원 428명 중 134명을 6월 6일부로 감원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항의하며 농성 전개

『경향신문』 제10646호(1980. 05. 07, 경향신문사)

05. 07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을 '민주화대행진의 날'로 정하고 인하대학교 대운동장에서 3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시국에 관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7개항의 결의문을 발표. 학생들은 '학원민주화는 학생에게 일임하라', '유신잔당 물러가라', '계엄령 철폐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와 함께 교내에서 시위행진을 시작하며 인하대학교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 오후 2시 30분경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인하사대부고 정문을 통해 빠져나와 학익동과 독쟁이를 거쳐 인천교육대학 앞까지 시가행진을 전개하였으며, 이들 시위대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던 중 인하대학교 '구정문'을 나와 학익동과 독쟁이로 행진하던 500여 명의 학생들과 합류, 용현동 사택입구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함. 인하대학교 이재철 총장이 설득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찰과 무력 충돌 없이 학교로 돌아오고, 학생 400여 명은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뚫고 적십자병원을 거쳐 인천공설운동장에 도착함. 여기서 경찰이 진압을 시작하자 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200여 명은 도원동과 배다리를 거쳐 청과물시장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다른 한편은 공설운동장에서 제2장로교회, 신흥동, 답동을 거쳐 동인천광장으로 나아감. 경찰의 계속된 진압으로 흩어진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교내 시위를 전개한 후 오후 7시경부터 학생회관에서 철야 집회에 들어감. 이날의 시위에서 기계과 2학년 조병희가 경찰에 연행됨

#### 〈결의문〉

1. 정부주도 개헌을 즉각 중지하고 명확한 정치 일정을 밝혀라
2. 명분 없는 계엄령은 조속히 해제하고 군부는 군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3. 유신잔재세력은 즉각 물러가고 민주화과정에 차질이 없게 하라
4. 노동3권과 농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라
5. 해직근로자 및 미석방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고 미복권자는 복권시켜라
6. 언론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7. 학원의 자율화와 민주화는 학생에게 일임하고 외부세력은 이에 간섭말라

『인하대학신문』 제472호(1980. 05. 12, 인하대학신문사)

『경기신문』 제2021호(1980. 05. 08, 경기신문사)

『동아일보』 제18027호(1980. 05. 08, 동아일보사)



〈시위를 끝내고 이재철 총장과 함께 학교로 귀환하는 인하대학교 학생들〉

「인하대신문사 소장」

-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동일방직 해고근로자의 복직과 동일방직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관계 당국과 회사 측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은 무조건 복직되어야 한다', '그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막은 ○○○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노동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등을 요구

『경향잡지』 1347호(1980. 06. 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05. 08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황윤철이 인하대학교 교내에서 '1만 인하인에게 고하는 성명서'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며 교내 시위를 시작함. 이때 인하대학교 후문 앞에 3대의 트럭에 나눠 탄 계엄군이 도착했으나 학생 대표의 요구로 곧 철수함. 학생들은 오후 8시경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가 횃불을 들고 교내에서 침묵 행진을 했으며 인하대학교 본관 앞에서 부마사태 희생자들에 대한 초혼제와 위령제를 개최함

『인하대학신문』 제472호(1980. 05. 12, 인하대학신문사)

『경향신문』 제10648호(1980. 05. 09,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8028호(1980. 05. 09, 동아일보사)

#### 05. 09

- 인하대학교 기계과 학생들이 오전 9시경부터 인하대학교 구정문과 후문가에서 연행 학생 조병희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시위 시작. 정오 무렵 조병



회가 42시간 만에 석방되어 나오자 인하대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20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환영식 개최. 학생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결의문을 채택한 후 3일간의 '민주화 대행진'을 끝냄

『인하대학신문』 제472호(1980. 05. 12, 인하대학신문사)

『경향신문』 제10649호(1980. 05. 10, 경향신문사)

## 05. 12

- 인하대학교 교수 130여 명,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현 시국과 학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후 7개 항목의 선언문을 채택하여 발표하고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 결성

###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선언'

오늘의 우리 국가와 대학은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 교수 일동은 현 시국과 학원문제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1. 현재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은 학생들의 순수한 양식의 발로로 생각하며 이를 지지한다. 다만, 그 방법은 자율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2. 학원의 자유화는 보장되어야 하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대학의 사명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성의 있는 협조가 있을 것을 확신한다.
3. 현 시국의 조속한 해결 방안은 계엄령의 해제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민주화 일정의 제시임을 확인한다.
4. 정치인들은 현 시국의 타개를 위한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양심적이고 대국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5.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인들은 시대적 사명에 따라 그 자세를 새로이 할 것을 촉구한다.
6. 당국은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하여 계속 평화적으로 대응하기를 당부한다.
7.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견을 집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수협의회를 결성한다.

1980년

1980년 5월 12일

인하대학교 교수 일동

『인하대학신문』 제472호(1980. 05. 12, 인하대학신문사)

『경기신문』 제2025호(1980. 05. 13, 경기신문사)

『경향신문』 제10651호(1980. 05. 13, 경향신문사)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이날부터 「민주역량 강화기간」에 돌입하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인하대학신문』 제472호(1980. 05. 12, 인하대학신문사)

05. 13

- 동일방직 해고노동자와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금속노동조합 ○○○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농성. 농성과 함께 ‘우리는 복직이 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킨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우리는 복직이 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킨다」(1980. 05. 13, 동일방직 해고 근로자 124명 일동, M00442719)

05. 15

- 인하대학교 학생 3000여 명, 오전 11시 30분 인하대학교 교내에 모여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계엄령을 해제하라’, ‘제도언론을 철폐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며 가두시위 전개. 학생들은 주안역으로 가기 위해 학익로를 지나던 중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맞서 투석전을 벌이다가 인하대학교 학생 임학성·정해수 등이 불발 최루탄에 맞아 부상당함. 이중 경찰의 저지선을 뚫은 학생 1500여 명은 신기촌 방면에서 다시 모여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행진, 낮 12시경 주안역 앞에 집결했으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다시 흩어짐. 이후 제물포역을 거쳐 동인천으로 향하던 학생들은 숭의삼거리에서 경찰의 저지에 막혀 다시 분산, 골목 등으로 피신하며 오후 2시 20분경 동인천역 광장에 재집결. 이곳에서 인천교육대학 여학생 800여명, 인천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합류함. 동인천역 광장에서 성토회회를 벌이려던 학생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막자 지하도 등을 통해 대피, 다시 옛 삼화고속 버스정류장 앞길에 모여 연좌 농성을 벌인 후 전철을 통해 서울로 향함

『경기신문』 제2028호(1980. 05. 16, 경기신문사)

『동아일보』 제18033호(1980. 05. 15,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제18034호(1980. 05. 16, 동아일보사)

05. 16

- 인천교육대학 · 인천대학교 · 인하대학교 학생대표를 포함한 전국 56개 대학 학생대표 96명, 오후 5시 50분경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관에서 「제1차 전국 대학총학생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새벽에 결의한 '정상수업을 받고 가두시위를 일단 중지한다는 사항'을 재확인함

『경향신문』 제10655호(1980. 05. 17, 경향신문사)

- 인천교육대학 학생 600여 명, 오전 10시 50분경 인천교육대학 강당에 모여 시국에 대한 성토대회를 개최한 후 오후 1시 30분경 해산

『경기신문』 제2029호(1980. 05. 17, 경기신문사)

05. 18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이날 새벽 화수동 소재 사무실에 괴한이 난입해 출입문을 손상시킨 일과 관련,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와 총무 조화순 목사의 구속 등과 때를 같이 하는 일이니 종교탄압의 일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인천 기독교 도시 산업 선교회 사무실 침입 사건 경위」(1980. 05. 19,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M00114409)

05. 25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답동성당에서 「광주사태로 인해 희생된 영령들과 조국의 평화를 위한 미사」 봉헌. 당일 헌금액 27만 730원은 교구 사회복지회를 통해 광주에 전달

『인천주보』 제505호(1980. 06. 01, 천주교 인천교구)

06. 08

- 천주교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 『인천주보』를 통해 광주 일원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특별기도와 헌금 당부

『인천주보』 제506호(1980. 06. 08, 천주교 인천교구)

06. 13

- 천주교 인천교구, 5·18광주민주항쟁과 관련해 각 본당에서 보내 온 특별헌금 298만 2276원을 광주교구에 전달

〈본당별 헌금 내역〉

(단위 : 원)

| 본당    | 헌금액     | 본당     | 헌금액     |
|-------|---------|--------|---------|
| 답동    | 141,000 | 송림1동   | 112,775 |
| 도화동   | 100,000 | 해안     | 50,000  |
| 화수동   | 94,000  | 송현동    | 107,500 |
| 송림1동  | 43,600  | 주안5    | 16,020  |
| 석남동   | 64,296  | 송의동    | 50,625  |
| 주안1   | 180,000 | 제물포    | 78,665  |
| 용현동   | 100,350 | 주안3    | 33,800  |
| 석암    | 65,875  | 주원     | 33,800  |
| 간석동   | 38,875  | 만수동    | 41,150  |
| 고잔    | 54,435  | 부평1    | 330,620 |
| 부평2   | 117,920 | 산곡동    | 76,100  |
| 갈산동   | 102,065 | 소사     | 193,005 |
| 심곡동   | 161,885 | 원미동    | 37,000  |
| 김포    | 36,335  | 강화     | 23,525  |
| 수녀연합회 | 96,770  | 복자수도원  | 15,000  |
| -     |         | 인성회 기금 | 500,000 |

『인천주보』 제508호(1980. 06. 22, 천주교 인천교구)

## 08. 02

- 반도상사 노동조합 지부장 조금분, 부지부장 김분겸, 지도위원 장현자 등이 계엄사에 연행됨. 이후 포고령 위반으로 경기도지구 계엄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20일 만에 기소유예로 석방

「[반도상사노조 사건경위 보고 자료집]」(1981. 03. 13, M00883185)

## 09. \*

- 민들레 어린이집 개설.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로 일하던 조화순, 김동완 목사와 유효순 교사를 중심으로 문을 열어 2~6세 맞벌이 빈곤층 어린이의 보육 사업을 통해 주민모임을 발전시켜나감

송정로, 『인천시민사회운동 20년사』

## 10. 30

- 전국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지부 · 전국항운노동조합 인천운수지부, 「통합대의원대회」 개최

『인천항변천사』, 264~265쪽(1995, 인천항운노동조합)

## 11. 27

- 창영감리교회 청년회, '민중의 교회'라는 주제로 「제3회 바보제」 개최. 광야교회 정명기 목사가 주제 강연을 함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1981년

## 01. 28

- 문교부, 인천대학을 비롯해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명지대학교 등 5개 대학에 대해 2월 12일 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 12일 각종 불법사례를 밝혀냈다고 발표. 대검특수부는 문교부의 감사결과를 통보 받고 전면수사에 착수함

『경향신문』 제10908호(1981. 03. 13,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8440호(1981. 03. 13, 조선일보사)

## 02. 24

- 창영감리교회에서 정기총회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3. 18

- 학교법인 선인학원 설립자이자 상무이사인 백인엽, 업무상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학교법인 선인학원은 건축법 및 중기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됨.

『경향신문』 제10912호(1981. 03. 18,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8445호(1981. 03. 19, 조선일보사)

## 04. 20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인천제일장로교회에서 「제4회 부활절 청년연합예배」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5. 18

- ‘인하대학교 청진회 사건’ 발생. 이 날 밤 인하대학교 건물 외벽 곳곳에 붉은 색 페인트로 반정부 구호가 적혀 있는 것을 학교 당국이 발견해 지워버린 일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인하대학교 지하서클 ‘청진회’를 적발, 같은 해 9월 경 현 회장과 초대 회장 등을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구속하고 2명을 지명 수배함

「[81년도 9월 각 학교별 교내 시위 일지](1981. \*. \*, M00524110)

## 05. 21

- ‘인천제일교회 사건’ 발생. 제일교회 대학부에서 5월 23일까지 ‘민족의 교회,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청년 선교 대회 개최. 행사 첫날인 이날 한완상의 강연회가 끝난 후 1000여 명의 청년들이 스크럼을 짜고 ‘전두환 파쇼 물러가라’, ‘노동3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축현초등학교 앞까지 시위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됨. 이 때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 이민우, 광야서점 대표 강우경, 인하대 학생 송영수 등이 경찰에 연행됨. 그날 밤 경찰이 광야서점을 급습해 직원 이생우와 부천공전 학생 김재봉을 연행하였고 경기다방에서 감리교 서울 신학교 2학년 서광석을 추가로 연행함. 이후 관련자들의 조사와 검거가 계속 이어져 7명이 구속되고 6월 20일, 전원 기소됨

〈인천제일교회 사건 구속자 명단〉

| 이름  | 소속                                         |
|-----|--------------------------------------------|
| 이민우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 인성여고 교사                     |
| 강우경 | 광야서점 대표                                    |
| 정희윤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부회장, 감리교 인천 동지방청년연합회 회장, 철도청 직원 |
| 한태환 | 인하대 화학 3년                                  |
| 문광석 | 인하대 생물 2년                                  |
| 김종은 | 인하대 기독교학생회, 인하대 전산 2년                      |
| 임정상 | 인하대 역사 2년                                  |

「인천 제일교회 사건 경위」(1981. 05. 27, M00445470)

## 05. 29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동인천 감리교회에서 「5·21 사건으로 인한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 개최. 감리교 인천 동지방 청년 연합회가 주관을 하고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감리교 청년회 전국 연합회, 감리교 청년회 인천 서지방 연합회, 감리교 청년회 인천 남지방 연합회, 감리교 청년회 인천 북지방 연합회, 예수교 장로회 경기 서노회 청년 연합회, 기독교장로회 인천 지구 연합회, 성공회 청년회, 구세군 혈화 청년회가 후원을 맡음

「5·21 사건으로 인한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1981. 05. 29,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M00445482)

## 08. 03

- 노동수기 『어느 돌맹이의 외침』의 저자 유동우(삼원섬유 분회장) 연행

## 『어느 돌맹이의 외침』 저자 유동우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은 유신시대 노동현장 수기이자 대표적인 금서로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이 책은 1970년대 중반 인천의 한 섬유기업에서 일하던 유동우가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를 일삼는 회사와 맨몸으로 싸운 투쟁기를 수필로 기록한 글이다.

1977년 『월간대화』 1~3월호에 처음 연재되면서 노동자와 학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듬해에는 단행본으로도 출간돼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함께 1970년대 대학생들의 필독서로 꼽히기도 했다.

회사 측과의 싸움은 유동우가 해고되는 것으로 끝이 났고, 유동우는 이후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1979년 신군부가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유동우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에 가담해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다. 이 활동으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힌 그는 1981년 6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 분실로 끌려갔다. 이른바 '학림사건'의 시작이었다. "두 눈을 가린 천을 풀어보니 사방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방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냐'라고 묻기에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사회주의자네'라며 구타가 시작됐죠. 그 방이 7년 뒤 박종철 열사가 숨을 거뒀던 바로 그 509호입니다."

고문은 한 달여간 계속됐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듬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그 반년 남짓한 시간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구속 이력 때문에 정규직 취직은 불가능했다. 공사장 노동자, 모텔청소원, 주차관리원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고문 후유증 탓에 적응이 쉽지 않았고, 잦은 노숙으로 주변으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기도 했다.

유동우는 지난해 말 지인의 권유로 인권의학연구소에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치료를 받으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1981년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12. 26**

- 인천전기 노동자 6명 해고당함. 이중 2명은 JOC 회원, 3명은 도시산업선교회 관련자로 알려짐

『암흑속의 햇불』 73쪽(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 1982년

## 01. 11

- 천주교 인천교구, 긴급 사제총회를 개최하고 부평특수사목팀 연행사건에 대한 대책 협의. 부평특수사목팀은 산곡동 성당에서 나길모 신부 등 4명이 부평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상담을 담당하며 선교활동을 벌여 온 모임. 경찰은 1981년 11월부터 성탄절을 앞두고 노동자를 위한 카드 제작과 관련해 수강생 15명을 연행함

『암흑속의 햇불』 43쪽(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 01. 20

-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1월 11일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 서통, 원풍모방, 인천지역 JOC 문제와 관련된 노동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한’을 국무총리, 국가안전기획부장, 내무부장관, 노동부장관 등에게 발송

『암흑속의 햇불』 73쪽(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공한’에서 밝힌 인천 JOC 관련 문제점

인천시내 이천전기는 1981년 12월 26일 6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켰는바 이 가운데 2명은 JOC 회원, 3명은 도시산업선교회 관련자였다 합니다. 특히 한 JOC 회원은 8개월 전 회사로부터 “JOC를 그만 두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해왔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1982년 1월 8일을 전후하여 이른바 크리스마스카드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부평지역 산곡동 성당의 JOC 회원들에 대해 연행, 폭행 등으로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JOC의 예비회원들까지 연행, 신상 조사를 하거나 JOC의 조직상황, 노동사목을 담당하는 마틴 라우어리 신부님(미국인)과 윤순녀 수산나(AFI 회원)의 교육 내용 등을 추궁했는가 하면 “나 신부와 윤 수산나는 빨갱이다. 여기서 그들의 정체가 노출되어 들통나니 제 2거점을 만들기 위해 잠적했다. 너희들은 그런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암흑속의 햇불』 43쪽(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03. 10

- 가톨릭노동청년회 인천교구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근로자를 위한 제37회 노동절 기념행사」 개최

『인천주보』 제598호(1982. 03. 07, 천주교 인천교구)

04. \*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민들레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소

「이충현 제공」

04. 11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최기식 신부에 대하여 교구장과 뜻을 같이해 ‘최기식 신부의 고난에 일치하여 동참하자’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암흑속의 햇불』 52쪽(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04. 23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내에 민들레 협동조합 설립. 주민 250여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각 지역 대표 선출하고, 박성근을 전체 회장으로 선출함. 인천기독병원 수련의 양요환, 서울대 치대생 전동균 등으로 조직된 의료진 20여명과 동구보건소에 근무하던 조옥화를 실무진으로 구성, 주말진료와 야간진료, 보건상담, 영유아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의료봉사를 통한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건강문제에 대한 의식 변화와 주민조직을 꾀함.

「민들레협동조합 사업보고서 참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조옥화 전화면담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05. 09

- 인하대학교 학생 김성진이 군입대 중 충주 오석교 전도사 장석재에게 보낸 편지가 문제가 되어 김성진을 비롯, 장석재와 인하대학교 학생 이우청·안영근·황홍규·이기선 등 6명이 연행됨

『암흑속의 햇불』 242쪽(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05. 21

- 인하대학교 학생 김성진 등 4명, 군 입대 중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됨

「소식」(1982. 06. 03, 엔씨씨 인권위원회, M00523613)

10. 04

- 인천 감리교북지방 주최 청년집회가 경찰에 의해 방해 받음. 고영근 목사의 선교가 취소됨

『암흑속의 햇불』 38쪽(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 10. 22

- 천주교 인천교구, 11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산업사회와 인간」이라는 주제로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청년금요강좌’ 개최

### 〈강좌내용〉

-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 조요한(전 숭전대 교수)
- 경제성장은 정말 좋은 것인가? : 유인호(전 중앙대 교수)
-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 김어상(서강대·정의평화위원회 부회장)
- 민족문화, 어디로 갈 것인가? : 신경림(시인)
- 역사 속에서 청년은 무엇을 할 것인가? : 김성식(경희대 교수)

『인천주보』 제630호(1982. 10. 17, 천주교 인천교구)

## 11. 08

- 인하대학교 학생 이우청, ‘행동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유인물 200여 장을 뿌리며 약 1시간 동안 교내 시위 주도. 다른 학생 한 명은 6호관 2층 난간에서 유인물을 낭독한 후 노래를 부르며 시위 주도. 시위 주동자 이우청은 이 날의 시위로 학교에서 제적당함

「행동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1982. 11. 08, 인하대학교 민주학우 일동, M00840881)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 I), 112쪽(200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암흑속의 햇불』, 256쪽(1998,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 11. 10

- 인하대학교 학생 최진우·이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동아일보』 제18802호(1982. 11. 11, 동아일보사)

『조선일보』 제18954호(1982. 11. 11, 조선일보사)

## 12. 12

- 새봄교회, 이원희 목사가 노동자들의 신앙터전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효성동에 설립

「섬기는 생활 나누는 실천」(\*. \*. \*, 새봄교회 노동청년회, M00441820)

# 1983년

## 04. 19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평1동 천주교회에서 「4·19 혁명 23돌 기념 순국 영령 추도미사 및 강연회」 개최. 일꾼교회 김동완 목사의 본기도, 호인수 신부의 강론에 이어 성내운 교수가 '4·19정신과 우리의 각오'라는 주제로 강연

『인천주보』 제657호(1983. 04. 17,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659호(1983. 05. 01, 천주교 인천교구)

## 05. 27

- 천주교 인천교구 교육원, 답동 가톨릭 회관에서 '진리의 목소리를 갈망하며 대화의 장을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시대의 징표를 나누자'는 취지 아래 「제1회 월례 청년 금요강좌」 개최. 함세웅 신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주제로 강연

『인천주보』 제664호(1983. 06. 05, 천주교 인천교구)

## 07. 31

- 가톨릭 노동청년회 인천교구연합회, 태창 노동자들의 해고 사건과 관련해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의 즉각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결의문」(1983. 07. 31, 한국 가톨릭 노동 청년회 인천교구 연합회, M00884370)

## 08. 26

- 천주교 인천교구 교육원, 8월 27일까지 이틀 간 답동 가톨릭 회관에서 노동운동을 주제로 한 「월례 청년 금요강좌」 개최.

- 8월 26일 : 일제 식민지하의 노동운동사 (강사 : 박현채 교수)

- 8월 27일 : 해방 후의 노동운동사 -70년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천주보』 제674호(1983. 08. 14, 천주교 인천교구)

## 09. 06

-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총무 김정택, 서울 시청 앞에서 연행됨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김정택 총무 경찰 구타 사건 경위」(1983. \*. \*,

M00348377)

## 09. 23

- 인천대학교 학생 2명, 반정부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암흑속의 햇불』 541쪽(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 09. 28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인천교회에서 「청년신앙」 강좌 개최. ‘동인천 도시산업선교센터’ 이국선 목사가 ‘산업사회와 교회’라는 주제로 강연. 동인천 도시산업선교센터는 1963년 6월 5일, 이국선 목사가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공장 전도목사로 부임한 때부터 시작. 1967년 2월, 송림동 253번지 2층에 30만 원의 전세를 얻어 센터를 개관하고 초교파적인 운영이사회(이사장 전택완 장로)를 조직. 실무진에는 원장 이국선 목사, 총무 고재식 전도사가 취임. 1970년 6월, WCC를 통한 서독교회 보조와 인천시 보조, 이사회 헌금 등으로 만석동에 새 건물을 신축하여 1971년 7월 11일 준공함. 동인천 도시산업선교센터는 ‘낮은 임금 근로자의 빈곤과 질병을 가난한 자의 복음으로 해방시켜 복지산업사회를 만드는’ 복음화와 민주화에 설립 목적을 둬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동인천 도시산업선교센터 약사」(1976. 04. 15, 이국선, M00107059)

### 09. 30

- 천주교 인천교구 교육원 강연 준비위원회, 이부영 전 동아일보 기사를 초청해 답동 가톨릭 회관에서 「민주사회와 언론 -70년대 언론 파동」이라는 주제로 「월례 청년 금요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680호(1983. 09. 25, 천주교 인천교구)

### 10. 05

- 인하대학교 학생들, ‘이승만 동상에 관한 일만오천 인하인의 입장’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이승만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학원 탄압 사례 등을 소개

「이승만 동상에 관한 일만오천 인하인의 입장」(1983. 10. 05, M00839983)

#### ‘이승만 동상에 관한 일만 오천 인하인의 입장’

1960년 4월 서울 종로 바닥을 밧줄에 묶여 질질 끌려다니던 더러운 자의 동상이 우리의 학원에 온갖 거짓된 위엄을 다 갖춘 채 다시 세워져 있다. 냉전 이데올로기의 주구가 되어 이 땅의 간절한 염원을 배신

한 채 민족을 두 동강이 내는 데 앞장섰던 자, 온갖 친일의 괴뢰들에게 다시 권력을 나눠주고 민족의 정기를 압살했던 자, 개인의 정권욕을 위해 민중의 고향을 빨아 먹던 자, 결국 수많은 우리 민주선배들의 가슴에 총탄을 박고 해외로 도망쳤던 자, 그 더러운 자의 검은 악의 그림자가 이 땅을 능욕하려 하고 있다.

이승만이 우리 대학의 설립자라는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1974년 간행된 『인하20년사』를 보더라도 ‘하와이 교포들이 정성을 모아 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국내 동포들의 협조를 얻어서’ ‘설립에 있어서는 국립이나 공립으로 하기보다는 하와이 교포들의 성금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동포들의 성금과 합작하여 거족적인 사학재단을 구성하는 데 뜻을 모으고…」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인하대학 설립에 관하여’라는 특별답화(공보처 발표 제248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승만은 당시 대통령이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자로서, 하와이 이주민들의 제의에 단지 대학의 설립을 허가해준 것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인하대학교는 온 민족의 세금·성금·마음의 정성으로 세워진 명실상부한 ‘민족의 대학’인 것이다.

설립자도 아닌 자를 설립자라고 매도하며 동상까지 세운 작태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요, 한 사람의 착오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선배들이 피로써 지키려던 4·19민주주의 이념을 강간하고자 하는 매관 엘리트들의 치밀한 음모와 방조 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1979년 2월 학생들이 떠나간 빈 겨울 교정에 몰래 세워졌던 이 동상은 애초부터 불법한 것이다. 그해 4월 『뿌리깊은 나무』의 논설은 ‘대통령이 어느 한 학교의 설립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대학구내에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개탄했다. 유신의 우두머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80년 새학기를 맞이하자, 대학신문사에서는 동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고자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기독교학생회에서는 「4·19혁명 기념사진전」을 동상 주위에서 가졌다. 이처럼 전체학생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급조된 동상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갔다. 급기야 학교당국에서는 비열한 수법을 자행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항상 감시하고 제어하던 학생처에서 ‘서울에서 일부 과격한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서 동상을 부수러 내려오고 있다’라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다. 학생처의 거짓된 말에 사주를 받고 잠시 이성을 잃은 졸업준비위원회와 운동부의 몇몇 학

생들은 각목까지 들고 나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동상 주변의 4·19 기념 중요사진들을 부숴 버렸다. 그러나 정작 내려오고 있다던 서울의 과격한 무리들은 결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학교 당국에서는 동상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도 했다. 1980년 5·17 쿠데타 이후 민주적인 총학생회가 해체되고 학원에의 억압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동상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동상 문제를 학생들과의 공개협의 하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동상 주위에 수은등까지 세우고, 수위실 본부를 '학생회관'에 설치하는 등 은밀한 감시를 계속하고 그 민주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학우여! 독재자의 상이 순결한 이 땅에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학원의 자유'란 말인가. 민주학우여! 4·19가 준 큰 상처 때문에 아직도 불구의 몸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또 그 유가족들의 질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오늘의 동상문제는 조그마한 사건자체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치욕의 별레가 되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민주학우여 우리들은 뜨거운 양심으로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 동상은 영구 철거할 것이며 우리대학은 '민족의 대학'임을 분명히 밝혀라

…… (하략) ……

1983. 10. 5

「이승만 동상에 관한 일만오천 인하인의 입장」(1983. 10. 05, M00839983)

1983년



〈인하대학교 내에 설립된 이승만 동상〉

『인하대학신문사 소장』

#### 10. 06

- 인하대학교 학생 이기선, '언론자유 보장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주도. 이 날 시위로 제적 당함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 I), 216쪽(200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10. 06

-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교내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임. 시위 주동자 윤호영이 중상을 입음. 이 날 시위에서 이승만 동상이 끌어내려져 파손됨

『암흑속의 햇불』 542쪽(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 1998)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M00871733)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 I), 242~243, 247쪽(200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10. 11

- 인하대학교 학생 이민재 · 이기선 · 황홍규 · 윤호영, 학생시위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동아일보』 19084호(1983. 10. 12, 동아일보사)

#### 10. 20

- 태평특수섬유 노동자 김용자 · 김옥섭, '혼사(작업 중 실이 잘못 섞인 경우)'



문제 등을 이유로 박우범, 최점숙 등과 함께 해고당함. 김용자와 김옥섭은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출신임. 이들은 10월 27일 '태평특수섬유 해고자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하여 복직과 함께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함

「호소문」(1983. 10. 27, 태평특수섬유해고자일동, M00523686)

## 12. 15

- 삼익가구 노동자 서기화, 태평특수섬유 노동자 김용자·김옥섭, 신도실업 노동자 신정희, 같은 해 9월~11월에 걸쳐 '블랙리스트'에 의해 해고당한 데 대해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를 찾아가 '노동자의 복직, 블랙리스트 철폐, 근로감독 철저' 등을 요구. 이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한 4명은 다음 날인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실에서 철야 농성과 단식에 돌입하였으나 12월 17일 새벽 2시에 전투경찰 50여 명에 의해 인천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오후 5시경 풀려나옴

「인천지역 블랙리스트 노동자 해고」(1983. 12. 20, M00840392)

### ‘블랙리스트 해고노동자 폭행구속 사건’

70년대 이후 민주노동운동을 해온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에 의해 취업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이 블랙리스트에 의해 인천지역에서도 1983년 9월에서 11월에 걸쳐 6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했다. 이 중 4명(김용자, 김옥섭, 신정희, 서기화)의 노동자는 두 달에 걸쳐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에 구제신청을 하고 진정을 하는 등 해결을 모색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12월 15일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에서 7시간 동안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으나 성의 있는 답변도 듣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왔다.

다음날 다시 근로감독관실을 찾아가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12시간 정도가 지난 17일 새벽 2시 경 50여 명의 전투경찰이 들이닥쳐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가슴을 만져 사무실 밖으로 내몰아 10명을 연행했다가 오후 5시경 풀어주었다.

이틀 후인 19일 오전 10시 김용자, 김옥섭, 신정희, 서기화, 안순애, 김복자 등 6명이 다시 노동부에 항의하러 갔으나 20명이 넘는 노동부 직원과 사복형사에 의해 문앞에서부터 제지당했다.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현관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서기화 씨가 정강이를 찌

혀 쓰러졌다. 그 상태에서 방치되다가 경찰의 저지를 뚫고 서기화 씨에게 접근한 동료 한 명이 목도리를 풀어 다리를 묶어 주었다. 서기화 씨는 피를 흘리는 중에도 ‘복직’과 ‘블랙리스트 철폐’를 외쳤으며 ‘복직이 아니면 여기서 죽겠다’며 병원에 갈 것을 거부하다가 기독교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남아 있던 해고 노동자들은 고여 있는 피로 ‘복직’이라고 기둥에 써놓고 항의하던 중 출동한 150여 명의 경찰에 의해 인천서로 연행되어 20일 폭력혐의로 구속되었고 21일 검찰로 송치되어 인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서기화씨는 오른쪽 다리 신경 및 힘줄이 절단되어 3주 동안 일상 활동 불가,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20일 오후 인천서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84년 1월 이들은 모두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는데 84년 12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복직’과 ‘블랙리스트 철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하느님이 주신 인권」(1984. 12. 10,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8718)

# 1984년

## 01. 18

- 인하대학교 교무위원회, 1980년 5·17 이후 학원 소요와 관련해 제적된 학생 18명 전원을 재입학대상자로 확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각 단과대학별로 통보

『경인일보』 제7327호(1984. 01. 19, 경인일보사)

## 01. 24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블랙리스트 철폐를 위한 항의와 관련해 구속된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6명의 석방을 촉구하며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

『인천주보』 제698호(1984. 02. 05, 천주교 인천교구)

## 01. 25

- 경인지구 제적학생 복교대책위원회 결성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02. 26

- 여성평우회, 만석동에 큰물공부방 개원. 큰물공부방 주변 만석동 주부들은 공장이나 행상 등의 일을 나가고 있어 방과 후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로써 가난한 지역 아동의 문화결핍, 학습부진 현상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을 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9시까지 개방함

『여성평우』 창간호(1984. 06. 18, 여성평우회, M00864436)

### ‘만석동 여성들의 삶’

인천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바닷가를 면한 땅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만석동이다. 그중에서도 고기잡이배가 드나드는 선착장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만석동 43번지.

만석동은 일제 때부터 취락지역이었고 6·25동란으로 북한에서 무작

정 피난하여 남하한 사람들(특히 황해도)이 바닷가 부두 부근 모래땅에 얼기설기 판자로 집을 짓고 들어선 것이 지금의 동네를 이룬 것이다. 이곳은 인천시에서 무허가 판자집의 밀집도와 인구조밀도가 으뜸으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거상태가 극히 취약하다. 우선 가옥의 구조를 보면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블록으로 외형을 갖추었거나, 판자·루핑으로 외형을 갖추고 있거나 모두 그 내부는 2평 남짓한 방 하나와 부엌뿐인 가옥들이 대부분이다. 이웃집과의 사이는 벽 하나로 막혀있고, 방문을 나서면 바로 부엌이고 부엌 앞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이다. 또한 이 동네엔 판자로 된 2층집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2층집이란 공동 통로로 사용되는 길에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낮은 방을 말한다. 그나마 이 방은 겨울에는 추워서 사용되지 못한다.

겨우 몸 하나 빠져나갈 골목길을 제외하고는 길 밖에 방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길을 지나면서 눈을 돌리면, 열린 방문과 유리창을 통해 그 집에 있는 가구며 생활형편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또, 가난한 여느 동네와 같이 개인 소유의 변소는 거의 없고 공중변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더럽고 오물이 넘쳐흐른다.

만석동은 어업과 공업이 병존해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은 철따라 배를 타고나가 고기잡이나 굴 따기 등을 하기도 하고 인근에 있는 큰 공장들인 I제철, D목재, S가구에서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배를 가지고 있거나 어업에 능숙한 기술이 있는 몇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시로 일을 바꾼다. 재산이나 배운 게 없는 이들이 육체노동 해서 버는 수입은 워낙 적고, 일도 부정기적이거나 힘들기 때문에 직업 이동이 잦은 셈이다. 가난한 동네의 모든 이들이 그러하듯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남녀노소에 따라 그 일은 약간씩 차이가 난다.

청년 남성들은 건축일 또는 배 부수는 막노동이나 제철소의 용접일, 목재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장년 남성들은 고기잡이와 행상, 건축일 막노동에 많이 종사한다. 젊은 미혼여성들은 전자회사 생산직이나 경리직, 서비스직에 많이 취업하고 좀 나이가 든 기혼여성들은 건축일 막노동, 생선 행상, 목재공장, 굴(조개, 낙지) 따기, 가내부업 등 다양한 일을 한다. 초등학교 아동들까지 신문배달이나 가내부업을 해 낸다.

이중 특히 기혼여성들의 직업 이동은 훨씬 심한 편인데 돈벌이 외에 가사일과 자녀교육 문제의 부담을 안고 있고, 또 남자나 미혼여성도 기

피하는 일도 한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여성평우』 창간호(1984. 06. 18, 여성평우회, M00864436)

## 02. 29

- 인천전문대학 학장 이길영, ‘학장직무 불성실’을 사유로 선인학원 측으로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간 직위해제 조치 당함. 이길영은 2월 27일자로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씨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설립자에 의한 대학운영의 부당한 간섭’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경향신문』 제11821호(1984. 02. 28,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제11822호(1984. 02. 29, 경향신문사)

## 03. 01

- 신흥목재, 합판공장 가동을 중단. 이에 앞서 1월 28일 회사 정문에 해고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해고 대상자는 350여 명에 달함. 신흥목재는 도화동에 위치

『경인일보』 제7337호(1984. 01. 31, 경인일보사)

## 03. 30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주최로 「월례 청년 금요강좌」 개최. 성내운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국민교육헌장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육 방향에 대하여 강연

『인천주보』 제705호(1984. 03. 25,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707호(1984. 04. 08, 천주교 인천교구)

## 04. 10

- 만수동 소재 경인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사망. 무허가 건물인 공장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확인됨

『조선일보』 제19389호(1984. 04. 10, 조선일보사)

## 04. 17

-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설립. 위원장에 곽순복, 부위원장에게 서지숙을 선출. 이후 노동조합 지도부의 구축과 조합원들의 계속된 ‘강제 사직’으로 인해 1986년 1월경 노동조합을 해산함. 1987년 5월 제2차 노동조합 설립을 보았으나 1989년 다시 해산함. 1993년 6월 20일 제3차 노동조합 설립

『인천주보』 제772호(1985. 07. 07, 천주교 인천교구)

「대한마이크로전자(주) 노동조합 탄압사례」(1995. 11. \*,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

1984년

탄압과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M00404906)  
「인천지역 여성사업장 해고문제」(1995. \*.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M00405756)

04. 22

- 곽한왕, 고규홍 등 5명이 '가톨릭 청년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목표로 '인천 가톨릭 청년회' 구성

『인천교구사』, 860쪽(1991, 인천교구사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05. 25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주최의 「월례 청년 금요강좌」가 끝난 후 참가했던 학생들이 거리에서 '폭력정권 규탄시위'를 벌이다가 21명이 경찰에 연행됨

「하느님이 주신 인권」(1984. 12. 10,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8718)

06. 12

- 인천 가톨릭 청년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제1기 민중대학」 개설. 10월 20일까지 매주 화 · 수요일 진행. 이에 앞서 6월 10일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인천주보』 제712호(1984. 05. 20,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716호(1984. 06. 17, 천주교 인천교구)

06. 20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민주노동자 블랙리스트문제 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폭력정치의 상징인 블랙리스트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폭력정치의 상징인 블랙리스트를 규탄한다」(1984. 06. 20, 민주노동자 블랙리스트 문제 대책위원회 외 5개 단체, M00523668)

08. \*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용접공 송경평과 이용선 등이 중심이 되어 회사 측에 근로자의 군대경력 인정 등을 요구하며 기존 노동조합 집행부와 어용시비로 충돌이 일어남. 송경평은 '군필 복직자가 정당한 호봉 수 및 월차 계산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수당 지급 및 TQC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으며, 회사 측은 송경평이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혀 9월 22일자로 4급 사원으로 전보 발령을 냄. 송경평이 이를 거부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 본인이 근무하던 차체1과를 중심으로 진정서에 대한 서명을 받는 등 사건을 공개화 하다가 해고당함

『월간 말』 창간호, 36쪽(1985. 06. 10, 민주언론운동협의회)

08. 15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부평1동성당에서 「노동자 문화 잔치」 개최  
『민중문화』 제5호(1984. 12. 28, 민중문화운동협의회, M00858295)

09. 03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 인천지역 애국 청년일동 공동 명의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성명서」(1984. 09. 03,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등, M00102651)

09. 04

- 인하대학교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한일관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 ‘방일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임. 인하대학교 후문을 통해 가두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제지에 막혀 투석전 등을 벌임  
『인하대학신문』 제579호(1984. 09. 10, 인하대학신문사)
- 인하대학교 복교생 및 2학기 복학예정자 8명, 인하대학교 후문 앞에서 방일 반대 성명서를 낭독한 후 학도호국단 제1회의실에서 3일간 단식 농성 전개

『인하대학신문』 제579호(1984. 09. 10, 인하대학신문사)

09. 05

- 인하대학교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인하대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방일 반대 성토대회」를 개최한 후 ‘연행학생 석방’과 ‘방일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 시위를 전개

『인하대학신문』 제579호(1984. 09. 10, 인하대학신문사)

09. 06

- 인하대학교 학생 김성진, 인천경찰서에 연행되어 교내 및 교외 시위사건의 배후조종자라는 자백을 강요당함. 9월 9일 훈방 조치된 후 인천 길병원에 입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자백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관련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시킴

『민중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M00871733)

「하느님이 주신 인권」(1984. 12. 10,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8718)

09. 08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교관에서 발기 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발족.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조직 구성〉

1984년

- 위원장 : 황상근 신부(십정동 본당)
- 간사 : 제정구(바오로)
- 위원 : [성직자] 장희영 신부(화수동 본당), 이학노 신부(사목국장), 이찬우 신부(송도 본당), 호인수 신부(부평1동 본당), 전 미카엘 신부(연안부두 본당), 오 다니엘 신부(노동사목) [평신도] 홍성훈(아우구스티노)

『인천주보』 제729호(1984. 09. 16, 천주교 인천교구)

#### 09. 18

-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① 군필자에 대한 부당 처우, ② 84년도 3/4분기 상여금 미지불액 25% 지급, ③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으로 지불, ④ 부당한 부서 이동 즉각 철회' 등과 함께 '노조 집행부의 어용적 체질과 반조합적 성격'을 규탄하며 시위 돌입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10. 24

- 인하대학교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인하대학교 비룡담 앞에서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584호(1984. 10. 29, 인하대학신문사)

#### 10. 25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발기
  - 발기인 : 제정구, 이명준, 이호웅, 김영준, 김정택, 김도연, 황선진, 장정옥, 한상희, 이민우, 이우재, 조용호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발기문」(1984. 10.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50621)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창립총회」(1984. 10.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30444)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10. 26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민청련 의장인 김근태를 초청하여 「월례 청년금요강좌」 개최. 강좌가 끝난 후 300여 명의 학생들이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반대와 함께 부천 반도기계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악법 개정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 분 간 햇불시위 전개. 경찰에 의해 흩어진 학생들이 중앙극장 앞에 집결하여 도화동 파출소 등에 투석을 하며 시위를 이어감. 이 날 26명이 경찰에 연행됨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33)

「하느님이 주신 인권」(1984. 12. 10,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8718)



## 10. 29

- 인천대학 학생들, 부마항쟁의 의의와 부활된 학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1월 2일까지를 「민주화대행진」 기간으로 설정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11. 02

- 인하대학교 학생들, 인하대학교 서클연합회가 11월 1일부터 개최한 「제1회 서클제」 기간 중 「학생의 날 기념식 및 선배제위 추모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부의장 장영달 씨 초청강연회」 등을 진행한 후 오후 7시경 햇불시위를 벌이며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림

『인하대학신문』 제585호(1984. 11. 05, 인하대학신문사)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11. 09

- 인하대학교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 서클연합회 · 복교생동지회 · 학술회장 등이 연합하여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총학생회 부활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 이광현이 위원장에 선출됨

『인하대학신문』 제586호(1984. 11. 12, 인하대학신문사)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11. 12

- 부평1동 성당에서 「반도기계에서 죽은 노동자를 위한 합동위령미사」 봉헌. 부천 반도기계에서 근무하던 이인영, 장용택, 이창진 등 사인을 모른 채 사망한 노동자들의 영혼을 위한 위령미사임

『인천주보』 제737호(1984. 11. 11, 천주교 인천교구)

## 11. 19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답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개최. 의장에 제정구, 총무 및 대변인에 황선진, 사회부장에 이민우, 운영부장에 이우재, 재정부장에 조용호, 여성부장에 최인숙을 선출한 후 창립선언문 채택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33)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창립 선언문

오늘 우리는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의 결성을 선언한다.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통일을 염원하며 활동해왔던 우리들은 이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계층과 계층 간 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 사이의 위화감마저 크게 조성시키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권력과 부의 편제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몇몇 소수인에 의해 좌우되는 상태로 되고 말았고, 이 땅의 힘없고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압도적 다수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정치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댓가도 받지 못하고 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으며, 교육·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어 왔다.

오늘에 이르러 이러한 현상들은 계층 간 문제뿐 아니라 지역 간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권력의 서울로의 집중과 지방자치의 부재로 인해 지방은 중앙으로부터의 하향적 행정단위로 전락하고 말았고, 지역주민은 선거용 표발 이외의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고 있다. 자본과 고급인력이 서울로 집중함에 따라 지방경제는 자금난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취업기회의 절대적 부족으로 지방의 실업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교육과 문화시설 등이 서울에 편제되어 있어 지방은 교육과 문화의 불모지화하고 말았다. 결국 서울이 거대한 공룡과 같이 비대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그 공룡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등 심화가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그 해결을 위해서는 기층에 기반을 둔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과 함께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지역사회운동의 성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지역운동의 발전은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이 그러한 전체운동 발전의 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이제 우리는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의 출범에 즈음하여 범국민적 민주화운동과의 연계 위에 다음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밝힌다.

1. 우리는 인천지역의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에 적극 동참, 지원한다.

노동운동의 기반 없는 민주화운동의 성공이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았

다는 사실은 지난 20여 년간의 민주화운동의 반성을 통해서 이미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유수의 공업지대의 하나인 인천의 경우 노동운동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곳에 비해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지난 70년대부터 일찍이 한국민주노동운동의 선도적인 지역의 하나로서 등장한 인천지역의 노동운동은 이제 더욱 비약 발전하여 지역운동 뿐만 아니라 전체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올바른 지역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발전이 선결 과제임을 직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제투쟁에 적극 동참 지원해야 하며, 아울러 그들과의 유대를 심화 강화시켜 지역운동 뿐만 아니라 전체 민주화운동과 보조를 함께 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모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모든 주체적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인천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무리한 재개발 사업에 의한 빈민촌 주민들의 철거문제, 무분별한 공장유치로 인한 공해문제, 불안정하고 가혹한 경제조건에 허덕이는 어업근로자, 영세상인의 생존권 문제, 땅 투기문제 등등 인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도처에 산적하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것이기도 한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 그 당사자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우리는 이기심과 퇴폐적 향락주의, 부당한 남녀차별 등이 존재하지 않는 건전한 지역사회의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잇달은 부정부패와 사회 가치체계의 전반적 붕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온갖 퇴폐적 향락문화와 자기만이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심 등이 팽배하였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온갖 범죄가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성유희의 대상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받는 부당한 차별대우와 억압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풍토를 뿌리 뽑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가 한 인격체로서 대등한 대우를 받고, 사랑과 신뢰가 넘쳐흐르는 건전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인천지역 사회운동이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운동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시야를 인천지역의 차원에만 국한시켜 타 지역 타운동권과의 연대를 형성함에 게을러서도 안 된다.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통일은 지역과 분야를 막론한 모든 운동의 굳건한 결합 위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은 그 장엄한 첫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통일을 염원하며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모든 민주역량들은 인천지역 사회운동의 기치 아래 모두 집결해야 한다. 정체되고 좌절하며 혹은 고립적인 모습 속에서 수공업적 활동 밖에 전개하지 못했던 우리들은 이제 그동안의 모든 나약함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민족통일로의 큰 길로 과감하게 전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밤이 깊어 날은 춥고 어두우나 우리는 밤이 깊기에 새벽이 멀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날이 춥고 어둡기에 다가올 아침이 얼마나 따뜻하고 밝은가를 알고 있다. 우리 모두 다가올 그 아침을 위해 웃음과 희망을 잃지 말자.

어두울수록 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내 한 몸 사르는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 빛과 희망이 될 것이다.

갈 길은 멀고 파도는 험하다. 하지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앞에는 긴 항해 끝에 올 찬란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목청높이 외쳐 나가자.

민족통일 만세!      민주화운동 만세!      인천지역사회운동 만세!

1984년 11월 19일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대우자동차 노동자 송경평 · 이용선,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로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함

『민중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11. 21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여성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등 9개 단체와 함께 '여대생 추행사건 대책협의회' 결성

- 가입단체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여성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권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여성평우회, 여성의전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선교위원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여대생 추행사건대책 경과 보고」(1984. 12. \*, M00837506)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 활동소식』 제1호(1984. 12. 22, 여대생추행사건대책협의회, M00076578)

## 11. 23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 11월 22일과 11월 23일 이틀에 걸쳐 총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해 이광현을 선출하며 전국 42개 대학 중 5번째로 총학생회를 부활시킴. 재학생 1만 4932명 중 6038명이 투표에 참가.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 선관위는 총학생회가 부활되었음을 발표하는 한편, 현 학도호국단 간부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함

『인하대학신문』 제588호(1984. 11. 26, 인하대학신문사)

『민중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12. 03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제2기 민중대학」 개설. 1985년 2월 19일까지 매주 화 · 수요일 진행.

『인천주보』 제739호(1984. 11. 25, 천주교 인천교구)

## 12. 05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여성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여성평우회 등 11개 여성 단체와 함께 '다시는 이 땅에 경찰에 의한 여대생 추행 사건과 같은 비열한 폭력행위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고발장을 서울지방 검찰청에 접수시키고 폭행자 처벌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

「고발장」(1984. 12. 25, 여대생추행사건대책협의회, M00081557)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12. 08

• 곽한왕 등 15명,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발기대회를 개최

「가톨릭 청년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발기문」(1984. 12. 08, M00382983)

인천교구사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인천교구사』, 860쪽(1991, 천주교 인천교구)

### ‘가톨릭 청년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발기문)

창조 이래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전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이 창조하실 계획이며, 이는 지상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이다.

하느님의 이 거대한 계획은 곧 교회의 사명이며, 이미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현세 질서를 복음에 의해 정의와 평화의 법이 지배하는 하느님 왕국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인천 지역사회의 현실은 이와 같은 교회의 그리스도적 활동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인천교구의 특수성과 지역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청년 중심의 평신도 사도직 운동 단체가 요청받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창립의 본질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는 교회 내에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공동체이다. 이는 성령의 지혜와 은총 안에 늘 실천하는 신앙으로 자기를 새롭게 쇄신하는 젊은이들 모두의 모임인 것이다.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는 인천교구의 가톨릭 청년운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교회가 가지는 기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것은 교회 내에 머무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끊임 없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운동 단체를, 그 나아갈 지표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의 운동들은 곧 인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키고 나아가 분단 시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도도한 물결이 될 것이다.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화 하여 궁극적으로 하느님 왕국의 지상 실현이라는 교회의

구원 사업에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와 같은 목적을 향하여 교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의 창립을 교회의 모든 청년 앞에 겸허하게 다 음 발기인의 이름으로 결의하는 바이다.

1984. 12. 8

발기인

곽한왕(요 한) 장석홍(유스티노) 안영근(다 니 엘) 김철우(베 다)  
나준식(베드로) 고규홍(베 드 로) 김효식(요 한) 임제홍(베 드 로)  
정운상(바오로) 최정철(요 한) 한이심(바 올 라) 현영미(제노베파)  
이기선(마태오) 염익태(루치아노) 장낙경(모데스타)

「가톨릭 청년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발기문」(1984. 12. 08, M00382983)

## 12. 10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제3회 인권 주일을 기념하여 「하느님이 주신 인권」이라는 주제로 유현석 변호사(전국 정의평화위원회장)의 강연회 개최. 강연 후에는 목동지역 주민들의 철거사 건, 여대생 추행사건 경위 보고 등 인권탄압 사례 발표가 진행됨

「하느님이 주신 인권」(1984. 12. 10,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8718)

『인천주보』 제741호(1984. 12. 09, 천주교 인천교구)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12. 17

- 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위원회, 창영감리교회에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이란 주제로 인권주간 연합예배 개최. 김준영 목사가 학원문제, 노동문제, 주민문제 등의 인권탄압 사례 보고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12. 25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회보 『민주화의 물결』 창간

『민주화의 물결』 창간호(1984. 12.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33)

## 12. 26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들, 기존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해 불신임 서명

1984년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노조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시작함

『월간 말』 창간호, 36쪽(1985. 06. 10, 민주언론운동협의회)

**12. 27**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답동성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곽한왕, 부회장 김철우, 총무 고규홍 선출. 가톨릭 청년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활성화를 기본 목표로 함. 1985년 1월 16일 사제평의회에서 정식 교구 단체로 인준 받음

『인천주보』 제741호(1984. 12. 09,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749호(1985. 01. 27,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회원 안영근의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성명서 발표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 1985년

## 01. 14

- 경동산업 노동조합 결성

『인천주보』 제749호(1985. 01. 27, 천주교 인천교구)

- 서울·인천지역 해고노동자 10여명, 여의도 민한당사에서 ‘해고자 전원의 복직, 블랙리스트 철폐, 노동조합 탄압중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 농성 노동자들은 1월 26일 민한당사를 나와 노동부 청사로 향했다가 경찰과 충돌, 병원에 ‘강제입원’ 당한 후 1월 31일 밤 전원 경찰에 연행됨

### 〈민한당사 농성에 참여한 해고노동자〉

| 이름  | 회사      | 해고일          |
|-----|---------|--------------|
| 서기화 | 한일스텐레스  | 1984. 12. 18 |
| 이봉우 | 이성전자    | 1984. 05. 24 |
| 이옥순 | 이우제책사   | 1984. 12. 01 |
| 현윤실 | (주)유니전  | 1984. 09. 17 |
| 박애숙 | (주)협진양행 | 1984. 09. *  |
| 송경평 | 대우자동차   | 1984. 12. 27 |
| 이용선 | 대우자동차   | 1984. 12. 28 |
| 조분순 | 쌍마패션    | 1984. 06. 09 |
| 김건호 | 진도      | 1984. 10. 15 |
| 김진태 | 린나이코리아  | 1984. 10. *  |

### 〈해고노동자들의 주장〉

- 부당해고자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라
- 노동악법 개정하라
- 노조탄압 중지하라
- 최저임금(일당 5000원) 보장하라
- 8시간 노동제 보장하라

1985년

1. 운전기사 보장하라
1. 블랙리스트를 철폐하라
1. 임금동결정책 철폐하라
1. 노조결성 탄압말라
1. 노동3권 보장하라
1. 산재방지 대책 마련하라

『민중화의 길』 제7호(1985. 01. 31, 민주화운동청년연합, M00871529)  
「복직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련다」(1985. \*. \*, 유니전 · 협진 · 노루표 페인트  
해고자 및 경인지역 해고자 가족일동, M00485115)

#### 01. 16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사제평의회를 통해 천주교 인천교구의 공식적인 교구 단체로 인준 받음

『인천주보』 제749호(1985. 01. 27, 천주교 인천교구)

#### 01. 19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노동자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용 소책자 『노동자의 벗』 제1호 발간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 01. 22

- 경동산업 노동조합, 성명서를 발표하여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해고된 위원장과 2명의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귀를 요구. 또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노동조합인데도 회사 측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파괴하려 하고 인천시청이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으며 금속노조연맹은 근로자의 교육을 기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부당함을 고발

『인천주보』 제749호(1985. 01. 27, 천주교 인천교구)

#### 01. 25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여성부,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주최로 서울 YWCA 강당에서 개최된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여성대표자 간담회」에 참석. 81개 여성 단체, 100여 명이 참가한 이 날 간담회에서 ‘여성 유권자의 선언’이 발표됨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여성대표자 간담회 참가단체(무순)」(1985. \*. \*),  
M00427748)

『베틀』 제7호(1985. 01. 30, 여성의 전화)

#### 02. 03

- 동보전기 노동자들, 회사 식당에 모여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고 정동근과 이형범을 공동대표로 선출. 파업은 5일간 진행됨

『새날을 여는 일꾼』 제23호(1994. 08. 13,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3739)

## 02. 06

- 동보전기 노동자들, 파업 농성 중 노동조합 결성대회 개최. 위원장에 이남숙, 부위원장에 김정숙, 총무부장 겸 조직부장에 정동근이 선출됨

『새날을 여는 일꾼』 제23호(1994. 08. 13,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3739)

## 02. 07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노동자, 재야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 위 원 장 : 양승조

- 부위원장 : 최순영

- 사 무 장 : 김지선

- 감 사 : 이충각, 조금분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의 창립을 선언한다’

역사 발전의 주인공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절대적 다수인 우리 노동자들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생산의 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 경제성장의 정당한 몫을 찾지 못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극심한 저임금, 잔업·철야·특근으로 인한 세계 제일의 장시간 노동, 그리고 살인적이고 비인간적인 작업조건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파괴되고 병들어가고 있다. 산업재해의 피해는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풍조에 점차 감염되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사회구조적 모순의 희생자로 비인간화 되어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은 기만과 폭력적 탄압으로 무참히 파괴되거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와 당연한 권리 주장에 대한 해고, 일방적인 노사협조의 억압적 강요 등 자본과 결탁한 권력에 의해 계속적으로 짓밟히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의 생존권 자체를 압살하려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는 권력의 잔인한 탄압에 의해 희생된 당사자로서 비조직적이고 고립분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운동의 주체성·통일성·연대성을 드높이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더구나 밀집된 공업지역으로서 인천·부천지역은 가장 심각한 노동문제들을 안고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적 노동운동을 위한 협의회를 창립케 되었다. 폐쇄된 개별 사업장의 사회적 고립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천·부천지역의 사회적 아픔을 노동자의 입장에서 같이 나누며 극복키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한 법률구제활동, 인간다운 삶을 실현키 위한 문화 활동,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교육활동, 노동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 노동자의 복지와 후생활동 등 노동자를 위한 모든 활동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확보해 갈 것이다.

멀고도 험난한 가시밭길임을 부정치 않는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과 맥을 같이 한 반일 반자본 노동운동의 기개와 신념을 이어받아, 가깝게는 70년대의 치열했던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무수한 선열들의 뒤를 이어 강철같이 단결된 모습으로 끝없이 지치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인간적 권리 회복을 위한 다른 여러 사회운동과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주화 운동에 동지적 격려를 보내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독점자본의 횡포, 권력의 횡포에 맞서 자유스런 노동권과 인간적 권리 확보를 위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그날까지 나아갈 것이다.

어둠이 깊고 날이 추울수록 우리는 불꽃같이 산화되는 등불이 되어 밝은 새 봄의 길목을 밝혀 줄 것이다

인천지역의 노동자여!

우리는 모두 강철같이 단결하여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새 봄 밝은 날을 위해 온 몸으로 나아가자!

1985. 2. 7.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의 창립을 선언한다」(1985. 02. 07,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096318)

#### 02. 10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라는 제목으로 부정선거 감시와 5공화국 비리 규명에 관한 성명서를 신자들에게 발표. 7개 항의 실천 방법 제시

#### 〈7개 항의 실천 방법〉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정치활동규제법 등의 철폐 또는 개정을 요구함시다.
1.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 개헌을 요구함시다.
1.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비와 노동3권의 보장, 블랙리스트의 철폐, 영세입주자 철거민에 대한 생존권 보호,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 무한히 올라가는 전세금, 임대료의 규제, 세금 인하 등을 요구함시다.
1. 군인의 정치개입이 중지되도록 요구함시다.
1. 지방자치의 조속하고도 완전한 실시를 요구함시다.
1. 나날이 심각해지는 인천의 공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함시다.
1. 영세 입주자들의 안정된 삶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철거 정책의 시정과 철거시의 충분한 보장을 요구함시다.

『인천주보』 제751호(1985. 02. 10,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 02. 28

- 인하대학교 학도호국단, 총학생회 부활 방침에 따라 간부 전원이 사퇴하면서 부활된 지 10년 만에 학도호국단 해체

『인하대학신문』 제591호(1985. 03. 04, 인하대학신문사)

#### 03. \*

- 인천지역 공해연구팀 ·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반공해운동협의

1985년

회」 창립. '공해추방운동'을 실천적 과제로 설정함

『월간 말』 창간호, 60쪽(1985. 06. 10, 민주언론운동협의회)

### 03. 04

• 인하대학교 학생처장 명의로 학도호국단 해체 및 총학생회 구성 일정 공고

『인하대학신문』 제591호(1985. 03. 04, 인하대학신문사)

#### ‘인하대학교 학도호국단 해체 및 총학생회 구성 일정’ 공고

1. 본대학교 학생의 학생자치역량의 신장을 위한 총학생회 부활 방침에 따라 학도호국단을 비롯한 모든 학생단체는 1985년 2월 28일부로 자진 해체한다.
2. 1985학년도 학생 자율적 경비는 총학생회 발족 시까지 집행을 유보한다.
3. 총학생회의 출범을 위한 ‘총학생회 구성 준비위원회’(가칭)를 개강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각 학과별로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학회장(학과대표 64명)으로 결성하고 그 모임에서 첫째, 총학생회 회칙 및 선거시행 세칙의 심의의결 둘째, 선거관리 위원선출 셋째, 총학생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 일정 등을 협의하여 총학생회 구성을 위한 근간을 형성한다.
4. ‘총학생회 구성준비위원회’에 제시할 총학생회 회칙 시안 및 선거시행 세칙 시안 작성을 위하여 학생대표 8명과 총장이 각 단과대학별로 위촉하는 평교수 약간 명으로 총학생회 회칙 시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학생 대표의 선출은 각 단과대학별로 총학생회 구성준비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한다.
5. 학생 과외활동 단체(일반 서클 및 동문, 향우회 포함)의 신규 및 재등록신청은 총학생회 발족 이후에 접수함이 원칙이나 실정을 감안하여 1985년 3월 30일까지 지도교수 승낙서, 회칙 및 예산안, 회원 명단 등의 구비서류(소정양식은 학생과에 비치되어 있음)를 각 1부씩 첨부하여 학생과에 신청함으로써 학생 과외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985년 3월 4일

인하대학교 학생처장

『인하대학신문』 제591호(1985. 03. 04, 인하대학신문사)

**03. 08**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여성부, '여대생 추행사건대책협의회' 소속 여성단체 등과 공동 주최하여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서울 YWCA 중강당에서 개최

「85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주제: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1985. 03. 08, M00123835)

「세계 여성의날 기념 '85 한국여성대회 보고서」(1985. 03. \*, M00857056)

『베틀』 제8호(1985. 03. 30, 여성의 전화)

**03. 10**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답동 가톨릭회관 304호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의 유래와 노동현실'이라는 주제로 「노동절 40주년 기념식」 개최. 이날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제40회 노동절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5개 항의 요구사항 제시

## 〈5개 항의 요구사항〉

1.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1일 8시간 기준, 5000원 이상의 최저임금제는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2.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어야 한다.
3. 블랙리스트는 영원히 폐기되어야 하며, 해고노동자는 복직되어야 한다.
4.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5. 노동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인천주보』 제755호(1985. 03. 10,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756호(1985. 03. 17,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03. 13**

## 1985년

- 한영알미늄 노동자들, 최저임금 4700원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 임금 인상 교섭 제의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 03. 15

- 효성물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조합원 교육 실시  
『'88임금인상투쟁지침서』(1988. 01.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56095)

### 03. 16

- 한일스텐레스 노동자들, 김진국, 김재관 등을 중심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손을선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민주노조 결성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 03. 17

- 효성물산 노동조합, 3월 29일까지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 '910원 임금 인상요구안의 정당성' 등을 주제로 하여 45명씩 교대로 라인교육 진행  
『'88임금인상투쟁지침서』(1988. 01.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56095)

### 03. 19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직 개편. 중앙위원회 및 집행국을 신설하고 인천지역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신설 등 합의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 03. 20

- 인하대학교 학생 400여 명, 인하대학교 본관 앞에서 「총학생회 합법성 쟁취대회」 개최. 학생들은 대회가 끝난 후 '총학생회 인정하라', '규제조항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여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한편, 100여 명의 학생들은 학생과로 들어가 철야농성을 이어감. 그중 이광현·김성진·한관훈 등 3명은 인하대학교 본관 2층 복도에서 '총학생회 즉각 인정'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진행  
『인하대학신문』 제594호(1985. 03. 25, 인하대학신문사)

### 03. 29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미국의 대외정책과 제3세계'라는 주제로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자 창작과비평 편집위원인 임재경을 초청하여 「월례 청년금요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757호(1985. 03. 24, 천주교 인천교구)

## 04. 10

- 서울·인천지역 해고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부평1동 성당에서 결성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결성배경」(1985. 04. 06,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M00120021)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결성을 선언한다」(1985. 04. 10,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M00068499)

『노동자신문』 제7호(1985. 06. 02, 영등포 산업선교회, M00876918)

###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결성을 선언한다’

항일 민족 독립운동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노동운동은 무수한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그 길은 바로 반외세 반독재 민주투쟁의 선봉이었다.

80년 광주 민중 학살의 토대 위에 등장한 제5공화국은 살인적인 임금 동결정책과 가혹한 노동운동 탄압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땅의 800만 노동자는 생존을 위협받는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난 84년의 유화국면에서 이루어진 200여 개에 달하는 신규 노조 결성의 큰 물결은 바로 이와 같은 악조건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작년 9월 협진, 유니전의 노조결성 탄압이래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노동운동 탄압 정책은 바로 현 정권의 유화정책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최근 성원제강 노동자들이 보여준 굳센 단결력과 이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은 현정권의 반노동자적 속성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이 결성되는 민주노조를 파괴하여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조민주화 움직임을 저지하며, 노동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민주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시킴으로써 정당한 민주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반노동자적 노동운동 탄압정책에 맞서서, 바로 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장을 초월한 연대투쟁으로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이제 우리는 노동운동의 민족, 민주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고, 사업장과 지역을 초월한 연대의 정신 속에

새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는 800만 노동자의 최선봉에 서서 강철같은 단결로 현 노동운동 탄압 정책을 분쇄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기만적인 민주노조 결성 탄압정책에 굳센 단결로 맞서 싸운다.
1. 교묘한 노조 민주화 운동 탄압 정책에 맞서 싸운다.
1. 민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살인 해고에 대해 연대하여 싸워 나간다.
1. 각 사업장의 임금 인상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한다.
1. 노동악법 개정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세력, 농민, 학생, 지식인들도 연대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현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1985년 4월 10일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결성을 선언한다」(1985. 04. 10, 노동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M00068499)

- 서울대학교에서 인하대학교 · 인천대학 등 36개 학생들이 참여한 ‘경인지구 학생연합’ 결성

「경인지구 학생연합 창립선언문」(1985. 04. 10, 경인지구 학생연합, M00096587)

『자유언론』 제20호(1985. 04. 16, 서울대학교 언론협의회, M00880021)

#### ‘경인지구 학생연합’ 창립 선언문

우리는 대학이 자유 진리 정의의 전당으로 시대정신을 대변하며 그 사회의 나아갈 길을 선도하는 숭고한 책임이 있음을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대학의 진리 탐구과정이 수많은 생산 대중의 기대와 희생에 의존

하여 성립되는 까닭에 그 지향성이 민중 지향적이고, 대학의 일체의 산물은 민중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확신한다. 그러기에 우리 대학인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교육을 가능케 하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수많은 소외된 민중을 업신여기는 반역사적 지식인임을 단호히 부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겸손히 깨닫고 겸허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수행해 가는 역사적 지식인이 되기를 강력히 회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일천한 대학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와 땀이 필요한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고난과 투쟁의 과정이었다. 그것은 체제대학과 민주대학의 투쟁과정이었다고 동시에 반역사적 지배계급과 대다수 민중 간의 투쟁과정이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부터 선택되지 못한 소수의 지배계급,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필연적으로 반민족적 반민주적 폭력적 반민중적 지배를 행함으로써 조국을 도탄에 빠뜨렸고 이러한 체제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논리와 기술 그리고 인력을 확보하고자 문교부 산하에 대학이라는 '기술 및 기능인 양성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순시 내지 상아탑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병어리로 만들었으니 이른바 체제대학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그 고유한 본질로서의 진리탐구 과정 속에서 이 시대와 사회의 확연한 모순을 인식하고, 동시에 사회 속에서의 대학의 위치와 역할을 지각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민중을 향한 진리의 추구하고 그것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민중 민주 시대 건설에의 노력을 획득하게 되는 바, 단호히 체제대학이기를 거부하는 민주대학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여기에서 자유 진리 정의의 의미도 분명해지는 바,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편향적 지배와 권력의 이기적 행사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고 그 속에서 역사의 방향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여 진리를 구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인 민중의 복권을 위해 싸움으로써 정의가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선배 학형 등의 그 피나는 투쟁과정을! 일제하의 민족해방 투쟁과정에서 시작하여 해방 후 민주 통일 조국 건설에의 몸부림, 10년의 이승만 독재를 고발하고 죽음으로써 승리한 4월 혁명, 군사독재와 유신 파쇼 정권의 폭압에 맞서 희생적으로 뿌려진 젊은 피의 홍수, 20년 간 그리고 마침내 벽차게 다가온 80년의 봄. 그러나 한줌의 무리는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짓밟고 폭정의 5공화국은 무자

비하고 간교하게 우리의 목을 죄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 굴복할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다. 역사란 현실적 비현실이 비현실적 현실과 투쟁하여 이를 축출함으로써 현실적 현실로 채워져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 녹색전제의 반역을 물리쳤으니, 자율화의 획득과 총선의 승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봄은 왔으되, 찬란한 구름에 가리우고, 싸늘한 냉기만이 감도는 것은 어인 까닭인가? 따사로운 봄날의 온기와 노란 개나리가 산하를 덮어도,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어지러움은 어인 까닭인가? 그것은 자율화의 허구성이 가져오는 폭력의 소름 끼침이요, 기만의 어지러움이다.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사회의 대부분이 억압과 강제로 가득한 마당에 대학의 공기만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대학인에 대한 모욕으로서의 학원 자율화를. 우리의 형제가 있는 공장과 군대, 들판에 자유로운 공기가 없는데 어찌 대학의 공기만이 향기로울 수 있을까? 필연적으로 그러한 향기는 썩어가는 악취로 변해가는 바 대학인의 현실 안주와 무력감 소심해짐이 그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에 대한 탄압은 야금야금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학원자율화의 허구성에 대항하여 계속 싸워왔고, 작년 2학기 우리가 보여준 학생회 쟁취를 위한 몸부림은 마침내 우리의 학생회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학생회가 우리 손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요 시작일 뿐이다. 고난과 투쟁의 시작이다. 우리는 학생회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학원 자율화의 허구성과 폭정의 탄압을 똑똑히 보아 왔다. 문교부의 감독 속에서 질식하는 학생회의 부활 과정, 아직도 학생회 구성을 못한 많은 대학들. 이런 까닭에 학생회는 학원자율화의 허구성과 대결하는 긴장을 유지하며 그 속에서 대학의 사명인 '민중을 향한 진리의 획득과 실현'을 위해 명실상부한 대표기구로서 그리고 시대정신의 대변자요 우리 사회의 선구자로서 그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체제 대학의 껍데기는 가라! 오직 민주대학의 알맹이만 남아 민중민주의 시대를 노래하라.

이러한 우리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힘은 보다 강해져야 하는 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각 대학 내부의 단합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를 기초로 하여 각 대학들이 서로 단결할 때, 우리 대학의 사명수행은 더욱 용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 경인지구 대학 대표들은 연합의 필요성을 결의하고, 오늘 마침내

‘경인학생연합’의 기치 아래, 36개 대학이 모여 그 장엄하고도 준열한 역사의 오르막길을 한발자국 엄숙히 내딛게 되었다. 이제 ‘경인학련’은 시대적 사명과 민중의 부름 앞에 하나로 단결하여 우뚝 서서 안으로는 진정한 진리탐구와 그 조건의 확보를 위해, 밖으로는 조국의 선구자로서 민중민주시대의 앞당김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학원자율화의 허구성을 철저히 폭로하고 우리의 단결을 방해하는 어떠한 간교한 술책도 물리쳐 나갈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경인학련’은 당면과제로서 진정한 학원자율화의 확보, 이 땅의 주인인 민중의 삶에 대한 관심과 그 향상을 위한 지원투쟁, 민족현실에 대한 충정어린 문제제기, 4·19정신의 진정한 계승, 그리고 전국 백만 학우의 단결을 설정하고 엄숙히 싸워나갈 것이다. 지난 고려대학교 총장사퇴의 강요와 연세대, 서강대의 회칙에 대한 문교부의 부당한 간섭, 외대, 국민대, 숭전대, 인하대, 건국대에서 84년 구성된 총학생회에 대한 불인정, 성대 총학생회 공동의장에 대한 구타, 그리고 서울대의 학생인권탄압에서 보여주는 학원자율화의 허구성을 직시하며, 우리는 문교부의 간섭 배제와 수사기관에 의한 학생인권의 부당한 침해 배제를 위해 싸워나가고, 동시에 우리 대학의 사명수행을 위해 투옥된 양심적 민주학우의 석방을 위해 싸워나가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행정부 관리와의 면담, 국회에 대한 청원을 해나갈 것이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노동악법 개정과 민주노조의 건설, 최저임금제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그 고통의 현실을 인식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불어 싸워나갈 것이다. 청계, 구로, 부평, 인천에서 우리 형제들의 외치는 소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또 우리는 민족 현실을 염려하며 민족 내의 통일과 조국 내부의 화합도 실현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날아가 외세와 야합하려는 대통령의 방미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며 그 의미를 묻고자 한다. 그리고 방미가 귀결할 미행정부의 군사독재 지원 강화와 그에 기반한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 수입자율화의 확대를 통한 예측경제의 심화와 궁극적으로 귀결될 민중의 고통, 분단의 고착화와 핵전쟁의 위협 증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막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오는 4·19 25주년 범학생기념대회를 서울 운동장에서 전학생이 모여 성대히 개최함으로써 4·19정신을 바르게 계승하고 그 속에서 전국 대학의 단결과 대학인의 실천적 반성을 이루고자 한다.

학우여! 그대는 소중하다. 그대는 민중의 기대와 희생 위에 서 있기에 그대만이 조국의 꿈이기에 그대는 소중하다. 학우여! 우리의 소중한 삶을 우리의 척박한 땅에서 민중의 복권과 민주조국 건설을 위해 기꺼이 바치자. 학우여! 이제 과감히 일어나 그대여 진실을 노래하라. 함께 손잡고 이 위선과 기만의 거리를 진실과 정의의 물결로 가득 채워 나가자. 민주민주 시대의 앞당김을 위해 '경인학련'의 깃발 아래 대학인이여 단결하라!

1985. 4. 10.

### 경인지구 학생연합

고려대, 외국어대, 경희대, 건국대, 서울여대, 광운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동덕여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상명여대, 명지대, 경기대, 감신대, 서울대, 중앙대, 숭전대, 숙명여대, 성심여대, 서울교대, 단국대, 경원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한성대, 동국대, 국민대, 성신여대, 아주대, 한신대, 인하대, 인천대

「경인지구 학생연합 창립선언문」(1985. 04. 10, 경인지구 학생연합, M00096587)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이 후원하는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가 부평1동 성당에서 개최됨. 경찰의 원천 봉쇄로 성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부평역, 부평로타리 등에서 '임금 인상투쟁으로 생존권을 확보하자'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전개한 후 효성동사거리에서 기업주 및 노조 탄압의 허수아비 화형식 가짐. 이 날의 시위로 해고근로자 이용선·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최인숙 여성부장 등 6명이 3~15일 구류처분을 받고 조상훈(성원제강 해고노동자)이 경찰의 폭행으로 부평안병원에 입원함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동아일보』 제19546호(1985. 04. 13, 동아일보사)

### 04. 18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답동성당에서 「범인천연합 4·19학생혁명 25주년 기념대회」 개최. 700여 명 참석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04. 19

- 효성물산 노동조합, 회사 측과 임금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3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운동장에 모여 '10만 원짜리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 진행

『'88임금인상투쟁지침서』(1988. 01.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56095)

04. 20

- 인하대학교 학생들, 성심여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역곡역 앞에서 수입개방 철폐와 대통령 방미 반대를 요구하는 연합 시위 전개. 31명 연행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04. 22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4월 16일부터 계속된 농성과 관련해 휴업을 결정

『경향신문』 제12173호(1985. 04. 22, 경향신문사)

04. 23

- 인천지역 대학생 200여 명, 주안역 뒤 공단거리에서 대통령 방미 반대 가두시위 전개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 서울지역 대학생 100여 명, 농성중인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후문 앞 청천사 거리에서 '임금동결 철폐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대우근로자를 지지한다'는 유인물을 뿌리며 30여 분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됨

『동아일보』 제19554호(1985. 04. 23, 동아일보사)

-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송경평, 4월 19일 밤 대우자동차 노동자 300여 명이 철야농성 중인 기술연구실에 들어가 시위를 선동한 일과 관련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됨.

『경향신문』 제12175호(1985. 04. 24, 경향신문사)

04. 24

- 부평1동 성당,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통일문제'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장을병 교수를 초청하여 「부평지구 월례 수요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760호(1985. 04. 14, 천주교 인천교구)

04. 25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조합, 4월 16일부터 농성을 벌여오던 중 회사 측과 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하며 파업 종료

『경향신문』 제12176호(1985. 04. 25, 경향신문사)

1985년

『민중문화』 제8호(1985. 05. 31, 민중문화운동협의회, M00175997)

04. 26

- 인천지역 대학생들, 주안역 앞에서 수입개방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 전개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제3세계의 민족운동'이라는 주제로 김종철 평론가를 초청하여 「월례 청년금요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761호(1985. 04. 21, 천주교 인천교구)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조합, 4월 25일 열린 단체교섭에서 회사 측과 합의하고 4월 16일부터 진행된 파업을 끝낸 후 이날부터 정상 조업 시작  
『조선일보』 제19709호(1985. 04. 26, 조선일보사)

04. 29

- 인하대학교와 성심여자대학교 학생 150여 명, 밤 9시 20분경 역곡역 광장에서 햇불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 당함. 인하대학교 학생 김지규 등 모두 31명이 연행됨  
『동아일보』 제19560호(1985. 04. 30, 동아일보사)
- 인하대학교 주변 일대 주민 300여 명,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잦은 시위로 유리창 등이 파손되고 최루탄 가스에 의해 호흡장애 등이 일어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교부장관과 인하대학교 재단이사장 및 총장 앞으로 제출함  
『경향신문』 제12180호(1985. 04. 30, 경향신문사)

05. 01

- 노동절을 기념하여 부평 '백마장 입구'에서 「노동자생존권 쟁취 집회」가 개최됨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 I), 52쪽(200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05. 04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파업을 주도한 홍영표 · 유선희 · 한비석 · 이용규 · 정상국 등 5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됨. 이들은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음  
『동아일보』 제19564호(1985. 05. 04, 동아일보사)

05. 07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10일까지 「가톨릭 청년 사도학교 제1차 강좌」 개



설. 문익환 목사가 ‘압제로부터 해방에 이르는 역사,’ ‘예언자를 통한 정의의 외침들’을, 박찬용 신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벗-성서,’ ‘현실에 도전하는 성서’를 주제로 각각 강의

『경향잡지』 제1408호(1985. 07. 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5. 14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파업 주동자로 수배 중이던 박재석, 서울 도봉동에서 붙잡혀 구속됨

『동아일보』 제19573호(1985. 05. 15, 동아일보사)

05. 15

- 인하대학교 학생 300여 명, 인하대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대회」를 개최하고 ‘광주진상 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4시간 가량 교내시위를 벌인 뒤 자진 해산

『인하대학신문』 제599호(1985. 06. 03, 인하대학신문사)

05. 17

- 「5월 광주민중항쟁 5주년 추모대회」가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및 인천기독교 청년협의회,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등 4개 단체 연합으로 답동 가톨릭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 추모대회 후 가톨릭회관 앞에서 전개된 시위로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부의장 김정택 · 사회부장 고남석 · 기획부장 조용호 등과 대학생들이 연행됨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5614)

05. 22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답동 성당에서 700~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사태 5주년 기념 추모미사」 개최. 이 자리에서 ‘광주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기금’ 모금

『인천주보』 제764호(1985. 05. 12,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767호(1985. 06. 02, 천주교 인천교구)

06. 01

- 한일스텐레스 노동자들,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조업 중단을 선언하자 ‘회사를 정상가동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 돌입

『민중의 소리』 제6호(1985. 07. 03, M00521630)

06. 03

- 대우전자 앞에서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상명여자대학교 등 대학생 200여 명이 ‘대우자동차의 임금 인상 투쟁 만세’

1985년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임

『경향신문』 제12210호(1985. 06. 04, 경향신문사)

#### 06. 04

- 한일스텐레스 노동자 200여 명, 1984년 10월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수시로 시위를 벌여오던 중, 6월 3일 회사가 조업 중단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폐쇄하자 이에 반발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회사 정상가동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사 본관 앞에서 농성 시작

『경향신문』 제12210호(1985. 06. 04, 경향신문사)

#### 06. 07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전 총무부장 김성진, 1985학년도 1학기 동안 모두 7차례의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됨

『조선일보』 제19878호(1985. 11. 09, 조선일보사)

#### 06. 08

- 한일스텐레스 노동조합의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효성동 소재 한일스텐레스 공장을 찾은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황선진 집행국장과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간부(계훈제 부의장, 정선순 사회국 간사, 사무처장 이창복, 민생위원장 이부영, 사회국장 조춘국, 회원 김원갑) 등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1시간 동안 공장 내 창고 등지에 감금 및 집단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 이에 대해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은 6월 21일, ‘현 정권은 폭력적인 노동정책을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민중의 소리』 제6호(1985. 07. 03,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M00521630)

『인천주보』 제769호(1985. 06. 16, 천주교 인천교구)

「현 정권은 폭력적인 노동정책을 중지하라」(1985. 06. 21,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M00216647)

#### 06. 10

- 동흥전기 노동자 40여 명, 밤 11시 30분경 노동조합 결성대회 개최

「진정서[동흥전기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조치에 대한 진정서]」(1985. 06. 18,

이강혁 · 안재환, M00361315)

- 대림통상 회사 앞에서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200여 명의 회사 측 사람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위원장 등 10여 명이 부상을 당함. 이들은 부당해고를 항의하는 대림통상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내의 관리직 · 기능직 사원들로 구성된 ‘기동타격대’에 의해 집단폭행 · 협박 · 린치 · 감금 등의 행위를 당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대립통상을 방문하였음

『인천주보』 제769호(1985. 06. 16, 천주교 인천교구)

06. 14

- 한일스텐레스 노동조합 손을선 위원장 등 해고 당함

『민중의 소리』 제6호(1985. 07. 03,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M00521630)

06. 17

- 인천지역 8개 사업장 해고노동자 13명, ‘폭력적 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 ‘부평경찰서장 처벌’, ‘해당사업주 처벌’ 등을 요구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 시작. 이후 8일간의 단식을 포함해 15일간 농성을 이어감

『동아일보』 제19601호(1985. 06. 17, 동아일보사)

『민중문화』 제9호(1985. 09. 01, 민중문화운동협의회, M00856279)

06. 18

- 동흥전기 노동자 이강혁·안재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이강혁은 6월 8일, 안재환은 6월 12일, 각각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에 진정서 제출

「진정서[동흥전기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조치에 대한 진정서]」(1985. 06. 18, 이강혁·안재환, M00361315)

06. 21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과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이 후원하는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가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 청년·사회단체 인사 등 200여 명은 동인천역 앞 인영빌딩 주변, 오성극장 앞 등지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 전개

『민중의 소리』 제6호(1985. 07. 03,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M00521630)

06. 24

- 한일스텐레스 노동조합 부위원장 이홍재·이경태, 조합원 박중식(싱크부)·박금순(검수부) 등 해고 당함

『조합원의 소리』 창간호(1985. 07. 01, 한일스텐 평조합원 소식지 편집부, M00346767)

06. 26

- 부평1동 성당, ‘한국언론의 실상과 허상’이라는 주제로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송건호를 초청하여 「부평지구 월례 수요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769호(1985. 06. 16, 천주교 인천교구)

06. 27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명동성당 청년단체 연합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농민회 등 천주교 사회운동 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 40여 명과 함께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노량진 소재 가톨릭노동청년회 본부에서 대우어패럴 노동자 및 이에 동조한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대 농성을 지지하는 단식 농성 진행

『인천주보』 제772호(1985. 07. 07, 천주교 인천교구)

#### 07. 01

- 한일스텐레스 노동조합, 평조합원 소식지 『조합원의 소리』 창간호 발행  
「조합원의 소리 창간호」(1985. 07. 01, M00346767)

#### 07. 08

- 대한마이크로 노동자 71명,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노조탄압 중지,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7월 16일 기본급 60% 인상 등을 약속하고 농성 해제  
「대한마이크로전자(주) 노동조합 탄압사례」(1995. 11. \*,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 탄압과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M00404906)  
『동아일보』 제19620호(1985. 07. 09, 동아일보사)

#### 07. 11

- 범한무전 노동자들, 7월 6일 회사가 부도로 인해 전면 휴업하자 이날 ‘믿을 것은 우리들의 단결뿐!!’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생산직 대표위원 2명을 선발해 수습대책위원회에 파견함. 범한무전 노동자들은 앞서 6월 10일이 지나도 5월 분 월급이 나오지 않자 점심시간에 회사 내에서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농성을 벌였음. 이후 7월 중순경 1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체불 건을 노동부에 고발함. 범한무전은 8월 22일 법정관리로 넘어갔으며 8월 27일, 7월 분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노동자 600여 명이 일괄 사표를 요구 받음. 그중 노동자 6명은 끝까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8월 29일 출근 저지를 당하였고 9월 12일 해고 통보를 받음. 범한무전은 작전동에 위치하며, 카 스테레오 생산 업체임

「범한무전은 살인적인 대량 감원,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1985. \*. \*,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M00361428)

「믿을 것은 우리들의 단결뿐!!」(1985. 07. 11, [범한무전 노동자], M00353515)  
「호소문」(1985. 09. 08, 출근을 저지 당하고 있는 범한무전(주) 6명의 근로자 일동, M00096409)

## 07. 18

- 대검찰청이 전국학생총연합 산하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 투쟁위원회'(삼민투위)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핵심요원 63명을 검거하고 인하대학교 학생 1명을 포함, 모두 56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함

『경향신문』 12248호(1985. 07. 18, 경향신문사)

## 08. 09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이광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광현은 경찰로부터 신변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폭력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총무부장 김성진,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 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 조명수의 증인으로 출두했다가 연행됨

『인하대학신문』 제600호(1985. 09. 09, 인하대학신문사)

## 08. 20

- 경신공업 노동조합 전 위원장 김명중, 회사에서 해고된 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중 사무실 근처에서 형사의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항의하다 연행되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됨

「인천지역 구속노동자 사건경위」(1985. \*. \*,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협의회, M00361494)

## 09. 04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답동 성당에서 오후 7시 30분, 1000여 명의 신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 학원안정법의 완전한 철회를 위하여 2.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학원과 노동현장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 개최. 나길모 주교와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이 미사 집전을 맡고,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이찬우 신부가 주제 강론을 함. 이 날 기도회에서 '학원과 노동현장의 평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채택

『인천주보』 제779호(1985. 09. 01,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780호(1985. 09. 08, 천주교 인천교구)

## 09. 07

-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경인지역 9개 대학 학생 200여 명, 동구 송림동 현대극장 앞과 남구 주안6동 삼미쇼핑센터 앞에서 '학원안정법을 온몸으로 저지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구속노동자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

1985년

치며 시위를 벌이다 30분 만에 경찰에 의해 해산됨. 이 날 시위로 30여 명이 연행됨

『동아일보』 제19673호(1985. 09. 09, 동아일보사)

『조선일보』 제19825호(1985. 09. 08, 조선일보사)

#### 09. 08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김용환 신부 주재로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9월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고 ‘학원과 노동 현장의 평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경향잡지』 1411호(1985. 10. 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09. 10

- 쌍마교통 택시기사 31명,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인천시에 접수하여 9월 25일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음

『함성』 제4호(1985. 10. 10,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871758)

#### 09. 11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비룡담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시위를 전개하다 경찰과 투석전을 벌임

『인하대학신문』 제601호(1985. 09. 23, 인하대학신문사)

#### 09. 12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총무부장 이희정 · 과서클연합회장 성성윤, 각각 신체 검사장과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됨

『인하대학신문』 제601호(1985. 09. 23, 인하대학신문사)

#### 09. 18

- 인하대학교 학원탄압저지 투쟁위원회, 인하대학교 후문과 구정문 등지에서 ‘학원탄압 중지’, ‘구속학우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학원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교문 밖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됨. 이 과정에서 정 · 사복 경찰 200여 명이 인하대학교 교내에 진입하여 학생들을 강제 연행함

『인하대학신문』 제601호(1985. 09. 23, 인하대학신문사)

#### 10. 01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주민선교위원회, 만석동 43번지 17 · 18 · 19통 일대를 대상으로 한 「만석동지역 재개발 실태보고서」 발간

「만석동지역 재개발 실태보고서」(1985. 01. 01,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주민선교위원회,

M00042506)

## 10. 05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서울노동운동연합 ·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안양지역 노동3권 쟁취위원회 등과 함께 「전국 노동자 민중 · 민주 · 민족통일헌법 쟁취위원회」 결성

『인천의 소리』 제3호(1985. 10. 19,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7179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205쪽(2010, 돌베개)

## 10. 08

- 부강교통 노동조합 결성. 부강교통은 가좌동에 소재

『인천부천 운수노보』 속보(1988. 05. 15,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062712)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제3기 민중대학」 개강. 12월 11일까지 매주 화 · 수요일 운영

『인천주보』 제782호(1985. 09. 22, 천주교 인천교구)

## 10. 14

- 10월 19일까지 만석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0여 동의 주택이 강제 철거됨. 철거 도중 이를 저지하던 주민들이 철거반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수가 부상을 입음

『인천의 소리』 제5호(1985. 11. 23,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24)

- 대림자동차 회사 내에 공장의 창원 이전에 대한 회사 측과 노동조합 측의 무성의한 대책을 비판하며 노동조합 측이 10월 15일 식사시간에 그간의 과정을 해명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아아! 형제여, 대림형제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이 살포됨. 대림자동차는 부평에 위치한 오토바이 제조업체로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

「대림자동차 농성투쟁」(1985. 10.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등, M00411850)

- 동보전기 노동조합, ‘9월분 체불임금 청산, 재임사자의 임금 · 퇴직금 지급, 회사 정상화 대책 마련, 임금 인상, 생존권 보장’ 등 5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 돌입

『월간 말』 제4호, 51쪽(1985. 12. 20, 민주언론운동협의회)

## 10. 16

- 대림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 120여 명, 회사 식당 앞 잔디밭에 모여 공장의 창원 이전에 반대하며 농성 돌입

1985년

「대림자동차 농성투쟁」(1985. 10.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등,  
M00411850)

『경향신문』 제12326호(1985. 10. 17,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9706호(1985. 10. 17, 동아일보사)

#### 10. 18

-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교육국, 10월 21일까지 답동 가톨릭회관 304호와 부평1동 신용협동조합 강당 등에서 김지하 원작의 「밥」 초청공연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첫날인 이 날 1회 공연이 끝난 후 사복경찰이 답동 가톨릭회관에 들어와 천주교 인천교구 직원을 비롯한 6명을 연행하면서 이후 공연이 무산됨

『인천주보』 제786호(1985. 10. 20,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787호(1985. 10. 27, 천주교 인천교구)

#### 10. 21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기독교 문화선교기간을 맞이해 부평 목원교회에서 허병섭 목사(민중교육연구소장)를 초청해 ‘기독교문화와 민중문화’라는 주제로 강연회 개최

『인천의 소리』 제4호(1985. 11. 02,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25)

#### 10. 25

- 성진운수 노동조합 결성

「금강운수 노동조합 파업농성!!」(1987. 07. \*, 금강운수 노동조합, M00088131)

#### 10. 26

- 해고노동자 한덕희·박운배·김홍섭 등 3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됨

『동아일보』 제19714호(1985. 10. 26, 동아일보사)

#### 10. 29

- 서울지검이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발표. 서울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그중 박문식은 ‘인천지역 노동운동탄압저지 투쟁위원회’를 조직해 노사분규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경향신문』 제12336호(1985. 10. 29, 경향신문사)

#### 11. 01

- 인하대학교·인천대학교·성심여자대학교 등 학생 500여 명, 인하대학교에서 「민중생존권 쟁취 연합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군



부독제 화형식」을 가짐. 이 과정에서 학교 안으로 진입한 경찰에 의해 다수의 학생들이 강제연행 당함. 이날 ‘부천·인천지역 군부타도 및 민중생존권쟁취연합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인하대학교 학생 조명호가 선출됨

『인하대학신문』 제604호(1985. 11. 04, 인하대학신문사)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 I), 52쪽(200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11. 03

-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협의회 결성.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노동자·학생의 가족 21명이 모여 구성됨.

『인천의 소리』 제5호(1985. 11. 23,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24)

「인천지역 구속노동자 사건경위」(1985. \*. \*,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협의회,

M00361494)

### 11. 08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만석동 재개발정책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당초 송월동 소재 동인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동부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대가 교회를 봉쇄하여 출입이 통제되자 대담자로 초청된 정일우 신부 등을 포함, 참석자들이 연좌농성을 벌인 후 일꾼교회로 이동해 진행함

『인천의 소리』 제5호(1985. 11. 23,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24)

『인천주보』 제788호(1985. 11. 03,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790호(1985. 11. 17, 천주교 인천교구)

### 11. 14

-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협의회, 소식지 창간

「인천지역 구속노동자 사건경위」(1985. \*. \*,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협의회,

M00361494)

### 11. 15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십정동 성당에서 「전태일 15주기 추모미사 및 강연회」 개최. 홍창만 신부·이덕상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1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사가 봉헌되고 조화순 목사의 강연이 이어짐

『인천의 소리』 제5호(1985. 11. 23,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24)

『인천주보』 제791호(1985. 11. 24, 천주교 인천교구)

### 11. 19

- 부평1동 천주교회 내에 있던 전 부평신용협동조합 건물을 복구청이 가건물 사용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단 철거. 이에 대해 부평1동 천주교회(주

1985년

임신부 호인수)는 북구청에 공개해명 요구서 제출

『인천의 소리』 제6호(1985. 12. 1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69355)

**11. 20**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400여 명, 교내 본관 앞 계단에서 국·사립대 간 차별대우와 교원대학 폐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 벌임

『동아일보』 제19736호(1985. 11. 21, 동아일보사)

**11. 21**

- ‘인하대학교 민중·민주화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비룡담 앞에서 「총학생회 규탄대회 및 민중생존권 쟁취대회」를 개최하고 총학생회 사무실을 점거하여 총학생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교내에 진입한 경찰에 의해 연행됨

『인하대학신문』 제607호(1985. 11. 25, 인하대학신문사)

**11. 23**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11월 8일 만석동 재개발지역주민들과 함께 개최하려던 「만석동 재개발정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기관원들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 데 대하여 ‘인천지역의 철거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인천지역 철거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1985. 11. 23,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339948)

**12. 01**

- 여성평우회, 천주교 인천교구 여성연합회 후원으로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여성문화 큰잔치」 개최. ‘여성노동과 그 창조적 극복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영상강연 등 진행

『인천의 소리』 제6호(1985. 12. 1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69355)

『인천주보』 제791호(1985. 11. 24, 천주교 인천교구)

**12. 02**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구월동 창신교회에서 창립예배를 개최하고 창립 선언문 발표

『인천의 소리』 제6호(1985. 12. 1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69355)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창립선언문

연 성장 10%의 화려한 경제성장의 밑바닥에서, 선진조국 창조의 허울 좋은 구호 아래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노예적인 삶속에 고통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와 직업병,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 특히 제5공화국 출범 이후의 계속적인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생활고, 기업주와 결탁한 권력들의 조직적인 폭력, 해고, 노동운동가의 구속, 대량감원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간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이 자본과 권력의 결탁으로 나타난 구조적인 억압임을 알고 있다.

노동법 개악과 민주노조 파괴로 그 첫걸음을 내디딘 현 정권은 과중한 외채도입과 수입개방정책으로 외국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경제 파탄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대우자동차 임금 인상투쟁, 구로지역 민주노조의 임금 인상투쟁과 그 성과에 대한 악랄한 탄압, 파괴, 구속사태는 권력의 본질을 8백만 노동자 앞에 날날이 폭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탄압에 좌절하지 않고 과감히 맞서 싸운 인천지역 노동삼권쟁취 가두투쟁, 구로지역 6월 동맹파업에서 보여주었듯이 보다 굳건한 조직과 투쟁력으로 전체 민중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이 싸움을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해 나갈 것이다.

인천지역 노동자들은 광주항쟁 이후 지역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투쟁조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경험하였다.

최근 인천지역 노동운동 중 대림통상, 경동산업, 한영알미늄, 대림자동차, 범한무전 등 선진 단위 사업장의 투쟁을 지역에 강한 연대와 조직을 통해 발전시켜야 함을 인식한다.

이에 우리는 인천지역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지역의 노동문제 해결을 과제로 설정하고 노동운동의 진행을 통해, 전체운동에 기여하는 부문운동임을 확인한다.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은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따라 인천지역 노동운동 발전을 통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진정한 민주노동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조직이다.

우리는 노동자 예수의 삶의 모습이 곧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노동사회

건설의 표상임을 확인하고 기독교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미래사회를 향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와 우리 노동선배의 고결한 삶을 본받고, 기독교 노동자로서 민족의 앞길을 확연하게 밝히는 노동의 햇불로 승화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일각까지 굳건한 동지애와 믿음 속에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노동자 만세! 노동운동 만세!! 인천지역기독교노동자연맹 만세!!!

1987. 11.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창립선언문」(1985. 11.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M00858625)

## 12. 04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주일을 맞아 답동 성당에서 「인권수호를 위한 미사 및 특별강연」 개최. 김대중을 강사로 초청하였으나 연금 조치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고 전국 J.O.C 담당 황상근 신부가 강론을 맡음  
『인천주보』 제792호(1985. 12. 01,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793호(1985. 12. 08,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의 소리』 제6호(1985. 12. 1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869355)

## 12. 08

- 송림사랑방교회, 창립예배 개최  
「송림사랑방교회를 성원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1986. 08. 28, 송림사랑방교회 박종렬 목사)  
「창립5주년 기념 및 입당예배」(1990. 12. 09, M00042451)

## 12. 09

- 시·브라더즈 노동자들, '공장의 정상가동과 부당징계자의 원직복귀'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3일간 농성 전개  
「노동문제 책임지고 독재정권 물러가라!」(1985. 12. 23,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인천교구 가톨릭 노동청년회·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M00111618)

## 12. 13

- 동보전기 노동조합 조합원 14명, 오전 8시부터 ‘체불 임금 청산, 회사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 관리본부 상무이사실을 점거하며 농성 돌입. 오후 4시경 경찰에 모두 연행되었으며 농성 과정 중 조합원 조광철이 부상을 당함



「실업·체불을 깨부수는 동보노동자의 결사투쟁」(1985. 12. \*, M00096367)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 I), 78쪽(200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동아일보』 제19755호(1985. 12. 13, 동아일보사)

## 12. 16

- 동보전기 노동조합 위원장 이형범·총무부장 정동근,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 관리본부 점거농성사건과 관련해 집시법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됨

『경향신문』 제12377호(1985. 12. 16,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제19910호(1985. 12. 17, 조선일보사)

## 12. 22

- 시·브라더즈 노동자 28명, 전국섬유노조연맹 사무실을 점거하며 농성 돌입

「노동문제 책임지고 독재정권 물러가라!」(1985. 12. 23,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인천교구 가톨릭 노동청년회·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M00111618)

## 12. 23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교구 가톨릭 노동청년회,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등이 공동 명의로 ‘노동문제

1985년

책임지고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브라더즈 노동자들이 12월 22일 한국섬유노조연맹 사무실을 점거 농성한 사건과 동보전기 노동자들이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 관리본부 사무실을 점거한 사건에 대해 논평을 함

「노동문제 책임지고 독재정권 물러가라!」(1985. 12. 23,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등 7개 단체, M00111618)

# 1986년

## 01. \*

- 인천지역 민중교회 목회자 모임 출범. 소성교회, 사랑방교회, 한뜻교회, 해인교회, 예림교회, 새롬교회, 새봄교회, 백마교회, 일꾼교회, 하나교회 등이 참여함. 이 때 모임에서 ‘① 교단보다 지역 우위, ② 비공개, ③ 시간 엄수’ 등의 원칙이 합의됨. 인천지역 민중교회는 1985년부터 198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척됐으며 이 무렵 개척된 교회는 예림교회(1985), 한뜻교회(1985), 해인교회(1986), 사랑방교회(1986), 새롬교회 등이 있었음. 이에 앞서 1982년 새봄교회, 1984년 샘터교회 등이 개척됨

「인천지역 민중교회운동협의회 약사」(1980. \*: \*, 인천지역 민중교회운동협의회, M00447256)

## 01. 16

-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위원장 곽순복·법규부장 박순이, 1985년 7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을 점거해 시위를 전개한 일로 회사에서 해직됨. 이후 5월 17일, 곽순복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박순이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음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 I), 95쪽(200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01. 17

- 한신여객 버스기사들, ‘체불임금 즉각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운수노동신문』 제2호(1986. 02. 05, 박종만 추모사업회, M00858534)

## 02. 01

- 대학생 40여 명이 부평공단에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부평경찰서 공단파출소에 화염병 1개와 돌을 던지는 등 시위를 벌이다 23명이 경찰에 연행됨

『동아일보』 제19795호(1986. 02. 01, 동아일보사)

## 02. 26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및 부설 일꾼자료실·광야서점·새벽서점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 수색을 벌여 서류, 간행물, 자료집 등을 압수하고 관계자 5명을 연행함

1986년

『인천의 소리』 제9호(1986. 03. 17,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89416)

- 명성전자 노동자 정순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취업한 대학출신 노동자라는 이유로 청천동에서 경찰에 연행

『인천주보』 제808호(1986. 03. 16, 천주교 인천교구)

## 02. 27

- 이성전자 노동자 700여 명, 주안5공단 앞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가두 시위 전개. 경찰에 의해 회사 안으로 밀려들어간 후 회사 식당에 모여 농성을 이어간 결과 회사 측으로부터 3만 원의 임금 인상을 구두로 약속받고 퇴근시 상여금을 지급받음

『민중문화』 제11호(1986. 04. 12, 민중문화운동협의회, M00858298)

## 03. 01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이호웅 의장, 『인천의 소리』가 언론 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기도 경찰국 대공분실로 연행 당함. 이후 3월 6일 즉심 재판에 넘겨져 구류 10일을 선고 받음

『인천의 소리』 제9호(1986. 03. 17,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89416)

## 03. 03

- 송림사랑방교회, 송림 탁아의 집 개원. 같은 해 6월 '탁아소'라는 명칭이 북한의 집단 어린이 수용소 같은 어감을 준다는 제안에 따라 '송림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꿈

『솔밭 아이들』 창간호(1987. 12. \*, 송림사랑방교회 송림어린이집, M00078462)

「송림사랑방교회를 성원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1986. 08. 28, 송림사랑방교회 박종렬 목사)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2월 26일에 있었던 경찰의 압수 수색에 항의하여 일꾼교회에서 3월 9일까지 「노동운동탄압과 선교탄압 저지 연속 기도회」를 개최하고 가두방송을 하며 항의농성 전개

『인천의 소리』 제9호(1986. 03. 17,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89416)

## 03. 05

- 천주교 인천교구, 교구 신부 32명의 서명을 시작으로 개헌서명운동 돌입. 이후 용현 성당(4월 27일), 답동 성당, 역곡 성당, 고잔 성당, 주안5동 성당, 십정동 성당, 소사1동 성당(이상 4월 27일), 주안1동 성당, 부평3동 성당, 주원 성당, 원미동 성당, 소래 성당, 일신동 성당(이상 5월 4일) 등 20여 개 성당에서 개헌서명운동 전개

『인천주보』 제823호(1986. 06. 29, 천주교 인천교구)



03. 07

- 일꾼교회 간사 송규의, 공장 등을 돌며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음

『경향신문』 제12444호(1986. 03. 07, 경향신문사)

03. 09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화수동파출소 앞에서 300여 명이 모여 ‘군사독재 퇴진’, ‘노동운동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함. 이 날 반월 원곡감리교회 서기원 전도사 등 6명이 경찰에 연행 당함

『인천의 소리』 제9호(1986. 03. 17,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89416)

03. 10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JOC), 부천 소사 성당에서 회원 및 노동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절 41주년 기념식」 개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사복 경찰 300여 명이 행사장 주변을 경계함

『인천주보』 제807호(1986. 03. 09,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09호(1986. 03. 23,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지역 노동자연맹 회원 200여 명, 강화군 전등사에서 ‘임금 인상,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 당함

『동아일보』 제19827호(1986. 03. 11, 동아일보사)

03. 25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인천지역 양심수가족협의회장 신복수를 통해 현재 구속 중인 노동자, 학생 등 양심수와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해 기금 100만 원 전달

## 〈『인천주보』 제811호에 실린 인천지역 구속자 현황〉

## 1. 노동자

| 이름  | 소속     | 이름    | 소속      |
|-----|--------|-------|---------|
| 송경평 | 대우자동차  | 김기태   | 대림자동차   |
| 홍영표 | 대우자동차  | 우재일   | 대림자동차   |
| 박재석 | 대우자동차  | 이형범   | 동보전기    |
| 한덕희 | 인천지역노투 | 정동근   | 동보전기    |
| 곽순복 | 대한마이크로 | 박경순   | 후지카     |
| 조현숙 | 대한마이크로 | 이수영   | 건화상사    |
| 이희례 | 대한마이크로 | 김영옥   | 부천지역노동자 |
| 박순이 | 대한마이크로 | 김성미   | 코스모스전자  |
| 김태용 | 대림자동차  | 신은영   | 명성전자    |
| 장영덕 | 대림자동차  | 정연탁   | 아풍산업    |
| 신충원 | 부평지역   | 이창섭   | 동양피스톤   |
| 김효숙 | 부평지역   | 김영기   | 부평지역    |
| 김해광 | 부평지역   | 정은옥   | 부평지역    |
| 김진한 | 동서가구   | 외 11명 |         |

## 2. 학생

| 이름  | 소속  | 이름  | 소속  |
|-----|-----|-----|-----|
| 이희정 | 인하대 | 안성규 | 한양대 |
| 이종인 | 인하대 | 이상훈 | 연세대 |
| 성성윤 | 인하대 | 김경준 | 서울대 |
| 김영훈 | 인하대 | 박성준 | 서울대 |
| 김성진 | 인하대 | 민영수 | 인하대 |
| 강구원 | 인하대 | 이명수 | 인하대 |

『인천주보』 제811호(1986. 04. 06, 천주교 인천교구)

## 04. \*

- 송림동사랑방 진료소 개설. 홍학기, 김인수, 이원준 등 청계피복 노조 진료에 참여했던 경희대 출신 의료진과 성모자애병원 간호사 등이 결합해 양·한방, 치과 치료를 겸함

송정로, 『인천시민사회운동 20년사』

## 04. 17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안1동 성당에서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함세웅 신부를 초청하여 「필리핀의 민주화와 가톨릭교회」라는 주제로 「4·19 28주년 기념 강연회」 개최. 강연이 끝난 후 이찬우 신부의 주도로 개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56명이 서명함

『인천주보』 제812호(1986. 04. 13,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14호(1986. 04. 27, 천주교 인천교구)

#### 04. 20

- 용현동 성당, 주일미사 후 개헌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19명의 신자가 서명

『인천주보』 제814호(1986. 04. 27, 천주교 인천교구)

#### 04. 23

- 인하대학교 교수 20명, 「현 시국과 관련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학문과 학원의 자유 보장, 학생들의 현실참여에 대한 당국의 물리적인 과잉저지 자제, 개헌서명운동 존중, 언론의 활성화' 등을 당국에 촉구

〈서명 교수〉

|          |          |          |          |
|----------|----------|----------|----------|
| 김경인 (미술) | 김대환 (경제) | 김우진 (불문) | 김영준 (수학) |
| 김진우 (무역) | 백현옥 (미술) | 서동전 (무역) | 성완경 (미술) |
| 신황호 (상교) | 오두환 (경제) | 유관호 (미술) | 윤정혜 (가정) |
| 윤진호 (경제) | 이충희 (사학) | 이환범 (미술) | 임명방 (사학) |
| 정요일 (국어) | 정재훈 (경영) | 최원식 (국어) | 홍영복 (상교) |

「현 시국과 관련한 우리의 견해」(1986. 04. 23, 인하대학교 일차 서명 교수 일동, M00094090)

『민중신문』 제539호(1986. 05. 02, 민중신문사, M00415815)

『경향신문』 제2483호(1986. 04. 23,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19863호(1986. 04. 23, 동아일보사)

#### 04. 25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박현채를 초청하여 「한국 노동현실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월레 청년 금요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813호(1986. 04. 20, 천주교 인천교구)

#### 04. 27

- 해인교회, 창립 예배를 개최하며 북구 삼산동 74-4에 설립. 해인교회는 '인간해방', '인천해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재정을 마련해 설립한 교회임. 노동법 교육, 풍물 배우기 등의 문화 활동 등을 진행하며

1986년

노동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음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 이진호, 「성장하는 민중교회의 모델 해인교회」(2003, 『새가정』 2003년 10월호, 새가정사)

• 주안5동 성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개헌서명운동 전개

『인천주보』 제815호(1986. 05. 04, 천주교 인천교구)

#### 04. 28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답동 가톨릭회관 512호에서 5월 4일까지 필리핀 라디오 베리파스가 제공한 「필리핀 민주화 사진 전시회」 개최. 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 ‘민주헌법을 위한 개헌서명대’를 설치하여 관람객 250여 명의 서명을 받음

『인천주보』 제814호(1986. 04. 27,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16호(1986. 05. 11, 천주교 인천교구)

#### 05. \*

• 송현산마루교회 설립

「이충현 제공」

#### 05. 03

• 인천 5·3항쟁 발생. 인천 시민회관 앞 신한민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 및 경기지부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동자 학생 시민들 5만 여명이 가두시위를 전개함.

- 오전 10시 30분경 시민회관 주변에 인파가 몰림.

- 오후 2시 08분경, 시민회관 앞 사거리에서 150m 가량 떨어진 민정당 경기 제1지구당 심정구 사무실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30분 만에 진화됨.

- 오후 3시 40분경, 시위대가 주안역으로 향하는 도로 전봇대에 대형플래카드를 설치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함

- 시위대가 주안사거리 길가에 주차된 레코드 승용차를 경찰을 향해 20여m 가량 끌고가다 차 안으로 화염병을 던져 전소시킴

- 오후 4시 42분경, 시위대가 주안역 부근에서 최루탄이 실려 있던 경찰 복서트럭을 탈취하여 시민회관 앞 사거리 방향으로 300여m를 밀고가다 경찰에 의해 저지됨

- 오후 5시 30분경, 시위대 중 300여 명은 제물포쪽으로 이동해 1시간 30여분 동안 기습 시위를 벌임. 이 과정에서 제물포역 광장에 세워둔 동부경찰

서 소속 기동순찰차 한 대에 불을 질러 반소시킴. 시위대가 경찰에 밀려 전철역 구내로 들어가면서 전철운행이 20여 분 동안 중단됨

- 오후 5시 45분경, 경찰이 본격적으로 진압 시작.
- 경찰에 밀려 시민회관에서 흩어진 시위대는 밤 8시 이후 남구 도화동, 중구 경동사거리, 부천역, 동인천역 등지에서 산발적인 시위 전개
- 경찰, 5·3인천항쟁과 관련해 319명을 연행하여 인천경찰서, 동부경찰서, 부평경찰서 등에 분산해 조사 진행. 경기도경국장은 이 날의 시위에 대해 “민민련, 민통련, 인사련, 자민투 등 과격단체 회원 및 학생 등 4000여 명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밝힘

『조선일보』 20025호(1986. 05. 04, 조선일보사)

『경향신문』 제12492호(1986. 05. 03,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제12493호(1986. 05. 05, 경향신문사)

### 인천 5·3항쟁

1986년 상반기 신민당의 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넓혀나가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신민당에 대해 일정한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4월 30일 전두환-이민우 회담을 마련했다. 당시 양자 간의 협상이 비록 결렬되기는 했지만, 전두환은 개헌 논의 허용을 발표하고 이에 이민우는 과격 좌익 학생운동과의 결별 의사로 응대했다. 이에 반해 학생운동세력·노동운동 세력·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과 재야 단체 등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진영은 단기적으로나마 신민당의 타협성과 보수성을 비판하며 일정하게 정치적 분리선을 그으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의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1986년 5월 3일 신민당은 개헌 현판식을 개최키 위해 인천 시민회관에서 인천시지부까지 행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회단체와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타협적 보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 건설’과 ‘삼민(민족·민주·민중)헌법 쟁취’ 등을 주장하며 급진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73개 중대 1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섰고, 이에 대항하여 시위는 고조되었다. 결국 신민당 현판식은 무산되었다. 이날 대회장에 뿌려진 유인물은 총 50여

종으로, 재야 단체 10여 종, 인천지역 노동자단체 10여 종, 학생운동단체 15종으로 집계되었다. 유인물의 내용은 신민당의 정권과의 야합성을 비판하는 보수대연합규탄, 반미·반파쇼가 주종을 이루었다. 특히 신민당을 기회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개헌투쟁의 주체에서 신민당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천 5·3항쟁을 기점으로 정부는 공안기관을 총동원하여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에 대한 총체적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공안 당국은 인천 5·3항쟁을 좌경 용공 세력의 반정부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사회운동 진영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 및 검거에 돌입했다. 5월 5일 인천 5·3항쟁 배후 주동 혐의로 장기표(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전 사무차장) 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산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한국노협 인천지역협의회 등 4개 단체의 간부 10명이 수배를 당하였다. 인천 5·3항쟁과 관련하여 총 319명이 연행되어 129명이 구속되었으며, 37명이 수배를 당하였다.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458쪽(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tic Foundation

仁川  
가보자! 들어보자!  
민주의 합성을!

116402

헌법개정추진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

5월의  
민주봉화  
仁川에서 드높이자!

일시: 5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인천시민회관 (주안역전)

이민우총재, 김대중·김영삼선생  
인천에 오시다

1 천만명  
개헌서명  
독재헌법  
철폐된다.

| 支 部 長             | 盧 承 煥 부총재 |
|-------------------|-----------|
| 仁川第1地區(中·南區)      | 明華燮 의원    |
| 仁川第2地區(東·北區)      | 柳濟然 의원    |
| 京畿第1地區(水原·華城)     | 朴旺植 의원    |
| 京畿第2地區(城南·廣州)     | 李允洵 위원장   |
| 京畿第3地區(議政府·東豆川)   | 金炯宅 의원    |
| 京畿第4地區(安養·光明·始興)  | 李安東 의원    |
| 京畿第5地區(富川·金浦)     | 趙炳鳳 의원    |
| 京畿第6地區(南楊州·楊平)    | 趙鍾益 의원    |
| 京畿第7地區(麗州·利川·龍仁)  | 鄭鎮桓 위원장   |
| 京畿第8地區(松炭·平澤·安城)  | 鄭英在 의원    |
| 京畿第9地區(坡州·高陽)     | 鄭在寅 위원장   |
| 京畿第10地區(漣川·抱川·加平) |           |

신한민주당

〈1986년 5월 3일 인천시민회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신한민주당 헌법개정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 포스터〉

「헌법개정추진 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1986. 05. 03, 신한민주당, M00073982)

05. 05

- 5·3인천항쟁과 관련하여 연행된 319명 중, 129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22명은 즉시에 넘겨짐. 재야단체 인사 10명을 포함 모두 37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내림

『조선일보』 제20026호(1986. 05. 06, 조선일보사)

05. 15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평1동 성당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의거 6주기 추모미사 및 민주화대행진」 개최. 이날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이 5·18광주민주화운동 6주기를 맞이하여 「민주화는 민족의 비극을 치유하는 오직 한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 발표. 참석자들은 행사 후 십자가를 앞세우고 부평2동 성당까지 침묵 행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평1동 성당 앞에서 정문을 봉쇄한 경찰에 의해 무산됨. 행사 하루 전인 5월 14일, 부평경찰서장이 직접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찬우 신부를 찾아와 시가행진에 대한 '경고장'을 제시한 바 있음. 이찬우 신부는 이에 대해 경기경찰국장과 부평경찰서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

「'광주의거 6주기 추모미사 및 민주화대행진' 팜플렛」(1986. 05. 15,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인천주보』 제815호(1986. 05. 04,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18호(1986. 05. 25, 천주교 인천교구)

『경향신문』 제12503호(1986. 05. 16, 경향신문사)

이찬우 신부의 항의서한 내용

평화적인 침묵의 도보행진이 경찰에 의해 성당 문 앞에서 완전 제지당한 사실에 엄중 항의하며, 경고장에 대하여도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 앞으로 부당한 방해가 없도록 요망한다 ... 미사에 참여하러 오는 신자들을 검문검색하는 부당행위와 순수한 종교행사를 왜곡, 과잉보호조치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였고, 동원된 경찰병력의 숫자와 복장은 마치 폭도들을 제압하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신자 및 시민들에게 주었던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 경찰서장이 보내온 경고장은 상식을 넘



어선 처사이며, 본 행사의 의도 및 방법을 충분히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나름대로 해석하여 취한 공권력을 빙자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종교행사를 방해한 책임을 통감하고, 경고장에 대하여도 경찰관계자는 사과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천주보』 제818호(1986. 05. 25, 천주교 인천교구)

#### 05. 17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한국기독교노동자 총연맹 · 전남기독교노동자 총연맹과 함께 「기독교 노동자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안사에 의해 비밀리에 저질러지고 있는 노동자, 학생, 민주인사에 대한 강제납치, 잔인한 고문과 폭력’에 대해 규탄. 이 성명서에서 인천지역과 관련해서는 같은 해 4월 인천보안사 군인들이 백마교회와 부천 하나교회 노동자들을 ‘강제납치하여 무지막지한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함

「기독교 노동자 시국 선언문」(1986. 05. 17, 한국기독교노동자 총연맹 · 전남기독교노동자 총연맹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M00096095)

#### 05. 30

- 인천지역 노동자연맹 · 서울지역 노동자연맹 소속 노동자 16명, 서울 영등포동 한미은행을 점거하고 ‘노동자의 피땀을 짜는 미국 몰아내자’라고 적인 플래카드를 건물 밖에 내건 채 ‘1천만 노동자 5월 투쟁 선언’ 등의 유인물을 뿌리며 농성을 벌이다 모두 경찰에 연행됨.

『경향신문』 제12515호(1986. 05. 30, 경향신문사)

#### 06. \*

- 송림사랑방교회, 노동야학 개설

「창립5주년 기념 및 입당예배」(1990. 12. 09, M00042451)

#### 06. 05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동인교회에서 문동환 교수를 초청하여 ‘평화와 인권’이란 주제로 「6월 목요강연회」 개최

『인천인권소식』 제2호(1986. 07. 0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M00107588)

#### 06. 07

- 5·3인천항쟁 관련 구속자 37명, 인천교도소 수감 중 ‘소요죄 철회’, ‘구속

자 전원 석방' 등을 요구하며 7일 간에 걸친 단식에 돌입. 이들 중 3명이  
실신하여 병사로 이감됨

『인천주보』 제822호(1986. 06. 22, 천주교 인천교구)

06. 11

- 5·3인천항쟁 관련 구속자 가족들, 구속자들이 인천교도소 수감 중 7일 간  
에 걸친 단식에 돌입하자 신민당 중앙당사에서 무기한 농성 시작

『인천주보』 제822호(1986. 06. 22, 천주교 인천교구)

06. 19

- 항동 소재 '연안가스'에 근무하던 신호수, 6월 11일 형사들과 함께 나간 후  
전라남도 여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인천인권소식』 제3호(1986. 08.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M00107589)

‘신호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요지’

1. 조사결과 이 사건은 서울 서부경찰서가 포상휴가를 목적으로 북한  
불온선전물을 보관해 온 피해자 신호수를 무리하게 공작수사로 확  
대하여 약 9월간 내사를 진행하면서 긴급체포 사유도 없는데도 불  
구하고 영장 없이 체포, 연행해서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하는 과정  
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2. 서부경찰서는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았음에도 신호수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서부경찰서에서 3일가량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행하였다. 또한 신호수를 정식절차에 의해 조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 각종 수사  
서류를 변조하여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3. 여수경찰서는 신호수의 변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신호수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 충분했음에도 불구  
하고 전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불철저한 감식과 주변 탐문수사를  
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  
하는데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
4. 결국 서부경찰서 수사관 차○○ 등이 장흥공작을 통해 신호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신호수가 사망

에 이르자 이를 자살로 위장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insil.go.k/>)

#### 06. 2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간사,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였으나 교도소 측에 의해 면회가 거절당함

『인천인권소식』 제3호(1986. 08.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M00107589)

#### 06. 29

- 송림사랑방교회, 「사랑방 배움터 열림날」 개원식 개최.

「송림사랑방교회를 성원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1986. 08. 28, 송림사랑방교회 박종렬 목사)

#### 06. 3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사건 개요를 알리고 변호사 선임 의뢰

『인천인권소식』 제3호(1986. 08.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M00107589)

#### 07. 02

- 인천지역 양심수 가족 30여 명, 부천경찰서에서 ‘부천경찰서 소속 문귀동 형사가 조사 중인 대학생 출신 해고노동자 권모 양에게 성적 고문과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진상 공개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임

『인천주보』 제824호(1986. 07. 06, 천주교 인천교구)

#### 07. 03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임원들, 부천경찰서를 방문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및 7월 2일 부천경찰서 앞 시위 때 위원회 간사가 연행된 데 대해 항의함

『인천인권소식』 제3호(1986. 08.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M00107589)

#### 07. 04

1986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동인교회에서 「법과 인권」이란 주제로 인권예배를 진행하고 '부친경찰서 성고문 사건' 보고 및 규탄 『인천인권소식』 제3호(1986. 08.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M00107589)

07. 07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와 개신교 6개 청년·학생·사회운동 단체들이 공동주최하고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기독교 인권위원회가 공동 후원하여 답동 가톨릭 회관 5층 강당에서 「부친경찰서 여대성 성고문 추행 사건 규탄대회」 개최. 대회 시작 전 경찰이 답동 가톨릭회관 출입구를 봉쇄하여 30여 명만이 입장한 가운데 진행됨. 이날 대회에서 사건 관계자의 처벌과 이를 보호 육성하는 군사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 『인천주보』 제825호(1986. 07. 13, 천주교 인천교구)

07. 07

- 가톨릭회관에서 '고문 폭력정권 타도를 위한 인천지역 민주투쟁대회' 개최 「항의서-7월30일 "성고문·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미사"에 대한 폭력적 탄압에 대하여」(1986. 07. 31, M00301198)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NCC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인천교구연합회,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인천지역기독교노동자연맹, 인천지역사회 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8개 단체가 '부친서 성고문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 독재의 성적고문, 폭행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공동 성명서 발표 「성명서-군사독재의 성적고문, 폭행을 규탄한다」(1986. 07. 07, M00101274)

07. 28

- 고려대학교 학생 박은미·김영진·장근영 등 3명, 인천지방검찰청 현판에서 부친경찰서 성폭행사건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구속됨 『경향신문』 제12566호(1986. 07. 29,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제12567호(1986. 07. 30, 경향신문사)

07. 30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가톨릭노동청년회·가톨릭대학생연합회, 부친 심곡1동 천주교회에서 「성고문 추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미사」 공동 주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인수 신부 등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 8명이 공동 집전. 이날 행사와 관련하여 김종일(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장),

곽한왕(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장), 안영근(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집행국장)이 사전에 경찰에 의해 연금을 당하였고 행사 전날부터 전투경찰이 배치되어 행사장을 봉쇄함. 성당에 들어가지 못한 참가자들이 노상 기도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무력 해산으로 성사되지 못한 채 31명이 연행당함. 연행자들은 밤 12시경 전원 석방됨

「성고문·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미사」(1986. 07. 30, M00876926)

『인천주보』 제827호(1986. 07. 27,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28호(1986. 08. 03, 천주교 인천교구)

「항의서-7월30일」성고문·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미사"에 대한 폭력적 탄압에 대하여」(1986. 07. 31, M00301198)

## 08. \*

-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인천지역 교회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여름 수련회를 개최함. 이를 토대로 인천지역 민중교회 실무자 모임이 자발적으로 형성됨. 이후 민중교회 연대 모임은 목회자 모임과 실무자 모임 두 개의 축이 별개로 활동하면서 인천기독교 연대모임에서 만남의 기회를 가짐

「인천지역 민중교회운동협의회 약사」(1980. \*. \*, 인천지역 민중교회운동협의회, M00447256)

- 소성교회 설립

「이충현 제공」

## 08. 13

- 인천중앙감리교회에서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감리교 전국 청년연합회 여름선교대회」 개최. 대회 마지막 날 새벽에 청년들이 새벽구보를 하며 '부천경찰서 성고문 강간사건'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자 경찰이 이들 18명을 연행함

『인천인권소식』 제3호(1986. 08.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M00107589)

## 08. 17

-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해방과 노동자'라는 주제로 「제1회 8·15기념 인천지역 노동자 웅변대회」 개최

「제1회 8·15기념 인천지역 노동자 웅변대회」(1986. 08. 17,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M00361683)

- 600여 명의 학생·노동자들이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부평역 앞에서 '헌법특위 분쇄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전개. 일부 시위대는 미 헌병대 정문에 화염병을 던져 초소 유리

1986년

창을 깨고 부평역 앞 광장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를 벌임. 이날 시위로 41명이 연행되어 고려대학교 학생 1명이 구속됨

「8·17 부평역 앞 시위사건 경위」(1986. 08. 20, 인천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조사단 일동, M00093403)

#### 08. 24

-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협의회, 답동 성당 마당에서 「인천지역 양심수를 위한 한마당 잔치」 주최.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인천기독교 인권선교위원회가 공동 후원함. 인천지역 양심수 현황·인천교도소 내 투쟁 현황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필리핀 민주화’와 ‘광주민중항쟁’ 사진전 등을 진행함

『인천주보』 제830호(1986. 08. 17, 천주교 인천교구)

『구속 노동자 소식』 제19호(1986. 09. 06, 구속노동자 가족협의회, M00576789)

#### 08. 30

- 대검이 ‘민민투’와 ‘자민투’ 관련 대학생 180명을 검거해 그중 인하대학교 학생 이용주·이장한 등 2명을 포함, 모두 16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함

『동아일보』 제19974호(1986. 08. 30, 동아일보사)

#### 09. 23

- 송림사랑방교회, 한국 기독교장로회 경인노회 ‘설립 공인 예배’를 진행함. 이와 관련해 송림사랑방교회 박종렬 목사는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힘. “가장 기쁜 소식은 저희 교회가 경인 노회에 교회 설립 청원을 드려 허락을 받고 9월 23일(셋째 주일)에 정식으로 ‘설립 공인 예배’를 노회 주관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85년 12월 8일 창립예배를 본 후, 본 교회 교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이 땅의 가난한 민중(특히 노동자와 빈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온 몸과 마음을 합쳐 노력할 것을 결심하고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이고 총체적인 해방 운동의 삶을 배우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한국 기독교장로회 경인 노회 소속 교회가 되면서 많은 선배 교역자님과 믿음의 형제들의 격려와 성원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신앙과 실천이 더욱 굳건해 질 것을 확신합니다.”

「송림사랑방교회를 성원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1986. 08. 28, 송림사랑방교회 박종렬 목사)

#### 09. 25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송건호를 초청하여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전망」이라는 주제로 「월례 청년 금요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835호(1986. 09. 21, 천주교 인천교구)

- 인하대 학생 이원용, 전두환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시위 주도

#### 09. 28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운수노동) 인천의 소리』 창간  
『(운수노동) 인천의 소리』 창간호(1986. 09. 28,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591)
- 전민학련 산하 서부지역평의회와 동부지역평의회 주도로 동인천역과 부평역 등지에서 아시아경기대회 반대를 위한 기습시위를 벌이려던 대학생 및 근로자 40여 명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됨

『동아일보』 제19998호(1986. 09. 29, 동아일보사)

#### 09. 30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민중대학」 개강. 12월 3일까지 매주 화·수요일에 운영

『인천주보』 제835호(1986. 09. 21, 천주교 인천교구)

#### 10. 08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답동 성당에서 「월례강좌」 개최. 전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돈명 변호사를 초청해 「개헌과 언론」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하는 한편, 제정구의 막사이사이상 수상 보고회를 가짐

『인천주보』 제836호(1986. 09. 28, 천주교 인천교구)

#### 10. 19

- 해인교회, 놀이마당 탈춤반 1기 시작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 10. 31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이재오를 초청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학생운동의 위치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월례 청년 금요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839호(1986. 10. 19, 천주교 인천교구)

- 문교부가 10월 14일부터 재단비리 문제로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인천대학교에 대해 휴교령을 내림

『경향신문』 제12646호(1986. 10. 31, 경향신문사)

#### 11. 01

1986년

- 10월 14일부터 설립자 백인엽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학장실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온 인천대학교 학생들 중 13명이 교내에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연행됨

『동아일보』 제20027호(1986. 11. 01, 동아일보사)

#### 11. 05

- 문교부가 인천대학교 학내 분규 사태와 관련해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 감사에 착수함

『동아일보』 제20030호(1986. 11. 05, 동아일보사)

#### 11. 08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만석동 재개발 지역 434세대를 철거하고 관광도로화한다는 정부의 재개발 정책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강제 해산 당함

『경향잡지』 1414호(1986. 01. 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11. 12

- 치안본부가 사회주의혁명을 일으킬 목적으로 '반제동맹당(AILG)'결성을 기도해 온 관련자 1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함. 치안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제적생들과 휴학생들인 이들은 11월 9일 인하대학교 휴게실에서 '반제동맹 준비위원회'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조직부 산하에 주안지역 지도부와 부평지역 지도부 등을 두었다고 함

『동아일보』 제20036호(1986. 11. 12, 동아일보사)

#### 11. 23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가 11월 8일 만석동 재개발 지역 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려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 데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 발표

『경향잡지』 1414호(1986. 01. 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11. 24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장기집권음모 분쇄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예속군부독재의 장기집권음모 분쇄투쟁에 총집결하자!-장기집권음모 분쇄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부쳐」(1986. 11. 24, 장기집권음모 분쇄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M00124961)



## 11. 30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부천시 삼정동 성당에서 「86노동문화제」 개최

「86노동문화제자료집 해방의 그날을 위해」(1986. 11. 30,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 인천가톨릭 노동청년회, M00442343)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와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이 공동으로 「조국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그리스도 노동자 공동 선언」 발표

「조국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그리스도 노동자 공동 선언」(1986. 11. 30, M00525779)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 6층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해방의 성서 · 신학적 근거」라는 주제로 「'86박스제」 개최

『인천주보』 제843호(1986. 11. 16,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46호(1986. 12. 07, 천주교 인천교구)

## 12. 04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답동 성당에서 500여 명의 수도자와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 굴리엘모 주교와 교구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민주화와 정의 · 평화를 위한 기원미사」를 봉헌하고 1987년 1월 1일까지 한 달 간 「민주화와 정의 · 평화를 위한 기원 운동」 전개

『인천주보』 제845호(1986. 11. 30,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46호(1986. 12. 07,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47호(1986. 12. 14, 천주교 인천교구)

## 12. 06

- 인천대학교 강치원 · 김주익 교수, 선인학원 설립자인 백인엽의 완전 퇴진 등을 요구하며 발생한 학내 분규와 관련하여 인천대학교 재단인 선인학원 으로부터 ‘배후조종책임’을 사유로 해직 당함. 12월 9일에는 농성을 주도한 학생 5명이 제적당하고 17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음

『경향신문』 제20060호(1986. 12. 10, 경향신문사)

## 12. 14

- 장기집권 음모 분쇄를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답동 가톨릭회관 5층에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답동 가톨릭회관 출입구를 봉쇄하고 회관 내부에 들어와 5층 강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폐쇄하여 무산됨

『인천주보』 제847호(1986. 12. 14, 천주교 인천교구)

1986년

『인천주보』 제848호(1986. 12. 21, 천주교 인천교구)

**12. 19**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양심수 돕기 성금 모금을 통해 모인 300만 원을 인천교도소 양심수 가족 대표와 5·3인천사태 관련 구속자 가족 대표를 초대하여 전달

『인천주보』 제850호(1986. 12. 28, 천주교 인천교구)

**12. 28**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 노동청년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 312호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단체 연합 송년미사 및 송년잔치」 개최. 교육국장 김재영 신부는 강론에서 ‘민주화를 소망하는 바람은 우리 모두의 의지이며 그 일을 이루려다 우리 대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을 기억하고 가톨릭인으로써의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으며, 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이명준은 ‘가톨릭 운동과 ‘86년 정세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 진행

『인천주보』 제852호(1987. 01. 04, 천주교 인천교구)

# 1987년

\* \*

- 놀이패 한광대 결성

『광대세상』 창간호(1987. 12. 27, 놀이패 한광대, M00448101)

- 문화기획 일손나눔 결성

이재성, 「인천 민중예술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시론적 연구」, 192쪽(2010. 08. \*,  
『인천학연구』 1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01. 12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이호웅 의장, 5·3인천민주항쟁과 관련해 ‘소요죄’로 수배를 받아오던 중 경찰에 체포됨

『인천의 소리』 제19호(1987. 06. 04,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68224)

## 01. 25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일꾼교회에서 목회자, 노동자, 청년, 학생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종철 군 추모예배 및 살인 고문 정권 규탄대회」 개최. 송림사랑방교회 박종렬 목사가 설교를 맡음.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박종철을 살려내라!’, ‘고문정권 타도하자!’, ‘양심수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쓴 어깨띠를 한 목회자들의 뒤를 따라 동인천역까지 침묵 시가행진을 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저지하면서 32명이 연행됨

『인천인권소식』 제6호(1987. 02. 0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M00107590)

## 01. 26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과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공동 주최로 답동 성당, 부평1동 성당, 소사 성당 세 곳에서 「박종철 군을 위한 추모미사 및 진혼제」, 동시 개최. 답동성당 추모미사에서 호인수 신부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하물며 대통령은 주인의 목숨을 앗아간 머슴이며 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나와 사제들은 두려움 없이 감옥을 향해 가고자 한다. 박종철의 죽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분노하고 그런 한편 기도하면서 의로운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내용의 강론 진행

『인천주보』 제855호(1987. 01. 25,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56호(1987. 02. 01, 천주교 인천교구)

「'박종철군을 위한 추모미사 및 진혼제' 팸플렛」(1987. 01. 26,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천주교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02. \*

- 인천지역 소재 '씨클'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록수'라는 이름의 씨클협의체 구성. 후에 보안상의 이유로 명칭을 '교회'로 바꿈. 산하에 교육부, 홍보부, 투쟁지도부가 있었음. '교회' 역량의 대부분이 후에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에 참여함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02. 07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전국적으로 진행된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에 맞춰 답동 가톨릭회관 6층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검은 조기를 걸고 옥외 추모방송 실시

『인천주보』 제858호(1987. 02. 15, 천주교 인천교구)

## 02. 08

- 감리교 인천 주안지방회의 결의에 따라 동암역 광장에서 청암교회·선린교회·만성제일교회·광명교회·만수교회·인천교회·만수중앙교회·샘터교회·미문교회 등에서 참가한 교인 200여 명이 모여 추모기도회를 진행함. 감리교 인천 주안지방회는 지방회 교역자회의 결의로 '① 2월 8일(일) 주일 예배를 고 박종철군 추모 예배로 드린다. ② 지방회 소속 2만 명 전교인은 추모 의미로 검은 리본을 단다. ③ 교단 총회 성명서를 2만 장을 인쇄하여 전교인에게 배포한다. ④ 주일 추모예배 후에 지방회 소속 교인들은 침묵 시가행진을 하여 동암역 북부역 광장에 집결해 연합 추모 기도회를 갖는다' 등의 결의를 하였음. 이날 선린교회와 청암교회에는 경찰들이 배치돼 교회 정문을 차단하고 침묵 행진을 저지하였으나 선린교회에서는 교회 마당에서 600여 명의 교인이 모인 가운데 추도식을 개최함

『인천인권소식』 제6호(1987. 02. 0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M00107590)

- 감리교 인천 북부지방, 지방회의 결의에 따라 갈월교회에서 「고문 추방 기도회」 개최.

『인천인권소식』 제6호(1987. 02. 0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M00107590)

## 02. 10

- , 창영교회에서 개최된 「제38회 동지방회」에서 지방회원의 결의로 「고문 추방을 위한 특별 기도시간」을 가짐

『인천인권소식』 제6호(1987. 02. 0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M00107590)

## 03. 01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인천지역 구속자가족협의회와 함께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40-8번지(4층)로 사무실을 이전

『인천의 소리』 제17호(1987. \*.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348257)

## 03. 10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노동절 기념 노동자 잔치」 개최

『인천주보』 제861호(1987. 03. 08,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62호(1987. 03. 15, 천주교 인천교구)

## 03. 15

- 주안5동 성당, 교육관에서 「노동자 월레미사」 봉헌

『인천주보』 제863호(1987. 03. 22, 천주교 인천교구)

## 03. 18

- 인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 86명, 교도소 측이 8명의 양심수를 ‘특별 사동’에 수감한 데 대해 ‘별사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돌입. 그중 3월 12일부터 ‘특별 사동’에 수감된 양심수 8명은 당일부터 단식에 들어감

『인천주보』 제864호(1987. 03. 29, 천주교 인천교구)

## 04. 07

- 선린감리교회(당시 담임 권용각 목사)에서 인천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주최 제4차 목회자 세미나 개최

### 인천지역 인권선교위원회 구성

지도위원으로 이춘직 감독(중앙감리교회), 전주석 목사(기장 용광교회), 양정신 목사(기장 삼일교회), 실행위원으로 감리교 동지방 황규록 목사(창영), 안병원 목사(만석), 김달성 목사(인항), 서지방 박은국 목사(용현), 이충기 목사(성산), 서만권 목사(울목), 남지방 권영국 목사(고

잔), 이규학 목사(인천제일), 복지방 최세웅목사(계산중앙), 홍순욱 목사(서부), 최성봉 목사(산곡), 이원배 목사(부평중앙), 권혁찬 목사(평강), 이정일 목사(부평중부), 주안지방 권용각 목사(선린), 주복균 목사(청암), 이상수 목사(장수), 임석구 목사(만수중앙) 예장 통합 주인정 목사(인천제일), 김베드로 목사(부평중앙), 기장 정확진 목사(부천동산), 윤정소 목사(인천), 조영철 목사(부천), 이은규 목사(목원), 박동일 목사(100주년), 박종렬 목사(송림사랑방), 이진목사(제2동인), 성공회 정연우 신부(내동), 구세군 김운호 사관(인천영문)이 활동하였다.

임원 구성은 위원장 황규록 목사, 부위원장 정연우 신부, 주복균 목사, 이은규 목사, 주인정 목사였고 총무는 박은국 목사, 서기는 김달성 목사, 회계는 이진 목사였다.

감사는 이규학 목사, 김운호 사관이었고 홍보 분과장은 김상목 목사(기장소성교회), 청년 분과장은 김성복 목사(샘터감리교회), 사회 분과장은 김정택 전도사(송현산마루감리교회), 연구 분과장은 김병기 목사(기장 한뜻교회) 였고 간사는 정희윤이 맡았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4. 19

- 주안5동 성당, 교육관에서 「노동자를 위한 월례미사」 개최

『인천주보』 제867호(1987. 04. 19, 천주교 인천교구)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연합회, 주안1동 성당에서 「부활과 4·19기념미사」 봉헌

『인천주보』 제868호(1987. 04. 26, 천주교 인천교구)

#### 04. 24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광주 민중항쟁 체험자 김현채를 초청하여 「광주여! 한반도의 십자가여!」라는 주제로 「월례 청년 금요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867호(1987. 04. 19,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69호(1987. 05. 03, 천주교 인천교구)

#### 04. 29

- 천주교 인천교구, 긴급 사제총회를 개최하여 광주·전주·서울 교구에서 진행 중인 사제들의 단식기도에 대해 지지를 보낸 후 동참 결의

『인천주보』 제869호(1987. 05. 03, 천주교 인천교구)

## 0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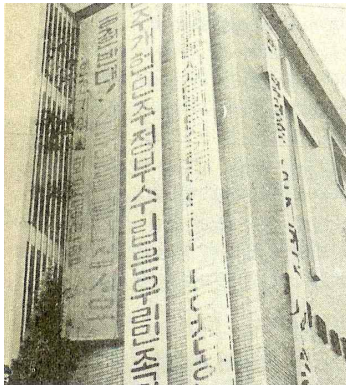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오후 8시 「민주개헌과 자주적 민주 정부 수립을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한 후 성명서를 발표해 광주·전주·서울교구 사제들의 단식기도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답동 가톨릭회관 6층에서 5월 6일까지 단식기도 돌입. 천주교 인천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사제단의 단식기도를 지지하며 대형 플래카드 3개를 제작해 답동 가톨릭회관 건물에 부착함

『인천주보』 제869호(1987. 05. 03,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70호(1987. 05. 10,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 제6호(1987. 05. 01,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107783)

『경향신문』 제12797호(1987. 05. 01, 경향신문사)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들이 단식기도 중인 가운데 답동 가톨릭회관 벽에 붙은 플래카드와 노상기도회를 진행하는 사제와 신자들〉

『인천주보』 제870호(1987. 05. 10, 천주교 인천교구)

## 05. 01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가톨릭대학생연합회 등 청년 100여 명, 단식 중인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들을 지지하며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철야기도회 개최

『인천주보』 제870호(1987. 05. 10,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 제6호(1987. 05. 01,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107783)

## 05. 03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샘터교회에서 「8시간 노동제 쟁취기념 노동자 잔치」 개최.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후원

1987년

「8시간 노동제 쟁취기념 노동자 잔치」(1987. 05. 03,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98343)

05. 04

- 인천지역 선교위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 주간 선포 및 직선제 민주헌법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취지문 발표'를 마친 후 인천제일감리교회에서 20여 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정의평화』 호외 3(1987. 05. 04,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314553)

- 천주교 인천교구 신자 1000여 명, 단식중인 사제들과 함께 답동 가톨릭회관 정문을 나와 노상기도회 개최

『인천주보』 제870호(1987. 05. 10, 천주교 인천교구)

05. 05

- 천주교 인천교구 신자 1000여 명, 미사가 끝난 후 수도자들과 함께 답동 가톨릭회관 정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노상기도회 개최

『인천주보』 제870호(1987. 05. 10, 천주교 인천교구)

05. 06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답동 성당에서 나길모 주교의 주례로 신자 3000여 명과 함께 단식기도 폐회 미사를 봉헌한 후 「민주화를 위한 인천교구 사제단의 단식기도를 마치면서」라는 제목의 결의문 채택. 미사가 끝난 후 2000여 명의 신자들이 답동 가톨릭회관 정문 앞에서 노상기도회를 개최하고 각 본당으로 돌아가는 사제들을 전송함

『인천주보』 제870호(1987. 05. 10,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호헌 철폐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성직자들의 단식농성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성명서」(1987. 05. 06,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526392)

05. 07

- 인하대학교 교수 28명, 개헌논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시국성명 발표

『동아일보』 제20181호(1987. 05. 07, 동아일보사)

05. 08

- 부평1동 성당, 인하대 행정학과 김영규 교수를 초청하여 「우리의 현실과 소득재분배」라는 주제로 「부평지구 월례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869호(1987. 05. 03, 천주교 인천교구)

05. 10

- 해인교회, 기독교 노동상담소(희망의 전화) 개설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05. 13

- 해인교회, 노동자 공부방 1기 시작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05. 14

- 송림동 성당 청년회 회원이자 15년 간 공장 생활을 한 박태영, 음독 자살

『노동청년』 제204호(1987. 06. \*,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M00884636)

05. 16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청년회, '광주항쟁 7주기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5월 27일까지 추모기간으로 설정하고 추모 문화제 '그 모진 봄날에'를 개최. 광주 사진전 · 미술전 · 비디오 상영 · 연극 공연 행사 등이 주안1동 성당, 답동 성당, 부평1동 성당, 소사성당에서 각각 3일씩 개최됨

『인천주보』 제871호(1987. 05. 17,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72호(1987. 05. 24,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의 소리』 제19호(1987. 06. 04,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68224)

05. 17

- 천주교 인천교구, 「광주항쟁 7주기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5월 17일~24일 간을 추모기도주간으로 설정(기도지향 : 광주영령 추모 및 민주화 기원)

『인천주보』 제870호(1987. 05. 10, 천주교 인천교구)

05. 20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항쟁 7주기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답동 성당에서 추모미사 주관

『인천주보』 제870호(1987. 05. 10, 천주교 인천교구)

05. 24

- 호헌분쇄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부평역 광장에서 「광주영령 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부평역과 백운역을 폐쇄함. 이에 맞서 학생 50여 명이 백운역 고가도로 주변에서 5분간 시위를 전개하였고, 이후 300~400여 명의 시위대열이 형성되어 부평시장 로타리, 부평1동성당 부근, 북구청 앞 도로, 백마장 입구 등지에서 투석전을 벌이며 시위를 전개함. 북구청 앞 도로에서는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임

『인천의 소리』 제19호(1987. 06. 04,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68224)

1987년

『경향신문』 제12816호(1987. 05. 25, 경향신문사)

**05. 28**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이호웅 의장, 인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5·3인천민주항쟁과 관련해 ‘소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을 거부하며 퇴정

『인천의 소리』 제19호(1987. 06. 04,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68224)

**05. 29**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한국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돈명 변호사를 초청하여 「제5공화국과 인권현실」이라는 주제로 「월례 금요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872호(1987. 05. 24, 천주교 인천교구)

**06. \***

- 송림사랑방교회, 노동자들의 놀이공간을 위한 문화마당 개설(탈반)

「창립5주년 기념 및 입당예배」(1990. 12. 09, M00042451)

**06. 10**

- 오후 4시 20분경부터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국민대회 참가를 알리는 가두 방송이 실시되고, 민주헌법쟁취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인천 시민대회가 부평역 앞에서 개최됨. 십정동에서 사전 회합을 가진 종교계 인사들이 부평역으로 이동, 목사 한 명이 십자가를 들고 부평대로에 나서면서 국민대회가 시작됨.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곧 북구청(지금의 부평구 보건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

『6월 항쟁을 기록하다』(2007,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종렬 목사 제공」

1987년 6월 항쟁의 전개 과정(06. 10~06. 29)

**• 06. 10**

- 오후 4시 20분부터 가톨릭회관에서 국민대회 참가를 알리는 가두 방송 실시. 오후 6시 부평역에서 애국가를 시작으로 택시기사들이 경적 시위를 벌이고 곧이어 시위대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도로로 나와 가두시위. 오후 9시 3000명의 시위대가 백마장 입구에 모여 가두시위. 한양아파트 사거리와 영아다방 사거리로 진행하면서 시위 및 행진. 시위대가

점점 불어나 영아다방 사거리 앞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합세하여 5000여 명이 자연발생적인 형태의 집회를 가짐

-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출정식 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부평역까지 가두시위

#### • 06. 12

- '민주헌법쟁취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집행국장 안영근,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청년회 회장 강석태, 인천기독교청년회 회장 김영철 등 3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나머지 단체 대표 5명에 대해 수배령이 내려짐

#### • 06. 14

- 인하대학교 학생 25000여 명, 「군부독재 종식, 호헌철폐 비상총회」를 가진 후 인천교육대학교 앞, 숭의로터리, 신흥로터리를 거쳐 동인천역까지 가두시위. 20여 명의 학생이 연행되어 250여 명의 학생들이 연행 학생 석방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

#### • 06. 15

- 인천대학교 학생들, 교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2시간 동안 시위  
- 인하대학교 학생들, 연행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집회를 열고 기말고사의 전면거부를 선언. 학생 3000여 명이 인천시민회관 앞까지 진출하여 석바위 시장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

#### • 06. 16

- '민주헌법쟁취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안영근 등 3명 구속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교내에서 집회를 가진 후 교문 밖으로 진출해 석바위까지 가두행진을 전개. 석바위에서 시민 5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해 해산함. 학생들은 인하대학교로 돌아온 뒤 500여 명이 철야 농성을 벌임

#### • 06. 17

- 인하대학교 학생들, 교내에서 집회를 가진 후 학교를 나와 동인천에 집결.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학생 2000여 명이 동인천역 과장을 점거하고 시민 5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좌 시위를 벌임. 오후 7시 30분경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여 잠시 중단되었으나 7시 40분경 집회를 다시 진행하고 주안1동 성당으로 이동.

- 주안1동 성당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6·10 보고대회」 개최.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안1동 성당에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지선 스님을 초청해 「이 땅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의·평화』 월례강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선 스님이 구속된 관계로 김병상 신부가 강론으로 대신함. 월례강좌가 끝난 후 사제단과 수녀들이 대열의 앞에 선 채 시민회관까지 촛불행진을 진행함

『인천주보』 제875호(1987. 06. 14,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76호(1987. 06. 21, 천주교 인천교구)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민주화와 행동에의 부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미 시작된 민주화 대행진을 계속하고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

『인천주보』 제876호(1987. 06. 21, 천주교 인천교구)

- 석바위 4거리에 시민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중 토론회 개최. 새벽 0시 30분경 경찰에 의해 해산됨

## • 06. 18

- 전국에서 「최루탄 추방대회」 개최.

-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학생들, 오후 1시경 각각 교내에서 출정식을 갖고 부평과 동인천으로 집결.

- 동인천에서는 오후 6시경 학생들이 도로 중앙에 집결하며 시위 시작. 동인천역에서 스크럼을 짜고 오성극장과 송림로터리로 진출해 두 곳에서 대중집회를 진행함. 오후 8시 45분경 오성극장쪽 시위대가 송림로터리쪽으로 합류하여 5000여 명이 모임. 2시간 가량 집회를 가진 후 제물포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전개함. 송의로터리를 지날 무렵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저지해 일부는 도화5거리에서 투석전을 벌이고 인하대학

교 학생 500여 명은 학교로 돌아와 도서관에서 철야 농서에 들어감

- 부평에서는 부평역 광장과 '백마장 입구'에서 동시에 시위가 시작됨. 시민 1만여 명이 모여 대중 토론회를 진행하고 개선문예식장 앞에 모인 시위대는 「전두환 화형식」을 가짐. 새벽 3시경 경찰이 진압을 시작해 새벽 5시까지 시민들의 연행이 계속됨. 시위대 일부는 철마산 위로 올라감

• 06. 21

- 인하대학교 학생 150여 명이 동인천역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오후 7시경 경찰에 의해 해산됨

• 06. 24

- 인천지역 변호사 17명이 '조국과 민족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시국성명 발표

-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인하대학교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동인천역에 모여 시위를 벌임

• 06. 26

- 부평역과 '백마장 입구'에서 각각 집회가 개최됨. 이날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오후 9시경부터 경찰의 진압이 시작됨

- 석바위에서 오후 10시 30분경 노동자, 시민, 학생 등 2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개최함

• 06. 29

- '6·29선언 발표'

『6월 항쟁을 기록하다』, 221~225쪽(2007,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최루탄을 청와대로! -인천시민 대중연설회-’

인천의 애국시민들은 17일, 석바위 사거리, 동인천역 광장, 18일, 오성극장 앞, 송림로타리, 부평역 앞 도로, 청천동 등지에서 대중정치토론회를 가졌다. 이들 집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중의 민주화 의지와 열기를 확인, 고조시켰다. 운집한 시민들 스스로가 복창을 하여 마이크 역할을 하면서, 혹은 즉석에서 성금하여 마이크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 참여 속에 애국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명 연설을 했다.

○ 구호 한 가지만 외치겠다!

“전두환을 남영동으로! 이순자를 부천서로! 최루탄을 청와대로!” -30대의 시민

○ 직장에서 늦게 돌아와 신문을 보느라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 하지만 신문이라고 다 신문인가? 신문이건 방송이건 믿을 것이 없다. 특히 사실을 편파·왜곡하여 보도하는 서울신문 경향신문은 절대 보지 말고 민주언론 쟁취하자! -40대 초반의 직장인

○ 가정을 이루고 1남 1녀의 아버지인 가장이다. 하루하루 벌어 먹어야 하는 생활 속에서 이런 집회에 참여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외치는 이러한 집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듯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여기에 모인 시민이 모두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다. -30대의 시민

○ 잔업 특근에 시달리며 하루 16시간 이상을 노동해도 10여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현정권이 잘못인가? 노동악법 철폐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20대 노동자

○ 이런 데 있다가 혹시 잡혀가지나 않을까 무척 많이 떨었다. 지금도 무섭다. 그러나 학생·시민이 다함께 모여 민주화를 외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마구 뛰고 참을 수 없어 뛰어왔다. 학생들을 존중한다. 그대들이 앞장서달라. 그러면 모든 시민들도 따를 것이다. 큰절 한 번 하겠다(큰 절을 함). 집에 갈 때 경찰이 나를 잡아갈지도 모르니 학생들 사이에 앉아있다가 같이 가겠다(박수로 환호). -30대 시민-

○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 조국의 민주화를 이룩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이 모두 함께 하자! -40대 시민-

○ 학생은 학교에서, 노동자는 공장에서 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곳곳하게 싸워 끝내 이기고 말자. -20대 시민-

○ 나는 2세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직업상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정부 수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어느 교사-

대중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음료수를 갖다 주며, 그 중에 저녁을 못먹고 있을 여러 사람을 걱정하여 5만 원의 성금을 보내준 공무원도 있었고, 손수 김밥과 음료수를 사다주신 70대 이 할아버지도 있었으며,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달래며 콜라 5병을 보내준 고등학생도 있었다. 또한 집회를 해산하려는 전경에게 꽃을 꽂아주며 방독면을 벗겨주고 쉬게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다. 이는 모두 우리 민중 안에서 새벽은 이미 밝았고 어둠의 잔재세력을 청산하는 일만이 남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시대의 징표였다.

『정의평화』 호외 4(1987. 06. 21,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109619)

## 06. 28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여성부, 청암감리교회에서 ‘그대 벽찬 샘물처럼 - 여성노동자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1회 인천지역 여성노동자대회」 개최

『샘물』 창간호(1987. \*.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여성부, M00361789)

『함께 가는 여성』 제5호(1988. 01. 10, 한국여성민우회, M00856797)

「제1회 인천지역 여성노동자대회 개최 통보」(1987. 06. 28,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M00443924)

## 07. 01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 천주교 인천교구 꾸리아 연합회 ·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청년연합회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답동 성당에서 오후 7시 30분, ‘주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십자가를 지고서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하소서’라는 지향 아래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 공동 주최.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인천교구 교육국이 후원한 가운데 1000여 명의 신자와 단체 회원들 참석.

『인천주보』 제877호(1987. 06. 28,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878호(1987. 07. 05, 천주교 인천교구)

1987년

- 선일연마 노동자들,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6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07. 02

- 대성합성화학 노동자들, '임금 1500원 인상, 화공약품 사용에 대한 대책' 등 14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 돌입. 대성합성화학은 청천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6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07. 08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황선진 시민위원장과 홍성복 전 편집실장, 5·3인천 민주항쟁으로 수배를 받아오다가 이 날로 수배 해제  
『인천의 소리』 제21호(1987. 08. 11,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72184)

07. 09

- 영원통신 노동자들, '임금 인상, 각종 후생복지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6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07. 11

- 한독금속 노동조합 결성  
「황재철 제공」

07. 12

-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지역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 주최로 「고 이한열 열사 추모 및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인천 시민대회」가 자유공원에서 개최됨. 자유공원으로 향하는 모든 골목이 경찰에 의해 차단된 상태에서 대회장에 있던참가자들은 경찰에 연행되고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가톨릭 회관 앞에서 대회 개최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밀려 답동 가톨릭회관 안으로 들어가 농성  
「노동기본권쟁취대회 자료집」(1987. 07. 26, 가톨릭노동청년회 인천교구연합회 · 한국노협 인천지역협의회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 인천민주노동자연맹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M00404774)  
「고 이한열 열사 추모 및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대회」([1987. \*. \*], M00091369)
- 한독금속 노동자 72명, 회사 내 식당에서 창립총회 개최  
「노동기본권쟁취대회 자료집」(1987. 07. 26, M00404774)



## 07. 13

- 남일금속 노동자 37명, 7월 11일 설립된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 결성  
『노동현장정보고서』 7(1988. 05. 01, 일꾼노동문제 정보센터, M00836863)

## 07. 14

- 서울조구 노동자 250여 명, '상여금 100% 지급, 하기 유급 휴가'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7월 15일 회사 측이 요구 조건을 수락하면서 해산함. 서울조구는 효성동에 위치하며 2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음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6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87 노동자 대투쟁 -7, 8월 인천지역 사례』, 부록(1988, 풀빛)  
『노동 상담소식』(1987. 07. 15,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078676)

## 07. 16

- 성진운수 노동자 80여 명, '일일업적금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인천의 소리』 제21호(1987. 08. 11,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72184)  
『정의평화』 제9호(1987. 08. 01,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8968)
- 태원 노동자들, '임금 재인상, 보너스'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7월 20일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500원, 보너스 350%, 여름 유급 휴가' 등에 합의하며 타결됨. 태원은 1987년 설립된 회사로 효성동에 위치하며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 낚싯대 생산 업체임  
『[태원의 회사개요, 투쟁과정]』(\*. \*. \*, M00409954)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6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07. 17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창립선언문 발표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창립 선언문

이 땅의 노동자들은 민족해방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의 대열에서 최선봉을 담당한 빛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일제하에서는 반제국주의 반봉건 투쟁에서 피흘려 싸웠고 해방 이후에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참된 민족자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외세와 독재에 맞서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의 역량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새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문턱에 서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으로 인해 성취될 수 있었던 새로운 사회에의 벽찬 희망이 외세와 독재에 의해 무참히 깨어진 지 어언 42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저들의 탄압과 착취는 얼마나 극심하였으며 우리가 흘려야 했던 피땀은 또 그 얼마였던가? 그러나 이제 국민대중은 외세와 독재정권의 총칼을 아랑곳 않고 반외세 반독재 투쟁의 대열로 결연히 뭉치고 있다. 지난 6·10투쟁 이후 한 달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뒤흔든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드높은 함성은 이를 웅변하고도 남는다.

국민대중의 투쟁의지에 밀리기 시작한 군사독재정권은 소위 6·29선언을 발표하고 이제 민주화의 선도세력인 양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이 참된 민주화와 먼 거리에 있음은 벌써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구속자 석방 및 사면복권에 있어서의 선별 처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계급의 생존권 및 민주적 재권리 등에 대해서 저들이 보이는 무관심은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의 허구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땅에 있어서 참된 민주화란 무엇인가? 국민의 대부분을 이루면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정치, 경제, 사회의 제 분야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함이 아니던가! 살인적 저임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생명을 쪼먹는 작업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저농산물 가격으로 신음하는 농민, 갇은 천대 속에서 잠을 잊은 채 일하지만 끼니도 잊기 어려운 빈민 등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제적학생, 해직교사의 복학, 복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고 노동자의 복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이 현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인천지역의 해고 노동자들은 이제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를 결성하고 하나로 뭉쳐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천지역은 물론 나아가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이 원직에 복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당한 해고가 이 땅에서 추방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각지에 해고노동자 협의회가 결성되고 연대하여 투쟁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유보없는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민주적 제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과감히 투쟁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나아가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루리는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모든 계층과 굳게 연대하여 불퇴전의 각오로 전진할 것임을 오늘 엄숙히 선언한다.

1987년 7월 17일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창립선언문」(1987. 07. 17,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M00881215)

#### 07. 19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주안1동 성당에서 창립대회 개최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창립대회」(1987. 07. 19,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M00834651)

『민주여성』 제2호(1987. 08. 10, 한국여성단체연합)

#### 07. 20

- 금강운수 노동조합 조합원 80여 명, 성진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조하여 일일업적금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시작

「금강운수 노동조합 파업농성!!」(1987. 07. \*, 금강운수 노동조합, M00088131)

『인천의 소리』 제21호(1987. 08. 11,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72184)

#### 07. 21

- 남일금속 노동조합, 「어용노조 타도 및 민주노조 쟁취대회」 개최

『정의평화』 제9호(1987. 08. 01,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8968)

『민주여성』 제2호(1987. 08. 10, 한국여성단체연합)

- 신홍목재 노동자들, '여름 유급 휴가, 보너스 지급' 등을 요구하며 7월 24일까지 파업 농성 돌입.

『공장의 소리』 속보(1987. 07. 27,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일하는 인천지역 노동자 일동, M00354110)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6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07. 22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민주노조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일동·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7월 21일 남일금속 노동자들이 「어용노조 타도 및 민주노조 쟁취대회」를 개최하던 중 폭행당한 사건에 대하여 '남일금속에서 자행되는 살인적 폭력을 분쇄하자!'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우리의 주장〉

1. 남일금속은 어용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하라
2. 남일금속은 민주노조 탄압 행위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3. 금속노조 연맹은 그간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반성하고 어용노조에 대한 인준을 취소하라
4. 경찰은 21일 폭력을 자행한 자들을 엄중 처단하라
5.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군사독재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남일금속에서 자행되는 살인적 폭력을 분쇄하자!」(1987. 07. 22,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민주노조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일동·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M00079218)

- 주안5동 성당에서 「고 민철기 선생 민주가족장」 거행.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문익환 의장을 비롯, 민주인사, 학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 민철기는 6·29 선언 이후에도 정부의 선별 석방조치에 따라 아들인 민경석(고려대학교 수학과 4년)이 석방에서 제외되자 이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7월 17일 사망

『인천주보』 제881호(1987. 07. 26, 천주교 인천교구)

07. 24

- 삼호목재 노동자들, '임금 1만 원, 근속 수당, 유급 휴가 실시'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6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성운수 노동자들, 성진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조하여 파업 농성 시작  
『인천의 소리』 제21호(1987. 08. 11,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72184)

07. 25

- 한세실업 여성 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 8월 1일 신고필증 받음

『민주여성』 제3호(1987. 09. 10,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조』 창간호(1987. 08. 30,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59253)

## 07. 26

- 가톨릭노동청년회 인천교구연합회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 인천민주노동자연맹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공동 주최로 부천 원미동 성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대회」 개최

「노동기본권쟁취대회 자료집」(1987. 07. 26, 가톨릭노동청년회

인천교구연합회 · 한국노협 인천지역협의회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 인천민주노동자연맹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M00404774)

- 남일금속 해고노동자 및 현장 노동자 10여 명, 사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임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6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동산운수 노동자들, 성진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조하여 파업 농성 시작

『인천의 소리』 제21호(1987. 08. 11,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72184)

- 대우중공업 해고노동자 및 강제사직자, 내부 노동자 등 20여 명이 모여 '대우중공업 노동자 복직추진위원회' 결성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 한전유화 노동조합 결성. 한전유화는 가좌동에 위치함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6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태연물산 노동조합 결성. 태연물산은 1979년 설립된 봉제 회사로, 1986년 11월 29일 업종을 전자 완구로 변경하였음. 갈산동 152-12에 위치하며 170여 명의 노동자 중 남자가 30여 명, 여자가 140여 명임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태연물산 민주노조 쟁취 투쟁’

태연물산 노동자 50여 명은 지난 7월 26일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회사 측과의 싸움 과정의 결과로써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결성 후 노조에 대해 갖은 방해공작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어용노조 결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청에서는 10일 내에

발급해야 할 신고필증을 임원자격이 노동법에 저촉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발급하지 않고 지난 8월 12일 서류를 반려하였다. (태연은 지난해 11월 봉재에서 전자로 업종 변경되어 8개월이 지났으므로 임원 자격은 그 1/2인 4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시청과 노동부에서는 설립 연도가 79년이므로 임원자격에 미달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태연 생산직에서 임원 자격이 있는 자는 남자 1명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 27명은 지난 8월 13일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3층 사무실을 점거, “민주노조 만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5분만에 문을 부수고 들어온 구사단의 살인적인 폭력에 의해 진압, 3층에서 지하실로 내던져지며 지하실에 감금되었다. 감금된 후 조합원 27명은 다음날 새벽 5시 30분 해산시까지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온몸으로 전개하였다. 구사단에 의한 무차별 폭력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이었다. 술에 취해 들어온 구사단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러 머리가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였으며 어떤 조합원은 손뼉이 빠져 나왔다. 해산될 당시 조합원들의 심정은 오직 이 지옥같은 지하실을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해산후 다시 결연한 의지로 집결한 태연 민주노조 조합원 30여 명은 8월 14일 점심시간에 회사로 출근하여 정문을 굳게 잡고 회사의 폭력을 규탄하며 정문 앞에 앉아 “민주노조 탄압말라”, “폭력배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에 시민들이 동조, 오후 5시 30분경에는 250여 명이 함께 구호를 외쳤다. 회사 측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 “불순분자 물러가라”며 야유를 퍼부었으나 민주 조합원과 시민의 함성에 놀려 곧 철수하였다. 시민들은 직접 벽에다 구호를 적고, 호소문을 나누어 주고 벽보를 제작하였다. 민주노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가열차게 타올랐으며, 부평공단의 모든 사업장이 태연물산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에 당황한 회사 측은 오후 5 : 30 부평 경찰서에 진압을 요청하였다. 기다렸다는 듯이 3대의 닭장차를 몰고와 서장의 직접 지휘하에 폭력적으로 무차별 진압을 시작하였다. 조합원과 시민들은 한몸이 되어 이에 맞서 몸싸움을 하였으나 끝내는 조합원 18명과 시민 17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연행과정 중 서장은 한 시민의 옷을 잡아 찢어버렸으며, 시민의 안경이 박살나고, 머리를 수차례 구타하였다. 연행후 밤 11 : 00에 조합원을 먼저 훈방하고, 곧이어 시민들이 훈방되

었다.

이날 밤 다시 모인 조합원 30여 명은 새벽 2 : 00에 다시 회사로 돌아와 철야농성을 시작, 지금까지 민주노조를 기필코 쟁취하겠다는 결의하에 농성중이다.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07. 27

- 메탈리안 노동자들, '임금 인상, 보너스' 등을 요구하며 7월 28일까지 파업 농성 벌임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6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신신교통 노동조합 결성

『인천의 소리』 제21호(1987. 08. 11,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72184)

### 07. 28

- 부광교통·성산교통 노동자들, 성진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조하여 파업 농성 시작. 인천 택시기사들의 연대 파업 농성이 계속 이어지자 택시사업 조합 측이 노사협의회를 요구하여 '20일 기준의 업적금제 실시' 등 9개 항의 양보안을 제시, 일괄 타결됨. 이에 따라 성진운수를 제외하고 각 회사 노동자들이 파업 농성을 끝냄

『인천의 소리』 제21호(1987. 08. 11,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72184)

### 07. 31

- 세진화인케미칼 노동자들, '보너스 450%, 월차 수당' 등 11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 농성. 회사는 가좌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7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국그랜드 노동조합 결성. 회사는 효성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7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08. 01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주최로 충북 금강유역 매폐수양관에서 인천·부천지역 노동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 여름수련대회」 개최. 이날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박용선·유인식·김현욱·이대용 등 4명이

1987년

## 사망함

「'87 인천 부천지역 교회노동자 여름수련대회」(1987. 08. 01,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447173)

「승고한 희생의 뜻 이어받아 노동자여 단결하자!!」(1987. \*. \*, 민주노동자 고 박용선, 고 유인식, 고 김현욱, 고 이대용 동지 추모위원회(수련회참가노동자 일동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 구속노동자협의회), M00343920)

## 08. 04

- 인천조선 노동조합 설립. 8월 5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17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음. 인천조선은 1973년 설립한 회사로 중구 항동 74에 위치하며 생산직 노동자는 1200여 명 가량이 근무중

「한라중공업 평가서」(1992. \*. \*, 한라중공업노동조합, M00410236)

『노동상담소식』(1987. 08. 21,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61798)

## 08. 05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8월 1일 발생한 「노동자 여름수련대회」 익사 사고와 관련하여 '네 분 노동동지께서 희생을 하신 사건경과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발표

「네 분 노동동지께서 희생을 하신 사건경과를 밝힙니다」(1987. 08. 05,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61782)

## 08. 06

- 대우중공업 노동자들, '5만 원 인상, 상여금 6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 대한마이크로 노동자 30여 명, 「노동조합 복구대회」 개최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7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대한화학기계 노동자 50여 명 파업 농성 벌임. 회사는는 효성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7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세일 노동자들, '여름 휴가 5일, 보너스 400%' 등을 요구하며 농성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7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87 인천 부천지역 교회노동자 여름수련대회

## “뛰는 맥박도 뜨거운 피도!”

「단치하들의 권리와 책임」



주 최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후 원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천지역인권선교위원회

연 제 : 1987. 8. 1(토) - 3(월)

어디서 : 매폐수양관 (충남·금강유역)

441173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주최로 열린 「'87 인천 부천지역 교회노동자  
여름수련대회」 안내 자료〉

「'87 인천 부천지역 교회노동자 여름수련대회」(1987. 08. 01,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447173)

08. 07

- 경동산업 노동자 374명, 어용노조 집행부 불신임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공장별로 새 대표부 구성. 같은 날, 새 대표부를 중심으로 '어용노조 퇴진, 민주노조 건설'을 외치며 파업농성 전개

『민주노조』 창간호(1987. 08. 30,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59253)

- 세화공업 노동자들 8월 8일까지 '임금 20%, 보너스 600%'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7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08. 10

- 대우중공업 인천공장 노동자 1000여 명, 10월 5일부터 '임금 5만 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오던 중 10월 9일 하루 휴식을 가진 후 이날부터 농성 재개

『경향신문』 제12882호(1987. 08. 10, 경향신문사)

- 신광기업 노동자들, '일당 165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신광기업은 일신동에 위치함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엮음, 거름)

- 우아미 가구 노동자들,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8월 11일까지 '어용노조 퇴진과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서명'을 전개하여 생산직 노동자 70%의 지지를 받음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인천조선 노동조합 결성

『투쟁의 소리』 제3호(1987. 08. 28,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884480)

- 한국종합기계 노동자 700여 명, '임금 11%, 보너스 600%' 등 15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7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08. 11

- 보루네오통상 노동자들, '임금 인상, 보너스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7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삼양식품공업 노동자들, 파업 농성. 회사는 효성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8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삼익악기 노동자 1000여 명, '어용노조 퇴진, 노조위원장 직선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7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신광전기 노동자들 '임금 인상, 보너스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7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일튜브공업 학생출신 노동자 3명을 포함한 11명의 노동자가 노조결성추진위원회 결성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 91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엮음, 거름)
- 한국미싱공업주식회사 조립1과 노동자 11명, 봉급에 불만을 품고 잔업을 거부한 채 퇴근하여 모임을 가지면서 다음날 일당 차별 폐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기로 결의한 후 해산. 한국미싱공업주식회사는 부개동에 위치하며 250여 명 가량의 생산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음  
『노동상당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당소, M00398753)
- 한국타이어 부평공장 노동자들, '임금 20%, 보너스 400%, 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 회사는 석남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8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08. 12

- 대원운반기계 노동자들, '보너스 300% 지급, 체불임금 지급, 유급휴가 실시' 등을 요구하며 전원 파업 농성 돌입  
『노동상당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당소, M00398753)
- 서울조구 노동조합 결성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8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우아미 가구 노동자들 점심을 거부하고 8월 10일~11일 간 진행한 「어용노조 퇴진과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서명 보고대회 및 어용노조 규탄대회」 공고를 공개적으로 게시함. 이 일과 관련해 노동자 4명이 총무과장으로부터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동자들을 선동했다는 사유로 구두 해고 당함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인천중앙병원에 입원 중인 산업재해환자 800여 명, 가족 200여 명과 함께 8월 15일까지 '휴업보상 100% 지급', '근본적인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농성.

『민주인천』 창간호(1987. 10. 24,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M00211670)

- 인천조선 노동조합, 회사 측의 휴업공고로 8월 19일까지 파업농성 돌입. 파업농성으로 사무장 박경배 등 4명이 구속 당함

『한라중공업 평가서』(1992. \*. \*, 한라중공업노동조합, M00410236)

- 코리아스파이서 노동자들, 회사 측의 휴업 조치에 맞서 '부당휴업 철회, 어용 노조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한국미성공업주식회사 조립1과 노동자 11명, 전날 잔업을 거부하고 퇴근한 일로 인해 부서장에게 지하 식당으로 불려가 간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함. 이를 본 공작3과 노동자들이 분노하여 조립1과 노동자들과 함께하기로 결의함. 노동자 30여 명이 오후 5시 30분 퇴근 후 모임을 갖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 작업시작 벨이 울릴 때 모두 나와 옥상에서 농성하기로 결정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한국종합기계 노동자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풍산금속 노동자들, '어용노조 퇴진, 임금 30% 인상, 보너스 400%' 등을 요구하며 농성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8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08. 13

- 로얄토토 노동자들, 파업 농성에 돌입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일꾼교회에서 업무 시작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삼경무역 노동자들, 파업 농성 벌임. 회사는 작전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성진운수, 노사 양쪽이 임금협상에 합의하여 29일간의 파업 농성을 끝냄

『민주여성』 제4호(1987. 11. 05, 한국여성단체연합)

- 세진음향 노동자 35명, 노동조합 결성식 개최. 세진음향은 가좌동에 위치함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8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신광기업 노동자들, 회사 식당에서 노동조합 결성식 개최. 위원장에 김풍걸, 총부부장에 김승환 선출. 8월 2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받음. 9월 19일, 현판식 개최  
『신광의 소리』 제1호(1987. 08. 19, 신광기업 노동조합, M00884149)  
『신광의 소리』 제3호(1987. 08. 31, 신광기업 노동조합, M00884151)  
『민주노조』 호외 7(1987. 09. 05, 인천지역 민주노동조합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516758)
- 신흥목재 노동자 40여 명, 7월 파업 때 농성을 주도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공고가 나오자 이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임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8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우아미 가구 노동조합 결성. 이 날 회사 관리자들이 정문을 차단하자 노동자들이 정문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함. 회사 안에 있던 노동자들이 작업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정문을 개방시키고 합류하여 150여 명이 파업 농성을 시작함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인천조선 노동자들, 회사 측과 교섭이 결렬된 후 오전 10시경 본관 앞 조희장에 집결해 농성 돌입. 8월 14일까지 농성을 진행하다가 월급을 수령한 뒤라 귀가하기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일단 해산한 후 8월 17일 다시 농성을 시작하기로 함  
『노동상담소식』(1987. 08. 21,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61798)
- 코리아 스파이서 노동조합 조합원 487명, 임시총회를 열어 어용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후 새로 임시집행부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유학천 선임. 임시총회에서는 또한 '임금 인상 5만원', '최저임금 일당 7000원' 등 11개 요구사항을 결의하여 회사 측에 제시. 회사 측은 이날 조합원 총회가 예정되자 하루 전인 8월 12일 휴업공고를 냈음  
『공장의 소리』 속보(1987. 08. 13,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일하는 인천지역 노동자 일동, M00354109)  
『민주노조 투쟁속보』(1987. 08. 14, 코리아스파이서 노동조합, M00399412)  
『민주노조』 창간호(1987. 08. 30,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59253)
- 풍산금속 부평공장 노동자들, 지게차를 앞세우고 전원 파업 농성 돌입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한국미성공업주식회사 노동자 30여 명, 작업시작 벨이 울리자 일부는 정원에서, 일부는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 참가 인원은 곧 45명으로 늘어났고 얼마 후 모두 옥상으로 집결해 농성 이어감. 회사 이사와의 협상에서 '일당 1500원 인상', '상여금 400% 지급', '공휴일 유급으로 처리', '월차, 연차 휴가 실시' 등 10개 항을 요구하여 임금을 다음 해 4월에 인상한다는 조건을 달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산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화인공예 파업 돌입. 회사는 갈산동에 위치함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08. 14

- 신흥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회사는 효성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인천조선 노동자 600여 명, '근속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8월 15일, 회사측으로부터 요구 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농성을 끝냄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중앙병원 환자 150여 명, 휠체어를 타고 가족 50여 명과 함께 경인국도로 나와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임

『경향신문』 제12887호(1987. 08. 15, 경향신문사)

- 코리아스파이서 노동조합 조합원, '부당휴업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부평공단 한독시계, 대우자동차 후문 쪽을 경유하여 갈산시장까지 가두행진을 전개.

『민주노조 투쟁속보』(1987. 08. 14, 코리아스파이서 노동조합, M00399412)

- 코리아스테플 노동자들, '최저 생계비 보장, 상여금 4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농성 시작. 8월 18일 회사가 무기한 휴업공고를 내자 노동조합을 결성해 농성을 이어감

『투쟁의 소리』 제1호(1987. 08. 19,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397782)

- 한국미성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 결성. 이 날 오전 8시 30분 회사 측이 무기한 휴업 공고를 내걸고, 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회사 간부와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음. 회사 측은 8월 13일의 합의사항이 백지화 되었다고 말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공포. 출입을 제지당한

회사 노동자들이 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려 하자 회사 측 사람들이 집단폭행을 가하여 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다시 대열을 정비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식을 갖고 위원장에 정만호를 선출. 오후 3시경 인천시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러 갔으나 이미 회사측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 반려 당함. 45명의 노동자들은 오후 7시경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으니 밤 9시 30분경 경찰에 의해 해산 당함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08. 15

- 부국철강공업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회사는 도화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선창산업 노동자 400여 명, '임금 30% 인상' 등 3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 돌입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인천조선 노동자들, 8월 17일 노사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한 후 농성 해제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세실업 노동조합, 14일 회사 측의 예고없는 잔업을 조합원들이 거부하자 관리자들이 정문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폭행관리자 공개사과'와 '노조와 교섭할 것' 등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민주여성』 제3호(1987. 09. 10,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영알미늄, 8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인천민주가족』 창간호(1987. 10. 22, 인천지역 구속자가족협의회)

- 한국미성공업주식회사 노동자 30여 명, 오전 8시경 회사 앞에서 농성 시작. 회사 대표가 노동자들을 유인해 회사 안 광장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사직서를 강요했으나 노동자들이 거부. 회사 측 사람들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노동자들이 사직서를 쓰고 밖으로 나옴. 그 중 한 명은 회사 측이 난수표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며 불순분자로 몰아 회사에 감금 당함.

『노동상담소식』(1987. \*. \*,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98753)

#### 08. 16

- 대한마이크로 노동자 30여 명,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재건

『민주노조』 창간호(1987. 08. 30,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59253)

#### 08. 17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일꾼교회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입주식 개

최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사무실 입주식 초청에 관한 건」(1987. 08.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M00409896)

- 경동산업 노동자들, 회사가 이틀간 휴업 공고를 내자 500여 명이 구사대를  
밀치고 회사로 들어가 파업 농성 돌입. '일당 1400원, 해고자 복직, 어용노  
조 퇴진' 등을 요구하며 8월 30일까지 파업 농성을 전개하여 '일당 1000원  
인상, 해고자 6명 복직, 어용집행부 사퇴' 등의 결과를 얻음

『투쟁의 소리』 제1호(1987. 08. 19,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397782)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고능 노동자들 파업 농성. 회사는 효성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신영전기 노동자 120명, 회사 측의 휴업에 항의 농성 전개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대림통상 노동자 150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대우전자 노동자 800여 명, 파업 농성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대흥기계 노동자 260명, 14일 간 파업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동진화성 노동자들, 농성 벌임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새한실업 노동자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투쟁의 소리』 제1호(1987. 08. 19,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397782)

- 신한공기 노동자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 『투쟁의 소리』 제1호(1987. 08. 19,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397782)
- 영창악기 노동자 2000여 명, ‘일당 1500원, 보너스 600%, 위원장 직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왕자표 보일러’ 노동자 30명 전원, 파업 농성 돌입  
『노동상담소식』(1987. 08. 21,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61798)
  - 우진실크 노동자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투쟁의 소리』 제1호(1987. 08. 19,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397782)
  - 인천조선 노동자들, 오전 8시 30분경부터 전원이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가며 노사간 협의를 시작했으나 8월 18일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퇴근함  
『노동상담소식』(1987. 08. 21,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61798)
  - 콜트악기 노동자 300여 명, ‘임금 5만 원, 보너스 600%’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국강관 노동자들, 파업 농성 별입. 회사는 학익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양목재 노동자 300여 명, 파업 농성 별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영알미늄 노동자들, ‘임금 1000원 인상, 민주노조건설’ 등을 요구하며 9월 2일까지 파업농성 전개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 한일튜브공업 노동자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 91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현대철구사업부 농성 별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협진염직 노동자들 파업 농성. 8월 18일, '임금 20%, 보너스 250%'로 타결을 봄. 회사는 효성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화영 노동자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투쟁의 소리』 제1호(1987. 08. 19,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397782)

- 인성전자·인우테크레코 노동자들, '임금 30% 인상, 보너스 4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두 회사는 법인은 다르나 같은 건물에서 함께 일을 함

『노동상담소식』(1987. 08. 21,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61798)

『민주노조』 호외 6(1987. 09. 2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516757)

#### 인성전자·인우테크레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공장 폐업

인성전자(주) 노동자 200여 명은 회사 측에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내린 폐업조치로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인성전자와 인우테크레코는 서로 법인만 다를 뿐 한 건물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인성·인우(주) 노동자들은 8월 17일 '임금 30% 인상', '보너스 400% 지급'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농성에 들어갔으며 이 농성과정에서 곧바로 노조를 결성하였다. 노조결성 후 노조를 중심으로 더욱 굳게 단결된 투쟁을 벌여 파업농성 4일만에 요구조건을 모두 관철시켰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8월 24일 일방적인 휴업조치를 내린 후 노동자들 집을 찾아다니며 "너희들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 '해고시켜 버리겠다'는 등 회유와 협박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은 장기간 계속되는 휴업으로 지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9월 10일 월급날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면 부도가 난다. 그래서 월급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도장을 찍고 조업을 재개하면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4차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20%', '보너스 500%' 등으로 요구조건을 내려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가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폐업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인성·인우(주)에는 산업체 야간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학생들에게 회사의 폐업이란 곧 배움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학생들은 ‘회사가 폐업하면 안된다’며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투표에 의하여 회사 측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9월 15일 회사 측의 요구조건에 합의였고 9월 16일 사장이 나타나서 서명을 하고 노조임원들과 함께 조합원 앞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장은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 미루기만 하더니 9월 21일 드디어는 인우테크레코(주)만 두고 인성전자(주)는 폐업조치를 하였다.

결국 회사 측의 의도는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나가는 노조의 파괴에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조』 호외 6(1987. 09. 2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516757)

## 08. 18

- 경동산업 노동자 800여 명, ‘임금 인상, 어용노조 퇴진’ 등을 요구하며 영창악기 앞까지 가두행진 전개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대양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회사는 효성동에 위치. 랜드로바 제조업체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대영기계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회사는 효성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동부제강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명성전자 노동자 40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몬트레스공업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회사는 청천동에 위치

## 1987년

-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삼지실업 노동자 20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승일제관 노동자 20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신영전기 노동자들, '직급제 폐지, 기본급 인상, 강제휴업철폐' 등을 요구하  
며 농성 돌입  
『투쟁의 소리』 제1호(1987. 08. 19,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397782)
- 이견산업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이화산업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이화산업은 석남동에 위치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인천조선 노동자들, 회사가 휴업조치를 내리자 가두로 진출해 크레인 등으  
로 도로를 차단한 채 연좌농성 벌임.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을 시작해  
일단 해산했다가 지게차를 끌고 나와 다시 농성을 시작함. 오후 3시경 해  
산함  
『노동상담소식』(1987. 08. 21,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61798)
- 청보산업 노동자 80여 명, 옥상을 점거하며 파업 농성 돌입. 당일 노동조합  
결성. 청보산업은 남구 도화동에 위치하며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16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음  
「사업장 실태조사서」(1988. \*. \*, M00444615)  
「노동현장보고서」 7(1988. 05. 01, 일꾼노동문제 정보센터, M00836863)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국강관 노동자 300여 명, '어용노조 퇴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  
성 돌입  
『경향신문』 제12890호(1987. 08. 19, 경향신문사)
- 한국보훈복지공단 목재사업소 노동자 12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0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일튜브공업 노동조합 결성식 개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 91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여음, 거름)

## 08. 19

- 인천세광병원 노동조합 결성

『함께 가는 여성』 제5호(1988. 01. 10, 한국여성민우회, M00856797)

- 경동산업 노동자 300여 명, 구사대 400여 명과 충돌해 부상자 발생

『경향신문』 제12891호(1987. 08. 20, 경향신문사)

- 삼화실업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1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인천조선 노동자 400여 명, 크레인 1대, 지게차 5대 등을 앞세우고 거리로  
나와 농성을 벌임

『경향신문』 제12891호(1987. 08. 20, 경향신문사)

- 청보산업 노동자 200여 명, '일당 1500원 인상, 상여금 500% 지급, 법정 휴  
일보장, 각종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시작

『투쟁의 소리』 제3호(1987. 08. 28,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884480)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소식지 『투쟁의 소리』 제1호 발행

『투쟁의 소리』 제1호(1987. 08. 19,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397782)

- 제물포택시 노동조합, 현판식을 거행하며 창립

『제물포노보』 제1호(1987. 11. 06, 제물포택시(주) 노동조합, M00049475)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결성

『노동상담소식』(1987. 08. 21,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61798)

- 태평양물산 노동자 10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1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국분말야금 노동자 10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1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국타포린 노동자 12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1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1987년

- 현대페인트 노동자 20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1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오룡실업·홍부합섬·대한전기공업사·영창인물·삼익전자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1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08. 20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파업 농성 돌입  
『노동상담소식』(1987. 08. 21,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61798)
- 하인벨 노동자 20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노동상담소식』(1987. 08. 21, 기독교 노동상담소, M00361798)
- 홍일산업 노동조합 결성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1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홍일산업 노동조합 결성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1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영풍기계 노동자 6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2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신성무역 노동조합 결성 인정 받음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2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양공영 노동자 200여 명,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2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08. 21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창립취지문 발표  
「공실위 창립에 관한 알림과 협력요청」(1987. 08. 31, M00354318)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 (창립취지문)

지금 우리는 전 국민의 힘으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승리해 가는 가슴 벅찬 순간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인천을 비롯한 울산, 부산등지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공장, 광장, 운수 등의 전 산업의 분야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근로조건 개선, 민주노조 건설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광범한 민주화 투쟁으로의 진출과, 노동자들의 민주화 투쟁에서의 중심된 지위와 역할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나는 6월 투쟁을 뒤이은 7,8월의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쟁취해 나가는 투쟁의 대열에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 부천지역의 남일금속, 코리아 스파이서, 경원기계, 영창악기 등의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의 승리, 한독금속, 태연물산 등을 비롯한 20여 개의 민주노조의 건설, 서울조구, 성진운수, 대일화학기계 등을 비롯한 임금재인상, 하기휴가 쟁취, 근로조건개선 투쟁의 승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는 어용노조 민주화투쟁, 민주노조 건설투쟁, 휴업조치 철폐투쟁, 기타 제반의 공장내 민주화 투쟁이 하루에도 500여 곳에서(인천·부천지역은 하루에 60여 곳) 벌어지고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가와 독재권력의 공격도 신속하고 치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8월 1일 자본가, 독재권력 연합의 '노동대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앵무새인 언론을 통해 "근로자들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으며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합법절차를 무시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 "국민경제가 위태롭다, 외부 불순세력은 뿌리뽑겠다"며 노동자들의 단결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민주화 투쟁을 비방, 호도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대우자동차, 경동산업 삼익악기 등에서 보여지듯이 대화하고 뛰고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조치를 하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도리어 국민경제 혼란, 서민생활 불편 운운하며 사회적 혼란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양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급기야 불순 외부세력, 용공좌경, 폭력 노동자, 학출 노동자 구속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이러한 민주화 투쟁을 불순분자에 의한 난동으로 매도하고 또다시 노동자의 머리와 가슴에 노예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려는 음흉한 탄압의 발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박종철 고문살인의 원흉인 치안본부 대공3과를 전원 복귀시켜 노동자들의 애국적 투쟁을 불순난동으로 탄압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나가고 있으며, 대우조선에서 보여지듯이 무차별 최루탄을 쏘아 수많은 부상자를 속출시키고 살인(이석규 동지, 21세)까지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일금속, 한세실업, 태연물산, 인천조선 등에서 보여지듯이 폭력배를 고용하고 전경을 동원하여 살인적 폭력과 탄압을 휘두르면서, 한편으로는 대우중공업, 한국종합기계 등에서 보여지듯이 어용노조를 통해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을 기만적으로 들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을 떡고물에 안주시켜 더 이상 나서지 못하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독재권력, 재벌, 언론이 일심동체가 되어 한손에는 떡을 들고 한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기만적 양보와 살인적 탄압을 행하며, 노동조합으로 결집된 노동자의 힘이 지역별, 산업별, 전국적으로 연대해 나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군부독재의 끝장과 민주정부의 수립을 뜻하는 것이며,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쟁취되는 것인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노동자들의 전국적 투쟁이 지역적, 전국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나가고 연대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독재정권의 끝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진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재권력이 노골적인 탄압의 발톱을 내세우고 있는 이때, 각 사업장마다 튼튼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이것을 지역적, 전국적으로 결속시키며 연대투쟁을 벌여나가는 일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쟁취와 이 나라 민주화의 사활을 건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음모와 분열책동, 탄압과 기만적 양보를 물리치고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고 대우받는 공장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단결과 결속은 아직 미흡합니다.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투쟁의 강력한 무기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못하거나, 노동자를 기만하는 어용노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저들의 회유와 협박, 거짓선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적을 바로 보고 있지 못하며 노동자의 강철과 같은 힘을 믿지 못하며 분열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연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쟁취된 민주노조도 사업장별로 고립되어 있고 지역적, 전국적으로 결집되어 있지 못합니다. 오직 어용노조의 지역, 산별, 전국조직만이 판을 치며 이를 물리치는, 1천만 노동자의 힘을 강철과 같이 묶어 세우는 민주적인 노동자의 연대조직을 (민주노조 연합)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역내의 제반 노동운동 단체와 역량들은 분산되어 있어서 광범한 지역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일적으로 수렴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현재의 이러한 노동자들의 민주화 투쟁을 가일층 전진시키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광범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이들 민주노조간의 튼튼한 연대를 가짐이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로 나서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통일적이고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기 위해 지역내 제반 지원역량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그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공실위)가 하는 일

- 一. 공실위는 인천, 부천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투쟁과 민주노조 건설투쟁, 기타 공장내 민주화 투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수행합니다.
- 一. 공실위는 인천지역 민주노조들의 튼튼한 연대조직인 인천지역 민노연합을 건설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수행합니다.
- 一. 공실위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탄압에 대한 공동대책활동과 타지역과의 협조를 위한 연대 활동을 수행합니다.
- 一. 공실위는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모든 교

육, 홍보, 상담활동을 지원합니다.

- 一. 공실위는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역내 노동운동 역량과 지속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나갑니다.
- 一. 민주노조건설 전문 지원조직인 공실위는 민주노조 연합이 건설되어지는 것을 그 조직적 목표로 하여 이의 튼튼한 건설과 함께 그 역할을 종결합니다.

1987년 8월 21일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763-2987)

공동위원장 : 유동우, 오순부, 박일성, 조금분

한국기독교노동자인천지역연맹(763-2987),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74-4880)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72-579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면서(창립취지문)」(1987. 08. 2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59166)

• 대림통상 노동조합 주안공장 지부 결성

「88년 상반기 인천지역 노동운동탄압 자료집」(1988. 06. \*, M00535391)

• 영신연탄공장 · 대원강업 · 대중공업 · 삼원트레이딩 · 기상전자 · 신원포장 ·  
동남철강 · 영신산업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2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08. 22

• 한일튜브공업 노동자들, 회사 측 관리자들이 ‘사원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3명의 학생출신 노동자들을 ‘사회 불순분자’라  
고 중방할 것을 요구하자, 논의 끝에 이들 3명을 감금함. 감금당한 3명은  
곧 경찰에 연행됨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 91~92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엮음, 거름)

• 동신공업 노동조합 결성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2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서울엔지니어링 노동조합 결성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2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한국웨어라이트·천일식품·서울제강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2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08. 23

• 진성전자 노동조합 창립. 조합원 약 60여 명

「진성전자 노동조합정상화 투쟁보고서」(1991. 08. \*, 진성전자 노동조합, M00853190)

• 인천제철 노동자 1000여 명, '임금 30% 인상, 상여금 600% 지급, 부당한  
부서 이동 철회, 3교대 근무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투쟁의 소리』 제3호(1987. 08. 28,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884480)

• 영창인물 노동자 60여 명, '임금 기본급 5만 원 인상, 상여금 500% 지급,  
공휴일 휴무, 중식무료'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투쟁의 소리』 제3호(1987. 08. 28,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884480)

• 덕창기업·동양튜브·대한제분·신명물산·한국자동기(주)·후지테크 코리  
아·원진산업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3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08. 25

• 새한미디어 노동자 1500여 명, '회사 측과 안기부가 한 통속이 되어 노조를  
만들려고 하던 13명의 노동자들을 충주까지 끌고가 집단폭행'한 사건에 대  
하여 항의하며 파업농성 돌입

『민주노조』 호외 2(1987. 08. 3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516753)

• 동양철관 노동자들, '강제잔업 철폐, 임금 305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  
시작

『투쟁의 소리』 제3호(1987. 08. 28,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884480)

• 영착악기 노동자 1000여 명, 동부제강 앞에서 가두 연좌 시위 벌임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3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동양철관 · 캄파리서울 · 삼원트레이딩 · 아성기업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3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영동금속 · 덕수산업 · 고려산업개발 · 대신산업 · 선미산업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3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08. 26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창립. 1987년 봄 비공개 조직인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 일동'을 공개활동으로 전환하여 창립하고 신문 '민주노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배포하였으며 인노협 건설 이전 인천지역 노동운동의 실질적인 구심역할을 하였고 이후 1988년 10월 26일 부서원들 전체의 합의에 따라 '인노협과 인노우협이 인천지역의 노동운동을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실위의 조직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공식적인 해체를 선언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보고서-인천』

- 동양철관 노동조합 결성

『투쟁의 소리』 제3호(1987. 08. 28,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884480)

- 새한미디어 노동자들, '납치 · 감금 · 폭행 진상규명하라', '사장은 공개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

『현장투쟁 상황일지』(1987. 08. 26, M00406515)

『투쟁의 소리』 제3호(1987. 08. 28,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884480)

-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홍영표 · 박재석 · 김남현 · 이성재, 아침 8시경 회사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연행 당함.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임금 3만 원 인상, 어용노조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에 돌입

『현장투쟁상황일지』(1987. 08. 26,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406515)

『투쟁의 소리』 제3호(1987. 08. 28,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884480)

- 인천제철 노동자들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며 새 조합장 선거 실시

『투쟁의 소리』 제3호(1987. 08. 28,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M00884480)

- 영창악기 노동자 1000여 명, 오후 2시 30분경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농성 시작. 오후 5시 30분경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작하여 10여 명이 연행됨. 회사 안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은 다시 돌을 던지며 시위를 하였으나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제지하자 회사 안으로 다시 철수함

「현장투쟁상황일지」(1987. 08. 26,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406515)

## 08. 27

- 인천제철 노동자 700여 명, 오후 2시경 지게차, 소방차, 덤프트럭 등을 앞세우고 공장을 나와 송현파출소 앞까지 진출, '민주노조쟁취, 위험수당지급'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다 오후 9시쯤 회사로 돌아감

『경향신문』 제12898호(1987. 08. 28, 경향신문사)

- 새한미디어 노동자 1500여 명, 8월 11일부터 시작된 파업 농성 중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인천시청에 접수시킴. 이 날 1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함. 그러나 인천시청에서 노조가 이미 접수되어 있다는 통보와 함께 노동조합 접수 서류가 반환됨

『민주노조』 호외 2(1987. 08. 3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516753)

- 진도 부평공장 노동자들, 회사 측이 어용지부를 결성하고 421원 임금 인상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해 '400원이 웬말이나, 1500원 건설하자', '지부장들을 직선으로 민주노조 건설하자!' 등을 내세우며 1주일간 파업 농성 전개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 금영실업 · 신방전자 · 신도실업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4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대한중기 · 진진양행 · 신주실업 · 흥창물산 노동자들, 파업 농성 돌입

『'87인천지역 7·8월 노동자투쟁』, 13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M00441617)

## 08. 28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남구 도화동 392-3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사무실로 이전함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강화관광노동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 강화군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

1987년

「노동조합설립신고증」(1987. 09. 03, 강화군수, M00363362)

- 진진양행 노동자 150여 명, '일당 1000원 인상', '보너스 400%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농성 돌입. 농성 중 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을 정식 출범시킴

『민주노조』 호외 2(1987. 08. 3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516753)

#### 08. 29

- 진진양행 노동자 150여 명, 전 날인 8월 28일부터 '일당 1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에 들어갔다가 요구조건을 100% 관철시키며 회사 측과 서면 합의를 봄

#### 〈합의서 주요 내용〉

- 현행책정 임금에서 일률적으로 1000원을 인상한다
- 보너스는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400%를 지급한다
- 폭언관리자는 서면으로 공개사과하고 폭언이 재발할 시 즉시 처벌한다
- 1987년 8월 28일부터 발생한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분규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여하한 이유로도 불이익 처분하지 아니하며 그 신분을 보장한다.
- 차후 특정 근로자를 관리자가 사적 감정에 의하여 작업부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민주노조』 호외 2(1987. 08. 3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516753)

- 인천제철, 노사분규로 인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감

『경향신문』 제12899호(1987. 08. 29, 경향신문사)

#### 08. 30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민주노조』 창간호 발행. 『공장의 소리』(제1호·제2호)를 이어받아 발간하였다고 밝힘.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비공개 자료로 『공장의 소리』를 본보 2회, 속보 6회에 걸쳐 발행하였으며, 이후 공식 사업으로 1988년 10월까지 『민주노조』를 본보 23회, 속보 15회, 임투속보 17회, 선거속보 3회 발간하였음

『민주노조』 창간호(1987. 08. 30,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516753)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대영운수 노동조합 결성. 대영운수는 작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차량 24대에 기사 56명이 근무

『대영노조』(속보) 철야농성 17일째(1987. 10. 10, 대영운수 노동조합, M00049454)

『인천운수노보』 특보(1987. 10. 02,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049501)

- 새한미디어 노동자 1500여 명, 8월 25일부터 파업 농성을 진행하던 중 ‘납치 · 감금 · 폭행에 대한 공개사과, 유령노조해체, 민주노조 인정, 아직도 생사불명인 이석윤씨 석방’ 등의 요구사항을 회사 측이 거부하자 회사 본관 건물을 점거함

『민주노조』 호외 2(1987. 08. 3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516753)

## 08. 31

- 삼양유지사료 인천공장 노동자들, 9월 1일까지 파업농성 전개

「경찰공권력 투입에 의해 강제해산된 삼양유지사료(주) 노동쟁의 사건 진상보고서」(1989. 04. 28, 인천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인권위원회, M00855971)

## 09. 01

- 한영알미늄 노동자들, 파업 농성 중 구사대의 투석으로 26명이 부상 당함

「민주노조 앞장서서 폭력탄압 물리치자!」(1987. 09. 05,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95188)

- 삼양유지사료 인천공장,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 법정공휴일 특근수당 지급, 자녀 학자금 지급, 하기 휴감 치 휴가비 지급, 분기별 100% 상여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작성

「합의서」(1987. 09. 01, 삼양유지사료(주) 인천공장, M00855983)

- 파업 중인 대우전자 인천공장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감

『경향신문』 제12902호(1987. 09. 02, 경향신문사)

## 09. 02

- 한영알미늄 노동자들, 회사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파업 농성을 진행하던 중 소방차를 동원한 경찰의 진압으로 10여 명이 연행됨

「민주노조 앞장서서 폭력탄압 물리치자!」(1987. 09. 05,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95188)

「군부독재의 노동자탄압 단결하여 분쇄하자!」(1987. 09. 15,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82138)

-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가두시위를 하던 중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4명의 중상자가 발생함

「민주노조 앞장서서 폭력탄압 물리치자!」(1987. 09. 05,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95188)

1987년

09. 03

- 인천지역에서 빈민운동을 해오던 중견그룹들이 일정한 협의 형태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송현산마루교회에서 첫 번째 실무자 전체모임을 개최

「인천 도시빈민지역 활동가 모임」(1987. 11. 06, 인천 도시빈민지역 활동가 모임, M1987.11.06.)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서원 전체회의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09. 04

-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파업 철야 농성 중 경찰 22개 중대 2900여 명이 새벽에 진압을 시작하여 100여 명이 연행됨

「민주노조 앞장서서 폭력탄압 물리치자!」(1987. 09. 05,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95188)

『동아일보』 제20284호(1987. 09. 04, 동아일보사)

09. 06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인천·부천 시민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답동 성당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출범.

〈임원 명단〉

- 고 문 : 김병상, 최세웅, 유병찬, 명화섭, 유제연, **안동섭**
- 공 동 대 표 : 이근창, 주복균, 오순부, 제정구, 이호웅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발기 및 창립대회」(1987. 09. 06, M00043617)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임원 주소록」(1987, M00408967)

『민주인천』 창간호(1987. 10. 24,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M00211670)

『인천주보』 제888호(1987. 09. 06, 천주교 인천교구)

창립 선언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를 결성하며-

반외세·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어난 갑오농민전쟁 이래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유화를 위한 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은 6월 민주화대행진은 연인원 수백만 명이 동원되어 전국 40여 개 도시와 군속제지를 중심으로 20여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져 결국



승리를 쟁취하였다. 현행 헌법으로 집권연장을 기도하던 미국과 군부독재정권은 거대한 국민의 힘 앞에 굴복하여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 국민은 6월의 항쟁을 통해서 비로서 역사의 주인으로 일어섰으며 노예적인 삶을 끊어버리고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승리에 불과하다. 미국과 군부독재정권은 여전히 막강하며 국민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6·29 노태우 선언은 현정권의 퇴진과 완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 앞에 부분적이고 마음 내키지 않는 민주화 조항을 몇 개 던짐으로써 국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민의 변혁에의 요구와 열망을 타협과 개량으로 희석시키고 운동의 핵심세력을 급진 용공좌경으로 몰아 국민으로부터 분리하여 탄압·약화시켜서 자신의 재집권을 용이하게 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적 승리를 딛고 임금 인상, 어용노조 퇴진, 민주노조 건설 등 대중의 일상적 경제투쟁이 광범위하게 분출되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한편으로 저들의 개량화 전술에 말려들어 반군부독재투쟁 전선이 부분적으로는 동요하고 있다. 전선에 배치되었던 세세력 중 일부는 관망상태로, 또 다른 일부는 정확한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모험주의적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6월 항쟁에서 보여진 국민들의 투쟁이 저들의 의도대로 개량적으로 희석되어 또다시 저들의 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광범한 진출로 민족·민주운동의 커다란 진전을 이룩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과 군부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은 다시 노골화하기 시작했으며, 국민생활 곳곳에서 음모와 폭력, 기만과 회유, 협박으로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세력은 국민과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도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때 군부독재정권의 온갖 음모와 책동을 분쇄하고 국민의 변혁적 에너지를 한 데로 모아 각 부문의 산발적 투쟁을 총체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범국민 차원의 투쟁방향 제시와 함께 전열의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6월 민주화대행진 과정에서 국민운동의 강력한 힘과 국민운동본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전역량을 결집하여 반군부독재 투쟁전선을 광범위하게 구축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세의 인식에 입각하여 인천·부천지역 내 반군부독재 민주주의를 위한 범국민

적 연합으로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를 결성한다. 인천 본부의 결성으로 운동의 통일성과 대중성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작은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반목을 해왔으며, 그로 인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드러이 지지를 잃어왔던가. 또한 이념적 당위성과 원칙만을 강조하여 국민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일이 많았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또한 국민 스스로는 투쟁에 동참하고 싶어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열기가 사그러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여 크게 하나가 되고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직접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인천본부’는 전국 각 지역 국민운동본부 및 지부와 상호지원·협력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투쟁을 벌려나갈 것을 다짐한다.

첫째, 군부독재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 땅에 군부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지 26년, 국민의 최대 염원은 군부독재의 퇴진임이 6월 항쟁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군부독재가 스스로 퇴진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독재세력이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여 물러나는 경우란 없다. 오직 국민의 힘만이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저들을 퇴진시키는 방법을 배제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군부독재 정권이 정당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 구성까지의 모든 정치 일정을 바르게 이끌어 갈 공신력 있는 정부의 구성 및 모든 민주인사에 대한 공민적 제한이 철폐되어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선거는 정통성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야 말 것이다.

둘째, 군부독재정권을 지원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외세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치·경제·군사·문화적으로 예측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제반현실을 극복하고 조국의 자주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외세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신식민주의적 자세를 반성하고 상호 주권을 가진 자주민으로서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세계평화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 민주주의의 철저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화

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해 온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전면석방, 수배해제, 사면·복원, 모든 해고자의 원직·복직, 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결사의 자유, 최저임금, 8시간 노동제, 노동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것은 저들의 민주화 의지를 시험하고 저들의 기만성을 폭로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쟁취되는 일반적·형식적 자유를 기초로 하여 진정으로 국민대중에 기초를 두는 민주주의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광범위한 생존권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정권은 이를 혼란과 국가안보 위협으로 몰아세워 군부의 전면적 재등장을 위한 구실로 삼아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민주화의 실질적 과제로써 적극 옹호하고 방어할 것이며 이 문제야말로 오히려 현정권의 민주화 운운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증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인간해방의 대도를 걸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폭력과 기만,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사회에 평화와 정직, 정의의 새 숨결을 불어 넣어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압제하고 있는 저들마저도 인간화시켜 내는, 그리하여 성숙한 인간이 사는 밝은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미래는 우리의 것.

민주화는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을 추진하는 힘은 국민 스스로의 단결된 힘 뿐이라는 6월항쟁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국민운동 인천본부는 조국의 자주와 민주주의, 평화적 민족통일을 위하여 전진하는 인천·부천지역 시민들의 연합체로서 어둠을 뚫고, 찬란히 밝아오는 신새벽의 태양을 향해 우리 모두 달려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민주주의 만세!

조국의 자주화 만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만세!

1987. 9. 6

1987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발기 및 창립대회



- ☐ 일시 : 1987년 9월 6(일) 오후 3시
- ☐ 장소 : 답동성당
- ☐ 주최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인천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문의전화 862-9641)

**국민의 힘으로 민주정부 수립하자!!**

250-150-1-56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창립대회 안내 유인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발기 및 창립대회」(1987. 09. 06,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결성준비위원회, M00043617)

09. 07

- 금영실업 노동조합 결성. 금영실업 노동자들은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임금 인사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농성 중 노동조합을 결성함. 회사는 효성동 225-2, JC공원 옆에 위치

『금영소식』 제1호(1988. 04. 19, 금영실업 노동조합, M00097405)  
『새아침새소식』 제6호(1987. 10. 21, 태연물산 노동조합, M00398697)

09. 11

- 경동산업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를 하루 앞둔 이날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습격해 총회를 준비하던 임원들을 폭행하면서 노조민주화가 무산됨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09. 13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답동 성당에서 황인철 변호사를 초청하여 「6·29선언 8개항의 허와 실, 민주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의평화 월례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889호(1987. 09. 13, 천주교 인천교구)

- 해인교회, 해인청년회 조직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09. 15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 인천지역 민주노조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9월 2일 벌어진 구사대의 한영알미늄 농성 진압 사태 등과 관련해 '군부독재의 노동자탄압 단결하여 분쇄하자!'는 제목의 유인물을 공동 명의로 작성 · 배포함

「군부독재의 노동자탄압 단결하여 분쇄하자!」(1987. 09. 15,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외, M00882138)

- 서울지검 공안1부, 부평공단 부근에 '좌경용공학습소조 결성을 위한 비밀아지트'를 만들어 '민족해방 민주민주혁명 달성을 위해 노사분규 현장침투를 기도'한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발표함

『경향신문』 제12913호(1987. 09. 15, 경향신문사)

09. 16

- 천주교 인천교구 부평노동사목, 9월 9일 · 16일 · 23일 · 30일에 산곡동 성당에서 「노동법 무료 강좌」 개최. '노동자란 누구인가?', '근로기준법이란?', '노동조합법이란?',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는?' 등을 주제로 강연

『인천주보』 제887호(1987. 08. 30, 천주교 인천교구)

09. 17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09. 18

- 동안물산 생산직 노동자 이예교, 9월 14일 아침 조회가 끝난 후 회사 밖으로 끌려나온 후 출근이 저지된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하며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진정서 제출. 동안물산에서는 9월 14일 또 한 명이 강제사직당했으며 9월 15일부터 이들 두 명의 노동자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출근투쟁을 벌임. 동안물산 해고자들은 출근이 계속 저지당하자 9월 16일 관리자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봉고차에 실려 서울 외곽으로 이송당함  
「진정서」(1987. 09. 18, 이예교, M00407586)  
「[신방전자 외 3업체의 노조 관련]」(1987. \*. \*, M00409029)  
「동안 현장 동료 여러분께」(1987. 09. 17, 동안물산(주) 해고자, M00411386)

09. 19

- 학익동 교도소 8사에 수감중인 양심수들, 9월 23일까지 4일간 '구속자 석방, 관제언론 폐기, 군부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단식 농성  
『인천민주가죽』 창간호(1987. 10. 22, 인천지역 구속자가족협의회, M00213624)

09. 20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답동 성당에서 「언론왜곡 보도 및 노동운동 폭력탄압 규탄 인천시민대회」 개최  
『정의평화』 제11호(1987. 10. 01,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8973)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 가톨릭노동청년연합회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군부독재의 폭력만행, 대량구속 분쇄를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민주노동단체, 민주노조,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군

부독재와 매스컴의 왜곡비방,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은 결코 왜곡, 비방될 수 없으며,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모든 조직은 기필코 사수되어야 한다-

2. 우리는 구속된 모든 노동자와 민주인사들의 완전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는가? 진정한 죄인은 이 모든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살인, 강간, 고문을 일삼는 저 군부독재와 그들의 하수인이다. 심판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인 것이다-

3. 우리는 군부독재와 이를 조정, 비호하는 미국에 맞서 투쟁하며, 노동자와 민중의 권익이 완전히 보장되는 완전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기필코 쟁취해야 한다.

- 지금 미국은 노태우를 미국에 불러들여 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 수호자가 아니라 독재를 조정, 지원하며 갖은 이권을 다 챙겨가는 또하나의 억압세력일 뿐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하며 참된 민주정부는 기필코 쟁취되어야 한다-

4. 우리는 모든 애국시민, 청년, 학생들과 강력히 연대한다.

- 민족 자주권의 회복과 군사독재의 완전 종식은 모든 민주세력의 공동과제이다. 우리는 모든 민주진영이 노동자의 투쟁에 강력히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굳은 연대를 제안한다-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군부독재의 대량구속 분쇄를 위한 우리의 결의」(1987. 09. 20,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 가톨릭노동청년연합회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M00884896)

## 09. 24

• 대영운수 노동조합, 회사 측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자 파업 돌입

『인천운수노보』 특보(1987. 10. 02,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049501)

## 09. 25

- 민주교육추진 인천지역 교사협의회(인천교협), 주안5동 성당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성당으로 이동하여 인천·부천지역 현직 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거행. 회장 오원석(소명여중), 부회장 조용명(박문여고) 선출. 10월, 북구 십정동 천주교회 내에 사무실 마련. 인천교협 소속 교사들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실천을 위한 자주적인 교사 단체의 결성’ 필요성을 느껴 8월 24일부터 모임을 시작해 옴

「민주교육추진 인천지역 교사협의회 총회」(1988. \*. \*, 민주화교육추진 인천지역 교사협의회, M00413350)

『인천교사신문』 창간호(1987. 10. 01, M00412457)

『민주인천』 창간호(1987. 10. 24,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M00211670)

- 세일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 출범.

「창립선언문[세일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1987. 09. 25, M00412893)

「인천교사신문 창간호」(1987. 10. 01, M00412457)

#### ‘세일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 창립 선언문

우리는 세일고등학교의 교육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평교사들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일고등학교는,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내는 엄숙한 사명감의 실천장이자 우리 자신들의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세일고등학교가 국민의 의사에 호응하는 민족사학으로 육성 정립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는 데에는 세일고등학교의 평교사들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들이 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적인 변혁을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기를 맞이하여, 교육의 주체임을 자각해야 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물론 혼란만을 가중시키려는 경거망동성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경계심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고해서 더 이상 강요된 침묵에 순응하거나 위장된 질서 속에 안주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동안 입시공장과도 같은 교육여건에 대해서 스승인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며, 형식 위주의 온갖 잡무 속에서 우리 교사들은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어야 했는가? 이러한 왜곡된 교육 현장을 바로 잡으려는 인간된 노력들은 또한 독단적인 관료 구조 속에서 얼마



나 무력하게 희석화되어 왔는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해 갈 때가 이미 오래 전에 경과하였음은 이로써 명백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아직 유약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일고등학교의 전통을 새롭게 들어 올려 적극적인 실천으로 다져 나가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가장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법칙에 의거하여 민주적으로 해결될 때만이 그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학생과 관계된 제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저해하는 제반 요소들을 척결하는 데 우리 모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그 실천의 기초로써 '세일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의 창립을 선언하고자 하는 바이다.

명예로운 세일의 모든 양심교사들이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견결한 연대로써 교사 상호간의 신뢰적 기풍을 확립해 나가자! 단결된 힘으로 올바른 교육을 실천하고 교사의 권리를 굳세게 확보해 나가자!

1987. 9. 25

세일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

「창립선언문[세일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1987. 09. 25, M00412893)

## 09. 26

- 동일운수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상조회비 부당지출금 즉각 반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동일운수는 용현동에 소재하며 차량 78대에 기사 174명 근무. 조합원은 173명임

『인천운수노보』 특보(1987. 10. 02,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049501)

## 10. \*

-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설립

「인천기독교 민중 교육 연구소의 설립에 즈음한 인사의 말씀」(1987. 10. \*, 허병섭 · 박종렬, M00408133)

##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의 설립에 즈음한 인사의 말씀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의 설립에 즈음하여 안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인천 민교연은 한국 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소장 : 허병섭 목사)의 지역 연구소로서 설립되었습니다. 당 연구소는 노동자의 도시 인천에서 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 상담, 연구, 출판 활동을 본 사업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이미 지역 내에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공개적 기구나 여러 공간들이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참여도 이러한 성과 위에서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 또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당 연구소는 운수노동상담실과 민중교육연구실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수노동상담실은 일만명에 이르는 인천지역의 운수 노동자들에 대한 공개지원단체의 역할을 담당하려 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운수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사고 등의 위협에 항상 직면해야 하는 노동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운수 노동운동은 쉽게 지역연대투쟁으로 전개되고 투쟁양상도 폭발적인 형태를 보이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운동 단체 중 운수 분야를 전담, 지원하는 것으로는 서울의 ‘박종만 추모 사업회’ 밖에 없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인천 민교연 내 운수노동상담실은 상담활동, 교육활동, 신문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운수 노동운동에 일익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민중교육연구실은 지역내의 대중사업 중에서 특히 교육분야에 중점을 두고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교육자료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 연구소는 이러한 필요성에 미력이나마 기여하려 합니다. 노동자, 도시빈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민중의 올바른 의식을 배우고 연구하여 지역민중들을 위한 교육, 상담, 연구, 자료 발간 사업에 주력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87. 10

이사장 허병섭  
소장 박종렬

「인천기독교 민중 교육 연구소의 설립에 즈음한 인사의 말씀」(1987. 10. \*,  
허병섭 · 박종렬, M00408133)

#### 10. 01

- 신광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김풍걸 · 조직부장 김승환 · 여성부장 나옥숙 · 교육선전부 차장 신문희 등 4명, 회사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연행됨. 이들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 회사측으로부터 9월 30일까지 퇴사할 것을 강요받아 왔음

『민주노조』 호외 7(1987. 09. 05, 인천지역 민주노동조합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516758)

- 민주교육추진 인천지역교사협의회, 기관지 『인천교사신문』 창간. 편집인은 오원석, 조용명, 원종찬. 경인교협이 발족한 후 1988년 3월 1일자 4호부터 「경인교사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다가 9호(1988. 11. 01)부터 다시 「인천교사신문」으로 개제하여 발간.

「인천교사신문 창간호」(1987. 10. 01, M00412457)

「경인교사신문 제4호」(1988. 03. 01, M00007794)

『인천교육노동운동사』 1, 94쪽(전국교직원 노동조합, 2006)

#### 10. 02

- 신광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됨

『동아일보』 제20309호(1987. 10. 03, 동아일보사)

#### 10. 03

- 인우테크레코 노동조합 현판식 거행

『사막의 샘』 제2호(1987. 10. 17, 인우테크레코 노동조합, M00884674)

#### 10. 05

- 서울시경찰국, 부평지역 공장들에 취업해 노동자들에 대한 ‘학습과 선동’을 실시해 온 ‘인천지역 노동자해방 투쟁위원회’를 적발,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을 수배했다고 밝힘.

『동아일보』 제20310호(1987. 10. 05, 동아일보사)

## 10. 06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능곡 평화의 집에서 민주노조 간부 세미나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10. 10

- 인천지역 14개 신규노동조합 간부 35명, 10월 11일까지 신규노조 간부수련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10. 13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민중대학」 개강식 개최. 「제5기 민중대학」은 12월 1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운영

## 〈강의 일정표〉

| 일시     | 1교시(7:30~8:30)                       | 2교시(8:40~9:40)                     |
|--------|--------------------------------------|------------------------------------|
| 10. 13 | 개강식                                  | 노래패 ‘들풀’ 초청 공연                     |
| 10. 15 | 6·10민주화투쟁 이후의 정세변화<br>이명준(국민운동본부)    |                                    |
| 10. 20 | 식민지 시대의 항일 민족운동<br>강만길(고려대 교수)       |                                    |
| 10. 22 | 민족문화와 역사의식<br>최원식(인하대학교 교수)          | 대동놀이<br>가톨릭청년회 문화부                 |
| 10. 27 | 미국의 세계전략과 분단의 성립<br>양호민(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원조경제의 성격<br>김대환(인하대 교수) |
| 10. 29 |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과정<br>장을병(성균관대 교수)       | 4·19혁명의 재조명<br>장을병(성균관대 교수)        |
| 11. 03 | 작가와의 만남<br>황석영·고정희(시인)               | 작가와의 만남<br>황석영·고정희                 |
| 11. 05 | 한국경제의 대외종속 심화과정<br>유인호(중앙대 교수)       | 한국경제의 대외종속 심화과정<br>유인호             |

|        |                                        |                                            |
|--------|----------------------------------------|--------------------------------------------|
| 11. 10 | 70년대의 민주화운동<br>장을병                     | 제5공화국 성립과 배경(광주비디오상영)                      |
| 11. 12 | 한국정치에 대한 미국의 역할<br>이상우(기자)             | 핵과 한반도<br>최열(공해문제연구소장)                     |
| 11. 17 | 미국의 경제적 위기와 한국경제<br>박현채(전 충남대 교수)      | 수입개방 압력과 농촌경제<br>박현채(전 충남대 교수)             |
| 11. 19 | 민족통일운동의 과제<br>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 민주화 운동과 언론의 기능<br>정상모(민주언론운동협의회)           |
| 11. 24 | 노동문제의 인식과 노동운동의<br>전개<br>김윤환(고려대학교 교수) | 80년대 노동운동의 현황과 전망<br>방용석(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노동상담소) |
| 11. 26 | 예수의 삶<br>정양모 신부(서강대)                   | 민중신학의 올바른 이해<br>강원돈(목사, 한국신학연구소 연구위원)      |
| 12. 01 | 여성문제와 여성운동<br>이우정(여성단체연합회장)            |                                            |
| 12. 03 | 농촌현실과 농촌운동<br>정호경 신부(가톨릭농민회 지도신부)      | 농촌현실과 농촌운동<br>이우재(농업문제연구소)                 |
| 12. 08 | 도시빈민과 재개발<br>제정구(천주교 도시빈민사목협의회회장)      | 도시빈민의 삶(상계동 비디오 상영)                        |
| 12. 10 | 교육의 현장<br>이오덕(아동문학 평론가)                |                                            |
| 12. 15 | 민주주의와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br>이해찬(정치평론가)       |                                            |
| 12. 17 | 종강제(마당극 공연)                            | 나눔의 시간                                     |

『인천주보』 제891호(1987. 09. 27, 천주교 인천교구)

「참 배움의 터전-제5기 민중대학」([1987. 10. 13],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M00209213)

## 10. 15

- 남구 학익동 산540번지 일대 50여 채 가옥 주민들, 포크레인을 동원한 1000여 명의 무장경찰·예비군 복장의 청년들·철거반원들에 의해 강제 철

1987년

거 당함. 하루 전 날인 10월 14일, 무허가주택을 명목으로 한 철거계고장이 발송된 바 있으며 주민들은 '대책없는 강제 철거 반대한다'며 저항함

『인천주보』 제896호(1987. 11. 01, 천주교 인천교구)

『민주여성』 제4호(1987. 11. 05, 한국여성단체연합)



〈학익동 산540번지 철거 현장〉

『사랑방 소식』 제2권 42호(1987. 11. 01, 송림사랑방교회, M00114702)

#### 10. 17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 기독교노동상담소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10월 15일 서울 국민운동본부에서 농성에 들어간 창원시 소재 통일산업 등 6개 사업장 농성 노동자들에 대해 「통일산업 등 6개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지지하며 현 정권의 노동자 탄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지지 성명서 발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통일산업 등 6개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지지하며 현 정권의 노동자 탄압을 규탄한다」(1987. 10. 17,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 기독교노동상담소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885122)

#### 10. 19

- 인천중앙병원에 입원 중인 산업재해환자 700여 명, 병원 전체를 점거하고 농성 돌입. '휴업급여 100% 지급', '노동부장관 면담', '최루탄 발사에 대한 사과' 등 요구.

『민주인천』 창간호(1987. 10. 24, M00211670)

## 10. 24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기관지 『민주인천』 창간.  
「민주인천 창간호」(1987. 10. 24, M00211670)

## 10. 28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화수동 성당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 촉구대회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진성전자 노동조합 총무부장 김미정, 해고 당함  
「노동현장보고서」 7(1988. 05. 01, 일꾼노동문제 정보센터, M00836863)
- 학익동 교도소에 수감 중인 구속 노동자들이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를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한 실천주간’으로 정하고 “1. 구속노동자 석방, 2. 해고노동자 복직 3.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3권 보장, 4. 서책제한 철폐, 5. 노동운동 탄압하는 군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 등을 전개  
『인천민주가족』 제2호(1987. 11. 27, 인천지역 구속자가족협의회, M00167738)

## 10. 29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안1동 성당에서 ‘공명선거를 통한 민간정부 수립’을 지향으로 하여 정의평화위원회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미사」 개최  
『인천주보』 제894호(1987. 10. 18, 천주교 인천교구)

## 10. 31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기만적 노동법 개정 규탄 설명서 발표. 같은 날 김영삼 민주당 총재와 42개 민주노조 간담회를 주선하는 한편, 「민주당에 보내는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제언」 발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 기독교 노동상담소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10월 28일 국회 보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만적인 노동법 개정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개정 노동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요구 조건을 제시함
  - ① 개정 노동법은 어용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의 민주노조 건설을, 어용 노총 및 연맹에 반대한 민주노조 연합의 건설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② 전두환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국보위에서 신설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과 박정희 군사 정권의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 ③ 노동쟁의 조정법은 냉각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10일(공익 사업의 경우 15일)로, 중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을 뿐 여전히 '자유로운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

- 1. 제2노조, 민주노조 연합의 자유로운 결성을 즉각 보장하라
- 1. 제3자 개입 금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즉각 철폐하라
- 1.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 1. 노동악법에 의해 구속된 권용복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 동지들을 즉각 석방하라

「성명서」(1987. 10. 3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 기독교 노동상담소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M00444539)

- 한광산업 노동조합, 9월 파업 농성 때 합의한 사항을 회사 측이 이행하지 않자 '미지급 추석보너스 50% 지급', '조합간부 2명 상근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시작. 이후 15일간 진행된 농성 과정에서 11월 9일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7명이 해고 당함

『민주노조』 호외 12(1987. 11. 2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3420)

## 11. \*

- 인천문화운동연합(약칭 인문연) 창립. 인문연의 기본사업은 선전 선동으로 인노협을 강화. 대공장 노조 민주화 투쟁을 통해 전노협 결성투쟁, 전교조합법투쟁, 반노전선의 강화로 집중되도록 공연을 통한 선전 선동을 수행해 나감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보고서-인천』

## 11. 01

- 제물포택시(주) 노동조합, 『제물포노보』 창간호 발행

『제물포노보』 제1호(1987. 11. 06, 제물포택시(주) 노동조합, M00049475)

## 11. 03

- 진흥요업 노동자 김성애, 북구 구산동 소재 중앙병원에서 치료 중 투신하



여 사망. 김성애는 1985년 16세의 나이로 학익동 소재 진흥요업에 들어와 근무하다 쓰러져 3개월 간 혼수상태로 있다가 깨어났으며 이후 산업재활원을 거쳐 중앙병원에 입원중이었음. 10월 16일, 중앙병원 산재환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자 김성애는 이를 보고 관계 부처에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이를 비판하여 자살함. 당시 김성애의 가족들이 회사 측과 합의하여 치료비 이외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였으며 각서에 대한 공증도 끝난 상황이었음

『민주노조』 호외 10(1987. 11. 05,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7606)

『인천주보』 제897호(1987. 11. 08, 천주교 인천교구)

### 11. 07

- 진흥요업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입원 중 자살한 김성애의 노제가 부평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장례행렬이 송내삼거리를 지나던 중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당함

「성명서 -고 김성애 산업재해 열사의 장례식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현 정권의 폭행 책임자를 처단하라」(1987. 11. \*, 민주쟁취 국민운동인천본부 노동자공동위원회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03033)

### 11. 08

- 국민운동 인천본부, 주안1동 성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생각을 정리하는 자리」 마련. 문익환이 ‘공명선거를 하려면’, 권인숙이 ‘아직도 간혀있는 양심수’라는 주제로 강연

『인천주보』 제897호(1987. 11. 08, 천주교 인천교구)

### 11. 10

- 경인여객 노동조합 · 경향여객 노동조합 · 부성여객 노동조합 · 제물포버스 노동조합, 「임시합동대의원 대회」를 열고 ‘8월 22일 체결한 노사 간 8개 항의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11월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

『인천운수노보』 특보(1987. 11. 10,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M00049495)

- 부평여객 운전기사 60여 명, ‘현 노조 집행부 퇴진’ 등을 요구하며 운행을 거부한 채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12961호(1987. 11. 11, 한겨레신문사)

### 11. 13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계산동 성당에서 700여 명이 참석

1987년

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 추모집회」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중앙병원 노동조합, '48명의 간호과 소속 조합원에 대한 병원 측의 강제 부서이동 철회'를 요구하며 4일 동안 부분 파업 진행

『민주노조』 호외 12(1987. 11. 2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3420)

### 11. 16

- 한광산업 노동조합 조합원 30여 명,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10여 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파업기간 유급처리' 등을 요구하며 주안1동 성당에서 농성 돌입

『민주노조』 호외 12(1987. 11. 2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3420)

- 경인에너지 노동조합 조합원 230여 명, 9월 초 파업 농성때 타결을 보지 못한 내용에 대해 회사 측이 확답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너스 200% 인상', '수당신설(학자금, 주택수당)' 등 9개 요구조건을 내걸고 철야 농성 시작

『민주노조』 호외 12(1987. 11. 2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3420)

### 11. 18

-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인천·부천 운수노보』 창간.

『인천·부천 운수노보』 창간호(1987. 11. 18, M00072142)

- 중앙병원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 '월급 8만 5000원 일률 인상', '부당 노동행위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 돌입

『민주노조』 호외 12(1987. 11. 21,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3420)

### 11. 19

- 학익동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노동자 16명, '태연물산 박인숙 위원장 복직', '민주노조 탄압 분쇄', '교도소내 인권탄압종식' 등을 요구하며 9일 동안 단식투쟁 전개

『민주노조』 제7호(1987. 12. 09,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7566)

『인천민주가족』 제2호(1987. 11. 27, 인천지역 구속자가족협의회, M00167738)

### 11. 22

- 주안1동 성당·석남동 성당·십정동 성당, 「군부독재 종식과 공명선거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사진전 및 비디오 상영 진행. 주안1동 성당과 석남동 성당은 마당극도 함께 공연

『인천주보』 제899호(1987. 11. 22,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지역 신규노동조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신규노조 창립 기념 대잔치」가 신광기업 운동장에서 69개 노동조합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민주노조』 제7호(1987. 12. 09,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7566)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 89쪽(1988,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엮음, 거름)

### 11. 25

- 경동산업 해고노동자들, 십정동 사거리 3번 종점 앞에서 「만남의 광장, 경동인의 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생계유지를 위한 포장마차 개점

『민주노조』 제7호(1987. 12. 09,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7566)

### 11. 26

- 인천지역 노동조합 조합원 70여 명, 부평4공단 소재 태연물산 정문 앞에서 ‘태연민주노조사수 집회’ 개최. 경찰과 구사대에 의해 집회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다수가 부상을 당하고 그 중 31명이 경찰에 연행됨.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날 인천지역 노동자 150여 명이 부평경찰서 앞에 몰려가 ‘폭력 구사대 처벌’, ‘연행자 전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10개 노동조합 홍보부는 「11월 26일 태연물산 구사대 폭력사태 진상보고」라는 제목의 속보를 제작해 다음날 각 노동조합에 배포함

『민주노조』 제7호(1987. 12. 09,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7566)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구속자 가족들, 주·야간 2회에 걸쳐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자동차 구속노동자 전원 조기석방 촉구대회」 개최

『민주노조』 제7호(1987. 12. 09,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7566)

### 11. 27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구속자 가족들, 회사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구속자 조기 석방을 위한 침묵시위 전개

『민주노조』 제7호(1987. 12. 09,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7566)

### 11. 28

- 천주교 인천교구 공정선거추진위원회, 답동 가톨릭회관 411호에 본부를 설

1987년

치하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

『인천주보』 제901호(1987. 12. 06, 천주교 인천교구)

## 11. 29

- 부평1동 성당 · 계산동 성당, 「군부독재 종식과 공명선거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사진전 및 비디오 상영 진행. 부평1동 성당은 마당극도 함께 공연

『인천주보』 제900호(1987. 11. 29, 천주교 인천교구)

- 구속자가족협의회 · 한영해고자동지회, 답동 가톨릭회관 304호에서 구속노동자 월동대책, 가족들의 생계대책마련,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일일찾집 개최

『민주노조』 제7호(1987. 12. 09,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7566)

## 12. \*

- 송림사랑방교회 노동청년회 결성. 분반활동으로는 시사상식반, 기타합창반, 연극반, 근로기준법반 등이 있었음. 박종렬 목사는 송림사랑방교회 노동청년회에 대하여 “본 교회 노동청년회는 초보노동청년들을 위한 문화마당프로그램과 일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엮어진 노동자들 간의 신뢰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단결된 실천의 한 성과로서 형성된 것이며 앞으로 자기발현의 장으로 모임을 활용하면서 노동청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노동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연대를 발전시키면서 인천지역 노동운동에 일정부분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창립5주년 기념 및 입당예배」(1990. 12. 09, M00042451)

「송림사랑방교회를 도와주시며 관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1988. 01. 30, 송림사랑방교회 박종렬 목사, M00845896)

- 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 발족. 1980년대 초 · 중반부터 빈민지역공부방, 탁아소 등에서 일하던 활동가, 실무자 15명이 역량을 모아 영세민 밀집촌 철거에 공동대처하고 주민운동의 영역을 넓혀가기로 함

「이충현 제공」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12. 01

- 인천지역 노동자들, ‘노조탄압분쇄 대책위’를 구성하고 노조탄압 규탄대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12월 25일까지 『민주노조』 선거속

보 3회 발간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12. 02

- 인하대학교 학생 30여 명, 부평동 민정당 제2지구당에 화염병 5개를 던지고 달아남

『동아일보』 제20359호(1987. 12. 02, 동아일보사)

12. 05

- 용현동 성당·강화 성당, 12월 5일~6일 이틀간에 걸쳐 「군부독재 종식과 공명선거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사진전 및 비디오 상영 진행. 용현동 성당은 12월 6일 마당극도 함께 공연

『인천주보』 제901호(1987. 12. 06, 천주교 인천교구)

12. 06

- 문화기획 일손나눔, 창립식 거행. 사무실은 남구 도화2동 80-25에 위치  
『광대세상』 창간호(1987. 12. 27, 놀이패 한광대, M00448101)
- 민주교육추진 인천지역 교사협의회, ‘청소년과 교육환경’이란 주제로 교사토론회 개최

「민주교육추진 인천지역 교사협의회 총회」(1988. \*. \*, 민주화교육추진 인천지역 교사협의회, M00413350)

12. 07

- 인천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소속 학생 350여 명,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공정선거 감시위원단 1차 교육」을 실시하고 시내로 나와 가두 캠페인을 벌이다 경찰의 저지로 교내에 들어가 총장실과 복도 등에서 농성 전개

『경향신문』 제12984호(1987. 12. 08, 경향신문사)

12. 12

- ‘민주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부평(북구)지부’ 창립  
「민주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부평(북구) 지부 창립선언문」(1987. 12. 12, M00408827)
- 인하대학교 김영규 교수 등 인천지역 교수 12명, ‘현 대통령선거 시국에 대한 제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선거의 보장’을 촉구

『동아일보』 제20368호(1987. 12. 12, 동아일보사)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민주노조』 제7호 - ‘선거호외 제1호’ 발행

『민주노조』 제7호 - ‘선거호외’ 제1호(1987. 12. 12, M00082850)

1987년

- 제물포택시, 노사분규 발생

『제물포노보』 제2호(1988. 01. 20, 제물포택시(주) 노동조합, M00049476)

## 12. 15

- 금영실업 노동조합 교선부장 강승욱, 11월 26일 발생한 ‘태연물산 구사대 폭력사태’ 당시 부평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일 등으로 인해 ‘회사 명예 훼손’, ‘이력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해고 당함

『민주노조』 제8호(1988. 01. 05,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2858)

## 12. 16

- 삼화실업 노동조합 문화부장 심재환, 청천동 소재 자취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됨. 삼화실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2월 15일·16일 양일간 자취방에 찾아갔을 때 문이 안으로 잠겨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심재환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

『민주노조』 제8호(1988. 01. 05,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2858)

## 12. 17

- 인천세광병원 노동조합 조합원 100여 명, ‘기본급 인상, 상여금 지급, 유니온 샵 제도 인정, 인사권 참여 등의 단체협약 재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병원 측은 12월 21일 농성 가담자 중 96명을 해고하였으며 12월 22일에는 인천시에 휴업 신고를 제출하였다가 곧 철회함. 이후 12월 31일 요구조건이 모두 수용되며 파업을 끝냄. 한국여성민우회가 12월 30일, 인천세광병원 노동자들의 ‘14일간의 철야농성’을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

『민주노조』 선거소식(1987. 12. 23,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81307)

『민주노조』 제8호(1988. 01. 05,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2858)

『함께가는 여성』 제5호(1988. 01. 10, 한국여성민우회, M00856797)

| 샵 협정의 종류와 의미 |                                                                                                         |
|--------------|---------------------------------------------------------------------------------------------------------|
| 1. 오픈 샵      | 단체협약에 “회사직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을 한 협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정하에서는 즉 오픈 샵 협정하에서는 조합의 단결력은 강력하지 못하다. |

|           |                                                                                                                                                                                                                                                                                           |
|-----------|-------------------------------------------------------------------------------------------------------------------------------------------------------------------------------------------------------------------------------------------------------------------------------------------|
| 2. 유니온 샵  | 단체협약에 “회사직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된다. 회사는 조합에서 제명된 자를 해고시켜야 한다”는 식의 규정을 한 협정을 말한다. 유니온 샵 협정하에서는, 그 회사 직원은 사용자 대표를 제외하고 누구나 다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조합에서 제명하면 회사에서 해고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조합은 강한 통제력을 갖게 된다.                                                                                                              |
| 3. 클로즈드 샵 | 단체조합에 “회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식의 규정을 한 것을 말한다. 클로즈드 샵 하에서는 회사가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려면 단체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채용해야 한다. 즉 노동력의 수요는 노동조합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다. 따라서 이런 제도하에서는 조합에서 제명 처분되면 회사는 바로 해고조치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클로즈드 샵 협정이 가장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보장하는 제도고 그 다음이 유니온 샵 협정이다. 오픈 샵 협정은 노동운동이 가장 약한 경우에 나타난다. |

「기획교육 교재」 제1호(\*. \*. \*, M00444295)

## 12. 19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 노동청년회 ·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속보를 발행하여 인천지역 내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유형별로 밝힘

『인천주보』 제905호(1987. 12. 27, 천주교 인천교구)

- 한광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 조직부장 · 교선부장, 복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월 15일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농성을 진행해 오던 중 구사대에 의해 진압되며 그중 조직부장과 교선부장이 경찰에 넘겨짐

『민주노조』 선거소식(1987. 12. 23,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81307)

## 12. 20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 가톨릭노동청년회 · 가톨릭대학생연합회, 12월 17일자 『서울신문』 호위를 근거로 하여 컴퓨터 조작이 노태우 대통령을 당선

시켰으며 선거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선언

『인천주보』 제905호(1987. 12. 27, 천주교 인천교구)

## 12. 27

- 놀이패 한광대, 『광대세상』 창간호 발행

### ‘광대세상’을 시작하며

놀이패 한광대가 인천지역에서 민속, 민족문화의 올바른 창달과 확산, 보급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광대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속에서 민속혼례의 개발보급, 강습, 공연 등을 통해 활동해온 바, 일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숙하였다지만 일면, 부족한 점들이 적나라하게 노정되었습니다. 한광대는 우리 이웃, 우리 시대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호흡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87 정묘년 한 해도 대형뉴스들로 점철되어졌습니다. 어느 사건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대미에 있어서 60% 이상의 득표율로도 군부독재를 마감시키지 못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권이라던 인천에서의 참패는 더욱 가슴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군의 나팔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서로를 아끼고 보듬고 이해하며 대동제를 탄탄히 다지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양된 정치의식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그 토양 즉, 이 시대의 자아의식, 사회관, 국가관 등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재점검하고 다듬어 갈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비문화, 고급문화, 퇴폐향락적 지배문화가 난무하며 개인주의의 만연, 인간소외, 계층간 불협화음, 비인간적 질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광대는 당면과제를 인천지역내 모든 분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하리라 다짐합니다. 무릇 광대는 모든 사람들의 밥이요, 똥이요, 거름이라 했음을 깊이 주지하겠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후미진 곳, 그늘진 곳을 고고살살 함께 파헤치고 사랑과 온정이 충



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 속에서 우선은 불품없고 초라하기 그지 없지만 ‘광대세상’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광대 세상’이 날로 달로 성장하며 모든 분들의 친근한 벗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의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내용으로 알차고 충실하게 엮어 나가겠습니다. 놀이패 한광대

『광대세상』 창간호(1987. 12. 27, 놀이패 한광대, M00448101)

- 봉명산업 노동자 90여 명, 회사 식당에서 노동조합 결성  
『민주노조』 제8호(1988. 01. 05,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2858)
- 신광기업 노동조합, 12월 19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 조직부장 등 3명과 함께 「조합원 총회 및 석방자 환영대회」 개최.  
『민주노조』 제8호(1988. 01. 05,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082858)

## 12. 31

- 경기교통 노동조합 김장수 조합장, 노동조합 내의 분열로 인해 조합장 사임. 부조합장이었던 김만수가 조합장 직무대리가 됨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2호」(1988. 03. 03, M00077517)

# 1988년

## 01. \*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88임금인상투쟁지침서』 발간  
『'88임금인상투쟁지침서』(1988. 01.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56095)
-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공실위)에 가입.  
『민주노조』 제9호(1988. 01. 2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5073)

## 01. 04

- 현대철구사업본부 노동자 50여 명, 송현동 소재 회사 주변 식당에서 노동조합 결성. 개정 노동법에 의해 1988년 최초로 결성된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음. 1월 27일 현판식 거행  
『민주노조』 제9호(1988. 01. 2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5073)  
『민주노조』 제10호(1988. 02. 0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354267)
- 놀이패 한광대, 겨울방학을 맞아해 풍물 초급(주부, 일반인, 교사, 고등학생, 단체 등 대상), 풍물 중급, 탈춤 강습 진행  
『광대세상』 창간호(1987. 12. 27, 놀이패 한광대, M00448101)

## 01. 07

- 부평중앙감리교회에서 ‘인천지역 공정선거 감시단 발대식」 개최  
『사랑방 소식』 제2권 47호(1987. 12. 06, 송림사랑방교회, M00114701)

## 01. 15

- 한양정밀 노동조합 결성  
『민주노조』 제10호(1988. 02. 0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354267)

## 01. 16

- 인일전자 노동자 25명, 북구 효성동 소재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 노동조합 결성  
『민주노조』 제9호(1988. 01. 2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5073)
- 제3한강통운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요구하자 회사 측이 인천사무소 상호를 북성유조(주)로 변경한 후 기사 23명을 전원 해고한 데 대해 항의하며 농성 돌입

『인천부천 운수노조』 제3호(1988. 02. 01,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883603)

- 신광기업 해고노동자 배태식, 조숙, 반현희 등, 회사 근처인 일신동 12번 종점 인근에 '한마음 분식' 개업

『민주노조』 제10호(1988. 02. 0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354267)

#### 01. 17

- 인천지역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부평1동 성당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철군 1주기 추모제 및 부정선거 실상 폭로대회」 개최.

『인천주보』 제908호(1988. 01. 17, 천주교 인천교구)

『민주노조』 제9호(1988. 01. 2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5073)

- 대하전자 노동조합 결성

『민주노조』 제9호(1988. 01. 2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5073)

-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 개원. 1983년 초부터 노동운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몇몇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여성노동운동 측면에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옴. 이후 '① 선배여성노동자가 현장에 다시 들어가 활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외곽에서 여성노동운동을 지원, 지도하면서 선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② 초보적 노동자들을 접하는 대중공간을 마련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초기부터 여성문제와 노동문제를 결합한 총체적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교육을 실시하며 ③ 늘어나는 기혼여성노동자들의 현실적 문제인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탁아소를 마련하며 ④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지도'를 목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을 개원함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 개원에 부쳐」(1988. 01. 17,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 M00847084)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연혁 및 사업 소개」(\*. \*. \*,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M00856948)

#### 01. 19

- 부평안병원 노동조합 결성. 1월 23일에 현판식 거행

『민주노조』 제9호(1988. 01. 2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5073)

『민주노조』 제10호(1988. 02. 0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354267)

#### 01. 23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노동조합 여성부 활동 활성화를 위한 1차 간담회」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부평·주안지역 13개 노동조합 홍보부원 27명 및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홍보부, 능곡 평화의 집에서 홍보부 연대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민주노조』 제10호(1988. 02. 0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354267)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르망공장 조립부 조합원 600여 명, 잔업을 거부한 채 ‘휴업기간 중 로얄공장으로의 파견 근무 계획 철회, 애초대로 8~9일의 유급휴업 보장’ 등을 요구하며 스크림을 짜고 회사 내에서 시위를 벌인 후 회사 측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음

『민주노조』 제10호(1988. 02. 0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354267)

#### 01. 24

- 주안5동 성당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해고노동자를 위한 만남의 자리」 개최

『민주노조』 제10호(1988. 02. 0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354267)

#### 01. 25

- 한양정밀 노동조합 조합원 23명, ‘노동조합 인정, 조합사무실 집기 및 전화 가설’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시작

『민주노조』 제10호(1988. 02. 0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354267)

#### 01. 27

- 민주교육추진 인천지역교사협의회, 같은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경기지역교사협의회와 연합하여 민주교육추진 경기·인천교사협의회(경인교협) 창설. 회장 오원석, 부회장 조용명 선출.

『인천교육노동운동사』 1, 95쪽(전국교직원 노동조합, 2006)

#### 01. 28

- 인천택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준수, 악덕관리자 퇴진, 부당노동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인천부천 운수노조』 제3호(1988. 02. 01,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883603)

『인천부천 운수노조』 속보6호(1988. 03. 02,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407628)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노동법 공개강좌」 개최

「88년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활동일지」(1988. \*.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4453)

## 02. \*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약칭 인부노회 혹은 인노회) 창립. 인천지역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 참가하여 활동하며 노조활동 지원, 노동법개정투쟁, 광주항쟁현장 순례, 전두환 노태우 구속 투쟁 등을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89년 2월부터 공안당국에 6명의 조직원과 회장 안재환이 구속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음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보고서-인천』

## 02. 03

- 진도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주안, 부평, 경남 언양 등)에서 1987년 8월부터 민주노조추진위원장으로 300여 명 규모의 부평공장 임금 인상 및 민주노조건설투쟁을 이끌어 온 김성종이 당선됨. 어용노조를 누르고 당선됐다는 데 주목을 받음

『민주노조』 제9호(1988. 01. 2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5073)

『민주노조』 제10호(1988. 02. 0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354267)

- 인천지역 16개 노동조합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하여 임금 관련 교육 실시

## 02. 13

- 삼화고속관광 노동조합 설립. 삼화고속관광은 삼화고속에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 업체로 차량 21대에 기사는 24명임

『인천부천 운수노보』 속보(1988. 05. 15,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062712)

## 02. 16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한영알루미늄, 한국타이어, 경동산업, 대동플라스틱, 한양목재 등 9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반대복직투쟁 결의 모임」 개최

「88년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활동일지」(1988. \*.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4453)

## 02. 17

- 근기운수 노동조합 결성대회 개최. 조합장에 김승권을 선출하고 2월 22일 신고필증 교부 받음. 근기운수는 연안부두 인근에 위치한 화물운송업체임

『인천부천 운수노보』 제4호(1988. 04. 13,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867984)

## 02. 24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지역 내 임금 인상투쟁의 통일적

지원사업을 위하여 임금인상투쟁상황본부 설치.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문화기획 일손나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천지역 노동자연합회준비위원회 등 7개 단체 참여.

「공실위 임금인상 투쟁 상황본부 결성을 알리며」(1988. 03. 01, M00443106)  
 「민주노조」 제16호 -임투속보(1988. 03. 0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투쟁상황본부M00516751)

- 경기교통 노동조합 전 조합장 김장수와 전 운영위원 공석용,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음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2호」(1988. 03. 03, M00077517)

## 02. 27

- 성광기공 노동자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시작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4호(1988. 03. 14,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투쟁상황본부, M00403421)

## 02. 29

- 인천지역 16개 노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노협 준비위 결성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한영알미늄 해고노동자들, 반월공장에서 인천해고노동자와 반월해고노동자가 공동으로 출근투쟁 전개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 03. 01

- 경기교통 노동조합 전 조합장 김장수,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 중 회사 식당에서 분신을 기도하여 인천 중앙 길병원에 입원. 3월 9일 사망함

『인천부천 운수노보』 속보7호(1988. 03. 03,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407632)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2호」(1988. 03. 03, M00077517)

『인천부천 운수노보』 제4호(1988. 04. 13,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867984)

김장수 약력

1957년 9월 4일 충청남도 서산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출생. 1975년 2월 인천향도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극동운수, 조준택시, 안성화물, 유성화물 등에서 근무. 1985년 9월 14일 경기교통에 입사해 1987년 6월 15일 경기교통 노동조합 조합장 활동 중 해고 당함. 같은 해 8월 16일~8월 22일 간 진행된 파업을 통해 해고를 철회시키고 단체협약을 체결함. 1988년 2월 24일 해고 예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항의 투쟁'을 벌임. 1988년 3월 1일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 중 분신을 시도 같은 해 3월 9일 사망함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3. 02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투쟁상황본부,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1호 발간.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1호」(1988. 03. 02, M00516751)

### 03. 03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무실을 북구 십정동 481-4로 이전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인천지역 택시 노동조합, 인천택시에서 「인천택시 파업 지지결의대회」 개최. 23개 노동조합 조합장들이 공동 수습대책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항의에 직면하자 공동결의문을 다시 채택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철야 농성 돌입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3호(1988. 03. 09, M00516752)

『인천부천 운수노보』 제4호(1988. 04. 13,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867984)

### 03. 04

- 인천지역 택시 노동조합이 연대 농성중인 농성장에 경찰이 난입, 조합원 8명이 연행되고 다수가 부상 당함. 이에 항의해 택시 조합장 30여 명 단식 농성 돌입.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3호」(1988. 03. 09, M00516752)

- 신창전기 노동자들, '일당 750원 인상' 등을 합의하며 3일간의 파업 농성을 끝냄. 신창전기 노동자들은 성광기공 노동자들과 북구 청천동 소재 공장부

지를 함께 사용해 왔는데 성광기공 노동자들이 2월 27일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신청전기 '구사대'가 지게차를 앞세우고 해산시키려 하자 파업에 들어감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4호(1988. 03. 14,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투쟁상황본부, M00403421)

### 03. 05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입주식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우리마당, 부평동에 인천지회 개소. '인천지역 우리마당 준비위원회'에 참가했던 이진구가 대표를 맡음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1999. \*. \*, M00037670)  
『마당신문』 제1호(1988. 11. 25, 우리마당, M00078827)

### 03. 06

-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 인천대학 체육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일하는 여성 봄맞이 큰잔치' 개최

『광대세상』 제3호(1988. 04. 10, 놀이패 한광대, M00447818)  
『예술정보』 제9호(1988. 03. 18, 유기확실, M00116870)

- 청보산업 노동조합, 2월 말에 결성한 '임금인상 대책위원회'를 '임금인상 투쟁위원회'로 전환

『투쟁속보』 2(1988. 03. 27,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 03. 07

- 인천기독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2월 17일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해 오던 중 3월 11일까지 단식 농성에 들어감

「인천기독병원노동조합 88년 임금인상 투쟁 보고」(1988. \*. \*, 인천기독병원 노동조합,  
M00345901)

### 03. 09

- 경기교통 노동조합 전 조합장 김장수,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 중 회사 식당에서 분신을 기도하여 인천 중앙 길병원에 입원 중 사망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4호(1988. 03. 14,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투쟁상황본부, M00403421)

- 한독금속 노동조합, 파업 농성 시작. '임금을 제날짜에 지급할 것,' '부당징계 조항을 철회할 것,' '작업시간 중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



‘불법적인 산업평화조항 철폐’ 등을 요구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4호(1988. 03. 14,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투쟁상황본부, M00403421)

- 신창전기 노동자들, 3월 4일 ‘일당 750원 인상’에 합의하며 3일간의 파업 농성을 끝낸 후 이 날 노동조합 결성하고 위원장에 김덕근을 선출\*『투쟁속보』 제2호에는 노동조합 결성일이 3월 8일로 기록됨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4호(1988. 03. 14,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투쟁상황본부, M00403421)

『투쟁속보』 제2호(1988. 03. 27,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 03. 10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투쟁 전진대회 및 공실위 임투상황본부 발대식」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연합회(J.O.C), 제42주년 노동절을 맞아 가톨릭회관 5층 강당에서 「노동자의 잔치」 개최

『인천주보』 제916호(1988. 03. 13, 천주교 인천교구)

### 03. 12

- 3월 1일 분신을 시도해 3월 9일 사망한 경기교통 전 노동조합 위원장 김장수의 장례를 위해 ‘고 김장수 열사 장례 투쟁 대책위원회’ 구성

『인천부천 운수노보』 제4호(1988. 04. 13,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867984)

### 03. 13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대원 후지카 오범근 사망에 대한 성명서 발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양심수 석방 및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결의대회」 개최

「88년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활동일지」(1988. \*.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4453)

### 03. 14

- 인천기독병원 노동조합, 3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노조집행

1988년

부가 최저생계비 보장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응급실·수술실·병실 근무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당일 병원 측과 합의하고 파업을 끝냄

〈합의사항〉

- 본봉 9.7% 인상
- 근속조정수당 신설(5년 이상 근속자에 공통으로 적용)
- 장기 근속수당 신설(1만 5000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 가족수당 신설(1인당 5000원씩 4인까지 지급)
- 호봉 연장

「인천기독병원노동조합 88년 임금인상 투쟁 보고」(1988. \*. \*, 인천기독병원노동조합, M00345901)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4호(1988. 03. 14,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투쟁상황본부, M00403421)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5호」(1988. 03. 22, M00354128)

03. 16

- 인천지역 12개 노조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노협 건설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교육」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03. 17

- 진성전자 노동조합, 2월 초부터 교섭에 들어가 3월 9일 위원장을 교체하고 새집행부를 구성해 임금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이날 회사 측과 임금 18% 인상, 정기호봉승급, 장기근속수당신설 등에 합의함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5호(1988. 03. 22, M00354128)

『투쟁속보』 2(1988. 03. 27,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03. 18

-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투쟁속보』 발행 시작

『투쟁속보』 제2호(1988. 03. 27,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03. 19

- 일진교통 노동조합 설립총회 개최. 전체 76명의 기사 중 35명 참석. 3월 22일 신고필증 교부 받음

『인천부천 운수노보』 제4호(1988. 04. 13,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867984)

-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 300여 명이

파업 농성중인 한독금속에 모여 '한독농성투쟁 지지대회' 개최

「모임시다!한독금속으로!」(1988. 03. 19, M00347577)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5호」(1988. 03. 22, M00354128)

### 03. 20

- 전일기계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03. 22

- 인천지역민주청년회(가칭) 건설준비위원회 발족. 7명의 준비위원이 모여 결성한 후 김성진을 준비위원장으로 내정하고 활동 시작. 임시 사무실은 주안동 136-1, 버거잭프라자빌딩(구 궁전빌딩) 416호에 마련.

「인천지역민주청년회(가칭) 건설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청년이여, 민주의 깃발 아래 한데 뭉치자」(1988. 03. 22, M00200280) / 「인천민주청년회 창립잔치」(1988. 08. 27, M00201218)

- 남일금속 노동조합, '임금인상 쟁취위원회' 구성

『투쟁속보』 2(1988. 03. 27,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 03. 23

- 인천택시 분실 장례위원회 주관으로 「고 노동열사 김장수 조합장 영결식」 거행. 중앙 길병원에서의 발인제를 시작으로 경기교통 앞에서 노제를 지낸 후 5·6공단과 부평공단을 거쳐 김포 고려공원에 안장

『투쟁속보』 제2호(1988. 03. 27,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인천부천 운수노보』 제4호(1988. 04. 13,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867984)

### 03. 24

- 영창악기 노동조합(북구 가좌동), 조합원 5500여 명이 25.5%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최저생계비 보장하라'고 쓴 리본달기 운동 시작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6호」(1988. 03. 27, M00882683)

『투쟁속보』 2(1988. 03. 27,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 03. 25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3차 임금교섭이 결렬된 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9627명 중 7779명이 투표에 참가해 7315명의 찬성으로 쟁의 결의. 다음 날 노동부에 쟁의발생신고 마침

「민주노조 임투속보 제6호」(1988. 03. 27, M00882683)

- 로얄토토, '임금인상투쟁 준비위원회' 결성

『투쟁속보』 2(1988. 03. 27,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1988년

03. 26

- 경일화학 노동조합, 현판식 개최

『투쟁속보』 2(1988. 03. 27,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03. 27

-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22개 노동조합 1500여 명이 참석하여 발족식을 갖고 「88년 임투전진대회」 개최

『투쟁속보』 제3호(1988. 04. 30,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인노협신문』 창간호(1988. 07. 13, M00856035)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03. 29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방용석 전 노동자복지협의회장을 초청하여 「노동자의 생활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월례 청년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918호(1988. 03. 27, 천주교 인천교구)

03. 31

- 대림통상 노동조합 주안공장 조립반 노동자 김응훈, 철야근무를 끝내고 건조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사망. 장례는 4월 3일 노동조합장으로 치름.

「88년 상반기 인천지역 노동운동탄압 자료집」(1988. 06. \*, M00535391)

04. 03

- 오성실업 노동조합 결성. 이후 회사 측에 의해 「노조결성 보고대회」가 무산되었으며 4월 7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4월 11일 노조간부 6명이 해고 조치됨. 이들은 4월 13일부터 '부당해고 철회 및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정문에서 농성에 돌입함. 오성실업에서는 1월 초 '오성쪽가위'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모임을 만들었으며 2월 말, 그중 한 명이 '프락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오성쪽가위'를 해체하고 노동자 8명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결성함.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오성실업 노사분규 경과보고]」(1988. \*. \*, M00858082)

04. 05

- 콜트악기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04. 06

- '김장수 열사 추모사업회' 구성

『인천부천 운수노보』 제4호(1988. 04. 13,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867984)

- 대림통상 노동조합 주안공장 노동자 1000여 명, 조립반 노동자 김응훈의 사인이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파업 농성 돌입

「88년 상반기 인천지역 노동운동탄압 자료집」(1988. 06. \*, M00535391)

04. 07

- 기풍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04. 08

- 대림통상 노동조합 주안공장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에 회사 측이 부평공장, 김포공장 등지에서 조직한 400여 명의 구사대가 난입,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해산시킴. 100여 명이 부상당하고 농성 중이던 김수용, 김향순은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음.

「88년 상반기 인천지역 노동운동탄압 자료집」(1988. 06. \*, M00535391)

04. 12

- 삼경무역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04. 13

- 대흥기계 노동조합, 부평·부평공장이 공동으로 부평 JC공원에서 '대흥 88임 투전진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투쟁전선 제1호」(1988. 04. 28, M00403482)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04. 15

- 대흥기계 노동조합,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90%의 찬성으로 파업 결의

『투쟁전선 제1호』(1988. 04. 28, M00403482)

- 삼효정공 노동자들, 이 날 하루 작업 거부 진행

『사생결단』 제1호(1988. 07. 29, 삼효·데크레코·대호 위장폐업 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M00403196)

04. 16

1988년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투 완전승리쟁취 결의대회」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04. 17

- 총선대책특별위원회, 「4·19 기념식 및 민정당정권 타도 결의대회」 개최  
「인천지역 활동보고」(1988. \*. \*, M00421877)

- 동국무역 노동자들, 한독금속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임금인상투쟁위원회’를 결성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 04. 18

- 총선대책특별위원회, 인천지역 민주후보 초청 간담회 개최. 평민당과 민주당 후보 7명이 참석하여 반 민정당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민중 생존권 투쟁에 지지·동차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민중후보추대위원회 민중후보인 오순부, 송경평은 보수야권 후보와의 차별성을 내세워 불참을 통보함

「인천지역 활동보고」(1988. \*. \*, M00421877)

- 금영실업 노동조합 조합원 34명, 1987년부터 계속된 회사 측의 단체교섭 거부에 항의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쟁의 가부투표를 진행한 뒤 100% 찬성으로 집단 조퇴를 단행, 임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4월 19일부터 쟁의 발생 신고 및 쟁의 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냉각기간 동안 집단 조퇴를 진행한 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함

『금영소식』 제1호(1988. 04. 19, 금영실업 노동조합, M00097405)

- 동국무역 노동자 150여 명, 노동조합 결성식을 개최하고 ‘임금 인상 투쟁’에 돌입. 91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가운데 위원장에 김정이 선출. ‘일당 1200원 인상, 8시간 노동 실시, 법정공휴일은 휴무처리, 근속수당 지급’ 등을 요구

「투쟁전선 제1호」(1988. 04. 28, M00403482)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 04. 19

- 대흥기계 부평·부천 노동조합, 임금 2125원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투쟁전선 제1호」(1988. 04. 28, M00403482)

『투쟁속보』 제3호(1988. 04. 30,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 흥부합성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동성상공 노동자 22명, 백마교회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원장에 조현 오 선출. 동성상공은 효성동에 위치함

『불꽃』 제10호(1991. 12. 30, 동성상공 노동조합, M00514506)

04. 20

• 동성상공 노동조합 신고필증 교부받음. 이날 출근과 동시에 파업 돌입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불꽃』 제10호(1991. 12. 30, 동성상공 노동조합, M00514506)

04. 21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원용복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회사 측간의 잠정타결안(기본급 47,350원 인상, 근속수당 5000원 인상, 생산장려수당 1만원 인상, 부당해고자 계열사로 취업알선, 인사위원회 동수구성거부 등)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반대 4001, 찬성 3491로 부결

『투쟁전선 제1호』(1988. 04. 28, M00403482)

• 동성상공 생산직 전사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함

『불꽃』 제10호(1991. 12. 30, 동성상공 노동조합, M00514506)

04. 22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부평4공단 소재 동국무역 내에서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운동 탄압 규탄 대회' 개최

『투쟁전선 제1호』(1988. 04. 28, M00403482)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4월 초부터 '일당 1500원 인상', '근속수당 지급', '토요일 오전근무제' 등을 요구해오다가 출퇴근 파업농성 시작

『투쟁속보』 제3호(1988. 04. 30,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민주여성』 제5호(1988. 06. 01, 한국여성단체연합)

04. 25

• 대우중공업 인천·창원·영등포·부곡 등 4개 공장 노동자 4700여 명, 5월 30일까지 동시 파업 시작. 5월 30일에 '기본급 6만 9860원 인상, 파업기간 중 임금은 생활보조금 10만 원으로 대신, 보너스 50% 지급' 등의 조항에 합의

『투쟁속보』 제3호(1988. 04. 30,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1988년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 노동조합 집행부가 회사 측과 잠정 합의한 6만 2350원에 대한 가부 투표를 진행하여 부결시킴

『투쟁속보』 제3호(1988. 04. 30,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홍보부)

#### 04. 26

- 한도물산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04. 27

- 상민전자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동신전자 노동자들, 회사 측이 폐업 신고를 하자 공장 기숙사에서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돌입

『경인교사신문』 제7호(1988. 07. 12, M00157214)

『한겨레신문』 제39호(1988. 06. 28, 한겨레신문사)

- 대우전자 인천·주안·구미 공장 노동자들, 임금 24.2%, 근속수당 5000원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 돌입

『투쟁속보』 제3호(1988. 04. 30,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 ‘고 김장수 열사 추모사업회’, 동일운수에서 4월 14일 기사 4명이 ‘쟁의보복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자의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성명서」(1988. 04. 27, 고 김장수 열사 추모사업회, M00407544)

#### 04. 28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직장폐쇄 및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항의집회 개최.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인근에서 파업중인 대우자동차·로얄토토·대흥기계·동성상공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지원 투쟁에 나섬.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이날 밤 철야농성 돌입

『투쟁속보』 제3호(1988. 04. 30,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04. 30

- 로얄토토 노동조합, 일당 1400원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 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파업 돌입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김현채를 초청하여 「광주 민중항쟁의 현재적 의의」라는 주제로 「월레 청년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922호(1988. 04. 24,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노동조합협의회(준), 「세계노동절 기념식 및 임금 인상 완전 승리 쟁취 대회」(콜트악기 앞, 1,000여 명), 가두투쟁

#### 05. 01

- 동인산업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해인교회, 북구 작전동 865-16으로 교회 이전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 05. 02

- 삼우실업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협우실업(북구 효성동) 노동자 30여 명이 모여 노동조합 결성  
「88년 상반기 인천지역 노동운동탄압 자료집」(1988. 06. \*, M00535391)
- 한독금속 노동조합, 회사 측이 제시한 '1700원 인상', '생산목표 달성시 특별상여금 지급'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통과시킴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05. 03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파업 기금 12만 9200원을 모금하여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에 전달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원등산업 노동조합 결성. 위원장에 도천수 선출.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사건 처리 결과 통보」(1988. 10. 31, 인천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 M00407070)

#### 05. 04

- 미미양행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태양강관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05. 05

- 광기정밀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해인교회, 인하대학교에서 노동자 생활극 '대결' 공연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05. 06

- 「콜드 민주노조사수 결의대회」 개최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 동신전자 노동조합 결성. 동신전자는 도화동에 위치하며 금성사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콘덴서 전자부품을 생산함. 평균연령 18~19세의 노동자 80여 명이 근무하며 그중 60여 명은 야간학교에 다님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강제퇴학, 자퇴종용을 규탄한다」(미상, M00361350)
- 대양전기 노동조합 결성. 7월 9일 현판식을 개최  
『새벽』 제8호(1988. 07. 15, 한국대양전기노동조합, M00512777)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현판식을 마치고

(대양전기 노동조합 현판식에 참석한 노동자의 글)

사실 내게 현판식이란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진 않았다.

늘 중요한 일을 앞두면 다른 할 일이 무수히 떠올라 이날도 “나하나 쪼미야” 하며 오빠댁에 가겠다고 불참의 뜻을 몇몇 관계자에게 알려뒀다. 비는 아침부터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협했고, 준비하는 과정도 그리 순탄하질 않은 듯 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포장반에서도, 내란이 크게 일어났다. 예상외로 하지 않겠다는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의원이 방방뛰는 모습이 하도 안되보여, 나도 내 사소한 계획을 포기하고 함께 장기연습을 했다. 잠시 우리를 축복하느라 하늘은 개었고, 주위는 비 덕분에 구질구질, 쓰레기장에서 오물타는 냄새는 우리들의 코를 간질렸으나, 식은 아주 흥미롭고 어느정도 경건함도 있었다.

사무장님의 사회로 시작하여 구호, 노래, 구호의 연속이었다.

내가 놀란 것은 아무나 스스럼없이 구호를 외치게 한다는 것이었다. 항상, 나같은 소심한 사람들은 누가 구호를 선창해 주어야 이어 후창을 하는데 객석에서, 이곳저곳에서 자신들의 뜻을 구호로 반영하고 있었다. 나는 사장님을 좋아하는데, 이날은 사장님의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기 주관이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서술할 뿐...

이전에 열렸던 대동놀이 또한 불만했다. 타조합 사람들이 너무 흥겹게 놀아 약간의 기가 죽었지만, 이것이 우리 조합원의 순진성일 것이라 믿는다.

거의 식이 정리될 때 비가 한차례 쏟아져 우산을 찾느라 한때 우왕좌왕했지만, 곧 자리가 정리되자 비소리를 이기려는 듯, 우리들의 목소리는 아마 하늘에 닿았을지도 모른다. 빗소리가 셀수록, 감정이 건잡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 가득차 올랐을 때 비가 잠시 수그러들었다.

고사를 지내고, 「한국대양전기 노동조합」이라고 쓴 간판을 강무님과 위원장님께서 공동으로 정문에 달았다.

뭐니뭐니해도 행사에는 먹는 것이 최고다. 바로 다음에 행해진 것이 인기높은 작업이다. 우리는 몹시 바빠졌으나 객은 먹으니 마냥 즐거운 듯 했다. 역시 알코올이 난무하여 180°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 불쾌한 기분도 있었으나, 우리의 장기자랑을 흥미있게 여기는 듯 그들도 참가하는 것이 가슴을 뿌듯하게 채웠다.

이제 모든 것은 정리가 된 것 같다. 지금부터 조합원의 의식구조가 활동적이고, 참여하는 의지로 가득차게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선각자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 장시간 지루한 글을 읽느라고 애쓴 조합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노동조합이 참된 길, 바른길,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새벽』 제8호(1988. 07. 15, 한국대양전기노동조합, M00512777)

- 대흥기계 노동조합, '일당 1500원 인상, 해고자 복직, 파업기간 중 임금 100% 지급' 등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2월 2일 해고된 학생출신 노동자 조계순의 원직 복직이 이루어짐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 05. 07

- 동진산업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부강교통 노동조합, '승무변경 신청, 단체협약 및 합의된 사항 이행, 조합장 및 조합원에게 폭언, 폭력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1988년

『인천부천 운수노보』 속보(1988. 05. 15,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운수노동상담실,  
M00062712)

05. 09

- 협우실업 노동조합 조합원 3명, 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당함. 조합원들은 이에 항의해 농성 시작

「88년 상반기 인천지역 노동운동탄압 자료집」(1988. 06. \*, M00535391)

05. 10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4월 22일 이후 파업을 이어오다가 회사 측과 '일당 1500원 인상, '쟁의기간 중 유급처리'를 합의함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05. 11

- 삼효정공 노동자들, 파업농성과 함께 노동조합 결성

『투쟁속보』 제4호(1988. 05.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사생결단』 제1호(1988. 07. 29, 삼효·테크레코·대호 위장폐업 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M00403196)

05. 14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교육부 교육부원 정창현(정창교)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됨. 이후 10월 25일 집행유예로 풀려남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동신전자에서 「동신전자 위장폐업 분쇄 결의대회」 개최

「동신전자 위장폐업 분쇄 결의대회」(1988. 05. 1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M00403070)

05. 15

- 진흥정밀화학 노동조합 결성. 진흥정밀화학은 1978년 설립된 농약원제 생산 업체임. 가좌동에 위치하며 종업원 수는 120명으로 평소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음

「진흥정밀화학 산재참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활동 보고서(1차)」(1994. 07. 28,  
진흥정밀화학 산재참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M00404530)

- 동국무역 노동자들, '노조 인정',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2명이 구속됨

「성명서 -인천시경은 구속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1988. 06. 04,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M00086743)

- 민주교육추진 경·인교사협의회, 부천 원미산 정상에서 「교사의 날 기념 경기·인천지역 민주교육 대동제」 개최

『경인교사신문』 제6호(1988. 06. 07, M00157215)

#### 05. 17

- 간석동 산71번지 판자집 5채가 포크레인 등을 동원한 남동구청 철거반원들에 의해 강제 철거 당함. 주민 100여 명이 이에 항의해 간석4거리 차도를 막고 연좌 농성을 벌임

「인천철거지역 투쟁에 관한 보고서」(1988. 08. 15, 인천시철거민협의회·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 M00113291)

#### 05. 18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부서원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노협 건설·강화와 공실위의 조직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사무차장을 ‘반조직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 조치함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천주교 인천교구, 주안1동 성당에서 300여 명의 신자와 일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재 신부와 교구 사제들의 공동 집전으로 「광주의거 8주기 추모미사」 봉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신부는 강론에서 “학살의 관계자들이 중심을 이룬 현정권조차 8년 전 광주에서의 일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시인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그동안 온 국민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이지만 보다 더 확실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이상 완전한 광주문제의 해결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강조. 이날 조성만 추모제도 함께 진행함

『인천주보』 제927호(1988. 05. 29, 천주교 인천교구)

- 해인교회, 5월 21일까지 「광주항쟁 비디오 상영 및 사진전」 개최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 인천지역 노동자들, 경찰이 5월 15일 동국무역 노동자들을 연행해 그중 2명을 구속한 일과 관련하여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대회」를 개최하던 중 52명이 경찰에 연행됨. 이후 5월 18일과 5월 19일 밤, 노동자 500여 명이 이를 항의하며 부평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전개하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72명이 연행됨

「성명서 -인천시경은 구속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1988. 06. 04,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M00086743)

#### 05. 19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회원 400여 명, 인노협 간부 연행에 항의하며 5월 20일까지 부평경찰서 앞에서 시위 전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M00406534)

- 학익1동 주민 120여 명, 시청앞 광장을 점거한 채 ‘대책없는 강제철거 반대’, ‘책임자는 강제철거의 진상을 밝히고 해명하라’ 등을 요구하며 농성 전개

「인천철거지역 투쟁에 관한 보고서」(1988. 08. 15, 인천시철거민협의회 · 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 M00113291)

## 05. 21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의장 황재철 구속.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노동자들은 이 날부터 황재철 의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평민당 김용석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해 6월 10일 해산함

「성명서 -인천시경은 구속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1988. 06. 04,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M00086743)

『투쟁속보』 제7호(1988. 06.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88년 상반기 인천지역 노동운동탄압 자료집」(1988. 06. \*, 노동조합 탄압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M00535391)

## 05. 22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 인천지역 노동자복지협의회 · 인천가톨릭노동청년회 · 인천기독교산업선교회 ·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 인천 · 부천민주노동자회,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황재철 의장이 5월 21일 집시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 대하여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준비위) 황재철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성명서 -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준비위) 황재철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1988. 05. 2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등 8개 단체, M00086620)

- 천주교 인천교구 석남동 성당을 비롯한 5개 본당, 5·18광주민중항쟁 관련 비디오 상영 및 사진 전시회 등 진행

『인천주보』 제927호(1988. 05. 29, 천주교 인천교구)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및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회원 · 일반 신자 70여 명, 인천지역 시민 · 학생 900여 명과 함께 5월 23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순례하고 망월동 묘역 참배

『인천주보』 제927호(1988. 05. 29, 천주교 인천교구)

## 05. 25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부평1동 성당에서 「황재철 의장 석방 촉구대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투쟁속보』 제7호(1988. 06.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 협우실업 여성노동자들, 회사 내에서 ‘일당 13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구사대 50여 명에 의해 구타를 당해 노동조합 위원장 전효숙 등 5명이 부상을 입음

『한겨레신문』 제10호(1988. 05. 26,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협의회(인노운동협) 결성. 황재철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의장 구속으로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지역 노동단체들이 평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논의되어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인천가톨릭노동청년회 등 8개 단체들이 발족을 결의하고 창립 되었으며 같은 해 6월 7일 전국 노운동협이 결성되었음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보고서-인천』

## 05. 26

- 한진 인천지점 운전기사 200여 명, 지점 내 주차장에 모여 ‘현행 능률급제 폐지와 완전월급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11호(1988. 05. 27, 한겨레신문사)

## 05. 27

- 승일제관 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

「민주노조」 제16호 -임투속보(1988. 03. 0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투쟁상황본부, M00516748)

## 05. 28

- ‘노동조합탄압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황재철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의장의 구속을 비롯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 맞설 목적으로 노동자, 시민, 학생이 연대하여 출범

#### 〈조직 구성〉

- 대책위원 :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산하 각 노동조합 위원장, 김달성, 김병기, 김상목, 김성복, 김정택, 김지선,

1988년

남규우, 박귀현, 박남수, 박일성, 박종렬, 서애란, 송경평,  
신철호, 안순애, 오순부, 이원희, 이호웅, 최연봉, 황영환

-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 노동단체 : 인천기독교 도시산업 선교회,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천지역 민주노조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 가톨릭 노동청년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 사회민주단체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 학생회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 후원단체 : 민주쟁취 국민운동 인천본부

「88년 상반기 인천지역 노동운동탄압 자료집」(1988. 06. \*, M00535391)

#### 05. 30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노동악법 철폐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평민당 중앙당사 점거 농성 전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승일제관 노동자 200여 명,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시작

「민주노조」 제16호 -임투속보(1988. 03. 02,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투쟁상황본부, M00516748)

- 학익1동 16통·21통 주민 120여 명, 인천시청을 점거한 채 '대책없는 강제 철거 반대' 등을 요구하며 농성 전개

「인천철거지역 투쟁에 관한 보고서」(1988. 08. 15,  
인천시철거민협의회·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 M00113291)

#### 06. \*

- 인천민중교회연합, 해인교회에서 발족. 회장에 김정택 전도사(송현산마루교회)를 선출하고 지역 단위로 분화하여 부평지구·주안지구·동인천지구·부천지구 등 4개 지구로 구성.

〈인천민중교회연합 구성〉



| 구분    | 소속 교회                                      | 지구 대표  |
|-------|--------------------------------------------|--------|
| 부평지구  | 백마교회, 해인교회, 진실교회, 새봄교회                     | 신철호 목사 |
| 주안지구  | 인향교회, 한뜻교회, 샘터교회, 소성교회, 한길교회, 예림교회, 주안성결교회 | 김병기 목사 |
| 동인천지구 | 사랑방교회, 산마루교회, 송현샘교회, 새벽교회, 일꾼교회            | 회장이 맡음 |
| 주안지구  | 새롬교회, 하나교회, 제자교회                           | 이원돈 목사 |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 제성정밀 노동조합, 81명의 종업원 중 78명이 참가해 결성됨. 제성정밀은 1985년에 설립된 스피커 제조업체로 북구 서운동에 위치

『인천여성노동자』 제3호(1990. 03.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89)

- 인천기독교 목회자협의회 결성. 인천지역 40~50대 중진 목회자들이 중심으로 활동하는 목회자 단체임. 인천지역 인권선교위원회가 확대 발전하여 창립됨

「인천지역운동의 전개와 평가」(1989. 01. 09, 인천기독교 사회운동연합 준비위원회, M00341526)

「[제1회 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수련회 관련 일정표 및 교육자료]」(1989. 01. 09, M00445214)

- 송림동 나눔의 집 · 송현샘 공부방 개소

「이충현 제공」

#### 06. 04

-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 ‘인천시경은 구속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성명서 -인천시경은 구속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1988. 06. 04,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M00086743)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재철 의장 석방 2차 촉구대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06. 08

- 쌍용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조합 조합원 300여 명, 작업을 거부하고 식당에 모여 ‘임금 5만 2000원 인상’ 등 4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을 벌임

『한겨레신문』 제21호(1988. 06. 08, 한겨레신문사)

06. 09

- 인천시 철거민협의회 발족. 회장 양병주, 부회장 최찬식·노원석·이순식  
선출

「인천철거지역 투쟁에 관한 보고서」(1988. 08. 15,  
인천시철거민협의회·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 M00113291)

06. 10

- 인하대학교 학생들, 교내에서 출정식을 갖고 연세대학교에서 열리는 「남북  
학생회담 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함

『한겨레신문』 제24호(1988. 06. 11, 한겨레신문사)

06. 12

- 인천지역 철거민 300여 명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제철거 반  
대 및 구속자 석방 결의대회」 개최

「인천철거지역 투쟁에 관한 보고서」(1988. 08. 15,  
인천시철거민협의회·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 M00113291)

06. 13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준비위원회,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미양  
행에서 폭력구사대 추방 집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26호(1988. 06. 14, 한겨레신문사)

- 동신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11명, 서울 신림동 금속노련 사무실에서 ‘위장폐  
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임

『한겨레신문』 제26호(1988. 06. 14, 한겨레신문사)

- 인하대학교 학생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던 의경을 붙잡아  
모두 4명의 의경이 인하대학교 내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풀어줌

『한겨레신문』 제27호(1988. 06. 15, 한겨레신문사)

06. 15

- 동양이화 노동조합, 파업 농성에 돌입. 이후 11시간 만에 ‘임금 인상 1600  
원, 노조인정, 해고자 복직’ 등 11개 항에 합의하며 파업을 끝냄

「일터로 돌아가리라 -'88년 상반기 해고반대 및 복직투쟁 자료집」(1988. 10.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3079)

06. 16

- 민주교육추진 경·인교사협의회, 십정동 성당에서 「오늘의 교육현장 무엇  
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교사 대토론회 개최

『경인교사신문』 제6호(1988. 06. 07, M00157215)

## 06. 18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효성동 성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출범. 27개 노동조합, 42명 대의원 참석.
  - 의 장 : 황재철(한독금속)
  - 부 의 장 : 신안식(대흥기계), 유권상(정보산업), 최승기(남일금속),
  - 사무처장 : 김해숙(코스모스전자)
  - 회계감사 : 박복록(신광기업), 박평숙(진성전자)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강령

1. 우리는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굳건히 연대하여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1. 우리는 노동3권의 완전한 확보와 자본과 권력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한다.
1. 우리는 8시간 노동제의 확립과 생계비 쟁취 등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리 및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1. 우리는 민주적 노동조합의 역량강화와 민주노조의 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우리는 노동자의 대의와 함께 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에 봉사하는 모든 노동자, 민주세력과 연대한다.

『인노협신문 창간호』(1988. 07. 13, M00856035)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06. 20

- 용현동 성당 청년협의회, 크리스찬 사상연구소 양한모 소장을 초청해 ‘민족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회 개최
- 『정의평화』 제20호(1988. 07. 03,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8448)

## 06. 22

- 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조합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정
- 『한겨레신문』 제34호(1988. 06. 23, 한겨레신문사)

## 06. 23

1988년

- 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시작  
『한겨레신문』 제35호(1988. 06. 24, 한겨레신문사)

#### 06. 25

- '평화통일을 위한 인천지역 청년학생 공동위원회',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잃어버린 반쪽 조국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통일염원 강연회」 개최  
『정의평화』 제20호(1988. 07. 03,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8448)
- 대흥공업사(서구 석남동) 노동자 47명, 서구 석남동 ○○다방에 모여 노동  
조합 결성  
『햇새벽』 제1호(1988. 07. 07, 대흥공업사 노동조합 파업대책위원회 홍보부,  
M00400417)
- 동성상공 노동조합 현판식 개최  
『불꽃』 제10호(1991. 12. 30, 동성상공 노동조합, M00514506)

#### 06. 26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34개 노동조합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대학교 체육관에서 「인노협 결성보고 및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결의대회」  
개최. 당일 문화행사 기획은 인천우리문화사랑회가 담당함  
『한겨레신문』 제38호(1988. 06. 28, 한겨레신문사)

#### 「인노협 결성보고 및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결의대회」 문화행사 실무위원 만남 일정

- 6월 15일 : 문화부 준비모임
- 발대식 제안서 제출
  - 6월 20일 인노협 소속 노조 문화부장 1차 모임 갖기로 함
- 6월 17일 : 창립총회 예행연습 (위원장 모임)
- 위원장에게 발대식 제안서 제출 및 설명
  - 실무준비위원회 구성키로 결정
- 6월 20일 : 문화부장 1차 모임
- 발대식 제안서 설명
  - 문화부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이번을 계기로 문화부 모임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이 나옴

- 발대식 때 역할 분담과 연습 일정 및 참가노조 확정
- 풍물패 : 수, 금, 일 3일 연습 (12개 노조 50명)
- 집체극 : 화요일부터 매일 연습 (4개 노조에서 20명)
- 결계그림 : 수요일 (4개노조에서 파견)
- 노래연습 : 금속노련점거 4개 사업장 노가바부르기 연습, 축하공연 연습
- 기발 : 인노협 소속 각 노조 2명 파견. 금요일날 제작
- 6월 21일 : 실무자 1차 모임 (인노협 상집간부와 우리문화사랑회 실무자)
- 인노협 발대식 구체적 행사 일정과 역할 분담
- 문화 부문은 우리문화사랑회에서 담당하기로 함
- 6월 22일 : 실무자 2차 모임
- 역할 분담한 것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 (연설, 사회, 섭외, 문화, 홍보 등 집회 제반사항)
- 6월 24일 : 실무자 3차 모임
- 역할 분담 진행사항과 문제점 논의
- 6월 25일 : 실무자 4차 모임
- 마지막 프로그램(화형식)에 대한 정리
- 최종마무리 점검
- 연습하는 곳 방문하여 격려하기로 결정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인노협 결성보고 및 구속노동자 석방촉구대회 평가보고서』(1988. 08. 02, 우리문화사랑회 부문위원회, M00446505)

## 06. 27

- 한도물산 노동자 40여 명, 4월 18일부터 ‘기본급 일당 15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전개해 오던 중, 구사대가 몰려와 난투극을 벌여 20여 명이 부상 당함

『한겨레신문』 제38호(1988. 06. 28, 한겨레신문사)

- 대흥공업사 노동조합, ‘노동조합 결성 보고대회’ 개최. 대회가 끝난 후, 경찰이 불법 주거침입으로 회사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대회에 참석한 쿨트악기 노동조합 위원장 등 외부 인사 3명을 연행해 가자 대흥공업사 노

1988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항의하며 태업 실시

『햇새벽』 제1호(1988. 07. 07, 대흥공업사 노동조합 파업대책위원회 홍보부, , M00400417)

「대흥공업사 노동조합 탄압사례」(1988. \*, \*, M00400411)

#### 06. 28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임금인상 투쟁 상황본부를 해체함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세창물산 노동자들,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1989. 01. 30, 세창물산 노동조합 · 인천지역 위장폐업 분쇄 공동대책위원회, M00360356)

#### 06. 29

- 세창물산 노동조합 결성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1989. 01. 30, 세창물산 노동조합 · 인천지역 위장폐업 분쇄 공동대책위원회, M00360356)

#### 06. 30

- 대흥공업사 노동조합, 회사 측이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려 하지 않자 파업 및 철야 농성 시작  
「대흥공업사 노동조합 탄압사례」(1988. \*, \*, M00400411)
- 인천지역노동조합 여성부 연대모임, 경일화학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몬트레스 2명, 서전기업 4명, 경일화학 2명, 진성전자 1명, 폴트악기 1명, 남일금속 1명, 흥부합섬 1명,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 4명 등 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됨  
「안내문 : 인천지역 노동조합 여성부 연대모임」(1988. 07. \*, 몬트레스 노동조합 여성부 ·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M00847611)

#### 07. 03

- 주안1동 성당 청년협의회(초 · 중등부 교리교사회, 성가대, 대학생회, 청년회, 레지오), 주안1동 성당에서 「전두환 · 이순자 부정비리 전면공개 수사 촉구 서명운동」 전개  
『인천주보』 제933호(1988. 07. 10, 천주교 인천교구)

#### 07. 05

- 인천조선 노동조합, 임금교섭문제로 7월 16일까지 태업 및 파업 돌입  
「한라중공업 평가서」(1992. \*, \*, 한라중공업노동조합, M00410236)
- 인천조선 노동자 남훈희,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 당함. 이후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90년 12월 7일 대법원에서 기각됨. 남훈희는 1991년 7월 1일부터 회사 후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가 7월 23일 건강 악화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함

「(국정감사 자료) 이력서 허위 기재란 명목으로 해고된 한라중공업 해고자 남훈희 씨의 경우」(1991. \*.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M00046831)

#### 07. 06

- 만수2동 쇼핑센타 앞 노점상 시장에 남동구청 직원 30명, 전투경찰 3개 중대 등이 투입되어 노점상 단속. 이 과정에서 노점상 박상말이 발목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해 인천 길병원에 입원

『인천주보』 제933호(1988. 07. 10, 천주교 인천교구)

#### 07. 07

- 대흥공업사 노동조합 파업대책위원회 홍보부, 소식지 『햇새벽』 제1호 발간  
『햇새벽』 제1호(1988. 07. 07, 대흥공업사 노동조합 파업대책위원회 홍보부, M00400417)

#### 07. 11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삼효·테크레코 위장폐업 분쇄 결의대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대흥공업사 노동자 40여 명,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구사대 70여 명에 의해 해산 당함

『한겨레신문』 제51호(1988. 07. 13, 한겨레신문사)

#### 07. 13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노협신문』 창간  
『인노협신문』 창간호(1988. 07. 13,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M00856035)

#### 07. 14

- 대흥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김희연,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안에서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됨

『한겨레신문』 제53호(1988. 07. 15, 한겨레신문사)

#### 07. 15

- 인천 소재 세창물산, 송철순 사무장 파업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집회 준비 중 현수막을 걸다가 지붕이 내려앉아 추락, 중태에 빠짐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1989. 01. 30, 세창물산 노동조합·인천지역 위장폐업 분쇄 공동대책위원회, M00360356)

07. 17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주최로 인천대학교 운동장에서 「노동운동탄압 분쇄 및 노동악법 개정촉구와 노동부장관 퇴진 수도권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한겨레신문』 제56호(1988. 07. 19, 한겨레신문사)
- 세창물산노동조합 사무장 송철순, 파업농성 중이던 1988년 7월 15일 공장 옥상에서 현수막을 부착하던 중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 세창물산은 6월 28일부터 파업 농성 중에 있었음  
「송철순열사 추모 및 노조탄압규탄 인천노동자결의대회」(1989.07.09, M00400316)  
『인천주보』 제935호(1988. 07. 24, 천주교 인천교구)
- 주안1동 성당, 「현시기 민족통일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 문익환 목사의 강연을 개최하고 마당극 「통일맞이 대동제」 공연  
『인천주보』 제934호(1988. 07. 17,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우리문화사랑회, 「인천지역 문화진흥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장터·주막거리」를 인천우리문화사랑회 사무실에서 개최  
『예술정보』 제17호(1988. 07. 16, 유기획실, M00116861)



인노협 창간호

# 인노협신문

창간호

1988. 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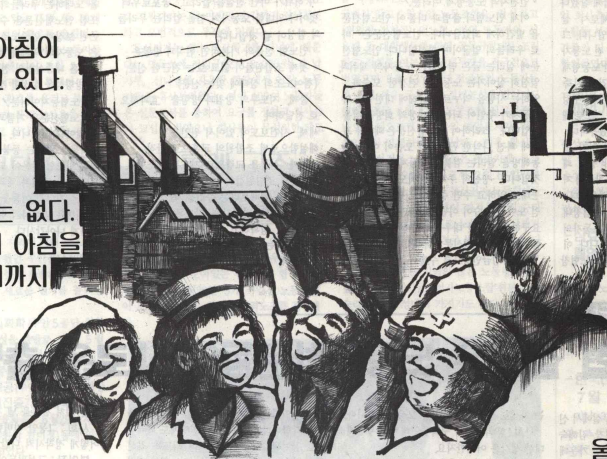
발행: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편집: 편집위원회

연락처: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123-57

대흥기계노동조합 ☎ 522-2795

보라!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누구도  
우리들의  
아침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들의 아침을  
맞아하기까지



이 아침을  
위치자.  
우리의  
작은 외침이  
온 공간에  
매아리 쳐져  
마침내  
커다란  
함성으로  
울려 퍼질 때까지

##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출범

노동3권쟁취와 전국적연대의 초석이 될 것을 결의

6월 18일

### 창립총회로 정식 출범

이날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밝히려는 동시대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선봉에 선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인노협) 6월 18일 효성동 성당에서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다. 지난, 3월 27일 22개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인노협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신규노조의 건설을 지원하며, 노조간의 활발한 연대활동을 통해 올해의 임금인상을 승리로 장식한 후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황재철 의장의 구두에서는 탄압속에서도 석방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탄압된 인노협의 결성은 전국적연대의 초석이 될 것을 선언하며 창립 총회를 치루었다. 27개 노조, 4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이 통과되었다. 인노협 초대의장으로는 황재철(현독금속위원장)이 선출되었고, 부의장에 신인식(대흥기계), 유권상(청보산업), 최승기(남일금속), 사무처장에 김해수(코스모스전자), 회계감사에 박복록(신광기업), 박복숙(건설전자) 위원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6월 26일

### 결성보고대회 성황리 개최

이날 6월 26일, 모든 조합원에게 인노협의 출범을 알리는 "인노협결성보고 및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대회"가 인천에서 1,000여명

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준비위원회에서 결성까지 탄압을 계속해온 정부당국은 대회 당일 학교주변에 전투경찰을 배치함으로써 집회를 무산시키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망을 뚫고 들어온 1천여 노동자들은 인노협이 자주적 노동조합의 중심체임을 선언하였다. 신인식 수석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한 구호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구속된 황재철의장의 옥중메시지에서는 "인노협의 결성을 40만 노동자와 전국의 일한단 노동자와 함께 기쁘다. 지난 해 7·8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올해로 이어

### 인노협, 인천 40만 노동자의 선풍이 될다

이제 인노협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중심체로서, 전국의 노동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300여개가 넘는 노조중에 사실 인노협의 노조는 35개에 불과하다. 또한 모든 업종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노협은 지난 7·8월 투쟁을 패곡된 노동조합운동을 올바르게 집기위한 인노노조를 정착시켜 왔으며, 연대활동을 활발히 해온 결과 올해의 임무에서 수 많은 노조를 건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대기업과는 분리되는 현상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인노협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역사

적 임금인상투쟁의 경험을 갖고 전국적 조직의 건설을 위해 총대진하자."는 내용이 전달되었다. 동선전자의 한 이원노동자는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투쟁을 통해 조직적으로 연대했을때만이 민주사회는 건설되는 것이다"며 열변을 토했다. 인노협 산하 각 노조의 조합원이 참가하여 축하를 부르는 것으로 대회의장의 열기는 고조되었다. 인노협의 방향과 과제를 낭독한 후 결의문을 끝으로 1부를 마무리 지었다. 현재 진행되는 노동조합 탄압을 분쇄하는 화형식을 마지막으로 보고대회를 끝맺었다.

적인 출범을 하였다. 따라서 돌아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우선 단위사업장의 강화로 시작으로 힘찬 출발이 요구된다. 그동안의 일부 성과를 수렴하고 이를 조직의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대기업 사업장과 인노협에 포함되지 못한 노조들이 인노협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 연대의 폭을 넓혀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노동조합 계쟁장에도 명확한 방향을 갖고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며, 지금까지 무관한 것처럼 여겨졌던 시월·연명·노총의 민주화도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함으로써 인노협의 강화에 총대진해 나갈 것이다.

[지도부와 조합원이 혼란할 수 있도록 커다란 함성을 울리자.]

### 인노협 강령

1. 우리는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굳건히 연대하여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1. 우리는 노동3권의 완전한 확보와 자본과 권력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항한다.

1. 우리는 8시간 노동제의 확립과 생계비 정취 등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리와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신장 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1. 우리는 민주적 노동조합의 역량강화와 민주노조의 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우리는 노동자의 대의와 함께 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에 봉사하는 모든 노동자, 민주세력과 연대한다.

8/6035

〈『인노협신문』 창간호〉

『인노협신문』 창간호(1988. 07. 13,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M00856035)

1988년

07. 21

- 용현동 성당, 「공해」라는 주제로 최열 한국공해문제연구소장을 초청해 「목요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934호(1988. 07. 17, 천주교 인천교구)

07. 22

- 부강교통 운전기사와 가족 40여 명, 77일째 파업을 이어가던 중 인천지방노동청 복도에 몰려가 쟁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노동부가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구

『한겨레신문』 제60호(1988. 07. 23, 한겨레신문사)

07. 23

- 삼효정공 · 한국테크레코 · 대호전자 노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7명, 평민당 노동분과위원장 김용석과 함께 인천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3개 공장의 '위장폐업'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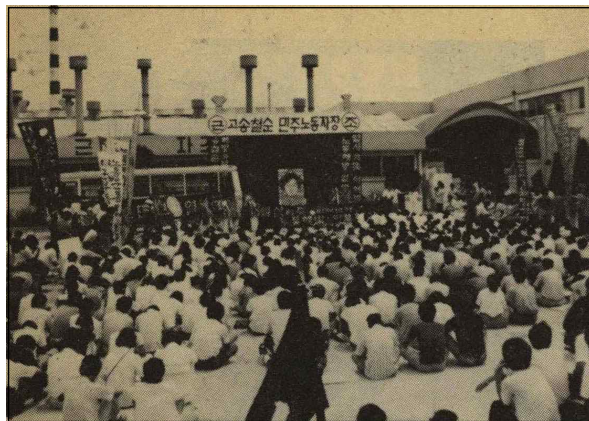
『사생결단』 제1호(1988. 07. 29, 삼효 · 테크레코 · 대호 위장폐업 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M00403196)

07. 26

- 세창물산 전 사무장 송철순 장례식 거행. 주안공단의 가두행진을 거쳐 장례식을 개최한 후 공단관리사무소 앞에서 노제를 치르고 장지에 안장됨.

『사생결단』 제1호(1988. 07. 29, 삼효 · 테크레코 · 대호 위장폐업 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M00403196)

『한겨레신문』 제63호(1988. 07. 27, 한겨레신문사)



〈세창물산 전 사무장 송철순 장례식 광경〉

『인천여성노동자』 제2호(1990. 02.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86)

## 07. 27

- 삼효정공 · 한국테크레코 · 대호전자 노동조합, 부천 소재 대호전자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장폐업 분쇄 문화 대동제」 개최.

『사생결단』 제1호(1988. 07. 29, 삼효 · 테크레코 · 대호 위장폐업 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M00403196)

## 07. 29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8월 2일까지 2차에 걸쳐 4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노협 여름대잔치」 수련회 개최

『아람』 제5호(1988. 08. 16, 대한마이크로노동조합, M00399971)

- 삼효정공 · 한국테크레코 · 대호전자 노동자들, 위장폐업분쇄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사생결단』 제1호(1988. 07. 29, 삼효 · 테크레코 · 대호 위장폐업 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M)00403196)

- 삼효 · 테크레코 · 대호 위장폐업분쇄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미미양행 위원장과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공실위 사무장과 함께 서울 신림동에 소재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실을 찾아가 '위장폐업'에 대한 연대 투쟁 요구

『사생결단』 제2호(1988. 08. 02, 삼효 · 테크레코 · 대호 위장폐업 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M00403196)

- 명신기계 노동자 위평복, 강제 사직 당한 데 대해 항의하며 회사 정문 앞에서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 기도.

『우리는 일하고 싶다』(1988. 07. 29, 봉신복직대기노동자, M00407528)

## 07. 30

- 한두물산, 6월 말부터 노사분규가 진행되어 오다가 이 날 폐업공고를 낸

『사생결단』 제2호(1988. 08. 02, 삼효 · 테크레코 · 대호 위장폐업 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M00403196)

## 07. 31

- 삼효 · 테크레코 · 대호 위장폐업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효성동 소재 한국테크레코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장폐업분쇄 연대의 밤」 개최. 이 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승국 조사통계차장과 홍보차장이 '위장폐업'에 대한 금속연맹의 공식적인 입장을 성명서로 낭독하고 연대할 것을 결의하였고,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회원 50여 명이 수련회를 마치고 격려 방문을 함

1988년

『사생결단』 제2호(1988. 08. 02, 삼효·테크레코·대호 위장폐업 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M00403196)

08. 01

- 삼효·테크레코·대호 위장폐업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50여 명이 전국금속  
노조연맹 대표들과 함께 인천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건물 앞 마당에서 연  
좌농성을 전개하고 요구사항 전달

〈요구사항〉

1. 7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자체조사내용과 그 대책을 밝힐 것
2. 이후 3개 사업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8월 3일까지 노동청  
의 공식 입장과 방안을 각 노조로 통보할 것
3. 부평4공단의 한두물산의 재폐업행위를 볼 때, 위장폐업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노동청  
은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일주일내로 노동청내에 ‘위장폐업대책  
특위(가칭)’를 구성,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펼쳐 나갈것

『사생결단』 제2호(1988. 08. 02, 삼효·테크레코·대호 위장폐업 분쇄 공동  
대책위원회, M00403196)

08. 01

- 대신전기 노동조합 결성하고 작업을 거부한 채 회사 식당에 모여 ‘일당  
1500원 인상,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대신전기는 주안동  
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임

『한겨레신문』 제68호(1988. 08. 02,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79호(1988. 08. 14, 한겨레신문사)

08. 03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운영위원회 해체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08. 05

-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준비위 발족, 참여 단체는 인천지역사회운동연  
합,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인천지역민중문화운동연합, 인천지역민주시민  
공동회, 인천천주교사회운동연합(준), 인천지역빈민활동가협의회, 인천지역  
민중운동협의회, 인천대학생대표자협의회

08. 06

-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천사협), 8월 7일까지 1박 2일간 소속 단체(노동청년회, 도시빈민회, 청년회,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농민회 준비위원회 등) 임원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종도 운서리 공소에서 하기 수련회 개최. 6·10남북학생회담 내용을 담은 비디오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를 감상하고 천주교사회운동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조국통일 운동에서 교회가 맡아야 할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함

『인천주보』 제0814호(1988. 08. 14, 천주교 인천교구)

- 신립섬유 노동조합 조합원 40여 명, 하계휴가를 간 틈을 이용해 회사 측이 7월 30일 폐업 신고를 하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73호(1988. 08. 07, 한겨레신문사)

#### 08. 09

- 인천노동조합협의회, 노동법 개정 대책위 구성

#### 08. 10

- 한국로아 노동자 70여 명, ‘어용노조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한국로아는 효성동에 위치한 가발 생산업체임

『한겨레신문』 제76호(1988. 08. 11, 한겨레신문사)

#### 08. 12

- 코리아 하이답프 노동자들, ‘임금인상 및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회사 사무실에서 1985년부터 1987년 10월 사이에 해고된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180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블랙리스트 발견

『한겨레신문』 제78호(1988. 08. 13,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실 개소식 개최

『아람』 제5호(1988. 08. 16, 대한마이크로노동조합, M00399971)

#### 08. 13

- 미미양행, 노동조합 현판식 개최

『아람』 제5호(1988. 08. 16, 대한마이크로노동조합, M00399971)

- 대신전기 노동자 34명, 회사 안에서 농성 중 공장 안으로 들어온 경찰에 의해 연행됨. 그 과정에서 수 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함

「(가칭) “대신전기 백골단 만행 규탄대회” 제안문」(1988. 08.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0728)

『한겨레신문』 제79호(1988. 08. 14, 한겨레신문사)

#### 08. 15

- 인천시철거민협의회 · 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 「인천 철거지역 투쟁에

1988년

관한 보고서」 발간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08. 16**

- 대신전기 노동자 10명, 서울 여의도동 평민당 중앙당사에서 10월 13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한 데 항의하며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82호(1988. 08. 18, 한겨레신문사)

**08. 17**

- 영본가구 노동자 26명,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결성. 영본가구는 부개동에 위치한 가구업체임

『영본노보』 창간호(1988. 08. 22, 영본가구 노동조합, M1988.08.22.)

『인천노동교육』 창간호(1989. 07. 10, 인천노동교육연구소)

- 인천신문사 편집국 기자 11명,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항만부 차장 최남일을 위원장으로 선출

『한겨레신문』 제83호(1988. 08. 19, 한겨레신문사)

-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제1기 노동조합 교실」 개최

## 〈교육 일정〉

| 회차 | 날짜     | 교육내용                                                                 |
|----|--------|----------------------------------------------------------------------|
| 1회 | 08. 17 | 1. 기초강의 : 조합활동의 원칙과 기본방향<br>2.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어떻게 높일 것인가               |
| 2회 | 08. 24 | 1. 조합내 민주집중제를 올바르게 실현하려면!<br>2. 연대활동과 단위조합활동의 결합을 위하여                |
| 3회 | 08. 31 | 1. 비조합원 조직화 문제<br>2. 어용노조 민주화의 올바른 실현방안<br>(노충, 연맹 및 시험 내 민주세력 구축문제) |
| 4회 | 09. 07 | 1. 조합내 올바른 노동자 입장의 강화를 위하여<br>2. 간부, 핵심조합원의 조직과 훈련                   |

「제1기 노동조합 교실」(1988. 08. 17,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M00124364)

## 08. 18

- 서울대학교 출신 박인규·차영진, 8월 15일 효성동 소재 한국로아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통일 관련 슬라이드를 상영한 일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슬라이드를 입수했다는 정보를 얻은 경찰이 백마교회에 전경차량 2대를 출동시켜 정문을 봉쇄한 후 ‘불법의료’를 이유로 의료기구, 의약품, 주민진료 기록지 등을 압수하고 신철호 목사 등 6명을 연행함

『한겨레신문』 제83호(1988. 08. 19,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85호(1988. 08. 21, 한겨레신문사)

「호소문[백마교회 진료소가 의료기구, 의약품, 주민진료 기록지등의 백마교회 탄압에 대한 호소문]」(1988. 08. 26, M00096863)

- 영본가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결성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총 110명의 노동자 중 89명으로부터 조합원 가입원서를 받음.

『인천노동교육』 창간호(1989. 07. 10, 인천노동교육연구소)

- 인천조선 노동조합, ‘근로조건 개선, 안전화 무상지급’ 등을 요구하며 인천시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발생 신고

『한겨레신문』 제82호(1988. 08. 18, 한겨레신문사)

## 08. 19

- 인천·부천지역 위장폐업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효정공, 대호전자, 한국테크레코, 한도물산, 신립섬유, (주)원방 등의 폐업은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며 위장폐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

『한겨레신문』 제84호(1988. 08. 21, 한겨레신문사)

- 제물포버스 등 인천 시내버스 6개사 노동조합, 관할구청에 쟁의 발생 신고  
『한겨레신문』 제84호(1988. 08. 20, 한겨레신문사)

**08. 21**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공실위의 발전적 해체와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실위 창립 1주년 기념 좌담회」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 백마교회 신도 및 인천지역 목회자 200여 명, 부평경찰서 앞에서 「선교자유 수호를 위한 노상기도회」를 개최하고 백마교회 신철호 목사를 연행한 경찰의 처벌과 압수한 의료기구의 즉각 반환을 요구  
『한겨레신문』 제86호(1988. 08. 23, 한겨레신문사)

**08. 22**

- 영본가구 노동조합, 소식지 『영본노보』 창간호 발행  
『영본노보』 창간호(1988. 08. 22, 영본가구 노동조합, M1988.08.22.)
- 인천노동조합협의회, 위장폐업 분쇄 결의 기간(~27)

**08. 24**

- 인천운수 노동조합 조합원 59명, 회사 측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데 항의하며 택시운행을 중단한 채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89호(1988. 08. 26, 한겨레신문사)

**08. 25**

- 영본가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 상근자 2명 인정, 일당 1400원 인상, 추석상여금 100% 지급’ 등에 대한 요구를 내세웠으나 회사 측이 노동조합은 인정하되 상근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상을 진행하지 않자 쟁의발생 신고를 하고 잔업을 거부함. 이튿날인 8월 26일 잔업거부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집행부 15명 정도로 축소되자 회사 측이 노동조합 간부 3명을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조치하고 2명은 출근정지처분을 내림  
『인천노동교육』 창간호(1989. 07. 10, 인천노동교육연구소)

**08. 27**

- 인천민주청년회, 인하대학교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출



## 범

## ‘인천민주청년회’ 창립 선언문

청년이며, 해방의 함성으로 신새벽을 노래하라

해방이후 44년. 분단 44년의 이름으로 계속되어 온 이 조국은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무시해 온 외세 미국의 이름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자존심 정도는 간단히 치워버릴 군부독재의 이름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외세의 침략과 소수 지배층의 무력의 이름 속에서도, 진정 역사와 나라를 사랑하며, 나보다는 이웃을,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국과 겨레를 사랑했던 순결하고 열혈한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하 민족해방의 열혈투사들, 해방 이후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화를 위해 싸워 온 민주화의 화신들, 바로 이들이야말로 오욕과 허구로 강요된 지배의 굴레를 벗어 던질 참된 역사의 이름임을 확신합니다.

작년, 끓어오르던 6월 대민중항쟁 속에서 보여 온 우리 청년들의 용기있고 당찬 용맹한 이 시대 한반도의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조국과 겨레의 존재로서, 이웃과 사랑의 존재로서 꿈틀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구한 역사에 나타난 선배 청년들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 우리는 지역 내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에 굳건히 뿌리내려 각 계급, 계층 청년들의 발전과 지향을 도모하여, 나라사랑의 길이 결코 소수 몇 명에 의해 영웅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지역 청년 모두가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진 민족의 숨결임을 확신하고 이를 현실화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 우리는 건강하고 밝은 내일을 향한 공동체적 삶과 민족문화를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정신적 마취는 청년들의 젊은 혈기를 소모적이고 찰라적인 외래퇴폐문화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들끓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민주청년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들끓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민주청년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뿌리

가 되는 병폐성 외래문화를 배격하고 이웃과 나라 사랑의 길을 밝히는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입니다.

1. 또한 우리는 지역 내 다양한 계급, 계층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 청년들의 일상적 권익과 이해를 위해 매진하여, 그를 바탕으로 한 굳건한 단결을 모색하는 하나된 청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계급, 계층의 협소한 이익이라는 울타리를 뛰어 넘어 조국과 겨레의 광활한 해방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하며, 나아가 민족민주세력의 통일된 대오의 형성에 온 정열을 바칠 것입니다.

1. 우리 청년들은 용맹하고 진취적인 선배 청년들의 뜻을 이어받아, 각기 처해진 생활 현장에서 주변 청년들의 권익과 이해에 누구보다 철저히 앞장 설 것이며, 당면한 역사가 요구하는 민족자주화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 싸울 것입니다.

인천민주청년회가 창립을 선언하는 오늘,

개인의 이익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의 집단보다 전체를 사랑하는 조국의 열혈 청년들의 인천민주청년회는 한 치의 주저함과 물러섬이 없이 진군할 것을 결의합니다.

44년전 저 뜨거웠던,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통곡으로 변해버린 해방의 함성을 우리는 기필코 자주, 민주, 통일의 이름으로 되찾을 것을,

100여 년 역사 앞에 몸을 던진 선배청년 제현들의 영전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의 나라 만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만세

자랑스런 인천민주청년회 만세

분단조국 44년 8월 27일

인천민주청년회

「인천민주청년회 창립잔치」(1988. 08. 27, M00201218)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황재철 의장 석방 환영대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08. 28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위장폐업 분쇄 및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대회」에

500여 명 참석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08. 29

- 청년치과의사회, 「백마교회 진료소에 대한 불법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진료 활동 보장하라 -백마교회 진료활동탄압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백마교회진료소에 대한 불법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진료활동보장하라.백마교회 진료활동탄압에 대한 견해」(1989.08.29, M00096865)

## 09. \*

- 전국민족민주운동인천연합 창립.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인천민중연합,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인천민주청년회, 천주교사회운동연합, 인천기독교사회운동연합, 인천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 등이 가입. 초대 의장으로는 이호웅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의장 선출. 인민연은 민중생존권 지원과 5공비리 관련자 처벌, 조국통일운동을 당면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당시 대량 해직사태를 맞은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지원함.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보고서-인천』

## 09. 02

- 영본가구 해고노동자들, 출근투쟁 시작.

『인천노동교육』 창간호(1989. 07. 10, 인천노동교육연구소)

- ‘건강사회실현 약사협의회’ 등 11개 의료단체, 8월 18일에 있었던 ‘백마교회 의료봉사 탄압 사건’과 관련해 ‘백마교회 의료봉사활동탄압에 대한 의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9월 15일, 부평중부감리교회에서 규탄대회를 가짐

『약사신문』 제3호(1988. 10. 26, 건강사회실현 약사협의회, M00084360)

## 09. 03

- 세창물산 회사 측에서 경영난과 강경노조로 인해 회사 문을 닫겠다고 공표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1989. 01. 30, 세창물산 노동조합 · 인천지역 위장폐업 분쇄 공동대책위원회, M00360356)

## 09. 04

- 인천지역 노동조합운동연합 추진위원회, 일꾼교회에서 「단일한 노동조합운동연합을 건설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단일한 노동조합운동연합을 건설하기 위한 공청회」(1988. 09. 04, 인천지역 노동조합운동연합 추진위원회, M00361294)

09. 05

- 인천지역 민중교회운동 협의회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등 인천지역 기독교 3개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기독교 사회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 개최.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사무국장, 민중교회운동 협의회 4명, 기독교청년협의회 3명,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음. 위원장에 박종렬 목사 선출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인천지역운동의 전개와 평가」(1989. 01. 09, 인천기독교 사회운동연합 준비위원회, M00341526)

「[제1회 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수련회 관련 일정표 및 교육자료]」(1989. 01. 09, M00445214)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공실위의 발전적 해체와 이에 따른 향후과제 설정」이라는 주제로 부서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와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 새로운 대중활동체가 등장한 시점에서 발전적 해체를 하기로 결정함

「공실위 부서원 전체회의 지상공개(대외공개용)」(1988. 10. 10,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442976)

09. 08

- 인천민족민주운동연합, 인사연 사무실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약 및 조직을 확정하고 창립

「창립선언문-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을 결성하며」(1988. 09. 11, M00401663)

「88년 인민연 활동 평가 및 89년 활동 계획」(1989. \*. \*,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M00401657)

09. 11

- 해인교회, 해인청장년회 조직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주안1동 성당에서 「창립보고대회 및 전두환 · 이순자 처벌 결의대회」 개최.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인천민중연합,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인천민주청년회,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인천기독교 사회운동연합, 인천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이 참여. 의장에 이호웅 선출

「창립선언문-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을 결성하며」(1988. 09. 11, M00401663)

「88년 인민연 활동 평가 및 89년 활동 계획」(1989. \*. \*,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M00401657)

# 창 립 선 언 문

##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을 결성하며 —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향한 부푼 희망과 결연한 각오로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의 창립을 선언한다.

우리 민족은 지난 19세기 말부터 100여년간 계속된 외세의 지배, 44년의 분단과 매국적 독재와 맞서 끈질기게 투쟁해온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이제 반동의 역사를 끝장내고 자주·민주·통일의 새 시대를 향해 마지막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러나 작년 6월 민중의 일치단결된 투쟁 앞에서 6·29선언이라는 기만적 조치로 위기를 모면한 후 보수야당의 분열을 틈타 엄청난 부정선거로 재집권한 미국과 군부독재는, 현재 한편에서는 기만적 '민주화' 조치로 민중을 호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권 유지와 한반도 분단 고착화의 수단으로 유지한 올림픽이 다가오자 보수야당을 들러리로 "평화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하여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군부독재의 지배아래 민중은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일천만 노동자들은, 숨들릴 틈도 없이 이어지는 세계 제1의 장시간 노동아래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채 뼈빠지게 일하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연초에 책정된 11만 7천원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장시간 노동으로 지친 몸은 생산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안전장치의 제거로 인해 언제 기계의 제물이 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노예적인 노동자의 삶을 거부하는 정당한 요구는 경찰과 구사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탄압받고 있다. 특히 인천·부천지역에서는 동신전자, 삼효정공, (주)원방 등의 사업장에서 위장폐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탄압마저 발생하였다.

농민들은 독점자본의 수출기반 형성을 위한 저농산물가격정책, 해외농산물의 무분별한 도입 등으로 아무런 희망없이 몰락의 위협아래 살고 있으며 최근의 최고기수입 조치는 소값 파동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더욱더 황폐화하고 있다.

도시의 중소상공인 역시 독점재벌의 하청계열화와 이에 따른 수탈, 유통업제에의 침투로 몰락의 불안 속에 살고 있으며 올림픽을 빙자한 강제철거 및 노점상 단속은 한계상황에 처해있는 도시빈민들에게서 최소한의 삶마저 박탈하고 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정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청년학생과 양심적 지식인, 종교인들은 군부독재의 사상적·정치적 억압아래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이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감옥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수탈하는 미국과 군부독재정권은 민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미국과 군부독재정권이 탄압과 기만적 민주화조치로 일시적으로는 민중투쟁의 예봉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새로운 민중투쟁으로 곧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6월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작년 7·8월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사업장에서 노동약법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임금인상과 민주노조 결성을 쟁취한 노동자들은 올해들어 더욱더 조직화된 투쟁을 전개해가고 있으며, 청년학생들은 상반기 통일운동을 통해 분단고착화세력의 전유물이던 통일논의를 대중화하였고 통일의 진정한 주체는 민중임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민중의 활기찬 투쟁은 민족민주세력에게 무한한 희망과 함께 철저한 반성과 배가된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 민족민주세력은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내부노선의 차이로 뚜렷한 구심체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정세에 대해 능동적이고 통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우리 운동의 빠아픈

A4

L41663

1988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경험은 민족민주세력이 독자적 정치노선아래 강력한 구심체를 형성해야만 철저한 민주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특히 4·26총선으로 형성된 여소야대의 상황은 한편에서 우리에게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운동이 타협적·점진적 개량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민족민주세력이 뚜렷한 구심체를 형성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 제약을 결합한 산물로서 내부의 분열을 뛰어넘고 공동투쟁 속에서 더욱더 단결할 것이며, 인민연을 중심으로 인천의 민중형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첫째,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한다. 외세에 의한 일체의 정치·경제·경제적 지배를 배격하고 민중이 주체가 되어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불가침 선언을 발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투쟁한다.

둘째,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민주국가를 수립한다. 외세와 일부독점재벌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중주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수립한다.

셋째, 민중의 생존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독점재벌의 재산을 국유화하여 민중경제의 기초로 전환하고 8시간 노동제, 생활임금의 철저한 보장, 무분별한 농산물수입의 금지, 적정 농산물 가격의 책정, 주택문제의 민중적 해결을 실현한다.

넷째,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언론출판 및 사상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고 국가보안법 등 제반 악법을 폐지하여 집회·시위·파업의 자유 및 정당 결성과 활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며 과소의 억압 기구인 보안사·안기부·전투경찰을 해체한다.

다섯째, 제국주의, 관료주의, 퇴폐향락문화를 배격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중적·민족문화를 육성하며 남·여간의 성적 차별을 폐지한다.

인민연은 이상과 같은 장기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함과 아울러 향후 단기사업의 중점을 민중의 생존권투쟁 지원, 5공비리규명 및 관련자 처벌요구, 조국통일운동 반민주세력의 사상적도발 분쇄투쟁에 둘 것이다. 현재 민중의 민주화요구가 거세어지고 5공비리규명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궁지에 몰린 부패군부세력은 그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악용, 사상적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민중이 반공이라는 말 하나에 그저 겁을 내고 머뭇거리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 민중은 어제의 민중이 아니다. 전두환군사독재의 극악한 탄압에서도 6월투쟁을 힘차게 벌여온 우리 민중들은 이제 어떠한 한 기만과 협박에도 기만당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역사를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에게서는 민족의 자주권이 보장되고 민중이 이땅의 참된 주인이 될 그날에 대한 푸른 꿈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 서로서로 의지하며 자주·민주·통일이 성취될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하자./

서로를 신뢰하며 동지애로 뭉쳐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자./

인민연의 깃발아래 단결하여 강고한 공동투쟁을 전개하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만세./

반외세 자주화투쟁 만세./

민족민주세력 단결 만세./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만만세!!

1988. 9. 11.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창립선언문-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을 결성하며」(1988. 09. 11, M00401663)

## 09. 14

- 인천교육대학 학생들, 학교 측에 '기성회비 내역공개'를 요구하며 농성 시작

『인천주보』 제947호(1988. 10. 09, 천주교 인천교구)

-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정치연합(진보정치연합) 결성, 민중의 당 북구를지구당(위원장 송경평)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로 조직변경
- 인천지역 노동조합운동연합 추진위원회 발족 선언문 발표

「인천지역 노동조합운동연합 추진위원회 발족 선언문」(1988. 09. 17, 인천지역 노동조합운동연합 추진위원회, M00404236)

## 40만 인천 노동자의 단일한 연대 조직

「인천 노동조합 운동연합」으로 형제여 뭉치자! 전진하자!

- 인천 노동조합 운동연합 추진위원회 발족 선언문 -

인천의 노동 형제들!

잔업·철야·저임금·멸시와 천대 속에 시들어가는 노예생활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떨쳐 일어선 87 대파업투쟁에 뒤이어 88년 올해 우리는 연대 투쟁의 발길을 내딛었습니다.

3월의 임투전진대회에 이어 인천 49개 택시노조 파업, 한독금속의 21일간 파업투쟁에서 우리는 연대의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뒤, 코스모스·몬트레스·대흥기계·콜트악기 형제들은 상호지원연대투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했고, 동신전자·세창물산·하이답프에는 공동규찰대가 구성되어 경찰·구사대 폭력을 격퇴하였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힘은 마침내 6월 18일 인천 노동조합협의회 결성에 이르렀습니다.

피땀흘려 쟁취한 민주노조를 굳건히 수호하며, 자본가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우리 노동자는 단결과 연대의 무기를 손에 쥐고 힘찬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군사독재정권의 탄압과 그들이 곳곳에 걸어놓은 장애물과 함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노동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올림픽 평화구역이라는 계엄조치로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올가미를

씩우고 있습니다. 황제철 동지가 석방되는 그 때에 삼지실업 위원장은 노동악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세창물산에서는 송철순 동지의 49제 바로 그 날 자본가는 위장폐업을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자본가와 정권의 합작품인 위장폐업은 최근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장폐업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의 민주노조들로 결집한 인노협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며, 인천에서 타오르는 연대의 불꽃을 끄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은 우리의 투쟁이 발전하고 연대의 힘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교묘하고 악랄한 수단과 조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갈 길은 오직 하나!

강고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뒷받침되는 굳센 연대투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힘은 약하고 또한 분산되어 있습니다.

- 1년 간의 험난한 투쟁에서 결성된 민주노조들은 40만 인천형제들의 수에 비하면 아직도 적습니다. 노조가 없는 공장이 너무 많으며, 어용노조 역시 많습니다. 인노협의 42개 노조 역시 전체 노조수에 비해 20%도 안 되는 적은 수이고,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 또한, 우리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고, 이곳 저곳에 그리고 저마다의 활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한번 둘러봅시다. 똑같은 교육내용, 상담내용을 갖고 흩어져 있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에게는 “자신이 참가하고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조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노동운동역량이 제일 많다는 인천의 한복판에서 노조를 결성하려고 발버둥치며 해마다가 함께 손잡고 활동할 곳을 찾지 못해 실패하고 고래되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 따라서, 투쟁에 동참하고 동원되는 노동자의 수가 너무 적고, 우리의 힘 또한 강고하지 못합니다.

최근 위원장과 3명의 조합원이 구속된 대공화학의 투쟁이 있었을 때, 인노협 42개 노조 중 한 곳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지원하고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각 노조마다 대중적으로 강력하게 투쟁하고, 옆 공장에 싸움이 생기면 즉각 지지·연대투쟁이 벌어지고, 공동규찰대가 구성되어 투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을 휩쓸며 자본가를 격퇴할 수 있는 우리의 소박한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I. 이 같은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인천지역의 40만 노동 형제를 하나로 묶어 세우는 단일한 연대 조직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현 정권의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노조가 없는 공장의 노조준비모임, 어용노조 민주화추진모임, 해고자협의회, 산재연합, 노동상당소, 문화단체, 야학, 친목회” 등의 모든 노동자의 대중조직 그리고 “노조운동에 뜻을 두고 끓는 피를 바치고 있는 동지로부터 노동자답게 올바르게 떳떳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뜻있는 형제들까지”

인천지역의 모든 노동자 대중조직과 노동형제들을 굳건히 묶어나갈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조직은 모든 투쟁과 사업을 참여한 조직원 전체의 의사와 결의에 의해 결정하고, 참가한 모든 조직과 대중이 결정사항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즉, 굳센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실질적인 연합조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자 하는 “인천 노동조합운동연합(인천노련)”은 바로 그러한 조직이며, 우리는 인천의 형제들께 알리고 제안하며 함께 준비하기 위해 오늘 “인천 노동조합운동연합 추진위원회(인천노련추진위)”를 결성합니다.

## II. 동지들!

우리는 지금 있는 인노협이나 노운협 등을 강화시키면서 “인천 노동운동연합”을 건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지금 따로 인천노련 추진위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법노조만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적 수준의 “노동조합협의회”, 그리고 몇몇의 먼저 깨달은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협의적 수

준의 노동운동단체만으로는 갈 곳이 없어 고통받는 대다수 노동형제들의 열망과 투쟁을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인노협과 노운협은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연대들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노협은 합법노조 그것도 중소기업 공장의 40여 개의 노조 중심이고, 조직운영도 대중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강력한 동원력이나 조직력이 미약하며, 현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업투쟁과 노동자 공동의 집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노운협은 먼저 깨달은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노동운동단체협의회이기 때문에 인천의 다수 노동자까지 조직에 끌어들이지 못하며, 동원력과 조직력 또한 미약합니다. 현재 노동자가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할 통일문제에 대해 계획되었던 8·15 통일투쟁집회가 무산되다시피 한 것도 이것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노협과 노운협만으로 인천지역 연대의 그릇을 축소시키고, 그것을 “노동조합운동연합”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큰 고통과 시행착오, 너무도 긴 세월을 소모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습만으로 갈 때에는 노조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어용노조민주화세력 등을 동참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숫자로는 가장 많은 노동운동 형제와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분열되어 있음으로 해서 조직력·투쟁력은 전국 최저의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힘의 낭비 또한 엄청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될 때, 새롭게 터져나올 공장의 파업투쟁, 또한 기승을 부리는 위장폐업과 구사대 폭력, 그리고 노동법 개정투쟁 등에서 우리는 엄청난 시련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인천 노조운동연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의 노동형제들과 함께 “인천 노동조합운동연합”의 결성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준비해 나갈 “인천 노련 추진위”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 “인천 노련 추진위”는, 인천지역 40만 노동자의 단일한 연대조직인

“인천 노동조합 운동연합”을 제안하고 추진하며, 그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노동자 대중조직입니다.

Ⅲ. “인천 노동조합 추진위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1.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이 노동조합 결성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주도합니다.
2. 인천지역 노동자의 단일한 연대조직 건설에 앞장섭니다.
3.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노동악법” 개정투쟁에 참가하여, 인천의 모든 노동자가 “투쟁의 자유”를 외치며 떨여 일어서도록 앞장섭니다.
4. 전국 노동자의 단일조직인 전국 민주노조운동 총연맹 (전민노련, 제2노총)을 결성하는 데 앞장섭니다.
5. 민주주의와 주권쟁취를 위한 전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투쟁을 벌여 나갑니다.
6. 분단논리 타파와 남북 통일운동에 적극 나섭니다.
7. 노동자 문화운동을 광범위하게 촉진시켜 낼 것입니다.

인천의 노동 형제들!

“인천노련 추진위”는 노동형제 여러분이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노동자 모두의 조직입니다.

인천의 모든 노동단체의 동지들!

“인천노련 추진위”는 동지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인천 노동자 전체의 승리를 위해 싸워나가며,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조직입니다.

우리 다함께 모읍시다. 단결합시다.

투쟁 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체득한 동지들! 노동자 사상으로 자본가 논리를 밀어붙일 수 있는 동지들! 노조운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에 가득찬 뜨거운 동지들!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지들! 오십시오!! 함께 모여 인천의 앞날을 열어갑시다.

“인천노련 추진위”는 가입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노동자의 자부심과 굳센 투쟁의 결의, 뜨거운 형제애만 끓여지고 오십시오.

우리는 “인노협”의 동지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 노운협”, “인천 해고자협의회”, “산재노련” 그리고 모든 단체의 동지들과도 함께 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가 일치하여 강력한 노동자 연합조직을 결성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동지들, 튼튼한 대중조직들과 함께 노동조합운동을 일사불란하게 지도할 강력하고 단일한 조직체를 건설하기 위한 길을 닦을 뿐입니다.

인천 노동형제와 함께, “인천노련 추진위”와 함께 노동자해방의 새날을 향해 달려갑시다.

대 파업 투쟁 1주년 9월 7일  
인천 노동조합 운동연합 추진위원회

「인천지역 노동조합운동연합 추진위원회 발족 선언문」(1988. 09. 17,  
인천지역 노동조합운동연합 추진위원회, M00404236)

- 인천교육대학 학생 1000여 명, 기성회비가 유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업을 전면 거부한 채 기성회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농성 전개. 그중 250여 명은 교내 체육관과 총학생회 사무실 등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감

『한겨레신문』 제107호(1988. 09. 16, 한겨레신문사)

#### 09. 18

- 세창물산 노동조합, 회사 내 운동장에서 「제1회 세창물산 위장폐업 분쇄 및 결의대회」 개최.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회원 등 500여 명 참석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1989. 01. 30, 세창물산 노동조합 · 인천지역 위장폐업 분쇄 공동대책위원회, M00360356)

『한겨레신문』 제110호(1988. 09. 20, 한겨레신문사)

#### 09. 21

- 인천교육대학, 학생들이 학장퇴진과 기성회비 공개 등 13개 항을 요구하며 8일째 농성을 계속하자 전체교수회를 열고 무기한 휴업을 결정함

『한겨레신문』 제113호(1988. 09. 23, 한겨레신문사)

#### 09. 22

- 민주교육추진 인천지역교사협의회, 십정동 성당에서 「인천교협 창립 1주년 기념대회」 개최

『경인교사신문』 제8호(1988. 09. 01, M00157213)

## 09. 30

- 미술패 갯꽃, 서울 미술집단 '가는패'와 함께 10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한독금속 노동조합 외벽에 벽화 제작. 공장벽화로는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됨

## 한독금속 공장 벽화 제작기

1. 노조의 요청을 받아 노조방문. 상집간부와 벽 크기와 재료 상담
2. 어떠한 형식으로 함께 참여하며 어떤 내용을 그릴 것인가에 대해 노조원들과의 토론과 현장 노동자들이 그림을 볼 기회가 없음을 인식하고 우선 그림을 소개하기로 결정
3. 점심시간을 이용 식당에서 2회에 걸쳐 판화와 '일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그림, 걸개그림사진 등을 전시하였다.
4. 전시이후 벽화의 찬성여부, 그림의 내용, 노조원들 참여 형식 등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 조합원에게 돌렸다.
5. 수거된 설문지를 토대로 밑그림을 그림
6. 완성된 밑그림을 노조원들에 되돌려 수정, 보완하여 이틀에 걸쳐 외벽에 먹선으로 옮겨 그렸다.
7. 먹선으로 그림의 윤곽을 완성한 후 채색에 들어갔다. 채색을 하는 동안 노조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작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 3일 동안에 끝낼 수 있었다.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자 방관했던 관리자들이 작업을 만류하기 시작, '건물소유관리법'이란 법조항을 들어가며 그림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관리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이용하거나 여러명이 함께 채색하는 방법을 택하여 그림을 완성하였다)
8. 채색이 끝난 이후 불확실해진 먹선은 전문패가 다시 정리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9. 벽화가 완성되자 함께 작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물론 처음 반대한 노조원들까지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벽화로 완성된 데 대해 자랑스럽게 느낀다며 다른 조합에 자랑을 해야겠다든가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기뻐하였다. 회사 측에서도 벽화가 완성된 마당에 더 이상 지울수도 어쩔수도 없음을 깨달아 이제 한독금속 벽화는 회사가 이사가지 않는 한 반

영구적인 벽화로 남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공장벽에 벽화 그려지다」(1988. \*. \*, 인문연 미술분과, M00446509)

10. \*

-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삼민동맹, 인천에서는 인노맹) 결성. 1987년 11월부터 노동자 정치신문을 표방한 『노동자의 깃발』을 발행하였으며 1990년 28호까지 발행하였고, 1988년 8월 인천 청천동에 인천노동회관을 설립하여 노동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음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보고서-인천』

10. 01

- 우리문화연구회 창립기념공연이 '쑥골마루'에서 개최됨.

『한겨레신문』 제120호(1988. 10. 01, 한겨레신문사)

10. 02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답동 가톨릭회관 6층에서 「J.O.C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인천주보』 제947호(1988. 10. 09, 천주교 인천교구)

10. 06

- 성신화학 노동조합 결성. 성신화학은 아크릴 액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1989년 무렵 생산직 노동자는 남자 48명, 여자 27명으로 그중 조합원은 남자 30명, 여자 27명이었음

『새벽』 제12호(1988. 11. 19, 한국대양전기노동조합, M00518912)

「인천지역 89입투에서 차등인상한 사례」(1989. \*. \*, M00858166)

- 인천교육대학 학생 200여 명, 학교 측이 10월 8일 총학생회장 등 8명을 무기정학 등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항의해 교내 강당에서 '징계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임

『한겨레신문』 제126호(1988. 10. 07, 한겨레신문사)

10. 07

- 인천교육대학 학생 200여 명, '기성회비 내역공개'를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총학생회장 유진호 등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징계방침 철회' 등을 외치며 교내 강당에서 농성 진행

『한겨레신문』 제126호(1988. 10. 07, 한겨레신문사)

10. 08

- 세창물산 노동조합, 「제2차 위장폐업 분쇄결의 및 노동악법 폭로대회」 개최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1989. 01. 30, 세창물산 노동조합 · 인천지역 위장폐업 분쇄 공동대책위원회, M00360356)

10. 09

- 아남전기 노동조합 결성

『인천의 소리』 제34호(1988. 11.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89423)

- 해인교회,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2월 4일까지 9회에 걸쳐서 「제7기 놀이마당」 개최.

「놀이마당 안내서」(\*, 해인교회, M00448035)

10. 11

- 제물포버스, 노동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차량 운행이 중단되자 이에 맞서 인천시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 신고

『한겨레신문』 제130호(1988. 10. 12, 한겨레신문사)

10. 12

- 인천교육대학 재직 교수 74명 중 71명, 학생들의 농성과 관련해 '학생지도에 한계를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히며 집단으로 학교에 사직서 제출

『경향신문』 제13246호(1988. 10. 12, 경향신문사)

『동아일보』 제20626호(1988. 10. 12, 동아일보사)

교수 총사퇴 결의에 즈음하여

우리 교수 일동은 비장한 각오로 총 사퇴서를 제출하며, 대학을 아끼는 강호 제현에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학칙 개정을 비롯하여, 기성회비의 장부 공개 등 13개 항에 달하는 각종 요구중 타당성이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서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기성회비의 공개도 적법 절차인 기성회의 총회에서 공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직접 공개를 주장하며 대학의 기본활동인 수업 거부는 물론, 본부동 점거로 학사 행정이 완전히 마비되고 교수 연구실이 봉쇄되기까지 이르렀음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들은 수업정상화에 임할 것을 각종 대화 창구를 통해서 설득하되 처음에는 수업 거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더욱 가열되어 임시 휴업 조치까지 내려지고, 이것이 장기화되어 1,600명 학생의 수업 결손은 물론, 학장실 및 각급 행정부서의 불법 침입, 공한문 탈취 소각, 행정마비 등에 대한 명분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관용과 인내로써 수차례에 걸쳐 수업 정상화 임하면 경미한 책임만을 묻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여 만부득이 중징계를 결의하고도 한 등급씩 경감하는 관용의 조치를 하였는데도 이것마저 목살되고 교수 및 직원의 출입을 막고, 심지어는 지난 10일에는 수업 정상화를 논의하던 교수회의실 장소를 봉쇄하여 6시간 이상이나 전 교수는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다가 징계대상의 학부모까지 합세하여 회의장에서 온갖 협박을 자행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의 집에 협박 전화와 학장사택 수색, 유언비어 유포 등을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주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과격한 행위는 어느 대학의 소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교권 침해는 물론 대학의 기본질서 유린 행위로 사도의 길을 걸어야 할 학생들의 행위란 점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도 책임을 통감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장기간의 수업 거부를 정당시 할 수 없다고 보며, 어떠한 주장도 폭력에 의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소소의 어떠한 과격한 언동도 충의를 대변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나아가 학교 경영상의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배격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강압이나 부당한 주장에도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금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수 일동은 일생을 바쳐온 우리의 학원에서 폭언과 물리적 압력에 의해 밀려난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기본권과 교권을 수호하는 마지막 선택이 총 사퇴의 길임을 통감하여 비장한 결의를 하게 되어 만천하에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이 작은 희생이 이 땅의 모든 대학가의 불행한 사태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값진 희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1988. 10. 12

## 인천교육대학 교수 일동

『인천교육대학교 50년사』, 463~464쪽(1997, 인천교육대학교)

- 노래패 물결, 인하대학교에서 “긴밤 지새우고” -해금조치 이후 김민기를 다시 생각하며...’ 공연. 노래패 물결은 대학 YMCA의 한 분과로 당시 1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산하』 창간호(1988. 11. 14, 노래패 산하, M00448131)

## 10. 13

- 인천교육대학, 총학생회 주선으로 학생들의 징계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교수와 학생 간에 5개항의 합의안 타결

## 〈5개항의 합의안〉

- 학생들 징계의 전면 해제
- 학점의 성적확인 제도 마련
- 사제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 마련
- 교수대표 7인과 대화의 장 마련
- 성적의 공정한 처리

『한겨레신문』 제132호(1988. 10. 14, 한겨레신문사)

## 10. 15

-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준비위원회의 후원으로 부평신용협동조합 5층에서 놀이패 한두레가 ‘민주노조지원기금마련’을 위해 ‘우리공장 이야기’ 공연

『예술정보』 제22호(1988. 10. 04, 유기희실, M00116864)

- 영본가구 노동조합,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개최

『인천노동교육』 창간호(1989. 07. 10, 인천노동교육연구소)

## 10. 16

-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인천대학교 대학원 본관 4층 강당에서 김말룡 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장을 초청하여 ‘노동법개정투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인천·부천운수노보 창립 1주년 기념강연회」 개최

「노동법개정투쟁의 방향과 과제」(1988. 10. 16,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M00086631)

## 1988년

- 주안5동 산동네 철거지역 세입자들, 오후 8시 인천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1개 반 대표를 선출하고 협의회 구성. 11월 21일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대표협의회' 공식 결성

『산동네의 메아리』 제1호(1988. 11. 10,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대표협의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10. 16

-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대표협의회' 구성

「만수3동 한우리 마을 형성과정」(1990. \*.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10. 17

-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 구성
  - 공동대표 : 호인수 신부, 최원식 교수
  - 지도위원 : 오순부, 김영규, 황선진, 김봉준, 박제홍, 임명구, 라원식, 이원희
  - 중집위 의장 : 정성렬, 김상목
  - 사무국장 : 송동수

「인문연 창립총회」(198\*, M00446514) / 「노동극 일터의 함성」(1989. 11. 04,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M00408818)

### 10. 22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장 강석태, 이날 새벽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 향년 27세. 강석태는 1987년과 1988년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장을 지냈으며 1987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함.

『인천주보』 제950호(1988. 10. 30,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 인천빈민지역활동 보고서 발간. 보고서에는 조직의 창립과정과 활동, 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등을 수록함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10. 23

-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천사협), 용현동 성당에서 창립대회 개최. 천사협은 천주교 인천교구 내 가톨릭노동청년회 · 청년회 · 대학생회 · 노동사목 · 도시빈민회 · 가톨릭농민회준비위원회 · 공동체 지향 등 7개 단체의 협의체로, 사회복음화와 민주화, 교회쇄신과 민족자주 · 통일을 지향하며 발족. 이날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장이었던 강석태의 추도식을 가진 후 의장에 곽한왕, 부의장에 장정옥을 선출

『인천주보』 제950호(1988. 10. 30, 천주교 인천교구)

## 10. 26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해체식 개최  
「공실위 활동보고 및 평가」(1988. 10. 26,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M00877033)  
『인천의 소리』 제34호(1988. 11.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89423)
- 노래패 햇살, 10월 26일과 11월 1일 노동자선교대회 때 ‘나를 보내소서’ 공연. 노래패 햇살은 1987년 8월 초, 노동자선교대회를 준비하며 결성된 단체로 8~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산하』 창간호(1988. 11. 14, 노래패 산하, M00448131)

## 10. 27

- 인하대학교 민중민주전선, 『민중민주전선』 창간호 발행  
『민중민주전선』 제1호(1988. 10. 27, 인하대 민중민주전선 편집부, M00090797)

## 10. 30

-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창립 보고대회 개최  
『예술정보』 제23호(1988. 10. 18, 예술정보, M00116865)
- 세창물산 노동조합·녹십자병원 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인천대학교에서 「위장폐업 분쇄 및 노동법 개정 출정대회」를 개최한 뒤 거리 시위 전개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1989. 01. 30, 세창물산 노동조합·인천지역 위장폐업 분쇄 공동대책위원회, M00360356)  
『한겨레신문』 제147호(1988. 11. 01, 한겨레신문사)

## 10. 31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전두환·이순자 구속 처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 경과 보고회」를 갖고 정문 앞에서 전두환·이순자 부부의 구속을 촉구하는 홍보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가두서명운동 전개  
『인천주보』 제950호(1988. 10. 30,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951호(1988. 11. 06, 천주교 인천교구)

## 11. \*

- 목재노동자회 결성. 사무실을 남구 도화3동 6-7 인성상가 4층에 마련함  
『목재임투소식』(1989. 06. 02, 목재노동자회, M00400638)  
『목재노동자』 제1호(1990. 03. 03, 목재노동자회, M00400198)

## 11. 01

## 1988년

- 인천신문사 노동조합, '회사 측의 불합리한 인사발령 백지화와 노동조합 사무실 개설' 등을 요구하며 중구청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  
『한겨레신문』 제148호(1988. 11. 02, 한겨레신문사)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제6기 민중대학」 개강. 12월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운영

| 날짜     | 강의내용                   | 강사  |
|--------|------------------------|-----|
| 11. 01 | 개강식                    |     |
| 11. 03 | 올림픽 이후 한국경제의 동향        | 김낙중 |
| 11. 08 |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흐름과 노동현장 | 장명국 |
| 11. 10 | 제6공화국 정치와 향후 전망        | 장을병 |
| 11. 15 |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           | 성유보 |
| 11. 17 | 수입개방과 농민의 삶            | 김상덕 |
| 11. 22 | 남북한의 실상과 통일정책          | 백기완 |
| 11. 24 | 민족의 자주성과 반핵운동          | 최열  |
| 11. 29 | 학교교육과 이데올로기            | 조용명 |
| 12. 01 | 도시재개발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 고광석 |
| 12. 03 | 민주주의와 인권               | 김근태 |
| 12. 06 | 80년대 민족민중문학            | 이호철 |
| 12. 08 |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 지은희 |
| 12. 13 | 한국신학의 현황과 과제           | 강원돈 |
| 12. 15 | 삶과 함께하는 문화 - 종강식       | 연성수 |

『인천주보』 제948호(1988. 10. 16, 천주교 인천교구)

### 11. 02

- 인천민족민주운동연합, 주안1동 성당에서 인권운동가인 서준식을 초청해 「사회안전법 철폐를 위한 특별 강연회」 개최

『인천주보』 제950호(1988. 10. 30, 천주교 인천교구)

### 11. 06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대학 운동장에서 「인천지역 노동자 문화대동제」 개최.

『예술정보』 제23호(1988. 10. 18, 예술정보, M00116865)

### 11. 07

- 인천지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창립. 박동일 목사가 회장을 맡음. 인천·부천지역 20~30대의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목회자 단체임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제1회 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수련회 관련 일정표 및 교육자료]』(1989. 01. 09, M00445214)

#### 11. 08

- 인천민족민주운동연합, 주안1동 성당에서 서준식을 초청하여 「사회안전법 철폐를 위한 강연회」 개최  
『정의평화』 제24호(1988. 11. 13,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107785)
- 인하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들, '총장퇴진과 학원민주화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광장에서 학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퇴진을 위한 집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154호(1988. 11. 09, 한겨레신문사)

#### 11. 09

- 인하대학교 학생 800여 명, 본관 1층에서 총장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 방대동 소재 총장 자택으로 가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도화동 경인의원 앞 삼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뒤 해산  
『한겨레신문』 제155호(1988. 11. 10, 한겨레신문사)
- 원광해운 노동조합, '보조항로 선원급료 미지급분의 정부환수 대신 개인 지급, 항로 구별없이 동일한 호봉 인정' 등을 요구하며 쟁의 발생 신고  
『한겨레신문』 제155호(1988. 11. 10, 한겨레신문사)

#### 11. 10

- 정보산업·동신전자 등 주안지역 11개 노동조합 위원장들, 세창물산에서 '세창물산 위장폐업 철회 및 노동악법 개정'을 요구하며 3일 간 단식농성 진행  
『인천의 소리』 제34호(1988. 11.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89423)

#### 11. 12

-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운동협의회·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천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등 4개 단체, 오후 3시 부평역 광장에서 「전두환·이순자 구속 및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쫓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부평시장에서 시민·학생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행진을 갖고 오후 6시경 자진 해산함

『인천의 소리』 제34호(1988. 11.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89423)  
『정의평화』 제25호(1988. 12. 04,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107786)

**11. 14**

- 노래패 산하, 회보 『산하』 창간호 발행  
『산하』 창간호(1988. 11. 14, 노래패 산하, M00448131)
- 세창물산 노동자 50여 명,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73일째 농성을 벌여 오던 중, 확실한 진상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송학동 소재 인천지방노동청 2층 청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해 다음날 해산함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1989. 01. 30, 세창물산 노동조합 · 인천지역 위장폐업 분쇄 공동대책위원회, M00360356)  
『한겨레신문』 제159호(1988. 11. 15, 한겨레신문사)

**11. 17**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이 날을 ‘총장퇴진을 위한 총궐기의 날’로 선포하고 인하대학교 학생 300여명과 함께 시위 전개  
『인천의 소리』 제34호(1988. 11.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89423)

**11. 19**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부평역 광장에서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전두환일당 처벌 및 노태우 퇴진 인천대회」를 개최하고 ‘전두환 구속’, ‘노태우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부평로-천마로-청천로를 거쳐 청천동 백마교회 앞까지 가두행진 전개. 백마교회 앞에서는 시민·학생 500여 명이 「전두환 일당 화형식」을 가진 뒤 자진해산함  
「88년 인민연 활동 평가 및 89년 활동 계획」(1989. \*. \*,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M00401657)  
『인천의 소리』 제34호(1988. 11.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89423)  
『정의평화』 제25호(1988. 12. 04,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107786)
- 신림섬유 노동자들,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171호(1988. 11. 29, 한겨레신문사)

**11. 20**

-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대표협의회’, 주안5동 산동네 삼거리에서 도시빈민 연구소 제정구 소장, 천주교 도시빈민 선교협의회 정일우 신부, 기독교 도시빈민 선교협의회 김성훈 목사, 상계동 철거민, 인하대학교 학생, 주민 등 120여 명이 모여 ‘도시철거민들의 단결에 대한 강연’을 듣고 주안북초등학교~주안5동 사무소~주안6공단 등으로 가두행진을 한 뒤 해산함  
『산동네의 메아리』 제2호(1988. 12. 07,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대표협의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 11. 24

- 인천운수 운전기사 50여 명,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 전개  
『한겨레신문』 제173호(1988. 12. 01, 한겨레신문사)

### 11. 26

-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5공화국 부정비리 척결과 현세질서의 그리스도화」를 지향으로 월례기도회 개최  
『인천주보』 제953호(1988. 11. 20, 천주교 인천교구)
- 우리마당 인천지회, 11월 27일까지 부평1동 소재 실험회관에서 극단 '현장'을 초청해 박노해 원작의 노래극 '노동의 새벽' 공연  
『마당신문』 제1호(1988. 11. 25, 우리마당, M00078827)
-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인천대학 체육관에서 창립기념공연으로 '너흰 우릴 막을 수 없어' 공연  
『예술정보』 제26호(1988. 12. 08, 예술정보, M00529223)

### 11. 30

- 제일자동차공업사 정비공 27명, '상여금 200% 인상 지급'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176호(1988. 12. 04, 한겨레신문사)

### 12. 03

- 인천지역 노동자들, 부평1동 성당에서 「노동악법 및 반민주악법 폐쇄 결의대회」 개최  
「88년 인민연 활동 평가 및 89년 활동 계획」(1989. \*.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M00401657)  
『한겨레신문』 제176호(1988. 12. 04, 한겨레신문사)

### 12. 05

- 봉신중기·봉신산업·명신기계 노동자 150명, 연합노동조합 결성. 봉신·명신 노동조합은 각기 사업장과 대표이사를 달리하는 봉신중기, 봉신산업, 명신기계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노동조합임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1989. 04. 07, 봉신중기 주식회사 총무부, M00407376)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촉구의 건」(1989. 04. 06, 봉신·명신 노동조합, M00407357)  
『한겨레신문』 제177호(1988. 12. 06, 한겨레신문사)

### 12. 06

1988년

- 해태음료 노동자 50여 명, 회사 2층 사장실과 상무실을 점거한 채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임

『한겨레신문』 제179호(1988. 12. 08, 한겨레신문사)

- 학익2동 한양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40여 명, 신동아건설이 인근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발파작업을 해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인천시청에 물려가 공사중지 및 피해보상을 요구

『한겨레신문』 제179호(1988. 12. 08, 한겨레신문사)

## 12. 08

- 인천·대전·안산지역 해고노동자 37명,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과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동 한국노총에서 철야농성 전개

『한겨레신문』 제181호(1988. 12. 10,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교사협의회 소속 평교사 300여 명, 십정동 성당 내에 위치한 인천지역 교사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육법 쟁취 대회를 갖고 교육법 개정 촉구

『한겨레신문』 제180호(1988. 12. 09, 한겨레신문사)

## 12. 09

- 해태음료 노동자 및 인천지역 노동자 400여 명, 작전동 해태음료 정문 앞에서 「해태음료 구사대 폭력 규탄 및 민주노조 쟁취 결의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181호(1988. 12. 10, 한겨레신문사)

## 12. 10

- 인천지역 교사협의회 소속 평교사 150여 명,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교육법 개정 촉구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182호(1988. 12. 11, 한겨레신문사)

- 인천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21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함

『한겨레신문』 제182호(1988. 12. 11,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방노동청, 회사를 양도한 신립섬유 대표와 회사를 양도 받아 노동조합 조합원 32명을 사직시킨 동생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

『한겨레신문』 제182호(1988. 12. 11, 한겨레신문사)

## 12. 11

- 세창물산 노동조합, 「투쟁 100일 보고 및 위장폐업 완전추방을 위한 공청회」 개최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1989. 01. 30, 세창물산 노동조합·인천지역



위장폐업 분쇄 공동대책위원회, M00360356)

## 12. 12

- 인천민족민주운동연합, '12·12 내란주범' 고발  
「88년 인민연 활동 평가 및 89년 활동 계획」(1989. \*. \*,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M00401657)

## 12. 15

- 동아건설노동조합 부평지부 출범  
『동아노보』 창간호(1989. 06. \*, 동아건설노동조합 부평지부, M00400180)

## 12. 18

- 인천민중연합 결성  
『여럿이 함께』 제4호(1990. 10. 20, 인천민중연합, M00448182)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인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전두환 구속처벌 및 노태우 정권 폭로대회」를 개최하고 동인천역 등지에서 시위 전개  
「전두환 구속처벌 및 노태우 정권 폭로대회」(1988. 12. 18,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M00073220)  
「88년 인민연 활동 평가 및 89년 활동 계획」(1989. \*. \*,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 M00401657)  
『한겨레신문』 제189호(1988. 12. 20, 한겨레신문사)
- 인천민주시민공동회 창립대회 개최  
「인천민주시민공동회 제2차 정기총회자료집」(1989. 12. 23, 인천민주시민공동회, M00412584)

## 12. 19

- 한국비철분말, 노동조합을 결성함과 동시에 '상근자 2명, 유해수당 5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인노협신문』 제10호(1989. 01.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12. 24

- 인천기독병원 노동조합,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구청에 쟁의 발생 신고  
『한겨레신문』 제194호(1988. 12. 25, 한겨레신문사)

# 1989년

## 01. \*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소식지 『해고노동자 회보』 창간호 발행  
『해고노동자 회보』 창간호(1989. 01.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353978)
- 대우중공업 노동자복지추진위원회, 소식지 『동지들』 창간호 발행  
『동지들』 창간호(1989. 01. \*, 대우중공업 노동자복지추진위원회, M00410788)
- ‘인천전자업종 노동조합 연대모임’, 부평신협회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인의 밤」 개최  
『여성노동자 임투소식』 제2호(1989. 04. 19, 인천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5개 단체, M00857629)

## 01. 05

- 화성산업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삼민화학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태양연마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1. 07

- 인천기독병원 노동조합, 노동쟁의 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197표, 반대 46표로 파업 돌입 결의  
『한겨레신문』 제203호(1989. 01. 07, 한겨레신문사)

## 01. 08

- US마그네틱스 노동자 60여 명, 회사 측의 자본 철수(위장폐업)에 맞서 농성 돌입  
『여성노동자 임투소식』 제1호(1989. 03. 27, 인천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5개 단체, M00856532)

## 01. 13

-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준비위원회 결성. 35명 참석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총회」(1989. 02. 25,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57588)
- 세화상사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1. 14

- 전국노점상연합회 인천지부, 만수동 만수시장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 개최

『한겨레신문』 제215호(1989. 01. 21, 한겨레신문사)

## 01. 16

- 인천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50여 명,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을 북부교육구청장에 임명한 데 항의하며 부평동북부교육구청 앞에서 항의 시위 전개

『한겨레신문』 제211호(1989. 01. 17, 한겨레신문사)

## 01. 17

- 세창물산 노동조합 조합원 30여 명, 인천지방검찰청사 현관을 막고 위장폐업 철회와 회사대표의 구속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 전개

『한겨레신문』 제211호(1989. 01. 17, 한겨레신문사)

## 01. 18

- 인천노동회관 교육연구실, 「제1기 노동학교」 개강. 2월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함

## 〈교육일정〉

| 월일     | 과목 | 주제                   | 강사              |
|--------|----|----------------------|-----------------|
| 01. 18 | 철학 | 올바른 세계관의 정립을 위하여     | 이병창(아주대 강사)     |
| 01. 25 | 경제 | 역사발전의 원동력 : 노동과 생산   | 허석렬(충북대 교수)     |
| 02. 01 | 정치 | 국가, 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 | 정해구(한국정치연구회)    |
| 02. 15 | 특강 | 통일로 가는 노동자의 길        | 김근태(전 민청연 의장)   |
| 02. 18 | 문화 | 건강한 문화창조자로서의 노동자     | 연성수(한국문화운동연구소장) |
| 02. 22 | 역사 | 역사의 필연성과 노동자의 역할     | 윤한택(구로역사연구소장)   |
| 02. 25 | 특강 | 89년 노동조합운동의 현실과 전망   | 김건호(노동회관 위원장)   |

「제1기 노동학교 -새날을 여는 노동자의 교양교육」(1989. 01. 09, 인천노동회관 교육연구실, M00406100)

「제1기 노동학교 -제1회 올바른 세계관의 정립을 위하여」(1989. \*. \*, 인천노동회관 교육연구실, M00406095)

「제1기 노동학교 -제5회 건강한 문화창조자로서의 노동자」(1989. \*. \*, 인천노동회관

## 01. 21

- ‘민족통일마당집(회관) 한돌쌓기운동 인천지역 추진위원회’, 김승묵 변호사, 홍성훈 의사 등 각계 대표 30명이 참여해 발족

『한겨레신문사』 제217호(1989. 01. 24, 한겨레신문사)

## 01. 22

- 선미산업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1. 23

-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준비위원회, 제1차 모임을 개최함. 이후 2월 2일 제2차 모임을 갖고 창립총회일을 2월 25일로 결정함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총회』(1989. 02. 25,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57588)

## 01. 24

-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신림섬유와 세창물산에서 간부대상 「89임투교실」 개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8회 진행

## 〈강의 구성〉

| 제목                         | 강사                |
|----------------------------|-------------------|
| 1. 89상반기 정세와 임투의 방향        |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 소장) |
| 2. 임금이란 무엇이며 임투를 어떻게 해야 하나 | 이목희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
| 3. 임투의 원칙과 방법(1)           | 김명기 (한독금속 부위원장)   |
| 4. 임투의 원칙과 방법(2)           | 홍상철 (대흥기계 위원장)    |

『동지들』 창간호(1989. 01. \*, 대우중공업 노동자복지추진위원회, M00410788)

## 01. 26

- 인천 · 부천민주노동자회 회원 유봉인 · 정규옥, 청천동 자택에서 치안본부(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다음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됨. 치안본부는 두 사람이 1987년 7월부터 1988년 10월 27일까지 ‘민주노조 건설공동실천위원회’ 홍보부장 등으로 있으면서 『민주노조』 1~23호를 제작 · 발간하며 민중문학을 통한 노동자계급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발표함

『인노회 탄압백서』(1989. 06. \*, M00879674)

『한겨레신문』(1989. 01. 28, 한겨레신문사)

01. 27

- 인천시, 1988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1980년 인천지역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망자 13명을 포함 모두 133명에 달한다고 발표

『한겨레신문』 제221호(1989. 01. 28, 한겨레신문사)

01. 28

- 인천지역 기계·노동조합 추진위원회, 십정동 ‘소성 노동자의 집’에서 결성  
『기계·금속노조』(1989. 02. 18, 인천지역 기계·금속 노동조합 추진위원회, M00857918)

01. 29

- 송철순 민주노동열사 추모위원회·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 「세창물산 야간학생 노동자 학비마련을 위한 노래극 공연」 개최  
『인노협신문』 제11호(1989. 02.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02. \*

- 인천지역 탁아위원회 창립

「이충현 제공」

02. 01

- 인천민중교회연합, 인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4개 지구로 분화돼 있던 구성을 인천지역의 경우 북인천지구(8개 교회)와 동인천지구(8개 교회) 2개 지구로 재편성하는 안을 통과시킴. 인천지역은 이전까지 부평지구(백마, 해인, 진실, 새봄), 주안지구(인향, 한뜻, 샘터, 소성, 한길, 예림), 동인천지구(사랑방, 산마루, 송현샘, 새벽, 일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부천지구(새롬, 하나, 제자)가 있었음. 부천지구는 독립하는 안이 제기됨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인천지역 민중교회운동협의회 약사」(1980. \*. \*, 인천지역 민중교회운동협의회, M00447256)

02. 11

- 서울지방검찰청,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 발표. 손형민·안재환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이들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검찰이 재신청해 2월 17일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됨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531쪽(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2. 12

- 태평양물산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2. 13

- 그로리아가구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등 3개 단체, 인천·부천노동자회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치안본부는 민주노동운동단체 파괴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구속노동자 즉시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촉구

『한겨레신문』 제234호(1989. 02. 14, 한겨레신문사)

- 고잔동 고잔어촌계 어민 100여 명, 한국화약의 공유수면 매립 공사로 어패류를 잡을 수 없어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주장하며 한국화약 정문 앞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철야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236호(1989. 02. 16, 한겨레신문사)

## 02. 14

- 인천민주시민공동회, 2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제1회 민중학교」 진행

『한겨레신문』 제232호(1989. 02. 11, 한겨레신문사)

## 02. 16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세창물산에서 ‘인천지역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 발대식 및 「위장폐업분쇄 결의대회」 개최

『투본소식』 제4호(1989. 02. 23,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산하 전국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

『한겨레신문』 제237호(1989. 02. 17, 한겨레신문사)

- 한국OA시스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2. 17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4월 25일까지 매주 화·금요일에 「제3기 인천민주시민학교」 진행

『인노협신문』 제11호(1989. 02.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한겨레신문』 제232호(1989. 02. 11, 한겨레신문사)

## 02. 18

- 천주교 인천교구 내 청년신자들의 소그룹 공동체인 ‘지향’이 주안1동 성당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명칭을 ‘가톨릭민

중교육연구회'로 바꿈

『인천주보』 제968호(1989. 03. 05,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지역 노동자·학생·교사·시민 등 700여 명, 인천대학교 체육관에서 「반민주악법 개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노동법, 교육법' 등 '반민주 악법'의 철폐를 촉구

『한겨레신문』 제239호(1989. 02. 19, 한겨레신문사)

- 성현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 회장 김순래·부회장 도성훈 등 교사 5명, 동료 교사들과 함께 1988년 12월 1일 강제사직당한 서중석 교사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한 일과 관련, 학교 측으로부터 명령불복종 및 위계 질서문란 등의 사유로 파면해임을 통보받음. 이날 성현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이 '재단퇴진'과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학교 운동장에서 농성을 전개함

『한겨레신문』 제239호(1989. 02. 19, 한겨레신문사)

## 02. 19

- 마미손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삼원프라스틱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상원실업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2. 20

- 영신금속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2. 21

- 마미손 노동자 80여 명, 파업에 돌입해 3월 23일 노동조합을 인정받음

『여성노동자 임투소식』 제1호(1989. 03. 27, 인천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노동자회 등 5개 단체, M00856532)

## 02. 24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 관련자 가족 등 20여 명, 서울 여의도 평민당 중앙당사에서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사』 제244호(1989. 02. 25, 한겨레신문사)

## 02. 25

- 인천여성노동자회,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발족 동일방직·삼원섬유 등에서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 전 삼원섬유 노동조합 부분회장 김지선이 회장으로 선출됨. 사무실은 도화동에 위치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총회」(1989. 02. 25, M00857588)

『인천여성노동자』 제12호(1991. 01.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898)

###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에 부쳐

최근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과 민주노조 활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해 온 현 군사독재 정권은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과 원화절상 요구를 조건 없이 수락하면서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소수 독점재벌의 이익만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즉 독점재벌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여성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섬유, 완구, 신발 등의 중소수출 산업에서는 잇단 휴폐업, 업종전환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감원 및 실업의 위협 등 생존권 박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과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모성보호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남성노동자의 절반 밖에 안되는 차별임금), 장시간 노동, 승진·승급·고용에서의 각종 제한과 차별, 그리고 성희롱, 성폭행 등의 비인격적 대우와 함께 온갖 차별대우의 현실 속에 내몰렸습니다. 그 결과 1979년 YH무역의 김경숙 열사는 유신독재 손에 죽어갔고, 1988년 봄, 진흥요업의 산재환자 김성애 양은 어린 나이에 비관 투신자살했으며, 1988년 세창물산 노동조합 송철순 사무장은 자본가의 고의적인 협상지연 끝에 꽃다운 젊은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더욱이 1986년 가을 한 달에 스무 번씩 철야를 해야 했던 경동산업의 기혼 여성노동자는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자식들의 성장을 보지 못한 채 과로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생명을 빼앗겼지만 아직도 무수히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가난과 인간 멸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의 착취가 날로 고도화되고 다양화함에 따라 하청과 가내부업, 임시고용이라는 최말단의 생산직, 즉 불완전 취업 상태에 놓여있는



기혼여성노동자들은 단결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가사와 육아, 가혹한 작업환경이라는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고, 탁아 유치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아이들까지 버려져 있어 가족파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현 정권은 오히려 반노동자적 정책과 더불어 교묘한 남녀차별정책 및 모성보호를 외면한 노동악법 등의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여성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현실에 순종적으로 길들여지도록 끊임없이 교육, 문화, 제도 등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을 온존 유포하여, 여성노동자의 주체성을 말살시켜 왔으며, 여성에게 순종과 미덕을 강요하여 여성노동자 투쟁 시 족쇄를 채우는 동시에 남녀노동자를 분열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에 허덕이면서 인간다운 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는 민중의 새 날을 열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일제하 정미공장의 여직공들의 파업투쟁과 70년대 통일방직, 반도상사 등 수많은 인천지역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사수투쟁의 전투성을 계승하여 87년 노동자 대파업투쟁, 88년 임금인상 및 노동법 개정투쟁, 위장폐업 분쇄투쟁 등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이제 인천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받아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노예생활을 거부하고 이 땅의 생산의 주역으로서, 인류의 세대를 이어나갈 자랑스런 어머니로서,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운동이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성장 발전하면서, 대중의 구체적 요구와 지향에 근거한 투쟁과 조직의 확대가 눈 앞의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차별적 억압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결혼, 출산과 더불어 노동현장과 투쟁전선을 떠나 가정주부로 안주해 버리는 수많은 동료를 보면서, 여성으로서 받는 억압과 차별을 뚫고 나아가지 않고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노동운동의 주체로 묶어 세울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성노동자 대중-미혼, 기혼여성노동자와 부인-을 노동운동의 주체, 여성운동의 주체로 세우고 노동운동 내에 여성노동자들의 보다 특수한 요구 및 문제를 수렴시키고 여성노동자들의 자주적 진출을 꾀하여 여성노동자들이 해방된 주체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조직으로 인천여성노동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 해방과 여성해방이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통일적으로 결합,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지역의 노동 형제 여러분! 여성노동자 여러분!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들의 법적, 제도적, 경제적 평등권을 완전히 쟁취하는 그 날까지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서 이 민족의 자주화와 사회민주화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 ■ 우리의 결의

- 민족자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실현한다.
- 주 44시간 노동으로 최저생계비를 완전 쟁취한다.
- 차별임금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
-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60일 이상, 육아유급휴직 1년, 여성노동자의 유해작업금지 등 제반 모성보호를 확보하여 평생 노동권을 쟁취한다.
- 결혼·임신퇴직, 승진승급차별, 임시고용, 하청노동을 폐지하고 탁아소 설치를 통하여 여성노동자의 지속적이고 평등한 노동권을 확보한다.
- 성차별 문화와 교육제도를 철폐해 나간다.

인천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이여!

성차별, 노동착취를 깨부수기 위해 인천여성노동자회로 모이자!

1989. 2. 25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에 부쳐」(1989. 02. 25,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58018)

- 인천지역주민회 창립, 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본부와 통합하여 창립. 햇님방 대표인 홍미영, 김정택 목사가 초대 회장을 역임. 주민회는 동별 모임체를 골간으로 유아놀이방, 굶는 어린이를 위한 밥집, 취학 아동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여성사업, 주민사업, 소식지 등을 통

해 주민들과 지역문제를 공유, 여론화하며 공동체의식을 높여나감

송정로, 『인천시민사회운동20년사』

## 02. 26

### • 협진사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 세인산업사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 불티나상사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동인천역 광장에서 「노태우 정권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됨. 시민·학생들은 답동 가톨릭회관 입구와 주안사거리, 부천역 등지에서 소규모 집회를 산발적으로 개최하였고 경찰이 이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대피한 가톨릭회관과 주안1동 성당 안까지 들어와 강제연행을 단행함

『인천주보』 제968호(1989. 03. 05, 천주교 인천교구)

### ‘무장경찰의 답동 가톨릭회관·주안1동 성당 난입 사건’

인천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 인천민연)이 26일 2시 동인천광장에서 개최하려던 「노태우정권 규탄대회」도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었다. 이날 인천시 경찰국은 오전부터 동인천 일대 신포동, 송림동에 2천여 경찰들을 배치하여 이날 집회를 불법으로 저지, 이 일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집회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일찍부터 가톨릭회관에서는 국민대회의 의의와 목적을 알리는 방송을 천사협 회원들이 하였다. 이날 집회 주최단체 인천민연 의장단이 평화집회를 개최하고자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이들을 모두 강제 연행하였다. 이에 평화적 집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시민·학생·노동자들이 가톨릭회관 앞에 모여 ‘구속 전두환’ ‘퇴진 노태우’ ‘부시방한 결사반대’를 외치며 노래를 불렀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강제해산하려 하였고 구호와 노래를 하던 시민들은 가톨릭회관으로 밀려나자 수십 명의 무장경관들이 가톨릭회관 구내 30m까지 난입, 시민들을 무차별 구타, 연행하였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시민들이 구타당하는 것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폭행을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과 교구청 직원 장정옥씨가 경찰에 의해서 강제연행되었고 한겨레신문 사진기자 김선규씨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하였다. 이는 가톨릭회관 개관 이래 구내에서 벌어진 최초의 공권력에 의해서 행하여진 폭력행사인 것이다. 이는 교권에 대한 침해일뿐 아니라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에게 가해진 폭력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여 시민, 학생, 노동자들은 다시 주안 시민회관에 모이자 중무장한 전투경찰은 최루탄을 쏘아대며 진압을 하였다. 이로써 시민회관 일대는 최루탄 가스로 인하여 행인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였다.

주안1동 성당 구내에도 중무장한 경찰이 무단 침입해 본당 사무실뿐만 아니라 성체조배실까지 무단 난입을 서슴치 않았다. 성당에 난입한 무장전경들은 본당 1층 사무실 현관에서 한 여학생을 강제로 연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본당 신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물러나기는 하였으나, 동일시간에 또다른 일단의 전경들은 본당의 성체조배실에 무단 난입하여 '이새끼 나와'라는 폭언과 함께 방패로 무차별 구타하고 손을 짓밟으며 시민들을 끌고 가기도 하였다.

『정의평화』 제27호(1989. 03. 11,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194859)

### 03. 01

#### • 대동플라스틱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한겨레신문』 제266호(1989. 03. 23, 한겨레신문사)

#### • 신흥화학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3. 02

####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들,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작업 거부 돌입

『한겨레신문』 제255호(1989. 03. 19, 한겨레신문사)

### 03. 04

####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위장폐업 완전추방 및 임금인상 쟁취 결의대회」 개최

『인노협신문』 제12호(1989. 03. 0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3. 05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여성국·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대학교 학생회 관 체육관에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 보고대회 및 여성노동자 대동제」 개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 보고대회 및 여성노동자 대동제」(1989. 03. 05,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여성국·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7392)

「인천여성노동자회 활동보고」(1989. 05.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56708)

### 03. 10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연합회, 가톨릭회관 304호에서 위장폐업 사업장 지원을 위한 일일찾집 행사 개최. 이 날 행사에는 세창물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극을 만들어 공연함

『인천주보』 제970호(1989. 03. 19,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지역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 효성동 JC공원에서 「89임투전진대회」 개최

『임투속보』 제2호(1989. 03. 20, 인천지역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

### 03. 11

- 덕창기업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주)대성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원자표보일러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3. 14

- 고려강철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3. 15

- 인천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인권위원회,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조선일보』의 청룡봉사상 시상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이씨의 수상을 취소하라’고 촉구

『한겨레신문』 제260호(1989. 03. 16, 한겨레신문사)

- 린나이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03. 16

- 삼양유지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50% 인상, 2교대를 3교대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3월 22일에는 조합원 부인들도 농성에 참여함

『여성노동자 임투소식』 제1호(1989. 03. 27, 인천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5개 단체, M00856532)

- 세창물산 원미정 위원장 · 박상옥 사무장 · 박필규 문화부장 구속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 신립섬유 문진희 사무장 구속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03. 16

- 삼양유지사료 노동조합 결성. 당일 전국화학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이튿날인 3월 17일 인천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부 받음

『노동조합설립신고증』(1989. 03. 17,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M00855983)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한겨레신문』 제292호(1989. 04. 23, 한겨레신문사)

- 삼양(장유)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목재노동자회 박영우, 보르네오 '임투'와 관련해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03. 17

- 지성병원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03. 20

- 인천기독교 사회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등 전국 12개 기독교 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기사련)이 서울 종로6가 동대문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

『한겨레신문』 제264호(1989. 03. 21, 한겨레신문사)

- 한신보일러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03. 22

- 보루네오 노동자들, '어용노조 퇴진 및 민주노조 인정, 일당 3천원 인상, 3개월 호봉승급 100원, 위험·위생수당 2만 원'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농성 돌입

「보루네오 노동자들, 어용의 사슬 끊고 민주노조 깃발들다」(1989. 03. 28, 목재노동자회, M00409525)

- 대동플라스틱 노동자들, '노동조합 인정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오던 중, 이 날 새벽 각목 등을 들고 들어온 구사대에 의해 무차별 폭행을 당함

『한겨레신문』 제266호(1989. 03. 23, 한겨레신문사)

### 03. 23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학생 400여 명, 인천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광주학살·5공비리 주범 노태우 정권퇴진을 위한 청년학도 1차 실천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267호(1989. 03. 24, 한겨레신문사)

- (주)대동 이신우 문화부장 구속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3. 26

- 영원통신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3. 27

- 동진산업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태흥산업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문익환 목사 방북지지 성명 발표

『한겨레신문』 제270호(1989. 03. 28, 한겨레신문사)

-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가톨릭회관 304호에서 「현장교회의 그리스도화를 위하여-참된 노동의 의미」라는 주제로 월례 기도회 개최. 노동사목 전국협의회 사무국장 정인숙이 주제발표를 하고 「강순이, 슈어프로덕츠 노동자」 비디오 상영 등으로 진행

『인천주보』 제971호(1989. 03. 26, 천주교 인천교구)

### 03. 29

- 인하대학교 학생 150여 명, 통일광장에서 「총장직선 및 등록금 완전동결

1989년

쟁취 1차 결의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272호(1989. 03. 30, 한겨레신문사)

### 03. 30

- 봉신·명신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 시작

『투쟁소식』 제1호(1989. 04. 03, 봉신명신 노동조합 투쟁본부, M00407538)

### 03. 31

- 삼양유지사료 인천공장 노동조합, 3월 21일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이날부터 파업 돌입. 4월 7일부터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4월 11일 부평역 앞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 측이 1987년 9월 1일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

「경찰공권력 투입에 의해 강제해산된 삼양유지사료(주) 노동쟁의 사건 진상보고서」(1989. 04. 28, 인천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인권위원회, M00855971)

### 04. 01

- 인천사랑학우회, 창립대회 개최

『인대협신문』 창간호(1989. 04. 28, 인천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M00111667)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경찰이 현대중공업 파업농성을 강제진압한 데 대해 항의하며 주안1동 성당에서 철야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274호(1989. 04. 01, 한겨레신문사)

- 목재노동자 300여 명, 인천대학 체육관에서 「목재노동자 임금인상 쟁취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 발표

『목재임투소식』(1989. 04. 18, 목재노동자회, M00406898)

### 04. 01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소속 노동자 700여 명, 주안1동 성당에서 「현대 노동자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 규탄 인천지역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275호(1989. 04. 02, 한겨레신문사)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회원 이광석,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됨

『한겨레신문』 제274호(1989. 04. 01, 한겨레신문사)

### 04. 02

- 로버트쇼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4. 03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소속 강병원 등 노동자 3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됨



『한겨레신문』 제276호(1989. 04. 04, 한겨레신문사)

## 04. 04

- 인천지역 사립중·고등학교 교사 300여 명, 인천대학교 대학원 소강당에서 「인천사립교사협의회 창립대회」 개최. 회장에 인화여자고등학교 황진도 교사 선출

『인천교사신문』 제13호(1989. 04. 27, 인천교사협의회, M00111668)

『인천의 소리』 제39호(1989. 04.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65)

『한겨레신문』 제277호(1989. 04. 05, 한겨레신문사)

- 보루네오 노동자들, 14일 쟁 파업농성을 전개하던 중 1500여 명의 구사대에 의해 강제 해산 당함. 이 과정에서 180여 명이 연행되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 입건됨. 이후 4월 8일 11명, 4월 10일 30여 명 등 농성 참가자들에 대한 해고가 이어져 4월 15일에는 해고자가 60여 명에 달함

『목재임투소식』(1989. 04. 18, 목재노동자회, M00406898)

『한겨레신문』 제277호(1989. 04. 05, 한겨레신문사)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회관 512호에서 월례회를 개최하여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활동이 침체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불의한 사회와 함께 특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 ‘인천지역의 일반사회운동단체와 교회 내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등 액션단체를 지원’, ‘돌아가는 정세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때 그때 복음정신에 입각한 교회 자신의 목소리로 방향을 제시’ 등의 사항을 결의함.

『인천주보』 제973호(1989. 04. 09, 천주교 인천교구)

- 천주교 인천교구 신부로 있던 중 1975년 4월 강제출국당한 시노트 신부, 4월 9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인혁당 15주기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함

『한겨레신문』 제278호(1989. 04. 06, 한겨레신문사)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민주총장 선출 및 등록금 동결 쟁취를 위한 수업거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장 직선과 등록금 동결 등을 요구하며 4월 6일부터 수업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함

『한겨레신문』 제277호(1989. 04. 05, 한겨레신문사)

## 04. 06

- 보르네오 손명구·배호연·임수철·정연미·백도연·이성환·엄홍경 구속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4. 07

• 알파제약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4월 6일부터 ‘총장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  
를 해오던 중, 학교 측과 ‘교수회의를 이달 안으로 개최’, ‘직선 총장선출을  
위한 개정회칙안 결정’, ‘교수·학생·교직원 대표로 학원발전 추진위원회  
구성’, ‘등록금 인상 철회’ 등에 합의하고 4월 10일부터 수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함

『한겨레신문』 제280호(1989. 04. 09, 한겨레신문사)

- 삼우공업 노동조합, 회사 측과 4차에 걸친 임금교섭이 부결되자, 일당 2150  
원 인상, 주 44시간 노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04. 08

- 인천민주시민공동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개최. 의장은 황선진

『인천의 소리』 제39호(1989. 04.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65)

04. 09

- 태평양물산 김성중 조합원·대림통상 양동만 조합원, 현대규탄시위와 관련  
해 구속됨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흥업사 노동자 최완용, 산곡동 천마산 중턱에서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  
한 변사체로 발견. 현장에서 ‘중앙병원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적힌 유서가  
발견됨. 최완용은 3월 1일, 공장에서 작업 도중 손가락 네 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아 왔음

『한겨레신문』 제281호(1989. 04. 11, 한겨레신문사)

최완용 약력

1964년 11월 2일, 충남 청원군에서 농부인 아버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 1983년부터 인천에서 공장 생활을 시작.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1987년부터는 산업재활원을 방문해 산업재해자들을 위로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고 함. 1989년 피아노 부품 제조회사인 계양동 소재 흥업사에 입사. 이곳에서 프레스절단 기술자로 일하다 1989년 3월 1일, 작업 도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네 개가 절단돼 작전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치료

를 받아 오다 4월 9일 산곡동 천마산 중턱에서 분신한 시신으로 발견됨. 유족들은 치료가 제대로 안돼 노동청과 회사 측에 큰 병원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함. 사고 후 산업재활원에서 재활 기술을 배우기를 희망하였으나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함

최완용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모닥불을 피운 흔적과 함께 소주병 1개, 신나통 뚜껑 등과 함께 “중앙병원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쓴 유서가 발견됨

「민주노총 열사추모 홈페이지」(<http://yolsa.nodong.org>)

「고 최완용 열사는 왜 죽음을 선택했는가!」(1989. \*. \*, 고 최완용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M00329437)

『한겨레신문』 제281호(1989. 04. 11,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협의회, 부평역 광장에서 「현대중공업 노조탄압 규탄 및 89임투승리 전진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무산되자 이에 항의하며 북구청 로타리, ‘백마장 입구’ 등지에서 시위를 벌임

『인천의 소리』 제39호(1989. 04.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65)

#### 04. 10

- 동명통산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3호(1989. 04. 2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경동산업 박병우 · 이수일 구속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대표협의회’를 해체하고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주택건설추진위원회’ 발족

「세입자 건립추진위원회」(1989. \*. \*,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04. 11

- 영동금속 노동조합 결성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4. 12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4월 12일~14일간을 「4·19계승 인천지역 5만학도 전진대회」 기간으로 선포

『인천의 소리』 제39호(1989. 04.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65)

04. 13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천대학교 민주광장에서 「문익환목사 환영 및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중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문목사의 정당한 평양방문에 대한 사법조치를 철회하라', '통일·민중운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등 7개항의 결의문 발표. 이후 '정주영은 애국자고 문익환은 간첩이냐'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선화여상 앞 도로로 나가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자진 해산함

『인대협신문』 창간호(1989. 04. 28, 인천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M00111667)

『인천의 소리』 제39호(1989. 04.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65)

『한겨레신문』 제284호(1989. 04. 14, 한겨레신문사)

04. 14

- 영동금속 노동조합 파업 시작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비디오 순회' 행사 시작. 주안1동 성당(14·15일), 답동 가톨릭회관(18·19일), 부평3동 성당(25·26일)에서 구로부정투표함 사건을 다룬 「어둠을 뚫고 태양이 뜰 때까지」 등의 비디오를 상영하였고, 4월 21일과 22일에는 주안1동 성당에서 영화 「오! 꿈의 나라」를 상영하여 매회 300여 명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룸

『인천주보』 제973호(1989. 04. 09,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976호(1989. 04. 30, 천주교 인천교구)

04. 17

- 주안지역 파업사업장 주최로 봉신중기에서 「주안지구 임금인상 완전쟁취 승리의 밤」과 「봉신가족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봉신명신 노동조합 가족협의회' 결성

「인천여성노동자회 활동보고」(1989. 05.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56708)

『여성노동자 임투소식』 제2호(1989. 04. 19, 인천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노동자회 등 5개 단체, M00857629)

04. 19

- 인하대학교 학생 200여 명, 오후 1시경 인하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4·19 혁명 계승 및 문익환 목사 구속 규탄 결의대회」 개최

『인천의 소리』 제39호(1989. 04.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65)

- 인천전문대학 학생 300여 명, 오후 3시경 교내 사자상 앞에서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한 후 선인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진출해 시위를 벌임

『인천의 소리』 제39호(1989. 04.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65)

- 인하공업전문대학 학생 1500여 명, 교내 운동장에서 「등록금 인상철회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학장실을 점거한 채 철야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288호(1989. 04. 19, 한겨레신문사)

- 인천기독교목회자협의회 · 인천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인권위원회,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전회식과 이성재가 4월 8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다 경찰에 연행돼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평경찰서 서장 및 수사과장 등 관련자 12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함

『한겨레신문』 제289호(1989. 04. 20, 한겨레신문사)

#### 04. 21

- 인천지방노동청이 산마루교회 노동문제상담원으로 있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해 온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제적생 도재민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함

『한겨레신문』 제291호(1989. 04. 22, 한겨레신문사)

- 영본가구 노동조합, 3월 20일부터 시작한 임금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회사 측의 임시총회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함

『인천노동교육』 창간호(1989. 07. 10, 인천노동교육연구소)

#### 04. 22

- 삼양유지사료 인천공장 노동자들, 1987년 9월 1일 체결된 합의사항의 이행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오던 중, 새벽 5시경 경찰 500여 명이 투입돼 강제해산 당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송계선 등 38명이 경찰에 연행됨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경찰공권력 투입에 의해 강제해산된 삼양유지사료(주) 노동쟁의 사건 진상보고서」(1989. 04. 28, 인천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인권위원회, M00855971)

『한겨레신문』 제292호(1989. 04. 23, 한겨레신문사)

#### 04. 23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천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시민 · 노동자 ·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권 규탄대회」 개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빌미로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안합수부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노동운동탄압 분쇄하고 세계노동절 쟁취하자', '문목사 석방하고 자주적 민간교류 쟁취하자', '학살원흉·비리주범 노태우를 몰아내자' 등 4개 항을 결의. 이후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문목사를 석방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선인고등학교 정문으로 진출해 「노태우 대통령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진 후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오후 6시 30분경 해산함. 그중 100여 명은 오후 7시 40분경 중구 신포동 시장 입구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경동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시위를 벌임

『인천의 소리』 제39호(1989. 04. 26,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11665)

#### 04. 24

-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등 전국 12개 문화예술인 단체, '문화예술인 공동 시국선언' 발표

『한겨레신문』 제293호(1989. 04. 25, 한겨레신문사)

- 삼양유지사료 노동조합 송계선 위원장·최성철 홍보부장·이영택 문화부장 구속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세기자동차 최완식 부위원장, 삼양유지사료 노동조합 '임투'와 관련해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4. 25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안합동수사본부 해체'를 촉구

『한겨레신문』 제294호(1989. 04. 26, 한겨레신문사)

- 인천기독교 사회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4월 22일 삼양유지사료(주) 노동조합의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돼 강제해산이 단행된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안합수부 해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철폐, 구속자의 석방' 등을 촉구

「성명서」(1989. 04. 25, 인천기독교 사회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M00855966)

#### 04. 26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인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창립총회'와 동시에 창립됨.

『건강한 사회』 창간호(1989. 05. 31,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M00876738)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인지부’ 결성 과정

‘88. 6월 청년치과의사회 창립 이후 서울·경인지역에서는 각 지회가 구성되어 지회운영 및 방향에 관해 이야기되었고, 월례강좌, 기타 지회 활동, 지역진료활동 등을 통해 회원 의견수렴과 참여증진, 나아가 더욱 효과적인 건강권 확보에 대한 실천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정치의 중앙운영위 역할과 경인지역 역할의 혼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경지역 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독자적 지부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연세민주치과의사회에서도 ‘88. 9. 9. 서울·인천지역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회원이 사랑방모임을 결성하고, 9월 16일에는 여주·양평지역의 11명의 회원이 연민치 경기동부지부를 결성하였다. 사랑방모임에서는 서울·인천지역의 회원들이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지식, 민주사회에서의 치과의사들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논의가 있어 왔으며, 경기동부지부는 동문 간의 유대관계에 주력하면서 월례 모임을 통해 취미·학술 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양단체 통합 논의와 더불어 서울·경인지역의 지부 조직도 단일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통합 준비위와 청치 서경지회 간사모임에서는 ‘88. 11. 8, ‘89. 2. 1. 등 3차에 걸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였다. -손효현 회원을 지회 간사 대표로 하여 중앙운영위 및 지부 대표자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한다. 통합논의가 구체화 됨에 따라 실무인자를 중앙운영위에서 보강하여 지부결성준비위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통합준비팀과 연계되어 3. 28, 4. 1, 4. 4에 걸쳐 지부준비위가 만들어지고 사업계획·예산안·지부 회칙·조직구조·향후일정 등의 실무작업을 준비하여, 4. 6. 지회 간사모임에 이를 보고하고, 4. 8. 민치·청치 통합준비 수련회에서 다시 의견 조정을 거쳐 4. 9. 전국지부대표자회의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았다. 이에 오늘 서경지부 결성대회를 갖기에 이르렀다.

『건강한 사회』 창간호(1989. 05. 31,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M00876738)

#### 04. 27

- 인천지역 기독교 사회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 서울기독교사회운동연합 · 수도권지역 신학대학 (총)학생회연합과 공동으로 감리교 신학대학 종합관 대강당에서 「문익환 목사 석방촉구 및 애국민주세력 탄압저지를 위한 기도회

」 개최. 기도회 이후 거리로 나가 촛불평화행진을 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됨

「문익환 목사 석방촉구 및 애국민주세력 탄압저지를 위한 기도회」(1989. 04. 27, 인천지역 기독교 사회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등, M00830547)

『한겨레신문』 제296호(1989. 04. 28, 한겨레신문사)

- 봉신중기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며 29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구사대원 200여 명이 물려와 가스충을 쏘며 강제 해산시킴

『한겨레신문』 제296호(1989. 04. 28, 한겨레신문사)

#### 04. 28

- ‘주안 가톨릭 노동 사목 불법 난입 사건’ 발생. 주안5동 성당 백순기 신부와 사무장 김홍수, 주안 가톨릭노동사목에 찾아온 (주)영원통신 사장으로 부터 폭행을 당함. (주)영원통신 사장은 수배를 받아오다 자수해 5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인천주보』 제977호(1989. 05. 07, 천주교 인천교구)

『한겨레신문』 제304호(1989. 05. 09, 한겨레신문사)

『인천교구사』, 336쪽(1991, 인천교구사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 ‘주안 가톨릭 노동 사목 불법 난입 사건’ 경위

(주)영원통신은 종업원 350명 규모로 컴퓨터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3월 26일 노조를 설립하고 조합활동을 해오던 중 ‘내일을 위한 집’을 모임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당일 끔찍한 폭력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후 8시경 영원통신 사장 ○○○ 외 관리자 7~8명이 노조위원장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주안노동사목에 무단 침입하였다가 실무자의 항의로 일단 철수하였습니다. 오후 11시 30분경 검은 승용차를 타고 형사라고 자칭하는 사람 두 명이 문을 부수면서 재차 침입해 왔고, 다른 쪽에서 술에 취한 사장 ○○○ 외 관리자 15명 정도가 거실로 난입해 무조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항의하는 실무자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경찰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오느냐’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어 29일 0시 20분경 주안5동 백순기 신부가 연락을 받고 도착하자



사장은 '이 새끼는 빨갱이 신부다' '종교단체는 모두 빨갱이 단체다' '죽여버려' '신부면 왼쪽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맞아야 해'라는 등 폭언을 퍼부으며 무릎을 꿇으라는 모욕과 함께 무방비 상태의 신부를 일방적으로 구타했습니다. 그들은 뒤이어 달려온 주안5동 사무장 김홍수씨를 역시 심하게 구타하여 치아 2개를 부러뜨리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30분만에 출동한 경찰은 폭행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 관리자들의 도주를 방조하고서 오히려 피해자를 연행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01시 10분경 파출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도 경찰은 일방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진술을 요구하였으며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인천주보』 제977호(1989. 05. 07,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대협신문』 창간  
『인대협신문』 창간호(1989. 04. 28, 인천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M00111667)
- 인천·부천지역 전문대 민주화투쟁학생연합, 인천전문대학 해방광장에서 발대식 개최  
『전진』 제3호(1989. 05. 19, 민주화투쟁 학생연합, M00119433)
- 인천지역 노동악법 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 산하 주안지구 22개 노동조합, 봉신중기 농성 노동자 강제연행에 항의하며 하루 동안 작업 거부 단행  
『한겨레신문』 제297호(1989. 04. 29, 한겨레신문사)

#### 04. 29

- 봉신명신 위원장·부위원장 및 홍영표, 광노우 등 구속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동신전자 전 쟁의부장 한기태·그로리아 노동조합 김광철·로버트 쇼 노동조합 김익순, 4월 28일의 주안 집회와 관련해 구속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4. 30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노동자·학생들, '전국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 주최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세계노동절 1백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평역에서 출정식을 가지려 하였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됨. 노동자·학생들은 부평시장로터리 부근에서 규탄시위를 벌이는 한편, 석바위

와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차도를 점거한 채 연좌시위를 하며 시위를 이어감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경인일보』 제8954호(1989. 05. 01, 경인일보사)

- 인천민주청년회 김효선 운영위원, 인천시민회관 앞을 지나던 중 노동절 행사를 앞두고 실시된 경찰의 검문에 걸려 동부경찰서로 연행 당함.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성명서-인천민주청년회 탄압중지하고 구속자 전원 석방하라!」(1989. 05. 04,

M00836148)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 동신전자 노동조합 조병규·임영식 및 인하대학교 장훈, 4월 28일의 주안 집회와 관련해 구속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4월 28일 발생한 「백순기 신부 폭행 및 주안노동사목 무단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주안5동 성당에서 나길모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사제단회의를 열고, ‘교회의 교권과 노동사목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며 공권력 남용에 의한 노동운동탄압’으로 사건을 규정한 후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음

『인천주보』 제977호(1989. 05. 07, 천주교 인천교구)

『한겨레신문』 제299호(1989. 05. 02, 한겨레신문사)

## 05. 01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산하 근로자 및 학생 2500여 명, 각 지구대별로 「세계노동절 1백주년 기념식 및 4:30 보고대회」를 가진 뒤, 오후 5시경 세계노동절 1백주년 기념대회 행사장인 부평역으로 가두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2차 집결지인 시민회관 앞 등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 오후 8시경 해산. 시위 현장에서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간사 정장교가 연행되어 구속됨

『경인일보』 제8955호(1989. 05. 02, 경인일보사)

- 주안5동 성당, 4월 28일 발생한 「백순기 신부 폭행 및 주안노동사목 무단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항의문을 작성해 본당 신자 647명의 서명용지와 함께 인천시청을 방문, 시장에게 전달함. 인천시청은 면담을 거절하여 우편으로 발송. 이후 5월 3일 오후 9시부터는 200여 명의 신자들이 철야 기도회를 가짐

『인천주보』 제977호(1989. 05. 07,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민주청년회 등 서울·경기지역 20여 개 청년단체, 5월 1일부터 5월 7

일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제1회 서울·경기 청년문화대동제」 개최

『한겨레신문』 제295호(1989. 04. 27, 한겨레신문사)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기관지 『일꾼의 함성』 창간

『일꾼의 함성』 창간호(1989. 05. 01,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M00530265)

## 05. 02

- 인천공립중등교사협의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창립대회 개최

『인천교사신문』 제13호(1989. 04. 27, 인천교사협의회, M00111668)

『경인일보』 제8957호(1989. 05. 04, 경인일보사)

『한겨레신문』 제301호(1989. 05. 04, 한겨레신문사)

- 경찰 70여 명이 인천민주청년회 사무실을 수색하고 김성진 회장과 이용주 교육부장 등 3명을 연행함. 김성진과 이용주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됨

「인천민주청년회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불법구속자 전원 석방하라.」(1989. 05. 09, M00210091)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한겨레신문』 제300호(1989. 05. 03, 한겨레신문사)

## 05. 03

- 인천초등교사협의회, 교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교육대학교에서 창립대회 개최

『인천교사신문』 제13호(1989. 04. 27, 인천교사협의회, M00111668)

『경인일보』 제8957호(1989. 05. 04, 경인일보사)

『한겨레신문』 제301호(1989. 05. 04, 한겨레신문사)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4월 28일 발생한 「백순기 신부 폭행 및 주안노동사목 무단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오전 9시 30분경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침해와 노동운동 탄압하는 현 정권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이에 앞서 5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한 전국노동사목협의회도 5월 3일부터 전국 각 교구의 노동사목 종사자와 사목담당 사제, 수녀 등 25명이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감

『인천주보』 제977호(1989. 05. 07, 천주교 인천교구)

- 대경여자상업학교 학생 천여 명, 학교 교정에서 재단비리 척결과 학생회 자치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5월 8일까지 철야농성 진행

### 〈학생들 주요 요구사항〉

1. 학생자치활동 보장

2. 수업시간 호출금지
3. 학급비 연간 2000 원 징수 환불 폐지
4. 상공회의소 기능검정시험 이에 대한 실업교육회 시험 폐지
5. 학습자료 확보 및 교구 정비
6. 학교재정 공개
7. 학생 인권보장
8. 도서관 설치
9. 노조활동 보장
10. 어용교사 퇴진
11. 학교장 퇴진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경인일보』 제8962호(1989. 05. 11, 경인일보사)

- 해인교회, 인하대학교에서 노동자 생활극 ‘우리것 우리가 찾으러’ 공연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 대흥기계 노동조합 위원장 홍상철, 부평공장 사무실에서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벌이던 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전영장을 발부받은 인천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5명에게 강제연행되는 와중에 손에 수갑을 차고 달아남  
『한겨레신문』 제302호(1989. 05. 05, 한겨레신문사)

#### 05. 04

- 천주교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4월 28일 발생한 「백순기 신부 폭행 및 주안노동사목 무단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오후 7시 비상회의를 열고 「교권탄압과 폭력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인천주보』 제977호(1989. 05. 07, 천주교 인천교구)

-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4월 28일 발생한 「백순기 신부 폭행 및 주안노동사목 무단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오후 3시 회원 40여 명이 ‘교회의 교권과 노동사목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답동 가톨릭회관 앞에서 인천시경까지 시가행진을 하며 항의 시위 전개. 이어 오후 6시경에는 (주)영원통신 앞에서 ‘영원통신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

『인천주보』 제977호(1989. 05. 07, 천주교 인천교구)

#### 05. 05

- 세창물산 노동조합, 신립섬유 노동조합과 함께 세창물산 운동장에서 「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244일 간에 걸친 농성을 끝냄.

『인노협신문』 제14호(1989. 05. 1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05. 07

- 주안5동 성당 평협, 4월 28일 발생한 「백순기 신부 폭행 및 주안노동사목 무단난입」 사건과 관련해 오전 11시 미사가 끝난 후 본당 신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안1동 성당까지 침묵시위 전개

『인천주보』 제978호(1989. 05. 14, 천주교 인천교구)

#### 05. 08

- 인천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창립

「세계노동절 101주년 기념 인천노동자 대동문화제」(1990. 05.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외, M00450369)

- 천주교 인천교구, 4월 28일 발생한 「백순기 신부 폭행 및 주안노동사목 무단난입」 사건과 관련해 답동성당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수호와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개최. 기도회가 끝난 후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은 가톨릭회관 6층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인 5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24시간 단식기도에 들어감

『인천주보』 제977호(1989. 05. 07,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978호(1989. 05. 14, 천주교 인천교구)

- 대경여자상업학교 학생 1000여 명이 5월 3일부터 재단비리 척결 등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여오자, 학교 측은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부평경찰서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여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김상필 교사와 학생회장을 구속시킴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 인천교육대학 재학중 입대한 이상철 등 서울시경 제3기동대 97중대(사복체포조, 속칭 백골단) 소속 전투경찰 6명, 소속부대를 나와 여의도 평민당 중앙당사에서 양심선언문 발표. 이들은 '우리들은 동의대 사건으로 참변을 당한 분들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되어, 죽음의 의미를 왜곡,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정치권력자들의 속셈을 폭로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고 '전투경찰대의 대간첩작전 전념과 경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 이상철 등 3명은 5월 28일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나머지 3명은 자체 징계를 받음

『한겨레신문』 제304호(1989. 05. 09,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321호(1989. 05. 28, 한겨레신문사)

#### 05. 10

- 인천지역교사협의회, 답동 가톨릭회관 5층 강당에서 교사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교사의 날 기념 및 교직원노조 건설을 위한 인천교사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신맹순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출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 05. 11

- 인천민주청년회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5월 15일까지 답동 가톨릭회관 512호실에서 민족민주운동탄압 중지와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며 철야농성 진행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한겨레신문』 제308호(1989. 05. 13, 한겨레신문사)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꾸리아 · 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오후 7시 주안5동 성당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재 신부의 주례로 「교권수호와 노동자를 위한 미사」 봉헌

『인천주보』 제978호(1989. 05. 14, 천주교 인천교구)

- 5월 3일부터 '죽별재단 퇴진, 학교재정 공개,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오던 대경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등 2명,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됨

『한겨레신문』 제308호(1989. 05. 13, 한겨레신문사)

#### 05. 15

- 인천민주청년회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민족민주운동탄압 중지와 애국인사 석방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7시 답동 가톨릭회관 앞 도로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상 촛불기도회」를 개최하여 「광주희생자와 조성만열사 추모기도회 및 이철규열사 고문치사 보고대회」 가짐

『인천주보』 제977호(1989. 05. 07,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 햇살 어린이집, 청천동에 설립됨

『인천여성노동자』 제2호(1990. 02.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405722)

#### 05. 18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학생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철규 군 고문살인 진상규명 및 노태우정권퇴진을 위한 5만학도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가두행진을 벌임.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경인일보』 제8969호(1989. 05. 19, 경인일보사)

- 인천대학교 학생들, 인천대학교 민주광장에서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항쟁 추모제 및 재단이사진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 해인교회, 5월 30일까지 「광주 비디오 상영 및 사진전」 개최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 백령도 연화3리 어민 50여 명, 북포1리 해병부대 정문 앞에 몰려가 군 당국의 조업 과잉통제에 항의하며 농성 진행  
『한겨레신문』 제314호(1989. 05. 20, 한겨레신문사)

#### 05. 19

- 삼양유지 노조탄압 대책협의회, 4월 22일 공권력이 투입돼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한 사건이 발생한 삼양유지사료(주) 인천공장이 삼양식품의 계열회사인 점을 들어 '삼양식품 불매운동'의 시작을 선언. 삼양유지 노조탄압 대책협의회는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인천지역노동상담·교육단체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인천지역 기독교 사회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등이 참여해 구성  
「우리는 왜 불매운동을 하는가?」(1989. 05. 19, 삼양유지 노조탄압 대책협의회, M00855951)  
「불매 : 지금 먹고 있는 라면·우유가 혹시 삼양식품이 아닙니까?」(1989. 06. 25, 삼양유지 노조탄압 대책협의회, M00400330)

#### 05. 20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인천전문대 본관 앞에서 「고 이철규 열사 고문치사 진상규명대회」 개최. 학생, 시민, 노동자 800여 명이 참여하여 대회를 끝마친 후 동인천역 앞까지 평화적인 가두시위 벌임. 개정된 집시법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고 열린 인천 최초의 집회였음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 05. 21

- 인천지역 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제2동인장로교회에서 「광주 5월항쟁 기념예배」 개최.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새봄교회, 백마교회, 해인교회, 송림사랑방교회, 일꾼교회에서 「광주 5월항쟁 기념 비디오 상영」 행사 진행  
「광주 5월항쟁 기념예배」(1989. 05. 21, 인천지역 기독교 사회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M00170043)

#### 05. 22

1989년

- 문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한 교사들 중 처벌대상자를 54명으로 확정하고 그중 국·공립학교 교사 37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시키고 형사고발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에 지시함. 인천지역 징계대상자는 박문여자고등학교 교사 조용명,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신맹순, 신현초등학교 교사 이청연 등 3명임  
『한겨레신문』 제316호(1989. 05. 23,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317호(1989. 05. 24, 한겨레신문사)

#### 05. 23

- 신현북초등학교 이청연·인천제물포고등학교 신맹순·박문여자고등학교 조용명 등 교사 3명, 5월 14일 개최된 「전국교직원노조 발기인 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와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위원회에 의해 직위해제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됨. 같은 날 오후 이청연·신맹순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되고 조용명은 사학재단 측에 중징계하도록 통보됨.  
『경인일보』 제8972호(1989. 05. 23, 경인일보사)  
『경인일보』 제8973호(1989. 05. 24, 경인일보사)

#### 05. 24

- 인하대학교 학생 700여 명, 후문 광장에서 「구속학우 석방을 위한 범인하인 실천대회」를 개최한 후 가두 시위 전개  
『한겨레신문』 제318호(1989. 05. 25, 한겨레신문사)

#### 05. 26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인천지역 주민회·인천민주청년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 일동·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애국학생 고 이철규열사 고문살해 사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동 명의로 발표. 이 성명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 이철규가 익사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등을 요구

#### 〈우리의 주장〉

1. 진상은폐에 방조하는 국회진상조사단을 거부한다. 민주단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의료진, 정치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정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재부검 및 객관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라.
1. 5공시절 이래 지금까지의 의문사를 전면 재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라.
1. 미국은 13일자 국무부 성명의 근거가 된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범



국민대책위」에 제출하라.

1. 이철규열사의 고문살인을 초래한 무법폭력기구 공안합수부를 즉각 해체하라.
1.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5공비리청산을 회피하는 노태우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애국학생 고 이철규열사 고문살해사건에 즈음하여」(1989. 05. 26,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외, M00119360)

#### 05. 27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인천지역 민족 민주운동연합,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시민, 학생, 노동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철규열사 살해 진상규명 및 전국교직원노조 결성지지 결의 대회」 개최

「인천의 소리」 제40호(1989. 05.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169060)

『한겨레신문』 제321호(1989. 05. 28, 한겨레신문사)

#### 05. 30

- 주안5동 성당, 4월 28일 발생한 「백순기 신부 폭행 및 주안노동사목 무단 난입」 사건과 관련해 성당 정문과 사무실 벽에 부착한 ‘신부님 폭행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동부경찰서장을 파면하고 파출소장을 구속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사제단 명의의 고발장이 이날 밤과 다음날 새벽 사이에 신원 미상 사람들에게 의해 불태워짐

『인천주보』 제981호(1989. 06. 04,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 안영환 등 학생 40여 명, 인천대학교 총장실을 점거한 채 재단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 전개

『한겨레신문』 제324호(1989. 06. 01, 한겨레신문사)

#### 05. 31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1600여 명, 5월 29일 학교 측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평교사회 회장 강신오 등 교사 4명을 부평경찰서에 고발한 데 항의하며 학교 운동장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해산함. 이날 학교 측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철회함

『한겨레신문』 제322호(1989. 05. 30,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324호(1989. 06. 01, 한겨레신문사)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에 쟁의발생 신고

『한겨레신문』 제324호(1989. 06. 01, 한겨레신문사)

06. 01

- 금성하니웰 노동조합 결성. 금성하니웰은 1984년 럭키금성과 미국 하니웰사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1985년 9월 부평공장을 설립했다가 1995년 3월 천안으로 공장을 이전함

『새벽』 제17호(1989. 06. 30, 한국대양전기노동조합, M00518913)

「한국하니웰 홍보 팜플렛」(2007. \*. \*, 한국하니웰)

06. 02

- 인천지역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30여명, 민주당 인천북 갑지구당 정정훈 의원 사무실에서 구속 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한부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326호(1989. 06. 03, 한겨레신문사)

06. 03

- 제물포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350여 명, 제물포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수배중인 신맹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진행

『한겨레신문』 제327호(1989. 06. 04, 한겨레신문사)

06. 04

- 인천지역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구속 노동자 석방 및 노동운동탄압 중지 등을 촉구하며 집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328호(1989. 06. 06, 한겨레신문사)

- 세경의류 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식을 거행. 6월 5일 「노동조합 결성 보고대회」와 함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세경의류는 1987년 2월 설립된 의류봉제 업체로 주안6공단에 위치함. 남자용 자켓을 생산하며 전량을 미국·일본·유럽 등지로 수출. 1989년 1월 중순 활동가 1인과 미싱사 2인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하고 모임을 결성. 이후 또래모임을 조직해 나감. 4월 말 9명이 모여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만든 후 6월 4일 노동조합 결성식을 개최함. 파업은 7월 6일에 종결됨

『북소리』 12(1989. 07. 08, 세경의류 노동조합, M00400162)

「세경 폐업 투쟁 사례」(1990. \*. \*, M00858115)

06. 05

-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장 안재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한겨레신문』 제328호(1989. 06. 06, 한겨레신문사)

- 명신여자고등학교 재단 대표·교사 대표·학부모 대표 등 11명이 학교정상

화를 위한 모임을 갖고 6월 15일까지 명신여자고등학교 교도주임을 퇴진시키는 데 합의함

『한겨레신문』 제329호(1989. 06. 07, 한겨레신문사)

#### 06. 06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부평공장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부별로 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53.2%의 찬성으로 파업 결의

『한겨레신문』 제329호(1989. 06. 07, 한겨레신문사)

#### 06. 07

- 인천지역 학부모·교사 200여 명, 답동 가톨릭회관 5층 강당에서 「교직원 노조지지 학부모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330호(1989. 06. 08, 한겨레신문사)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의장 안재환의 구속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등을 촉구

『한겨레신문』 제330호(1989. 06. 08, 한겨레신문사)

#### 06. 08

-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인천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선인학원 교사협의회·인천대학교 학생회·인천전문대 학생회 등 선인학원 5개 단체 소속 500여 명, 인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집회를 갖고 설립자 백인엽과 이사진을 학원에서 퇴진시키기로 결의함

『한겨레신문』 제331호(1989. 06. 09, 한겨레신문사)

#### 06. 09

- 국제사면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신맹순 교사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한 양심범’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청하는 서한을 정부 당국에 보내음

『한겨레신문』 제378호(1989. 08. 03, 한겨레신문사)

- 다우정밀 노동조합 결성. 6월 26일에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에 가입함

『새벽』 제17호(1989. 06. 30, 한국대양전기노동조합, M00518913)

#### 06. 1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준비위원회, 인천대학교 대학원 강당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결성. 지부장에 신맹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선출

『한겨레신문』 제333호(1989. 06. 11, 한겨레신문사)

#### 06. 14

- 고창산업 노동조합 결성

『새벽』 제17호(1989. 06. 30, 한국대양전기노동조합, M00518913)

-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 「제4회 일하는 여성을 위한 수요 강좌」 개최. 김지선 여성노동자회 회장이 ‘산업사회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라는 주제로 강연함

「일하는 여성을 위한 수요 강좌」(1989. 06. 14,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 M00856258)

#### 06. 18

-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주택건설 추진위원회’, 만수동 이주 정착지(전 만수동 중국인 공동묘지)에서 ‘(가칭)삶의 자리’ 상량식 개최

「(가칭)삶의 자리 상량식 초대합니다」(1989. 06. 18,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주택건설 추진위원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인천기독교사회운동연합 결성. 1988년 9월 5일 인천지역민중교회연합,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등 3개 기독교운동단체들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89년 2월 인천부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추가로 참가하여 결성됨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보고서-인천』

#### 06. 19

- 인하대학교 교수 김영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인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본인의 강좌 ‘정부와 경제’ 수강 학생 이용주에 대해 성적평가를 위한 특별면회 신청

『한겨레신문』 제344호(1989. 06. 24, 한겨레신문사)

- 학익동 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들, ‘운동시간 연장, 양심수 합사, 부식 개선, 소내 폭력 근절, 서책 및 서신 검열 폐지’ 등을 6월 24일까지 들어줄 것을 교도당국에 요구

『구속동지소식』 제1호(1989. 06. 28, 인천지역 구속자가족협의회, M00408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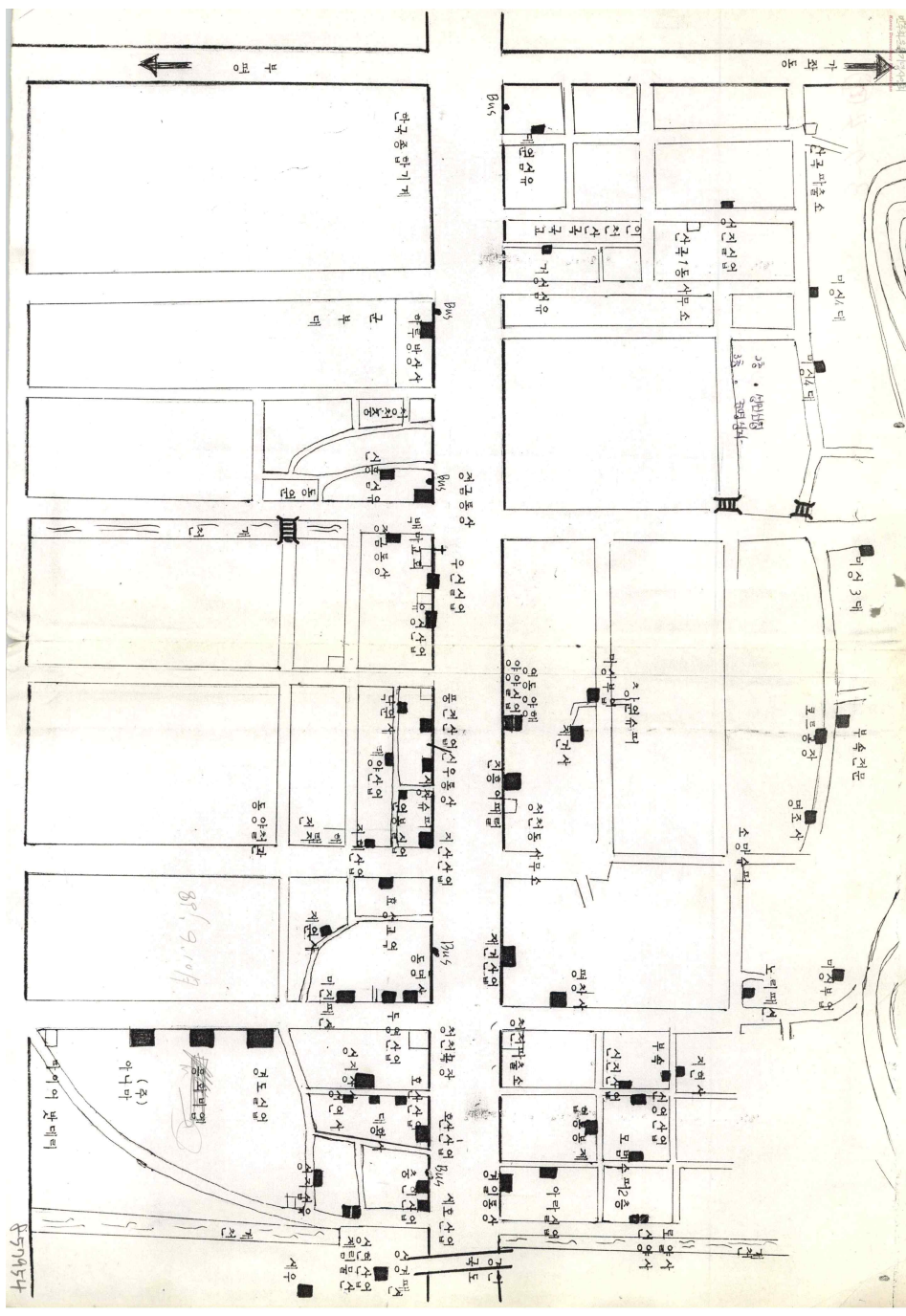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사 양쪽이 임금인상에 합의하며 정상조업 시작

『한겨레신문』 제340호(1989. 06. 20, 한겨레신문사)

#### 06. 20

- 인천지역 유업판매원 500여 명, 주안 고려예식장 지하에서 ‘인천지역 유업판매원 총연합회’ 결성식 개최

『한겨레신문』 제341호(1989. 06. 21, 한겨레신문사)



〈산곡동·청천동 일대 봉제업체 분포도〉

(M00857954)

06. 2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초등지회 결성. 지회장에 이영규 산곡초등학교 교사 선출

『한겨레신문』 제343호(1989. 06. 23, 한겨레신문사)

- 선인학원 7개 학교 소속 교사 200여 명, 인천대학교 대학원 강당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인학원 연합분회 결성식」 개최

『한겨레신문』 제343호(1989. 06. 23, 한겨레신문사)

06. 23

- 인천시교육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무장 이청연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 의결함

『한겨레신문』 제344호(1989. 06. 24,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345호(1989. 06. 25, 한겨레신문사)

- 인천조선, 인천노동조합협의회 가입

06. 24

-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1주년 기념행사로 인천 지역 각 민주노조의 참여 하에 「해방가요제」 개최

『예술정보』 제38호(1989. 06. 01, 한국미족예술인총연합, M00871275)

-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답동 가톨릭회관 312호에서 문국주 평화연구소 부소장을 초청하여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월례기도회 개최

『인천주보』 제983호(1989. 06. 18, 천주교 인천교구)

- 천주교 인천교구 부평1동 대학생회, 부평1동 성당에서 고려대학교 고성국 교수를 초청하여 「민족통일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통일염원 초청강연」 개최

『인천주보』 제983호(1989. 06. 18,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민주시민공동회 · 한겨레신문 인천지사, 「제1회 민중역사기행」으로 '갑오농민전쟁터 기행' 진행

『한겨레신문』 제342호(1989. 06. 22, 한겨레신문사)

06. 25

- 『가톨릭신문』에 4월 28일 발생한 「백순기 신부 폭행 및 주안노동사목 무단 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주)영원통신 대표이사 도홍식 명의의 「성직자 폭행에 대한 사과문」 광고가 게재됨.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은 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적당한 타협을 하였다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

『인천주보』 제985호(1989. 07. 02, 천주교 인천교구)

#### 06. 26

- 인천지역 구속자가족협의회, 학익동 교도소 보안과장을 만나 수감 중인 양심수들이 6월 19일 제시한 요구사항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함

『구속동지소식』 제1호(1989. 06. 28, 인천지역 구속자가족협의회, M00408845)

#### 06. 27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인하대학교 지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하대학교 지부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전교조 지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한교육연합회 산하 인천시 교육회를 탈퇴한다는 선언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교수일반의 교직원노조 참여 권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하대학교 지부회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전교조 지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인하대학교 지회일동은 기존 교육 귀족집단의 어용성을 규탄하면서 대한교육연합회 산하 인천시 교육회를 탈퇴한다.
2. 현 정권은 교직원노조를 인정하고, 참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실천적 노력을 하는 교사들에게 가해진 탄압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전교조 인천시지부장 신맹순 교사 등을 즉각 석방하라.
3. 문교부, 어용교육단체 그리고 교육감, 장학사, 교장, 교감 등 교육관계자들은 최근의 교직원노조결성 방해책동과 참교육운동 말살책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마땅한 책임을 지기를 촉구한다. 우리국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공권력의 정보원과 하수인노릇을 집단적으로 했다는 기록에 접한 적이 없다. 방해책동의 일선에 나섰던 교육관계자들은 국민의 자긍심의 회복을 위해서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4. 야권3당은 국민기본권적인 교원의 노동3권을 포함하는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사안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지말고 교직원노조 인정과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조속히 정치권에서 이룩해 내기를 요망한다

다. 우리는 교원지위법안과 현재 여야간에 합의되어 가고 있는 불완전한 교육자치제안은 교육민주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야당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특히 공화당은 유신의 전통을 되살리려는 시대착오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야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5. 제도권 언론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참되고 올바른 진실을 사명감을 갖고 보도하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교수일동은 교수일반이 교직원노조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전교조의 활성화에 배전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1989년 6월 27일

|     |     |      |     |     |
|-----|-----|------|-----|-----|
| 신황호 | 최원식 | 김영규  | 홍재웅 | 윤영천 |
| 국순옥 | 윤진호 | 이경은  | 박지향 | 박영일 |
| 정재훈 | 이정용 | 정효일  | 정성학 | 김문창 |
| 김대환 | 임명방 | (무순) |     |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하대학교 지부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전교조 지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1989. 06. 27, 신황호 외 16명, M00856385)

- 홍성훈 등 인천지역 인사 39명, 「참교육 실천을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 지지선언문 발표

#### 〈서명자〉

- 의사 -

홍성훈(홍정형외과) 양요한(연합의원) 최병순(인천의원) 정해관(인천의원) 김정범(평화의원) 김정아(김내과) 김원범(김치과) 홍학기(홍일한의원) 엄종희(십정한의원)

- 변호사 -

이기문 문병호 이양원

- 신부 -



김병상(주안1동 성당) 이덕진(부평3동 성당) 조성교(부평1동 성당) 호인수(백령도 성당) 서상범(원미동 성당) 홍범기(김포 성당) 이석재(천주교 인천교구 교육국장) 홍창만(신천 본당) 오용호(계산동 성당) 정귀호 장태식

- 목사 -

박동일(백주년교회) 성양권(부천교회) 박종기(성공회 내동교회) 이진(제2동인교회) 박종렬(송림사랑방교회) 김달성(인향교회) 신철호(백마교회) 김상목(소성교회) 박승태(새역사교회) 김성복(샘터교회) 이원희(새봄교회) 이재천(삼일교회) 전희덕(덕천교회)

- 기타 -

오순부(우일정밀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 고문) 한영환(한겨레신문 인천 지사장) 나경찬(경기은행 신기춘 지점장) (무순)

「참교육 실천을 위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적극 지지합니다!」(1989. 06. 27, 홍성훈 외 38명, M00856385)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제1회 노동해방 가요제」 개최

『인노협신문』 제15호(1989. 07. 13,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구월중학교 교사 이경호,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 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돼 구속됨

『한겨레신문』 제347호(1989. 06. 28, 한겨레신문사)

## 06. 28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1주년 기념대회」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성동 JC공원에서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6. 29

- 인천지역 각계 인사들이 모여 '목요회' 창립

『한겨레신문』 제1359호(1992. 10. 09, 한겨레신문사)

- 인천·부천지역 노동자회 사건 구속자·수배자 가족들, 평민당 박영록 부총재와 민주당 김동영 부총재 등 국회의원 75명을 포함, 각계인사 1007명 으로부터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서울형사지법에 제출

『한겨레신문』 제349호(1989. 06. 30, 한겨레신문사)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하대학교 지회' 소속 교수 17명, 전국교

1989년

직원노동조합 결성 지지 성명을 내고 대한교련 산하 인천시교육회를 탈퇴하고 밝힘. 이 날 인천지역 의사·변호사·신부·목사 등 39명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지지 성명을 발표함

『한겨레신문』 제349호(1989. 06. 30, 한겨레신문사)

#### 06. 30

- 가톨릭 민주시민 공동체(가칭), 답동 가톨릭회관 304호에서 창립모임 개최  
『인천주보』 제984호(1989. 06. 25, 천주교 인천교구)
- 대학생 20여 명이 '노태우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간석동 석암파출소 맞은편에서 시위를 벌임. 오후 8시경에는 용현동 소재 민정당 인천시 남구을 지구당 건물에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화염병을 던지고 달아남

『한겨레신문』 제350호(1989. 07. 01, 한겨레신문사)

#### 07. 0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립지회 결성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인천 지부 사립 지회 결성 선언문」(1989. 07. 01, M00413026)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조합, 임금협상 당시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회사 측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7월 10일 이후로 미루자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 간부를 제외하고 조합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음

『한겨레신문』 제351호(1989. 07. 02, 한겨레신문사)

#### 07. 04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소속 57개 택시노동조합, 각 단위 노동조합별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준법투쟁 돌입

『한겨레신문』 제353호(1989. 07. 05, 한겨레신문사)

#### 07. 05

- 인천지역 대학생 30여 명, 5월 5일부터 시작된 대학생들의 명동성당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단식 농성 시작  
『인천주보』 제982호(1989. 06. 11,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조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 퇴진과 파업기간 유급처리' 등을 요구하며 6월 23일부터 11일째 작업 거부를 계속 하자 회사 측이 무기한 휴무에 들어감

『경인일보』 제9009호(1989. 07. 05, 경인일보사)

『한겨레신문』 제353호(1989. 07. 05, 한겨레신문사)

- 인천·서울·경기지역 14개 대학 교수 90여 명, 민주교수협의회 사무실에

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성명 발표

『한겨레신문』 제354호(1989. 07. 06, 한겨레신문사)

## 07. 07

- 인천·경기지역 6개 대학 교수 106명, 인하대학교 교수회의실에서 ‘인천·경기 민주화교수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인하대학교 임명방 교수 선출

『한겨레신문』 제356호(1989. 07. 08, 한겨레신문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경찰이 답동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전교조 신문, 플래카드, 피켓 등 40여 점을 압수당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중앙초등학교 강승숙 교사 등 6명이 연행됨. 이 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7월 9일 예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회를 앞두고 전국 15개 전교조 지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밤 7시부터 자정까지 일제히 실시함에 따라 이루어짐

『경인일보』 제9012호(1989. 07. 08, 경인일보사)

『한겨레신문』 제356호(1989. 07. 08, 한겨레신문사)

- 대영기계 노동조합 현판식 거행. 대영기계는 효성동에 위치함

『새벽』 제18호(1989. 08. \*, 한국대양전기노동조합, M00518914)

- 인천노동교육연구소, 7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부평4동 431-24 소재 연구소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 실시

## 〈교육 과정〉

| 날짜     | 내용                         | 강사          |
|--------|----------------------------|-------------|
| 07. 07 | 노동자와 노동법                   | 연구소 상담실장    |
| 07. 14 | 노동조합과 일상활동                 | 오순부(연구소 소장) |
| 07. 21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단체 행동           | 연구소 상담실장    |
| 07. 28 |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 연구소 연구간사    |

『동아노보』 창간호(1989. 06. \*, 동아건설노동조합 부평지부, M00400180)

## 07. 09

- 송철순민주노동열사추모위원회·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송철순열사 추모 및 노조탄압규탄 인천노동자결의대

1989년

회」가 인천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됨. 송철순은 세창물산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파업농성 중이던 1988년 7월 15일 현수막을 부착하다가 공장 옥상에서 추락하여 이틀 뒤인 7월 17일 사망함

「송철순열사 추모 및 노조탄압규탄 인천노동자결의대회」(1989.07.09, M00400316)

『인노협신문』 제15호(1989. 07. 13,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한국특수산업 노동조합 현판식 거행.

『새벽』 제18호(1989. 08. \*, 한국대양전기노동조합, M00518914)

#### 07. 10

- 인천노동교육연구소, 회보 『인천노동교육』 창간호 발행

『인천노동교육』 창간호(1989. 07. 10, 인천노동교육연구소)

#### 07. 1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 초등학교 교사 5명, 전교조 탄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단식 수업에 돌입

『경인일보』 제9017호(1989. 07. 14, 경인일보사)

- 노동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소식지 『노동자대학』 창간호 발행

『노동자대학』 창간호(1989. 07. 12, M00128654)

#### 07. 1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립중등지회 소속 교사들, 전교조 탄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수업 시간 중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후 점심식사를 생략하는 부분 단식 수업 시작

『경인일보』 제9017호(1989. 07. 14, 경인일보사)

- 인천 노점상연합회 회장 윤상준, 7월 12일 오전 11시경 남동구 만수동 남부소방서 옆 인도에서 노점상 50여 명과 함께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인 일과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입건됨

『경인일보』 제9017호(1989. 07. 14, 경인일보사)

#### 07. 14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소속 52개 사가 임금 협상 문제로 쟁의발생 신고. 이튿날인 7월 15일 노사 양측이 임금 25% 인상 등 6개항에 합의하면서 쟁의 하루만에 타결됨

『경인일보』 제9019호(1989. 07. 17, 경인일보사)

#### 07. 15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평동·용현동·부평동에 소재한 일일노동자 대기소

에 노동상담소 설치

『한겨레신문』 제363호(1989. 07. 16, 한겨레신문사)

- 인천길병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내정자 신태식, 남구 주안동 소재 세광병원에서 인천길병원 노동조합이 결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사원들과 함께 찾아온 인천중앙길병원 관리과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음. 해당 관리과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동부경찰서에 입건됨

『경인일보』 제9018호(1989. 07. 15, 경인일보사)

## 07. 18

- 현대건설 철구사업본부 노동조합 조합원 70여 명, 시급 4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한겨레신문』 제366호(1989. 07. 20, 한겨레신문사)

## 07. 20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과 관련해 같은 해 2월 구속·기소된 손형민 등 5명, 결심 공판에서 손형민 징역 4년, 나머지 4명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됨. 검찰은 논고문에서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PDR) 이념을 기초로 한 이적단체’라고 규정함.

『경인일보』 제9023호(1989. 07. 21, 경인일보사)

## 07. 22

- 인천지역 차량정비 노동조합, 자동차 정비업소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결성대회를 갖고 출범함. 위원장에 장기철 선출

『한겨레신문』 제369호(1989. 07. 23, 한겨레신문사)

## 07. 28

- 인천지역 고등학생 200여 명, 인하대학교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된 「미추홀 학생축제」에 경찰이 진입하여 강제 해산 당함.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 48명과 대학생 5명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 경찰은 ‘인천지역 고교생연합회’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으나 행사에 참석한 일부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은 경찰의 강제 해산을 항의하며 후문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다 자진 해산함

『경인일보』 제9030호(1989. 07. 29, 경인일보사)

『한겨레신문』 제374호(1989. 07. 29, 한겨레신문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7월 18일 현재 조합원 명단을 『한겨레신문』에 게재해 공개함

1989년

『한겨레신문』 제373호(1989. 07. 28, 한겨레신문사)

- ‘전국교직원노조를 지지하는 인천지역노동조합 일동’ 명의로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가 발표돼 8월 5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됨

『한겨레신문』 제380호(1989. 08. 05, 한겨레신문사)

#### 07. 29

- 인천외국어학교 교사 12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문제와 관련해 파면·해임 당함

『한겨레신문』 제393호(1989. 08. 20,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남캠프장에서 「여름대잔치」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7. 30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7월 29일 문규현 신부 북한파견과 관련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긴급 사제총회를 소집하여 40여 명의 사제가 참석한 가운데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입장을 수용하고 신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교구 신자에게 강론으로 홍보하기로 결정.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튿날인 7월 31일 긴급총회를 소집해 문규현 신부 북한 파견 사실을 만장일치로 추진한 후, ‘① 노태우대통령에게 7·7선언의 진의와 통일 정책을 공개 질의한다. ② 8월 7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와 5공 청산,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③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전국 교구별 순회기도회를 개최한다. ④ 이에 대한 정부의 응답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등의 대책을 마련함

『인천주보』 제990호(1989. 08. 06, 천주교 인천교구)

#### 07. 31

- 7월 28일 개최된 「미추홀 청소년축제」와 관련해 경찰이 고교생연합회 결성 여부 조사를 위해 고교생 8명을 불러 조사함

『한겨레신문』 제376호(1989. 08. 01, 한겨레신문사)

#### 08. 01

- 7월 28일 개최된 「미추홀 청소년축제」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을 연행해 조사 중인 경찰이 이날 행사가 ‘인천지역 고교생 대표자 협의회’ 결성을 위한 사전 모임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함

『한겨레신문』 제377호(1989. 08. 02, 한겨레신문사)

- 경찰이 도화동 만두리서점과 주안동 시민서점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색해 『갑오농민전쟁 제2부』 등 판금서적 69점을 압수하고 만두리서점 주인 김용환을 입건함

『한겨레신문』 제376호(1989. 08. 01, 한겨레신문사)

- 주안5동 산동네 강제철거로 인하여 세입자 100여 세대가 만수동 중국인 묘지터로 집단 이주함. 주택이 미완공된 상태에서 이주하였으며 12월 10일 주민투표로 마을 이름을 '한우리 마을'로 정함

『만수3동 한우리 마을 형성과정』(1990. \*. \*,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08. 05

- 신광기업 · US마그네틱코리아 · 대원화학 · 삼우기업 등 4개 업체 노동자 152명, 인천지방노동청 앞마당에서 노사협상 중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전원 경찰에 연행됨

『한겨레신문』 제381호(1989. 08. 06, 한겨레신문사)

#### 08. 08

- 제물포고등학교 졸업생 30여 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에서 '전교조지지 및 신명순 교사 석방을 위한 제물포고 동문 대책위원회' 결성

『한겨레신문』 제383호(1989. 08. 09, 한겨레신문사)

#### 08. 10

- 참교육을 지지하는 학부모 모임, 주안5동 성당에서 「선생님에게 노조를 아이들에게 참교육을」이라는 주제로 모임 개최

『인천주보』 제990호(1989. 08. 06, 천주교 인천교구)

#### 08. 11

-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8월 11일 · 12일 이틀간 답동 가톨릭회관 312호에서 「제3회 좋은 영화 감상회」를 개최하여 「어미」, 「이철규 씨 사인의 진상을 밝힌다」 등을 상영

『인천주보』 제990호(1989. 08. 06,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탄압 분쇄 및 임금인상 완전쟁취대회」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8. 13

- 인천시민공동회 사무실이 경찰에 의해 수색당하고 의장 황선진 등 5명이 연행됨

『한겨레신문』 제388호(1989. 08. 15, 한겨레신문사)

08. 16

- 인천시교육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들의 징계에 따른 학생들의 반발과 고교생협의회 구성 움직임에 대비해 학교별로 교장을 반장으로 한 '학생선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라는 지시를 내림

『한겨레신문』 제390호(1989. 08. 17, 한겨레신문사)

08. 18

- 노동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원 1명이 사무실 앞에서 형사에 의해 부평파출소로 강제 연행 당함. 시민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안 노동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부평파출소를 항의 방문하여 연좌 시위 전개

『노동자대학』 3호(1989. 08. 25, M00078591)

08. 21

-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주관으로 답동 가톨릭회관 304호에서 분당별 JOC·PAX·청년회장 및 기타 단체장이나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사제 석방을 위한 평신도단체 연석회의' 개최. 이날 모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모든 사업에 공동대처하기로 결정하고 '평신도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인천주보』 제992호(1989. 08. 20,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993호(1989. 08. 27, 천주교 인천교구)

- 코리아스테플 노동조합 노동자 6명, 회사 운동장에서 회사 직원들과 충돌해 화염병을 던지고 사무실에 화염병 3개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돼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됨

『한겨레신문』 제394호(1989. 08. 22, 한겨레신문사)

08. 22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8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주 화·금요일에 시민교양강좌 개최

『한겨레신문』 제391호(1989. 08. 18, 한겨레신문사)

08. 23

- 대공장풍물패 대표회의, 8월 15일에 개최된 「인천시민 큰잔치」 행사를 계기로 결성된 후 1차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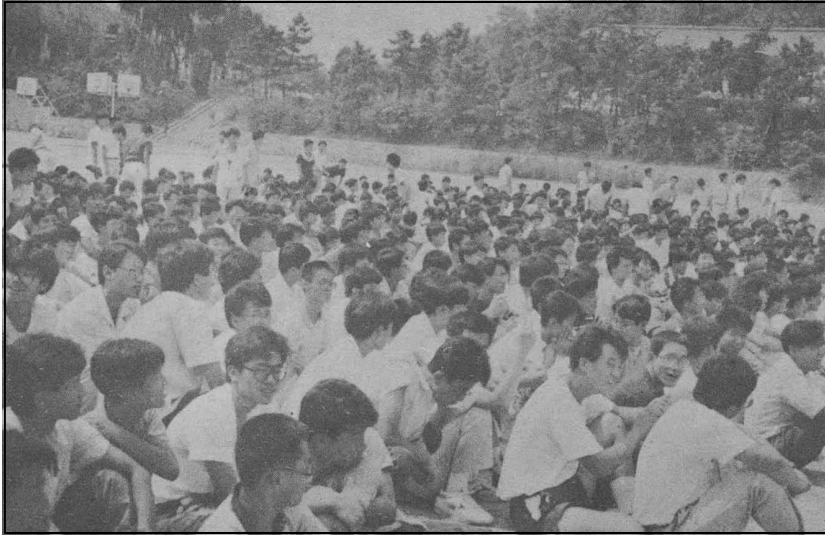
「대공장풍물패협의회 준비위원회 제1차 정기연습」(1990. 02. 11, 대공장풍물패협의회 준비위원회, M00400011)

08. 25



- 세일고등학교 학생 1500여 명, 원종찬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전개.  
8월 26일에는 전교생 투표를 실시해 822명의 찬성으로 수업전면거부 돌입.  
‘학생징계, 평교사협의회 인정’ 등에 합의하고 9월 1일부터 수업을 재개하였으나 방과 후 농성은 계속 이어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소식』 속보(1989. 09. 04, 전교조 인천지부, M00412432)  
『한겨레신문』 제399호(1989. 08. 27, 한겨레신문사)



〈학교 운동장에서 농성 중인 세일고등학교 학생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소식』 속보(1989. 09. 04, 전교조  
인천지부, M00412432)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신광기업에서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해방 가요제」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8. 27

- 천주교 인천교구, 공안정국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를 각 본당에서 동시에 봉헌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을 시작

『인천주보』 제993호(1989. 08. 27, 천주교 인천교구)

#### 08. 28

- 성현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 직권면직된 도성훈 교사 등 8명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학교 측과 경찰이 막자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임

『한겨레신문』 제400호(1989. 08. 29, 한겨레신문사)

1989년

- 세일고등학교 학생 1500여 명, 오전 9시경부터 해직된 원종찬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교실복도에서 연좌농성을 전개하다 낮 12시경 귀가함

『한겨레신문』 제400호(1989. 08. 29, 한겨레신문사)

08. 29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프레스부 소속 주간반 노동자 400여 명, 유해수당 지급 협상과정에서 소음문제가 배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 전개

『한겨레신문』 제401호(1989. 08. 30, 한겨레신문사)

08. 31

- 전교조와 관련해 직권면직된 맹관호 등 성헌고등학교 교사 7명과 서은희 등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사 7명, 각각 성헌학원과 정월학원을 상대로 면직(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가치급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교사들이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임

『한겨레신문』 제403호(1989. 09. 01, 한겨레신문사)

09. 01

- 인천시경 기동 3중대 소속 의경 130여 명, 오후 3시경 청천동 기동대 숙소를 이탈해 부평역 광장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연좌농성 벌임

『한겨레신문』 제404호(1989. 09. 02, 한겨레신문사)

-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을 경찰이 수색해 유인물 등을 압수하고 전 신현초등학교 교사 이청연과 인천교육대학교 학생 강석균 등 10명을 연행함

『한겨레신문』 제405호(1989. 09. 03,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노동조합 탄압 분쇄 및 전국교직원노조 사수대회」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09. 03

- 참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지역 학부모회, 답동 가톨릭회관 5층 강당에서 창립대회 개최

『인천주보』 제994호(1989. 09. 03, 천주교 인천교구)

- 인하대학교 민주동우회 창립

「인하대학교 민주 동우회 창립선언문」(1989. 09. 03, 인하대학교 민주동우회, M00871685)

## 인하대학교 민주 동우회 창립선언문

이 땅의 민족민주 세력과 반민주 세력의 싸움이 한층 예각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교 인하학원이 민족의 대학,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학으로 좌표를 정립하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 인하학원에서 성장하고 인하학원을 사랑하는 용현벌의 동지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하대학교 민주 동우회’의 창립을 우리 학원 내외에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장장 30여 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군사독재정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중의 의지를 제반 악법과 폭압적인 국가 기구를 통해 짓밟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민중들은 지난 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더 이상 지배자들의 노예로 남아 있기를 거부하고 굴종의 사슬을 끊고 자신이 지닌 거대한 잠재력을 과시하면서 역사의 전면을 향한 당당하고 힘찬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을 비롯하여 언론인, 예술인, 학자들과 교사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대열에 속속 가담하고 있다.

우리 인하대학교의 재학생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에 진출한 동문들도 그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본다.

그러나 그와같은 노력들은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얻어 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부정입학 사례가 밝혀진 88년 8월 이후 학원 운영에 혼란이 야기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한 총장 선출이 1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학원의 민주화를 가로 막고 있는 각종 장애요소를 과감히 척결하지 않고서는 인하학원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인하대학교 민주 동우회는 앞으로 최근의 학내 문제뿐만 아니라, 인하학원이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첫째, 인하대학교의 진정한 설립자인 하와이 농업이민들의 뜻을 되살려 인하학원의 건학이념을 재정립하는 사업

둘째, 비민주적인 학원 운영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  
셋째, 열악한 교육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수 충원, 장학제도의 개  
선을 촉구하는 일

넷째,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민주화에 일조하는 일

이와 같은 사업은 몇몇 동우의 의지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모든 동우들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 될 때 비로서 가능할 것이  
다.

모든 인하 동우들은 '인하대학교 민주 동우회'의 깃발 아래 모여, 인  
하학원의 민주적 발전과 인천지역 나아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자.

인하대학교 만세!

민주동우회 만세!

민주주의 만세!

1989년 9월 3일

인하대학교 민주동우회

「인하대학교 민주 동우회 창립선언문」(1989. 09. 03, 인하대학교  
민주동우회, M00871685)

#### 09. 04

- 경동산업 노동자 강현중·김종화 등 5명이 부당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  
며 철야농성을 벌이던 중 노무이사 강의신의 사무실에서 온몸에 신나를 끼  
얹고 분신, 화상을 입고 인천병원과 한강성심병원 등에 분산 치료를 받음.  
당시 이를 지켜보던 최운규 등 2명도 칼로 배를 찔러 자해를 시도함. 경동  
산업 노동자 21명은 8월 31일부터 회사 내 친목서클인 '디딤돌' 간부 3명이  
일일차집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데 대해 항의하며 복지  
관 4층 옥상에서 농성을 진행해 옴

「긴급속보 1 -경동산업 노동자 4명 분신 1명 활복!」(1989. 09. 05, 경동산업노동자  
탄압분쇄 임시공동대책위원회, M00849351)

『인노협신문』 호외(1989. 09. 0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M00849315)

『한겨레신문』 제406호(1989. 09. 05, 한겨레신문사)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성당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파견기도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사제 석방을 위한 인천교구 평신도공동대책위’ 발대식」를 개최함

『인천주보』 제994호(1989. 09. 03,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995호(1989. 09. 10, 천주교 인천교구)

#### 09. 05

- 경동산업 노동자탄압 분쇄대책위원회 결성.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인천지역 교육·상당소 협의회, 인하대학교 민주운동탄압 분쇄 특별위원회 등 참여

『인노협신문』 호외(1989. 09. 08,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M00849315)

#### 09. 06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통일과 민족경제’라는 주제로 조선대학교 박현채 교수를 초빙하여 월례모임 개최

『인천주보』 제994호(1989. 09. 03, 천주교 인천교구)

- 노동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신현직, 인천북부교육구청에 의해 사회교육법 위반 혐의로 부평경찰서에 고발 당함. 인천북부교육구청은 노동자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의 명칭을 사용하며 『노동자대학』 1·2·3호를 발간했다고 주장함

『한겨레신문』 제408호(1989. 09. 07, 한겨레신문사)

#### 09. 07

- 경동산업 노동자 이재학·최운규·최성춘·채중영 등 4명, 9월 4일 발생한 경동산업 노동자 분신 사건과 관련해 ‘화염병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됨.

『한겨레신문』 제409호(1989. 09. 08, 한겨레신문사)

#### 09. 08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구속사제·임수경양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인천주보』 제994호(1989. 09. 03, 천주교 인천교구)

#### 09. 09

- ‘경동산업 노동자탄압분쇄 공동대책위원회’,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학교 대학원 강당에서 「경동산업 노동자 탄압분쇄 결의대회」 개최. 대회가 끝난 후 인천대학교 교문 밖으로 진출하려다가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화염병 등을 던지며 시위 전개

1989년

『한겨레신문』 제411호(1989. 09. 10, 한겨레신문사)

- 경동산업 노동자 강현중,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9월 4일 분신을 단행해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중 사망함. 하루 전인 9월 8일에는 함께 화상을 입은 경동산업 노무관리이사 강의신이 사망함

『한겨레신문』 제411호(1989. 09. 10, 한겨레신문사)

09. 12

- 인천기독교 사회운동연합, 일꾼교회에서 「제1회 정책협의회」 개최  
「인천기독교 사회운동연합 제1회 정책협의회」(1989. 09. 12, 인천기독교사회운동연합, M00445207)

09. 18

- 경동산업, 정상조업 시작

『한겨레신문』 제416호(1989. 09. 19, 한겨레신문사)

09. 21

- 인천교도소에 수감중인 인천민주청년회 회장 김성진 등 시국 관련 수감자 50여 명,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419호(1989. 09. 22, 한겨레신문사)

09. 22

- 천주교 인천교구 민중대학 동창회, 답동 가톨릭회관 304호에서 「참교육과 전교조」라는 주제로 제물포고등학교 해직 교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신맹순을 초청하여 공개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995호(1989. 09. 10, 천주교 인천교구)

09. 27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 진보정치연합 · 경동산업 분신 노동자 유가족 등 40여 명, 여의도 평민당사에서 경동산업 노동자 분신사건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철야농성 전개  
『한겨레신문』 제424호(1989. 09. 28, 한겨레신문사)

09. 28

- 부평1동성당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창립.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결합한 전국참교육학부모회와 동시에 창립. 학부모회는 열악한 교육환경, 존치문제 등 교육비리와 출세지향적인 입시경쟁 교육을 비판하며 교육의 본질을 파헤침. 소식지로 『인천 학부모』 발행

송정로, 『인천시민사회운동 20년사』

09. 30

- 노동자대학, 부평5동 376-6 소재 옛 신립섬유 자리에 마련한 대학 건물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 거행. 이 날 행사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교장으로 위촉하고 염낙빈 삼원플라스틱 노조부위원장을 학생자치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임



〈노동자대학 개관식〉

〈노동자대학 자문위원·지도위원 명단〉

| 자문위원 |           | 지도위원 |                |
|------|-----------|------|----------------|
| 이름   | 약력        | 이름   | 약력             |
| 백기완  | 통일문제연구소장  | 김문수  | 노동운동가          |
| 문익환  | 전민련 고문    | 윤대원  | 구로역사연구소연구원     |
| 권처홍  | 민가협 공동의장  | 황주석  | 박종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 서준식  | 민가협 공동의장  | 임홍배  | 노동문학사 편집위원     |
| 이호웅  | 인민련 의장    | 조정환  | 문학평론가          |
| 김경호  | 전민련 포항지부장 | -    |                |

『노동자대학』 4호(1989. 09. 26, 노동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M00078592)

『노동자대학』 5호(1989. 10. 15, 노동자대학, M00078593)

『한겨레신문』 제427호(1989. 10. 01, 한겨레신문사)

10. \*

- 인천노동자문학회, 가톨릭 노동사목 독서목임에서 제1기 문예교실 개최

1989년

『인천근현대 문화예술사연구』(2009,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 편찬위원회 엮음,  
인천문화재단)

10. 04

- 경동산업 노동자 강현중·김종하 등 2명의 영결식이 주안5공단 운동장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참가자들은 이후 경동산업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노제를 진행함

『한겨레신문』 제430호(1989. 10. 05, 한겨레신문사)

10. 05

- 인하대학교 운동장에서 8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교육실현을 위한 정태춘 전국순회 무료공연」 개최.

『인노협신문』 제17호(1989. 10. 11,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10. 06

- 삼우공업사·협우실업·세경의류 노동조합, 「위장폐업분쇄 및 노동악법철폐 결의대회」 개최

『인노협신문』 제17호(1989. 10. 11,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10. 12

- 중앙대학교 학생 20여 명, 간석동 소재 안기부 인천분실(일명 인하공사) 정문 입구에서 화염병 20여 개를 던지며 기습시위 전개. 이들은 건물 담에 '이내창 살해한 안기부 해체'라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쓰고 '의혈 중앙대 애국결사단'이란 명의의 유인물을 배포한 뒤 인천시청 방향으로 달아남

『한겨레신문』 제437호(1989. 10. 13, 한겨레신문사)

10. 15

- 노동자대학, 부평동 소재 노동자대학 건물 3층에서 「노동자대학 합법성 쟁취 결의대회」 개최. 참가자들이 결의대회를 마치고 도로를 따라 부평역으로 거리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45명이 경찰에 연행당한 후 10월 17일 전원 석방됨. 그중 10여 명은 신원진술과 지문채취를 끝까지 거부

「노동자대학 투쟁사례 보고집」(1989. 10. 19, 노동자대학, M00094360)

『한겨레신문』 제440호(1989. 10. 17, 한겨레신문사)

10. 16

-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관하는 교구순회기도회의 다섯 번째 모임인 「이 땅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답동성당에서 개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문정현 신부가 특별강론을 진행함. 이날 기도회에서 '구속사제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천주교 인천



교구 공동대책위원회'가 '민족공동체로의 출애굽여정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십자가를 든 사제단을 선두로 참석자 전원이 촛불 거리행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진행하지 못함

『인천주보』 제999호(1989. 10. 15,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1000호(1989. 10. 22, 천주교 인천교구)

『한겨레신문』 제445호(1989. 10. 22, 한겨레신문사)

- 노동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자체 입수한 「노동자대학 설립관련 동향」이라는 문건을 공개하고 경찰·교육청·관할구청 등 관계기관이 조직적으로 노동자대학 설립 인가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한겨레신문』 제440호(1989. 10. 17, 한겨레신문사)

#### 10. 18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중앙상임집행위원장 오동렬 등 핵심 조직원 15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경인일보』 제9098호(1989. 10. 19, 경인일보사)

『조선일보』 제21090호(1989. 10. 19, 조선일보사)

『한겨레신문』 제441호(1989. 10. 18,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부평1동 성당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병호 의장 강연회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10. 19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소속 최병국(조직1국 현장지도책)·이현영(조직2국 현장지도책) 등 2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조선일보』 제21091호(1989. 10. 20, 조선일보사)

『한겨레신문』 제443호(1989. 10. 20, 한겨레신문사)

-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인민노련 사건'과 관련해 치안본부가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를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하부조직으로 발표한 데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 발표. 10월 21일에는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박종렬 목사, 임직원 일동' 명의로 '치안본부의 인노련 탄압행위와 인천민교연에 대한 왜곡발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한겨레신문』에 게재함

「인민노련 탄압과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를 음해하는 치안본부 발표에 항의하며」(1989. 10. 19,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M00525342)

『한겨레신문』 제444호(1989. 10. 21, 한겨레신문사)

#### 10. 22

1989년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백석 하늘의 문 묘원에서 전국JOC지도 황상근 신부의 미사집전으로 「고 강석태 형제 1주기 추모미사」 진행.

『인천주보』 제999호(1989. 10. 15, 천주교 인천교구)

#### 10. 24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답동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제7기 민중대학」 개강. 12월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진행

#### 〈강의 구성〉

| 날짜     | 강의내용                   | 강사          |
|--------|------------------------|-------------|
| 10. 24 | 개강식(대동놀이), 만남의 시간      |             |
| 10. 26 | 해방 이후부터 6공화국까지         | 김무용         |
| 10. 31 | 공안정국과 보수대연합 그 본질과 향후전망 | 장을병         |
| 11. 02 | 민주언론을 향한 기수 언론노조       | 권영길         |
| 11. 07 | 작가와의 만남                | 도종환         |
| 11. 09 | 경제위기설과 토지공개념           | 서경석         |
| 11. 14 | 외자기업과 노동운동 탄압          | 강상호         |
| 11. 16 |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촌경제의 파탄     | 이우재         |
| 11. 21 | 공업정책의 폐해와 환경오염         | 최 열         |
| 11. 23 | UIP식배와 민족영화            | 이효인         |
| 11. 28 | 빈민생존권과 재개발             | 신명호         |
| 11. 30 | 간헐 사회, 간헐 인간           | 서준식         |
| 12. 05 | 참교육과 전교조(좌담회)          | 전교조<br>인천지부 |
| 12. 07 |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종교인의 사명   | 박창신         |
| 12. 12 | 남녀고용평등법과 성차별의식         | 지은희         |
| 12. 14 |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 김낙중         |
| 12. 15 | 노래공연, 나눔의 시간           |             |

『인천주보』 제999호(1989. 10. 15,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민주시민공동회 부설 민중학교에 대해 남부교육청이 사설강습소법 위반을 이유로 사무실에 폐쇄공고문을 게시하고 폐쇄조치함

『한겨레신문』 제447호(1989. 10. 25, 한겨레신문사)

#### 10. 25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여성국, 「인천지역 여성부장 교육」 진행  
「인천지역 여성부장 교육」(1989. 10. 25,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여성국,

M00847314)

『인천여성노동자』 준비호(1989. 11. 15,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7946)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가톨릭회관 504호에서 「공안정국의 의미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월례 청년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1000호(1989. 10. 22,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학교에서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문화대찬치」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10. 28

- 인천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노조간부의 노조활동 보장, 월차 휴가 실시' 등을 요구하며 인천시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

『한겨레신문』 제451호(1989. 10. 29, 한겨레신문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 18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참교육을 위한 국민걷기 대회」가 인천지역에서는 답동성당~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코스로 하여 진행됨

『한겨레신문』 제448호(1989. 10. 26,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451호(1989. 10. 29, 한겨레신문사)

## 10. 29

- 협신사 노동조합 조합원 이재호, 주안5동 성당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 서 상담을 마친 뒤 인근 강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0시 40분경 주안4동 419 태양주차장 앞길에서 둔기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됨.

『한겨레신문』 제452호(1989. 10. 31, 한겨레신문사)

### 이재호 약력

1964년 전북 부안 출생. 중학교 졸업 후 표구기술을 배워 1988년 1월경 인천에 있는 협신사에 입사. 성격은 내성적이고 온순한 편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은 원만하다는 평을 받음.

1989년 2월 말 노동조합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함. 1989년 2월 27일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연월차 및 생리휴가 실시, 노동조합 인정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5일간의 파업에 돌입. 협신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미약했으나, 이재호

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을 노동조합을 통해 개선시키고자 ‘평화의 집’과 ‘인천민주청년회’에서 노동법 관련 교육과 토론 및 외부의 집회에 연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가짐.

1989년 10월 28일,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내일을 위한 집’에서 교육 및 상담을 받고, 주안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말없이 술집을 나간 뒤, 새벽 주안4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둔기로 턱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당시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여 미제사건으로 종결처리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재호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평화의집’과 ‘민청’에서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으며, 1989년 2월 27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는데 회사측의 불법·폭력적인 탄압으로 노동조합이 와해되자 민주노조 재건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음. 당시 경찰은 노동조합 재건위 관계자를 연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하였으며, 현장보존이나 당시에 수거한 피문은 점퍼, 현장의 혈흔, 보도블록 조각 등에 대한 감식이나 혈흔감정 등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문은 점퍼를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을 만든다는 이유로 세탁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인 검거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음을 밝힘

「민주노총 열사추모 홈페이지」(<http://yolsa.nodong.org>)

## 11. \*

- 인천여성노동자회, 『일하는 여성의 사랑과 투쟁 -노동자의 결혼관을 갖자』라는 제목의 미혼여성들을 위한 교재 발간

『일하는 여성의 사랑과 투쟁』(1989. 11.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575838)

## 11. 01

- 용현동 성당에서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공동의장 서준식을 초청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준식 선생 초청강연회」 개최

『인천주보』 제1001호(1989. 10. 29, 천주교 인천교구)

## 11. 04

-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노동자대학에서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창립 1주년 기념 놀이패 한두레 초청공연」 개최

『노동굿 일터의 함성』(1989. 11. 04,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M00408818)

원점: 경찰 제작전단

## 사람을 찾습니다



- 인적사항

주거: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 4동 421 -16

협신사 공원 이 재 호 25세(64. 5. 6)

- 위 사람은 1989. 10. 29. 00:40 분경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 4동 태양주차장 앞 (토지회관 20m 옆)에서 싸우다 사망하였는바 당일 귀업소에서 위 자를 보았거나 다투다가 현장에서 싸우고 도망하는 것을 본사람은 아래 장소로 연락 바랍니다.

(제보하시는 분은 후사 하겠습니까. )

- 연락처

인천 동부경찰서 형사계 73 : 0330

주안 4 파출소 424 : 0113

### 인천 동부경찰서 장

〈협신사 노동조합 조합원 이재호 피살사건 관련 전단〉

「협신사 노조재건 관련 이재호 피살사건 경위보고」(1989. 11. 01, 이재호 피살사건  
진상규명 준비위원회, M00406632)

11. 08

- 인천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45명, 이날 각 조합에 월차휴가 원을 제출한 뒤 11월 9일 단체휴가에 들어가기로 함.

『한겨레신문』 제460호(1989. 11. 09,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안영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됨

『동아일보』 제20956호(1989. 11. 09, 동아일보사)

- 인천대학교 학생 박영태·정수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청년구국 결사대’에 참가해 서울 가락동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단행

『한겨레신문』 제460호(1989. 11. 09, 한겨레신문사)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 I), 201·227쪽(200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1. 10

- 인천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성진 등 시국관련 사범 60여 명, ‘5공비리 척결 및 광주학살주범 처단, 추곡 전량수매’ 등 4개 항을 요구하며 11월 13일까지 4일간의 시한부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462호(1989. 11. 11, 한겨레신문사)

11. 11

-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노협 결성을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어 서울대학교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었으며, 이날 동국대학교로 들어가려던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최동식 의장이 경찰에 연행됨

『인천여성노동자』 준비호(1989. 11. 15,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7946)

11. 14

- 노동자대학, ‘친일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첫 교양강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미리 들어와 있던 40여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가 진행됨. 노동자대학은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음

## 〈강의 일정〉

| 날짜     | 강의 제목                  | 강사  |
|--------|------------------------|-----|
| 11. 14 | 친일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윤대원 |
| 11. 21 | 박노해와 노동자계급의 문학         | 김사인 |
| 11. 28 |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세력화         | 백기완 |

『한겨레신문』 제461호(1989. 11. 10,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465호(1989. 11. 15,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산하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 50여 명과 남일금속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 최동식 의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부평경찰서 앞에서 연좌농성 전개. 이후 부평시장 앞까지 거리행진을 한 뒤 해산함. 남일금속 노동조합 조합원 500여 명은 이에 앞서 회사 내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부평경찰서까지 행진하던 중 갈산초등학교 앞에서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에 밀려 해산함

『한겨레신문』 제465호(1989. 11. 15, 한겨레신문사)

**11. 15**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소속 조합원들, 11월 11일 연행된 최동식 의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서운동, 효성동, 작전동 인터체인지 일대에서 시위

『인노협신문』 호외(1989. 11. 16,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11. 16**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산하 40여 개 노동조합 조합원 7000여 명, 최동식 의장의 구속에 항의하며 파업 전개. 이날 오후 부평역 앞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인노협 최동식 의장 구출 및 전노협 건설 탄압분쇄결의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노동자 3000여 명은 주안역, 작전동 JC공원 등 부평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 108명이 연행됨

『한겨레신문』 제467호(1989. 11. 17, 한겨레신문사)

- 전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파업자위대 제4지구대장 겸 대흥기계 임금투쟁 파업자위대장 ○○○, 서울 여의도 평민당사에서 양심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대흥기계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 회사 및 부평경찰서, 안기, 노동부 등의 정보원으로 일해왔다’고 밝힘

『한겨레신문』 제467호(1989. 11. 17, 한겨레신문사)

## 양심 선언문

저는 63년 5월 7일 인천에서 출생하여 운산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부천 대흥기계에 입사하여 조합 활동을 전개하다가 회사 및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노조탄압을 위한 프락치 활동을 임명받고 국가권력과 가진 자들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던 전 대흥기계 쟁의부 차장이자 인노협 제4지구파업대장이었던 ○○○입니다. 회사 측 활동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구속수감중인 위원장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게 되었고 노조활동 일일 기록이 작성되어 노조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명확히 저로 인해서 와해공작이 진행되었고 경찰관계에 있어서는 협우실업 노조사무장, 교육부장, 문화부장 등 연대활동에 앞장 선 노조간부의 구속을 도왔고 인노협의 모든 집회활동과 인노협 조직봉기를 도왔습니다.

안기부를 통해서는 전 ○○○ 대흥기계 위원장이며, 인노협 상황실장 구속을 구체적으로 도왔고 그로 인해 현재 구속 수감중이며 노동부를 통해서는 인노협 간사들의 활동보고 및 타사업장 방문 후 노조핵심인원을 포섭 후 파업타결을 촉구하고 협우실업 핵심 노조인원을 구속시키는 증거를 진술 및 와해 작전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통해 프락치활동을 하게된 근본적 동기는 본인의 허영심과 영웅심을 부추켜 세우면서 금품을 제공하고 전 ○○○ 위원장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세우면서 ○○○ 학생출신의 노동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케 되어 본인을 위원장을 시켜주겠다는 회사 측의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활동이 점차 증가되어 부평경찰서와 노동부와 안기부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정부가 누출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과소비 현상과 영웅심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 이 땅을 사랑하시는 애국애족민중형제자매여러분,

이 독재권력에 맞서 민주화를 갈망하고 염원하시며 피흘린 열사형제여러분,

본인이 행한 행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인의 죄를 글로써나마 사죄를 바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인의 행한 행위에서도 나타나듯이 저 간악한 무리들이 어제의 동지를 적으로 매도하는 작업을 보



십시오. 이 땅을 사랑하시는 민중형제 동지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전노협을 꼭 결성하여 저 간악한 무리들이 어제의 동지를 오늘의 적으로 오판되는 행위를 단호하게 일천만 노동자의 단합된 힘으로 푹뭉쳐 깨뜨려 나갑시다.

인노협 형제동지여러분, 본인의 저질러온 행위의 과오로 얼마나 무고한 형제동지 여러분이 정의를 보고 정의라 얘기 못하고 불의를 보고 정의라 얘기하는 동지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 정의를 정의라 외치고 불의와 타협하는 동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신 동지가 있으면 제가 행한 행위의 사함을 보시고 껍데기를 벗고서 진실한 노동자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일천만 노동형제들의 찢기는 가슴에 피울음을 생각하시어 누구를 위한 노동자인가 깊이 사려깊게 생각하시어 전노협결성의 초석이 되어 쇠사슬에 묶인 촛불처럼 자기를 태워 민주화를 위해 피흘린 열사 형제들의 메아리없는 외침을 들으소서.

대흥기계동지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이 산하에 있는 소나무를 벗을 삼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바닷물을 찢을 삼아 쓴들 무슨 위안이 되시겠습니까. 동지 형제자매여러분 제가 왜 펜을 들어야 했던 이유는 이것이 본인이 산화해가서 사라진다면 본인은 민주화를 위해 애쓴 형제동지여러분 곁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분하고 원통함이 죽음의 계기를 삼았으나 본인이 말없이 갔을 때 저들의 □□ 노동자들의 탄압을 □□□ 가열차게 전개되어 무고하게 피흘리는 민중형제가 □□□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한 행위가 공개되었을 시 저 간악한 무리들과 독재정권은 저에 대해 무수한 육체적 탄압을 가해온대도 다시는 정의를 불의로 생각지 않을 것이며 불의를 정의라 하지않고 끝까지 외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들의 탄압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탄압을 가해 이 사실이 반복왜곡되더라도 원인이 있었기에 결과가 있는 사실처럼 알아 주셨으면 이 한몸 세인의 세계에서 떨어진대도 진실과 역사는 흐르게 돼 있는 자연의 순리처럼 제2의 세대가 태어났을 때 평등의 세상에 민주화를 마음껏 느끼며 노동자가 존중되는 세상을 건설하여 너와 내가 함께 부둥켜 안으며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해방의 노래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되는 그날을 위해 오늘의 현실이 동지 여러분께 괴롭다 하더라도 내일을 창조하는 노동자의 창조정신으로 전노협건설에 초석이 됩시다.

1989. 11. 16 ○○○

내사랑 한반도여 민주노조 물결쳐라!

「민주노조운동 프락치활동 양심선언」(1989. 11. \*, M00412070)

**11. 17**

-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산하 전국 12개 지역노동조합 협의회 소속 230여 개 노동조합, 각 단위 사업장별로 작업을 거부하고 정부가 11월 12일 보라매공원 노동자대회를 원천봉쇄한 데 대해 항의하는 임시총회 개최.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소속 조합원 600여 명은 총회를 마친 후 인하대학교에서 「노동운동탄압 분쇄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하대학교 정문을 나와 가두 시위 전개

『한겨레신문』 제468호(1989. 11. 18, 한겨레신문사)

**11. 21**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소속 간부 50여 명, 최동식 의장의 석방과 대흥기계 전 노동조합 간부 변태욱의 ‘프락치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1월 24일까지 시한부 밤샘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471호(1989. 11. 22, 한겨레신문사)

**11. 22**

- 인천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의장 안영환(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석방됨

『한겨레신문』 제472호(1989. 11. 23, 한겨레신문사)

**11. 24**

- 세기자동차 노동자들,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28일째 농성을 벌여오던 중 회사에 투입된 경찰에 의해 시위용품을 압수 당함

『한겨레신문』 제474호(1989. 11. 25, 한겨레신문사)

**11. 25**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남부지부, 창립총회 개최. 사무실은 송의동 120-17(3층)에 위치

『인사연사람들』 제2호(1990. 07.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남부지부, M00412783)

**11. 26**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대흥기계 노동조합 전 파업대장 ○○○의 프락치 활동 양심선언과 관련하여 '프락치 공작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구성  
『한겨레신문』 제472호(1989. 11. 26, 한겨레신문사)

**11. 28**

- 노동자대학 집행위원 박재영, 이날 백기완을 초청해 개최할 예정이던 노동자대학 교양강좌를 원천봉쇄한 데 대해 부평경찰서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소  
『한겨레신문』 제480호(1989. 12. 08,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485호(1989. 12. 02, 한겨레신문사)

**11. 29**

- 인천지역 진보정당 준비모임 결성. 운영회의 의장에 이호웅, 부의장 박귀현, 집행위원장 송경평, 총무국장 안영근, 기획국장 김종용 등을 선임  
『한겨레신문』 제478호(1989. 11. 30, 한겨레신문사)

**11. 30**

- 인천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합원 77명, 남구 의료보험조합 4층 전산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됨. 그중 사무국장 오성수 등 4명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됨  
『한겨레신문』 제479호(1989. 12. 01,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12월 1일까지 「제1차 지도자교육」 실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12. \***

- 인천여성노동자회, 월간지 『인천여성노동자』 창간  
『인천여성노동자』 창간호(1989. 12.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82)

**12. 02**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등 6개 단체, 만수동 성당에서 「최동식 의장 석방과 프락치공작 규탄 및 민주운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481호(1989. 12. 03, 한겨레신문사)

**12. 09**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대학교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다지' 공연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12. 10**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노동조합별로 총회를 열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89년

건설 기금 모금 사업 시작

『전국노동자신문』 창간호(1989. 12. 20,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 제일감리교회에서 334명의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조직이 대탄압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공식 선언

『전국노동자신문』 창간호(1989. 12. 20,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한겨레신문』 제492호(1989. 12. 16, 한겨레신문사)

## 12. 13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부평3동 성당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노협 건설을 위한 백기완 선생 강연회」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12. 14

- 인천조선 노동조합, ‘휴무기간 임금지급, 김장보너스 지급’ 등 7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해 70.2%의 찬성을 얻어 파업 결의

『한겨레신문』 제491호(1989. 12. 15, 한겨레신문사)

## 12. 15

- 인천대공장풍물패 협의회 준비위원회, 인문연 부평지부에서 개최된 「대공장 풍물패 송년의 밤」에 100여 명의 풍물패 회원들이 모여 발족

「대공장풍물패협의회 준비위원회 제1차 정기연습」(1990. 02. 11, 대공장풍물패협의회 준비위원회,

- 인천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인권위원회, 송림동 동인교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41돌 기념 연합예배」 행사 중, 1984년 구속돼 복역 중인 인천 창영교회 이창국 장로가 고문수사에 의해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

『한겨레신문』 제491호(1989. 12. 15, 한겨레신문사)

## 12. 18

- 인천·부천지역 대학생 100여 명, 오후 4시경부터 10분 동안 인현동 대한서림 앞부터 용동고개까지 도로를 점거하고 ‘광주학살주범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전개. 오후 6시경에는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소신여객 앞에서 ‘인천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명의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

『한겨레신문』 제494호(1989. 12. 19, 한겨레신문사)

## 12. 20

-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위원장 김미령 · 사무장 노명희 · 홍보부장 박수현 · 대의원 조승분 등 4명 해고 당함.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은 최동식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의 구속에 항의해 11월 16일 파업을 전개하였는데 이에 대해 회사 측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해 월급을 지급하자 2시간 작업 거부를 한 바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조치가 내려짐.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은 12월 21일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며 해고 노동자들은 출근투쟁을 이어감

『전국노동자신문』 제2호(1990. 01. 05,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 대우자동차 르망승용차 생산부 노동자 1000여 명, 연말 상여금 1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

『한겨레신문』 제497호(1989. 12. 22, 한겨레신문사)

## 12. 25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회원 권우철 · 노희찬 등 2명이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되고,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소속 차명진이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됨. 경찰은 이들이 10월 18일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간부 17명이 구속되자 조직을 재건할 목적으로 활동을 벌여왔다고 발표

『한겨레신문』 제500호(1989. 12. 26,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노동자그룹 사건’ 발생.

『한겨레신문』 제499호(1989. 12. 24, 한겨레신문사)

## 12. 27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답동 가톨릭회관 2층에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고 입주식 거행.

『인천주보』 제1011호(1989. 12. 31, 천주교 인천교구)

## 12. 29

- 한일스텐레스 노동자 105명(생산직 63, 사무직 42), 경영난을 이유로 집단 해고 당함

『경향신문』 제13627호(1990. 01. 08, 경향신문사)



1990년대

1990 ~ 1995





# 1990년

## 01.\*

- 인천노동자문화회 추진위원회 결성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 편찬위원회 엮음, 『인천근현대 문화예술사연구』(2009, 인천문화재단)

## 01. 05

- 명신여자고등학교 명신교사협의회 회원 최미희·이원주 교사, 생활기록부 관리 건으로 해임 당함

「명신여고 교사탄압 보고서」(1990. \*. \*, M00412697)

- 대한마이크로전자 노조대의원 전옥분 등 54명, 회사 정문 앞에서 '무노동 무임금 철폐' 등을 요구하며 '출근 투쟁'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됨. 경찰은 회사 측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전 노조위원장 김미령 등 9명을 찾기 위해 이들에 대한 연행을 단행함

『조선일보』(1990. 01. 06, 조선일보사)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간사이자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의장인 곽한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연행, 구속됨

『인천주보』 제1013호(1990. 01. 14, 천주교 인천교구)

## 01. 06

-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월 5일 구속된 의장 곽한왕의 석방을 요구하며 1월 9일까지 답동 가톨릭회관 312호에서 철야농성 전개

『인천주보』 제1013호(1990. 01. 14, 천주교 인천교구)

## 01. 07

- 명성전자 노동조합 문화부장, 경찰에 연행됨

「명성전자 “민주노조 사수의 날” 노래극 대본」(1990. \*. \*, [명성전자 노동조합])

## 01. 10

- 한일스텐레스 해고노동자 23명, 회사에서 107명이 해고를 당한 데 항의하며 부평역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됨

『전국노동자신문』 제3호(1990. 01. 1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01. 11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최동식 의장, 1989년 11월 12일 동국대학교에서 연행되어 구속된 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됨

『전국노동자신문』 제3호(1990. 01. 1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 명성전자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자(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처장) 등 2명, 구속됨. 임상희 명성전자 노동조합 문화부장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됨

「명성전자 “민주노조 사수의 날” 노래극 대본」(1990. \*. \*, [명성전자 노동조합])

『인천여성노동자』 제2호(1990. 02.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86)

『전국노동자신문』 제3호(1990. 01. 1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01. 14

-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용현동 성당에서 「박종철 3주기 추모식 및 객한왕 의장 석방 촉구대회」 개최.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회원과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등 500여 명 참석. 헌화 의식과 함께 노래패 ‘열린소리’의 추모공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무처장 최한배의 강연 등이 이어짐. 이날 6개 단체 공동명의로 ‘기만적 5공청산 노태우정권 퇴진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인천주보』 제1014호(1990. 01. 21, 천주교 인천교구)

- 해인교회 노동청(장)년회 · 새봄교회 노동청년회 · 백마교회 청년회 · 새벽교회 청년회 · 샘터교회 청년회 · 사랑방교회 노동청년회 공동 주최로 「인천지역 노동청(장)년회 간부 연합교육 시작

| 월일     | 제목                                           | 강사                   |
|--------|----------------------------------------------|----------------------|
| 01. 14 | 일하는 자의 성서연구                                  | 이원돈 목사<br>(부천 새봄교회)  |
| 01. 21 | 노동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간부의 역할과 자세                     | 신민영<br>(백마교회 청년회 총무) |
| 02. 04 | 기독교 노동운동의 발자취<br>(기독교 노동운동사)                 | 송규의<br>(인천산업선교회)     |
| 02. 11 | 기독교 노동운동이 나아가야할 길(기독교 노동운동 이론)               | 안태용<br>(새봄교회)        |
| 02. 18 | 기독교노동자 연대운동의 필요성과 발전<br>방향에 대한 제언 -정책토론 형식으로 | 토론                   |

「인천지역 노동청(장)년회 간부 연합교육」(1990. 01. 14, 해인교회 노동청(장)년회 · 새봄교회 노동청년회 · 백마교회 청년회 · 새벽교회 청년회 · 샘터교회 청년회 · 사랑방교회 노동청년회, M00443538)

## 01. 15

- 인천지역 8개 노동운동단체가 모여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 결성.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 소속 3개 단체, 인천기독교 민중교육 연구소, 새날상담소, 노동자대학,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진보적 대중정당 결성을 위한 인천지역 준비모임 조직2국(노동국) 등 참가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 모임-결성 보고서」(1990. 01. 17,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 M00330284)
-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 모임” 1차 활동 보고서」(1990. 02. 15,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 M00403538)

###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의 결성을 알리며

지난 1월 15일, 인천지역에서 그간 노동운동을 해온 8개 노동운동단체가 모여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합법정치전술의 구사를 위해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을 결성했습니다.

1. 강화되는 보수대연합, 강화되는 노동운동탄압 - 노동자의 이해는 누가 대변할 것인가?

전노협 결성을 앞두고 노동자에 대한 노태우 파쇼정권의 탄압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설을 유포시켜 노동자가 경제위기의 주범인양 몰아붙이며, 전노협을 마치 불순단체인양 선전하고 전노협 건설 지도부 전원을 지명수배, 구속하는 한편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내세워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박탈하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까지 내세워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합헌적이라고 떠들어댁니다.

그러나, 합법적 정치의 영역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세력이 없습니다.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등 보수야당들은 전 국민의 분노의 대상인 5공비리와 광주학살마저 노태우 파쇼정권과 찢고 한판의 사기극으로 얼렁뚱땅 넘겨버리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보수대연합 구도의 정계개편을 통해, 부르쥬아 착취,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수대연합의

강화 그것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의 강화입니다.

2.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합법정치의 영역으로 진출하여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88년 11월 13일 연세대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졌던 6만여 노동형제들의 노동법개정투쟁을! 그때 우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외쳤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하라! 너희가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뜯어고치겠다”

그러나 6만여 노동자가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노동법 개정을 외쳐도 보수야당들은 노태우의 거부권 행사에 반항다운 반항 한 번 못해보고 노동자의 염원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때의 선언을 실천할 때입니다. 더 이상 보수야당들에게 우리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보수야당들은 그나마 노동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보다는 노태우와 야합하는 편으로 노골적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현실 정치의 방관자나 순수한 비판자로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보수야당들이 노동자의 이해를 외면한다면 우리가 직접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투쟁은 공장과 거리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본가의 이해만을 대변해 온 의회에서조차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도록 해야 하며, 노동자가 직접 정치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3. 전노협 사수를 위해서도 우리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은 필요합니다.

90년 1월 22일 우리 노동자들은 6·25이후 처음으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인 ‘전노협’을 결성합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적 차원에서만 대응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권력과 이데올로기를 이용, 전면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의 대응도 전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동자들도 더욱 적극적인 합법정치전술을 구사하고, 더욱 적극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내에서만 아

나라 곧 다가올 지방자치제 선거의 유세장에서 그리고 지방의회의 연단에 서! 전민중을 향하여! 전노협 건설이! 우리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중전체의 이익과 무슨 관계를 갖는지를 당당하고! 정력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4. 노동자모임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노동자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자의 사상이 합법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사상에 입각한 노동자정당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 투쟁의 성과로 민중권력의 사상에 입각한 합법정당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그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의 성격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명확한 자기 임무로 하고 있다고 확정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확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전체적으로 공감되기 전까지는 '노동자모임'은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과는 독자적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 5. '노동자모임'을 전국적으로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한 노동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진출과 독자적 정치세력화란 막연한 앞날의 과제로만 미루어둘 수 없는 중요하고 긴박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정치적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합법정당사업 속에서 민중성을 강화하고 민중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우리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천지역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노동자

1990년

들은 전국적 차원에서 합법정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국의 단일 대오를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전국 각 지역의 노동자들과 노동운동단체들에게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을 전국적으로 조직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아울러, 민중해방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전국의 농민, 빈민 등 근로대중 여러분들과 민주운동단체들에게도 ‘합법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부문별 ‘모임’을 전국적으로 조직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1990. 1. 17

####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 모임-결성 보고서」(1990. 01. 17, 합법정치활동을 위한 노동자모임, M00330284)

#### 01. 16

- 명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200여 명, 구속자 석방 및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 돌입.

「명성전자 “민주노조 사수의 날” 노래극 대본」(1990. \*. \*, [명성전자 노동조합])

#### 01. 17

- 명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200여 명, 1월 16일부터 구속자 석방 및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진행 중 이날 새벽 구사대의 습격을 받아 폭행을 당하고, 집행부 전원이 경찰에 연행됨. 이 과정에서 사무장 구속

「명성전자 “민주노조 사수의 날” 노래극 대본」(1990. \*. \*, [명성전자 노동조합])

『인천여성노동자』 제2호(1990. 02.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86)

- 대한마이크로전자 정문 앞 길에서 ‘무노동 무임금 철폐’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최태석 등 명성전자 및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자 65명이 경찰에 연행됨

『경향신문』 제13634호(1990. 01. 17, 경향신문사)

#### 01. 18

- 명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성 전개

「명성전자 “민주노조 사수의 날” 노래극 대본」(1990. \*. \*, [명성전자 노동조합])

01. 21

- 가톨릭문화운동공동체, 가톨릭회관 312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 초대 회장에 오미영 선출

『인천주보』 제1015호(1990. 01. 28, 천주교 인천교구)

01. 22

- 명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 '진보정당 인천준비모임'에서 농성  
「명성전자 “민주노조 사수의 날” 노래극 대본」(1990. \*. \*, [명성전자 노동조합])

01. 23

- 명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 농성을 풀고 출근을 시도하였으나 33명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은 구사대에 의해 출근이 저지 당함.

「명성전자 “민주노조 사수의 날” 노래극 대본」(1990. \*. \*, [명성전자 노동조합])

『인천여성노동자』 제3호(1990. 03.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89)

02. \*

- 인천진료소연합 발족. 송림동 사랑방진료소, 송현동 산마루진료소, 효성동 백마진료소, 십정동 열우물진료소, 부천 새롭진료소 등 주민회와 연계 무료 진료활동을 벌이던 5개 진료소가 인천진료소연합 창립

「홍학기, 조옥화 전화면담」

02. 05

- 인천간호전문대학 학생회장 등 9명,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며 학생과장실에 들어가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3명이 구속됨

『경향신문』 제13649호(1990. 02. 05, 경향신문사)

02. 07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민주인천』 창간호 발간

『민주인천』 창간호(1990. 02. 07,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093853)

- 경찰의 노동자대학 원천 봉쇄에 항의, 학생 및 노동자들이 오후 8시 20분 경 부평동 진선미예식장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노동자대학 사수하여 사상 자유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횃불시위 전개

『경향신문』 제13652호(1990. 02. 08, 경향신문사)

02. 09

- 인천지역 10개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모여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 위원회(가칭) 결성을 위한 1차 위원장 모임」을 갖고 준비위원회 발족시킴

「노활추 소식」 창간호(1990. 09. 21,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9)

「노활추(가칭)의 취지와 사업방향」(1990. \*. \*, M00407022)

02. 11

- 대공장품물패협의회 준비위원회, 인천대학교 대강당에서 인천지역 10개 품물패를 대상으로 「제1차 정기연습」 개최. 참가한 품물패는 대우자동차 오토, 대우전자(주안) 한울, 대우전자(인천) 품물사랑회, 대우중공업 이십이, 삼익악기 땅울림, 영창악기 노울림, 인천제철 쇠돌이, 인천조선 지킴이, 진도 진풍, 한독시계 누렁소 등임

「대공장품물패협의회 준비위원회 제1차 정기연습」(1990. 02. 11, 대공장품물패협의회 준비위원회, M00400011)

02. 14

-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 인천지역 최초로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공식 탈퇴 선언

『경향신문』 제13658호(1990. 02. 15, 경향신문사)

02. 17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비밀리에 제2대 집행부 선거 실시. 지부장 신맹순, 부지부장 이청연 선출

『인천교육노동운동사』 1(1,303~304(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2006)

-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총무부장, 학교 측이 학생회의 등록금 동결 요구를 무시한 채 신입생 등록금을 인상한 데 반발해 동료 학생 30여 명과 함께 교무과에 들어가 서류함에 있던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및 합격통지서 등을 총학생회에 보관해 오다 이날 경찰에 구속됨

『경향신문』 제13660호(1990. 02. 17, 경향신문사)

02. 18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인하대학교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국의 결단인가, 장기집권 음모인가'라는 주제로 「보수 3당 합당에 대한 시국대토론회」 개최. 이해찬(평민당 의원), 이호웅(진보정당 인천준비모임 의장), 최동식(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02. 19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국민기만, 주권유린, 반민주야합 분쇄하여 민주사회 앞당기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민정·민주·공화 3당의 '반민주야합'을 비판함



「국민기반, 주권유린, 반민주야합 분쇄하여 민주사회 앞당기자」(1990. 02. 19,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 02. 20

- 인천지역 22개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모여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 위원회(가칭) 결성을 위한 2차 위원장 모임」을 개최  
「노활추(가칭)의 취지와 사업방향」(1990. \*. \*, M00407022)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민자당 장기집권 및 민중운동 탄압 분쇄 대회」 개최. 대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인하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이다 자진 해산함  
『인하대학신문』 제700호(1995. 02. 26, 인하대학신문사)

## 02. 21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소속 조합원 500여 명, 부평3동 성당에서 「90 인천지역 임금인상 투쟁본부 발대식」 개최  
『인천여성노동자』 제3호(1990. 03.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89)  
『전국노동자신문』 제6호(1990. 02. 28,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2. 22

- 인천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4층에서 「민자당 장기집권 및 민중운동 탄압 분쇄 대회」 개최.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성심여자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인천사랑학우회 소속 학생 3백여 명이 참가. 대회를 마친 후 인하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민주세력 총 단결로 장기집권 음모 분쇄하자’, ‘민중운동 탄압하는 반민주악법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임.  
『인하대학신문』 제700호(1995. 02. 26, 인하대학신문사)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주안1동 성당에서 「인천지역 부문·단체 비상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5월 투쟁평가와 이후 투쟁방향’ 등을 논의  
「인천지역 부문·단체 비상 대표자회의」(1991. 04. 24,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M00413078)

## 02. 23

- ‘진보정당 인천준비모임’, ‘백마장 입구’ 소재 사무실에서 「정치쿠데타, 3당야합에 맞선 민중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시사토론회」 개최. ‘진보정당 인천준비모임’ 의장 이호웅이 주제발표를 맡음

1990년

「정치쿠데타, 3당야합에 맞선 민중의 대응」(1990. 02. 23, 진보정당 인천준비모임, M00407336)

## 02. 25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인천대학교 체육관에서 「반민주 3당 야합 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인천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이날 대회가 축소돼 개최되자 오후 5시 무렵 석바위에 집결해 시위를 벌이다 15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됨

『인하대학신문』 제701호(1995. 03. 05, 인하대학신문사)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경향신문』 제13667호(1990. 02. 26, 경향신문사)

## 02. 26

- 명신여자고등학교 명신교사협의회 집행간부 강신오·안경수·연제열·임병구 등 교사 4명, 최미희·이원주 교사가 생활기록부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임당한 데 대해 항의하였다가 아무런 사유서도 제시받지 못한 채 학교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당함

「명신여고 교사탄압 보고서」(1990. \*. \*, M00412697)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소식」(1990. 03. 07, M00412671)

## 02. 27

- 인천지역 15개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모여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 위원회(가칭) 결성을 위한 3차 위원장 모임」을 개최

「노활추(가칭)의 취지와 사업방향」(1990. \*. \*, M00407022)

- 천주교 인천교구 민중대학 동창회, 답동 가톨릭회관 312호에서 신맹순 전 교조 인천지부장을 초청하여 「정계개편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 시사 강좌 개최

『인천주보』 제1018호(1990. 02. 18, 천주교 인천교구)

## 03. 02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석바위 일대에서 ‘장기집권을 위한 반민주야합 물리치자’라는 제목의 유인물 1000여 장을 배포하며 선전전 전개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 03. 03

- 목재 노동자회, ‘임금인상투쟁 소식지’인 『목재노동자』 제1호 발간

『목재노동자』 제1호(1990. 03. 03, 목재 노동자회, M00400198)

- 가톨릭문화운동공동체, 답동 가톨릭회관 6층에서 「토요영화 감상회」 개최.  
극영화 '홍도화', 기록영화 '이제는 하나다 전노협' 등을 상영

『인천주보』 제1019호(1990. 02. 25, 천주교 인천교구)

### 03. 04

- 인천지역 여성노동자회, 부천지역 여성노동자회,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여성국, 인천지역 탁아위원회, 인천지역 주민회 여성위원회 등 8개 단체가 연대해 인천대학교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인천·부천지역 여성대동제」 개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인천·부천지역 여성대동제」(1990. 03. 04,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여성국 등 8개 단체, M00848227)

『민주여성』 제9호(1990. 05. 20, 한국여성단체연합)

### 03. 07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강연회 및 노조간부연석모임」이 주안5동 성당에서 코리아스파이서 박한주 위원장의 사회로 개최됨. 인천지역 노조위원장들의 공동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이날 모임은 전 서울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 김문수의 강연, 대우중공업 염성태 위원장의 기조발제 및 토론, 대림통상 이상목 위원장의 성명서 채택 등으로 진행됨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강연회 및 노조간부연석모임」(1990. 03. 07, M00407031)

### 03. 12

- 명신여고 교사 4명 직권면직 당함

『인천여성노동자』 제4호(1990. 04.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7001)

### 03. 14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2월 25일 전개된 석바위 시위 당시 민중연합 손명구가 폭행당한 데 대해 남부경찰서 앞에서 40여 명이 항의 시위 전개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 03. 15

- 노동자대학, 관계 기관에 의해 건물이 폐쇄됨. 이후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6월 12일 십정동 568-5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전

『속보』 제8호(1990. 07. 04, 노동자대학, M00078598)

## 1990년

- 명신여고 학생들, 전교생 수업거부농성 시작

『인천여성노동자』 제4호(1990. 04.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7001)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경인지부 인천분회’ 창립.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988년 4월 24일 ‘건강사회실현 약사협의회’로 창립하였다가 1990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로 명칭을 변경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경인지부 인천분회’는 창립 후 격주로 평균 12명 정도가 모임을 가지며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투약, 홀몸노인 건강 돌보기 등의 활동을 전개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경인지부 인천분회 조석현 회장 제공」

「건강사회실현 약사협의회 초청장」(1988. 04. 24, 건강사회실현 약사협의회, M00083438)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제2차 정기총회」(1992. 01. 19,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M00202967)

### 03. 17

- 인천지역공부방연합회 결성. 인천지역주민회 회원들과 십정동 해님방, 화수동 민들레어린이집, 송림동 사랑방어린이집, 청천동 햇살 어린이공부방, 만석동 기차길옆 공부방, 구월동 청솔의 집 등 인천, 부천지역 15개 공부방이 연합하여 결성. 소외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공동체를 형성함. 여기에는 빈민운동에 참여한 민중교회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많았음.

「강동주 제공」

### 03. 18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부천 성심여자대학교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인상투쟁대회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3. 19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교내에서 「등록금인상 저지 1차 결의대회」를 갖고 3월 23일까지 학교 당국과는 별도로 등록금 납부 창구를 자체 개설, 접수하기로 함

『동아일보』 제21066호(1990. 03. 20, 동아일보사)

### 03. 20

- 명신여고 교사·학생들, 학교 측이 6명의 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자 철야농성 돌입

『인천여성노동자』 제4호(1990. 04.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7001)

03. 21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일당독재 · 민중 탄압 민자당 분쇄를 위한 5만 청년학도 결의대회」 개최.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인하대학교 정문으로 나가 시위를 이어갔고 시위를 해산하던 경찰 병력이 학교 안까지 진입함

『인하대학신문』 제704호(1995. 03. 26, 인하대학신문사)

03. 22

- 한독금속 노동조합 김명기 위원장 · 양충기 홍보부장, 회사를 인수한 성남해중실업을 항의 방문해 공장 정상가동을 요구해 오던 중 성남경찰서에 연행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됨

『전국노동자신문』 제9호(1990. 04. 1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3. 23

- 명신여고 해직교사 4명, 평민당사에서 무기한 철야농성 시작

『인천여성노동자』 제4호(1990. 04.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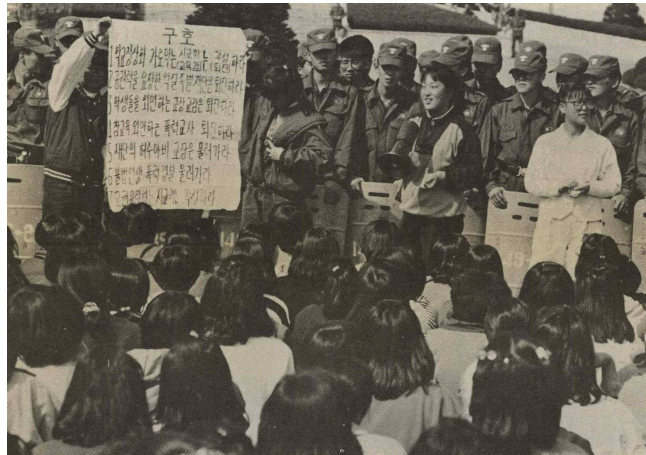
03. 24

- 노동자대학, 핵심간부가 구속되고 강의실이 폐쇄됨에 따라 인하대학교에서 개교식과 입학식을 갖고 첫 정기 강좌 시작

『한겨레신문』 제576호(1990. 03. 27, 한겨레신문사)

03. 26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400여 명, 휴업령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인천시교육위원회 앞에서 항의 농성 시작. 농성 학생들 중 일부가 인천시교육위원회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충돌하여 학생 5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 받음. 이후 3월 28일까지 매일 같은 장소에서 항의농성 전개



〈시교위 앞에서 농성중인 명신여고 학생들〉

『명신여고 투쟁속보』 제4호(1990. 03. 31, 명신여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M00865245)

『경향신문』 제13691호(1990. 03. 26, 경향신문사)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연합회, 효성동 성당에서 4월 18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청년노동자를 위한 공개 교양강좌」 운영

『인천주보』 제1022호(1990. 03. 18, 천주교 인천교구)

### 03. 28

- 인천대학교 학생 500여 명, 교내에서 「등록금투쟁 완전승리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 학생 40여 명은 총장실을 점거한 채 철야농성에 돌입

『한겨레신문』 제578호(1990. 03. 29, 한겨레신문사)

### 03. 29

- 「명신여고 교권유린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가 부평3동 성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샘터교회에서 개최됨. 학생·교사·학부모 등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명신여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승인을 받음

『인천여성노동자』 제4호(1990. 04.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7001)

### 03. 30

- 진정전자 노동조합, 공청회를 개최하여 '90임금 인상 요구안 1973원'을 확정하고 '회사 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조합원 총단결로 분쇄'하기로 결의  
「진정전자 노동조합정상화 투쟁보고서」(1991. 08. \*, 진정전자 노동조합, M00853190)

### 03. 31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부평시장과 부평역 등지에서 명신여고 지지성명서 및 ‘누가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앓아 갔습니까?’라는 제목의 주택문제 캠페인 유인물 등을 배포하며 가두 선전전 전개. 70여 명이 참여해 진행하다가 34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이날 밤 모두 혼방됨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 가톨릭시민공동체, 공해환경의 심각성 홍보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답동 가톨릭회관 304호에서 ‘파괴되는 자연 당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공해추방 한마당」 개최. 천주교 인천교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가 주관하고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공해추방운동연합이 후원함. 한국공해추방운동연합 최열의 강연과 함께 하루차집, 전시회, 공연 등을 진행

『인천주보』 제1021호(1990. 03. 11,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1025호(1990. 04. 08,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여성노동자회, 「제2차 정기총회」 개최

「인천여성노동자회 제2차 정기총회」(1990. 03. 31,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63631)

#### 04. \*

- ‘민자당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 인천국민연합’ 창립. 광주학살 5공비리 철저한 진상규명, 부동산 투기 근절, 독점재벌 특혜정책 철폐 등 8대 강령을 채택하고 김정택 목사를 공동의장으로 추대함. 인천본부에는 인노협, 전교조, 인대협, 민중당, 인천지역주민회, 노동자대학, 인천지역노동교육상담단체협의회, 기사연 등이 참여함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 보고서-인천』

#### 04. 01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부천에서 진행된 김대중 총재 시국강연에 참여해 홍보활동 및 성금 모금 활동 전개

『봄이 오는 교실』 제1호(1990. 04. 06,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발행, M00412283)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시민공동체, 4월 1일(주안1동 성당)과 4월 8일(부평1동 성당) 「공해자료 순회 전시회」 개최

『인천주보』 제1024호(1990. 04. 01, 천주교 인천교구)

#### 04. 02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 수습대책위원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1990년

농성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좌절됨

『봄이 오는 교실』 제1호(1990. 04. 06,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발행, M00412283)

#### 04. 03

- 인하대학교 교수 108명, 3월 16일 개최된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대학의 자주화·민주화에 역행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악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인하대학신문』 제706호(1990. 04. 09, 인하대학신문사)

『동아일보』 제21080호(1990. 04. 04, 동아일보사)

『한겨레신문』 제583호(1990. 04. 04, 한겨레신문사)

#### 04. 04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40여 명, 평민당사에 모여 농성

『봄이 오는 교실』 제1호(1990. 04. 06,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발행, M00412283)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민자당 분쇄 및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용현별 진군대회」 개최. 학생들은 대회를 마치고 ‘전민중의 총단결로 보수대연합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시위를 벌인 후 해산함

『인하대학신문』 제706호(1990. 04. 09, 인하대학신문사)

- 대한트랜스 노동조합,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단체협약 준수’, ‘위원장·부위원장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돌입

『전국노동자신문』 제9호(1990. 04. 1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4. 06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80여 명, 인천시교육위원회를 방문해 농성을 벌임

『봄이 오는 교실』 제1호(1990. 04. 06,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발행, M00412283)

- 명신여자고등학교 해직교사 강신오·안경수·연제열·이원주·임병구·최미희, ‘명신여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해직교사들의 호소문’ 발표

『인천교육노동운동사』 1, 205쪽(200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 대한트랜스 노동조합, 4월 4일부터 파업을 진행해 오던 중 경찰이 노조사무실로 진입해 위원장 등 5명이 연행되고 김은희 사무장이 구속됨

『전국노동자신문』 제9호(1990. 04. 1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4. 07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30여 명, 오전 7시 30분경 농성 시작. 임병구 교사



교문 앞에서 경찰에 연행됨

『봄이 오는 교실』 제2호(1990. 04. 12,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발행, M00413104)

- 가톨릭문화운동공동체, 가톨릭회관 6층에서 「토요영화 감상」 개최. 미국 부두노동자들의 권익수호투쟁을 다룬 「워터프론트」, 전교조 교사들의 삶을 다룬 「꽃들에게 희망을」 등을 상영

『인천주보』 제1024호(1990. 04. 01, 천주교 인천교구)

#### 04. 08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부평역에 집결한 후 평민당 중앙당사 방문

『봄이 오는 교실』 제2호(1990. 04. 12,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발행, M00413104)

- '민중의 정당 결성을 위한 인천지역 노동자 추진위원회'가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전국 최초로 창립대회를 개최함

『인하대학신문』 제706호(1990. 04. 09, 인하대학신문사)

『한겨레신문』 제588호(1990. 04. 10, 한겨레신문사)

- 이진희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4기 의장에 선출

『인하대학신문』 제707호(1990. 04. 30, 인하대학신문사)

#### 04. 09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1200여 명, 교무실, 서무실, 진학상담실, 교장실 등을 차례로 점거한 후 11시 30분경 해산

『봄이 오는 교실』 제2호(1990. 04. 12,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발행, M00413104)

#### 04. 10

- 인천대학교 · 인하대학교 · 경기대학교 · 성심여자대학교 · 아주대학교 등 경인지역 5개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전면 철회를 촉구

『한겨레신문』 제589호(1990. 04. 11, 한겨레신문사)

#### 04. 11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1300여 명이 농성을 벌임. 1명의 학생이 퇴학, 2명의 학생이 무기정학을 당함

『봄이 오는 교실』 제2호(1990. 04. 12,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발행, M00413104)

#### 04. 12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200여 명, 교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임  
『봄이 오는 교실』 제2호(1990. 04. 12,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발행, M00413104)
- 명신여자고등학교 고흥덕·김방식 교사가 구속되고 해직 교사 강신오·임병구 교사에게 사전 구속 영장 발부됨  
『봄이 오는 교실』 제3호(1990. 04. 23,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위원회 발행, M00412293)
- 치안본부 대공3부, 인천노동상담소 양재덕 소장 등 8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 성명  | 직위                | 성명  | 직위           |
|-----|-------------------|-----|--------------|
| 양재덕 | 인천노동상담소 소장        | 유해우 | 인천노동상담소 교육관장 |
| 양홍영 | 인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      | 이형진 | ‘일터’ 운영위원    |
| 이상목 | 인천노동상담소 교육부장      | 장일수 | 진도 노동자       |
| 조성범 | 인천노동상담소<br>조사연구부장 | 박용수 | 진도 해고노동자     |

『한겨레신문』 제591호(1990. 04. 13, 한겨레신문사)

04. 16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 교사들의 구속에 항의하여 수업을 거부한 후 귀가함. 이날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는 오후 7시부터 명신여자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인하대학교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신여고 교사·학생탄압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가 개최됨

『봄이 오는 교실』 제3호(1990. 04. 23,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위원회 발행, M00412293)

『인하대학신문』 제707호(1990. 04. 30, 인하대학신문사)

04. 17

- 현진섬유에서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4명의 노동자가 해고를 당함. 이들은 5월 7일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의 소’에 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고, 6월 2일 연장 수당, 연차 수당, 월차 수당에 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함. 현진섬유는 부개동에 위치한 봉제 업체로 실크 원피스를 생산

『미싱바늘』(1990. \*. \*, 현진섬유 해고자, M00858124)

「민주시민 노동 형제 여러분!」(1990. 08. \*, 현진섬유 부당해고 노동자 일동,  
M00858077)

#### 04. 18

- 명신여자고등학교 해직 교사들, 답동 가톨릭회관 512호실에서 농성 시작  
『봄이 오는 교실』 제3호(1990. 04. 23,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위원회 발행, M00412293)

#### 04. 19

- 명신여자고등학교 이희영·정남용·윤명순 학생이 무기정학 조치 당함  
『봄이 오는 교실』 제3호(1990. 04. 23,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위원회 발행, M00412293)

#### 04. 20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창립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며 발족  
「노활추 소식」 창간호(1990. 09. 21,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9)  
「인천지역노동조합활성화추진위원회 어떤 조직일까요?」(1990. \*.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50352)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조직 구성〉

| 직책      | 소속       | 이름  |
|---------|----------|-----|
| 의장      | 대우중공업    | 염성태 |
| 부의장     | 대림통상     | 이상목 |
|         | 한국분말야금   | 최상익 |
| 회계감사    | 이천전기     | 김성남 |
|         | (주)벽산    | 김동인 |
| 사무처장    | 코리아 스파이서 | 박한주 |
|         | 삼지실업     | 권은숙 |
| 조직·쟁의국장 | 한양공영     | 전용운 |
| 교육국장    | 한국화학장치   | 이길훈 |
| 홍보국장    | 한국크라운    | 강문철 |
| 문화국장    | 태연물산     | 한사준 |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참가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 | 대표자 | 노동조합 명   | 대표자 |
|--------|-----|----------|-----|
| 대림통상   | 이상목 | 이천전기     | 김성남 |
| 대신전기   | 김광천 | 코리아 스파이서 | 박한주 |
| 대우중공업  | 염성태 | 태연물산     | 한상준 |
| (주)벽산  | 김동인 | 한국분말야금   | 최상익 |
| 삼지실업   | 권은숙 | 한국크라운    | 강문철 |
| 서울경금속  | 김명중 | 한국화학장치   | 이길훈 |
| 승일제관   | 황인철 | 한양공영     | 전용운 |
| 우일정밀   | 엄재성 | -        |     |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노활추’)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제까지 우리 노동자들은 가진 자들로부터 그 얼마나 굴종과 침묵, 노예적인 삶을 강요당해 왔던가.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멀리 일제하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가깝게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끈끈하게 투쟁, 전진해 왔다.

이제 노동자들은 마침내 역사의 전면에 우뚝서게 되었으며, 이는 그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노활추는 이러한 선배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노동자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창립의 깃발을 높이 치켜 올렸다. 노활추에 동참한 우리들은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역사와 이 사회의 주인답게 천만 노동자와 전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단결·투쟁하지 못하고 단위사업장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점을 냉철히 돌이켜 반성하면서,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닌 비록 더디다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연대를,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그 어떠한 간섭과 회유,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자주적인 연대체로서의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활추는 다양한 일상적인 공동실천을 통해 참가 노동조합의 활성화, 노활추의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의에 입각,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사안과 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러한 실천 속에서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이익을 실현하며, 조합원들을 이 땅의 참주인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우리처럼 아직도 노동자로서의 역사적 임무와 역할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단위 사업장 내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 노동조합과 함께 나아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노활추는 결코 분파적이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자족적인 연대들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노활추는 노동조합 운동의 저변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천만 노동자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에 최선의 일조를 다해 나갈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 앞에는 역사의 대세를 거슬러 다시금 노동자의 손발에 억압과 착취의 족쇄를 채우려는 자본과 권력의 칼날이 번득이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작은 차이를 앞세워 갈라서는 것이 아닌, 작은 차이를 딛고 대동으로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 노동자의 새시대를 향해 어깨 걸고 함께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가진 자들의 그 어떠한 탄압과 분열의 책동에도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노동자의 전국적인 단일대오를 건설하고, 노동해방의 새날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 추진위원회 만세!**

**노동조합 운동 만세!**

**노동해방 만세!**

1990년 4월 20일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창립선언문」(1990. 04. 20,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50365)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구속교사 석방 및 학생징계 철회를 위한 서명

1990년

운동」 시작

『봄이 오는 교실』 제3호(1990. 04. 23,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위원회 발행, M00412293)

#### 04. 21

- ‘민자당 장기 집권 음모 분쇄 및 민중 기본권 쟁취 국민연합’, 인하대학교에서 「결성식 및 민중기본권쟁취 결의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07호(1990. 04. 30, 인하대학신문사)

#### 04. 23

- 인하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민자당 분쇄 및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발대식 개최. 행사가 끝난 후 300여 명의 학생들이 인하대학교 정문으로 진출해 ‘재벌비호 민중탄압 민자당을 박살내자’, ‘학특위의 깃발 아래 일만육천 단결투쟁 민자당을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맞서 시위를 벌임

『인하대학신문』 제707호(1990. 04. 30, 인하대학신문사)

#### 04. 27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7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제4기 출범식 개최. 출범식 후 인하대학교 교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저지에 맞서 시위를 벌임. 학생들은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를 「민주당분쇄 투쟁기간」으로 설정함

『인하대학신문』 제707호(1990. 04. 30, 인하대학신문사)

『한겨레신문』 제604호(1990. 04. 28, 한겨레신문사)

- 진성전자 노동조합, 회사 측이 교육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 간부 7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조치하는 등 노조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조합원 80% 찬성으로 쟁의 발생 신고

「진성전자 노동조합정상화 투쟁보고서」(1991. 08. \*, 진성전자 노동조합, M00853190)

#### 04. 28

- 인천지역 주민회·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등 11개 단체, 인천대학교 체육관에서 ‘명신여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명신여고 교사·학생탄압 분쇄를 위한 인천시민결의대회」 개최

「명신여고 교사·학생탄압 분쇄를 위한 인천시민결의대회」(1990. 04. 28, 명신여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M00412715)

『명신여고 투쟁속보』 제8호(1990. 05. 02, 명신여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 M00865252)

『한겨레신문』 제605호(1990. 04. 29, 한겨레신문사)

#### 04. 30

- 세일고등학교 전교생 1600여 명, 명신여고 사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던 세일고등학교 학생이 명신여고 학생주임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항의하며 오전 7시 30분경부터 학교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벌임

『명신여고 투쟁속보』 제8호(1990. 05. 02, 명신여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 M00865252)

#### 05. 01

-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 200여 명, 오전 7시경 학교 앞 도로에서 ‘교사·학생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폭력 교사 각성, 재단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 시작. 세일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이 합세해 농성을 지원

『봄이 오는 교실』 제4호(1990. 05. 03, 명신여고 참교육 홍보부 편집,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위원회 발행, M00413104)

『명신여고 투쟁속보』 제8호(1990. 05. 02, 명신여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 M00865252)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민자당 분쇄 및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노동절 101주년 기념식 및 현대중공업 탄압 규탄대회」 개최. 이 날 행사에서 명신여고 3학년 주인순의 명신여고 탄압사례 보고, 「4·29 현대중공업 탄압 규탄 수도권 노동자대회」 보고 등이 진행됨

『인하대학신문』 제708호(1990. 05. 07, 인하대학신문사)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인천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하대학교에서 「세계노동절 101주년 기념 인천노동자 대동문화제」 공동 개최

「세계노동절 101주년 기념 인천노동자 대동문화제」(1990. 05.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외, M00450369)

#### 05. 02

- 기차길 옆 공부방·천주교 도시빈민회, 가톨릭회관 312호에서 공부방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만석동 기차길 옆 공부방 어린이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인천주보』 제1028호(1990. 04. 29, 천주교 인천교구)

#### 05. 04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소속 38개 노동조합, ‘현대중공업과 KBS 공권력 투입 규탄 동맹파업’ 및 가두시위 전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05. 06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대학교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파업전야' 상영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05. 07

- '민자당 분쇄와 전투적 노학연대를 위한 인천지역 학생특별위원회 연합' 발대식 개최. 인하대학교의 '민자당 분쇄 및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와 성심여자대학교의 '전노협사수와 민중의 진보적 단결을 위한 학생특별위원회'가 결합한 기구로 인하대학교 강규성이 대표로 선출

『인하대학신문』 제709호(1990. 05. 14, 인하대학신문사)

- 진성전자 노동조합, 임금인상 과정에서 노사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조합원 전체의 쟁의 행위 찬성으로 파업 돌입

「진성전자 노동조합정상화 투쟁보고서」(1991. 08. \*, 진성전자 노동조합, M00853190)

「서명 운동 : 진성 노조의 파업 투쟁중 -임금 인상 조기 타결과 파업중 징계, 해고 철회 및 대체 고용 중지를 촉구하며」(1990. 08. 22, 진성전자 노동조합, M00411739)

05. 09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오후 2시경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민자당 분쇄를 위한 동맹휴업 범인하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동맹휴업 결의.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가자! 부평역으로 전 민중의 총단결로 민자당을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인하대학교 후문가와 정석고등학교 앞 도로 등지에서 시위를 벌임

『인하대학신문』 제709호(1990. 05. 14, 인하대학신문사)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민자당 전당대회에 맞춰 오후 6시 30분 부평역에서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 인천시민 쫓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결렬됨. 학생·노동자·시민 등 1500여 명은 동인천역 앞으로 대회 장소를 옮겨 '타도 노태우, 분쇄 민자당' 등의 구호를 외치며 순찰차 1대를 전소시키고 축현파출소와 전경버스 등에 돌을 던지며 시위를 전개하다 강제 해산됨

「국연 인천본부 5월투쟁 평가 및 6월 투쟁계획」(1990. 05. 29, 국민연합 인천본부 사무처, M00402473)

『인하대학신문』 제709호(1990. 05. 14, 인하대학신문사)

『인천교육노동운동사』 1, 299쪽(전국교직원 노동조합, 2006)



05. 10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5월 9일 보고대회 및 연행학우 구출을 위한 인하인 결의대회」 개최. 학생들은 5월 9일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8만 명이 모인 87년 6월항쟁 이후 최대의 집회'라고 평가. 이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7명이 「연행학우 석방을 위한 의대인 철야농성」을 시작함

『인하대학신문』 제709호(1990. 05. 14, 인하대학신문사)

05. 12

- 가톨릭문화운동공동체, 가톨릭회관 6층에서 「토요영화 감상」 개최. 「5·18 광주민중항쟁」 등 상영

『인천주보』 제1028호(1990. 04. 29, 천주교 인천교구)

05. 15

- 인하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인하대학교 후문가에서 「5·18 부상자동지회」 회원 김태찬을 초청해 「광주민중항쟁 10주년 계승과 민자당 분쇄를 위한 초청강연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10호(1990. 05. 21, 인하대학신문사)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오후 4시 20분경 인하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민자당 분쇄 및 광주항쟁 계승 투쟁기간 선포식」 개최. 집회 후 학생들이 인하대학교 후문을 통해 도로로 진출, 가두시위를 벌이자 경찰 300여 명이 시위를 진압하며 인하대학교 통일광장까지 진입함

1990년



〈5월 15일 인하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한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인하대학교  
후문으로 진입하는 경찰〉

『인하대학신문』 제710호(1990. 05. 21, 인하대학신문사)

#### 05. 16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주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산하 ‘노동운동탄압분쇄 특별위원회’·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하대학교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우정밀 공권력투입규탄 및 90임투 완전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전날 발생한 경찰의 교내 진입에 항의해 「폭력경찰 학원침탈 및 민자당 분쇄를 위한 1만6천 총궐기대회」 개최. 대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인하대학교 주변 도로에서 1시간 가량 경찰에 맞서 화염병 등을 던지며 시위를 전개함

『인하대학신문』 제710호(1990. 05. 21, 인하대학신문사)

#### 05. 17

- 인하대학교를 포함한 18개 대학교 학생 1000여 명,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 광장에서 「전국학생투쟁체연합」(전학투련) 준비위 발족식」 개최

『경향신문』 제13736호(1990. 05. 18, 경향신문사)

#### 05. 18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광주항쟁 계승 및 민생파탄 민자당정권 분쇄 결의대회」 개최. 오후 6시 50분경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700~800여 명, 오후 8시 20분경 송림로타리에서 300여 명이 모여 산발적인 시위를 벌임

「국연 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국연 인천본부 5월투쟁 평가 및 6월 투쟁계획」(1990. 05. 29, 국민연합 인천본부 사무처, M00402473)

#### 05. 19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인천대학 강당에서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보고대회 개최

「노활추 소식」 창간호(1990. 09. 21,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9)

#### 05. 23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하대학교에서 영화 ‘파업전야’를 상영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사전 봉쇄됨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5. 24

- 인천교육대학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참교육 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 대행진 인천시민환영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11호(1990. 05. 28, 인하대학신문사)

#### 05. 25

- 인하대학교 ‘민자당 분쇄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 인하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민자당 분쇄를 위한 노학연대 및 5월 27일 투쟁결의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11호(1990. 05. 28, 인하대학신문사)

#### 05. 30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답동 가톨릭회관 5층 강당에서 영화 「파업전야」 시사회 개최. 성직자·수도자·일반신자 200여 명이 관람

『인천주보』 제1032호(1990. 05. 27,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1033호(1990. 06. 03,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콜트악기 연대의 밤」 행사를 진행함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06. 06

-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하대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해직교사를 위한 스승의 날 대잔치」 개최

『인천주보』 제1033호(1990. 06. 03, 천주교 인천교구)

06. 07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박성규 신부·호인수 신부·최상진 신부·윤용만 인천대 교수·김명선 성모의원 원장 등 5명의 위원 추가 임명.

『인천주보』 제1036호(1990. 06. 24, 천주교 인천교구)

06. 08

- 노동자대학, 십정동 568-5번지에 노동자대학 별관 개설

『속보』 제8호(1990. 07. 04, 노동자대학, M00078598)

06. 09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부평1동 성당에서 「6월항쟁 계승 및 민주쟁취 인천시민대회」 개최. 대회가 끝난 후 진성전자 앞에서 규탄집회 가짐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6월항쟁 계승하여 노태우정권에 민중의 철퇴를」(1990. 06. 07,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M00021984)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제2기 노동강좌」 개강

『인사연사람들』 제4호(1990. 07. 28,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남부지부, M00412804)

- 인천여성노동자회, 6월 9일부터 7월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요여성강좌」 진행

「인천여성노동자회 제3회 정기총회」(1991. 02. 27,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57596)

06. 10

- 한우리마을·사랑방교회·민중연합·민중당·인천지역 주민회·산마루교회, 인천주거문제 협의 모임 결성

『흔울』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06. 11

- 박종기 신부, 이진 목사, 인하대학교 임명방·최원식·정요일 교수, 신맹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 등 6명,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천지역 각계인사 157명이 범민주세력 통합야당 결성추진

운동에 서명했다고 밝힘

『한겨레신문』 제642호(1990. 06. 12, 한겨레신문사)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이날 현재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소속 구속 노동자 수가 404명에 달한다고 발표. 그중 인천지역은 82명으로 집계됨

『전국노동자신문』 제13호(1990. 06. 1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남부지부·북부지부 회원 10여 명, 전철에서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 및 내각제 개헌 음모’ 유인물 배포

『인사연사람들』 제2호(1990. 07. 25,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남부지부, M00412783)

## 06. 12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진성전자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폭력경찰 처벌, 폭력관리자처벌, 부평경찰서장 사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38명이 참가해 부평경찰서 항의 집회 전개. 25분간 진행된 집회 후 38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즉심에서 형면제 처분을 받음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 06. 22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폭력 규탄 및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전개함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6. 28

- 한국메그론 노동조합, 부평 석남약수터에서 조합원 야외교육을 실시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봉쇄됨

『단체협약 투쟁현황 및 사안별 투쟁현황 주간단위파악에 관한 건』(1990. 08. 25, 전국노동조합협의회, M00006563)

## 07. 03

- 노동자대학 십정동 사무실에서 도청장치 발견

『속보』 제8호(1990. 07. 04, 노동자대학, M00078598)

『경향신문』 제13776호(1990. 07. 04, 경향신문사)

## 07. 11

- US마그네틱스 노동조합, 6월 23일 회사 측이 3개월 분 월급과 6월 분 상여금을 체불한 채 조업중단을 단행하자 법원에 임금채권 압류신청을 내고 이날부터 철야 농성 돌입

『인천여성노동자』 제8호(1990. 08.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7024)

1990년

07. 13

- 한국메그론 노동조합이 노사 간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취소·변경을 의결.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근거로 인천시 서구청이 단체협약 「변경명령서」를 한국메그론 노동조합에 발송함  
「단협변경명령철회 및 노조활동자유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대책회의」(1990. 08. 22, 한국메그론 노동조합, M00403649)

07. 16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일꾼교회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합 상반기 사업평가 및 하반기 사업방향, 조직적 발전전망에 관한 지역토론회」 개최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07. 20

- 한국메그론 노동조합, 1989년 11월 회사 측과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구청으로부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단체협약 변경명령서’를 받음.  
『경향신문』 제13797호(1990. 07. 28, 경향신문사)

07. 27

-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한국메그론 단체협약 취소·변경 판정과 이에 따른 인천시 서구청의 단체협약 변경 명령과 관련하여 각각 성명서 발표. 같은 날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 추진위원회 산하의 노동조합 대표자 100여 명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를 향의 방문함

## 〈‘성명서’에 제시된 ‘우리의 요구’〉

|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시 본부                                                                                                     |
|---------------------------------------------------------------------------------------------------------------------------------------------------------------------------------------------------------------------------------------|----------------------------------------------------------------------------------------------------------------------|
| 1. 인천지노위는 한국메그론 단체협약에 대한 파렴치한 취소, 변경명령을 즉각 철회하라!<br>1. 사용자 측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노조활동을 말살하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br>1. 인천지방노동청은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한국메그론의 이수갑 사장을 처벌하고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br>1. 단체협약 변경을 명령하고 불순한 업무조사를 기도하는 서구청은 40만 인천노동자 앞에 사죄하라! | 1. 인천 지노위는 한국메그론의 단체협약 파기를 즉각 철회하라!<br>1. 행정관청인 서구청은 단협 취소 변경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br>1. 회사 측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라! |

「단협변경명령철회 및 노조활동자유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대책회의」(1990. 08. 22, 한국메그론 노동조합, M00403649)

「단체협약 투쟁현황 및 사안별 투쟁현황 주간단위파악에 관한 건」(1990. 08. 25, 전국노동조합협의회, M00006563)

「노활추 소식」 창간호(1990. 09. 21,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9)

## 08. 07

- 진성전자 노동조합 위원장 윤화심, 파업 중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됨  
『인천여성노동자』 제9호(1990. 10,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08)

## 08. 10

- US마그네틱스 노동조합 조합원 20여 명,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 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 돌입  
『경향신문』 제13812호(1990. 08. 15, 경향신문사)

## 08. 11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부평역,

동암역, 동인천역 등지에서 ‘기만적 통일정책 규탄을 위한 가두선전 및 국  
보철폐, 평화군축, 자주교류, 불가침선언 촉구 서명운동’ 전개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 08. 14

- ‘인천부천 민족민주운동 노동자정치투쟁위원회’, ‘출범 선언문’ 발표

「출범선언문」(1990. 08. 14, 인천부천민족민주운동노동자정치투쟁위원회, M00408764)

#### ‘인천부천 민족민주운동 노동자정치투쟁위원회’ 출범 선언문

반만년에 걸쳐 자주적 역사와 문화전통을 이어온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일제 36년간의 폭압통치하에서도 불굴의 민족해방투쟁을 선도해 온 우리 노동자들은 미국에 의한 정치, 경제, 문화적 지배와 군사적 점령상태가 45년째 계속되고 있는 신식민지 분단시대 하의 강요된 빈곤과 무권리상태를 단호히 거부해 나가기 위한 **인천부천민족민주운동노동자정치투쟁위원회** (약칭 민민노투)의 출범을 선언한다.

광주학살의 공범자인 현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은 평화와 군축,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냉전청산의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영구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그 후견자인 미국과 매판독점재벌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자주적인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세계 최대의 미제전쟁무기 수입, 민족말살의 대규모 핵전쟁 군사훈련 지속, 무차별 수입개방, 구조화된 부정부패, 부동산투기 조장, 물가 폭등과 임금동결,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율, 최악의 환경공해, 향락소비 문화 조장, 300만이 넘는 절대빈곤층과 실업, 노동자와 민중들의 정치적 자유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유지,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통일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양심수 양산, 기만적인 광주·5공청산, 지방자치제·금융실명제 등의 일방적 폐기, 3당야합을 통한 국민주권 강탈, 언론 재장악 및 군 구조개편을 통한 영구집권 기도 등등 야만적인 반평화·반민족·반민중·반통일·반민주적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의 무기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획득하고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다. 70년대의 청계피복, 동일방직, YH, 원풍모방 등 개별사업장 민주노



조운동으로부터 80년대에는 구로연대파업, 7~8월 대파업, 전노협 5·3 총파업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전국적 연대투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도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실로 엄청난 고통과 자기희생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성과인 것이다. 일천만 노동자의 거대한 사회정치세력화가 두려운 군사독재정권과 비양심적 자본가들에 의해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존재마저도 부인되면서 구속, 테러, 해고, 강제사직, 위장폐업 등 야만적인 폭력탄압이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억압상황의 반복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운동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보다 폭넓은 단결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탄압의 원흉인 미국과 군사독재정권을 물리치기 위한 정치투쟁도 항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보다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당면한 정치투쟁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무리이다. 따라서 독재정권의 반민족적·반민중적·반노동자적 행태를 즉각적으로 폭로·규탄하고 효과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노동자와 민중에게 승리에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크고 작은 정치적 승리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노동자의 정치적 투쟁조직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우리 노동운동과 민족민주운동 앞에 계속 제기되어 온 긴요한 조직적 과제 중의 하나였다. 서·인노련의 출범과 해산 이래 부단히 계속되어 온 우리 노동자들의 정치적 투쟁조직의 건설 시도들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헌신적 노력들이었다. 그러나 각각의 주체역량의 한계나 과오, 그리고 미국과 군사독재정권의 집중된 탄압에 의해 조직적 계승·발전의 길은 자주 단절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적인 투쟁과제와 정치투쟁조직 노선을 내세우며 지난 2년여 동안 부단히 헌신적으로 활동을 계속해온 '인천부천민주노동자일동' 동지들의 문제제기와 실천적 모범들은 공안정국이래 강화되고 있는 독재정권의 반동적 공세 하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에게 승리에의 희망과 불퇴전의 결의를 불러일으켜 주었다. 우리는 바로 이 동지들의 노동자정치투쟁조직의 건설과 당면 투쟁노선에 적극 공감하며 그들의 실천성과들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노동자와 민중을 탄압·수탈하면서 오직 영구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

노태우 군사독재정권과 이를 비호·후원하고 있는 미국과 매관독점재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이들의 착취와 횡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굳게 연대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사상과 신앙, 계급과 계층, 지역과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반외세·반독재민주세력들이 결집한 '비상시국회의'를 더욱 굳건한 범민주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적 단결조직인 '전민련'이 그 자신의 지도력과 투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며 제반투쟁을 주도해낼 수 있도록 애쓸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당면한 '민자당 일당독재의 국회해산과 거국연립내각하의 총선실시' 요구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민주연합정권의 수립을 앞당겨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열되어 있는 제도권 야당의 통합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민중생존권 및 민주적 제권리 쟁취투쟁', '조국통일투쟁', '반미자주화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노총과 전노협으로 분열된 채 독재권력에 의해 각개격파당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과 '노동조합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들을 통해 나라의 완전한 자주화와 민주화와 평화통일의 실현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모든 민족성원들의 창조적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여건을 조성하여 평화롭고 우애 넘치는 참된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990년 8월 14일

인천부천 민족민주운동 노동자정치투쟁위원회

『출범선언문』(1990. 08. 14, 인천부천민족민주운동노동자정치투쟁위원회, M00408764)

- 진성전자 노동조합, 백마교회에서 「구속동지 환영회 및 조합원 공청회」 개최 「진성전자 노동조합정상화 투쟁보고서」(1991. 08. \*, 진성전자 노동조합, M00853190)
- 한독금속 노동자들, 공장 정상 가동을 요구하며 공장에서 10개월째 농성을 진행해 오던 중 경찰 투입으로 공장에서 밀려 나옴. 노동자 8명은 8월 15일부터 민자당 정정훈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며 농성에 돌입함

『전국노동자신문』 제18호(1990. 08. 2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8. 20

- US마그네틱스 노동조합 조합원들, 체불임금 추구하고 사장과의 교섭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인천노동청을 향의 방문하였으나 경찰에 모두 연행되고 사무장과 문화부장은 구속됨

『인천여성노동자』 제9호(1990. 10,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08)

## 08. 22

- 한국메그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인천시 서구청의 단체협약 취소 · 변경 및 변경명령 사태와 관련,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 인천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등 70여 개 노동조합 대표자 · 간부 등이 참석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대강당에서 '단체협약 변경 명령철회 및 노조활동자유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함. 산하에는 '12만 서명 추진본부'와 '단협수호대책본부'를 둠

「단협변경명령철회 및 노조활동자유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대책회의」(1990. 08. 22, 한국메그론 노동조합, M00403649)

「단체협약 투쟁현황 및 사안별 투쟁현황 주간단위파악에 관한 건」(1990. 08. 25, 전국노동조합협의회, M00006563)

「노활추 소식」 창간호(1990. 09. 21,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9)

- 진성전자 노동조합, 임금인상 과정에서 노사 간의 의견 불일치로 파업 농성을 진행 중 위원장 등 8명이 해고 당하고 대체 인원이 모집 · 고용되는 사태와 관련해 노동청 · 지방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시정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전개

「서명 운동 : 진성 노조의 파업 투쟁중 -임금 인상 조기 타결과 파업 중 징계, 해고 철회 및 대체 고용 중지를 촉구하며」(1990. 08. 22, 진성전자 노동조합, M00411739)

## 08. 23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민자당 타도를 위한 개강 투쟁 선포식」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13호(1990. 08. 27, 인하대학신문사)

## 08. 24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연대사업부, US마그네틱스 파업에 지원투쟁 시작. 이에 따라 8월 24~25일에는 동아리, 8월 26~27일에는 공과대학, 8월 28~29

## 1990년

일에는 가정대학과 의과대학, 8월 30~31일에는 문과대학이 파업 현장을 찾아 규찰대 활동 및 문화공연 등 지원투쟁을 전개함

『인하대학신문』 제714호(1990. 09. 03, 인하대학신문사)

- 로버트쇼 · US마그네틱스 · 한독금속 노동조합, '인천지역 노조탄압 3사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전국노동자신문』 제19호(1990. 09. 0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8. 28

- 진성전자 노동조합, 110여 일의 장기 파업 끝에 조합원들이 무조건 조업 재개 결정

「진성전자 노동조합정상화 투쟁보고서」(1991. 08. \*, 진성전자 노동조합, M00853190)

### 08. 31

- 로버트쇼 · US마그네틱스 · 한독금속이 결성한 '공동투쟁위원회', 부평 백마교회에서 보고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14호(1990. 09. 03, 인하대학신문사)

### 09. 03

- US마그네틱스 회사 대표, 6월 23일 임금을 체불한 뒤 일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입국, 서울 삼성동에 머물다 회사 노동자들에게 불잡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경향신문』 제13828호(1990. 09. 03, 경향신문사)

### 09. 07

- 인하대학교 '파쇼의회 철폐와 민자당 타도를 위한 대책위원회', 인하대학교 후문가에서 「노동운동탄압과 반민중적 정기국회 규탄 청년학도 결의대회」 개최.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회 직후 정석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가두 시위 전개

『인하대학신문』 제715호(1990. 09. 10, 인하대학신문사)

### 09. 13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장기집권 분쇄 및 기만적 통일정책 규탄 5만학도 진군대회」 개최. 집회 후 참가 학생들이 인하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나가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함

『인하대학신문』 제716호(1990. 09. 17, 인하대학신문사)

### 09. 14

- 인하대학교 구속자동지회,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3층 민주동우회 사무실에 서 출범식 개최. 이날 모금된 축의금은 회사 폐업에 맞서 농성중인 금강공

업 노동자들에게 투쟁지원금으로 제공함

『인하대학신문』 제716호(1990. 09. 17, 인하대학신문사)

- 인하대학교 문화예술운동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발대식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16호(1990. 09. 17, 인하대학신문사)

- ‘탁아법 제정을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지역 탁아위원회 · 인천지역 주민회 ·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10여 개 단체가 모여 결성함

『인천여성노동자』 제9호(1990. 10,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08)

#### 09. 15

- 한국메그론 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대강당에서 「12만서명 운동 중간보고 및 단협사수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개최

「노활주 소식」 창간호(1990. 09. 21,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9)

#### 09. 16

- 인천지역 탁아위원회, 동인천역과 부평역 등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거부 및 올바른 탁아법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민주여성』 제10호(1990. 11. 05, 한국여성단체연합)

- 인하대학교 학생 200여 명,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민중통제, 민중감시 보안사 규탄 및 연행학우 구출을 위한 인하인 결의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18호(1990. 10. 22, 인하대학신문사)

#### 09. 19

- 인천여성노동자회, 9월 19일 · 22일 · 23일 3일간에 걸쳐 7개 사업장 20여 명의 여성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간여성지도자 교육」 진행

『인천여성노동자』 제9호(1990. 10,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08)

#### 09. 20

- 인하대학교 ‘민생파탄, 민중탄압 지배체제 안정화 책동 분쇄와 전투적 민중 연대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민중 생존권 압살 노동운동 탄압 규탄 폭로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17호(1990. 09. 24, 인하대학신문사)

#### 09. 22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국민연합 부천지부와 공동으로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일당국회 해산 및 민중 생존권 쟁취, 노태우정권 퇴진 결의대회」 개최.

1990년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인하대학신문』 제717호(1990. 09. 24, 인하대학신문사)

09. 25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협의회 ·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YWCA에서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공청회」를 주최하여 노동부 · 경제단체협의회 지침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노활추 소식」 창간호(1990. 09. 21,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9)

09. 27

- 인하대학교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민중당 건설을 위한 노동자 · 학생 결의대회」 개최

『경향신문』 제13849호(1990. 09. 27, 경향신문사)

10. 06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파업 중 해고된 진성전자 노동조합 위원장 윤화심 등 7명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10월 6일자로 전원 원직복직 판결을 내림

『전국노동자신문』 제22호(1990. 10. 25,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0. 12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민주파’인 ‘대우자동차민주화실천노동자회’ 소속 이은구 후보가 59.6%의 표를 얻으며 제11대 위원장으로 당선

「노활추 소식」 제2호(1990. 11. 08,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7)

- 인천교육대학 학생들, 정부가 ‘국 · 사립대 출신 학생 간 임용차별철폐를 포함한 정부의 교원종합대책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중간고사 및 수업거부를 결의하고 11월 26일까지 40여 일 간 반대 운동 전개

『인천교육대학교 50년사』, 504쪽(1997, 인천교육대학교)

10. 15

- 인천교육대학교 2·3학년 학생 800여 명, 문교부의 교원임용 공개전형 계획에 항의하며 중간고사 거부

『경향신문』 제13864호(1990. 10. 15, 경향신문사)

10. 16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인천대학에서 「UR설명회」를 개최하고 UR거부 서명운동 진행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 인하대학교 학생 200여 명,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민중통제, 민중감시 보안사 규탄 및 연행학우 구출을 위한 인하인 결의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18호(1990. 10. 22, 인하대학신문사)

- 대학생 10여 명, 용현동 소재 민자당 인천 남구 을지구당 사무실에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임

『경향신문』 제13865호(1990. 10. 16, 경향신문사)

- 인천교육대학교 4학년 학생 400여 명, 문교부의 교원임용공개전형 계획에 항의하며 실무실습을 거부함

『경향신문』 제13865호(1990. 10. 16, 경향신문사)

## 10. 20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인천지역 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 부평3동 성당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보안사 불법사찰규탄 및 군정 청산 인천시민대회」 개최. 이 날 대회에서 '보안사, 안기부 등 폭압기구의 해체, 정치활동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 장기집권 획책하는 노태우정권 퇴진' 등을 결의하고, 부평3동 성당을 나와 거리 행진을 하던 중 경찰의 저지를 당해 거리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가진 뒤 해산함. 이 날 대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는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인천지역 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인권위원회, 인천지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민주당 인천시당, 민중당 인천시당, 범민주세력 통합수권정당 인천지역 추진회의' 등 7개 단체임

『정의평화』 제42호(1990. 10. 31,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4486)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계산동 철거문제와 관련해 「대책 없는 계산동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 10. 21

- 인천대공장풍물패 협의회, 인하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출범. 의장에 이홍섭(대우중공업), 부의장에 오홍민(대우전자 인천지부)을 선출

〈참가 풍물패〉

- 한라중공업 지킴이
- 한독시계 누렁소
- 진도 진풍
- 인천제철 쇠돌이
- 영창악기 노울림
- 대우중공업 이십이
- 대우전자 주안지부 한울
- 대우전자 인천지부 풍물사랑회
- 대림통상 산까치

(참관단체 : 대우자동차 아람, 동아건설 한울림)

『인천 대공장 풍물패 협의회 창립총회』(1990. 10. 21, 인천 대공장 풍물패 협의회  
준비위원회, M00190119)

『노동의 햇불』 제1호(1990. 11. 11,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M00405127)

10. 23

- 인하대학교 '민생파탄, 민중탄압 지배체제 안정화 책동 분쇄와 전투적 민중 연대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발대식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19호(1990. 10. 29, 인하대학신문사)
- 만석동 아가방, 「개원 2주년 기념잔치」 개최

『만석동 아가방』 제2호(1990. 11. 25, 만석동 아가방, M00042499)

10. 24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사무실에서 「단체협약 변경명령 철회와 노조 활동 자유사수를 위한 인천노동자 쟁기대회」 개최.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등을 비롯해 60여 개 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  
『노활추 소식』 제2호(1990. 11. 08,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7)
- 주안1동 성당에서 「범민족대회 기록영화 전국순회 시사회 및 강연회」 개최.

『정의평화』 제42호(1990. 10. 31,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524486)

10. 30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송림동 참사 유가족의 합동49제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투입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11. 04**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인천전문대학 운동장에서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노활추 조합원 체육대회」 개최  
『노활추 소식』 제2호(1990. 11. 08,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7)

**11. 09**

- 대양전기 노동조합, 「전태일 열사 20주기 추모일」을 맞아해 11월 15일까지 '전태일 열사 추모 리본'을 달기로 결의  
『새벽』 제25호(1991. 01. \*, 한국대양전기 노동조합, M00515701)

**11. 10**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제3기 노동자를 위한 교양강좌」 개강  
『인사연사람들』 제6호(1990. 11. 30,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북부지부, M00412808)

**11. 11**

-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소식지 『노동의 햇불』 창간  
『노동의 햇불』 제1호(1990. 11. 11,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M00405127)

**11. 13**

- 인하대학교 '민생파탄, 민중탄압 지배체제 안정화 책동 분쇄와 전투적 민중 연대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6층에서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태일 정신계승 및 민중대회 쟁취를 위한 인하인 결의 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22호(1990. 11. 19, 인하대학신문사)

**11. 22**

- 인천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인천대학교에서 「민중탄압 장기집권 분쇄를 위한 민중대회 사수 청년학생 결의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23호(1990. 11. 26, 인하대학신문사)

**11. 23**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인천지역 23개 사회·종교·정당 단체 회원 및 시민·노동자·학생 등 500여 명,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폭력비호 민자당 의원 사퇴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인천지역 풀망과 두목 최태준의 석방탄원서에 서명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공·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  
『경향신문』 제13899호(1990. 11. 24, 경향신문사)
- 인하대학교 '민생파탄, 민중탄압 지배체제 안정화 책동 분쇄와 전투적 민중 연대를 위한 학생특별위원회', 인하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민자당 타도와 민중대회 승리를 위한 인하인 출정식」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723호(1990. 11. 26, 인하대학신문사)

11. 28

- 대우전자 노동조합 인천지부, 조합원 1300여 명과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 인천지역 대공장 노동조합 연대모임 간부 등이 모인 가운데 「노조탄압 분쇄, 독점재벌 화형식」 거행

『인천여성노동자』 제11호(1990. 12.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901)

- 인천여성노동자회,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여성노동자를 위한 교양강좌」 개최

「인천여성노동자회 제3회 정기총회」(1991. 02. 27,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57596)

11. 29

- 삼기전자 노동조합, ‘상근자 2명, 교육시간 월 1시간 30분, 대의원회의 월 2시간, 상집활동 월 30시간,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에 합의하며 6개월에 걸친 단체협약교섭을 끝냄

『전국노동자신문』 제25호(1990. 12. 0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2. 08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최태준 사건과 관련해 동인천역에서 ‘민자당 의원 사퇴촉구 서명운동’ 전개

「국연인천본부 90년 사업평가 지침(안)」(1990. \*. \*, M00413060)

12. 09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후원으로 인천대학교 체육관에서 「문익환 목사 방북 보고대회」 개최.

『인천주보』 제1060호(1990. 12. 09, 천주교 인천교구)

12. 15

- 「인천지역 민주노조 총단결을 위한 꽃다지 II 공연」이 2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대학교 인문관 운동장에서 개최됨

『노동의 햇불』 송년호(1990. 12. 27,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4)

12. 17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주안5동 성당 교육관에서 「제1차 노활추 위원장 · 간부 연석회의」 개최

『노활추 소식』 송년호(1990. 12. 27,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44)

「'90 사업평가 및 '91 사업방향 수립을 위한 노활추 위원장 간부 연석회의」(1990. 12.

17,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M00407027)

**12. 27**

- 인천지역 노동자·학생 1000여 명, 인하대학교에서 「대우전자 노조탄압 규탄대회」 개최

『노동의 햇불』 제2호(1991. 01. 30,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M00514076)

『경향신문』 제812호(1990. 12. 28, 한겨레신문사)

# 1991년

## 01. \*

- 삼진기업 노동조합 조합장 오윤철 등 노동조합 간부 6명, 임금체불과 관련해 파업을 주도한 일과 관련해 '업무방해'를 사유로 해고당하다

「해고실태조사서」(\*. \*. \*, M00409823)

## 01. 15

- 극동가스켓 노동자 양영빈·김원철, 1월 15일과 1월 16일에 '학력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각각 해고당하다

「해고실태조사서」(\*. \*. \*, M00409823)

## 01. 25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1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지역 임금인상공동투쟁본부 준비위원회(가칭)' 결성을 제안.

『임투속보』 제1호(1991. 03. 20, 인천지역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 건영전기 노동자 정준채, '학력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해고당하다

「해고실태조사서」(\*. \*. \*, M00409823)

## 01. 26

- 「진성전자 노동조합 정상화와 손해배상 대책 마련 일일주막」 개최. 진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20여 명과 인천지역 노동자 300여 명이 참여함. 진성전자 해고노동자 7명은 1990년 11월 28일, 3073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진성전자 노동조합정상화 투쟁보고서」(1991. 08. \*, 진성전자 노동조합, M00853190)

## 01. 30

- 노동자 문화마당 일터,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창립선언문 및 강령 발표. 사무실은 남구 송의3동 90-18(설녹차 3층건물 지하)에 마련함. 창립 과정은 아래와 같음

- 1990. 03. 13 지역 문화운동의 문제점과 그 극복대안을 모색하던 몇몇 활동가들이 최초 모임을 갖고 새로운 문화조직의 건설을 기존 제 단체의 지원 하에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함

- 1990. 04. 03 가칭 '문화선전대 준비위' 구성
- 1990. 06. 06 가칭 '문화선전대' 준비를 위한 지역 문화 담당자 간담회 개최
- 1991. 01. 26 내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강령, 규약 등 확정

### '노동자 문화마당 일터' 창립 선언문

해방이후 40년,

우리민족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과 수탈,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의 가혹한 민중탄압으로 이어져 온 역사였습니다.

우리민중은 인간다운 삶과는 동떨어진 채 신음하여 왔으며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각종악법에 족쇄 채워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세와 파쇼정권은 반인간적이고 사대주의적인 퇴폐, 향락문화를 제도적으로 육성하여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전 민중의 새세상을 열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희석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략과 수탈의 역사는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투쟁의 역사였으며 숭한 선열들의 피로써 이루어진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였습니다. 80년의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항쟁은 더 이상 지배세력의 억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 민중의 의지의 표현이었고 7, 8월의 노동자 대파업투쟁을 기점으로 노동자계급은 생산의 주역, 변혁투쟁의 주역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88년의 임금인상투쟁 및 노동법 개정투쟁, 90년의 전노협 건설과 사수투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인 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그 누구도 노동자계급이 이 사회의 모순을 온몸으로 해결할 필연적인 주체이며, 해방된 세상을 위한 변혁투쟁의 대령에서 선두의 자리에 서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운동 강화야말로 현시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의 핵심이라는 인식과 아울러 노동자 문예운동은 전체 변혁운동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당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 문화마당 일터는 전문적 기능을 가진 문예창작집단으로서 '창조와 보급'이라는 기치 아래 자주성에 기초한 민족적이고, 민중적

인 건강한 노동자 문예의 전형을 창조해내고, 이를 노동자의 생생한 삶과 투쟁의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노동운동 강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해방의 새세상을 여는 변혁운동의 길에 당당하게 복무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외세의 수탈과 분단, 매관재벌과 파쇼정권의 가혹한 착취에 시달리는 조국의 현실에서 이의 올바른 예술적 반영을 통한 예술실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와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전민족의 염원인 민족통일과 민중해방이 완전하게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하며 이에 노동자 문화마당 일터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조국의 자주화투쟁 만세!!  
민주화투쟁 만세!!  
민족통일투쟁 만세!!  
노동자문화마당일터 만세!!

1991년 1월 30일

「창립대회 자료집」(1991. 01. 30, 노동자 문화마당 일터, M00447171)

- 동성상공 노동자 조현오(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문화국장),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당하다. 1990년 12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선출된 신임 위원장을 조합원들이 불신임하자 신임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전 위원장이었던 조현오가 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곧 해고됨. 조현오 측은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몇일 휴가를 주는 것이 관례여서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시켰다'고 주장함

「해고실태조사서」(\*. \*. \*, M00409823)

『불꽃』 제10호(1991. 12. 30, 동성상공 노동조합, M00514506)

## 02. 01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노동조합 활성화 추진위원회 · 대공장 노동조합 연대모임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 인천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등 인천지역 6개 노동조합단체가 '인천지역 노동조합 임금인상 공동투쟁본부(가칭) 준비위원회' 결성

『전국노동자신문』 제29호(1991. 02. 0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2. 11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 소속 10개 노동조합 간부 67명이 2월 10일 경찰에 연행된 데 항의하여 전 조합원 4000여 명이 작업을 거부한 채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임.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는 이은구 위원장 외 18명이 연행되었음

『투쟁속보』(1991. 02. 1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

## 02. 12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이은구 위원장 등이 경찰에 연행된 데 항의하여 「제2차 불법연행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3500여 명이 공장 앞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투석전을 벌임

『투쟁속보』(1991. 02. 20,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

## 02. 18

- 대우전자 노동조합 지부장 김종천 · 부지부장 김순호 · 사무장 유충선, 해고당함

「해고실태조사서」(\*. \*. \*, M00409823)

## 02. 21

- 인천의원 · 평화의원 · 푸른치과 상담실 · 남동진료소, 『건강한 노동자 깨어있는 노동자』 창간호 발행

『건강한 노동자 깨어있는 노동자』 창간호(1991. 02. 21, 인천의원 · 평화의원 · 푸른치과 상담실 · 남동진료소, M00409421)

## 02. 23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등 500여 명, 인하대학교에서 「전노협 연대회의 간부 석방촉구 및 수서비리규탄 노동자대회」 개최

『노동의 햇불』 제4호(1991. 02. 28,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M00514108)

『전국노동자신문』 제30호(1991. 02. 28,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한겨레신문』 제858호(1991. 02. 24, 한겨레신문사)

## 02. 27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조합 조합원 5000여 명, 회사 안 식당에서 「구속된 위원장 석방촉구대회」를 개최한 후 강당에서 「파업전야」를 관람한 후 해산함

『한겨레신문』 제861호(1991. 02. 28, 한겨레신문사)

- 인천여성노동자회, 「제3차 정기총회」 개최

『인천여성노동자』 제13호(1991. 03.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892)

02. 28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회사가 2월 24일 부도로 인해 휴업을 공고하자 '의도적인 부도'로 보고 정상 조업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인천여성노동자』 제13호(1991. 03.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46892)

『전국노동자신문』 제31호(1991. 03. 1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인천대학교 학생회관 · 민속학연구 사무실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여 빈병 81개 등 100여 점의 시위용품을 압수함

『한겨레신문』 제863호(1991. 03. 02, 한겨레신문사)

03. 01

-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 동아리 사무실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여 화염병 등 1000여 점의 시위용품을 압수함

『한겨레신문』 제863호(1991. 03. 02, 한겨레신문사)

03. 08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80여 명, '노조인정과 밀린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서울 명동 코스모스백화점 5층 사장실에서 농성을 벌이다 자진해산함

『한겨레신문』 제869호(1991. 03. 09, 한겨레신문사)

03. 10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지역 탁아위원회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여성복지국, 공동 주최로 인천대학교 인문관 4층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인천대학교 총여학생회, 인천지역 주민회가 후원을 맡음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전진대회」(1991. 03. 10, 인천여성노동자회 외, M00858069)

『월간 더불어 사는 이웃』 제5호(1991. 03. 10, 인천지역 주민회, M00042522)

03. 11

- 「공동임투 완전승리를 위한 노조대표자 결의대회」가 주안5동 성당에서 100여 명의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임투속보』 제1호(1991. 03. 20, 인천지역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03. 12

- 인천기독교 청년회 · 인천기독교 여자청년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독교공정선거감시단 · 흥사단 인천지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등 6개 단체, '인천지역 공정선거 감시단체협의회' 결성



『한겨레신문』 제872호(1991. 03. 13, 한겨레신문사)

## 03. 13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준비위원회 결성대회 개최

「제3회 인천기독교노동자 여름수련회」(1991. 08. 03,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M00447913)

## 03. 15

- ‘임금인상과 물가폭등저지 및 노동기본권수호를 위한 인천지역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인천공투본) 발대식이 인천대학교 인문관에서 개최됨. 상임 본부장은 최동식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본부장은 김동교 인천제철 위원장·염성태 대우중공업 위원장·최용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상황실장은 김기자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처장이 맡음. 부평·주안·하인천·남동·업종지대 등 총 5개 지대로 편성하여 운영함

## 〈인천공투본 참가(관) 노동조합〉

| 지대   | 참가(관) 노동조합                                                                                                                                                                                                                                                                                                                                         |
|------|----------------------------------------------------------------------------------------------------------------------------------------------------------------------------------------------------------------------------------------------------------------------------------------------------------------------------------------------------|
| 부평지대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대흥기계 노동조합, 동양철관 노동조합, 남일금속 노동조합, (주)진도 노동조합 부평지부, 기일전자 노동조합, 동신공업 노동조합, 콜트악기 노동조합, 몬트레스산업 노동조합, 대한특수산업 노동조합, 로보트보일러 노동조합,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한국대양전기 노동조합, 제성정밀 노동조합, 대진정밀 노동조합, 신광기업 노동조합, 진성전자 노동조합, 아남정공 노동조합, 고창산업 노동조합, 한국OA시스 노동조합, 대원제강 노동조합, 신창튜브 노동조합, 삼민화학 노동조합, 태연물산 노동조합, 경일화학 노동조합, 동성상공 노동조합, 한국분말야금 노동조합, 성신화학 노동조합, 미미양행 노동조합 |
| 주안지대 | 대림통상 노동조합, 대원강업 노동조합 (주안·인천지부), 삼원프라스틱 노동조합, 한국메그론 노동조합, 진흥정밀 노동조합, 한국강업 노동조합, 세원공업 노동조합, 삼기전자 노동조합, 태평양물산 노동조합, 승일제관 노동조합, 동명통산 노동조합, 영원통신 노동조합, 삼지실업 노동조합, 한국크라운 노동조합, 선미산업 노동조합, 경진                                                                                                                                                             |

|       |                                                                                                                                                 |
|-------|-------------------------------------------------------------------------------------------------------------------------------------------------|
|       | 물산 노동조합, 동화상협 노동조합, 대신전기 노동조합, 원등산업 노동조합, 청보산업 노동조합, 신명물산 노동조합, 동흥전기 노동조합, 우일정밀 노동조합, 서울경금속 노동조합, 유진상사 노동조합, 한양공영 노동조합, 한국 화학장치 노동조합, 벽산금속 노동조합 |
| 하인천지대 | 대우중공업 노동조합, 인천제철 노동조합, 대우전자 노동조합 인천지부,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
| 남동지대  | 홍신금속 노동조합, 성동금속 노동조합, 진영정기 노동조합, 동양이화 노동조합, 동일기업 노동조합, 한신보일러 노동조합, 한국비철금속 노동조합, 진영스텐다드 노동조합                                                     |
| 업종지대  | 세광병원 노동조합, 기독교병원 노동조합, 부평안병원 노동조합, 성모자애병원 노동조합, 인천병원 노동조합,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

### “91 공동임투 실천 강령”

우리는 '91임금인상투쟁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91 공동임투 실천강령을 아래와 같이 내걸고 민주노조 총단결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I. 전국의 모든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반드시 공동으로 쟁취한다.

- 주44시간 노동으로 22.2%(정액 95,611원) 임금 인상을 쟁취한다.
- 무노동 무임금을 반드시 분쇄한다.
- 단체협약의 유리한 타결을 통하여 조합 활동 자유를 확보한다.
- 부당한 해고, 감원, 휴폐업을 저지한다.
- 부당하게 해고된 동지를 복직시킨다.
- 부당한 업무조사를 단호히 거부한다.

II. 전국 노동자들의 총력투쟁으로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

기본권을 수호한다.

- 각종 부당한 노동부 지침의 철회와 노동부장관 퇴진을 위해 적극 투쟁한다.
-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 노동 탄압 분쇄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한다.

III. 전국노동자들은 전 민중과 연대하여 민중생존권과 민중기본권 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투쟁을 전개한다.

- 치솟는 물가폭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대표, 자본가대표, 정부 등 3자로 '물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한다.
- 독점재벌소유의 대토지에 대한 수용령을 발동하여 국유화하고 공공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촉구한다.
- 고용안정과 고용확대를 위한 고용안정보장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을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임금인상과 물가폭등저지 및 노동기본권수호를 위한 전국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임투속보』 제1호(1991. 03. 20, 인천지역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전국노동자신문』 제30호(1991. 02. 28,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노동의 햇불』 제4호(1991. 02. 28,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M00514108)

『노동의 햇불』 제5호(1991. 03. 30,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M00514041)

### 03. 17

- 대원강업 노동조합 부평지부 김기식 지부장, 임금인상 요구안 마련을 위해 창원공장으로 가던 중 과로로 사망함. 영결식은 3월 21일 부평공장 민주광장에서 거행됨. 김기식은 1975년 5월 20일 대원강업에 입사해 1990년 9월 1일 대원강업 노동조합 부평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됨

『전국노동자신문』 제32호(1991. 03. 28,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산곡동 무지개 어린이집 개원식 거행

「인천지역 행사 및 활동 보고」(1991. 04. \*, M00847332)

1991년

03. 24

- 인천민중연합,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인천지역의 교육현실과 교육운동'이란 주제로 「인천민중교양 공개강좌」 개최

『여럿이 함께』 제6호(1991. 06. \*, 인천민중연합, M00183302)

03. 31

- 주거문제 상담소 및 만수동 한우리 놀이방 개소

『흔을』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04. \*

- 한국메그론 노동조합 사무장, '학력허위 기재, 형사입건 등으로 회사명예 실추,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해고당함

「해고실태조사서」(\*. \*. \*, M00409823)

04. 01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56개 노동조합 조합장들, 3월 30일 택시사업주조합이 총회를 열고 사납금 8000원 인상을 결정하자 '사납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사업주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함

『전국노동자신문』 제33호(1991. 04. 1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4. 02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부평공장 내에서 조합원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91임금인상 완전 쟁취를 위한 조합원 전진대회」 개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연표』, 17쪽(2013, 노동자역사 한네 엮음, 한국지엠지부)

04. 08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사무실에 경찰 120여 명이 들어가 최용주 수석부위원장, 연병철 안전부장 등 2명을 연행함. 이 소식을 들은 노동자 1000여 명이 작업을 거부한 채 부평경찰서로 몰려가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임

『한겨레신문』 제894호(1991. 04. 09, 한겨레신문사)

04. 12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100여 명, 부평동 노동부 인천북부사무소에 몰려가 '체불임금 지급, 정상조업 재개' 등을 요구하며 농성 전개

『한겨레신문』 제898호(1991. 04. 13, 한겨레신문사)

04. 13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망치소리』 제1호 발간

『망치소리』 제1호(1991. 04. 13,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M00402515)

- ‘임금인상과 물가폭등저지 및 노동기본권수호를 위한 인천지역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부평역 앞에서 「인천지역 공동임투전진대회 및 대우자동차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려다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노동자·학생 1500여 명이 화염병을 던지며 부평역 앞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전개함

『한겨레신문』 제899호(1991. 04. 14, 한겨레신문사)

#### 04. 17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조합 조합원 2000여 명, 회사 측이 휴업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이에 반발해 청천동 사거리 등지에서 시위를 벌임

『한겨레신문』 제902호(1991. 04. 18, 한겨레신문사)

#### 04. 21

- ‘공해추방 인천시민의 모임’, 「지구의 날」 행사로 「내고장 살리기 범시민 걷기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921호(1991. 05. 10, 한겨레신문사)

- 수도권 지역 노동자 1000여 명,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우자동차 휴업조치의 즉각 철회’ 등을 촉구

『한겨레신문』 제906호(1991. 04. 23, 한겨레신문사)

#### 04. 23

-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박중열 조합원, 공장에서 근무 중 산재사고를 당해 사망함

『노동의 횃불』 제6호(1991. 05. 07,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M00514040)

#### 04. 24

-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주안1동 성당에서 「인천지역 부문·단체 비상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5월 투쟁평가와 이후 투쟁방향’ 등을 논의

「인천지역 부문·단체 비상 대표자회의」(1991. 04. 24,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와 민중기본권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M00413078)

- 인천민중학교, 6월 1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제2기 민중문예교실」 개최

『전국노동자신문』 제34호(1991. 04. 25,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4. 28

- 인천지역 탁아위원회 등 10개 단체, 주안 중앙성결교회에서 「동춘동 세쌍둥이 낳을 기리는 인천 시민의 자리」 개최. 인천지역 탁아위원회, 인천지역 주민회 · 인천여성노동자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 인천지역 공부방연합회 · 주거연합 인천지부 · 동인천 민중교회연합 · 북인천 민중교회연합 · 천주교 도시빈민회 인천지역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함

「동춘동 세쌍둥이 낳을 기리는 인천 시민의 자리」(1991. 04. 28, 인천지역 탁아위원회 외, M00125529)

- 해인교회, 「창립 5주년 기념잔치」 개최. 문익환 목사의 강연 ‘생명과 통일을 일궈가는 우리의 전진’ 등을 진행

「창립 5주년 기념잔치」(1991. 04. 28, 해인교회, M00447725)

#### 04. 30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대학생 1000여 명,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고 강경대 학우 추모식 및 폭력정권 규탄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913호(1991. 05. 01, 한겨레신문사)

- ‘공해추방 인천시민의 모임’, 부평3동 성당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1회 공해교실」 진행

『한겨레신문』 제921호(1991. 05. 10, 한겨레신문사)

#### 05. 02

- 인천 · 부천지역 대학생 1200여 명, 인천대학교에서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강경대를 살려내라’ 등의 결서를 쓰며 시위를 벌임

『한겨레신문』 제915호(1991. 05. 03, 한겨레신문사)

-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메그론 대표이사 앞으로 ‘○○○ 씨의 부당해고와 성추행건에 대한 항의의 건’이라는 제목의 항의문 발송.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이 항의문에서 한국메그론 여성노동자 ○○○ 가 ‘산업평화유지 위반’이라는 사유로 부당해고 당한 후, 출근투쟁을 전개하던 중 남자사원으로부터 성추행이 자행됐다고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함

1. 성추행 피해자 ○○○ 씨와 한국메그론 노동조합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2. 성추행, 폭언 등을 즉각 중지할 것과 ○○○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3. 회사 측은 ○○○ 씨의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복직시키기 바랍니다.

「항의문」(1991. 05. 02,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57845)

- 영창악기 노동조합 조직차장 김관현, ‘명령 불복종, 근무지 이탈, 농성 주도’ 등을 사유로 해고 당함. 김관현은 ‘단체협약 사항에 노조 간부의 부서

이동은 조합과 협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부서 이동을 시키고, 이후 불복하며 노조 집행부와 같이 농성에 돌입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철회한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음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고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해고실태조사서」(\*. \*. \*, M00409823)

### 05. 03

- 인천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합원들,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잇단 징계에 항의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조합사무실에서 농성 시작

『월간 더블어 사는 이웃』 제7호(1991. 05. 15, 인천지역 주민회, M00042521)

『한겨레신문』 제918호(1991. 05. 07, 한겨레신문사)

-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11명, '강경대 타살사건'을 규탄하며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

『한겨레신문』 제916호(1991. 05. 04, 한겨레신문사)

### 05. 05

- 인천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 부천여성노동자회 · 성남여성노동자회 · 부산여성노동자회, 그동안 따로 펴내던 회보를 하나로 묶어 『일하는 여성』 창간호 발행

『일하는 여성』 창간호(1991. 05. 05,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M00409434)

『한겨레신문』 제926호(1991. 05. 16, 한겨레신문사)

### 05. 07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부위원장 직무대행 서희택 · 사무국장 송승호 · 쟁의부장 김성갑 · 법규부장 정경철 · 차체대의원 이춘상 · 평조합원 3명 등 총 8명, 수배중인 상태에서 해고 결정 통보를 받음

「해고실태조사서」(\*. \*. \*, M00409823)

### 05. 08

-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경찰 800여 명이 투입돼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371명을 연행함

『한겨레신문』 제921호(1991. 05. 10, 한겨레신문사)

### 05. 09

- 인천지역 노동자 · 시민 · 학생 등 1만여 명, 동인천역 광장에서 「민자당 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경동사거리까지 이어지는 8차선 도로를 완전히 점거한 채 평화행진을 벌이며 시위 전개. 그중 2000여 명은 '민자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물포역 앞에서 부평역

1991년

광장까지 차도를 따라 시위를 이어감

『한겨레신문』 제921호(1991. 05. 10, 한겨레신문사)

**05. 10**

- 인천지역 전·현직교사 200여 명, 부평1동 성당에서 「폭력살인정권규탄과 교육자치 쟁취를 위한 교사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922호(1991. 05. 11, 한겨레신문사)

**05. 11**

- 인천지역 시민·노동자·학생 5000여 명, 부평역 광장에서 「고 박창수 노조위원장 옥중살인 및 원진레이온 직업병 살인규탄과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인해 부평시장 앞, 동인천역 앞, 인천시민회관 등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임

『한겨레신문』 제923호(1991. 05. 12, 한겨레신문사)

**05. 13**

- 동서식품 노동자 500여 명, '유령노조 해체, 민주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한 채 철야 농성 돌입. 동서식품은 1968년 5월 23일 설립한 회사로 인스턴트커피를 주로 생산하며 1900여 명이 근무 중. 인천지역에는 효성동 제1·2공장, 작전동 제3공장·인삼공장, 주안동 우유공장 등이 가동

「탄원서」(1993. 04. \*, 동서식품(주) 해고노동자 일동, M00402147)

『전국노동자신문』 제35호(1991. 05. 30,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 30여 명, '강경대 타살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우자 정부의 근본적인 민주개혁을 촉구하며 답동 가톨릭 회관에서 단식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924호(1991. 05. 14, 한겨레신문사)

**05. 18**

- 인천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파업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합원 분임토의를 열고 부당징계 철회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일 것을 조합원 90% 이상의 지지로 결의함

『전국노동자신문』 제35호(1991. 05. 30,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인천지역 시민·노동자·학생 등 500여 명, 동인천역 광장에서 「광주 민중항쟁 계승과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하고 답동 가톨릭회관 앞까지 도로를 걸으며 평화행진 진행

『한겨레신문』 제929호(1991. 05. 19, 한겨레신문사)

**05. 29**



- 코리아 스파이서 노동조합,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 돌입

『한겨레신문사』 제944호(1991. 06. 06, 한겨레신문사)

#### 06. 04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인천공설운동장 앞마당에서 「노동운동탄압 분쇄 및 91임투 축구대회」 개최

『전국노동자신문』 제35호(1991. 05. 30,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6. 07

- 삼미 노동조합, 4월 11일부터 회사 측과 임금인상 교섭을 시작해 6차 교섭이 진행된 이날 기본급 3만 4000원 등의 내용으로 임금인상액을 타결함. 3차 교섭시 노동조합 측 최종안은 기본급 7만 원이었으며 노동조합 홍보부장 이진희는 교섭 결과에 항의하며 이에 앞서 홍보부장직을 사퇴하였음. 삼미는 만석동에 위치한 철강 가공업체로 인천과 창원에 공장이 소재함

「(삼미) 이진희 씨 분신 경과」(1991. 10. \*, M00412749)

#### 06. 08

- 삼미 노동조합 전 홍보부장 이진희, 회사 지하 휴게실에서 「임금협상결과 보고대회」를 갖던 중 임금인상 폭이 적은 데 항의해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을 시도,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함. 이를 말리던 이진희도 2도 화상을 입고 화평동 소재 황인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음. 이날 밤 ‘(가칭) 노태우정권 퇴진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인천시민대책회의’와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모여 ‘(주)삼미 이진희씨 분신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용명과 양재덕을 공동대표로 선출. 이진희는 6월 15일 분신 8일 만에 사망함.

『속보』 1(1991. 06. 09, (주)삼미 이진희씨 분신 임시대책위원회, M00448329)

『전국노동자신문』 제36호(1991. 06. 1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한겨레신문』 제947호(1991. 06. 09, 한겨레신문사)

#### 이진희의 최후 육성 녹음

이진희는 1964년 출생하였으며 형제는 3남 6녀로 분신 당시 부모님은 안계셨음. 1991년 6월 9일, 가족들이 2차에 걸쳐 대담을 나누고 이를 녹취해 공개함

“분신은 언제 했는가?”

- “9시 반경인 것 같다”

“왜 분신했는가?”

- “임금인상 타결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분신의 동기는?”

- “동기? 내가 회사에서 배신을 당했어. 아예 개다. 동료들한테도, 그리고 회사한테도 당하고, 그리고…”

“당시 아침에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 “임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임투 결과를 통보하려고 모이게 한 것이다.”

“분신할 때 심정은 어떠했고, 당시 상황은?”

- “처음에 신나를 몸에 붓고 들어갈 때, 이 새끼들아 하고 겁줄려고 했는데 ○○가 말리는 과정에서 라이터를 켜고 말았다.”, “처음에는 분신할 마음이 없었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모두 도망가고 말았다”, “김○○ 만이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었다.”

“내가 홍보부장이었잖아, 그런데 사흘전에 사퇴한 것 이유는?”

- “조합에서 … 조합에서 어용적으로 했어, 노조를 어용적으로 했어”

“임금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보인 태도는 어떠했나?”

- “형식적이었어. 형식, 형식적, 형식적”, “우리가 봉급을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한 만큼 못받았어. 과연 우리가 일한만큼 받는가. 정부에서 내놓은 임금 10% 이하로 고정하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 고임금에서 10%면 많지만, 저임금에서 10%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한강 성심병원에 있는데 심정은 어떤가?”

- “회사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내가 없어짐으로써 이익을 챙길 사람들이 … 두렵다.”

“분신한 이후로 회사에서 어떤 성의를 보인 것 같애?”

- “몰라, 해준 게 없는 것 같애.”

“전국노동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우리는 정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 이 일한 만큼에 대해 돈을 받자.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문화생활을 하자.”
-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나 지금은 집안에 죄 지은게 아니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달라.”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나는 죽어도 삼미의 귀신이 될 것이다.”
  - “형, 그만 말할게. 물... 죽기전에 물 한컵 먹을게”

『민주노총 열사추모 홈페이지』(<http://yolsa.nodong.org>)

『속보』 1(1991. 06. 09, (주)삼미 이진희씨 분신 임시대책위원회, M00448329)

- 인천지역 노동자·학생 300여 명,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하려던 「6월항쟁 계승과 노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부평 1동 성당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동인천역 앞 등 시내 곳곳에서 늦은 밤까지 산발적인 시위를 벌임

『한겨레신문』 제947호(1991. 06. 09, 한겨레신문사)

- 서울·인천·부천지역 간호사 507명,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해 여러 민주 세력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강경 대군, 김귀정 양 폭력 살인 및 애국시민 권창수 씨 폭력만행의 책임자를 구속 처벌’ 등을 촉구함

『한겨레신문』 제946호(1991. 06. 08, 한겨레신문사)

- 인천여성노동자회,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주 수·토요일 「제1기 여성노동자 학교」 운영. 「제1기 여성노동자 학교」는 ① 주체적 여성, 진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②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실천과제의 정립, ③ 여러 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상호 교류를 통한 소모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정함

「평등의 새날을 열어갈 “제1기 여성노동자 학교” 소개와 참가안내」(1991. 05. 24,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56561)

## 06. 10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조합원 21명, 5월 24일부터 ‘정상조업 재개, 체불임금 지급 약속 이행, 회사 정리 시 고용 및 노조 승계’ 등을 요구하며 서울 명동 코스모스백화점에서 점거 농성을 벌임

『전국노동자신문』 제36호(1991. 06. 1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1년

- 인천대학교 학보에 경제학과 교수가 쓴 사설 ‘현 재단 정상화 타개방안’이란 제목의 사설이 문제가 돼 학교 측에서 제작중지 조치를 내린 후 신문 발행이 중단됨

『한겨레신문』 제1049호(1991. 10. 08, 한겨레신문사)

#### 06. 10

- 한국메그론 노동조합, ‘임금 1864원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전국노동자신문』 제37호(1991. 06. 2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6. 15

- 공성교통 노동조합 조합원 석광수, 노동조합 지도부가 연행된 데 항의해 분신을 시도하여 6월 24일 사망함

『전국노동자신문』 제37호(1991. 06. 2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석광수 약력

1961년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추동리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출생. 17세 때인 1977년 세일포장에서 임금노동자로 사회생활 시작. 20세 때 인천에 올라와 계산주차장에서 근무. 1982년 강국택시에 3년간 택시노동자로 근무. 계산동 노틀담 수녀원 장애인 돕기 후원회원. 1986년 공성교통 입사. 1991년 6월 15일 새벽, 지도부 석방을 요구하며 분신. 1991년 6월 24일 사망. 분신 당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음

「민주노총 열사추모 홈페이지」(<http://yolsa.nodong.org>)

「고 석광수 열사 영결식」(1991. 07. 14,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M00054274)

「석광수 동지 분신 진상보고서」(1991. \*.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택시지부 분신수습 대책위, M00329605)

#### 06. 18

- 인천노동선교문화원,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 간 매주 화·금요일, 「제1회 노동자 성서강좌」 진행

『한겨레신문』 제946호(1991. 06. 08, 한겨레신문사)

#### 06. 20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사용자 측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전면파업 돌입

『한겨레신문』 제957호(1991. 06. 21, 한겨레신문사)

## 06. 23

- 동서식품 노동조합, 5월 13일부터 농성을 진행해 오던 중 경찰이 진압을 시작하여 13명이 연행됨. 노동자 128명은 옥상으로 이동해 농성을 계속 이어감

『전국노동자신문』 제37호(1991. 06. 2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6. 27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소속 유재관,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정기총회 및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토론 중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피신 중 추락해 사망함

『민중화운동백서』(인명편 I), 175쪽(200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유재관 약력

1962년 음력 10월 2일 서울 출생. 1981년 서울 한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 1983년 학내 시위 주동자로 장기 수배를 당했다가 이듬해 학원자율화조치로 수배가 해제됨. 1986년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해 1987년 우아미가구에 입사했다가 노조민주화투쟁으로 해고 당함. 1989년 인천 목재노동자회 간사를 맡았으며 1990년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에 가입해 1991년부터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남부지부 노동반장 및 총회준비위원으로 활동해 왔음. 1991년 6월 27일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총회 준비를 하던 중 공권력 투입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하에 3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실족해 사망함. 용인 천주교 묘지에 안장

『민주노총 열사추모 홈페이지』(<http://yolsa.nodong.org>)

『(2003 천주교열사 합동추모미사) 열사여, 평화의 사도여!』(2003. 05. 1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M00477854)

## 07. 01

- 미미양행, 회사 사장 동생과 회사 인수자로부터 임금 2억 원과 마지막까지 투쟁했던 30여 명에 대한 14개월간의 보상금을 받기로 하며 294일 동안의 투쟁을 끝냄

『전국노동자신문』 제38호(1991. 07. 1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1년

07. 14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주안6공단 운동장에서 공성교통에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지도부의 연행에 항의해 분신, 사망한 석광수의 영결식 거행

「고 석광수 열사 영결식」(1991. 07. 14,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시지부, M00054274)

07. 15

- 동서식품 노동자 88명, 5월 13일부터 '유령노조해체'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후 공장 원두창고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여오다 농성 64일만에 농성을 풀고 내려옴. 이에 앞서 7월 12일, 노동자 측 협상대표 7명이 협상을 위해 원두창고를 내려와 협상에 임하던 중 교섭 장소에 들어온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됨

「탄원서」(1993. 04. \*, 동서식품(주) 해고노동자 일동, M00402147)

『한겨레신문』 제978호(1991. 07. 16, 한겨레신문사)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정태춘과 함께' 공연」 공동 주최

「보도의뢰서」(1991. 07.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등 3개 단체, M00848614)

『전국노동자신문』 제39호(1991. 07. 15,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7. 16

- 동국제강 인천공장을 포함한 부산 · 포항공장 등 노동조합 조합원, 회사 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전면 파업 돌입

『한겨레신문』 제979호(1991. 07. 17, 한겨레신문사)

07. 24

- 노동자대학 관계자 11명, 경찰과 교육청에 의해 폐쇄된 노동자대학 건물에 들어가 새벽부터 항의농성을 벌여오던 중 진압을 위해 동원된 경찰 100여명에 의해 연행됨

『한겨레신문』 제986호(1991. 07. 25, 한겨레신문사)

07. 26

- 노동자대학 학생 5명, 노동자대학 폐쇄조처에 항의해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농성을 벌이다 공무상표시무효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됨

『한겨레신문』 제988호(1991. 07. 27, 한겨레신문사)

08. 03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8월 5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등나무 캠프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라는 주제로 「제3회 인천기독교노동자 여름수

련회」 개최

「제3회 인천기독교노동자 여름수련회」(1991. 08. 03,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M00447913)

**08. 17**

- 연안동 등 주민 30여 명, 연안부두 일대 공해 추방을 목표로 한 ‘연안부두 지역 공해방지대책위원회’구성

『한겨레신문』 제1011호(1991. 08. 23, 한겨레신문사)

**08. 2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서울지부·경기지부 해직교사 및 인천교육대학교·인하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등 200여 명,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규탄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1010호(1991. 08. 22, 한겨레신문사)

**08. 22**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선인학원 재단 측이 8월 1일부로 교직 경력이 없는 국가 고위 간부 출신을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임명하자 이에 반발해 학과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1030호(1991. 09. 14, 한겨레신문사)

- 유진상사,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80% 찬성으로 쟁의 발생을 결의한 후 잔업거부, 휴식시간 집회 등 준법투쟁 시작

『전국노동자신문』 제41호(1991. 08. 29,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제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해고자 등의 생계보장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안’을 참석대의원 85% 찬성으로 통과시킴

『전국노동자신문』 제41호(1991. 08. 29,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8. 23**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천지회·경기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교권탄압행위 중지를 촉구

『한겨레신문』 제1012호(1991. 08. 24, 한겨레신문사)

**08. 24**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개소식 거행

『흔을』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08. 28**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신안식 부의장, 4월 13일 개최된 「인천지역 임

1991년

투전진대회」 원천봉쇄에 항의하며 벌인 가두시위와 관련해 수배를 받아오다 이날 구속됨

『전국노동자신문』 제42호(1991. 09. 1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8. 29

-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박재규 총장 및 재단 이사진의 전원 퇴진 및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구하며 총장실과 7개 사무실을 점거

『한겨레신문』 제1030호(1991. 09. 14, 한겨레신문사)

09. 06

- 노래패 노래선언, 창단 기념으로 9월 7일까지 이틀간 부평1동 성당 교육관에서 「인천 1991년 6월」이라는 제목의 노래극 개최

『전국노동자신문』 제41호(1991. 08. 29,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9. 07

- 아남산업 부평1공장 노동조합 현판식 개최

『전국노동자신문』 제42호(1991. 09. 1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9. 12

- 교육부,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선인학원에 대학정책실 조사반을 보내 특별실태조사에 착수

『한겨레신문』 제1029호(1991. 09. 13, 한겨레신문사)

09. 16

- 인천시 북구의료보험조합 이원필 전 노조지부장, 5월 4일 불법노조활동을 이유로 파면 조치된 데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와 함께 복직 결정 받음

『부평민중당보』 창간호(1991. 10. 15, M00131565)

09. 19

- 인항여객 노동조합, 임금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 인항여객은 인천~강화 사이의 버스를 독점 운행하고 있는 업체임

『한겨레신문』 제1035호(1991. 09. 20, 한겨레신문사)

09. 20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최동식(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남일금속 노동조합 위원장), 1995년 5월의 총파업 투쟁으로 수배 중 9월 19일 밤 영등포역에서 경찰 특수수사대 20여 명에게 불심 검문을 받고 연행되어 이날 구속됨



『전국노동자신문』 제43호(1991. 10. 0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부평민중당보』 창간호(1991. 10. 15, M00131565)

『한겨레신문』 제1036호(1991. 09. 21, 한겨레신문사)

#### 09. 24

- 까르텔 수도권 정대식 신부, 계양산을 민자유치에 의해 개발하기로 한 인천시의 방침에 대해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31개 천주교회 및 수녀·수도원 신부, 조계종 지선사 주지 등의 서명을 받아 건설부와 인천시에 탄원서 제출

『부평민중당보』 창간호(1991. 10. 15, M00131565)

#### 09. 27

- 세일고등학교 학생 1000여 명, 9월 19일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에서 세면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때려 고막을 터뜨린 사건에 항의해 교내 복도에 모여 수업을 거부하며 농성 시작

『한겨레신문』 제1042호(1991. 09. 29, 한겨레신문사)

#### 09. 30

- 남일금속 노동조합, 회사 앞마당에서 조합원 550여 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동식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석방 촉구대회」를 개최함

『전국노동자신문』 제43호(1991. 10. 0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10. 04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구속 중인 최동식 의장을 재선출하는 한편, 의장 직무대행에 김기자 전 사무처장을 선출. 부의장에는 구속 중인 신안식 대흥기계 노동조합 부평지부장·이현기 대원강업 노동조합 주안지부장, 사무처장에는 조태천 경일화학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함

『전국노동자신문』 제44호(1991. 10. 1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10. 08

- 정요일 교수 등 인천지역 각계 인사 46명, 인천시가 민자를 유치해 계양산을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유적지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지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

『한겨레신문』 제1050호(1991. 10. 09, 한겨레신문사)

- 고려시스템 노동자 800여 명, 회사가 OPT(동양정밀)그룹을 무리하게 인수하며 10월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자 사무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 날부터 실질적 모그룹인 한국화약이 노동자들의 사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농성 시작

1991년

「고려시스템 생존권 사수 52일 투쟁보고서-이제 우리 투쟁이다」(1991.11.\*, M00857651)

『전국노동자신문』 제46호(1991. 11. 1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한겨레신문』 제1050호(1991. 10. 09, 한겨레신문사)

## 10. 11

-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 결성준비위원회’ 발족

『계양산 골프장 반대운동 6년의 기록』, 27쪽(2011,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 아남정공 노동조합 현판식 개최. 1990년 말 아남시계 노동조합과 한등 노동조합이 합병한 후 11월만에 개최된 행사로 150여 명이 참석함

『전국노동자신문』 제44호(1991. 10. 1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10. 13

- 통합 인천민중교회연합 발족. 김영철 목사(고백교회)가 회장, 윤인중 목사(새벽교회)가 총무를 맡음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 10. 16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 인천지역 대기업노동조합 연대모임 · 인천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인천 · 부천지부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시지부 ·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 · 인천민중교육연구소 · 인천민중연합 · 민중당 · 국민연합 인천본부 후원으로 「ILO가입과 노동법 개정 투쟁」을 주제로 한 「인천지역 공청회」 개최

「ILO가입과 노동법 개정 투쟁」(1991. 10. 16,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외, M00405745)

## 10. 17

- 오용호 신부 · 박기현 민중당 인천남동구 위원장 · 김명숙 인천구속자가족협의회 회장 · 국민연합 인천본부 소속 회원 70여 명, 학익동 인천구치소 앞에서 시국관련 재소자에 대한 ‘접견제한 완화, 도서검열 금지, 운동시간 연장, 교도관들의 구타 금지’ 등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임

『한겨레신문』 제1058호(1991. 10. 18, 한겨레신문사)

- 제2회 인천지역 보건의료인 모임이 푸른치과에서 개최됨. 평화의원 상담실장 정경심이 ‘인천지역의 산재실태와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

『건강한 노동자 깨어있는 노동자』 제7호(1991. 11. 11, 평화의원 상담실 · 푸른치과 상담실, 남동진료소, M00409426)

10. 18

- 광원산업 노동자 12명이 모여 가정동 소재 현대가든에서 노동조합 결성대회 개최.

『1993년도 제2년차 정기총회 회의자료』(1993. 11. 12, 동남레미콘 노동조합, M00411891)

10. 20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백석 하늘의 문 묘원에서 「고 강석태 형제 추모미사」 진행.

『인천주보』 제1105호(1991. 10. 13, 천주교 인천교구)

10. 23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신안식 부의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됨

『전국노동자신문』 제45호(1991. 10. 3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1. 02

- 인천여성노동자회,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주 수·토요일 「제2기 여성노동자교실」 운영. 이날 진행된 입학식에는 모두 11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함

「평등의 새날을 열어갈 '제2기 여성노동자교실' 소개와 참가안내」(1991. 10. 16,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56609)

「2기 여성노동자 교실 사업보고와 평가」(1991. \*. \*, 인천여성노동자회, M00856592)

11. 06

- 인천지역 노동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부평1동 성당 교육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대회 개최.

『전국노동자신문』 제46호(1991. 11. 1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1. 08

- 코스모스전자 노동조합, 회사 측과 '퇴직금 전액 지급, 위로금 2억 7500만원 지급, 제3자 또는 이사급 이상 경영진 인수 때 조합원 우선 고용, 고소 고발 취하' 등에 합의. 이후 11월 26일 보고대회를 열고 272일 간의 투쟁을 끝냄

『전국노동자신문』 제48호(1991. 12. 1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1. 09

- '청솔의 집', 구월동 모래내 시장 인근에서 개소. 1992년 2월, 어린이 공부방 개원

『한겨레신문』(2013. 09. 30, 한겨레신문사)

「전국실업단체연대 홈페이지」(<http://www.psau.or.kr/>)

## “청솔의 집”은 나의 삶의 터전’(이충각)

91년 청솔의 집을 개원하기 전에 공장생활을 다시 시작한 곳은 남동공단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해야만 취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5, 6공단은 업무도 못내고 새로 형성되기 시작한 남동공단으로, 그리고 내 나이가 이미 40세를 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기혼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작은 공장을 전전했죠. 다시 찾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아줌마들도 사회나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작은 공장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나의 경험을 활용하여 아줌마들과 남동공단의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모래내 마을에 자리를 잡은 ‘청솔의 집’이죠.

모래내 마을은 남동공단에 인접해 있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 마을에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91년 문을 연 것이 청솔의 집이었습니다. 공부방, 주민교육, 도서대여, 진료사업 그리고 IMF 때에는 실업본부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노동자를 만날 수 있다는 처음 생각은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공부방과 지역주민활동, 그리고 실업자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매개가 되어 남동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부 돈 받고 일하고 싶지 않고, 어렵고 소박하지만 우리 힘으로 당당하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필요한 일이다 싶어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이웃도 많이 만나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성혜, 「낮은 곳으로, 험한 곳으로 - ‘청솔의 집’ 이충각 선생님」,  
179쪽(2003, 『기억과 전망』 2003 · 가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 결성준비위원회’, 계산동 성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공청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1078호(1991. 11. 10, 한겨레신문사)

- 인천산재노동자회 · 대우조선산재보우회 · 전국산업재해자연합회 · 전국산재장애자협회 등 9개 산업재해 단체, 중앙병원 3층에서 「김성애 산재열사 4주기 추모제 및 산재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앙병원 측이 장소 허가를 불허해 무산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산재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해산됨

『건강한 노동자 깨어있는 노동자』 제7호(1991. 11. 11, 평화의원 상담실 · 푸른치과 상담실, 남동진료소, M00409426)

## 11. 12

- 고려시스템 노동자들, 제3기 ‘고려시스템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 발대식 개최

「고려시스템 생존권 사수 52일 투쟁보고서-이제 우리 투쟁이다」(1991.11.\*, M00857651)

## 11. 21

- 고려시스템 노동자들, 서울 한국화약그룹빌딩 1층 로비를 점거, 연좌 농성을 전개하다가 69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됨.

「고려시스템 생존권 사수 52일 투쟁보고서-이제 우리 투쟁이다」(1991.11.\*, M00857651)

『전국노동자신문』 제47호(1991. 11. 28,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11. 23

- 동서식품 노동조합, 8월 17일 민주노조를 결성한 후 이날 현판식 거행

『전국노동자신문』 제47호(1991. 11. 28,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11. 27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시지부 지부장 구영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됨

『한겨레신문』 제1093호(1991. 11. 28, 한겨레신문사)

## 11. 28

- 인천대학교 · 인하대학교 학생 400여 명, 인천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전국연합 발족 사수 및 수입개방 저지와 전시지원협정 무효화 선언을 위한 5만 학도 전진대회」 개최. 집회를 마친 후에는 부평역 앞 등지에서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함

『한겨레신문』 제1094호(1991. 11. 29, 한겨레신문사)

## 12. 04

-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지역 택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 부천지부가 공동 주최하여 「올바른 직장택

1991년

아소 설치를 위한 인천지역 토론회」 개최

『민주여성』 제12호(1992. 03. 20, 한국여성단체연합)

## 12. 07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부평1동 성당 교육관에서 「민주정부수립과 총선승리를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 개최

「민주정부수립과 총선승리를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1991. 12. 07,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M00857848)

## 12. 09

- 삼광유리 노동조합 조합원들, 7월 말 회사 인근에 위치한 한국카리화학에서 염화수소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돼 피해를 본 데 대해 ‘카리화학은 가스 누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학익초등학교 앞에서 배포하다 경찰에 연행됨

『한겨레신문』 제1103호(1991. 12. 10, 한겨레신문사)

## 12. 11

-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인천지역 노동자·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부평1동 성당 교육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 발족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14대 총선에 민중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선언

『한겨레신문』 제1105호(1991. 12. 12, 한겨레신문사)

## 12. 12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구수영 지부장의 부당한 구속에 반발하며 한국노총 인천본부 강당에서 「구 지부장 석방 및 지입제 도급제 철폐 촉구 대회」 개최

『전국노동자신문』 제49호(1991. 12. 2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인천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 13일까지 이틀간 부평1동 성당 교육관에서 창단 4주년 정기 공연 개최

『노동의 햇불』 제10호(1992. 01. 09,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M00514038)

## 12. 16

-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6명 중 43명, 재단 측이 12월 13일 박재규 총장을 조기 퇴임시키고 교수협의회 의장 장석우 교수를 징계하려는 움직임 등에 반발해, ‘박총장 퇴임에 대한 진상규명, 재단비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요구’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철야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1109호(1991. 12. 17, 한겨레신문사)

『연합뉴스』(1991. 12. 16)

**12. 17**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 인천여성노동자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인천기독교청년협의회 등 6개 단체, '외래상품추방, 수입개방반대 인천시민모임' 발족식 개최

「외래상품추방, 수입개방반대 인천시민모임 발족식 및 강연회」(1991. 12. 17,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등, M00848407)

『한겨레신문』 제1110호(1991. 12. 18, 한겨레신문사)

**12. 18**

-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0여 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2월 20일까지 재단 측의 총장 임명과 교수협의회 회장 장석우 교수의 징계조처에 대응하기 위해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

『한겨레신문』 제1111호(1991. 12. 19, 한겨레신문사)

**12. 20**

-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장석우 교수, '학원정상화를 빌미로 일부 학생 · 교수들을 선동'했다는 사유로 선인학원 재단 측으로부터 파면조처 당함

『한겨레신문』 제1114호(1991. 12. 22, 한겨레신문사)

**12. 22**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백마교회에서 20여 명의 재건회원과 70여 명의 회원, 기독교 인사, 지역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3차 재건 결성대회 개최. 사무실은 북구 청천2동 179-15 백마교회 내에 둠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결성 선언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오늘날 민족이 분열되고 국토가 분단되어 있으며 외세의 간섭과 독재세력의 지배하에 신음하고 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영생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 '작은 예수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1991년

작은 예수의 소명을 받은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은,

하나, 분단된 조국을 7천만 겨레의 염원에 따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의 참신앙정립과 민족, 민주적 갱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생산과 역사의 주체인 노동형제들의 사회,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예수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은 지역 기독교노동자들을 참신앙인으로 무장시키고 조직적으로 견인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모든 회원은 참신앙정립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그리고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리하여 작은 예수로서의 소명, 즉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 평등과 자유와 통일이 완성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헌신할 것을 결의하며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의 결성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1991. 12. 22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결성대회」(1991. 12. 22,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56066)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3차재건 제4기 정기총회」(1994. 11. 05,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1994.11.05)

## 12. 25

### • 인천지역 철거민들, 「91년도 대동제」 개최

『흔을』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1992년

## 01. 16

- ‘십정동 철거대책위원회’ 결성

『흔을』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01. 14

-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간부 등 50여 명, 총장실을 폐쇄하고 총학생회 회의실에서 학원정상화를 요구하며 철야농성 돌입

『경향신문』 제14287호(1992. 01. 14, 경향신문사)

## 01. 15

- 선화여자중학교 교사 35명, 이 학교 교사인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 교사 대표 이세영이 선인재단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긴급회의를 열고 징계철회와 학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학교 건물 4층 교사 휴게실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1133호(1992. 01. 16, 한겨레신문사)

## 01. 24

- 계산중앙교회에서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결성대회」 개최

『인천주보』 제1130호(1992. 03. 29, 천주교 인천교구)  
『계양산 골프장 반대운동 6년의 기록』, 27쪽(2011,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 02. 01

- 송현산마루교회 김정택 전도사, 1991년 5월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 생존권 수호를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1991년 5월 9일에 있었던 「고 강경대 살해사건 규탄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오던 중 경찰에 연행, 구속됨

『인천연합』 창간호(1992. 02. 18,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356091)  
「김정택 전도사님 석방을 위한 호소문」(1992. \*. \*, 송현산마루교회 교유 일동,  
M00332324)

## 02. 13

-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 시민의 모임’, 도화동 성당에서 「선인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1158호(1992. 02. 15, 한겨레신문사)

## 02. 14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창립식 및 창립 대의원대회」 개최. 7개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인천기독교 사회운동연합이 참여 예정으로 있었고, 민중당이 참관단체로 결합함. 상임의장에 양재덕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의장 선출.

### 〈의장단 구성〉

- 양재덕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의장)
- 조용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 정성준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 김정택 (국민연합 인천지부 공동의장)
- 최동식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새로운 연합체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이 출범합니다」(1992. \*. \*,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848743)

『인천연합』 창간호(1992. 02. 18,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356091)

『한겨레신문』 제1158호(1992. 02. 15, 한겨레신문사)

###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결성 선언문

민중의 힘과 가열찬 투쟁으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새날을 앞당기자

우리는 오늘 투쟁 속에서 성장한 인천지역 각 부문과 모든 민족민주 운동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의 결성을 선언한다.

백여년에 걸친 장구한 세월동안 우리 민중은 외세와 독재세력에 의해 빼앗긴 자유와 권리를 되찾고, 근로민중이 참주인으로 우뚝서는 진정한 민주사회,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투쟁을 계속 해 왔다. 갑오농민전쟁과 일제하 민족해방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해방

후 통일된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한 피나는 투쟁, 4·19혁명, 부마항쟁,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쳐, 86년 인천 민중투쟁과 87년 전국적 6월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 91년의 5월 대투쟁에 이르기까지 민중들의 투쟁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 왔다.

개항 이래 외세침략에 맞서 면면히 투쟁해 온 인천민중들의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특히 그간 민족민주운동의 통일 단결을 도모해 왔던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과 〈민자당 장기집권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 인천본부〉의 성과를 모아,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가치를 더욱 힘차게 들고자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을 결성하는 것이다.

이 순간 우리는 민중이 힘과 투쟁을 총결집하여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절감한다.

사회주의권의 대격변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래, 미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제3세계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 핵사찰을 구실로 북한에 대한 무력도발도 불사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체결 등으로 군사적 예측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의 전면적인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편승한 독재정권과 독점재벌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경제정책과 남북대결,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 등으로 민중의 고통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배세력은 권력재편기에 임하여 자신들의 안정적인 재집권을 기도하고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기 위해 더욱 광분하고 있다.

따라서 민중의 고통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속에서 현재의 지배질서가 그대로 안정화될 것인가, 아니면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저들의 기도를 돌파하여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운명을 외세와 지배세력의 농간에 내맡기지 않을 것이며,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이미 외세와 독재의 야성을 허물기 시작했음을 확신한다. 우리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영세상공

인, 교사,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근로민중들은 지난 4년 간의 조직적 진출과 연대의 강화를 통해 더욱 각성하게 되었고 전례없이 뜨거운 통일 단결의 의지로 뭉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진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한 탄압과 임금억제기도를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려는 투쟁 속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저지하고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위해 투쟁하면서, 그리고 참교육의 실현을 위해 싸워오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제각기 하나하나의 물줄기를 이루어 왔던 각계각층의 민중운동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대의에 함께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여 이제 거대한 민중연대의 강물로 융솟음쳐야 함을!

전민중적이고 전민족적인 단결과 투쟁 속에서만 분단과 독재를 끝장내고 민중생존이 보장되며, 민중이 주인되고 민족이 하나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그 순간까지 어떠한 고난과 진통이 따를지라도 이제 마주잡은 손 놓지 않고 통일단결된 민중의 힘으로 변혁과 건설의 역사를 창조해 나갈 주체로서 우뚝서야 함을!

오늘 이같은 민중투쟁 속에서 얻은 실천과 교훈과 각계각층 인천지역 민중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결성되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은 그간 민족민주운동이 축적해온 귀중한 정치적 조직적 역량들을 최대한 광범하게 결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대오에는 지배세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족민주운동의 대의를 올곧게 지켜온 인천지역의 민주인사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파쇼적 폭압을 뚫고 전투적으로 성장해온 민중운동역량이 든든한 주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은 온힘을 다하여 민중생존권을 수호하고 사회 전영역의 민주개혁을 실현하며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자주권을 쟁취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민족통일을 이룩해 갈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은 노골화되고 있는 지배세력의 장기집권 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앞장서 싸울 것이며, 모든 민주세력이 총단결하여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승리의 열매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로써 대중 속에 부식되는 패배주의와 정치적 허무주

의를 일소하고, 지배세력의 가중되는 탄압과 개량화 공세에 휘말려 변혁의 전망을 상실하고 타협하거나 동요하는 모든 세력들까지 다시 투쟁전선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은 기층 민중의 가열찬 투쟁의지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인천민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정치조직적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의 중심이자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역사적 소임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민중의 단결된 투쟁만이 역사를 한결음씩 전진시켜왔음을 되새기며 인천민중의 투쟁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의 깃발이 나부끼게 할 것이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으로 총단결하여

민주주의 민족통일 민중해방의 새날을 힘찬 투쟁으로 맞이하자!

민주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만세!

1992년 2월 14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창립 대의원 대회」(1992. 02. 14,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13313)

## 02. 16

- 인천기독교 사회운동연합, 인천대학교 인문관 4층 합동강의실에서 「대의원 총회 및 문화공연」 개최

「대의원 총회 및 문화공연」(1992. 02. 16, 인천기독교 사회운동연합, M00447667)

## 02. 17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동지』 창간호 발행.

『동지』 창간호(1992. 02. 17,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M00409404)

## 02. 18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소식지 『인천연합』 창간

1992년

『인천연합』 창간호(1992. 02. 18,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356091)

02. 21

- 인성기연 · 인텍스 노동자 16명, 회사 부도 이후 두 달 넘게 생존권 사수투쟁을 벌여 오다가 이날 노동부 항의 농성을 진행하던 도중 경찰에 모두 연행됨. 인텍스 노동조합 위원장 김은미와 인성기연 부위원장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됨

『전국노동자신문』 제50호(1992. 02. 2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2. 22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인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인천 · 부천연합 창립 보고대회 및 민자당 심판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인천시민 결의대회」 개최. 대회 중 경찰과의 충돌로 1명이 부상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음

『동지』 창간호(1992. 02. 17,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M00409404)

『인천연합』 창간호(1992. 02. 18,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356091)

『인천연합』 제3호(1992. 03. 09,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1788)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희망의 소리 1-민주쟁취의 한마음으로 민자당을 심판합시다」(1992. 02. 23,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M00858273)

- 성남기업 노동조합,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돌입

『전국노동자신문』 제50호(1992. 02. 2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2. 26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인천민중연합 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코스모스, 고려시스템 투쟁 보고와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인천 토론회」 개최

『전국노동자신문』 제51호(1992. 03. 1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민주여성』 제12호(1992. 03. 20,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남기업 노동조합, 2월 22일부터 파업을 진행해 오다 ‘유니온샵 인정, 가족수당 · 위험수당 신설’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끝냄

『전국노동자신문』 제51호(1992. 03. 1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2. 29

- 인천여성노동자회, ‘나눔공부방’ 현판식 개최. 인천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는 나눔탁아소 교사와 자모를 중심으로 결성된 ‘공부방추진위원회’가 재정을 마련하여 나눔탁아소 2층에 개설

『민주여성』 제12호(1992. 03. 20, 한국여성단체연합)

03. \*

- 인천노동자문화회, 「제1회 인천 노동자 문학상」 작품 공모

『글터』 제2호(1992. 03. 28, 인천노동자문화회, M00437012)

### 03. 02

- 인천지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하 대지회 등 인천지역 제 단체들이 모여 '국민주권 바르게 행사하기 및 공명선거 실천 인천시민회의' 결성. 3월 5일 주안1동 성당에서 출범 기자회견 개최

『인천연합』 제3호(1992. 03. 09,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1788)

「공명선거 실현하여 민주사회 이룩하자!」(1992. 03. \*, 국민주권 바르게 행사하기 및 공명선거 실천 인천시민회의, M00413168)

### 03. 08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민주노동청년회 · 노동자 문화마당 일터, 인천대학교 인문관에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공동 주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전진대회」(1992. 03. 08, 인천여성노동자회 외,

M00848287)

『민주여성』 제12호(1992. 03. 20, 한국여성단체연합)

### 03. 14

- 노동자 문화마당 일터, 창립 1주년 기념공연 '함께 가자, 투쟁의 한길로!'를 인천대학교 소극장에서 공연

「92노동자문화마당 일터 창립1주년 기념공연」(1992. 03. 14, 노동자 문화마당 일터,

M00448223)

### 03. 15

- 우성기계 노동조합 결성. 우성기계는 남동공단에 위치한 회사로 130여 명이 근무

『공동소식지』 2(1992. 05. 27, 홍창물산 등 신규노동조합, M00516451)

『전국노동자신문』 제54호(1992. 04. 15, 전국노동조합협의회)

「92년 해고노동자의 함성」(1992. \*. \*, 92년 해고자 일동, M00407294)

### 03. 18

- 부평1동 성당 교육관에서 「92임투전진대회」 개최

『전국노동자신문』 제52호(1992. 03. 2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3. 20

- 대우자동차 해고자 15명, 회사 정문 앞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다가 대기 중 이던 부평경찰서 기동대에 의해 10여 분만에 모두 연행되어 2~3일간의 구

1992년

류처분을 받음

『전국노동자신문』 제52호(1992. 03. 2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삼익목재 · 성남기업 등 서구지구 8개 목재업종 노동조합 대표자들, 3월 20일과 3월 25일 회의를 열고 '공동임투'를 결의

『전국노동자신문』 제54호(1992. 04. 15,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3. 21

- 인천여성노동자회, 22일까지 이틀 간 유세장 및 거리 등지에서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깨끗한 한표 행사', '자식을 위해 바른표 행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표 참여 캠페인 전개

『민주여성』 제12호(1992. 03. 20, 한국여성단체연합)

### 03. 24

- 상민전자 노동조합 결성. 4월 17일 신고필증 교부받음. 상민전자는 주안6공단에 위치한 카스테레오 제작 업체로 종업원은 130여 명 규모

『공동소식지』 2(1992. 05. 27, 홍창물산 등 신규노동조합, M00516451)

『전국노동자신문』 제54호(1992. 04. 15, 전국노동조합협의회)

「92년 해고노동자의 함성」(1992. \*. \*, 92년 해고자 일동, M00407294)

### 03. 26

- 선인학원 산하 학교의 학생 · 교사 · 교수 등 2000여 명, 인천대학교 민주광장에서 학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회 개최. 집회가 끝난 후 일부 학생들은 인천대학교 총장 · 부총장실과 4개 처장실을 점거하며 철야 농성 돌입

『동아일보』 제21778호(1992. 03. 27, 동아일보사)

『한겨레신문』 제1195호(1992. 03. 27,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3월 31일까지 「92임투교실」 진행

『전국노동자신문』 제53호(1992. 04. 08,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3. 27

- 동국제관 노동조합 결성. 동국제관은 부평에 위치한 포장용 철제강통 생산 업체로 생산직 노동자 30여 명이 근무

「92년 해고노동자의 함성」(1992. \*. \*, 92년 해고자 일동, M00407294)

### 03. 28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연합회 창립. 각 본당 청년단체와 인천교구 산하 청년단체들이 연합하여 결성

『인천주보』 제1133호(1992. 04. 19, 천주교 인천교구)

### 03. 29



- 홍창물산 노동조합 결성. 홍창물산은 주안 6공단에 위치하며 통신전자 계측기와 인공위성 수신기를 생산하는 업체임

『공동소식지』 제2호(1992. 05. 27, 홍창물산 등 신규노동조합, M00516451)

「92년 해고노동자의 함성」(1992. \*. \*, 92년 해고자 일동, M00407294)

### 03. 31

-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계양산에 대규모 위락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대양개발에 대해 불법 벌목 등을 이유로 인천지검에 고발함

『한겨레신문』 제1200호(1992. 04. 02, 한겨레신문사)

### 04. 04

- 수복기계 노동조합 결성. 수복기계는 주안에 위치한 대우중공업 하청업체로 생산직 노동자 20여 명이 근무

『공동소식지』 2(1992. 05. 27, 홍창물산 등 신규노동조합, M00516451)

「92년 해고노동자의 함성」(1992. \*. \*, 92년 해고자 일동, M00407294)

### 04. 05

- ‘일신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일신동 철거지역에서 「일신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인천지역 철거민 단합대회」 개최

『흔을』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일신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인천지역 철거민 단합대회」(1992. 04. 05, 일신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04. 08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하대학교에서 4월 10일까지 3일간 총회 개최. 4월 9일에는 ‘범청학련 결성을 위한 남쪽 준비위원회’ 발족

『경향신문』 제14371호(1992. 04. 10, 경향신문사)

『한겨레신문』 제1223호(1992. 04. 30, 한겨레신문사)

### 04. 13

-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재단 이사진 전원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장석우 교수 파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수업을 전면 거부한 채 학생회 간부 300여 명이 7개 단과대학 학장실을 점거, 무기한 농성에 돌입

『한겨레신문』 제1209호(1992. 04. 14, 한겨레신문사)

### 04. 14

- 신창튜빙 노동조합, ‘기본급 일당 3074원, 상여금 100% 인상, 전임자 1명 추가, 조합활동시간·교육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1992년

『전국노동자신문』 제55호(1992. 04. 2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4. 17

- 교육부, 학내분규가 계속 진행 중인 인천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 착수

『한겨레신문』 제1212호(1992. 04. 17, 한겨레신문사)

04. 18

- 선인학원 산하 초·중·고·대학의 교수·교사·학생 등 2000여 명, 인천 대학교 운동장에서 「선인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결의대회」 개최

『동아일보』 제21799호(1992. 04. 19, 동아일보사)

04. 19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일신동 철거지역에서 「92 인천지역 철거민 주거권 쟁취 전진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인천지국 협의회,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연구소, 공해추방 인천시민모임, 노동자신문,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후원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04. 22

- 남일금속·신광기업·아남정공 등 총액대상업체 12개 노동조합, 전국병원 노동조합연맹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공대위 준비위원회’ 구성

『전국노동자신문』 제56호(1992. 04. 29,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4. 25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도림동 철거 지역에서 「4·27 강제폭력철거 저지를 위한 도림주민결의대회」 및 「철거민, 노동자, 학생 연대의 밤」 개최

「철거민, 노동자, 학생 연대의 밤」(1992. 04. 2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04. 30

-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 5명, 학생들을 선동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제적됨

『한겨레신문』 제1224호(1992. 05. 01, 한겨레신문사)

- 인천기독교 사회운동연합 주최,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주관으로 백마교회에서 「5·1 세계노동자의 날 기념예배」 개최

「5·1 세계 노동자의 날 기념예배」(1992. 04. 30, 인천기독교 사회운동연합,

M00356115)

## 05. 04

- 연안부두 노점상 김창용, 중구청의 연안부두 노점상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중 분신. 김창용은 연안부두에서 10여 년간 노점상을 해왔으며 연안동에서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한 경력을 갖고 있음

『가로수』 호외(1992. 05. \*, 전국노점상연합회, M00120912)

「벼랑에 선 연안부두 노점상」(1993. 08. 18, 연안부두 노점상 일동, M00045053)

- 홍창물산 노동조합 사무장 신선아·교육부장 최선미·문화부장 양정민, '근무지 이탈, 명령불복종, 불법선동' 등을 사유로 해고됨

「92년 해고노동자의 함성」(1992. \*. \*, 92년 해고자 일동, M00407294)

## 05. 06

-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5명, 송림동 집단매물 사태로 인한 유족보상비가 학교 교비에서 지출된 것과 관련해 선인학원 이사장 등을 사립학교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함

『한겨레신문』 제1228호(1992. 05. 07, 한겨레신문사)

- 연안부두 노점상 50여 명, 5월 4일 노점상 김창용이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노점상연합회, 인천주거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등과 함께 중구청을 방문하여 농성하는 한편 중구청장과 면담 진행. 면담을 끝내고 나오던 중 전국노점상연합회 양연수 의장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김영숙 등이 경찰에 연행됨

『가로수』 호외(1992. 05. \*, 전국노점상연합회, M00120912)

- 한국OA시스 노동조합, '기본급 3350원, 상여금 100% 인상, 교통·근속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과 교섭을 진행하던 중 '차등인상'을 내세우는 회사 측에 반발하며 파업 돌입

『전국노동자신문』 제58호(1992. 05. 1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5. 07

-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부평신협회관에서 각계 인사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산 위락공원 건설계획 저지를 위한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1229호(1992. 05. 08, 한겨레신문사)

## 05. 08

- 학교법인 선인학원,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학생 12명을 '9월 30일 오전 인천전문대학 본관 재단 감사실의 창틀을 부수고 들어가 집무중인 재단 상임감사 등 7명을 끌어내 학교 밖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혐의

1992년

로 동부경찰서에 고발

『한겨레신문』 제1230호(1992. 05. 09, 한겨레신문사)

#### 05. 09

-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모임’, 시민·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안1동 성당에서 인천시청 앞 광장까지 「선인학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 걷기대회」 진행

『정의평화』 제76호(1992. 07.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겨레신문』 제1231호(1992. 05. 10, 한겨레신문사)

- 5월 4일 연안부두 노점상 김창용 분신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노점상연합회·전국빈민연합이 공동명의로 ‘노점단속·강제철거는 중단되고 민자당 정권은 심판해야만 합니다’라는 제목의 ‘4천만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가로수』 호외(1992. 05. \*, 전국노점상연합회, M00120912)

- 홍창물산 노동조합, 쟁의발생 신고

「92년 해고노동자의 함성」(1992. \*. \*, 92년 해고자 일동, M00407294)

#### 05. 11

- 인천시의회 계양산개발청원심사특별위원회, 계양산 산림훼손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

『한겨레신문』 제1231호(1992. 05. 10, 한겨레신문사)

#### 05. 12

- 동흥전기 노동조합, 소식지 『동지』 제1호 발간

『동지』 제1호(1992. 05. 12, 동흥전기 노동조합, M00515919)

#### 05. 13

-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5명,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과 재단이사 6명 전원을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함

『한겨레신문』 제1234호(1992. 05. 14, 한겨레신문사)

#### 05. 16

- 홍창물산 노동조합 위원장 오종만·부위원장 전성인·홍보부장 최영숙, 쟁의와 관련해 불법파업이라는 사유로 해고 당함. 노동조합 간부들은 5월 18일 회사로 출근해 철야농성을 전개하였으나 이튿날인 5월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6명이 연행되고 그중 오종만, 전성인, 사무장 신선아, 문화부장 양정민은 구속됨

「92년 해고노동자의 함성」(1992. \*. \*, 92년 해고자 일동, M00407294)

## 05. 18

- 한국OA시스 노동조합, 5월 6일부터 파업을 진행해 오던 중 ‘차등인상 철회, 기본급 2500원 인상(연말에 재조정), 하기체력단련비 10만 원’ 등에 합의하고 파업 철회

『전국노동자신문』 제59호(1992. 05. 2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5. 19

- 홍창물산 노동조합 위원장 유종만 등 5명,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연행됨. 앞서 이들은 홍창물산 노동자 120여 명이 3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회사 측으로부터 근무지 이탈 및 명령불복종 등을 사유로 해고되었음

『한겨레신문』 제1239호(1992. 05. 20, 한겨레신문사)

## 05. 22

- 인천대학교 · 인하대학교 · 성심여자대학교 등 인천 · 부천지역 대학생 2000여 명, 오후 6시 경 제물포역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민주당 해체, 민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화염병을 던지면서 2시간 가량 시위 전개

『동아일보』 제21832호(1992. 05. 23, 동아일보사)

## 05. 23

- 통합 인천민중교회연합, 6월 12일까지 「기독교여성일꾼교육」 진행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 05. 25

- ‘범선인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교수 · 교사들, 선인학원 재단사무실에서 현 재단이사진의 승인 취소 등 학원정상화 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감

『동아일보』 제21835호(1992. 05. 26, 동아일보사)

『한겨레신문』 제1244호(1992. 05. 26, 한겨레신문사)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 및 신도 등 1000여 명, 주안1동 성당에서 「문규현 신부와 구속된 방북인사들 석방을 위한 미사」를 개최하고 인천시민회관 앞까지 촛불행진을 벌임

『인천주보』 제1137호(1992. 05. 25, 천주교 인천교구)

『한겨레신문』 제1244호(1992. 05. 26, 한겨레신문사)

## 05. 27

- ‘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인천지역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인천대학교 체육관에서 노동자 · 학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액임금제 분쇄 및 자율교섭보장 촉구대회」 개최

1992년

『인천연합』 제9호(1992. 06. 09,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20969)

『한겨레신문』 제1246호(1992. 05. 28, 한겨레신문사)

- 인천노동선교문화원, 5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7회에 걸쳐 「일꾼성서강좌」 진행

『한겨레신문』 제1237호(1992. 05. 17, 한겨레신문사)

#### 05. 28

- 통합 인천민중교회연합, 6월 18일까지 「청년일꾼교육」 진행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 06. \*

- ‘산재없는 일터회’ 창립. 이후 산보연과 통합하여 2002년 5월 ‘건강한 노동 세상’으로 명칭을 변경함

송정로, 『인천시민사회운동 20년사』

#### 06. 04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천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대통령공약사항 이행촉구 및 택시제도개선쟁취 인천결의대회」 개최. 이 자리에서 ‘정부당국에 보내는 촉구문’을 통해 ‘택시노동자특별보호법 제정, 완전월급제 실시 등 1987년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내건 7가지 공약 즉각 이행, 지입제·도급제 등 사용자의 불법변칙운영 처벌, 완전월급제 즉각 실시’ 등을 요구

『전국노동자신문』 제61호(1992. 06. 10,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6. 06

-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부평역 광장부터 계양산 입구까지 「계양산살리기 범시민 걷기대회」 개최

『경향신문』 제14430호(1992. 06. 09, 경향신문사)

#### 06. 07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참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지역 공부방연합회, 인천지역 탁아위원회, 여성신문 인천지사, 인천대학교 총여학생회가 공동 주최하여 성폭력추방 행사의 일환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주제의 강연회 개최

『민주여성』 제13호(1992. 10. 23, 한국여성단체연합)

#### 06. 10

- 교육부, 선인학원에 관선이사 파견

『한겨레신문』 제1258호(1992. 06. 11, 한겨레신문사)

06. 13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학생 300여 명, 인천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후 오후 6시경부터 부천역 광장에서 '단체장 선거 촉구 서명운동' 전개

『한겨레신문』 제1261호(1992. 06. 14, 한겨레신문사)

- '만수2동 유신마을 철거민 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만수2동 유신마을 철거민 대책위원회 발대식」(1992. 06. 14, 유신마을 철거대책위원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흔을』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06. 16

- 인천대학교, 학원정상화 문제로 4월 20일부터 수업이 전면 중단되어 오다가 58일만인 이 날부터 부분 수업 재개

『한겨레신문』 제1262호(1992. 06. 16, 한겨레신문사)

06. 19

- 유진종합개발 노동조합 결성. 유진종합개발은 송림동에 위치한 레미콘 제조, 판매 업체로 직영기사 50여 명이 근무.

「92년 해고노동자의 함성」(1992. \*. \*, 92년 해고자 일동, M00407294)

06. 20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7강좌의 「제5기 노동자를 위한 교양강좌」 운영

『인천연합』 제9호(1992. 06. 09,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20969)

- 인천민주노동자연합,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노동자를 위한 교양강좌」 운영

『한겨레신문』 제1264호(1992. 06. 18, 한겨레신문사)

06. 22

-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 시민의 모임', 송도비치호텔에서 「선인학원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강연회 및 인천시민 간담회」 개최.

『동아일보』 제21862호(1992. 06. 23, 동아일보사)

06. 23

- 인천지역 대학생 30여 명, 인천지방노동청 북부사무소에 몰려가 세일중공업 사태와 총액임금제 강요에 항의하며 페인트가 담긴 비닐봉지를 건물에

1992년

던집

『전국노동자신문』 제64호(1992. 07. 0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6. 24

- 인천민중연합 노동자위원회,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노동교실」 3강좌 운영

『인천연합』 제9호(1992. 06. 09,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20969)

06. 25

- 인천대학교 · 인하대학교 학생 500여 명, 부평역 앞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조기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가두서명운동을 전개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됨

『경향신문』 제14447호(1992. 06. 26, 경향신문사)

06. 27

- 인천일보사 노동조합, 회사 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결의

『한겨레신문』 제1273호(1992. 06. 27, 한겨레신문사)

- 한라중공업, 총액 5% 억제에 맞서 전면 파업 돌입

07. 04

- 인천여성노동자회, 산곡동에 공단지역의 일하는 여성과 지역주부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인 「여성나눔터」 개소

『민주여성』 제13호(1992. 10. 23, 한국여성단체연합)

-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인천시 교사추진위원회’와 ‘범국민서명운동 인천본부’, 7월 4일·7일·11일 3일간 동인천 및 부평역 부근에서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청원’을 요구하는 가두서명운동 전개. 7월 4일에는 서명운동을 하던 현직교사 등이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강제연행 당함

『인천연합』 제11호(1992. 07. 21,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5682)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직복직 청원 서명 운동 모습〉

『인천연합』 제11호(1992. 07. 21,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5682)

#### 07. 14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부평1동 성당 교육관에서 200여 명의 시민·노동자·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대선방침 시국토론회」 개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정책국에서 기조 발제를 맡고 김영규(민중회의 정책위원장), 장명국(석탑노동연구원 원장), 이원영(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원주(민주개혁과 사회 진보를 위한 협의회 운영위원) 등이 토론을 진행함

『인천연합』 제11호(1992. 07. 21,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5682)

- 동흥전기 노동조합, 7월 10일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감. 이후 7월 18일 '기본급 5만 4300원 인상, 수당 5896원 인상, 임투기간 중의 민·형사상 면책, 파업기간 중 임금 2만 원 지급'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끝냄

『전국노동자신문』 제66호(1992. 07. 2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7. 16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7월 26일까지 '5% 인상하면 5%만 일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잔업 거부. 7월 26일 전면파업 선포

『한라중공업 평가서』(1992. \*. \*, 한라중공업노동조합, M00410236)

#### 07. 21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양재덕 상임의장·인천지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김성복 공동의장 등 10여 명, 주안동 인천연합 사무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를 촉구하며 7월 25일까지 시한부 단식농성 돌입

1992년

『한겨레신문』 제1293호(1992. 07. 22, 한겨레신문사)

『인천연합』 제11호(1992. 07. 21,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5682)

07. 27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회사 측과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항동 인천공장  
과 충북 음성군 소이공장에서 전면 파업에 들어감

『한겨레신문』 제1298호(1992. 07. 28, 한겨레신문사)

07. 29

- 선인학원 관선이사회, 인천대학교 총장과 재단법인 사무국장을 학원분규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시킴

『경향신문』 제14481호(1992. 07. 30, 경향신문사)

『한겨레신문』 제1299호(1992. 07. 29, 한겨레신문사)

07. 30

- 인천노동교육연구소, 석탑노동연구원 장명국 원장을 초청하여 ‘정세와 노  
동운동’이란 주제로 「초청강연회」 개최

『인천연합』 제12호(1992. 08. 11,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5681)

08. 08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 준비위원회’, 8월 9일까지 이  
틀간 인천대학교에서 1000여 명의 학생·시민·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  
92인천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문화대동제」 개최

『인천연합』 제12호(1992. 08. 11,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5681)

08. 11

- 인천지역 대학생 300여 명, 범민족대회 행사 저지를 위해 경찰이 중앙대학  
교와 송실대학교를 압수수색한 일과 관련해 제물포역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항의 시위를 벌임

『한겨레신문』 제1311호(1992. 08. 12, 한겨레신문사)

08. 17

- ‘연희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결성

『한울』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08. 23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자유공원과 수봉공원 일대에서 「창립  
2주년 기념 인천지역 철거민 거북이 마라톤 대회」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08. 24

- 학교법인 신호학원,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인천시 교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재단 산하 경인여자상업고등학교 하인호 교사를 해임조처함

『한겨레신문』 제1322호(1992. 08. 25, 한겨레신문사)

09. 04

-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양재덕 상임의장, 부천시 중동 자택에서 '김낙중씨 구속사건'과 관련해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됨

『한겨레신문』 제1332호(1992. 09. 05, 한겨레신문사)

09. 17

- 인천·부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및 자치단체장 선거 연대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1341호(1992. 09. 18, 한겨레신문사)

09. 19

- 민중회의 인천지부·민중진영 단일정당 추진위원회 인천지부·진보정당추진위원회·인천민중연합, 「인천지역 대통령선거 대책본부 건설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09. 24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9월 24일과 9월 29일 2차에 걸쳐 「인천지역 노조단체 및 대기업노조 대표자 간담회」 주관.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남동연대회의,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대공장(대우자동차, 한라중공업, 코리아 스파이서) 참가

『인천노조대표자회의 준비위』 결성의 의의와 과제』(1993. \*. \*, M00436162)

09. 29

- 인천대학교, 학생활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원정상화 요구 시위와 관련해 제적됐던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 5명에 대해 제적 취소 결정을 내리고 복교시킴

『한겨레신문』 제1351호(1992. 09. 30, 한겨레신문사)

09. 30

- '노동자 문화마당 일터' 김동호 의장 등 6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한겨레신문』 1352호(1992. 10. 01, 한겨레신문사)

10. \*

- ‘남촌동 철거대책위원회’ 결성

『한울』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부평생활협동조합 창립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10. 01

- 광원산업 노동조합이 회사명 변경에 따라 동남레미콘 노동조합으로 변경됨

『1993년도 제2년차 정기총회 회의자료』(1993. 11. 12, 동남레미콘 노동조합,  
M00411891)

10. 10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한겨레신문』 제1362호(1992. 10. 13, 한겨레신문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선언문

우리는 오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향한 200만 인천시민의 실천 의지를 한데 모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지부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극심한 빈부 격차, 부정과 부패의 만연, 투기와 불로소득, 재벌 중심의 불공정한 경제, 퇴폐와 향락에 빠져가는 사회문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환경오염 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인 이 사회를 극도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규모 공단들을 안고 있는 향도 인천은 어느새 노동문제, 교통문제, 공해문제, 재개발문제 등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열악한 문제도시로서, 개항 이후 최대의 변혁기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있게 그 변화를 맞이할 수 없는 허약한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변

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주체적인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작은 의지와 작은 힘을 크게 모아 나가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인간애가 넘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과 사명의식을 지닌 인천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로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어떠한 시민단체와도 협력할 것이며, 인천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의 실천을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입니다.

인천의 주인인 인천시민과 호흡을 함께하며 이 시대, 이 고장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992년 10월 10일

창립총회 회원 일동

『인천경실련 20년사』(2012. 10. 25,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통합 인천민중교회연합, 10월 31일까지 「여신도 교육」 진행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 인천·부천지역 병원노동조합 조합원들, 인천대학교 운동장에서 「가을문화제」 개최

『소식』 제24호(1992. 10. 16, 인천기독병원 노동조합, M00516423)

## 10. 16

- 「제1차 인천지역 단위노동조합대표자 간담회」가 30여 개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됨  
『인천노조대표자회의 준비위』 결성의 의의와 과제』(1993. \*. \*, M00436162)
-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계양산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반발해 추진해 온 개발반대서명운동 참여 시민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

『한겨레신문』 제1366호(1992. 10. 17, 한겨레신문사)

-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평1동 성당 교육관에서 「노동법개정토론회」 개최

『동지』 제8호(1992. 10. 30, 동흥전기 노동조합, M00515922)

10. 19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부평1동 성당 교육관에서 오후 7시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집행위원장 김근태를 초청하여 ‘민족민주진영의 통일단결을 위하여’란 주제로 「시국강연회」 개최

『인천연합』 제14호(1992. 10. 15,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6913)

10. 21

-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모임’, 선인학원 전임 이사진이 교육부의 승인 없이 설립자 백인엽에게 재단기금 78억 원을 돌려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6명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이 진상조사를 벌여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

『한겨레신문』 제1370호(1992. 10. 22, 한겨레신문사)

10. 22

- 정보산업 노동조합,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퇴직금 누진제 실시, 가족·근속수당 통상임금화’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
- 인천민중연합 여성위원회, 인천민중연합 강당에서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제3기 여성교실」 개최

〈강의 구성〉

| 날짜     | 강의주제                   | 강사             |
|--------|------------------------|----------------|
| 10. 22 | 입교식,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송다영(여성연구회)     |
| 10. 26 | 다시보는 성과 사랑             | 노주희(성폭력상담소)    |
| 10. 29 | 여성문제 관련 비디오 상영         | ‘이브의 설자리’      |
| 11. 02 | 직장 여성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 김지선(여성노동자회 회장) |
| 11. 05 | 여자, 아내, 그리고 어머니        | 최순영(부천시 의원)    |
| 11. 09 | 수료식, 여성운동의 발자취         | 박명순(민중연합 위원)   |

『소식』 제24호(1992. 10. 26, 인천기독병원 노동조합, M00516423)

10. 23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샘터교회에서 「제5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의장에 최동식 남일금속 노동조합 위원장을 재선출함

『전국노동자신문』 제73호(1992. 11. 0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0. 28**

- 인천노동선교문화원, 노동자문화운동의 일환으로 10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제1기 연극교실」 운영

『한겨레신문』 제1369호(1992. 10. 21, 한겨레신문사)

**10. 31**

- 인천지역 60여 개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하는 「인천지역 노동조합 가을문화제」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인천노조대표자회의 준비위』 결성의 의의와 과제』(1993. \*. \*, M00436162)

**11. 02**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 지하광장에서 「제10기 민중대학」 개강. 12월 10일까지 운영.

『인천주보』 제1160호(1992. 10. 25, 천주교 인천교구)

**11. 05**

- 인천지역 64개 학교 현직교사 275명, 주안1동 성당에서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교사선언’ 발표

『한겨레신문』 제1384호(1992. 11. 06, 한겨레신문사)

**11. 07**

-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인천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인천본부 결성회의 자료」(1992. 11.

14,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인천본부, M00411030)

**11. 14**

-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인천본부’, 주안1동 성당에서 결성회의 개최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인천본부 결성회의 자료」(1992. 11.

14,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인천본부, M00411030)

**11. 17**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오순부 등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참여운동본부 준비모임’ 공동대표 구속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공안선거 획책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

『한겨레신문』 제1396호(1992. 11. 18, 한겨레신문사)

**11. 20**

- 인천기독교 청년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인천지역 12개 시민단체, ‘공

1992년

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결성

『한겨레신문』 제1399호(1992. 11. 21, 한겨레신문사)

**11. 24**

- 인천·부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학생 100여 명, 인하대학교에서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시킨 후 동인천역지하상가에서 '민주정부수립과 민주대개혁쟁취'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인부대협 운동본부' 명의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다 12명이 경찰에 연행됨. 경찰이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가스충과 공포탄을 발사하기도 함

『경향신문』 제14595호(1992. 11. 25, 경향신문사)

『한겨레신문』 제1403호(1992. 11. 25, 한겨레신문사)

**12. 08**

- 인천지역 33개 노동조합,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구성  
『전국노동자신문』 제76호(1992. 12. 1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2. 11**

- 인천지역 118개 노동조합이 서명한 가운데 「대선에 임하는 인천지역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인천노조대표자회의 준비위」 결성의 의의와 과제』(1993. \*. \*, M00436162)

**12. 25**

- 「'92년도 인천지역 철거민 대동제」 개최  
『흔울』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1993년

## 01. 26

- 백마교회 신철호 목사, 1월 27일까지 서울 수유리 한신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민중교회연합 제5차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됨

『한겨레신문』 제1459호(1993. 01. 29, 한겨레신문사)

## 01. 28

-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인천교사추진위원회’ 중등교사 대표인 박용상 제물포중학교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적용돼 해임 당함

『한겨레신문』 제1459호(1993. 01. 29, 한겨레신문사)

## 02. \*

- 인천민중연합·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철거민 보호에 관한 인천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본부’ 결성

『흔을』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02. 05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회사 측과 단체협약 갱신 협상이 결렬되자 ‘퇴직금 비례누진제 실시, 해고조건 강화’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

『한겨레신문』 제1466호(1993. 02. 06, 한겨레신문사)

## 02. 06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해 교사선언 참여교사들에 대한 징계철회를 촉구

『한겨레신문』 제1467호(1993. 02. 07, 한겨레신문사)

- 한라중공업, 회사 측과의 단체협상 갱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월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 조합원 100여 명은 이 날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감

『한겨레신문』 제1467호(1993. 02. 07, 한겨레신문사)

## 02. 08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전면 파업에 돌입

『한겨레신문』 제1469호(1993. 02. 09, 한겨레신문사)

1993년

02. 19

- 인천지역 121개 노동조합이 서명한 가운데 남일금속 등 최근의 부도사태와 고용위기의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인천노조대표자회의 준비위』 결성의 의의와 과제』(1993. \*. \*, M00436162)

03. 02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전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금인상투쟁본부'를 구성함

『전국노동자신문』 제81호(1993. 03. 18,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3. 07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민중연합 여성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부평1동 성당에서 「인천 93여성한마당」 개최

『한겨레신문』 제1492호(1993. 03. 05, 한겨레신문사)

03. 17

- 인하대학교 학생 200여 명, 본관 2층 부총장실 등을 점거한 채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 벌임

『한겨레신문』 제1505호(1993. 03. 18, 한겨레신문사)

04. \*

- 푸른생활협동조합 설립

04. 04

- 전국 11개 교육대학교 학생 1600여 명, 인천교육대학교에 모여 교육대학대표자협의회(교대협) 출범식 개최

『한겨레신문』 제1523호(1993. 04. 06, 한겨레신문사)

04. 10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문익환 목사님 강연회 및 인천연합 93 전진대회」 개최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1994. 03. 05,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04. 21

- 인천지역 노동조합 주요 간부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4동 성당에서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발족식 및 93임투승리를 위한 간부결의대회」 개최

## 〈조직 구성 : 1994년 6월 22일 현재〉

| 소속                         | 참가단위(인원 : 명)                                                                                                                                                                                                                                                                                                      |
|----------------------------|-------------------------------------------------------------------------------------------------------------------------------------------------------------------------------------------------------------------------------------------------------------------------------------------------------------------|
|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br>(20개 노조)   | 고니정밀(362), 대흥기계(182), 동성(46), 삼민(42), 신창튜브(61), 신광기업(120), 아남산업(20), 아남정공(102), 동양이화(280), 동흥전기(220), 대원인천(340), 대원주안(230), 롯데기공(127), 삼원프라스틱(36), 삼지(80), 성남기업(84), 유진상사(160), 진흥정밀(60), 정보산업(6), 한국특수잉크(40)                                                                                                     |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br>(9개 노조) | 성가병원, 성모자애병원, 신천리연합의원, 세광병원, 세종병원, 안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병원, 제일병원                                                                                                                                                                                                                                                        |
| 남동연대회의<br>(4개 노조)          | 진영전기(60), 진영스텐다드(50), 창성(60), 벤웁스(40)                                                                                                                                                                                                                                                                             |
| 대공장 및 기타                   | 대우중공업(4000), 한라중공업(1000), 진도부평(187), 진도인천(530), 대우전자인천(700), 풍산(347), 한양공영(340), 코리아스파이서(840), 한양목재(750), 대우자동차(1만), 동서식품(500), 현대페인트(200), 한일튜브, 한국분말야금(130), 이천전기, 대한마이크로                                                                                                                                       |
| 1차 서명노조                    | 고니정밀, 남일금속, 대원강업(주안, 인천), 대우중공업, 대흥기계, 동성상공, 동양이화, 동흥전기, 롯데기공, 마미손, 벤웁스, 삼원프라스틱, 삼지실업, 삼민화학, 신광기업, 신창튜브, 아남정공, 아남산업, 이천전기, 진도(인천, 부평), 진영스텐다드, 진영전기, 진흥정밀, 창성, 정보, 코리아스파이서, 풍산금속, 한일튜브, 한국분말야금, 한국특수잉크, 한라중공업, 한양공영, 한양목재, 현대페인트, 성가병원, 성모자애병원, 신천리연합의원, 세광병원, 세종병원, 안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병원, 제일병원, 전교조 인천지부(이상 48개 노조) |

『『인천노조대표자회의 준비위』 결성의 의의와 과제』(1993. \*. \*, M00436162)

『인노협 창립6주년 기념토론회-민주노총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1994. 06. 22,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9131)

## 04. 22

- 인천지역 각계인사 58명, '해직교사 복직 촉구선언' 발표

1993년

『한겨레신문』 제1539호(1993. 04. 23, 한겨레신문사)

04. 26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와 노동조합 간부 100여 명,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실에서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임

『한겨레신문』 제1543호(1993. 04. 27, 한겨레신문사)

04. 27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홍보지 『임투소식』 창간호 발행

『인천노조대표자회의의 준비위』 결성의 의의와 과제』(1993. \*. \*, M00436162)

04. 30

- 인천·부천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부평역 광장에서 「비리의원 처벌과 금융실명제 및 6공 청문회 실시를 위한 시민대회」 개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생 9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됨

『한겨레신문』 제1547호(1993. 05. 01, 한겨레신문사)

05. 07

- 인천배달환경클럽 창립. (영종도) 신공항축진법 개정 운동 및 공항건설에 따른 생태파괴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벌여나감. 이후 ‘푸른한반도 되찾기 시민모임’, ‘녹색당창당 준비위’와 연합해 녹색연합으로 재창립 됐으며 인천녹색연합은 96년 7월 창립됨. 인천녹색연합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민 환경피해조사, 동양화학 폐석회처리 및 난개발진상규명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함

『인천녹색연합 홈페이지』(<http://www.greenincheon.org/>)

송정로, 『인천시민사회운동 20년사』

05. 08

- ‘부정부패 근절과 비리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평4동 성당에서 부평역까지 캠페인 전개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1994. 03. 05,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05. 15

- 부평 근린공원에서 「93 임투승리 전진대회」 개최

『인천노조대표자회의의 준비위』 결성의 의의와 과제』(1993. \*. \*, M00436162)

『임투소식』 제2호(1993. 07.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의 준비위원회,

M00404942)

05. 15

- 한일튜브 노동자 112명,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원장에 김도식 선출  
『전국노동자신문』 제86호(1993. 05. 2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5. 18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대학교 소극장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식」 개최  
『임투소식』 제2호(1993. 07.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4942)
- 「5·18정신계승과 5·6공비리 척결을 위한 인천시민결의대회」 개최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1994. 03. 05,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05. 21

- 남일금속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 청와대를 향의 방문해 회사 정상화와 고용 승계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전국노동자신문』 제86호(1993. 05. 2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5. 29

- 노래패 노래선언, 1주년 기념 ‘노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공연  
『노동과 희망』 제4호(1993. 06. 15, 인천노동선교문화원, M00341294)
- 인천노동건강상담소 창립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06. 09

- 남동노조 연대회의, 「93임투 승리를 위한 남동노동자 한마당」 개최  
『임투소식』 제2호(1993. 07.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4942)

06. 10

- 「6월항쟁 6주년 기념식 및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대회」가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됨  
『인천기독노동자』 제10호(1993. 06. \*, 한국기독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84)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1994. 03. 05,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06. 12

- (가칭) 6월 10일 예비군참사 인천시민 대책 준비위원회 · 인천민중교회연

합·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6월 10일 예비군훈련 도중 포탄폭발사고로 19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6월 10일 예비군참사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

〈우리의 요구〉

1.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정부의 발표와 전문가의 견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의혹이 사라지도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1. 유족에 대한 기만적인 보상합의를 중지하고 유가족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는 성실한 태도로 호프만식에 입각한 보상을 요구한다!
1. 68년 박정희 정권 이래 시행되어 온 예비군제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다. 이에 정권의 사태모면식 예비군제 개편안을 거부하며, 예비군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1. 냉전체제의 해소, 남북의 평화분위기, 전국민의 통일의 염원을 감안할 때 현 정권이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은 조국통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평화협정체결'과 '과감한 군축'을 요구한다!

「6월10일 예비군참사에 따른 성명서」(1993. 06. 12, M00337766)

- '영종도 신공항 인천시민 대책위원회' 주최로 영종도 신공항 건설 문제점에 대한 전국 심포지움 개최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1994. 03. 05,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06. 14

- 6월 10일 예비군훈련 도중 포탄폭발사고로 19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6·10예비군참사 인천시민 대책위원회' 구성됨

『인천기독교노동자』 제10호(1993. 06.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84)

06. 19

-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소속 17개 노조, 4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대학에서 「제2기 출범식 및 임투승리 결의대회」 개최

『임투소식』 제2호(1993. 07.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4942)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인천대학 운동장에서 2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택시제도 개혁 촉구 및 임투승리 전진대회」 개최

『임투소식』 제2호(1993. 07.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4942)

『전국노동자신문』 제88호(1993. 06. 2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6월 10일 예비군훈련 도중 포탄폭발사고로 19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인교회에서 '6·10 예비군 참사 추모예배' 개최. 사망자 중에는 해인교회에 입교해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회원으로 활동하던 한병학도 포함되어 있음

『인천기독교노동자』 제10호(1993. 06.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84)

## 06. 20

- 대한마이크로 노동자들, 세 번째로 노동조합 결성

『임투소식』 제2호(1993. 07.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4942)

## 06. 28

- 동인천 가톨릭회관에서 인천산업보건연구회 창립. 홍학기, 문병호가 공동대표로 추대됨. 인천지역진료소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에서 활동했던 수련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들이 노동현장과 연계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와 산재추방운동 등을 벌여나감

「인천산업보건연구회 12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6. 28

-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12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3명은 즉심, 8명은 불구속 처리됨

『임투소식』 제2호(1993. 07.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4942)

- 인천병원, 6월 29일까지 이틀 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철야농성 전개

『임투소식』 제2호(1993. 07.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4942)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통상임금 20.75% 인상'을 요구하며 쟁의 돌입

『한겨레신문』 제1603호(1993. 06. 29, 한겨레신문사)

## 06. 30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교육대개혁, 해직교사복직'을 위한 대통령에게 엽서보내기」 운동 시작

1993년

『임투소식』 제2호(1993. 07.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4942)

07. 03

- 한일튜브 노동조합, 현판식 개최

『임투소식』 제2호(1993. 07. 01,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4942)

07. 06

- 원풍물산 해고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미모사에 화재가 발생해 김 주리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8월 8일 사망함

『전국노동자신문』 제91호(1993. 08. 1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한겨레신문』 제1642호(1993. 08. 10, 한겨레신문사)

김주리 약력

1964년 2월 전남 목포 출생. 1982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 대학교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 다니다 노동현장에 들어와 1989년 유진상사와 진영물상 등 봉제공장에서 활동하다 해고됨. 1992년 해고자들과 함께 청천동에 '미모사'라는 이름의 봉제 하청공장을 설립해 운영함. 1993년 7월 6일 가스폭발로 화상을 입어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던 중 8월 8일 사망함

『민주노총 열사추모 홈페이지』(<http://yolsa.nodong.org>)  
『한겨레신문』 제1642호(1993. 08. 10, 한겨레신문사)

07. 11

- 부평2동 성당, 황상근 신부를 소장으로 하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개소

『인천주보』 제1199호(1993. 07. 18, 천주교 인천교구)

07. 21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노동자 통일대 백두 발대식」 개최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1994. 03. 05,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07. 27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등, 「우리쌀 지키기 대회」 공동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1994. 03. 05,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 · 수도권노동단체연석회의 · 부산노동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동자추진위원회', 서울 종로3가 종로성당에서 '평화군축과 노동자 복지'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1627호(1993. 07. 25, 한겨레신문사)

## 07. 29

- 가톨릭환경연구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창립총회 개최. 이사장에 유영훈 신부, 운영위원장에 김종운 선출

『인천주보』 제1202호(1993. 08. 08, 천주교 인천교구)

## 08. \*

-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이 다시 설립되자 회사는 사원정신교육 명목으로 조합간부들에게 삼성교육 참석을 종용하였고 이후 계속 정신교육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괴롭혀 조합간부 3명(조직부장, 홍보부장, 대의원)이 퇴사함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8. 07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인천시민모임', 백운공원에서 「'93 통일염원 인천시민 문화대동제」 개최

『인천기독노동자』 제15호(1993. 11. 05, 한국기독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85)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1994. 03. 05,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한겨레신문』 제1639호(1993. 08. 07, 한겨레신문사)

## 08. 12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부평역 앞에서 「국토순례단 환영식 및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인천시민대회」 개최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1994. 03. 05,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 08. 16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연합회 · 가톨릭대학생연합회 · 노동사목 · 평신도 협의회 · 가톨릭 시민공동체 공동 주최로 주안1동 성당에서 「'93 통일염원 미사」 봉헌. 오경환 신부가 「한국 가톨릭 교회의 민족사적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강론

『인천주보』 제1203호(1993. 08. 15,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제1204호(1993. 08. 22, 천주교 인천교구)

09. 09

- 인천노동선교문화원 간사로 일하던 임혜란, 백혈병으로 사망함

『노동과 희망』 제8호(1994. 11. 29, 인천노동선교문화원, M00357449)

임혜란 약력

1965년 4월 17일 서울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출생. 1984년 숭의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에 입학. 고려대학교 기독교 학생회에서 활동 시작. 1988년 노동운동을 위해 대학교를 중퇴하고 인천으로 내려가 링크시스템에 입사함. 1989년 대한트랜스(주)에 입사해 민주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조직부장을 맡음. 1990년 노동쟁의와 관련해 해고당함과 동시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6개월 간 옥고를 겪고 집행유예로 풀려남. 1991년 인천노동선교문화원 창립에 참여해 일해 오다 1992년 9월 17일부터 백혈병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했으며 1993년 9월 9월 사망해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됨

〈임혜란의 일기〉

93년

엊그제까지 멀쩡했던 내게 갑자기 들어닥친 백혈병이라는 놈은 건강과 미래까지 앗아가 버린 것 같았다. 절망감 보다 이 모든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야 하는지 의문스러웠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 나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몇가지 답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쫓아 다녔다. 정말 정신없이 바쁜 생활들이 있었다. 바로 그 생활 속에서 어느덧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최근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텐데 ...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와 모순만 가득차고 의롭게 산다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입으론 하나님 일이었지만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해왔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언제 퇴원하게 될지, 또 내가 어

떻게 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지요, 나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결혼이라는 새출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회개시켜 주심을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이시다. 나는 그동안 바쁘게 산다고 정신없이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호흡이 끊긴 죽은 자의 삶이었다면, 비록 지금은 병상에서 병과 싸우고 있지만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에 지금이 오히려 살아있는 삶이라고 본다. 나는 믿는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병을 주셨으니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지라고 ... 그리고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늘 하루 병과 싸우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민주노총 열사추모 홈페이지」(<http://yolsa.nodong.org>)

『노동과 희망』 제8호(1994. 11. 29, 인천노동선교문화원, M00357449)

#### 09. 18

- 인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창립총회 개최. 공동대표에 황보윤식 한샘학원 강사와 이한범 인하대학교 교수 선출

『인천주보』 제1209호(1993. 09. 26, 천주교 인천교구)

『한겨레신문』 제1680호(1993. 09. 19, 한겨레신문사)

#### 09. 23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십정동 성당에서 대의원 29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최동식 의장을 재선출하고 6기 지도부 출범. 집행부 구성은 11월 9일 완료

#### 〈제6기 임원 구성〉

| 직책   | 이름 및 소속     |
|------|-------------|
| 의장   | 최동식(남일금속)   |
| 부의장  | 허남익(대흥기계)   |
| 사무처장 | 윤화심(진성전자)   |
| 회계감사 | 안우현(진흥정밀화학) |

「인노협 활동보고서」(1993. 10. 15,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M00885969)

「제7년차 정기대의원대회」(1994. 09. 29,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M00409108)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M00406534)

1993년

09. 26

- ‘갈산동 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갈산동 철거대책위원회 발대식」(1993. 09. 26, 갈산동 철거대책위원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흔을』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10. 05

- 고니정밀 노동조합, 7월 1일부터 ‘기본급 9.75%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결렬되어 이날 조합원 51%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전국노동자신문』 제97호(1993. 10. 1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0. 08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10월 9일까지 이틀간 영종도 안젤라 수영장에서 21개 노동조합 대표자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수련회」 개최

〈참가 노동조합〉

-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코리아 스파이서, 대우전자, 진도산업 인천지부·부평지부, 한양공영, 한국샤프, 롯데기공, 남일, 신광, 진영, 동양이화, 진흥정밀, 대흥기계, 마이크로, 세광·성가·기독교·안병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수련회」(1993. 10. 08,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6336)

「인노협 활동보고서」(1993. 10. 15,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885969)

10. 12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10월 21일 국회노동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천지방노동청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노동청의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 발표

「성명서 -인천지방노동청의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1993. 10. 12,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6171)

10. 23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주최,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93노개정 및 인천지역 노조 통일단결을 위한 가을문화제」가 개최됨

- 『인노협 활동보고서』(1993. 10. 15,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885969)
- ‘인천지역 노동조합대표자 준비위원회 노동법개정투쟁 실천단’ 발족  
『인노협 활동보고서』(1993. 10. 15,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885969)
  - ‘학익동 510번지 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흔을』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학익동 510번지 철거대책위원회 발대식』(1993. 10. 23, 학익동 510번지 철거대책위원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10. 29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 6명을 해고하고 고소고발한 데 항의하며 임원 3명이 단식 농성 돌입  
『전국노동자신문』 제100호(1993. 11. 0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11. 12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연합회, 답동 가톨릭회관 지하 강당에서 「제11기 민중대학」 개강

## 〈강의 구성〉

| 일정     | 분야  | 주제                 | 강사              |
|--------|-----|--------------------|-----------------|
| 11. 12 | 개강식 | 만남과 놀이마당           |                 |
| 11. 12 | 철학  | 참된 삶을 위한 올바른 세계관   | 안재구             |
| 11. 16 | 여성  | ‘정신대’ 그 질곡의 세월을 넘어 | 이상화             |
| 11. 19 | 역사  | 갑오농민전쟁과 외세와의 관계    | 박준성             |
| 11. 21 | 기행  | 계양산 기행을 통한 지역사랑    | 어진내<br>향토연구회    |
| 11. 23 | 언론  |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 언론     | 정동익             |
| 11. 26 | 경제  |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과제 | 박영일             |
| 11. 30 | 정치  | 개혁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민주 | 장명국             |
| 12. 03 | 건강  | 생활 안에 건강한 삶        | 인천산업사회<br>보건연구회 |
| 12. 07 | 통일  | 통일의 길잡이 남북합의서      | 김창수             |
| 12. 11 | 문화  | 삶의 노래 생명의 문화       | 류형선             |
| 12. 11 | 종강식 | 함께 가는 힘찬 발걸음       |                 |

『인천주보』 제1215호(1993. 11. 07, 천주교 인천교구)

## 11. 13

- 인천여성의전화 준비위원회, 설립 기금마련을 위해 인천시민회관에서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김철수의 연합 공연인 「소리, 그 신명」 주최. 인천여성의

1993년

전화 준비위원회는 한국여성의전화 19기 교육을 수강한 인천민중연합·여성노동자회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 준비위원장은 김예숙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김수철 인천공연-소리, 그 신명」(1993.11.13, M00446862)  
『베틀』 제75호(1993. 11. 15, 한국 여성의 전화)

#### 11. 17

- 세일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 학교복도에서 학생회장 직선제 요구와 관련해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철회와 학생회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임

『한겨레신문』 제1734호(1993. 11. 18, 한겨레신문사)

#### 11. 22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백마교회에서 「제2기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등을 진행. 회장에 정동근, 사무장에 김길섭 등이 선출됨

『인천기독교노동자』 제15호(1993. 11. 05,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85)

#### 11. 25

- 인천노동자문화회 ‘글터’·교육문예창작회 인천모임·인천대학교 문학동아리 ‘서해문학’, 인하대학교 5호관 남쪽 소강당에서 「제1회 인천민족문학의 밤」 개최

『한겨레신문』 제1736호(1993. 11. 20, 한겨레신문사)

#### 12. 01

-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창간. 새얼문화재단은 1975년 10월 23일 재단법인 새얼장학회가 설립되면서 출발함.

「새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saeul.org/>)」

#### 12. 07

- 한양공영 노동조합, 11월 12일부터 진행된 교섭이 결렬되어 71.6%의 찬성으로 파업 결의

『전국노동자신문』 제107호(1993. 12. 2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12. 09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결성식 및 기자회견 개최. 집행위원장은 김정택 목사가 맡고 공동대표에는 김무철 인천불교연합회 회장 등 13명을 선출함

## 〈공동대표〉

| 성명   | 소속 및 직책                  |
|------|--------------------------|
| 김무철  | 인천불교연합회 회장               |
| 김순제  | 홍사단 인천지부 회장              |
| 김영규  |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인하대지회 회장      |
| 노연환  | 한국농어민후계자 연합회 회장          |
| 명화섭  | 민주당 인천시지부장               |
| 안용근  | 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실무책임자        |
| 양재덕  |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상임의장      |
| 오경환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 이강일  | 인천시 한의사회 회장              |
| 이윤종  | 한국노총 인천본부 의장             |
| 임송산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
| 최돈숙  |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인천지회 회장 |
| 황보윤식 | 우리밀살리기운동 인천시협의회 공동대표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결성식 및 기자회견」(1993. 12. 09,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M00406036)  
『한겨레신문』 제1755호(1993. 12. 10, 한겨레신문사)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결성 선언문

근조 민족 농업!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이제 마지막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워 온 벼단을 불태우고, 벼수매를 거부하며, 농기계마저 반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 농약을 먹거나 연탄을 피워 놓고 자살하는 등 농촌의 현실은 참담함을 넘어서 붕괴와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 ‘대통령직을 건 쌀 개방저지’ 공약이 이제 ‘떠나가는 농촌’, ‘쌀 수입 개방’으로 바뀐 지금 개혁과 신한국을 지향한다는 김영삼 정권은 미국의 쌀 및 감귤, 참깨 등 15개 기초농산물의 수입개방 요구에 굴복하여 일찍이 쌀 개방을 합의하고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개방불가의 공염불만 남발하여 왔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이러한 기만과 부도덕한 태도는 오늘 아침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회담 하루만에 백기를 들고 항복해 버린 우루과이라운드대표단의 태도나 김영삼 대통령의 쌀 수입 개방 불가피를 역설하며, 농업기술 선진화, 국제화로 우리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사탕발림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할 국민은 없으며, 6백 만 농민 및 4천 만 국민과의 피할 수 없는 일대결전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조짐은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한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 개방 반대와 신농정 분쇄투쟁의 절규로 부안, 곡성, 장수, 화순, 나주, 무안, 함평, 음성, 제주 등에서 햇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는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모여 쌀과 기초농산물 개방 저지 범국민대회가 열렸고 노동자, 학생, 교수, 신부, 목사, 양심적 지식인, 애국시민 등도 민족농업과 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동조농성에 열렬히 나서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앞세워 미국의 일방적 강요로 이루어진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미국은 식량을 무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개입을 확대할 것이며, 민족 자립 경제의 기틀이며, 국가 안보의 토대인 쌀 시장조차 미국에 내다바친, 김영삼 정권은 식량의 자립마저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숭미 사대주의에 전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이에 우리는 제2의 민족독립운동을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천지역의 각계각층 및 제정당 사회단체를 총망라하여 투쟁의 구심이 될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 개방 반대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의의 결성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염원을 모아 민족농업 사수와 쌀 수입개방을 강



요하는 미국을 반대하는 뜻과 노력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김영삼 대통령은 apec회담에 참여할 때부터 사대주의 밀실외교로 국민의 의심을 받아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쌀개방을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지켜야 하며 4천만 온 국민의 염원을 모은 국민투표를 시행하라!

2. 쌀 개방 반대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국회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쌀과 기초농산물의 수입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촉구한다.

3. 미국은 2천 호 캘리포니아 쌀재배 농민과 소수의 곡물상들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6백 만 농민을 압살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미국의 식량식민지로 만드는 미국의 쌀 개방 강요 행위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하며, 6백 만 농민의 생존과 한국 농업의 장래를 위하여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 개방을 규탄한다. 미국의 수입개방 강요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반대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4.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대세론을 퍼트려 국민을 현혹하고 정권과 재벌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일부 언론은 각성하라

1993. 12. 9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결성식 및 기자회견」(1993. 12. 09,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M00406036)

### 12. 11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부평역 광장에서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과 평화행진 전개

『인천기독노동자』 제16호(1994. 01. \*, 한국기독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82)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1994. 03. 05, 민주주의민족통일

## 12. 12

- 통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소속 15개 민중교회 목회자와 성도 45명, 동인천역과 인근 일대에서 산재 노동자를 위한 가두모금 전개. 이후 12월 15일·18일·22일에도 동인천역과 부평역 등지에서 가두모금을 계속 진행하여 삼익악기 노동자와 부산 한진중공업에 근무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가족에게 지원금 전달. 1993년 이후 통합 인천민중교회연합은 매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함. 이때부터 통합 인천민중교회연합은 15개 교회가 연대 활동을 이어감

〈통합 인천민중교회연합 회원교회〉

| 교회명   | 교단 | 목회자 | 창립일      | 주소(1997년 기준)       |
|-------|----|-----|----------|--------------------|
| 백마    | 기감 | 신철호 | 1976. 7  | 부평구 산곡1동 인우A 가-502 |
| 지구촌   | 성결 | 홍삼열 | 1982. 1  | 연수구 우성1차 상가 402호   |
| 새봄    | 기장 | 이원희 | 1982. 12 | 계양구 계산동 929-3 삼환빌딩 |
| 소성    | 기장 | 김상목 | 1984. 12 | 부평구 십정동 301-1      |
| 송림사랑방 | 기장 | 이상선 | 1985. 12 | 동구 송림6동 14-172     |
| 해인    | 기장 | 이준모 | 1986. 6  | 계양구 계산2동 903-18    |
| 예본    | 예장 | 정한식 | 1986. 9  | 중구 인현동 4           |
| 새벽    | 기장 | 윤인중 | 1988. 5  | 남구 송의3동 82-46 19/2 |
| 송현샘   | 기장 | 조인영 | 1988. 7  | 동구 송현2동 39-36      |
| 고백    | 예장 | 김영철 | 1989. 4  | 서구 석남3동 556-65     |
| 베다니   | 예장 | 안정찬 | 1990. 6  | 남동구 구월3동 1370-1    |
| 나섬    | 기장 | 백영민 | 1991. 5  | 부평구 삼산동 225-4      |
| 아름다운  | 기장 | 박경서 | 1992. 1  | 동구 화수2동 35-37      |
| 새누리   | 기장 | 김진수 | 1993. 4  | 김포군 읍북변리 282-3     |
| 희년    | 기장 | 유재성 | 1995. 4  | -                  |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 12. 15

- 인천지역 대학생 40여 명, 자유공원 내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과 자유의 여신상 표석에 ‘강도적 개방압력 미국을 몰아내자’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망치로 부수려고 시도한 뒤 붉은 페인트를 뿌리며 시위를 벌임

『한겨레신문』 제1761호(1993. 12. 16, 한겨레신문사)

## 12. 19

- 도화동 성당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 체결 2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남북합의서의 국회비준과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

『인천기독노동자』 제16호(1994. 01. \*, 한국기독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82)

## 12. 31

- 동남레미콘 노동조합 부위원장 한상근,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당함. 한상근은 이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1995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원창동 소재 공장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진행함. 6월 1일 다시 텐트농성을 시작한 후 6월 5일부터는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는 1995년 6월부터 『동남레미콘 한상근 복직투쟁속보』를 발간해 배포함

「도와 주십시오!」(1995. 06. 28,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M00411830)

『동남레미콘 한상근 복직투쟁속보』 제1호(1995. 06. \*,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M00411823)

# 1994년

\* \*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회’(건치) 창립. 초대회장에 김유성 선출. 1997년 인천지부로 승격한 후 3월에 『건치인천지부소식』 창간호 발행. 건치는 이주노동자 치과진료소 ‘희망세상’과 참의료 실천단 진료사업, 지역 아동센터 구강보건 결연 사업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진료활동과 우리 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사업과 인천지역 불소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http://gcic.gunchi.org/>)

『건치 인천』 제39호(2009. 03.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 01. 09

- 해인교회, 목회자가 사임한 상황에서 전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교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 정동근이 대책위원장을 맡음  
『인천기독노동자』 제17호(1994. 02. 05, 한국기독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79)
- 인천지역 기독노동자연맹, 백마교회에 있던 사무실을 해인교회로 옮김  
『인천기독노동자』 제17호(1994. 02. 05, 한국기독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79)

## 01. 12

- 부평지구 쌀개방대책 기획회의, 전농조직국장을 초빙하여 강연회 개최  
『인천기독노동자』 제17호(1994. 02. 05, 한국기독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79)

## 01. 17

- 인천지역 택시단위노조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가 지역노조를 결성하기로 하고 조합장 24명으로 지역노조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한겨레신문』 제1790호(1994. 01. 18, 한겨레신문사)

## 01. 19

- 인천지역 기독노동자연맹·인천노동조합운동연합,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실에서 범민련 남측 준비위원회 사무차장 신정길 등을 초청해 「통일운동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인천지역 ‘선진노동자’ 18명 참석  
『인천기독노동자』 제17호(1994. 02. 05, 한국기독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79)

## 01. 28

-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인천지방노동청 사무실에서 ‘현정세와 노동운동의 진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1994년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모색함

『인천기독노동자』 제17호(1994. 02. 05, 한국기독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1579)

## 01. 31

- 인천여성의전화, 현강향토문화원에서 개원식 개최. 한국 여성의 전화 첫 지부로 2월 1일부터 상담 업무를 시작

『베를』 제77호(1994. 02. 08, 한국 여성의 전화)

『민주여성』 제16호(1994. 04. 15, 한국여성단체연합)

## 02. \*

- 해반문화사랑회 창립. 91년부터 기획 전시를 벌여오던 송림동 해반갤러리를 기반으로 문을 열고 지역사랑, 문화사랑, 인간 사랑을 이념으로 인천 근대문화 유산 재발견 등 향토문화를 비롯한 지역문화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95년 10월부터 해반문화포럼을 통해 지역문화의 담론을 쌓았고 한국의 근대문화를 주도한 인천의 개화기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탐색을 진행함.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 02. 01

- 선인학원 산하 초중고교 직원 노동조합과 인천전문대학 교직원 노동조합,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2월 1일에는 인천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도 파업을 결의함

『한겨레신문』 제1805호(1994. 02. 02, 한겨레신문사)

## 02. 23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지역노조로 바뀌어 한국노총 인천본부에서 결성식 개최

『전국노동자신문』 제115호(1994. 03. 0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인천여성의전화, 개원 첫 공식 행사로 2월 26일까지 4일간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 「페미니즘 영화축제」 개최

『베를』 제77호(1994. 02. 08, 한국 여성의 전화)

## 02. 24

-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공동 주최로 「생리휴가 폐지반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민주여성』 제16호(1994. 04. 15, 한국여성단체연합)

1994년

02. 28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구체적인 학교발전계획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잠정 폐쇄함

『한겨레신문』 제1834호(1994. 03. 08, 한겨레신문사)

03. 03

-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의 시립화 과정에서 신규임용 되지 못한 교수 및 교직원들이 재임용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장석우 학장실에 모여 농성을 벌임

『한겨레신문』 제1831호(1994. 03. 04, 한겨레신문사)7

- 인천여성의전화, 현강향토문화원에서 상담원 및 회원 확보를 위한 제1기 여성상담학 강의 개강

『베를』 제77호(1994. 02. 08, 한국 여성의 전화)

『베를』 제78호(1994. 03. 18, 한국 여성의 전화)

03. 05

- 인천적십자병원 노동조합 결성

『인노대신문』 제3호(1994. 07. 14,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소식지 『흔울』 창간호 발행

『흔울』 창간호(1994. 03. 05,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03. 06

-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지역 탁아소 연합회, 인천지역 공부방연합회, 인천 여성의 전화, 민중연합 여성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부평4동 성당에서 「제 7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대회」 개최

『한겨레신문』 제1830호(1994. 03. 03, 한겨레신문사)

『민주여성』 제16호(1994. 04. 15, 한국여성단체연합)

03. 08

- 경기인천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모금된 비용으로 ‘UR 국회비준 거부, 정부 재협상’을 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겨레신문』에 ‘민족의 자주권이 걸린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함

『한겨레신문』 제1834호(1994. 03. 08, 한겨레신문사)

03. 10

- 영창악기 해고노동자들, 회사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 시작

「항의서한」(1994. 03. 17, 영창악기 해고노동자 일동·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2924)

## 03. 17

- 영창악기 해고노동자 일동·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이 날 오전 8시 10분경 영창악기 해고노동자 전병렬, 김민식이 회사 경비원 20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해고노동자들의 이유 있는 항의농성을 힘으로 억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요구조건을 명기한 공동 명의의 「항의서한」을 영창악기제조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제출

## 〈요구조건〉

1. 이상우, 서병철 등 귀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전원 원직에 복직시킬 것
1. 1993. 8.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개입 및 폭행조작 사건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
1. 지난 3월 17일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
1. 폭행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할 것
1. 해고노동자들의 파괴된 기물을 전액 변상할 것
1. 귀사가 해고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할 것

「항의서한」(1994. 03. 17, 영창악기 해고노동자 일동·인천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M00402924)

## 03. 19

-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3월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14명의 회원이 참여해 부평역, 작전동, 효성동 등지에서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 전개

『새날을 여는 일꾼』 제19호(1994. 04.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1208)

## 03. 21

- 경동산업 해고노동자들, '해고자 10명 전원 복직, 89년 분신사건에 따른 부상자 치료'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돌입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전국노동자신문』 제119호(1994. 03. 30,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03. 26

- 자유공원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개방반대와 국회 비준저지, 정부 재협상을 촉구하는 인천시민한마당」 개최. 참석자들은 이후 동인천까지

행진함

『새날을 여는 일꾼』 제19호(1994. 04.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1208)

03. 27

- 동흥전기 노동조합 위원장 ·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직쟁의실장 등 4명, 자택에서 각각 연행되어 3월 29일,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한겨레신문』 제1854호(1994. 03. 29,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1855호(1994. 03. 30, 한겨레신문사)

- '간석1동 철거주민 대책위원회'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간석동 붉은마을 철거지역에서 「간석1동 철거주민 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인천연합, 인천민중연합,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인천시본부', 인천연구소, 인천민중학교, 학익동 철거대책위원회, 유신마을 철거대책위원회,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후원

『흔을』 제2호(1994. 12.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붉은 마을 49동 산동네

퇴근길 동네 입구 가게집 앞을 지날 때면 평상에 비스듬이 걸터 앉아 탁수 한 사발에 지친 일과를 마무리하는 검고 주름진 얼굴들이 반겨 맞는다.

먼 남쪽지방에서 올라와 공장일, 막노동, 식당일 등 하루하루의 생활이 힘겨운 대부분의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어도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기에 서로를 위하며 이제껏 살아왔고 철거가 되어도 한 곳으로 이주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사람들.

한때 자식들 교육문제로 사글세 방이라도 얻어 이곳을 떠나려 한 적도 있었지만 정들어 살던 곳. 이곳을 떠나기가 아쉬워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이제 공공개발이란 명분 앞에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온 것 같다.

동네사람들 대부분의 생활이 힘겹다 보니 철거 후에 대한 마땅한 대비책도 없었고 지금껏 살아온 대로 철거후에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



연한 생각, 체념 뿐이었다. 얼마전 8가구 보상 통비를 받고난 후, 주민 회의를 열어 젊은이들을 축으로 대책위를 결성하고 주거연합을 통해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기초 법률지식도 알게 되었다. 법률 지식을 토대로 주민 홍보, 교육에 힘쓴 결과 주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대책위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비협조적이던 일부 사람들과도 대화를 통해 이해시켜 대책위 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주거연합과 상의하여 발대식 일정을 잡고, 주거연합의 지원 아래 청년회, 부녀회원들이 적극 나서 행사장을 꾸미고 플래카드, 피켓, 머리띠 작업, 음식 장만 등 분주히 움직이던 사람들을 볼 때, '과연 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지난 발대식에는 주거연합을 비롯해 도림, 37통, 멀리 서울 각 지역의 철거민들과 연대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비록 주민 일부가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본 사람들은 앞으로 대책위 깃발아래 모여들 것이라 확신한다.

시에서 행하는 재개발, 공공개발이란 명분아래 도시 빈민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서울 철대위 철거민들의 집단 행동과 통일된 동작에서 느낄 수 있었다.

저들처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이주대책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회의도 들지만 내 가정, 우리 모두를 위한 절대적인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우리도 저들처럼, 그보다 더 큰 힘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 아래 주거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흔울』 제2호(1994. 12.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03. 31

- 인천지역 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해소하고 소속 단체들은 인천연합 노동위에 개별단체로 참여하기로 결의

『새날을 여는 일꾼』 제19호(1994. 04.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1208)

### 04. \*

- 인천민중교회연합 · 인천기독교노동자총연맹 · 인천산업선교회,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한 기도회」 개최. 인천노동선교문화원이 주관하고, 인천정의평화목회자협의회 · 영창악기 폭행 조작 진상규명 및 인천 해고 노동자 복직 대

1994년

책위 · NCC 인권위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 인천상담연구단체협의회가 후원함

「이제 해고 노동자를 정든 일터로」(1994. 04. \*, 인천민중교회연합 · 인천기독교노동자총연맹 · 인천산업선교회, M00403557)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수돗물불소화촉구 시민대책위 구성하여 활동 시작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서해광장 창립. 94년 4월, 6월 항쟁 이전부터 지역 민주민중운동에 몸담아 온 인사들이 중심이 돼 '서해광장'을 창립. 93년 7월 경 대선 후 민중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모임을 가져온 것이 모태가 됨. 서해광장은 월레포럼을 개최하며 사회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열고자 했으며, 민주민중운동의 미래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함

송정로, 『인천시민사회운동 20년사』

#### 04. 01

- 인천북부노동사무소 앞에서 40여 명의 해고노동자와 현장 노동자들이 모여 '해고노동자 복직, 영창위원장 선거 조작사건에 대한 즉각 수사와 진상규명, 경동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 전개

『새날을 여는 일꾼』 제19호(1994. 04.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1208)

#### 04. 04

- 강화 여성의 전화 준비모임 발족

『베를』 제81호(1994. 08. 24, 한국 여성의 전화)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시민들에게 선물을 돌려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를 받은 최기선 인천시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한겨레신문』 제1861호(1994. 04. 05, 한겨레신문사)

#### 04. 09

- 김영규 인하대 교수 · 이진 인천지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대표 · 서준식 민주주의민족 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등 각계 인사 35명과 민주주의민족 통일 인천연합 등 21개 단체, '영창악기 폭행조작 진상규명 및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영창악기의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돌입

『한겨레신문』 제1875호(1994. 04. 21, 한겨레신문사)

#### 04. 13

- ‘학익동 삼능주택 철거대책위원회’, 학익동 510번지 공터에서 「학익동 삼능주택 강제철거 규탄대회」 개최

「학익동 삼능주택 강제철거 규탄대회」(1994. 04. 13, 학익동 삼능주택 철거대책위원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04. 30

- 인천미술인협의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개최. 이날 집행부를 구성하여 지도위원 강광, 대표 이종구, 총무 허용철·김재화, 운영위원 도지성·성효숙·김정열을 선출

「황해의 아침」(1994. 12. 15, 인천미술인협의회, 성효숙 소장)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간석동 붉은마을 37동 대책위장 박범래 씨 구속 규탄대회」 개최

『흔을』 제2호(1994. 12.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05. 02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한국노총 탈퇴 및 규약 개정을 결의

『한겨레신문』 제1887호(1994. 05. 03, 한겨레신문사)

#### 05. 06

- 신창튜빙 노동조합, 쟁의발생 신고. 5월 21일 타결됨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8514)

- 영창약기 해고자들, 노동청의 중재로 회사 측과 회의를 갖고 대법원 복직 판결을 받은 이상우 등 4명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함

『한겨레신문』 제1891호(1994. 05. 08, 한겨레신문사)

#### 0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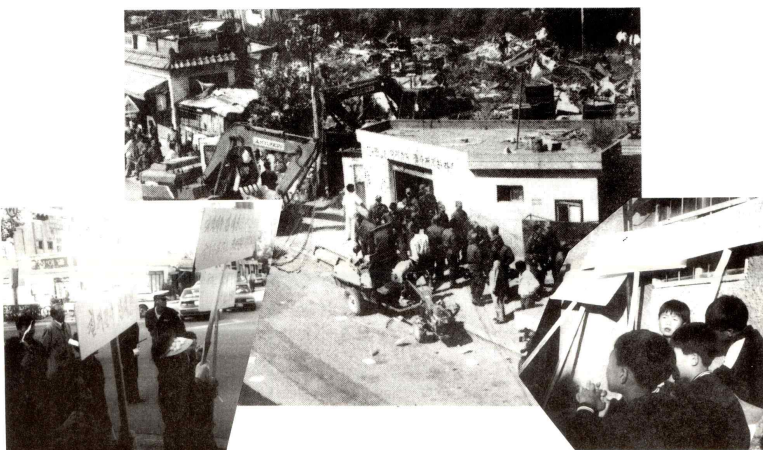
-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추진위원회’ 인천지역 추진위원 15명이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행위원으로 홍학기(보건의료), 문병호(법조), 곽한왕(천주교), 고남석(사업), 홍영표(노동) 등 6명을 선임함

『국민통신』 제2호(1994. 08. 25,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추진위원회, M1994.08.25.)

1994년

94년 봄

# 학익동 삼능사택 강제철거 규탄대회



☞ **언 제:** 1994년 4월 13일 수요일 늦은 2시

☞ **어디서:** 학익동 510번지 공터에서

**주 최:** 학익동 삼능주택 철거대책위원회 (☎872-4820)

**후 원:**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연합. 인천민중연합.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인천지부). 인천연구소. 인천민중학교.

유신마을 철거대책위원회. 붉은마을 철거대책위원회

인하대 총학생회. 인하대 동아리연합회

〈「학익동 삼능사택 규탄대회」 안내 유인물〉

「학익동 삼능사택 강제철거 규탄대회」(1994. 04. 13, 학익동 삼능주택 철거대책위원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05. 14

- 경동산업 노동자 이종화, '노경총 합의 분쇄 및 어용노총 해체'를 요구하며 노총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가 구속 당함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05. 24

- 심지실업 노동조합, 조합원 75% 찬성으로 쟁의발생 신고. 5월 31일 남자 1700원, 여자 1300원의 임금인상안이 타결됨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05. 29

- 인천민중교회연합 소속 교인 200여 명, 십정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개최

『새날을 여는 일꾼』 제21호(1994. 06. 10,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3724)

06. \*

- 인천민중교회연합, 평화의원 원장 임중환을 초청하여 '산재 추방 운동에서의 민중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획 간담회 개최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06. 03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인천시민모임', 인천 갤럭시 호텔에서 「평화통일 4차 정책세미나」 개최. 김대중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이 '우리 민족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강연 진행

『새날을 여는 일꾼』 제21호(1994. 06. 10,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3724)

06. 09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인노대신문』 창간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신고를 결의

『인노대신문』 창간호(1994. 06. 09,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한겨레신문』 제1921호(1994. 06. 10, 한겨레신문사)

06. 10

- 대우자동차, 쟁의발생 결의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8514)

06. 11

- 대흥기계 노동조합, 조합원 8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6월 11일 1700원의 임금인상안으로 타결됨

1994년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8514)

**06. 13**

-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단위노조 대표자회의 개최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M00408514)

**06. 14**

- 인천지역 대학생들, 6월 17일까지 동인천백화점 앞에서 UR국회비준을 반  
대하며 단식 농성 전개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 8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6월 21일 기  
본급 4만 5000원 인상 등의 내용으로 타결됨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한겨레신문』 제1926호(1994. 06. 15, 한겨레신문사)
- ‘유신마을 철거 대책위원회’, 만수2동 유신마을에서 「유신부락 철거 대책위  
원회 발족식」 개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06. 15**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인천대학교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민족민주열사 추모제와 6  
월항쟁 계승대회」 공동 주최. ‘민주열사 27위’에 대한 합동 추모제 등 진행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06. 16**

- 강화 여성의 전화 준비모임, 17일까지 이틀간 강화 여성의 전화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  
『베를』 제81호(1994. 08. 24, 한국 여성의 전화)

**06. 18**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천대학교 인문관에서 「인노협 창립6주년 기  
념식 및 꽃다지 축하공연」 개최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06. 21**

- 동양이화 노동조합, 조합원 97%의 찬성으로 쟁의발생 결의  
『인노대신문』 제2호(1994. 06. 23,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 민중정치연합 인천지부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인천시본부 · 인천새날청년회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 인천민중연합,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백기완을 초청하여 '현정국과 정치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민중교양강좌 10기 기념강연회」 개최. 인천민중학교가 주관하고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이 후원함

「민중교양강좌 10기 기념강연회」(1994. 06. 21, 민중정치연합 인천지부 등,

-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인천지역 추진위원회', 목요회 사무실에서 「국민회의 김근태 공동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30여 명의 추진위원과 국민회의의 결성 취지에 동감하는 지역 인사들이 참석함. 이날 사무실을 주안역 광장 옆 수도유통 건물 2층에 설치하기로 결정함

『국민통신』 제2호(1994. 08. 25,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추진위원회, M1994.08.25.)M00406043)

## 06. 22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UR 국회비준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6월 25일까지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가두 텐트농성 전개

「94년 7-8월 인천 통일운동 평가(시안)」(1994. \*.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4590)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부평4동 성당 교육관에서 「민주노총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노협 창립 6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김영대(전노협 수석부의장)가 「민주노총건설의 의의와 필요성」, 문성현(전노협 사무총장)이 「조직발전 경로」, 최동식(인노협 의장)이 「인천지역 현황」 등을 발표

「인노협 창립6주년 기념토론회-민주노총건설,어떻게 할 것인가?」(1994. 06. 22,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9131)

## 06. 23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제3기 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7·8월 통일사업을 통일시민모임을 추동하여 진행하되 시민모임이 받지 못하는 사업은 인천연합으로 한다'고 결정

『새날을 여는 일꾼』 제24호(1994. 09. 06,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3746)

## 06. 28

- 노동자 통일대 '백두' 준비위원회 발족

「94년 7-8월 인천 통일운동 평가(시안)」(1994. \*.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4590)

## 07. 09

1994년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임금인상 교섭과 관련해 조합원 78.6%의 찬성으로 파업 결의

『한겨레신문』 제1949호(1994. 07. 10, 한겨레신문사)7

### 07. 13

- 고니정밀·대흥기계·현대페인트 노동조합, 부평4동 성당 교육관에서 「94 임투 승리와 통일을 위한 문화공연」 개최

『인노대신문』 제3호(1994. 07. 14,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 대우중공업 노동조합,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쟁의발생신고서 제출. 노동조합은 5월 31일부터 7월 9일까지 15차례 교섭을 벌여 왔으며 '통상임금 10.9% 인상, 상여금 700% 지급' 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였음

『한겨레신문』 제1953호(1994. 07. 14, 한겨레신문사)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인천시민모임'의 제안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과 인천지역 종교 단체 등이 힘을 합해 「인간띠잇기 인천본부 준비위원회 발족식」 거행

「94년 7-8월 인천 통일운동 평가(시안)」(1994. \*.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4590)

### 07. 19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인천시민모임'의 제안으로 추진해 온 '인간띠잇기 인천본부'가 발족식을 거행함

「94년 7-8월 인천 통일운동 평가(시안)」(1994. \*.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4590)

### 07. 20

- 노동자 통일대 '백두' 출범식이 인천대학교에서 거행됨

「94년 7-8월 인천 통일운동 평가(시안)」(1994. \*.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4590)

### 07. 26

- 서구 가좌동 소재 진흥정밀화학 공장에서 폭발사고 발생. 현장에서 모두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 당함. 8월 3일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중이던 박정관이 사망하면서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남.

「진흥정밀화학 폭발사고 개요」(1994. 07.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4544)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장」(1994. 08. 07,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장례대책위원회, M00514716)



## 사망자 약력

## 이병덕

1954년 5월 4일 인천 출생

1978년 2월 25일 인하공업전문대학 화공학과 졸업

1980년 2월 10일 동양화학공업(주) 정밀화학 생산부 입사

1992년 11월 9일 진흥정밀화학 생산부 주임 입사

## 김근수

1956년 5월 1일 충북 보은 출생

1976년 2월 22일 천호 상업고등학교 졸업

1976년 3월 1일 고려가스공업주식회사 입사

1977년 12월 20일 안국약품 주식회사 입사

1982년 3월 6일 진흥정밀화학 입사 생산부 대리

## 김태흥

1957년 12월 9일 경기도 화성 출생

1976년 1월 남산공업고등학교 졸업

1976년 4월 대아정밀 입사

1980년 7월 신양전기(주) 입사

1984년 4월 한양기공 입사

1987년 7월 한일스텐레스(주) 입사

1990년 3월 대성엔지니어링 입사

1992년 8월 27일 진흥정밀화학 입사. 생산부 사원

## 조현길

1962년 9월 7일 대구 출생

1990년 2월 22일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1990년 11월 23일 진흥정밀화학 입사. 생산부 기사

## 이병화

1963년 11월 26일 충남 온양 출생

1983년 2월 11일 온양고등학교 졸업

1988년 4월 17일 한국협화(주) 입사  
1992년 9월 28일 진흥정밀화학 입사. 생산부 사원

이남규

1964년 3월 5일 충남부여 출생  
1984년 2월 10일 충남 부여군 홍산농업고등학교 졸업  
1989년 4월 25일 유진 인테리어 입사. 생산부 사원  
1990년 11월 1일 진흥정밀화학 입사. 생산부 사원

박정관

1965년 4월 8일 전남 해남 출생  
1984년 2월 16일 전남공업고등학교 졸업  
1989년 1월 4일 진흥정밀화학 입사. 노동조합 홍보부장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장」(1994. 08. 07,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 장례대책위원회, M00514716)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10개 지역노동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정식 구성. 초대 노동위원장에게 정동근 인천지역 기독교노동자연맹 회장을 선임. 같은 날 오후 7시, 500여 명의 지역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 통일대 백두출범식」 개최

『새날을 여는 일꾼』 제23호(1994. 08. 13,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3739)

- 조국통일 범민족운동연합 인천·경기서부지부 조직위원회, 7월 26일과 7월 29일 2일에 걸쳐 통일학교 진행. 최규엽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의장이 ‘범민족대회의 역사적 의의와 방향’ 등을 주제로 강연 진행

『새날을 여는 일꾼』 제23호(1994. 08. 13,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3739)

07. 27

- 각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진흥정밀 폭발사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참석자〉

- 최동식 의장(인노협), 박남수 위원장, 김성진 사무처장(인천연합), 오순부 대표(인천상담협 공동대표), 이충각 대표(인천상담협 공동대표),

박세민 상담실장(산보연), 정동근 노동위원장(인천연합)

「진흥정밀화학 폭발사고 개요」(1994. 07. \*,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4544)

## 07. 28

- ‘진흥정밀화학 산재참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진상조사팀이 1차 현장조사를 실시. 공동대표는 오순부(인천노동상담연구단체협의회 공동의장), 김영규(민주교수협의회 인하대학교지회 대표), 이진(목회자 정의 평화실천협의회 의장), 한영환(인천시의원), 홍학기(홍일한의원 원장) 등이 맡음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장」(1994. 08. 07,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 장례대책위원회, M00514716)

「진흥정밀화학 산재참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활동 보고서(1차)」(1994. 07. 28, 진흥정밀화학 산재참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M00404530)

## 07. 29

- 인천지역 각계 인사 121명, ‘신공안탄압 중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시국선언’ 발표

『한겨레신문』 제1968호(1994. 07. 30, 한겨레신문사)

- ‘진흥정밀화학 산재참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서부경찰서를 방문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시신을 찾는 일에 협조 요청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장」(1994. 08. 07,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 장례대책위원회, M00514716)

## 07. 30

- ‘진흥정밀화학 산재참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1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기관에 진상조사 의뢰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장」(1994. 08. 07,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 장례대책위원회, M00514716)

## 08. 01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공안 정국의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공안정국 음모 중단’,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등을 촉구

『인천주보』 제1255호(1994. 08. 07, 천주교 인천교구)

『한겨레신문』 제1970호(1994. 08. 02, 한겨레신문사)

- ‘진흥정밀화학 산재참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사망자 영정을 들고 인천시청에 향의 방문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장」(1994. 08. 07,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

08. 03

- 인천·부천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지역 통일선봉대, 본격적 활동에 돌입함.  
이날 범민족회의 인천지역대표단 구성

「94년 7-8월 인천 통일운동 평가(시안)」(1994. \*.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4590)

08. 04

- ‘진흥정밀화학 산재참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유가족 등 40여 명, 인천시청 방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노동청장 면담과 항의 방문을 진행  
『새날을 여는 일꾼』 제23호(1994. 08. 13,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3739)

08. 06

- ‘한만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인천시민모임’, 8월 7일까지 이틀간 백운공원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민 통일문화대동제」 개최

『새날을 여는 일꾼』 제23호(1994. 08. 13,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3739)  
「94년 7-8월 인천 통일운동 평가(시안)」(1994. \*.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4590)

08. 07

- 진흥정밀화학 폭발사고로 희생된 노동자 7명의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장」 거행 성민병원에서 발인 후 동암남부역에서 영결식을 가진 후 진흥정밀화학 정문 앞에서 노제를 지냄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장」(1994. 08. 07, 진흥정밀화학 산업재해 노동자  
장례대책위원회, M00514716)

08. 11

- 인천대학교 민주광장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족대회 성사와 국토순례단 환영대회」 개최

「94년 7-8월 인천 통일운동 평가(시안)」(1994. \*.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4590)

08. 24

- 인천대학교 민주광장에서 300여 명의 노동자 통일대 ‘백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결산 보고대회」 개최

『새날을 여는 일꾼』 제24호(1994. 09. 06,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3746)  
「94년 7-8월 인천 통일운동 평가(시안)」(1994. \*.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M00404590)

09.\*

- 청량산시민모임 창립

09. 02

- 인천노점상연합회, 남동공단 녹지공원에서 노점상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개최

『새날을 여는 일꾼』 제24호(1994. 09. 06,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43746)

09. 05

- 동흥전기 노동조합 위원장(인노협 사무처장),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강제 퇴직’ 당한 데 대하여 이를 항의하며 회사 정문 출입을 시도하다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부상당함

『인노대신문』 제4호(1994. 10. 13,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09. 10

- 「공안통치분쇄 인천시민대회」가 동인천역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됨. 참가한 시민·학생·노동자들은 제물포역까지 가두캠페인을 전개

『새날을 여는 일꾼』 제25호(1994. 10. 17,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0864)

- 인천지역 문학단체 연합수련회가 영종도 안젤라캠프장에서 진행됨

『글터』 제11호(1994. 12. 10, 인천노동자문학회, M00407663)

09. 11

- 석남동 약수터에서 「해고자 복직 축하 한마당」이 100여 명의 해고자·지역인사·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새날을 여는 일꾼』 제25호(1994. 10. 17,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0864)

09. 12

- 동부제강 노동조합, 48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감

『인노대신문』 제4호(1994. 10. 13,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09. 14

- 인천·부천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개강진군식과 대의원대회」 개최.

『새날을 여는 일꾼』 제25호(1994. 10. 17,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0864)

09. 16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북구청 세무비리에 대한 제1차 성명서 발표

『새날을 여는 일꾼』 제25호(1994. 10. 17,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0864)

09. 24

-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 창립대회가 부평4동 성당에서 개최됨

09. 29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제7년차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10. \*

- 인천민중교회연합, 「제1회 산재 정책 세미나」 개최.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하종강과 코리아 스파이서 노동조합 위원장 박남수가 ‘인천지역 산재의 쟁점과 사회적 실천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음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10. 01

- 경동산업 복직노동자 3명, 회사에 첫 출근을 하였으나 서울·부산·대구로 각각 발령 받음  
『새날을 여는 일꾼』 제25호(1994. 10. 17,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0864)

10. 05

- 인천여성노동자회, ‘성, 연애, 결혼’을 주제로 한 「제2기 젊은남녀를 위한 교양강좌」를 우석장학회에서 진행함. ‘X세대의 사랑학’, ‘새롭게 배우는 성의 심리학’, ‘새롭게 배우는 성의 생리학’, ‘집중점점! 미혼남녀의 성과 사랑의 현주소’,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사는 법’ 등 총 5강좌로 구성됨  
『새날을 여는 일꾼』 제25호(1994. 10. 17,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0864)  
『제2기 젊은남녀를 위한 교양강좌』(1994. 10. 05, 인천여성노동자회, M00407777)
- 민중정치연합 인천지부, ‘산별노조와 정당’이라는 주제로 총 8강좌 일정의 「94 노동강좌」 개강  
『새날을 여는 일꾼』 제25호(1994. 10. 17,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0864)

10. 06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인노대) 준비위원회, 10월 7일까지 이들 간 장흥수련원에서 단위노조 대표자수련회 개최. 34개 노동조합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인노대 발족 결의  
『인노대신문』 제4호(1994. 10. 13,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10. 08

- 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의전화·기독교민회 인천부천위원회·인천민중연합 여성위원회, 여성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 4년과 여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여성』 제17호(1994. 10. 30,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여성』 제18호(1995. 04. 15, 한국여성단체연합)

『새날을 여는 일꾼』 제25호(1994. 10. 17,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0864)

#### 10. 14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인천대학교에서 「제3기 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점상연합 가입 승인 등의 현안을 결정

『새날을 여는 일꾼』 제25호(1994. 10. 17,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M00330864)

#### 10. 20

-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 발족. 홍재웅, 이충각, 정영한, 양재덕, 박영복, 주복균, 유영훈이 공동대표로 위촉됨. 7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 발족식 자료집』(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10. 29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발족식 및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1994 인천노동자 가을 문화제」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노동과 희망』 제8호(1994. 11. 29, 인천노동선교문화원, M00357449)

#### 11. 02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회사 측과 1984~1987년 사이에 해고된 노동자 홍영표·박재석·전희식·유길중 등 4명을 1995년 1월 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함

『한겨레신문』 제2056호(1994. 11. 03, 한겨레신문사)

#### 11. 21

-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강당에서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현충런 인천지역 노동교실」 진행. ‘인천제철, 고려산업개발, 현대자동차서비스 인천지부, 현대해상 인천’ 등을 대상으로 함

「현충런 인천지역 노동교실 안내」(1994. 11. \*,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합 교육선전국, M00365727)

#### 11. 26

- 「제2회 인천민족문학제」가 월미도 문화의거리에서 개최됨

『글터』 제11호(1994. 12. 10, 인천노동자문학회, M00407663)

『한겨레신문』 제2074호(1994. 11. 23, 한겨레신문사)

1994년

12. \*

-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래 공연」 개최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12. 03

- 인천·부천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 20여 명, 부천세무서에 폐인트 병을 던지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달아남

『한겨레신문』 제2085호(1994. 12. 04, 한겨레신문사)

12. 04

- 인천환경운동연합 창립. 공동대표에 최원식 교수와 호인수 신부가 선출됨

『한겨레신문』 제2086호(1994. 12. 06, 한겨레신문사)

12. 05

- 인천여성노동자회 주부 분과 회원들을 주축으로 하여 지역 환경 실천을 목표로 한 「환경을 살리는 주부모임」 창립

『민주여성』 제18호(1995. 04. 15, 한국여성단체연합)

12. 11

- 도림동 철거지역에서 ‘논현·도림동 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흔들』 제2호(1994. 12.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12. 14

- 인천여성의전화, 기금 마련을 위한 패티김 콘서트 주최

『베를』 제82호(1995. 01. 10, 한국 여성의 전화)

12. 15

- 전국반핵운동본부, 동인천역에서 「목요반핵집회」를 개최하고 굴업도 핵폐기장의 부당성 홍보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31쪽(2002. 01. 24,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백서 발간위원회)

-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산재노동자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 개최

『노동과 희망』 제8호(1994. 11. 29, 인천노동선교문화원, M00357449)

- 인천미술인협회의회, 인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12월 20일까지 창립전 「황해의 아침」 개최. 초청 강연으로 인하대학교 성완경 교수가 ‘도시환경의 변화와 미술문화의 새로운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



「황해의 아침」(1994. 12. 15, 인천미술인협의회, 성효숙 소장)

## 12. 17

- 인천여성노동자회 봉제여성 노동자 회원들이 주축이 된 봉제생산자협동공동체 「웃누리」가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설립됨. 조합원은 5명, 대표는 이미숙

『민주여성』 제18호(1995. 04. 15, 한국여성단체연합)

- 덕적면 서포1리 주민들, ‘굴업도 핵폐기장 결사반대 서포1리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 선출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31쪽(2002. 01. 24,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백서 발간위원회)

## 12. 18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회의실에서 인천 지역 철거민들과 함께 「인천 철거민 주거권 쟁취대회」 개최  
『흔을』 제2호(1994. 12.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소장)

## 12. 19

- 강화여성의전화 개원

『베를』 제82호(1995. 01. 10, 한국 여성의 전화)

## 12. 20

- 덕적면 주민 200여 명, 면사무소에 모여 ‘덕적면 서포3리(굴업도) 핵폐기장 반대투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선출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31쪽(2002. 01. 24,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백서 발간위원회)

## 12. 22

- 인천지역 각계 인사 419명, 정부의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결정에 반대하며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결성  
『한겨레신문』 제2118호(1995. 01. 10, 한겨레신문사)

## 12. 23

- 「범 인천시민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운동」 38개 참여단체, 인천시민회관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후 주안역까지 가두시위 벌임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33쪽(2002. 01. 24,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백서 발간위원회)

## 12. 30

1994년

- 환경운동연합 · 배달녹색연합 · 환경과공해연구회 · 한국교회환경연구소 · 천주교환경사제모임 · 불교환경교육원, '굴업도에 제2의 성수대교가 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굴업도 핵폐기물 처분장 최종 후보지 선정은 '1995년도의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기존의 원전부지에 임시저장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

「굴업도에 제2의 성수대교가 선다?」(1994. 12. 30,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

M00342286)

# 1995년

## 01. 09

- 각계인사 457명을 중심으로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내 미추홀 레스토랑에서 개최됨. 이날 ‘인천앞바다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최종후보지 확정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정

###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구성〉

| 구분   | 소속 교회                                                                                                                                                               |
|------|---------------------------------------------------------------------------------------------------------------------------------------------------------------------|
| 위원장  | 김병상(목요회 회장, 만수1동 성당 주임신부)                                                                                                                                           |
| 운영위원 | 강 광(인천대 교수)<br>김승묵(변호사)<br>오경환(천주교 인천교구 총대리 신부)<br>배경숙(인하대 교수)<br>이준직(전 감리교 중부연회 감독, 중앙교회 목사)<br>임남재(임소아과 원장)<br>지용택(새얼문화재단 이사장)<br>최락구(변호사)<br>최세진(덕우회 고문, 인하대 교수) |
| 사무처장 | 최원식(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인하대 교수)                                                                                                                                          |

『한겨레신문』 제2118호(1995. 01. 10, 한겨레신문사)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35~36쪽(2002. 01. 24,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백서 발간위원회)

## 01. 12

- 덕적면 주민과 인천지역 반핵운동단체 회원 등 300여 명, 동인천역 광장에서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건설저지 대회」를 개최

『한겨레신문』 제2121호(1995. 01. 13, 한겨레신문사)

## 01. 13

1995년

- 덕적면 주민 김계월(62세), 웅진군청 앞에서 개최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시위에 참석한 후 막내딸 집에 도착해 사망함. 이날 '덕적면 반투위' 총무 부장 장석찬이 폭력혐의로 구속됨

『한겨레신문』 제2123호(1995. 01. 15, 한겨레신문사)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37~38쪽(2002. 01. 24,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백서 발간위원회)

#### 01. 15

- 덕적면 주민 250여 명, 1월 13일 웅진군청 앞에서 개최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시위에 참석한 후 사망한 김계월 씨 사건과 관련해 답동 가톨릭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씨의 사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굴업도를 핵폐기장 최종 후보지로 결정한 뒤 반대하는 주민들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며 과잉진압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 이후 동인천역 앞, 웅진군청 앞 등지를 점거하며 시위 전개

『한겨레신문』 제2124호(1995. 01. 16, 한겨레신문사)

#### 01. 16

- 인천세광병원 노동조합, 『함성』 발간

『함성』(1995. 01. 16, 인천세광병원 노동조합, M00514503)

#### 01. 18

- 서인천 시민모임 준비위원회, 가정3동 성당 오용호 신부와 고백교회 김영철 목사 등을 중심으로 서구지역 변호사·의사·교사 등 30여 명이 모여 결성

『한겨레신문』 제2154호(1995. 02. 19, 한겨레신문사)

#### 01. 20

-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하여 1월 25일로 예정된 '방사성성폐기물 관리사업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연기를 정부 당국에 요구

『한겨레신문』 제2129호(1995. 01. 21, 한겨레신문사)

#### 01. 24

-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경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대회 개최.

## 〈조직 구성〉

| 직위           | 성명                                                                                                                                                                                                                                                                                                                                                                                             |
|--------------|------------------------------------------------------------------------------------------------------------------------------------------------------------------------------------------------------------------------------------------------------------------------------------------------------------------------------------------------------------------------------------------------|
| 상임 고문 및 지도위원 | 김용태(한진그룹 고문), 나길모(천주교 인천교구 주교), 송찬교(양지원공구 원장), 신태범(향토사학자), 이기인(부성염업사 대표), 이바울(전 감리교 중부연회 감독), 이벽(전 언론인), 이영호(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장), 이도경(부평문화재단 이사장), 임명방(인하대학교 교수), 한만호(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 회장), 이영희(인하대 법정대학장), 황규록(창영교회 담임목사)                                                                                                                                                                              |
| 공동 대표단       | - 상임대표 : 김병상(목요회 회장), 지용택(새얼문화재단 이사장)<br>- 공동대표 : 강광(인천대 예·체능 대학장), 김승묵(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배경숙(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양재덕(인천연합 의장), 오경환(천주교 총대리 신부), 원영무(전 인하대학교 총장), 이창운(인천YMCA 총무), 이춘직(전 감리교 중부연회 감독), 임남재(인천시 의사회 회장), 정법윤(인천불교연합회 회장), 최락구(변호사), 최세진(덕우회 고문)                                                                                                                                            |
| 운영위원         | 문병호 변호사(인천변협 인권위원장), 호인수 신부(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 위원장), 홍순욱 목사(서부교회), 박창화(인천 경실련 정책위원장), 곽한왕 의장(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 김영호 교수(민교협 인하대학교 지부장), 박재윤 교수(인천대학교 교수), 박찬진 교수(인천전문대학 교수), 오순부(인천노동상담소 소장), 홍성훈 원장(홍정형외과), 홍재웅(목요회 운영위원장), 박한주(금속노련 인천본부장), 구수영(택시노련 인천지부장), 최동식(인노대 공동대표), 이가림(민예총 인천지부장), 조일도(연출가), 정화영(서해광장 회장), 류진철(인천지구 JC회장), 최경진(전 인천지구 JC회장), 장원자(인천YWCA 총무), 안웅선(새얼문화재단 기획관리실장), 이충각(참여 연대 회장) |
| 집행위원장        | 위원장 : 박영복(인천 경실련 집행위원장), 부위원장 : 황선진(서해광장 총무)                                                                                                                                                                                                                                                                                                                                                   |

|      |                    |
|------|--------------------|
| 사무총장 | 최원식(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 대변인  | 이진(제2동인교회 목사)      |
| 사무국장 | 정희윤(목요회 간사)        |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결성대회」(1994. 01. 24,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M00406865)

「정부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하라」(1995.  
02. 25, 인천핵대협 사무실, M00332051)

## 02. 11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2월 12일까지 대표자수련회를 개최하고 임  
투방침 수립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02. 17

- 부평시민모임 창립대회가 북구 관내 변호사·의사·세무사 및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됨. 1994년 10월 북  
구청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 결성된 '북구 세무비리 규탄대책위원회' 참  
여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됨. 정관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자  
치행정에 참여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한겨레신문』 제2154호(1995. 02. 19, 한겨레신문사)

「정관」(\*.\*\*, 부평시민모임, M00404782)

## 02. 21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후문가에서 「핵폐기장 건설 반대를 위한  
청년결의대회」 개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투쟁 경과보고 및 덕적도 주민  
대표 서재송의 연설 등으로 구성. 결의대회 후 동인천역 광장으로 이동하  
여 실천대회 진행

『인하대학신문』 제828호(1995. 03. 06, 인하대학신문사)

## 02. 22

- 민중정치연합 인천지부, 「임투와 지자제 그리고 노동자」라는 주제로 3월  
10일까지 인천지부 강당에서 매주 수·금요일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827호(1995. 02. 20, 인하대학신문사)

## 02. 25

-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 협의회, 경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한국  
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굴업도 핵폐기장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 개최

「정부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하라」(1995.

02. 25, 인천핵대협 사무실, M00332051)

### 03. 03

- 덕적면 주민 200여 명,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등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덕적면사무소 앞에서 덕적면장 면담을 요구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주민과 경찰 40여 명이 부상 당함

『한겨레신문』 제2166호(1995. 03. 04, 한겨레신문사)

### 03. 04

- 덕적면 주민 100여 명, 3월 3일 덕적면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밤샘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2167호(1995. 03. 05, 한겨레신문사)

### 03. 05

- 경기인천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핵심 투쟁 과제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 선정

『인하대학신문』 제829호(1995. 03. 13, 인하대학신문사)

### 03. 10

- 연수구의회,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계획 취소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발송

『한겨레신문』 제2172호(1995. 03. 11, 한겨레신문사)

### 03. 11

-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개최

『한겨레신문』 제2173호(1995. 03. 12, 한겨레신문사)

『인하대학신문』 제829호(1995. 03. 13, 인하대학신문사)

### 03. 15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학원발전과 교육개혁을 위한 「95년 청년인하 해오름제 및 투쟁선포식」을 개최한 후 인천시민회관까지 가두행진 전개

『인하대학신문』 제830호(1995. 03. 20, 인하대학신문사)

### 03. 18

- ‘덕적도 핵폐기장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소속 덕적도 주민 30여 명, 답동

1995년

가톨릭회관 5층에서 핵폐기장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밤샘농성 시작

『한겨레신문』 제2181호(1995. 03. 21, 한겨레신문사)

**03. 24**

- 경기인천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25일까지 이틀 간 인하대학교에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인천시민회관에서 열린 ‘핵폐기장 반대시위’에 참가, 인천 시청까지 가두 행진 전개

『인하대학신문』 제831호(1995. 03. 27, 인하대학신문사)

**03. 25**

-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인천시민회관에서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 쫓기대회」 개최. 이에 앞서 인천·부천청년연합 소속 대학생 및 덕적도 주민 등 1000여 명이 동인천 및 부평역 광장에서 각각 집회를 갖고 인천시민회관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여 쫓기대회에 합류함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 쫓기대회」(1995. 03. 25,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대책 범시민협의회, M00435970)

『한겨레신문』 제2186호(1995. 03. 26, 한겨레신문사)

**03. 30**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학생 5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과 자치권 인정’을 요구하며 학생총회 개최. 총회 후 학생 2000여 명이 본관을 점거

『인하대학신문』 제832호(1995. 04. 03, 인하대학신문사)

**04. 12**

- 인천·경기 북부지역 감리교회 목회자 150여 명, 신흥동 중앙감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한겨레신문』 제2202호(1995. 04. 13, 한겨레신문사)

**04. 14**

- 인천·부천지역 대학총학생회 연합 소속 학생 500여 명, 인천대학교에서 집회를 갖고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저지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결성

『한겨레신문』 제2204호(1995. 04. 15, 한겨레신문사)

**04. 22**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임투전진대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04. 29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9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선봉노동조합단 1차 대표자 회의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인노대 선봉노조단 투쟁보고 및 해단식』(1995. 09. 22,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M00409114)

-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동인천 인천백화점 앞에서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제2차 시민궐기대회」 개최 사전문화공연으로 「정태춘과 함께하는 반핵평화의 노래」 공연

「가자! 모이자! 동인천역으로」(1995. 04. 29,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M00848216)

『한겨레신문』 제2218호(1995. 04. 30, 한겨레신문사)

05. 06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통일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장에 박노봉을 선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인천제철 노동조합, 임금협상 결렬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

『한겨레신문』 제2223호(1995. 05. 07, 한겨레신문사)

05. 12

- 인천 등 6개 시·도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시도별 조직을 해산하고 전국 단일 노동조합인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부에 설립신고서 제출

『한겨레신문』 제2228호(1995. 05. 12, 한겨레신문사)

05. 13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산재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자체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장에 최동식을 선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05. 15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양재덕 의장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25명,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폐기장 철회와 구속·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

『한겨레신문』 제2232호(1995. 05. 16, 한겨레신문사)

05. 16

1995년

-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학생 11명,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건설 결사저지를 위한 청년학생결사대'라고 밝힌 후 인천시청 시장실에 들어가 소화기를 뿌리는 등 농성을 벌임

『한겨레신문』 제2233호(1995. 05. 17, 한겨레신문사)

-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의회 속기록 분석 보고서」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배틀』 제86호(1995. 05. 20, 한국 여성의 전화)

#### 05. 17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선봉노동조합단 간부결의대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박영복 집행위원 등 6명,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실에서 5월 20일까지 시한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5백억 원 지역발전기금 사용과 관련한 공청회 취소, TV 토론회 개최,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

『한겨레신문』 제2234호(1995. 05. 18, 한겨레신문사)

#### 05. 18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15주기 기념 추모제」 및 「5·18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총체적 민생파탄과 민중탄압분쇄를 위한 청년인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인천시민회관 앞까지 행진, 인천·부천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이 주최하는 「굴업도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5·18결의대회」에 참석. 이후 참석자들은 인천시청까지 평화 시위를 진행한 후 희망백화점 앞에서 해산함

『인하대학신문』 제836호(1995. 05. 22, 인하대학신문사)

#### 05. 20

-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건설을 결사반대하는 민족 시립 인천대학교 교수, 학생, 직원일동' 명의로 '민족의 생존권인 인천 앞바다폐기장! 정부는 즉각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고시를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한겨레신문』에 게재됨

『한겨레신문』 제2236호(1995. 05. 20, 한겨레신문사)

-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비가 오는 가운데 동인천역 앞에서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제3차 시민궐기대회」 개최. 참가자들은 「서해의 한려수도, 핵폐기장 웬말인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답동 성당, 대한서림 앞 등지로 행진을 이어가다 경찰의 진압에 밀려

답동성당 앞으로 집결. 일부 학생들은 폭력 진압 항의와 연행 학생 면담을 위해 중부경찰서 앞으로 이동하여 시위 전개.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수십여 명이 연행됨

『한겨레신문』 제2237호(1995. 05. 21, 한겨레신문사)  
『인하대학신문』 제836호(1995. 05. 22, 인하대학신문사)

#### 05. 21

- 인하대학교 학생 100여 명, 전날인 5월 20일 개최된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제3차 인천시민결기대회」 당시 자행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인하대학교 후문 도로에서 「총체적 민생파탄 분쇄 및 연행학우석방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동인천역에서 진행 중인 인천·부천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시민선전전에 합류

『인하대학신문』 제836호(1995. 05. 22, 인하대학신문사)

- 인천부천지구총학생회연합, 전날인 5월 20일 개최된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제3차 인천시민결기대회」와 관련해 중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연행자 전원 석방' 등을 요구

『인하대학신문』 제836호(1995. 05. 22, 인하대학신문사)

#### 05. 23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총체적 민생파탄 분쇄와 김영삼의 폭력진압 규탄을 위한 청년인하 결의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837호(1995. 05. 29, 인하대학신문사)

#### 05. 24

- 5월 20일 개최된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제3차 인천시민결기대회」 당시 자행된 경찰의 폭력 진압과 관련해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인천에 파견하여 조사활동 진행

『한겨레신문』 제2240호(1995. 05. 25, 한겨레신문사)

#### 05. 25

-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반민중적 핵폐기장 건설 반대 및 총체적 민생파탄 분쇄, 폭력 탄압 분쇄, 청년인하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천시민회관까지 행진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정석항공고등학교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해산함

『인하대학신문』 제837호(1995. 05. 29, 인하대학신문사)

#### 06. 07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지자체 노동 공청회」 개최

1995년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06. 09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

『한겨레신문』 제2254호(1995. 06. 10, 한겨레신문사)

06. 10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95공동임단투 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06. 11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인천 건설일용노조 합법성 쟁취 보고대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06. 13

- 인천대학교 공학관 앞 잔디밭에서 국방부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선 전용 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이 터져 학생 4명이 중화상을 입음

『한겨레신문』 제2258호(1995. 06. 15,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2259호(1995. 06. 16, 한겨레신문사)

06. 20

-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부분파업 돌입

『선봉노조단 소식』 제2호(1995. 06. 28, 인노대 선봉노조단, M00407273)

- 한양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부분파업 돌입. 6월 28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들어가며 철야농성을 시작함

『선봉노조단 소식』 제2호(1995. 06. 28, 인노대 선봉노조단, M00407273)

06. 21

-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 성당에서 사제와 신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성당 공권력 난입에 따른 교회와 국가를 위한 미사」 거행

『한겨레신문』 제2264호(1995. 06. 22, 한겨레신문사)

06. 22

- 린나이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부분파업 돌입. 6월 24일 기본급 8만 원 인상 등을 타결함

『선봉노조단 소식』 제2호(1995. 06. 28, 인노대 선봉노조단, M00407273)

07. 07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부평 등 4개 지부에서 전면 파업 돌입

『한겨레신문』 제2278호(1995. 07. 07, 한겨레신문사)

#### 07. 11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7월 23일까지 「통일특위 통일교실」 진행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07. 15

- 동인천역에서 95년 산업재해추방의 달 인천지역공동사업추진위원회가 진흥정밀화학 산재참사 1주기 추모제 및 산재추방 결의대회 개최. 산재없는 일터회,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인천연합노동위, 평화의원 상담실, 진정추인천시본부, 인천대 산업안전공학과, 건치인천지회, 산보연, 건약, 상담협이 참가함

「공추위 문서번호 제95-6-05호 2차 간담회 보고」(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제공)

#### 07. 16

-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계양구 계산동 싸이클 경기장에서 조합원 33명이 참가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김명숙을 위원장으로 선출. 김명숙은 1995년 2월 28일 위원장에 당선된 바 있으나 회사 측이 참석인원을 문제삼아 인정하지 않았으며 6월 27일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해고 당함

「대한마이크로전자(주) 노동조합 탄압사례」(1995. 11. \*,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 탄압과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M00404906)

#### 07. 24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검찰이 7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5·18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 ‘인천시의회는 5·18 관련 검찰 결정의 무효화와 기소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라’ 등을 요구

「성명서」(1995. 07. 24,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M00477036)

-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 평가수련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08. 03

- 인천여성의전화, 부평구 부평5동 동사무소 안에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하고 개소식 개최

『한겨레신문』 제2301호(1995. 08. 01, 한겨레신문사)

1995년

08. 04

-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제6차범민족대회 인천경기서부지역 노동자추진위원회 결성대회」 개최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 인천경기서부지역 노동자추진위원회 결성대회」(1995. 08. 04, M00403752)

08. 05

- 인천대학교 등 인천·경기지역 대학 교수 107명, '5·18관련자 공소권 포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5·18공소권 없음'결정은 역사와 정의를 땅에 묻어버리는 행위'라고 규정

『경향신문』 제15503호(1995. 08. 06, 경향신문사)

08. 12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8·15민족공동행사 인천 노동자 참가단 발대식」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08. 14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제1차 중앙위원회'와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민족공동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제적생 정민주, 가톨릭대 성심교정 회계학과 2학년 이해정 등 여대생 2명을 남측대표로 하여 베를린범청학련 공동사무국 사무국장 최정남과 함께 북한에 파견했다고 발표

『동아일보』 제22939호(1995. 08. 15,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제2313호(1995. 08. 15, 한겨레신문사)

08. 15

- 『인천일보』 노동조합, 회사 측이 노동조합 간부 등을 타지역 지방주재기자로 발령낸 데 항의해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천지방노동청에 고발

『한겨레신문』 제2314호(1995. 08. 16, 한겨레신문사)

08. 21

- 『인천일보』 편집국 기자 40여 명, 회사 측이 노동조합 간부 등을 타지역 지방주재기자로 발령 낸 데 대하여 항의하며 밤샘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제2333호(1995. 09. 05, 한겨레신문사)

08. 22

-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 인천시장에게 핵폐기장 타당성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건의

『한겨레신문』 제2320호(1995. 08. 23, 한겨레신문사)

## 08. 27

- ‘인천지역 노동조합’ 명의로 ‘5·18관련자와 12·12쿠데타 주동자를 구속기소’, ‘내란 주동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불량품과 같은 역사,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한겨레신문』에 게재

## 〈‘인천지역 노동조합’ 명단〉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신창튜빙 노동조합, 한국샤프 노동조합, 코리아 스파이서 노동조합, 동양이화노동조합, 경동산업 노동조합, 한라중공업 노동조합, 진흥정밀화학 노동조합, 동양철관 노동조합, 한국노총연합주택노동조합, 도투락 노동조합, 아남산업 노동조합, 동국제강 인천지부 노동조합, 린나이코리아 노동조합, 아남정공 노동조합, 한국분말 노동조합, 삼지실업 노동조합, 풍산금속(부평) 노동조합, 삼익악기 노동조합, 한양공영 노동조합, 대우전자인천 노동조합, 동서식품 노동조합, 대우중공업 노동조합, 대원강업인천 노동조합, 대림통상 노동조합, 인천제철 노동조합, 동흥전기 노동조합, 대원제강 노동조합, 전택노련 인천광역시지부 노동조합, 한국화학장치 노동조합, 동성상공 노동조합, 고니정밀 노동조합, 롯데기공 노동조합, 삼민화학 노동조합, 동남레미콘 노동조합, 진도(부평) 노동조합, 신광기업 노동조합, 이천전기 노동조합

『한겨레신문』 제2324호(1995. 08. 27, 한겨레신문사)

## 09. 04

- 『인천일보』 노동조합,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회사 측이 노동조합 간부 7명을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타 지역으로 발령 낸 조치에 반발하여 신문제작을 거부하기로 결정

『한겨레신문』 제2333호(1995. 09. 05, 한겨레신문사)

## 09. 22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인천대학교 인문관에서 선봉노동조합단 해단식을 개최하고, ‘5·18학살주범 기소 촉구’를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인노대 선봉노조단 투쟁보고 및 해단식』(1995. 09. 22,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M00409114)

1995년

09. 23

- 부평 동아시티백화점 앞에서 「5·18불기소 처분 반대 및 특별법 도입을 위한 인천시민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841호(1995. 09. 25, 인하대학신문사)

09. 25

- 『인천일보』 사태와 관련해 인천지역 각계 인사 278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간부 등을 지방 주재기자로 발령 낸 조치를 부당인사라고 주장하며 인사 철회와 대기발령 기자의 전원 원상복직을 촉구.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이날 상여금 체불과 관련해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 노동청에 고발함

『한겨레신문』 제2351호(1995. 09. 26, 한겨레신문사)

09. 29

- 인하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교직원 노동조합·총학생회로 구성된 '범인하인 서명 및 대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5·18 학살자 처벌과 김영삼정권 규탄을 위한 범인하인대회」가 통일광장에서 개최됨. 교수·학생·교직원 등 1500여 명 참여. 대회가 끝난 후 동인천으로 향하기 위해 후문을 나선 학생들은 용현고개 삼거리에서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 전개

『인하대학신문』 제842호(1995. 10. 02, 인하대학신문사)

09. 30

-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5차 국민대회」 개최.

『인하대학신문』 제842호(1995. 10. 02, 인하대학신문사)

10. 03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대표로 북한에 파견한 정민주·이혜정,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하다가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됨

『매일경제신문』 제9230호(1995. 10. 04, 매일경제신문사)

『한겨레신문』 제2358호(1995. 10. 04, 한겨레신문사)

10. 06

- 인천·부천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인하대학교 통일광장에서 「5·18학살자 처벌과 김영삼 정권 퇴진을 위한 인부총련 제2차 결의대회」 개최. 대회가 끝난 후 인하대학교 후문을 통해 가두 행진을 하였으나 성광교회 앞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당함

『인하대학신문』 제843호(1995. 10. 09, 인하대학신문사)

『한겨레신문』 제2361호(1995. 10. 07, 한겨레신문사)

#### 10. 07

- 동인천역 광장에서 「인천 앞바다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인천시민결의대회」 개최. 덕적도 주민 300여 명과 학생·시민 등 1백여 명 참여.

『인하대학신문』 제843호(1995. 10. 09, 인하대학신문사)

#### 10. 10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건설을 위한 기획 토론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10. 11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소속 54개 단위노조 위원장들, 인천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

『한겨레신문』 제2365호(1995. 10. 12, 한겨레신문사)

#### 10. 14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10월 15일까지 확대간부 수련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건설 논의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10. 23

-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회사 측에 의해 철거당함

「대한마이크로전자(주) 노동조합 탄압사례」(1995. 11. \*,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 탄압과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M00404906)

#### 10. 25

-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조합사무실 철거에 항의해 정문 앞에서 농성 전개  
「대한마이크로전자(주) 노동조합 탄압사례」(1995. 11. \*,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 탄압과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M00404906)

#### 10. 28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인천노동자 가을문화제」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10. 31

- 감리교 중부연회 목회자협의회 이화식 목사 등 인천지역 목회자 140여 명, '노태우씨를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한겨레신문』 제2384호(1995. 11. 01, 한겨레신문사)

11. 03

- 인천·부천지역 대학생 1000여 명, 동인천역 앞에서 5·18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답동 성당까지 거리행진 전개

『한겨레신문』 제2387호(1995. 11. 04, 한겨레신문사)

11. 23

-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 탄압 및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김영규 인하대학교 교수, 최동식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의장, 김경희 인천연합 노동위원장, 최상림 여성노동자회 회장, 김명숙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위원장, 이영진 해협 사무장, 김창호 인천민중연합 부의장 등 7명이 참가해 결성함

「대한마이크로전자(주) 노동조합 탄압 및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2차 대책회의」(1995. 11. 28, M00404910)

『한겨레신문』 제2414호(1995. 12. 03, 한겨레신문사)

11. 25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진도·마이크로 노동조합 탄압 분쇄와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수도권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 탄압 및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한마이크로전자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합사무실 강제철거를 공식 사과하고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 집단폭행과 성폭행을 한 남자관리자 처벌’ 등을 촉구

「대한마이크로전자(주) 노동조합 탄압 및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2차 대책회의」(1995. 11. 28, M00404910)

11. 28

- 아암도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아암도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됨

「핏빛 아암도(고 이덕인 열사 투쟁 자료집)」(1996. \*. \*, 장애인 노점상 고 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M00174526)

12. \*

- 인천민중교회연합,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산재 노동자와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

「인천민중교회연합 97」(1997. 02. 16, 인천민중교회연합, M00337737)

12. 06

- 고백교회, 「창립 6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노동상담소 개소강연회' 개최  
『고백교회』 제1호(1995. 12. 06, 고백교회, M00340961)

12. 21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비상대표자회의 개최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12. 22

-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6개 시민단체, 성명서를 발표해 동국제강, 동양화학 등 특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조사를 검찰에 촉구  
『한겨레신문』 제2433호(1995. 12. 23, 한겨레신문사)
- 인천지역 노점상·학생 등 300여 명,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장애인 노점상 살인적 강제철거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시청 앞까지 거리 행진 전개  
『한겨레신문』 제2433호(1995. 12. 23, 한겨레신문사)

12. 29

-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민주노총 건설에 따라 발전적 해체를 결정하고 공식 해산. 이후 1996년 1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창립.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창립 선언문'에서 '이제 노동자의 진정한 사회, 정치적 권리의 확보와 조국의 통일, 노동자 통일을 위해서도 산별노조의 쟁취는 반드시 이루어나야 하며 노동자 중심의 모든 민중세력의 연대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함

‘인천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해산 결의문

오늘, 우리는 노동해방과 민주노조운동의 숭고한 투쟁정신을 안고 선봉에 서서 달려 온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의 해산을 엄숙히 선언한다.  
7년을 한결같이 권력과 자본에 맞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운동을 불꽃같은 투쟁으로 사수하였기에 그 이름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인.노.협!

이제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런 이름을 천만노동자의 가슴에 묻는다.

87년 7, 8월

뜨겁던 피약별 아래, 붓물처럼 터졌던 노동자 대투쟁,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구사대, 공권력 탄압에 맞서 공장의 장벽을 넘  
어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했던 동지들.

그로인하여 비로소 노동자가 생산의 주인이며, 역사의 원동력임을 가  
슴 떨리는 감격으로 확인했고, 민주노조의 투쟁을 담아 낼 강고한 조직  
을 필요로 했다.

그때 인노협은 기꺼이 민주노조 운동의 구심이길 선언하고 오로지 한  
길, 노동자 투쟁의 명확한 궤도가 되어 흔들림 없이 달려 왔다.

연대와 투쟁으로 민주노조의 꽃을 활짝 피운 인노협,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운동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이끌어 온 인노  
협은 노조와해, 업무조사, 위장폐업, 고용불안, 구속, 수배, 해고 등 무수  
한 탄압에 맞서 온몸 불살라 투쟁했다.

탄압이 거세면 거셀수록 연대투쟁과 공동투쟁으로 더욱 박차고 일어  
섰던 불패의 투쟁 정신, 그 정신으로 노동악법을 막아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했다.

그리고 대공장 연대회의, ILO공대위, 인노대로 뭉쳐 일어섰으며 끝내  
는 민주노총 건설, 산별노조 건설을 향한 힘찬 기관차가 되어 역사의  
거대한 줄기를 이루었다.

천만노동자의 계급적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 자본과의 비겁한  
타협을 거부하고, 투쟁속에 민주노조 운동의 지평을 넓혀 온 인노협이  
여!

이제 동지의 투쟁을, 땀을, 피를, 생명을 묻어 온 조직, 인노협은 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해산을 결의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인노협을, 전노협을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  
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선봉장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기운 찬 원동력으로,  
주인으로 우뚝서는 노동자의 과학성으로,  
노동자해방을 향한 노동계급의 힘찬 전진 속에 인노협은 영원히 살아  
투쟁하는 것이다.

동지들!

우리는 인노협이 발전적인 해소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다.

투쟁으로 일궈 온 인노협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도 겸허히 평가하며 민주노총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등의 남겨진 과제를 부여 안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때다.

이제 우리는 자주적인 민주적인 노동조합 정신을,  
연대와 투쟁으로 지켜 온 인노협을, 인노협 정신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노동해방 새 세상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하리라.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만세!!!

노동해방 만세!!!

1995년 12월 29일

「인노협 7년활동 사업보고」(1995. 12. 29,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M00406534)



## 주요 참고문헌

### 1. 신문

『경기매일신문』, 『경기신문』, 『경향신문』, 『대중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인노협신문』, 『인천신보』, 『인하공대신문』, 『인하대학신문』, 『인하학보』, 『전국노동자신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 2. 회보·소식지

- (주)삼미 이진희씨 분신 임시대책위원회, 『속보』 제1호(1991. 06. 09) · 제2호(1991. 06. 15)
- 가톨릭민중교육연구회, 『지향』 제7호(1989. 06. 01)
- 간석1동 49통 붉은마을 철거대책위원회, 『붉은고개』(1994. 04. 30) / 『붉은마을 49통 사람들』(1994. 11. 14)
- 금영실업 노동조합, 『금영소식』 제1호(1988. 04. 19) / 『샘』 제2호(1992. 07. 25)
- 남동공단 해고자, 『남동의 메아리』 제1호(1990. 02. 27)
- 노동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노동자대학』, 1호~6호\*5호(1989. 10. 15)<sup>부터는 발행처가 노동자대학으로 바뀜</sup>
- 논현·도림동 대책위원회, 『갯골마을』(1994. 12. 11)
- 놀이패 한광대, 『광대세상』 창간호(1987. 12. 27) · 제3호(1988. 04. 10)
- 대영운수 노동조합, 『대영노보』(속보) 철야농성 10일째[1987. 10. 03] · 12일째 · 17일째[대영노조](1987. 10. 10)
- 대한마이크로노동조합, 『아람』 제1호, 제5호
- 대한성공회 송림동 나눔의집, 『송림동 나눔의집』 제16호(1995. 06. 25)
- 대흥공업사 노동조합 파업대책위원회 홍보부, 『햇새벽』 제1호(1988. 07. 07)
- 대흥기계 노동조합, 『대흥기계노보』 제16호(1991. 12. 19)
- 동서식품 해고자, 『원직복직 그날까지』 제3호(1993. 04. 07) · 제4호(1993. 04. 15) · 제6호(1993. 05. 13) · 제8호(1993. 06. 05)
- 동성상공 노동조합, 『불꽃』 제10호(1991. 12. 30)~제11호(1992. 12. 30)

## 주요 참고문헌

- 동일방직 복직투쟁위원회, 『동지회보』 1979년 1월호(1979. 01. 01) · 7월호 · 8월호 · 11월호(1979. 11. 01)
- 동일운수 노동조합, 『동일노보』 제7호(1987. 10. 03)~제9호 · 제14호 · 제15호(1987. 10. 11) / 『특보』(1987. 10. 18)
- 동흥전기 노동조합, 『동지』 제1호(1992. 05. 12) · 제7호 · 제8호(1992. 10. 30)
- 만석동 아가방, 『만석동 아가방 나눔』 제2호(1990. 11. 25) · 제4호(1991. 09. 25)
- 명신여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 『명신여고 투쟁속보』 제4호(1990. 03. 31) · 제6호~제10호(1990. 05. 07)
- 명신여고 민주화추진 학생위원회, 『명신 농성속보』 제2호(1990. 05. 16)
- 명신여자고등학교 참교육 홍보부, 『봄이 오는 교실』 1호(1990. 04. 06)~4호(1990. 05. 03),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3호부터는 발행처가 명신여자고등학교 학생위원회로 바뀜
- 목재 노동자회, 『목재노동자』 제1호
- 민주교육추진 인천지역 교사협의회, 『인천교사신문』 제1호(1987. 10. 01)~제3호(1987. 12. 05)
-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인천연합』 제1호(1992. 02. 18) · 제3호 · 제9호 · 제11호 · 제12호 · 제14호(1992. 10. 15)
- 민중당 북구를 지구당, 『부평민중당보』 1991년 10월 15일(창간호)
-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민중문화』 제2호(1984. 08. 01). 제4호~제9호. 제11호, 제15호
- 반도상사 부평공장지부, 『한마음』 제1호(1975. 02. 28)
- 백마교회, 『백마주보』 제8권 16호(1991. 04. 28)
- 삼호 · 데크레코 · 대호 위장폐업분쇄 공동대책위원회, 『사생결단』 제1호(1988. 07. 29) · 제2호(1988. 08. 02)
- 새봄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새봄교회』 제11권 18호(1991. 05. 05)
- 세경의류 노동조합, 『북소리』 12(1989. 07. 08)
- 송림사랑방교회 송림어린이집, 『솔밭 아이들』 창간호(1987. 12. \*)
- 송림사랑방교회, 『사랑방 소식』 제2권 23호(1987. 07. 05) · 제2권 42호 · 제2권 47호 · 제2권 49호(1987. 12. 13) · 제3권 1호(1987. 01. 10) \*제3권의 발행일이 제2권보다 빠름



- 신광기업 노동조합, 『신광의 소리』 제1호(1987. 08. 19)~제3호·제5호·제6호·제16호(1988. 02. 15)·송년호(1991. 01. 10)
- 영본가구 노동조합, 『영본노보』 창간호(1988. 08. 22)~『딱따구리의 함성』(1988. 08. 29)
- 인우테크레코 노동조합, 『사막의 샘』 제1호(1987. 10. 03)·제2호(1987. 10. 17)
- 인천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특보 제1호(1987. 10. 02)~제3호(1987. 11. 10) / 『속보』(1988. 01. 15)~『속보』(1988. 10. 27) / 『인천부천 운수노보』 제1호(1987. 11. 18)~제4호(1988. 04. 13)
- 인천기독병원 노동조합, 『인기노보』 제4호(1989. 09. 06) / 『속보』 제24호(1992. 10. 16)
- 인천노동선교문화원, 『노동과 희망』 제4호(1993. 06. 15)·제6호·제8호·제12호~제15호·제18호(1998. 05. 16)
- 인천노동자문학회, 『글터』 제2호(1992. 03. 28)·제4호·제11호(1994. 12. \*)
- 인천민중연합, 『여럿이 함께』 제4호(1990. 10. 20)·제6호·제7호
-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 제1호(1989. 12. \*)~제4호·제8호·제9호·제11호~제13호(1991. 03)
-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 준비호(1989. 11. 15)·제1호(1989. 12. \*)·제2호~제4호·제8호·제9호·제11호~제13호(1991. 03. \*)
- 인천지역 공부방연합회, 『햇볕한줌』 제1호(1994. 04. 06)
-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협의회,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협의회』 제3호(1985. 12. 25)~제5호(1986. 03. 18) / 『인천민주가족』 제1호(1987. 10. 22)·제2호(1987. 11. 27) / 『구속동지소식』 제1호(1989. 06. 28)
-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인노대신문』
- 인천지역 노동조합 활성화추진위원회, 『노활추 소식』 제1호(1990. 09. 21)~송년호(1990. 12. 27)
- 인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대협신문』 창간호(1989. 04. 28)
-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인천지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주정부』 제2호(1992. 03. 11)
- 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민주노조』, 제1호(1988. 08. 30)~제6호·호외 2(1987. 08. 31) /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남부지부, 『인사연사람들』 제2호(1990. 07. 25)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북부지부, 『인사연사람들』 제2호(1990. 02. 28)~제4

## 주요 참고문헌

- 호 · 제6호(1990. 11. 30)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인천의 소리』, 제2호(1985. 05. 25)~제14호, 제17호~제19호, 제21호 · 제23호 · 제34호 · 제39호 · 제40호(1989. 05. 30)
- 인천지역 인권선교위원회, 『인천인권소식』 제2호(1986. 07. 04) · 제3호 · 제6호(1987. 02. 01)
- 인천지역 주민회, 『월간 더불어 사는 이웃』 제5호(1991. 03. 10) · 7호(1991. 05. 15)
- 전국노점상연합회, 『가로수』
- 제성정밀 노동조합, 『제성소식란』 제4호(1988. 06. 12)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흔을』 제1호(1994. 03. 05) · 제2호(1994. 12. \*)
- 주안5동 산동네 세입자 대표협의회, 『산동네의 메아리』 제1호(1988. 11. 10) · 제2호(1988. 12. 07) · 제3호(1989. 01. 10)
- 주안5동 세입자 주택건립 추진위원회, 『삶의 메아리』 제1호(1989. 11. 06) · 제2호(1989. 11. 20)
- 진도노동조합 부평지부, 『노동의 햇불』 1호(1990. 11. 11)~7호 · 10호 · 18호(1994. 11. 11)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인천북구갑지부, 『진보정치』 제1호(1992. 06. 23) / 『(가칭) 삶터』 제2호(1992. 09. 04)
- 진흥정밀화학 노동조합, 『진흥노보 임투속보』 제1호(1993. 05. 28) · 제2호(1993. 06. 20) / 『임금인상투쟁』 속보 제1호(1988. 06. 26)
-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 제6호(1987. 05. 01) · 제9호 · 제11호 · 제19호 · 제20호 · 제24호 · 제25호 · 제27호 · 제42호(1990. 10. 31)
- 천주교 인천교구 청년회, 『늘 깨어있는 가톨릭청년』 제2호(1986. 04. 17)
-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 인천』
-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주보』, 1979년 11월 첫째주부터 발행 시작
- 청보산업 노동조합, 『한울타리』 제19호(1991. 08. 14)
- 태연물산 노동조합, 『새아침새소식』 제6호(1987. 10. 21)
- 학익1동 삼능사택 철거대책위원회, 『삼능소식』(1993. 11. 11) · 『삼능소식』(1994. 04. 13)
-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노동청년』, 제61호(1968. 06. \*) · 제62호 · 제67호 · 제68호 · 제70호 · 제71호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여성부, 『샘물』 창간호(1987)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새날을 여는 일꾼』 제19호(1994. 09) · 제21호 · 제23호~제25호(1994. 10. 17)
- 한국기독교노동자 인천지역연맹, 『인천기독교노동자』 제10호(1993. 06) · 제15호 · 제16호 · 제17호(1994. 02. 05)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투쟁의 소리』 제1호(1987. 08. 19)~제3호(1987. 08. 28)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함성』 제1호(1985. \*. \*)~제6호 · 제8호 · 제9호(1986. 01. 24) / 『투쟁의 소리』 제1호(1987. 08. 19)~제3호(1987. 08. 28), 『투쟁의소리』(1988. 04. 30)
- 한국대양전기 노동조합, 『새벽』 제8호(1988. 07. 15) · 제12호 · 제17호 · 제18호 · 제20호~제22호 · 제24호 · 제25호(1991. 01. \*)
-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여성』 합본호, 1997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베를』 합본호, 1999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경향잡지』
- 한우리 마을 자치운영 준비위원회, 『한우리』 제3호(1989. 12. 10) · 제4호(1990. 03. 04)
- 한우리회, 『월간 한우리』(1990. 01. \*)
- 현진섭유 해고자, 『미싱바늘』(1990. \*. \*)
- 흥창물산 · 상민전자 · 동국제관 · 수복기계 · 우성기계 노동조합, 『공동소식지』 2(1992. 05. 27)

### 3. 단행본

- (사)6월항쟁계승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월 항쟁을 기록하다』, (사)6월항쟁계승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2011, 『계양산 골프장 반대운동 6년의 기록』,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백서 발간위원회, 2002,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운동 백서 발간위원회
- 김금수, 2004, 『한국노동운동사』 6, 지식마당
- 노동자역사 한내 엮음, 2013,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연표』(1963

## 주요 참고문헌

- ~2011), 한국지엠지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2, 『민주화운동 일지』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통련창립20주년기념행사위원회, 2005,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창립 20주년 민·통·련』, 민통련창립20주년기념행사위원회
- 송정로, 2008, 『인천시민사회운동20년사』, 명문미디어아트팩
- 이우재·나준식·노현기, 2005,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통일방직복직추진위원회, 2008, 『다시 기계 앞에 서고 싶다』, 통일방직복직추진위원회
- 이현주, 2008, 『해방전후 통일운동의 전개와 시련』, 지식산업사
- 인천교구사 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편, 1991, 『인천교구사』,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교구사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인천교구사』, 천주교 인천교구
-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 편찬위원회 엮음, 2009, 『인천근현대 문화예술사연구』, 인천문화재단
- 인천의원·평화의원·푸른치과 상담실·남동진료소, 『건강한 노동자 깨어 있는 노동자』 제1호(1991. 02. 21)·제3호·제4호·제7호(1991. 11. 11)
-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엮음, 1988,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진 -민주노조연합과 민주노조협의회』, 거름
- 인천항운노동조합, 1995, 『인천항변천사』, 인천항운노동조합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 1 (기나긴 어둠을 찢어 버리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전국체신노동조합, 2008, 『체신노동운동 50년사』, 전국체신노동조합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2010, 『범민련 10년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Ⅲ)·(Ⅳ)·(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3, 『한국노총 50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수출산업공단, 1994, 『한국수출산업공단30년사』, 한국수출산업공단

#### 4. 연구 논문

- 「(특별좌담) 시민운동 25년의 회고와 전망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78, 새얼문화재단, 2013
- 김귀옥, 2004, 「1960, 70년대 의류봉제업 노동자 형성과정 -반도상사(부평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화사회』 61, 비판사회학회
- 김민호, 1997, 「노동교육 운동에 관한 연구 : 인천 '노동자대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교육사회학)
- 김민호, 1997, 「노동교육 운동에 관한 연구 : 인천 '노동자대학'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미래를』 26,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김민호, 1997, 「인천 '노동자대학' 교육 프로그램 분석」, 『논문집』 26, 제주교육대학교.
- 김민호, 1998, 「인천 '노동자 대학' 합법화 운동, 1988-1995」, 『사회교육학연구』 4, 1, 한국사회교육학회.
- 김진국, 「노동운동가 하종강 -30년 노동운동의 토대가 된 인천」, 『황해문화』 78, 새얼문화재단, 2013
- 김학철, 1997, 「(현장보고)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회의 복직투쟁 10년사 : "10년간의 눈물, 원직복직의 도장으로 닦으십시오"」, 『월간 사회평론 길』 97권 6호, 사회평론
- 성효숙, 2004, 「인천민미협·미술위원회 그리고 인천민예총」, 『인천문화비평』 제15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 오오타 오사무(太田修), 「해방직후 어느 노동자의 일상생활 -인천의 전기공 I씨의 일기로부터」, 『민족문화연구』 5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유경순, 2011,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영희, 1996, 「화수동 언덕의 햇살」, 『월간 샘터』 27, 샘터사
- 이준모, 1996, 「인천민중교회연합의 역사와 과제」, 『시대와 민중신학』 3,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 주요 참고문헌

- 이진, 1990, 「해직교사 복직에서 학생자치 권리선언까지 -명신여고 사태를 보고」, 『새가정』 403, 새가정사
- 이진숙, 2008,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창립의 문제의식과 현재」, 『사회운동』 85, 사회진보연대
- 이진호, 2003, 「성장하는 민중교회의 모델 해인교회」, 『새가정』 2003년 10월호, 새가정사
- 이현주, 1999, 「해방과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인천」, 『황해문화』 7-4, 새얼문화재단
- 임명방, 1994, 「인중 시절과 태극기에 대한 기억」, 『황해문화』 2-4, 새얼문화재단
- 임송자, 2010,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와 한국노총의 갈등·대립」, 『사람』 35, 수선사학회
- 조정아, 1997, 「노동자대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평생교육)
- 한재영, 2014, 「인천지역 민주노조운동사 ① -『인천지역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사회운동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물꼬』 4,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5. 기타

- 『인민노련 혁명을 꿈꾸다』(영상), MBC(2005. 05. 01)